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발표 논문집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발표 논문집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연구재단, 조선력사학학회, 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Koguryo Research Foundation, Korean History Association(DPRK),
Far Eastern State Technical University(Russia)

고구려연구재단
KOGURYO RESEARCH FOUNDATION

인사말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조선역사학학회 허종호 위원장님,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 투르모프(Турмов) 총장님, 운루(Унру) 부총장님, 북과 남에서 오신 훌륭한 학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러시아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국제학술회의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이 국제회의가 성사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허종호 위원장과 투르모프 총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자랑스런 우리 고대의 역사에 대해, 북과 남의 학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표하고 토론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모임은 해방 후 북과 남의 역사학계 학자들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 기념비적인 회의이며,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동족의 이름으로 공동의 마음을 교환하는 아주 뜻 깊은 행사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훌륭한 역사와 문화는 후손인 우리들에 의해 잘 가꾸어지고 지켜져야 하며, 민족의 정통성은 바로 이러한 역사 인식에서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학술회의가 열리는 이곳 블라디보스토크는 지난날 발해의 영토였고 근

세에는 우리의 항일전사들이 일제와 싸운 곳으로서, 선열들의 영혼이 서려 있는 뜻 깊은 곳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 그리고 광복을 맞이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뜻 깊은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당당히 지키고 아끼면서 동시에 이웃나라와는 선린의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리는 '혼'이기에 역사의 왜곡은 당대와 후대에 혹독한 비판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항상 겸손하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역사의 보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번 행사의 일정은 짧지만 서로 만나 학문을 논하다 보면 서로 많은 것을 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 러시아 학자들이 발해유적을 발굴하면서 연구한 여러 결과들을 북과 남의 학자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발해와 고구려 역사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뜻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학문은 항상 넓은 시각에서 연구해야 훌륭한 업적이 나오고 만인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국제학술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남과 북의 학자들이 따뜻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투르모프 총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학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학문적 업적을 많이 이루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LCOME ADDRESS

President Ho Chongho of Korean History Association (DPRK),

President Gennady P. Turmov and Vice -President Petr P. Unru of Far Eastern State Technical University,

Distinguished Schola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Our Russian Colleagues,

It is an honor and a privilege for me to welcome you and to make a few remarks o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at Vladivostok, Russia. First, I would particularly like to thank Mr. Ho Chongho and Mr. Turmov for their assistance in thoughtfully and successfully organizing the conference.

This is the conference in which Korean scholars of the North and South get together to discuss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This is also the largest inter - Korean academic meeting since the liberation, and it is significant that we agree in our view of China's Northeast Project. As our national legitimacy derives from historical consciousness, we must cultivate and defend history and cul-

ture of our ancestors.

Vladivostok belonged to the state of Parhae, and it was also the place where we carried on our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ts.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rotectorate Treaty forced on by Japan and the 6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Our conference here at Vladivostok signifies our determination to preserve our history and our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neighboring states.

History is the "spirit" that determines the nation's identity. Deliberate distortion of history will inevitably face severe criticism and judgments of today and tomorrow. Thus, historians must always be modest yet carry the "sword" of history in making stern judgments.

While the conference will last only for a few days, I trust that our sharing of insights and ideas will provide a great learning

experience. We also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our Russian colleagues who will share their excavation reports and research of Parhae sites. This will surely broaden the horizon of Koguryo and Parhae history, and scholarship needs to be approached from a wide perspective to elicit sympathetic response of the people.

I would like to wish for the great success of this conference, and I again express my appreciation to President Turmov for his assistance in organizing this conference.

Finally, I would like to wish the best for our Korean colleagues, and I eagerly look forward to future scholarly achievements.

Thank you.

Kim Jung Bae
President, Koguryo Research Foundation

개회사

●**허종호** (조선력사학학회 위원장)

북과 남, 해외동포 력사학자 대표여러분!
로씨야 력사학자 대표, 각계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민족자주와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고있는 벅찬시기에 그리고 고구려사문제가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는 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 력사학자들이 여기 우호적린방인 로씨야의 변방도시 울라지보스또크에 모여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가지게 된것을 매우 기쁜 일로 생각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북측 력사학학회의 이름으로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하여 여러 나라 국경을 넘나드시며 불철주야 로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배리사장선생을 비롯한 남측의 여러 분들과 중국 연길휘포쏘프트웨어개발유한공사 권수동사장선생, 북측의 실무일군들, 그리고 학술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5년간,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은 여러차례에 걸친 학술토론회와 자료 및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형식의 모임을 가지여 외세에 의해 외곡되고 짓밟힌 민족사를 바로 잡고 고수해나가며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모임들은 평양과 금강산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있었으며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모임장소가 어디이건 관계없이 북과 남의 력사학자들은 하나의 목소리, 한결같은 걸음으로 우리 민족사에 대한 외곡과 날조에 반격을 가하였으며 투쟁과 창조, 자주로 빛나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를 긍지높이 고수해왔습니다.

민족사를 고수하기 위한 북남력사학자들의 공동활동과정에 우리들은 분명 한 피줄을 이어받은 겨레이고 단군민족의 후손임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북남지식인들의 련대와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7천만겨레의 대단합과 민족통일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민족의 위업수행에서 우리가 내디딘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울타지보스또크에서 열린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이 자랑스러운 협조와 단합의 전통을 더욱 살려나가며 민족앞에 지닌 우리 지식인들의 사명을 보람차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뜻깊은 모임으로 될것입니다. 더욱이 로씨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민족사의 정통을 고수하려는 우리의 공동노력은 더 큰 국제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조국통일의 국제적련대도 그만큼 강화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에 관한 북과남, 로씨야학자들의 30여건에 달하는 권위있는 론문들이 발표되게 됩니다.

저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론문들이 반만년 우리 민족사의 기본구성체로서의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력사적지위를 옳게 밝히고 고조선-고구려-고려에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을 힘있게 론증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개회의 인사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ADDRESS

Distinguished Korean Scholars of the North, South, and from Overseas,

Esteemed Russian Scholars and Guests,

On behalf of the Korean History Association (DPRK),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welcome histori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at Vladivostok, Russia.

I wish first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President Kim Jung Bae of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other participants from the South, Mr. Kwon Sudong of Yanji Software Development Company, scholars and administrators from the North, and all others who have provided assistance in organizing the conference.

In the past five years since the historic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re have been many inter-Korean academic c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erences and cooperation to correct and preserve our history that has been distorted by others, and we have accomplished much. We have met in P'yongyang, in Mt. Kumgang, and in Japan, and Korean historian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refute historical distortions and fabrications and defended our nation's history of struggle, creativeness, and independence.

Inter-Korean joint historical activities have demonstrated that we are one people and further strengthened our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unity of 70 million Korean people and national unification. However, they represent only the first steps.

Today's conference here at Vladivostok continues our tradition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It is a truly meaningful gathering for us who carry the intellectual obligation to the nation. Participation

by Russian scholars provides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for our endeavor to preserve Korean historical tradition. It will certainly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Korean unification.

More than 30 paper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will be presented by Korean and Russian scholars in this conference. I have no doubt that these papers will confirm the place of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in Korean history and clearly establish the Old Choson - Koguryo - Koryo historical succession of the Korean nation.

Thank you.

Ho Chongho
President of Korean History Association (DPRK)

C O N T E N T S

【고조선】

- 고조선사회의 계급, 계층별 구성 | 허종호 · 23
-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분포상 특성 | 서국태 · 36
- 고조선의 강력한 군사력 | 최영실 · 46
-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문헌적고찰 | 권승안 · 56
-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 | 문 혁 · 73
- 만조선의 통치제도 | 김유철 · 90

【고구려】

- 고구려와 그 시조 동명왕에 대한 력사적인식 | 강세권 · 107
- 高句麗의 國內地域 遷都와 意味 | 금경숙 · 121
- 國內城시기 고구려 都城의 구조 | 임기환 · 148
- 고구려도성의 특징과 력사적지위 | 김경삼 · 167
-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屬民에 대한 연구 | 김현숙 · 181
-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義 | 이성제 · 216
- 4~5세기 고구려의 무기·부장과 중장기병 | 이인철 · 262
-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
  -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 | 고광의 · 292

- 평양지역 고구려 천문벽화무덤의 천문도 복원 문제
  –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의 복원을 중심으로 | 김일권 · 313
- 고구려 중기(5세기~6세기 초)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제재와 그 연원 | 김진순 · 331
- 무덤벽화에 반영된 고구려의 정치, 군사 및 문화의 독자성 | 지승철 · 349
- 고구려풍습을 통해 본 조선민족의 력사적전통
  – 온돌유적과 수자를 중심으로 | 조희승 · 358
-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 | 박영해 · 399
- 중세 동아시아에서의 '책봉'과 '조공'체계의 본질에 대하여 | 최준경 · 406
- 남북의 고구려 역사연구 협력방안 | 최광식 · 416

【발 해】

- 발해는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독립국가 | 정창규 · 427
- 정치제도에 반영된 발해의 황제국가적성격 | 공명성 · 437
-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 | 림호성 · 447
- 발해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와 고구려와의 계승관계 | 차달만 · 4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발해의 령역확장과 그것을 통하여 본 고구려계승의식 | 채태형 · 473
- 對日本關係를 통해서 본 渤海의 外交戰略 | 구난희 · 484
- 대외교통로를 통해 본 渤海와 新羅 관계 | 김은국 · 502
- 발해와 당의 경제교섭
  -중국학계의 인식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 윤재운 · 520
- 남북한·중국·일본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교 연구
  | 임상선 · 534
- Могилы бохайских воинов найденные в могильнике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Суйфун в 2003–2004 году.(수이푼 강 연안 체르냐티노 5 발해 武將古墳) | Ю. Г. Никитин.(유티 니키틴) · 548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고고유적) | Ивлиев А.Л.(A. L. 이블리예프) · 585
- Тюркские руны и время образ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돌궐 룬문자와 발해국 형성의 문제) | Н.Н. радин(N. N. 크라딘) · 623
-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ИСТОРИЯ ИССЛЕДОВАНИЯ(크라스키노 성터 연구사) | Болдин В.И.(V. I. 볼딘) · 641
-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обме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Бохае.(발해 도자기와 발해내 유통과정) | Гельман Е.И.(E. I. 겔만) · 680

일러두기

1 ‖ 본 책은 200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던 남•북•러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엮은 발표집이다.

2 ‖ 본 발표집은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던 순서에 따라 논문을 게재하였다.

3 ‖ 고조선사의 경우 남한 참가자들이 발표하였던 논문은 별도로 발간할 예정이므로 본 발표집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4 ‖ 발표집의 논문 중 최영실, 김유철, 박영해, 최준경, 채태형의 논문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다.

5 ‖ 북한 논문의 경우 우리말 표준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북한에서 표기한 원문 그대로를 수록하였다.

6 ‖ 러시아 논문은 정연욱 박사가 번역을 담당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
–
Old Chos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사회의 계급, 계층별구성

허종호 (조선력사학학회 위원장)

해당 사회주민의 계급, 계층별구성을 밝히는것은 그 사회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기초적인 작업이다. 주민의 계급, 계층별구성을 밝혀야 사회의 성격을 규정지을수 있고 사회성격을 규정해야 민족이 인류력사발전단계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명백히 할수 있다.

고조선은 우리 민족사에서의 첫 국가이며 국가는 계급의 통치기구이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주권을 장악한 통치계급이 있고 그의 지배를 받는 광범한 피지배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고조선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구체적으로 어떤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이다.

그런데 고조선의 주민의 계급, 계층을 밝혀주는 문헌자료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는 고고학적자료들과 고조선판도안에 후국으로 있었던 부여 등 나라들에 대한 중국사서들의 자료에 의거하는수 밖에 없다.

그 자료들에 의하면 고조선의 지배계급은 국왕을 비롯하여 중앙 및 지방의 대소귀족관료들로 이루어진 노예소유자들이며 피지배계급은 평민층인 호민들과 소농민 및 수공업자, 상인들 그리고 사회의 하층들인 하호들과 노예대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수 있다.

먼저 고조선사회의 지배계급인 노예소유자의 구성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유물이라면 누구나 다 고인돌무덤과 비파형단검 및 강상, 루상무덤을 먼저 꼽는다. 사실 고인돌무덤을 비롯한 이 유적들은 고조선의 력사에서 많은 문제에 대하여 말해주고있다.

우리 학계는 대형, 특대형고인돌무덤을 상층지배계급의 무덤으로 인정하고있으며 그 크기는 귀족관료들의 권력과 재부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그 무덤들은 귀족관료들에게 생사여탈의 권리를 빼앗긴 노예대중의 강제적집단로동의 창조물이라고 확언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고인돌무덤은 권력의 상징이며 재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고인돌무덤의 크기는 권력의 대소, 재부의 다소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축조에 구현된 로동의 성격을 반영하고있다. 이로부터 고인돌무덤의 형태와 크기, 립지조건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무덤의 주인공과 무덤축조에 사역된 사람들의 계급신분관계를 밝혀낼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3만여기의 고인돌무덤가운데서 특대형, 대형에 속하는 것은 뚜껑돌의 무게가 112.4t으로 계산되는 안악군 로암리의 고인돌과 94.12t의 연탄군 오덕리 1호고인돌무덤 등이며 길이가 각기 7.78m, 8.3m 나 되는 뚜껑돌은(로암리고인돌의 경우) 길이 5.5m, 높이 3.6m, 두께 0.5m 되는 2개의 큰 고인돌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고인돌무덤들은 거의 모두가 산마루 또는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거나 평지에 있는 경우에도 5~10여m 높이로 터를 돋군우에 축조되였으며 대체로 어느 고인돌

무덤의 중심에 위치하고있다.[1]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돌무덤의 축조공정을 채석과 운반, 가공, 축조로 나누어 대략 50t급의 무덤축조에는 2,000~2,300여공수가 필요하며 100t급이면 그 배의 로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2] 한 공수를 매일 17~18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해도 이것은 매일 460명의 로력이 10일간, 230명이면 20일간 만가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덩이가 크고 터가 높은 곳일수록 갑절 더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을것이며 당시의 생산력발전수준에서 실천은 산술적계산보다 더 어려웠을것이다. 민간에서 고인돌무덤을 '신석(神石)'이라고 불렀고 '신의 힘'에 의해 축조[3]되었다고 전한 것은 이 때문일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이 어려운 공사를 조직한자는 누구이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혹자들은 원시사회말기 추장의 지휘밑에 공동체성원들의 자원적로동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이렇듯 가혹한 로동을 공동체성원들의 혈연적뉴대와 호상협조의 관습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생사여탈의 무제한한 강권을 가진 노예소유자만이 강요할수 있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는 노예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특대형고인돌무덤의 주인공은 국왕이나 대관료, 귀족이며 무덤의 규모가 작을수록 무덤주인의 직위도 낮았고 재부도 적은 중소

1)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사회과학출판사), 9쪽.
2) 「평양일대 고인돌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단군학연구』 8호, 23쪽.
3) 『고조선지역의 고인돌무덤연구』(백산자료연구원), 289~290쪽.

관료였을것이라고 보고있다. 고조선에서 이러한 관료귀족은 전조선의 8가들과 만조선의 비왕, 상, 장군들에 대등한 중앙의 관료들 그리고 수천, 수백가를 거느린 제가(諸家)들과 후국의 군장, 거수, 장수들 및 지방의 귀족관리들일것이다. 이들가운데 국왕 및 중앙의 대귀족관료들과 제가들은 수백명의 노예를 사역하며 로암리와 오덕리의 고인돌무덤과 같은 대형고인돌무덤을 축조할수 있는 대노예주였다고 볼수있다. 그리고 뚜껑돌에 별자리를 그려놓은 무덤의 주인공도 일정한 천문학적지식을 갖고 하늘에 래세의 행운을 기원할줄 아는 유산자들, 상층, 귀족관료였을것이다.

룡곡리 고인돌무덤은 지방 중소관료귀족의 무덤으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보이고있다.

전문가들은 청동 단추와 활촉이 나왔고 주변의 무덤보다 유별나게 큰 4호무덤(4.8m×3.2m×0.6m)의 주인공을 번쩍이는 장식용단추를 패용하고 권위를 뽐내는 고위관료로 보며 그 곁에 있는 비파형창끝과 별도끼, 돌단검 등 부장품을 낸 작은 5호무덤의 피장자는 4호무덤의 주인공을 생존시에 무기로써 호위한 측근무관으로 해석하고있다.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심으로한 대동강류역에 특대형고인돌무덤을 비롯하여 무려 1만4천여기의 대중소고인돌무덤들이 집중되어있고 료동지방보다 조선반도에 밀집되여있는 사실은 이 지역이 고조선의 정치중심지였다는 사실과 함께 무덤의 주인공들이 정치중심지에서 활동한 대중소노예주들, 귀족관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고인돌무덤의 크기가 곧 피장자의 신분과 직급의 높이를 반영한것이라고 전제하고 고조선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178기의 대상을 선정하여[9] 대중소의 3부류로 분류해 보면 뚜껑돌의 길이가 5m이상의것이 16기이고 5m~3m의것이 44기, 그 아래 3m~1m의것이 118기로 된다.

이 사실은 특대형고인돌무덤을 쓴 국왕 및 대신급 고위귀족관료들은 전체수의 9%에 불과하고 중급관료는 24.7%정도이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66.3%나 되는 군소 하층귀족관리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들 고조선의 통치자인 노예소유자들이 계급신분별로는 국왕과 대중소귀족관료들로 나뉘어져 국왕을 정상으로 하는 정치적피라미드를 형성하고 노예와 평민대중의 머리우에 군림한 억압자, 지배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귀족관료 노예주들이 소유한 노예의 수는 얼마나 되였겠는가?

1990년초에 발굴된 단군왕조초기의 성천군 룡산리 순장무덤(5069±426)에 순장된 노예의 수는 30~40명정도였으나 후조선시기에 와서 부여의 대노예주는 한번에 100명을 순장할 정도의 재부와 권력을 가진 세력으로 장성하였으며[5] 강상, 루상무덤의 주인공은 130여명의 노예를 따라묻을 수준에 이르렀다.[6]

노예주의 장성을 보여주는 이 수자는 그들의 권력의 크기와 신분의 높이, 재부의 다소를 반영한 동시에 노예와 노예로동, 노예제경리의 성격을 말해준다.

주인과 함께 따라묻힌 노예의 수자는 그 노예주의 노예재산 전부를 반영한것이 아니며 그 노예 모두가 가내노예, 사치노예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예가 재산으로 간주되는 시대였던것만큼 노예주는 림종에 앞서 반드시 다른 동산, 부동산과 함께 노예도 자손들에게 분배, 상속시켰던것임으

4)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182쪽 참조.
5) 『후한서』 권85, 동이전, 부여.
6) 1966, 『중국 동북지방의 발굴보고』, 90~100쪽.

로 순장된 노예는 자기가 소유한 현존노예의 일부에 국한된것이며 따라서 우의 대노예주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명의 노예를 거느리고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예주가 이 많은 수의 노예를 모두 비생산적인 사치노예로 하여서는 자기 경리를 유지할수 없는것만큼 많은 수의 노예들을 생산에 종사하는 로동노예였을것이고 로동노예의 로동대상이 토지였건 또는 소비품생산부문이였건 관계없이 단순히 노예주의 자가소비를 위한 생활자료생산뿐아니라 그 일부는 가치증식을 위한 상품생산에도 사역되었을수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것이다.

이로부터 고조선의 노예제는 기본적으로 아시아형의 가내노예제였지만 대노예주의 경리에는 적어도 농장경리가 있었고 노예가운데는 비록 많지는 않아도 로동노예가 있었다고 확언할수 있다. 이들 많지 않은 로동노예들은 주인의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간단한 수공업장에서 전업적으로 직조업 또는 청동기(무기, 공구, 치레거리)제조에 종사하여 노예주의 생활자료를 보장하였을것이고 그 밖에 극히 일부 로동노예는 잉여가치생산을 위한 상품생산에도 사역되었을수있다.

고조선의 기본경제가 농업이였던것만큼 노예주의 재부의 기본원천도 토지였을것이며 따라서 『위략』이 전하는 렴사치의 기록이 보여주듯 적지 않은 노예로동은 농업생산에 사역되었을것이다. 호래를 비롯한 1,500명의 한인 포로노예들이 농경에 사역되고있은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한 강상무덤의 노예순장무덤에서 가락바퀴가 나왔고 청동거푸집이 나온 사실은 노예들의 수공업생산로동에 대해 보여주고있다.

노예가운데는 다른 고대동방나라들에서와 같이 국가노예도 많이 있었을것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고된 동광채굴업이나 청동제련 및 청동제단검을 비롯하여 창과 검, 쇠뇌 등 무기생산에 투하된 로동력이 바로 국가소속

의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사적노예와 국가노예를 합쳐도 주민구성에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고조선사회의 주민구성에서 지배계급은 노예주였고 국왕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군소관료귀족이 노예소유자계급의 등급벌계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노예대중은 피착취계급으로서 노예주의 사치한 기생충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소처럼 부리운 로역자대중이였다.

고조선사회에는 노예주와 노예밖에 '민'으로 불린 광범한 평민군중이 있었다.

자료들에 '호민', '민', '하호' 등으로 기록된 계층이 곧 그것인데 이들은 인격적으로는 자유민이였지만 정치적, 계급적으로는 귀족관료들의 지배와 압박, 착취(호민은 제외)를 받는 피지배계급이였다. 『삼국지』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거기에는 고조선의 변강후국이였던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 (부여의) 읍락에는 호민과 민, 하호가 있다. (하호는) 모두 노복이다. …… 그 나라에서는 활과 화살, 칼, 창을 병기로 쓰는데 집집마다 (자기의)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있다. ……적이 오면 제가들이 스스로 싸움에 나서는데 하호들은 모두 식량을 날라다 먹인다.(『삼국지』 권30, 위지, 동이전, 부여)

여기서 호민은 부호를 가리킨것이고 민은 일반백성 즉 소농민과 수공업자, 상인을 의미하며 하호는 노예는 아니지만 "노복과 같은" 예속농민을 지칭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들은 모두 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유민으로서 사회적으로는 상층의 귀족관료들과 최하층의 노예사이에 있는 기본대중이였다.

이 자료에 나오는 호민, 민, 하호, 읍락의 개념들은 당시 중국에서 쓰고 있던 개념들인데 중국봉건사가들이 그 개념을 그대로 부여에 옮겨쓴것은 비슷한 점이 있었기때문일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사서들에 나오는 호민, 민, 하호, 읍락이 어떤것인가를 먼저 리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호민은 귀족신분은 아니지만 문자그대로 '호부자' 즉 세력있는 부유한 백성이므로 민의 상층을 이룰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부의 원천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느계급에 속하는지는 명백치 않다.

『한서』 식화지에서는 호민을 '호부자'와 같이 쓰면서 하호들에게 자기 땅을 빌려주어 '10분의 5세'를 받아가는 지주로 규정한 것으로 보면[7] 고조선의 호민층에도 분명 지주가 있었고 하호가운데 그의 소작인으로 된 자도 있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의 전성기에 소농민적토지소유가 광범히 존재하는 것이 인류력사의 보편적현상이였으므로 소농민이 사회의 기본계층을 이루고있는 조건에서 소작인이 많을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호민이 다 지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호민에는 많은 면적의 토지와 로동력(가족 및 머슴)을 가진 부유한 농민도 있고 부유한 상인도 있을수 있으며 이 계층들의 신분을 겸유한 부자도 있을수 있다. 어떻든 호민은 민으로서 부자였지 제가급의 정치적지배자는 아니였다. 기껏하여 읍락의 거수급에 비슷한 '마을의 어른' 대접을 받는 상층신분의 민이였을것이다.

– 민의 기본군중은 소농민이였다고 볼수 있다.

---

7) 『한서』 권24, 식화지 4 상, 안사고의 주.

소농민의 기본은 자기의 작은 사유지에서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의 전부를 자기 소득으로 하는 자영농민이다.

일반적으로도 소농민은 원시사회말기에 소농민적토지소유의 발생과 함께 발생한다. 유럽에서는 그것이 "고전적고대의 최전성기에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다가 봉건화과정이 시작되면서 농노로 전락되여 소농민적토지소유자로서의 소농은 소멸되며 근대의 려명기에 재생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봉건사회에 와서도 의연 소토지소유자로 존속하면서 '봉건통치의 기초'를 이루며 지주계급과의 모순속에서 흥망성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 소농민의 운명은 이와 류사하였다.

부락(농촌)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최초에는 집터와 터밭이 사유화되고 다음에는 묵밭이, 나중에는 공동체의 경작지가 모두 소농민들의 사유지로 전환되였다. 이렇게 발생한 소농민의 매개 농호는 고조선의 농업사회에서 식의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자급자족적인 생산단위로 되였으며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본계급으로 존속하였다.

우에 인용한 자료에서 "집집마다 자기의 갑옷과 병기를 갖추고있다."는 계층이 바로 이들 소농민가정을 가리킨것이라고 볼수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사회에서 군사복무는 주로 자유민이 걸머졌고 아시아에서는 '병, 농이 구별 없는 전민개병'으로서 광범한 농민대중이 자기 비용으로 보병무기를 마련하고 군역을 지는것이 상례였기때문이다.

또한 『범금8조』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규정과 도적질한자에게 50만의 벌금을 물게하는 법조항도 구경은 독립적경리를 가진 소농민의 존재를 전제로 한것임이 명백하다. 그 벌금을 물게 될 대상은 일정한 곡식이나 돈을 가진 소농민이거나 상인, 수공업자일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고조선에 부여의 소농민과 같이 자력으로 병기를 갖추어 농을 수있는 소농민, 법의 기본대상으로 된 소농민층이 사회의 기본계층으로 광범히 존재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소농민적경리형태가 노예제경리와 함께 고조선의 중요한 경제형태를 이루고있었다고 볼수있다.

소농민들은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세로 바쳐 나라의 재정적수요를 충당하였고 부역로동으로 각종 국역을 보장하였으며 병역의무로써 나라의 군사력의 근간을 이루었으므로 소농 및 소농경리는 고조선전제군주정권의 인적, 물질적기초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 다음 하호에 대한 유관자료를 종합해보면 그들은 '민'이였지 '노'는 아니였으며 다만 생산수단을 갖고있지 못한 탓으로 '노비처럼' 사역되였을 뿐이였다고 확언할수 있다.

하호가운데는 물론 얼마간의 사유재산을 가진 소소유자도 있었지만 절대다수의 하호는 에농이 봉건사회 농노의 '선구자'였듯이 노예사회의 준노비와 같은 반자유민이였다고 볼수 있다. 하기에 그들은 앞의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전시에 기본전투원이 되지 못하고 주로 "모두 식량을 날라다(제가와 전투원에게)먹이는" 치중부대의 역할을 하였던것이다.

하호가운데 소소유자도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노에가 아닌이상 가족을 갖고있었을것이고 가족을 먹여살릴수 있을만한 생산수단과 련결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그 생산수단이란 전장에서 전투원에게 쌀을 지어다가 먹인다는 우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곧 토지이며 따라서 하호는 토지를 경작하는 하층농민, 그러나 자기 땅이 없이 제가와 호민과 같은 부유한자들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이였다고도 볼수 있다.[8] 그들이 군역을 지였다는 사실 자체가 일정한 자가경리를 가진 소농민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고조선에서 하호는 하층빈민일반을 가리킨 백성의 신분적범칭으로도 쓰이였다.

고구려 산상왕의 아우 "발기가 형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것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가(대인)와 함께 각기 3만여명의 하호를 거느리고 공손강에게 투항하였다."[9]던지 "(에의 버슬에) 후, 읍군, 삼로가 있는데 하호를 거느린다"[10]고 한것, 그리고 마한에서 하호가운데 이웃 군에 나들이 할때 남의 "옷과 건을 벌려 입고 쓰는"층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것으로 의관을 갖출뿐아니라 버슬아치들처럼 인장과 인끈을 차고 다니는 부유한 계층도 있다고 한 자료가[11] 그것을 말해준다.

그밖에 중국학계에서는 갑골문에 나오는 '중인(衆人)과' '협전(脅田)'이라는 단어풀이로써, 그리고 중국 고대의 읍락의 크기와 마르크공동체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 등을 중시하여 읍락을 농촌공동체로 해석하고있다. 만일 이 견해가 옳고 중국고대사가들이 부여사회의 실태를 정확히 서술하였다면 고조선의 읍락을 공동체의 유제로 볼수있고 소농민과 하호를 어제날의 공동체농민이였다고해석할수 있다.

---

8) 중국 봉건사가들은 부여의 하호를 중국한대의 하호와 같은 것으로 본것같다. 『한서』 식화지4, 상에 빈민들이 "혹은 호민의 땅을 경작하여 10분의 5세를 문다"고 쓴 본문에 안사고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하호는 땅이 없어 호부자의 땅을 경작하여 (수확의) 10분의 5를 본전주에게 바치는 빈민"을 말한다.
『삼국지』의 고구려전에서는 하호를 '대가(大家)'의 밭을 경작하여 쌀과 고기, 소금을 지여다가 주는 소작인으로 묘사한것을 보면 후세에 오면서 하호의 거의 모두가 소작인으로 된것같다.

9) 『삼국지』 권30, 고구려전, 예전, 한전.

10) 『삼국지』 권30, 고구려전, 예전, 한전.

11) 『삼국지』 권30, 고구려전, 예전, 한전.

고조선의 '민' 가운데는 소농민, 하호와 함께 수공업자, 상인계층도 있었다.

지난날 계급사회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수공업자와 상인이 있었다. 고조선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는것이다.

고조선의 수공업은 청동과 철을 비롯한 금속제련 및 가공분야에서 세계적수준에 이르렀던것만큼 기능 높은 전업적수공업자들이 많았을것은 명백하다.

전조선시기에 벌써 비파형창끝과 단검을 비롯한 무기류들과 공구류들, 청동거울과 방울, 청동2인교예장식품 등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청동제품들이 수많이 생산, 제조되였으며 후조선시기에는 각종 철제농기구들과 무기들, 조롱박형단지를 비롯한 도기수공업이 새로 개척됨으로써 수공업분야는 더욱 넓어지고 분업은 보다 세분화되였다. 이로부터 고조선사회에는 여러 부문의 숙련된 전업적수공업자들이 많았으며 그들이 '민'의 주요구성부문으로 되여 있었을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고조선에서 상업도 일정하게 발전된 조건에서 상인층도 '민'의 주요구성원으로 되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녕변군 세죽리 유적 한곳에서 2,000여매의 명도전이 나왔고 덕천시 청송로동자구에서는 4,280여매의 명도전과 함께 21매의 고조선화폐-일화전 등이 나왔는데 주목되는것은 이 많은 명도전들이 질그릇단지속에 넣어져 외딴곳에 묻혀 있거나 돌각담과 돌칸, 나무상자속에 보관되여있은것이다.[12] 이것은 화폐가 당시에 류통수단으로뿐아니라 축재수단으로도 리용되였으며 상당한 량의 부를 축적한

12) 1991, 『조선전사』 2, 89~90쪽.

부유층,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고조선사회의 주민은 노예주들인 국왕과 귀족관료들을 일방으로 하는 지배계급과 노예와 평민, 즉 민의 상층인 호민과 소농민, 수공업자, 상인, 하호들을 타방으로 하는 피지배계급으로 갈라져있었으며 이 두 적대되는 계급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고조선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고조선의 이러한 계급, 계층별 구성과 특성을 통하여 고조선의 노예제는 (노예들속에 일부 로동노예가 있었지만)총체적으로는 가내노예제였으며 고조선사회는 원시사회이후, 봉건사회이전 사회인 노예소유자사회였다고 규정지을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분포상 특성

서국태 (고고학연구소 원시고고학연구실 연구사)

고인돌무덤은 오늘의 조선반도와 료동지방, 길림지방에 널리 분포되여 있는 독특한 짜임새를 가진 무덤으로서 고조선시기의 문화와 풍습, 사회적 성격을 뚜렷이 반영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그런것만큼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특성을 밝히는것은 이 지역 고조선문화의 문화사적지위를 정확히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적지 않게 론의되였으나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이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되는 분포상 특성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론의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분포상 특성을 밝힘으로써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고인돌무덤이 고조선시기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의 산물인것만큼 그 어

느 지역의것이나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띠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분포상태에서 지역별로 서로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

그러면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분포상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고인돌무덤과 큰 규모의 고인돌무덤떼가 평양지방에 가장 많이 분포되여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어있는 지역가운데서도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일대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여있는 지역이다. 얼마전까지 조사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사방 40㎞ 범위안에 분포되여있는 고인돌무덤의 수는 1만 4,000여기에 달한다.

남부조선지역에서 고인돌무덤이 가장 많이 분포되여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 일대로 알려져 있다. 고인돌무덤이 알려진 수를 전하는 출판물들에는 영산강류역에 5,500~6,000여기, 전라남도 도서지대를 포함한 도의 전지역에 1만 1,4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여 있다는 자료도 있고 전라남도의 1,200개소에서 1만 1,000기이상, 전라북도의 266개소에서 1,8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확인되였다는 자료도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지역에서 1만 9,058기가 조사되였다는 자료도 있다.[1]

전라남도 고인돌무덤이 그처럼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당 고인돌무덤의 분포밀도에 있어서 평양지방의것에 비길바가 못된다. 그것은 전라

1) 1978, 『력사학보』 제78집, 2쪽.
2000, 『한국고고학학보』 9(한국고고학회), 73쪽.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백산자료원), 1쪽.

남도의 면적(1만 2,438㎢)이 평양지방의것(4,865㎢)에 거의 3배가 되기때문이다.

료동지방과 길림지방에서 고인돌무덤이 알려진 수는 기껏해서 각기 200여기, 100여기정도에 불과하다.

평양지방은 수십, 수백기의 고인돌무덤이 하나의 떼를 이루고있는 큰 규모의 무덤떼가 특별히 많이 분포되어있는것으로서도 이채를 띤다.

룡강군 석천산일대와 사리원시 정방산일대, 연탄군 오덕리와 두무리일대에 300~5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떼를 이루고 분포되어 있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강동군 송석리 80여기, 상원군 전산리에 100여기, 룡곡리에 130여기, 은천군 정동리에 2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떼를 이루고 분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100기이상으로 이루어진 무덤떼의 수는 30여개소, 200기이상으로 이루어진 무덤떼의 수는 15개소에 달한다.[2]

비교적 큰 규모의 무덤떼가 흔이 보이는 지역은 남부조선지역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갑리에 1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가까이에 밀집분포되여 있고 장흥군 반촌리와 제천군 황석리, 밀양군 남정리 등지에 4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떼지어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떼의 규모와 수는 평양지방의것에 비길바 못된다.

료동이나 길림지방에서는 40기 이상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무덤떼도 찾아볼수 없다. 료동지방에서 알려진 가장 큰 규모의 무덤떼는 봉성현 동산의 고인돌무덤떼인데 그곳의 2개지점(산마루와 산밑)에서 알려진 고인돌무

2) 1998, 『조선의 고인돌무덤연구』(사회과학출판사), 8쪽.

덤의 수를 합치더라도 33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길림지방에서 알려진 가장 큰 규모의 무덤떼는 류하현 태평구 고인돌무덤떼인데 여기의 남쪽산과 북쪽산(500m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에 있는 고인돌무덤을 하나의 떼로 보더라도 그 수는 24기에 불과하다.

료동지방과 길림지방의 고인돌무덤분포상태를 밝힌 자료에 의하면 료동지방에서 고인돌무덤이 알려진 개소는 58개소인데 그 가운데서 1기만있는 곳이 31개소(53.4%)이고 11기이상 있는곳이 2개소(3.4%)라고 하며 길림지방에서 고인돌무덤이 알려진 개소는 28개소인데 그가운데서 1기만 있는곳이 13개소(46.1%), 11기이상 있는곳이 2개소(7.2%)라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이 지역에는 고인돌무덤이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분포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큰 떼를 이루고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평양지방에 초기형식의 고인돌무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류형과 형식으로 구분되는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어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평양지방의 고인돌무덤은 침촌형, 오덕형, 묵방형, 석천산형, 룡악산형[3]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러 류형의 고인돌무덤가운데서 B.C. 4천년기 후반기부터 쓰이여 온 가장 이른시기의 무덤은 침촌형고인돌무덤이며 거기에서 오덕형과 묵방형고인돌무덤이 파생되여 형식을 달리하면서 오랜기간 쓰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4]

3~4)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룡악산일대의 고인돌무덤을 조사발굴하는 과정에 무덤칸주변에 2개, 4개, 8개씩 막돌을 놓고 뚜껑들을 올려 놓은 고인돌무덤을 여러기 발굴하였다. 이런 막돌고임식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견

여러 가지 류형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남부조선이다. 이지역에는 평양지방의것과 같은 류형의것들이 다 분포되어 있을뿐아니라 평양지방에서는 볼수 없는 위석식 또는 제주도형이라고 하는 고인돌무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류형의 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처럼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달리하면서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남측의 연구자들이 한강이남으로 내려가면서 오덕형고인돌무덤은 드물게 보이는 반면에 묵방형고인돌무덤이 흔해지며 제주도형고인돌무덤은 제주도와 진도, 영산강류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고 론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라남도의 고인돌무덤을 비교적 상세히 분류한 자료에 근거하여[5] 이 지역에 어떤 류형의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남방식 또는 바둑판식이라고 한것은 룡악산형고인돌무덤, 개석 1식이라고 한것은 묵방형고인돌무덤, 개석 2식이라고 한것은 오덕형 또는 얼마간 변형된 형태의 오덕형고인돌무덤, 개석4식이라고 한것은 석천산형고인돌무덤으로 해석된다. 개석 3식이라고 한것은 뚜껑돌이 2중으로 된것인데 그처럼 2중뚜껑을 한것은 평양지방의 침촌형이나 묵방형고인돌무덤에 보인다. 그리고 개석 5식은 남해안일대에서만 보이는 제주도형이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류형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어 있지만 비교적 이른시기에 속하는 침촌형고인돌무덤은 볼수 없고 오덕형고인돌무덤은 매우 드물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속하는 묵방형과 룡악산형고인돌무덤 등이 많이 분

되여 우리 학계에서는 그것을 룡악산형고인돌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5) 1978, 『력사학보』 제78집, 2~28쪽.

포되여 있다.

료동과 길림지방에 분포되여 있는 고인돌무덤류형과 형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 지역의 고인돌무덤에 대하여 지석묘, 석붕, 대석개묘, 대석개석판묘 등으로 불러우고 있지만 지석묘나 석붕은 오덕형고인돌무덤, 대석개묘, 대석개석판묘는 묵방형이나 석천산형고인돌무덤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침촌형이나 룡악산형고인돌무덤은 아직 알려진 일이 없다.

그것은 또한 평양지방에 대형고인돌무덤이 특별히 많이 분포되여 있는 데서 찾아볼수있다.

고인돌무덤에 있어서 뚜껑돌과 무덤칸의 크기는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며 뚜껑돌은 묘표식물인 동시에 권력과 재부의 상징물로 된다. 그런것만큼 뚜껑돌의 크기는 무덤의 규모와 피장자의 권력과 재부를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로된다.

규모가 큰 고인돌무덤의 분포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뚜껑돌의 길이가 480cm이상인 고인돌무덤을 지역별로 나누어 종합하여 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북반부지역

번호	유적명	뚜껑돌길이(cm)
1	평양시 상원군 번동리 1호	495
2	평양시 상원군 장리 1호	630
3	평양시 상원군 장리 2호	900이상추산
4	평양시 상원군 장리 3호	562
5	평양시 상원군 장리 5호	700
6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방울뫼 4호	480
7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 2지점 20호	488

8	평양시 상원군 중리 1호	500
9	평양시 상원군 중리 5호	510
10	평양시 상원군 중리 6호	475
11	평양시 중화군 마장리 3호	550
12	평양시 강동군 송석리 굴등 1호	480
13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4호	600
14	평양시 강동군 삼등리	620
15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1호	630
16	평안남도 룡강군 석천산 28호	500
17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구 1호	490
18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 3호	480
19	평안남도 신양군 신양읍 화동 1호	505
20	평안남도 증산군 룡덕리 1호	480
21	평안남도 평원군 덕포리 1호	600이상추산
22	평안남도 숙천군 은정리 지석동	700
23	황해북도 연탄군 풍답리 광석동 1호	520
24	황해북도 연탄군 풍답리 광석동 6호	524
25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1호	830
26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4호	510
27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5호	550
28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20호	600이상추산
29	황해북도 연탄군 두무리 증원산 2호	540
30	황해북도 연탄군 두무리 증원산 21호	530
31	황해북도 연탄군 신금리 대동	480
32	황해북도 수안군 서평리 약수부락	700
33	황해남도 배천군 룡동리 1호	690
34	황해남도 배천군 룡동리 2호	600
35	황해남도 배천군 창포리 1호	710

36	황해남도 은률군 판산리 1호	875
37	황해남도 은률군 판산리 2호	485
38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 1호	910
39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우녕동 19호	476
40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서암동 1호	508
41	함경남도 요덕군 평원리 남양	560
42	강원도(북) 판교군 사동리 샘바위2호	500

2. 남반부지역

번호	유적명	뚜껑돌 길이(cm)	번호	유적명	뚜껑돌 길이(cm)
1	경기도 강화군 부근리	650	6	전라남도 장흥군 수양리	700
2	경기도 강화군 소목골	520	7	전라남도 영광군 대전리	520
3	전라북도 부안군 구암리1호	640	8	장성군 덕재리 B5호	536
4	고창군 운곡리 아산지구 B3호	640	9	경상남도 창원군 곡안리	655
5	충청북도 청원군 가호리 아득이	580	10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3호	560

3. 료동지방

번호	유적명	뚜껑돌 길이(cm)	번호	유적명	뚜껑돌 길이(cm)
1	료녕성 보란정시 석붕구	590	5	와방점시 대자	490
2	개주시 석붕산	860	6	와방점시 류수방	500
3	해성시 석목성1호	580	7	료녕성 장하시 대황지	750
4	수암현 홍륭	510	8	금현 소판둔	600정도

표만 보아도 뚜껑돌의 길이가 700cm이상인 특대형고인돌무덤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축에 속하는것들이 평양지방에 특별히 많이 분포되여 있고 이

지역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처럼 큰 규모의 고인돌무덤의 분포밀도는 점차 희박해진다는 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이러한 대형고인돌무덤에 묻힌 자들이 대중우에 군림하고있던 특권계층의 인물들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설명을 가하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무덤축조자들의 슬기와 재능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반영하는 고인돌무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형고인돌무덤의 축조에는 세련된 치석술과 건축술이 안받침되어야 하는만큼 평양지방에 특대형인 것을 비롯하여 대형고인돌무덤이 특별히 많이 분포되여있는것은 보다 세련된 치석술과 건축술로 축조된 무덤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련된 치석술이 적용된것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것은 뚜껑돌을 거북등형이나 지붕형으로 만든 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북등형의 뚜껑돌을 가진 고인돌무덤의 수는 20여기에 달한다.

그가운데는 뚜껑돌의 길이가 700cm(장리 5호무덤)나 되는것도 있지만 400~500cm인것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육중한 뚜껑돌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의 자태 즉 거북등과 꼬리, 목을 뚜렷이 가려볼수 있게 형상되였다. 이것을 보면 세련된 치석술과 함께 조형예술의 높은 발전수준도 뚜렷이 알수 있다.

거북등형의 뚜껑돌을 가진 고임돌무덤이 남부조선지역에서는 얼마간 알려졌지만 료동이나 길림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의 발전양상은 뚜껑돌에 별자리가 새겨져있는 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에 많이 분포되여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는 200여기에 달한다.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새겨져 있는 홈구멍자리가 밤하늘

에 보였던 별자리를 나타낸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많이 론의되였으므로 더 설명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

뚜껑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무덤이 남부조선지역에서는 더러 알려졌지만 료동이나 길림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평양지방의 고인돌무덤은 분포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된다.

그러나 분포상에서 나타나는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특성은 그 어느 측면이나를 막론하고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사적지위를 반영한다. 다시말하여 고인돌무덤이 처음으로 생겨나 련면히 쓰이여 온 지역도, 특권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집중되여 산 지역도, 문화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지역도 평양지방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은 결국 고인돌무덤의 분포상에 의해서도 고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평양이라는것이 확증된다는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조선의 유적유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민족사를 만방에 자랑떨치도록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고조선의 강력한 군사력

최영실 (력사연구소 근대사연구실 실장)

고조선은 이웃 소국과 종족들을 정복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오랜 기간의 력사적과정에 강력한 군대와 정연한 군사제도를 갖추고있었다.

고조선의 군사력은 만조선말기 한나라와의 반침략전쟁에서 그 위력이 높이 발휘되었으며 고조선군대와 인민은 이 싸움에서 외래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적패배를 안기였다.

대부분의 문헌사료들이 인멸되였고 또 고고학적유물자료가 많지는 못하지만 고조선-한전쟁과 관련한 력사적자료들과 고조선지역에서 발견된 물질사료들은 강력했던 고조선의 군사력에 대하여 어느정도 엿볼수 있게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고조선의 군사력을 기본주제로 하여 고조선의 군사제도와 무기무장, 전쟁에서 활용된 전략전술에 대하여 개괄하려고 한다.

고조선에는 강한 군사력을 담보하는 정연한 군사제도가 정비되어있었다.

고조선의 군대는 노예주계급의 필수적인 통치수단이였으며 그것은 고조선사회의 계급신분관계에 바탕을 두고 편성유지되였다.

고조선의 노예소유자귀족들은 군역편성에서 군사지휘관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군사복무는 의무였을뿐아니라 특권이기도 하였다.

무기, 무장을 자체로 마련할수 있었고 그리하여 군사복무를 원만하게 감당할수 있는 층이였던 평민은 군역의 기본담당자들이였으며 고조선군대의 주력을 이루었다. 노예는 자체의 계급적, 경제적사정으로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될수밖에 없었으나 몸종노릇을 하는 가내노예의 일부가 출전하는 상전을 따라 싸움판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겠고 수군과 같은 힘들고 위험한 군사복무의 경우에 국가가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하호들이 징집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할수 있다.

고조선의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편성되어있었다.

국왕이 관할한 지역에서 징집된 중앙군은 주로 수도 평양성과 부수도를 방위할 사명을 지녔고 후왕들이 거느린 지방군은 변방국경방위를 기본사명으로 하였다고 보아진다.

고조선에서 왕은 전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가졌으나 지방군에 대한 지휘통제는 실제상 후왕들에게 맡겨졌다.

고조선에는 전문적으로 군사에 관한 일을 총괄한 벼슬이 있었다.

전후조선시기에는 군사를 맡은 관료로서 웅가라는 군사관계관직이 있었다. 웅가는 평시에는 군대의 정비유지와 관련한 군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전시에는 왕의 지휘밑에 군총사령관으로서 출전하여 군사를 통솔하였다고 할수 있다. 후조선말~만조선시기에 와서 웅가의 관직명이 기록에 보이지

않으나 최고무관직인 장군이 있었던것으로 보아 여전히 군사행정기관의 장관격인 버슬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고조선의 병종은 륙군과 수군으로 편성되여있었다.

륙군에서도 보병이 기본이였으며 여기에 기병도 일정한 무력으로 존재하였다. 보병중에는 활과 비파형단검 혹은 좁은놋단검 방패와 창 등으로 무장한 경무장보병이 많았고 길이 5m나 되는 긴창[1]을 여러명이 들고 싸우는 중무장보병도 있었다.

고조선의 기병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군종으로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있었다. 고조선-한전쟁시기 한나라와 담판이 벌어졌을 때 우거왕이 태자로 하여금 말 5,000필을 끌고가게 한 사실이라든가[2] 또 고조선시기의 무덤들에서 각종 수레부속과 마구류가 많이 드러나는것은 고조선군대에서 기병의 수가 많았으며 당당한 병종으로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수군은 비록 륙군보다 뒤늦게 출현하였다고 볼수 있겠지만 말기에는 한나라 수군도 능히 제압할수 있는 강한 해상무력으로 등장하였다. 후조선의 마지막왕이였던 준이 만의 정변시 수천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배길로 마한에 갔다는것[3]은 이 시기 수천명의 군사를 운반할수 있는 배들이 항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병종구성에서는 기본전투부대밖에 군량 등을 운반하는 후방부

1) 『후한서』 권85 렬전 예조.
2) 『사기』 조선렬전에 의하면 만조선에서는 한나라와의 강화담판을 위해 적들에게 말 5,000필과 군량을 조달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만조선에는 적어도 적들에게 넘겨줄 말 5,000필외에도 그보다 몇배나 되는 군마와 함께 수만명의 기병이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다.
3) 『후한서』 권85 렬전 하.

대들도 있었다.

고조선에는 정비된 군사제도에 상응한 많은 수의 상비무력이 존재하였다.

후조선왕이 B.C.322년경 연나라 역왕의 무력침공기도에 대처하여 군대를 발동해 반격을 가하려고 결심했던 사실, 또 무력침공을 기도하던 연나라가 결국 군사력에 안받침된 고조선의 외교적공세에 부딪쳐 전쟁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 등은 후조선의 군사력과 전반적국력이 강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조선과 대결한 연나라는 이 무렵에 보병 수십만, 차 600승, 기병 6000명이라는 많은 무력을 보유하고있었다. (『사기』 권69 소진렬전)

그러므로 고조선 상비무력의 수는 시기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후조선말기나 만조선시기에 병력수는 10여만정도였다고 볼수 있다.[4]

후조선에 이어 만조선시기에도 고조선은 상당히 많은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B.C.109~108년전쟁때 전투에 참가한 고조선의 무력만도 10만명정도로 추산되고있는만큼 전군의 군대수를 다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력의 중요구성부문의 하나인 고조선의 무기무장은 상당히 발전되어있었다.

고조선의 무기무장은 도창무기시대의 일반적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것은 우선 같은 도창무기이지만 동시대 주변나라들의 도창무기와는 형태나 제작방법에서 뚜렷하게 구별되었다는것이다.

고조선비파형단검문화의 대표적유물인 비파형단검은 북방유목민족의

4) 1985, 『조선병제사』(교육도서출판사), 334쪽.

단검인 '오르도스식단검'이나 황하류역의 '동주식단검'과는 형태 및 제작 방법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것이였다.

'오르도스식단검'은 검몸과 검자루를 함께 주조해서 만들었는데 검날은 곧고 검자루끝은 초기에 짐승대가리모양과 방울모양의 장식이 류행하다가 후에는 '촉각식'으로 되고 마지막에는 고리자루로 되였다.[5]

한편 '동주식단검'은 검몸과 검자루를 함께 붙여 만든점에서는 '오르도스식단검'과 같으나 검몸이 일반적으로 좀 길고 릉형의 검코가 있으며 자루에는 2~3줄의 돌친 띠가 돌아간것이 많고 모두 작은 원판으로 되여있는 것이 특징이다.[6]

그러나 비파형단검은 이것들과는 달리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게 되여있으며 검날은 독특한 곡선을 이루었으며 검몸의 한가운데 세로 등대가 있어서 이것과 오르도스식 및 동주식단검과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고 볼수있다.

이렇게 비파형단검이 동시대에 린접나라들에서 사용한 단검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사실은 비파형단검을 사용한 고조선주민들의 생업과 생산활동, 생활양식이 린접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고조선의 무기무장들이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시기에 걸쳐 서로 계승성을 띠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고학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과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을뿐아니라 형태에서 일정한 계승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

5) 『고고학보』 (중문) 1983년 1기, 10~14쪽.
6) 『고고학보』 (중문) 1962년 2기, 75~83쪽.

비파현단검과 좁은놋단검을 대비하여보면 둘사이에는 날의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검몸과 검자루 및 검자루맞추개를 따로 만들어서 맞추게 되여있는 형식에서는 완전히 같다.

그리고 좁은놋단검에 보이는 날등쪽의 독특한 에임과 등대의 생김새는 비파형단검의 형태상특징과 공통한 점이 많다. 즉 좁은놋단검의 날에 있는 에임과 돌기의 흔적은 비파형단검의 날에 있는 오무라든 부분과 돌기의 형식이 남은것이다. 그리고 비파형단검에서는 오무라든 아래부분이 다시 둥글게 되여있는데 좁은놋단검도 에임아래부분이 약간 둥글게 되여있어 비파형단검의 흔적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형태상 류사성은 좁은놋단검의 특징적인 날형태가 비파형단검의 날이 변화발전하여 이루어진것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만조선시기를 대표하는 무기인 장검 역시 검날의 길이와 재질에서 차이가 있을뿐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을 조립한 조립식무기라는 점에서는 비파형단검이나 좁은놋단검과 형식상으로는 같다고 볼수 있다.

계승성은 비파형창끝과 좁은놋창끝사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탄적인 무기실례는 한민족내에서 련면히 이어온 무기제작기술의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고조선시기 무기무장들이 살상위력이 담보되여있는 당대의 가장 발전된 우수한 무기들의 하나였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러한 무기로서는 전조선시기 비파형단검과 화살, 그리고 후조선시기 좁은놋단검과 청동과 등을 들수 있다.

이 무기들은 적과의 접전에서 살상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수 있는 구조와 형식을 갖추고있었는데 례를 들면 뿌리나래활촉이라든가 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은 적과의 접전에서 적의 몸에 깊고 넓은 상처를 줄수 있고 청동과는

기병과의 접전에서 골추찌를수만 있는 창보다 간접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만조선시기에 들어서면서 다기능의 사명을 가진 가지창이나 살상효과가 단검에 비해 몇배나 큰 장검, 장도 그리고 살상위력이 아주 센 쇠뇌 등 우수한 무기들이 등장하였다.

가지창은 찌르는 기능외에 대상물을 걸채어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며 옆으로도 후려쳐 타격을 줄수 있었고 장검이나 장도는 단검에 비해 절단하는 면이 넓고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다루기 편리해서 무사의 자체 방어력을 높여주고 대상물에 대한 타격회수를 증대시킬수 있다.

성능높은 사격무기인 쇠뇌는 인력이 실린 활줄의 힘으로 날아가는 화살보다 사거리가 멀고 관통력이 매우 셌으며 속도가 빨랐다.

사격무기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1:1의 치열한 백병전인 근거리접전에서 벗어나 유생력량을 보존하면서도 근거리접전때보다 더 큰 전투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거리접전에로의 이행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뿐만아니라 여러사람이 다루었다는 장창이나 가지창, 장검의 출현 역시 기병전이나 원거리접전에로의 이행의 결과로 얻어진 성능높은 무기들이였다고 할수 있다.

정연한 군사제도와 발전된 무기들로 무장된 고조선의 군사력은 반침략 투쟁에서 그 위용이 높이 발휘되었다.

특히 고조선군은 고조선-한전쟁에서 적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전략전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준비된 군사력을 옳게 대응시킴으로써 전쟁의 매단계에서 적들에게 패배를 안기였다.

한무제는 만조선군의 료동군동부도위기습과 만조선의 비왕을 실해한 섭하의 처단사건을 구실로 B.C. 109년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B.C. 109년 가을 한무제는 루선장군 양복으로 하여금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제지방으로부터 발해를 건너 배길로 공격하게 하고 좌장군 순체는 료동지방에서 출발하여 륙로로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전쟁1단계에서 고조선군은 왕검성에 기본방어집단을 배치하고 적의 량면공격을 좌절시킴으로써 한침략군의 수륙병진기도를 분쇄하였다.

만조선은 륙지로 달려드는 한나라의 륙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경선의 천연요새인 패수를 리용한 하천방어전법과 배수진전법 등 여러가지 보병전법을 능란하게 구사하여 적들에게 패배를 안기였다.

『사기』에서 우거가 군사를 일으켜 "험한곳에 의거하여 방어하였다"고 하는 '험한곳에 의거'한 '방어'는 바로 패수에 의한 하천방어를 말하는것이였다.

고조선군대는 패수를 도하하여 국내깊이 침입하려는 적들을 하천방어전법으로 물리침으로써 적들의 공격예봉을 꺾어놓고 적들의 전투력을 소모시키였다.

이때 적군지휘관의 하나였던 다는 패전한 죄로 군법에 의해 목을 잘리웠는데 이것은 선봉부대의 패배로 한나라 륙군이 입은 손실이 아주 컸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다음으로 고조선군은 첫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적들을 다시 수세에 몰아넣기 위해 패수서군으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패수서쪽으로 나아가 배수진전법으로 적들을 물리치게 하였다.

"좌장군이 패수서군을 공격하였으나 격파하지 못하고 머물러있었다"는 『사기』의 기록은 바로 한나라 륙군이 배수진을 친 고조선의 패수서군을 뚫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고조선군은 왕검성에 기본방어전투부대를 배치해놓고 바다로 달려드는 적들을 '외응내합(안팎으로 협동하여 적을 치는것)' 전법으로 물리쳤다.

외응내합의 전법은 보병과 기병의 협공작전으로 성을 공격하는 적군을 치는 수성전의 고유한 전법이다.

왕검성방어군이 적용한 전법이 '외응내합'이였다는 것은 한나라수군 7000명이 괴멸상태에 빠지고 수군 우두머리인 양복이 산속으로 도망하여 10여일간 숨어있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렇게 고조선군은 전쟁1단계에서 여러가지 전법으로 적들의 전략적기도를 격파하고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였던것이다.

첫단계의 작전에서 실패한 적들은 침략군의 력량을 수습보충하는 한편 군사적방법으로 달성하지 못한 침략야망을 외교적압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2단계의 전술로서 강화담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처하여 만조선은 적들이 제기해온 강화담판을 통해 침략군을 조선경외로 모두 철수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국왕의 대리인인 태자를 담판에 파견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게 만명의 군사와 5000필의 군마, 많은 량의 군량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담판을 위력으로 담보하며 담판이 결렬되는 경우 적의 종심에서 일대 소탕전을 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강화담판은 고조선군의 의도를 어느정도 눈치채고 강화담판을 위해 들어오는 고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킬데 대한 한침략군의 요구에 태자가 단호히 거부한것으로 하여 막을 올리기도전에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강화담판의 결렬로 한무제로부터 강화담판의 위임을 받고 파견되여왔던 위산은 그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무제에 의해 처형당하였으며 한침략군은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킬수 없었다.

강화담판이 파탄되자 좌장군 순체부대는 대릉하상류지역으로 에돌아올라가 만조선의 패수상군을 격파하는데 성공하고 남진하여 왕검성의 서북쪽을 포위하였다. 패잔병을 모아 겨우 대오를 재편성한 루선장군 양복의 부대는 바다가로부터 진격하여 왕검성남쪽을 포위하였다.

전쟁3단계에서 적들의 전략적기도는 수군과 륙군이 협동작전을 벌려 부수도 왕검성을 타고앉는것이였다.

만조선군은 서로 공명만을 추구하면서 알륵관계에 있던 적군의 내부형편을 탐지한데 기초하여 사기가 꺾이고 공포에 사로잡힌 루선장군과만 일방적인 강화교섭을 벌려 적장호상간의 내부알륵을 조성시켜 저들끼리 싸우게 하는 적군와해전법으로 수군, 륙군간의 협동작전을 지연시켰다.

한무제가 파견한 제남태수 공손수에 의해 루선장군이 구속되고 그의 부대가 좌장군의 휘하에 편입되여 다시 침략군이 공격에로 이행함으로써 전쟁은 4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시기 고조선군은 륙군수군의 병합된 무력으로 공격하여 왕검성을 타고앉으려는 적들의 전략에 대처하여 완강한 방어전으로 결사항전을 벌려 왕검성을 고수하고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고조선의 전략적목적은 만조선통수부의 고위관리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 부수도 왕검성은 한나라에 함락되고말았다.

이렇게 만조선은 4단계에 걸친 전략적단계들마다에서 한나라의 침략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적들에게 패배를 안기였던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은 이웃소국과 종족들을 정복하고 반침략전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는 발전된 군사제도와 위력한 무기무장, 우수한 군사전법들로 안받침된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문헌적고찰

권승안 (력사연구소 고대사연구실 실장)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첫 계급국가였다.

따라서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우리 민족사체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1993년이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계에서는 단군유골에 대한 자연과학적년대측정방법에 근거하여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B.C. 30세기초로 이 단군조선(전조선)왕조가 B.C. 15세기중엽에 후조선왕조로 바뀌고 후조선왕조는 B.C. 194년에 만조선왕조로, 만조선왕조는 B.C. 108년에 존재를 마친것으로 고대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전해오던 단군유골이 실제로 발견되고 그에 대한 자연과학적년대측정이 진행된 조건에서 5,011±267년(1993년 현재)에 기초하여 정해진 B.C. 30세기초라는 고조선(전조선)의 건국년대는 충분한 과

학적근거를 가지고있는 년대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년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론증할수 있지만 옛 문헌들에 기록된 전조선의 건국년대, 존속기간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도 방증할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현재 옛 문헌에 제일 명백하게 남은 만조선의 건국년대 즉 B.C. 194[1]년에서 이 두 왕조의 존속기간을 소급시켜 보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우리 옛문헌들의 대부분이 고조선의 건국년대와 존속기간을 B.C. 2333년, 근 2천년으로 보아온것이 통례화되여있었지만 일부 문인, 학자들이 이 틀과는 전혀 달리 B.C. 2333년이전이거나 B.C. 3천년기전반기까지 올려보았다고 볼수 있는 문헌적근거도 적지 않은것이다.

그러므로 이 토론에서는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문헌적고찰을 통하여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문헌적으로도 보다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그러자면 먼저 종래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하여 전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것이다.

지난시기 옛 문헌들에는 대체로 고조선(전조선)의 건국은 중국의 당 요와 같은 해(B.C. 2333 무진년)인것으로 후조선은 중국 은나라의 성인이라는 기자가 B.C. 1122년(주 무왕 기묘년)에 조선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과 결부시켜 '기자조선'으로 보고 그해를 후조선이 건국한 해로 보는것이

1) 만조선의 성립시기문제는 B.C. 195년설, B.C. 194년, B.C. 194~180년설 등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었지만 만이 B.C. 3세기말에 후조선으로 와서 B.C. 194년에 정변을 일으키고 만왕조를 세웠다고 보는것이 그중 합리적인 견해로 인정되므로 필자도 이 설에 근거하려고 한다.(1999, 『고조선력사개관』(사회과학출판사), 108~112쪽)

정설로 되어있었다. 이에 의하면 전조선은 1,212년간, 후조선('기자조선')은 928년간 합계 2,140년간 존속한것으로 된다.

조선중세전기간을 통하여 화석처럼 굳어져온 이러한 년대관에는 당시 사람들의 봉건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심각한 오유가 내포되여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당 요동시건국설'이라고 할수 있는 전조선건국 -B.C. 2333년설은 그것을 전한 기록들 자체의 모순으로 하여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건국년대로 보기 어렵다.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기록으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랜 기록인 『삼국유사』 권1 고조선에는 『위서』를 인용하면서 요임금과 같은 때라 하고, 『고기』를 인용해서는 요임금 즉위 50년경인[2]이라고 소개되어있다.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1287)된 리승휴의 『제왕운기』에 인용된 『본기』에서도 단군이 요임금과 나란히 무진년에 나라를 세운것으로 전하였다.

다음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령이조에 수록되여있는 『단군고기』에는 단군이 당요와 같은 날에 나라를 세운것으로, 같은책의 평양부 첫머리에는 당요 무진년에, 『응제시주』에 인용된 『고기』와 『동국통감』 외기의 『단군조선』조에도 당요 무진년에 건국한것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견해는 『고려사』, 『동국력대총목』, 『삼국사절요』, 『동사강목』 등

2) 일연은 경인년에 대해 "당요가 즉위한 첫해는 무진년인즉 50년은 정사년이요, 경인년이 아니니 확실한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이 설에 의혹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요 즉위년이 무진년이라는것을 서술하였으니 앞서 『위서』의 '요와 같은때'라고 인용한것도 당요무진년건국을 말한것으로 된다.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옛 문헌들은 『삼국유사』로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고조선의 건국 년대를 당요와 같은 해인 무진년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중국의 전설적임금인 요임금의 즉위년대에 대해서는 그 자체내에서도 A.D. 3세기부터는 확실하게 갑진년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년대들이 제시되여있었다.

『사기』 권1 오제본기 제요조의 주석에 의하면 황보밀(3세기중엽)은 "요가 갑신년(B.C. 2377)에 태여나서 갑진년(B.C. 2357)에 즉위하였으며…… 갑인년에 순이 대행케 하고 신사에 죽었으니 나이는 118세요, 재위는 98년"이라고 보았다.[3](『사기』 권1 오제본기, 皇甫謐云堯以甲申歲生, 甲辰即位帝位, 甲午徵舜, 甲寅舜代行天子事, 辛巳崩, 年百十八, 在位九十八年)

이 갑진년설은 그후 송나라 소옹(1011~1072)이 지은 『황극경세서』에 그대로 계승되였고 1711년에 쓴 서문이 붙어있는 오승권의 『강감이지록(綱鑑易知錄)』과 『사부비요』에 있는 「력대제왕년표」와 「력대통기표」에도 반영되였다.

한편 송나라 류서(劉恕, 1032~1098)가 쓴 『자치통감외기』에는 요임금즉위년도가 세가지 간지 즉 무진년(B.C. 2333), 무인년(B.C. 2323), 신묘년(B.C. 2310)으로 되여있다. 이밖에도 『해동역사』에 인용된 중국책 『조선세기』에는 경자년(B.C. 2361)으로 『삼국유사』(고조선조)에 실린 『고기』의 년대-당요 50년 경인년(B.C. 2311)설에 따라 그 원년을 구하면 신축년(B.C. 2360)으로 되여있다.

3) 그가 지은 『제왕세기년력(帝王世紀年歷)』의 내용도 같았을것이다.

이처럼 중세중국내에서도 당요즉위년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간지를 전하여왔는데 무진년설을 비롯하여 여러 설들은 그리 잘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황보밀의 『제왕세기년력』이후로는 갑진년설이 널리 알려지고 가장 유력한 설로 고착되여갔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확실치 못한 년대인 요임금즉위 무진년에 기초하여 단군도 무진년에 건국한것으로 통용되여왔다.

사실 앞서 인용한 『사기』오제본기에 수록되여있는 황보밀의 견해에 나타난 갑진년설은 『사기』가 우리 나라에서 읽혀지게 되였을때[4]부터는 우리 나라에도 소개도고 통용되게 되였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처럼 굳이 무진년을 취하고 또 이것이 후세 여러 문헌들에서 일치하게 계속 사용되여온것은 전조선무진년설이 당요와 관계없이 고유한 전승으로 내려온 년대라고밖에 볼수 없는것이다.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일연이 같은 책에서 주 무왕 기묘년(1122)까지

---

4) 우리 나라가 고대 및 중세중국과 문화교류를 진행하여 '신지글자' 외에도 한자를 자기 서사생활에 받아들이고 지식층들이 중국의 경서와 사서들을 참고하게 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왕충의 『론형』 회국(恢國)편에 "료동, 락랑사람들이……주나라때에는 중역을 할줄 알았고 오늘에 와서는 시, 서, 춘추의 뜻을 외울줄안다.(遼東樂浪……周時重譯, 今誦詩書春秋之義)"라고 한것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왕충이 료동, 락랑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의 시점에서 본 1세기 당시의 료동, 락랑지역의 사람들로서 주나라때에는 이 지역이 후조선령역이였으므로 고대조선사람들이 고대중국과의 교류과정에 한어를 중역할수 있게 되고 시와 서, 춘추와 같은 책들도 읽을수 있었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삼국시기에 이미 지식층속에서 중국의 『사기』, 『한서』, 『삼국지』 등 력사책들과 유교경전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것이며 따라서 『사기』 오제본기나 그 주석에 밝힌 황보밀의 갑진년설도 일반화되여있었을것이다.

전조선이 1,500년동안 존속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한은 당요무진년이 아니라B.C. 27세기경으로 올라가기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일찌기 여러 문인들에 의해 지적되여왔는데 서거정은 "지금 생각해보니 요가 선것은 상원 갑자 갑진년이요 단군이 서기는 그후 25년째되는 무진년인즉 요와 동시에 선것이 아니다."(『동국통감』외기)라고 하였는가 하면 "『고기』에는 단군이 요와 동시에 무진년에 섰다고 했는데 지금 책들에는 요가 갑진에 즉위한것으로 되여있다. 단군이 무진에 섰다고 한것은 무슨 까닭인가? 요가 무진에 즉위하였다고 하는것은 위서이다.(古記云檀君與堯並立於戊辰今書堯立於甲辰檀君於戊辰何耶曰以堯爲戊辰者緯書也『사가집(四佳集)』권5 력대년표서)"로 말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류희령의 『동국사략』이나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전조선건국무진년설이 당요와 결부되기는 썩 후세의 일이며 당요와 결부된 무진년으로서의 B.C. 2333년이라는 년대는 정확한 년대라고 말할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단군의 건국이 요임금시기에 비겨지고 년대도 요임금원년에 비정되게 된것은 어떤 원인으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것이겠는가?

원래 『사기』 오제본기에 의하더라도 첫머리는 헌원황제로부터 시작되여있으며 요임금이 실제로 시조로 치부되고있었던것도 아니였다.

중세중국에서 요임금이 내세워지게 된것은 공자, 맹자에 의해 순임금과 함께 유교적인의도덕의 절대적존재로 내세워지기 시작한때부터이며 그 영향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고대시기에 요임금의 성덕으로 보아 단군과 대등한 존재로 비길수 있으리라는 견지에서 비겨지게되였던것이다.

그 시기는 『삼국유사』에 실린 『위서』의 내용 그 자체로 보아서도 '지나간

2천년전에 요와 같은 시대'라고 하였으므로 요임금 당시인 B.C. 24세기경부터 2천년후인 B.C. 4세기경 즉 공맹지도가 우리 나라에도 전파, 보급되어온 시기라고 봐야 할것이다.

이 시기이래로 원래는 그전에 간지기년법이 도입되었을적에 력사적사실인 건군년대 B.C. 30세기초경이 몇십몇번째 '무진년'으로 규정되었을것인데 그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건국년대간지만이 전해지게 되고 아주 먼 옛날이라는 막연한 기억만이 남게 되었을때 중국에서의 가장 오래전에 문명한 정치를 잘하였다는 당요와 같은 시기로 보는 견해가 생겨났을것이다.

이처럼 단군이 당요와 같은 해인 무진년(B.C. 2333)에 건국하였다는 설은 력사적사실을 반영한 정확한 년대라고 말할수 없다.

다음으로 고조선의 건국년대와도 관련되어있는 후조선의 건국년대도 이와 밀접히 결부된 '기자동래설'의 허황성으로 보아 전혀 믿을것이 못되는 년대이다.[5]

앞에서 본것처럼 종래 전해오던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관한 기록들의 이러한 모순은 결국 단군조선의 건국년대를 새롭게 고찰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따라서 단군유골에 근거한 년대만이 그러한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로서의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견해들도 전해오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년대관들을 충분히 섭렵하여 건국년대를 정해야 할것이다.

---

5)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필자의 글「기자조선관계사료를 통하여 본 '기자조선설'의 허황성」,『사회과학원학보』2004년 특간호 참조.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B.C. 30세기초로 볼수 있는것은 우선 옛 문헌들에 실린 전조선건국년대에 대한 일련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

리조초엽의 문인관료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1590년)에 실린 『서경제명기(西京題名記)』의 저자 송처검(宋處儉)은 자기 글에서 "대저 우리나라에서 도읍을 세운데서 평양만큼 오랜 도읍이 없다. 단군, 기자로부터, 위만, 동명에 이르기까지 전해내려온 해수가 무릇 2,750여년이나 되였어도 그 유풍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썼다.(『平壤志』 卷9 「西京題名記」, …… 大抵建國建都之久莫如平壤自檀君箕子以至衛滿東明其傳世歷年凡二千七百五十餘歲其遺風流俗尙有存焉)

송처검은 '서경(평양)'이라는 도읍명칭이 유구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 도읍이 단군에 의하여 처음 국도로 정해져 고구려시조 동명에 이르기까지 2,750년이라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자랑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단군에 의한 전조선의 건국을 종전의 통설보다 올려서 B.C. 28세기경(B.C. 2788)까지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당시 사람들속에서 『삼국유사』의 첫 기록에서 알수 있다싶이 평양이 단군에 의한 전조선성립부터 국도로 되여온것이 자명한 사실로 되여왔으므로 평양의 력사는 결국 단군조선의 력사와 동일하며 따라서 평양이 수도로서 도읍한 년대는 곧 단군조선의 건국년대로 되는것으로 믿어져왔을것은 당연하다.

동명왕은 『삼국사기』 년표에 전하는것처럼 고려이래로 B.C. 37년으로

6) 고구려건국년대가 B.C. 277년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우리 학계에서 밝혀진 문제(1991, 『조선전사』 3(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2~32쪽)이므로 더 언급하지 않지만 당시의 견해대로 일단 B.C. 37년설에 맞추어본다.

티해(오인)[6]되어왔으므로 이것은 송처검이 평양의 력사 즉 단군조선의 력년을 2,750여년으로, 나아가서 전조선의 건국년대를 B.C. 3천년기전반기로 보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18세기 실학자의 한사람인 이재 황윤석(1729~1791)에게서도 표현되었는바 그는 시조 단군이 세운 왕조(전조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은 무정8년 갑자에 끝났다고 하면서도 단군조선이 2,800년간 존속하였다는 전승도 있었다는것을 강조하였다.[7]

그가 일설로 전한 이 년대는 만조선이 성립된 B.C. 194년이전에 2,800년간 단군이 통치한 고조선국가가 있었다는것 결국 B.C. 30세기초(B.C. 2993년경)에는 시조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홍만종이나 리종휘같은 문인, 학자들속에서도 단군을 중국의 복희, 신농씨와 같은 시기에 산 인물로 추측하므로써 요임금 무진년보다 더 올려본 견해도 있었다.

홍만종은『해동이적』(1666년 편찬) 단군조에서 단군의 나이를 두고 론하

---

7) 『이재전서(頤齋全書)』 하(下) 자지록(資知錄) 동국력대향년도(東國歷代享年圖) "단군조선은……당요무진년에 서서……상 무정 8년 갑자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대체로 1,017년인데(혹은 1,908세라고도 하고 1,048세라고도 하며 2,800세라고도 한다.) 여기에 또(상 무정 9년 을축으로부터 주 무왕 원년 기묘까지의) 195년을 합해서 1,212년이 된다.〔檀君朝鮮……唐堯二十五年戊辰立……商武丁八年甲子……凡一千一十七年(或曰壽一千九百八歲, 或曰一千四十八歲, 或曰二千八百歲)……又距商武丁九年乙丑止周武王元年己卯凡一百九十五年合一千二百十二年〕" 이 경우 2,800년 계속되었다는 단군조선은 전, 후조선 다 합한 즉 단군을 최고통치자로 하는 왕조로서 후세의 일부 문인들에 의해서도 제창된 만조선이전의 전단군조선, 후단군조선을 의미하는것으로 리해해야 할것이다. 왜냐면 그는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군조선이 곧장 만조선으로 넘어간것으로 보았기때문이다.

면서 "그 시작과 종말이 극히 평이하니 사람이라고도 할수 없고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즉 그래서 내가 일찌기 단군을 복희씨에 비겨야 할것이라고 한바 있다."고 하였다. (『해동이적』 권11 동사 단군본기. 且終始極其靈異則固不可謂之人也亦不可不謂之人也故余嘗以爲檀君類伏羲氏)

티종휘(1731~1797)의 『수산집(修山集)』(권11 동사 단군본기)에도 "대개 단군이 맨 처음 성인으로 나왔다고 하는것은 중국의 복희, 신농이나 같다.(盖檀君首出聖人在中國其伏羲神農之君乎)"고 씌여져있다.

『사기』 오제본기의 주석에 의하면 복희, 염제, 신농은 요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다는 중국의 전설적인물들로서 각각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대의 임금이 계승된 각각의 한개 왕조를 의미하는것으로 리해되고 있었다.[8]

그렇다면 홍만종이나 티종휘같은 학자들은 단군조선의 건국을 그만큼 (B.C. 30세기~B.C. 29세기 경)으로 올려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동국여지승람』(1530년 편찬, 권51 평양부 묘사조단군사조)에 실린 사도(史道)의 시[9]에서도 나타났는바 그는 "단군이 어느때에 시작되였느뇨……지금으로부터 4천여년전이라 하나 전해오는 사당이 아직도 산속에 있다.(檀君何所始聞說始終堯 去今四千載 遺廟在山椒)"고 전하고있다. 여기서 '4천여년'이라고 하면 물론 『동국여지승람』편찬이전 사도의 시가

8) 『사기』 권1 오제본기 첫머리인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에 대한 주석에 실린 「사기색은」에는 "염제, 황제는 비록 서로 이어왔다고 하지만 「제왕대기」에는 중간에 무릇 8명의 임금이 500여년동안 있었다고 하니……어찌 황제가 오백여년 지나서 처음 염제대신에 천자로 되였겠느냐"고 하면서 염제이후 8대지난 유망(帝榮)때에 이르러 황제헌원에 의해 멸망한것으로 밝혔다.(炎黃二帝雖俱相承如帝王代紀中間凡隔八帝 五百餘年……豈黃帝經五百餘年而始代炎帝後爲天子乎)

9) 이 시는 『평양지』 권7에도 수록되여 있다.

창작된 당시로부터 거슬러올라가 대체로 B.C. 26세기경으로 추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당요무진설에 비하여 썩 올려본것으로 된다.

이처럼 옛 문헌들에는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하여 당시의 통설에 구애되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승이나 일설에 기초하여 B.C. 30세기경까지 올려본 견해들이 많이 수록되어있다.

단군조선의 건국년대를 B.C. 30세기초로 볼수 있는 문헌적근거는 다음으로 옛 문헌들에 전해지고있는 단군조선, 후조선의 존속기간과 왕대수에 대한 문헌적고찰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선 단군조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보자.

이에 대하여 전한 기록들중 그중 사실에 접근했다고 볼수 있는 견해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단군조선이 1,500년동안 계속되였다는 『고기』의 기록이라고 본다.

이 년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한 기록인 『고기』에는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지 1,500년이다. 주 무왕이 즉위한 기묘(B.C. 1122)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였으며 수명이 1,908세였다."고 씌여져있다.

『고기』의 기록에서 '기자가 봉해'졌다는것이 허황하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론증된 문제이므로 언급을 피하고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기자이전 단군왕조가 1,500년간 존속했다고 한것이다. 주 무왕이 "기자를 봉했다."는 해는 고려당시까지만 해도 B.C. 1122년으로 알려져있었으므로 이에 의하면 전조선왕조는 이보다 1,500년전인 B.C. 27세기말에 성립된것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요 무진년(또는 경인년)에서부터 주 무왕 기묘년까지는 옛날 간지계산법대로 하여도 1,212년간(또는 1,189년간)밖에 되지 않는다.[10] 이것

은 전조선왕조의 존속기간에 대해 전한 『고기』의 기록에 모순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한때 국사로까지 되어 명망이 있던 일연이 이 모순점을 알고도 『고기』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것은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것이 당요나 주 무왕과는 관계없이 따로 전해오는 무시할수 없는 민족고유의 전승이라는 리해에 기초한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견해는 석간 조운흘에게서 더욱 명백히 나타났다.

그는 『삼한시귀감』(1370년대 편찬)의 주석에서 "고조선에 단군이 섰다. 단군의 수명은 1,800살이고 왕위에 있은지는 1,500년이다."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1,500년설이 당요나주 무왕과는 관계없이 씌여져있는것이다.

1,500년설은 그후에도 여러 문헌들에서 합리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져 그대로 소개되여왔다.

례컨대 류희령의 『동국사략』(1529), 조정의 『동사보유』(1646), 리종휘의 『수산집』, 홍만종의 『해동이적』(1666)[11] 리복휴(李福休)의 『해동악부』, 류의양(柳義養)의 『춘관통고(春官通考)』(1788, 권44 길례 삼성사조), 홍경모(1774~1851)의 『총사(叢史)』(의편 동사변증 단군항국조)[12] 등이 그러한것들이다.

이렇게 옛 문헌들에 전해온 전조선존속기간 1,500년설은 전조선왕대수

10) 그러한 모순은 력대문인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였는데 홍만종은 "내가 『황극경세서』를 보니 당요 무진년에서 상 무정 8년 갑자까지는 1,027년이고 주 무왕 원년 기묘까지는 1,202년이니 어느설이 옳은지 모르겠다."(余以皇極經世書推之自唐堯戊辰至商王武丁八年甲子一千二十七年周武王元年己卯則一千二百二年雖不知孰爲是盖其在此千有餘歲矣)『海東異績』檀君

11~12) 『해동이적』에서는 '수 1,508세'로, 『총사』에서는 '어국(御國)1,520년'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를 놓고 따져보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년대라고 할수 있다.

『규원사화』를 비롯한 일부 비사들[13]에는 전조선은 대체로 47대, 왕세대는 44세대[14]로 전해오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대당 평균통치년간은 34.5년이 된다.

우리 나라의 중세초기 봉건국가들의 경우를 놓고보면 고구려에서는 33대왕 26세대 945년간이므로 세대당 평균 36년정도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라로부터 서주시기까지의 1,435년동안에 모두 48대왕 40세대가 있었던것만큼 세대당 평균 35.8년이나 된다.

따라서 (47대왕이)1,500년 통치하였다는 『삼국유사』 이래의 기록은 력사적사실을 반영할 년대로 봐도 무리가 없을것이다.

다음으로 후조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보자.

후조선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들에서 전하고있는 년대는 '주 무왕 기묘년(1122)'부터 만에 의한 후조선왕조의 교체시기까지 928년간이다.

'기자동래설'이 허황한 이상 그에 의해 후조선 건국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거기로부터 계산된 이 존속기간을 정확한 년대로 볼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일것이다.

13) 최근 우리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규원사화』를 비롯하여 종전에 비사로 취급되던 옛 문헌들에도 일부 력사적사실을 담은 서술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특히 모든 비사들에서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는 단군조선의 왕대수에 대한것, 왕명에 대한것이 그러한 실례들이다.(「규원사화의 사료적가치」, 『력사과학』 2004년 2호; 『단군관계비사 연구』(단행본) 등 참조)

14) 『규원사화』를 비롯하여 일련의 단군관계비사들에는 이 47대중 3대왕은 아우가 왕위를 계승한것으로 되여있으므로 세대수로는 44세대로 된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옛 문헌들에는 '기자조선'의 년대자체도 9백여년이 아니라 천여년으로 전해온것들도 적지 않다.

『태종실록』(권10 태종5년 11월 계축일조)에 실린 의정부의 상소문에는 "요, 순, 우, 탕, 문, 무왕들은 모두 백여세를 살았고……우리 동방의 단군, 기자는 모두 천여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불법이 들어오지 않은때였습니다.(三代之前未有佛法堯舜禹湯文武俱享百歲世道雖遠歷年永久……吾東方檀君箕子俱歷年一千當時未有佛法)"라고, 리조초엽의 판료인 하륜(1347~1416)의 문집 『호정집(浩亭集)』(卷3, 雜著策問)에는 "기자의 조선과 혁거세의 신라는 모두 1천년이 지났다.(抑以吾東方言之檀君之朝無稗無籍可考矣箕子之朝無論姑置世之新羅則歷年一千其道何由)"라고 지적되어있다.

이러한 실례는 『해동이적』을 비롯하여 여러문헌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특히 리환모(李煥模, 1700년대)의 『두실오언(斗室寤言)』에서는 후조선의 존속기간에 대해 928년과는 전혀 다른 이채로운 설을 전하고있어 주목된다.

거기에는 단군왕검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1,212년동안 정사를 편뒤 그 후손들이 평양에서부터 장당경으로, 백악으로, 또 현도북쪽으로, 또 가섭원으로 옮겨가며 지낸 해수가 1,140년 해서 모두 2,352년으로 전해오고있다.(『두실오언』 권3, 동어東語. 名王儉或曰神市子也都平壤歷年一千二百十二年其後裔自平壤遷書藏京(今文化縣)白岳(九月山)又徙玄徙北又徙弗矩原歷年一千一百四十年共二千三百五十二年)

여기서 현도북쪽으로 옮겼다거나 가섭원으로 옮겼다거나 하는것은 구려나 부여에 관계된 사료(『삼국사기』)에 기초하였을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저자는 구려, 부여를 단군왕검의 후예로 인정하고 평양에서 장당경으로 옮긴 때부터 거기까지를 1,140년력년으로 보았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단군조선에 뒤이은 후조선을 가리킨것[15]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을 놓고볼때 옛 문헌들에서는 후조선의 존속기간을 주 무왕 기묘년부터 계산한 928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천여년으로 보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후조선왕조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것인가?

그것은 후조선왕대수와 만조선왕대수로부터도 류추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후한서』 동이전 한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후조선의 왕대수를 40여세대로 전한 이래 력대 옛 문헌들에서는 그것이 통설로 되어있다.

그런데 40여세대가 928년동안에 존재하였다면 한세대당 평균 20년안팎이므로 고대국가의 한개 왕조 평균재위년간치고는 지내 짧은 감이 드는것은 누구나 주정할수 없을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것처럼 전조선이나 고구려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모두 한 왕대당 30여년이상 존속한것으로 되어있으므로 928년은 왕대수에 비해 역시 모자라는 년대이다.

고대시기의 기록들에 왕대가 루락되거나 기록이 인멸되는 원인으로 고대왕조의 왕대당 평균재위년간이 그렇게 되는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고대로 내려갈수록 오랜것으로 전해오는것은 보통현상이다.

그리하여 홍만종은 "고대의 제왕들로서 오래동안 있었다는 사람들은 복희씨가 115년, 신농이 120년, 황제가 111년, 소호가 백년, 제곡이 105년, 제

15) 구려, 부여, 예, 맥 등을 단군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는 이미 리승휴의 『제왕운기』 이래로 보편화된 견해였다. 이 나라들이나 족속들은 다 전조선이 끝나고 존재한 나라, 족속들이므로 리환모가 말한 력년은 결국 후조선의 력년을 말한것으로 보인다.

요가 118년, 제순과 우가 모두 100년, 탕역시 100년, 주목왕재위 100년이라고 한다.(古來帝王以久聞者伏羲立一百一十五年 崩神農立一百二十年崩黃帝年一百一十歲少昊年一百歲帝嚳年一百五歲堯年一百一十八歲帝舜及禹年皆一百歲湯亦年一百歲周穆王在位一百年)"고 하면서 그런현상에 긍정을 표시하였던것이다.

후조선말기에 전해오는 왕으로는 부왕과 그 아들 준왕 2대만 있는데 그마저도 부왕의 재위년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며 마지막왕은 준왕이 B.C. 194년에 만에 의해 밀려난것으로 알려져있을뿐이다. 『삼국지』 한전에 인용된 『위략』에 의하면 이 준왕의 즉위년도는 대체로 B.C. 3세기말(B.C. 221년)경으로 볼수 있으므로 결국 준왕의 재위기간은 27년간정도였다.

그런데 준왕은 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물러난것이 아니라 만의 정변에 의해 강제로 왕위에서 밀려난 왕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면 아마도 27년보다 더 오랜 30년이상 재위하였을것이였다.

이러한 추론은 후조선에 뒤이어 일어난 만왕조의 평균재위기간을 따져보아도 더욱 가능해진다고 할수 있다.

만조선에 존재한 3대왕중 시기가 명백히 전해오는것은 만이 B.C. 194년에 만왕조를 세웠다는것과 그 손자인 우거때에 한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B.C. 108년에 무너졌다는것뿐이다.(『삼국지』 한전, 『사기』 권115, 조선열전)

B.C. 194년부터 B.C. 108년까지 3대가 존재하였다면 평균 재위기간은 27.6년으로 된다. 그런데 마지막 우거왕역시 재위시에 한나라와의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없었다면 그보다 더 오래 통치하였을것은 두말할것 없다.

따라서 만조선은 세대당 재위기간이 30년안팎이며 후조선역시 이점에서는 거의 같았을것은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본다.

세대당 평균 30년씩 통치하였다고 보더라도 문헌들에 40여세대로 전하는 후조선왕조는 줄잡아서 천년이상 1,200~1,300년이상 존속하였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이렇게 전조선 1,500년, 후조선 1,300년 존속하였다면 전, 후조선은 모두 합하여 2,800년정도 존속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앞에서 본 황윤석의 전, 후조선존속 2,800년설과 일치한 년대이며 결국 '이재전서'의 설이 탕설이 아니라 전, 후조선존속기간에 대한 고유한 전승에 기초한 진실이라고 볼수 밖에 없게 한다.

그러므로 만조선건국 B.C. 194년으로부터 2,800년이전 즉 B.C. 30세기초가 고조선의 건국년대로 규정되는것은 옛 문헌들에 실린 자료에도 기초한 건국년대로 되는것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지난 시기 우리의 옛 문헌들에서는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전통적인 당요 무진년뿐만아니라 그 이전인 B.C. 30세기초(또는 B.C. 3000년기전반기)로 보아온 전통적인 견해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전해져내려왔다.

오늘날에 와서 원시적인 단군릉이 발굴되고 단군유골에 대한 년대측정치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건국년대를 더욱 명백히 B.C. 30세기초로 규정할 수 있게 된것은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견해의 정당성을 립증하여 주는 동시에 또 그것들은 측정년대자체의 과학성에 대한 방증으로 되는, 우리 민족사체계의 정립에서 매우 큰 사변이였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

문 혁 (력사연구소 고대사연구실 연구사)

조선사람은 하나의 피줄을 이어 온 단일한 민족인것으로 하여 한 갈래의 인류학적류형으로 이루어져있다.

현대조선사람의 형태학적류형은 오랜 유전학적 계승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오늘의 조선사람이 먼 옛날 어느 집단의 후예인가 하는 문제는 고대조선주민집단의 형태학적특징을 되살려내는 조건에서만 해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은 당시 사람들의 형태학적 특성에 대한 표상을 주는 유일한 자료이며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들과 혈연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혀주는 동시에 고대조선주민들과 현대조선사람들의 유전학적계승관계를 해명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된다.

이 론문에서는 먼저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을 밝히고 우리 나라 고대주민은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과 특색있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인류학적류형의 하나라는것을 해명하려고 한다.

우선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개괄하려고 한다.

고대조선주민의 인류학적자료는 우리 나라 동북부와 서북부지역에서 알려진 단군조선시기의 남자머리뼈 19개체에 기초한것이다.

〈표 1〉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의 머리뼈계측치 비교[1] (mm 및 °)

M	징표	고대조선주민	현대조선사람	M	징표	고대조선주민	현대조선사람
1	머리뼈길이	177.9	175.2	51	눈확너비	42.0	41.5
8	머리뼈너비	143.1	142.4	52	눈확높이	35.8	35.4
8:1	머리뼈지수	80.4	81.2	52:51	눈확지수	85.2	85.3
17	머리뼈높이(Ba)	140.3	141.0	54	코너비	26.2	25.7
$17:\frac{1+8}{2}$	평균머리뼈높이지수	87.4	88.2	55	코높이	53.5	53.0
5	머리뼈밑길이	100.2	99.1	54:55	코지수	48.9	48.6
9	이마작은너비	94.4	92.5	DS	눈코점높이	7.5	8.3
32	이마각	84.7	86.9	DC	눈코점너비	20.4	22.3
40	얼굴뼈밑길이	97.6	95.3	DS:DC	눈코점지수	36.7	37.2
40:5	얼굴돌출지수	97.6	96.2	SC	코등너비	7.7	7.4
45	광대뼈너비	139.1	135.0	SS	코등높이	2.7	2.7
48	얼굴뼈윗높이	73.0	72.6	SS:SC	코등높이지수	34.7	36.4
48:17	머리얼굴높이지수	51.1	51.6	60	이틀길이	52.3	52.2
48:45	얼굴뼈지수(윗)	52.7	53.7	61	이틀너비	66.5	67.5
72	얼굴각	84.5	84.7	62	입천정길이	46.4	45.0
77	얼굴뼈옷기	148.1	146.4	63a	입천정너비	42.1	40.4
∠Zm	얼굴뼈아래각	139.1	137.7	61:60	이틀지수	127.1	129.3
74	이틀각	71.8	73.5	62':63a	입천정지수	92.1	89.7

고대조선주민들은 머리뼈길이가 177.9㎜로서 얼마간 짧다고 할수 있으며 머리뼈너비는143.1㎜로서 중간정도에 이른다.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징표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머리뼈높이이다. 밑점에서의 머리뼈높이(Ba)가 140.3㎜이다. 이 징표의 경우에 동부아시아옛주민집단의 표준통계치[2]가 135.3±5.94㎜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고대조선주민들은 동부아시아옛주민가운데서 특별히 높은 머리뼈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평균머리뼈높이지수는 87.4인데 이것은 높은머리형(85.0~X)에 해당되는 크기이다. 머리뼈지수는 80.4로서 이 지수에 따르는 형태구분에 의하면 고대조선주민은 짧은머리형(80.0~X)에 속한다.

머리뼈지수가 동부아시아옛주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77.6으로서 중간머리형(75.0~79.9)이다.

고대조선주민들의 머리뼈에서 가장 특징적인 징표의 하나는 이마경사각이다. 고대조선사람은 특징적으로 이마가 곧추 섰다. 이마의 경사도가 여러개의 각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이마측면각(M32)이다. 이 각이 80° 보다 작을 때 이마가 제꺼졌다고 하는데 고대조선주민은 그 각이 84.7°이다. 동부아시아옛주민집단은 이 각의 표준통계치가 80.3±3.94°이라는것을 고려할 때 고대조선주민은 이마측면각이 동부아시아의 옛 주민집단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할수 있다.

1) 1989, 『조선사람의 기원 』(사회과학출판사), 112~113, 168~169쪽. 단군조선의 력사가 새롭게 고증된 조건에서 조선옛류형사람머리뼈계측치를 참고하여 계산함.
2) 1984, 『아시아몽골로이드의 분류와 계보학의 몇가지 문제(로문)』(과학출판사), 37쪽.

얼굴뼈높이(M48)는 73.0㎜로서 중간정도로 높으며 광대뼈너비(M45)는 139.1㎜로서 얼마간 넓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인종적특징의 하나가 넓은 얼굴에 있는것만큼 동부아시아옛주민집단에서 그 징표의 표준통계치는 140.7±1.56㎜이다. 그 징표가 M-δ에 해당되는것만큼 고대조선사람이 아시아인종갈래의 옛 주민집단치고는 얼굴뼈의 너비가 오히려 좁으면 좁았지 넓은편이라고 할수는 없다.

얼굴뼈의 형태규정은 얼굴뼈지수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고대조선주민은 얼굴뼈지수(M48:45)가 52.7로서 중간얼굴형(50.0~54.9)에 속한다. 얼굴뼈의 돌출정도는 머리뼈밑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얼굴뼈밑길이가 그것보다 얼마나 길고 짧은가에 따라 규정한다. 얼굴의 돌출정도를 보여주는 얼굴돌출지수(M40:5)가 고대조선사람은 97.6이다. 그러므로 고대조선주민은 얼굴뼈의 돌출정도를 반영하는 턱이 들어간 형(X~97.9)에 속한다.

턱의 돌출정도는 얼굴뼈돌출지수뿐아니라 얼굴각에도 반영된다. 고대조선사람은 얼굴각이 84.5°로서 밋밋한 턱형에 속한다.

고대조선주민은 인종적특징을 잘 나타내는 코마루가 낮다. 그리고 눈확은 높다. 고대조선사람의 눈확높이는 35.8㎜이고 그 너비(mf)는 42.0㎜이며 그 지수(M52:51)는 85.2이다. 동부아시아옛주민집단의 눈확높이가 대체로 중간정도라고 볼 때 고대조선사람은 높은 눈확형(85.0~X)에 속하는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이틀이나 입천정은 다 같이 상대적으로 짧고 넓다. 따라서 고대조선사람은 넓은 이틀형과 넓은 입천정형에 속한다.

고대조선사람은 이웃지역의 동시대인과는 물론 그에 선행한 이웃들과도 이 특징으로 하여 특색있게 구별된다.

이와 같이 고대조선사람들의 머리뼈는 그 길이가 짧고 너비는 중간정도

이며 그 높이가 큐달리 높다. 이마는 아주 곧으면서 중간정도로 넓다. 얼굴뼈는 너비와 높이가 약간 크고 그의 형태는 중간얼굴형에 속한다. 턱은 밋밋한 턱형이며 눈확은 높은 편이고 이틀과 입천정이 넓은것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또한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특징은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3]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표 2〉 고대조선주민과 이웃지역 옛 주민들의 머리뼈계측치[4](㎜ 및 °)

M	징표	고대 조선주민	반파주민	쯔구모주민	글라즈꼬브 문화주민
1	머리뼈길이	177.9	180.8	186.4	190.4
8	머리뼈너비	143.1	138.9	144.4	143.8
8:1	머리뼈지수	80.4	78.3	77.7	75.6
17	머리뼈높이(B)	140.3	138.8	134.0	132.5
17: $\frac{1+8}{2}$	머리뼈평균높이지수	87.4	87.0	81.0	79.3
5	머리뼈밑길이	100.2	102.2	103.4	105.1
9	이마작은너비	94.4	93.1	95.5	95.3
32	이마각	84.7	79.5	81.8	77.7
40	얼굴뼈밑길이	97.6	100.5	102.7	104.6

3) 고대조선주민과 대체로 비슷한시기의 이웃 지역주민들로서는 중국 황화류역의 반파주민, 쁘리바이깔지역의 청동기시대주민인 글라즈꼬브문화주민, 일본의 죠몽시대 쯔구모주민을 들수 있다.

4) 반파주민자료는 1960, 『고고』(중문) 2호, 43~44쪽; 1965, 10호, 515~516쪽, 쯔구모주민자료는 1971, 『일본의 인종인류학(로문)』(과학출판사), 191~192쪽, 글라즈꼬브문화주민자료는 1951, 『원동인민들의 족속인류학과 족기원문제(로문)』(과학원출판사), 158쪽.

40:5	얼굴돌출지수	97.6	98.3	99.3	99.5
45	광대뼈너비	139.1	130.5	143.2	141.5
48	얼굴윗높이	73.0	75.9	67.0	75.2
48:17	머리얼굴높이지수	51.1	54.6	50.7	56.7
48:45	얼굴뼈지수	52.7	58.1	48.3	53.1
52	눈확높이	35.8	33.6	33.5	34.4
51	눈확너비	42.0	42.3	43.5	40.5
52:51	눈확지수	85.2	82.1	76.5	85.1
54	코너비	26.3	273.0	26.6	25.9
55	코높이	53.5	55.5	48.6	55.1
54:55	코지수	48.9	50.0	54.5	46.9
72	얼굴각	84.5	81.0	81.9	86.1
77	얼굴뼈윗각	148.1	146.7	146.3	144.8

고대조선주민들의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들과 구별되는 류형학적차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번호	징표	고대조선주민	반파주민	글라즈꼬브 문화주민	쯔구모주민
1	머리	단두형	중두형	장두형에 가까운 중두형	전형적인 중두형
2	이마	곧은형	제껴진 형	제껴진 형	약간 제껴진 형
3	얼굴의 크기와 형태	넓고조금 높은편 중간얼굴형	좁고 상대적으로 낮은편 중간형	넓고 높은편 중간형	넓고 낮은편 넓은 얼굴형
4	턱	들어간 형	밋밋한 형	들어간 형	나온 형
5	얼굴의 수평경사	아주 넙적한 얼굴	조금 넙적한 얼굴	넙적하지 않은 얼굴	넙적한 얼굴
6	눈 확	높은 형	중간 형	중간형에 가까운 높은 형	낮은 형

7	코	중간 형	넓은 형	좁은 형	전형적인 넓은 형

고대조선주민이 이웃 지역 옛 주민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민집단이라는것은 형태비교학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류형학적특징뿐아니라 통계학적분석에서도 표현된다.

고대조선주민과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들과의 류사성과 차이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집단들사이의 비교통계값을 계산하였다.

〈표 4〉 고대조선주민과 이웃 지역 옛 주민들사이의 비교통계값

M	징표	반파주민		쯔구모주민		글라즈꼬부 문화주민	
		d	p	d	p	d	p
1	머리뼈길이	2.9	0.47	8.5	1.39	12.5	2.04
8	머리뼈너비	4.2	0.84	1.3	0.26	0.7	0.14
8:1	머리뼈지수	2.1	0.65	2.7	0.84	4.8	1.5
17	머리뼈높이	1.5	0.36	6.3	1.28	7.8	1.59
45	광대뼈너비	8.6	1.68	4.1	0.80	2.4	0.47
48	얼굴윗높이	2.9	0.70	6.0	1.46	2.2	0.53
48:45	얼굴뼈지수	5.4	1.74	4.4	1.41	0.4	0.12
40:5	얼굴돌출지수	0.7	0.17	1.7	0.42	1.9	0.47
32	이마각	5.2	1.40	2.9	0.78	9.0	1.89
72	얼굴각	3.5	1.20	2.6	0.89	1.2	0.41
77	얼굴윗각	1.4	0.31	1.8	0.40	3.3	0.75
54	코너비	0.8	0.44	0.4	0.22	0.3	0.16
54:55	코지수	1.1	0.26	5.6	1.36	2.0	0.48
52	눈확높이	2.2	1.15	2.1	1.10	1.4	0.73
52:51	눈확지수	3.1	0.62	8.7	1.74	0.1	0.02
평균판계편차		0.81		2.51		1.65	

여기서 d는 비교하는 집단들의 매 징표크기에서의 차이이며 p(관계지수)는 매 징표에 따르는 표준편차(s)에 대한 비교집단들사이의 차이의 비로 표시된다. 이것은 비교하는 집단들사이의 편차정도를 대비하여 평가할수 있는 기초를 준다.

우의 표에서 관계편차가 0.4보다 클 때는 통계학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보다 작을 때는 그것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차이가 우연적인것이라고 보게 된다.[5]

고대조선주민과 이웃지역의 옛 주민들을 15개의 징표를 비교한 결과 0.4보다 작은 관계지수는 겨우 4개정도로서 26.7%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대조선주민과 이웃지역의 옛 주민들사이에는 73.3%의 많은 징표들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고대조선주민들은 일정한 류형의 형태학적특징을 규정하는 징표들의 류형학적특성에서나 이 징표들의 절대적크기에서 이웃지역의 옛 주민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의 이러한 형태학적특징은 이 집단의 혈연적기초가 이웃집단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여기에서는 단군조선시기의 우리 나라 고대주민들이 남씨비리일대에서 청동기문화를 남긴 까라쑤크문화주민과 인류학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은 조선사람의 본토기원설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거나 반론하는 일부 사람들의 고대조선사람이 까라쑤크문화주민들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

5) 1989, 『조선사람의 기원』(사회과학출판사), 145쪽.

는데 있다.

우리 나라 고대주민들이 남씨비리지방의 까라쑤크문화주민들과 친연관계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물론 고고학자료로서도 론할수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 주민들의 혈연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고인류학적자료에 의거하여 해명하는것이 더 합리적이고 보다 명백하다.

고대조선주민과 까라쑤크문화주민의 머리뼈계측치는 다음의 표에 제시한다.

〈표 5〉 고대조선주민과 까라쑤크문화주민의 머리뼈계측치 비교[6](mm 및 °)

M	징표	고대조선주민	현대조선사람	M	징표	고대조선사람	까라쑤크문화주민
1	머리뼈길이	177.9	183.0	72	얼굴각	84.5	86.4
8	머리뼈너비	143.1	147.4	77	얼굴뼈 옷각	148.1	141.3
8:1	머리뼈지수	80.4	81.0	∠Zm	얼굴뼈 아배각	139.1	130.8
17	머리뼈높이(Ba)	140.3	133.0	51	눈확너비	42.0	44.1
17:$\frac{1+8}{2}$	평균머리뼈높이지수	87.4	80.5	52	눈확높이	35.8	33.7
5	머리뼈밑길이	100.2	103.0	52:51	눈확지수	85.2	76.0
9	이마작은너비	94.4	98.4	54	코너비	26.2	25.8
32	이마각	84.7	81.7	55	코높이	53.5	51.6
40	얼굴뼈밑길이	97.6	101.0	54:55	코지수	48.9	49.9
40:5	얼굴돌출지수	97.6	98.3	DS	눈코점높이	7.5	12.2
45	광대뼈너비	139.1	139.7	DS:DC	눈코점지수	36.7	57.0
48	얼굴뼈옷높이	73.0	73.4	SS	코등높이	2.7	4.5
48:45	얼굴뼈지수	52.7	51.7	SS:SC	코등높이지수	34.7	54.0
48:17	수직머리얼굴지수	51.1	55.3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대조선주민은 까라쑤크문화주민과 분류학적으로 의의가 큰 많은 인종징표들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은 머리뼈길이가 177.9㎜로서 작은 축에 속하며 그 너비는 143.1㎜로서 중간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까라쑤크문화주민은 머리뼈의 길이가 183.0㎜로서 중간축에 속하며 그 너비는 147.4㎜로서 큰축에 속한다.

이 징표들에서 두 집단사이에는 그 길이가 5.1㎜, 그 너비가 4.3㎜의 차이가 있다.

고대조선주민과 까라쑤크문화주민은 집단들사이에 친연관계를 반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머리뼈높이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은 머리뼈높이(Ba)가 140.3㎜로서 아주 큰축에 속하지만 까라쑤크문화주민은 그것이 133.0㎜로서 중간크기에 해당된다. 이 징표에서 두 집단은 무려 7.3㎜나 되는 큰 차이를 가지고있다.

평균머리뼈높이지수에서 고대조선주민은 87.4로서 높은머리형(85.0~X)에 속하지만 까라쑤크문화주민은 그것이 80.5로서 낮은머리형에 가까운 중간머리형(80~84.9)에 속한다.

머리뼈밑길이와 이마작은너비에서도 두 집단은 각각 2.8㎜, 4㎜나 되는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이마각에서도 고대조선주민은 84.7°로서 큰축에 속하며 아주 곧지만 까라쑤크문화주민은 81.7°로서 중간축에 속하며 약간 제꺼졌다.

---

6) 까라쑤크문화주민의 자료는 1984, 『쏘련아시아지역의 인류학(로문)』(과학출판사), 36쪽 참조.

고대조선주민은 얼굴뼈윗각과 아래각이 다같이 큰축에 속하지만 까라쑤크문화주민은 그것이 각각 중간축과 작은축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대조선주민은 얼굴이 넙적하지만 까라쑤크문화주민은 얼굴이 넙적하지않다. 이 징표가 고대조선사람은 명백한 아시아인종적특징을 가지고있는데 까라쑤크문화주민은 전형적인 유럽인종적특징을 가지고있다.

인종적특징을 나타내는 눈확의 크기와 형태에서도 고대조선주민은 까라쑤크문화주민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은 눈확너비와 높이가 각각 42.0㎜, 35.8㎜로서 그 너비는 중간크기에, 높이는 큰축에 속한다. 이와 달리 까라쑤크문화주민은 그것이 각각 44.1㎜, 33.7㎜로서 너비는 큰축에, 높이는 중간크기에 속한다. 따라서 고대조선주민은 높은 눈확형에 속하며 까라쑤크문화주민은 낮은 눈확형에 아주 가까운 중간 눈확형에 속한다. 까라쑤크문화주민은 고대조선주민보다 눈확이 더 넓고 그 높이는 낮은것으로 하여 두 집단은 눈확지수에서 각각 76.0, 85.2로서 그 차이는 무려 9.2에 달한다. 이렇게 눈확의 높이가 고대조선사람은 아시아인종적특징을 그대로 지니고있으며 까라쑤크문화주민은 유럽인종에 끌리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까라쑤크문화주민의 유럽인종적인 특징은 코마루의 높이를 반영하는 눈코점높이와 코등높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까라쑤크문화주민은 눈코점높이가 고대조선주민보다 무려 4.7㎜나 더 큰 크기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유럽인종처럼 큰축에 속한다. 코등높이에서도 까라쑤크문화주민은 4.5㎜로서 고대조선주민(2.7㎜)보다 1.9㎜ 더 높으며 그것이 큰축에 속한다. 두 집단은 눈코점높이와 코등높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하여 눈코점높이지수와 코등높이지수에서도 뚜렷이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은 눈코점높이지수가 36.7, 코등높이지수는 34.7로서 작은축에 속하지만 까라쑤크

문화주민은 그것이 각각 57.0, 54.0으로서 반대로 큰축에 속한다.

이것은 까라쑤크문화주민이 전형적인 아시아대인종에 속하는 고대조선주민과는 달리 유럽인종적인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대조선주민은 까라쑤크문화주민과 많은 징표들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고대조선주민과 까라쑤크문화주민사이에 형태학적특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학적으로도 뚜렷이 구별된다.

〈표 6〉 고대조선주민과 까라쑤크문화주민의 비교통계값

M	징표	d	ρ	M	징표	d	ρ
1	머리뼈길이	6.0	0.98	45:8	머리얼굴너비지수	2.0	0.52
8	머리뼈너비	3.8	0.76	72	얼굴각	0.4	0.14
8:1	머리뼈지수	0.2	0.06	77	얼굴뼈옷각	6.7	1.52
17	머리뼈높이(Ba)	7.3	1.48	∠Zm	얼굴뼈아래각	6.2	1.15
17:$\frac{1+8}{2}$	평균머리뼈높이지수	7.0	1.86	51	눈확너비	2.5	1.38
5	머리뼈밑길이	2.8	0.68	52	눈확높이	3.1	1.63
9	이마작은너비	3.3	0.75	52:51	눈확지수	10.6	2.12
32	이마각	3.4	0.91	54	코너비	0.3	0.16
40	얼굴뼈밑길이	3.5	0.71	55	코높이	1.7	0.58
40:5	얼굴돌출지수	0.7	0.17	54:55	코지수	1.0	0.24
45	광대뼈너비	1.1	0.21	DS	눈코점높이	4.7	3.61
48	얼굴뼈옷높이	0.3	0.07	DS:DC	눈코점지수	20.3	2.40
48:45	얼굴뼈지수	1.4	0.44	SS	코등높이	1.9	2.11
48:17	머리얼굴높이지수	2.8	0.85	SS:SC	코등높이지수	19.3	1.65
평균판계편차 1.04							

두 집단사이에서 0.4보다 작은 관계지수는 비교한 28개 징표가운데서 7개의 징표밖에 되지 않으며 21개의 징표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로 구별된다. 특히 관계지수가 0.8이상 되는 징표는 14개, 2.0이상 되는 징표는 3개로서 두집단이 완전히 다른 형태학적특징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고대조선주민이 까라쑤크문화주민과는 인류학적으로 보아 아무런 친연관계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기원상 갈래가 서로 다른 완전히 독자적인 주민집단에 속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대조선주민은 현대조선사람과 유전학적으로 계승관계에 있는 직계선조라는데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이 유전학적으로 직접적인 계승관계에 있다는것은 고대조선주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집단이 동부아시아의 현대주민집단들가운데서 현대조선사람밖에 더 없다는데 있다.

동부아시아에서는 머리의 높이와 얼굴의 넓적정도, 턱의 돌출, 코의형태(주로 크기) 등이 시대적변화를 적게 받았거나 거의 받지 않은 징표들이다. 그러므로 이 징표들은 집단마다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다른 징표들보다 시대를 달리하는 집단들간의 계승관계를 그중 잘 반영한다.

표 1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시대를 달리하는 두 집단인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은 머리가 각각 해당시기에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류형학적으로 같은 부류에 속할뿐아니라 그의 절대적크기에서도 겨우 0.7㎜로 극히 작은 차이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머리뼈높이에서 이루어진 류형학적공통성은 평균머리높이지수에서도 두 집단은 다 같이 전형적인 높은머리형에 속하며 그 차이도 머리뼈높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겨우 0.8밖에 되지 않는다는데서 표현된다.

코의 크기에서도 다같이 중간코형에 속하며 코지수에서 두 집단은 0.3

박에 되지 않는 극히 무시할 정도의 차이로 류사성을 나타낸다.

얼굴의 수직 및 수평면상의 륜곽을 보여주는 턱의 돌출과 얼굴의 넙적정도는 인종분류학적으로 진단학적가치가 크기때문에 유전학적으로도 시대를 달리하는 집단들사이의 친연관계를 아주 잘 반영한다.

턱의 돌출정도를 특징짓는 얼굴각에서 두 집단은 0.2°라는 극히 미소한 차이로 다같이 밋밋한 턱형에 속하는 류형학적인 류사성을 나타낸다.

얼굴의 륜곽을 특징짓는 얼굴뼈윗각과 얼굴뼈아래각이 선후관계에 있는 두 집단에서 얼굴뼈윗각에서 1.7°, 얼굴뼈아래각에서 1.4° 정도의 차이밖에 가지고있지 않다. 두 각에서의 차이는 고대조선주민이 현대조선사람들보다 얼굴이 약간 더 넙적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변천과정의 특성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현대조선사람은 고대조선주민과 마찬가지로 눈코점높이도 높지 않으며 역시 코등의 높이도 높지 않다. 이것은 코마루부위가 넙적하고 낮은 고대조선주민의 특징이 수수천년간에 걸쳐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대로 현대조선사람에게 유전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얼굴너비는 시대적변천과정의 일반적경향을 반영하여 후세의 사람들에게서 약간 좁아지기도 하였지만 그 높이에서는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같은 계렬의 집단인것으로 하여 얼굴의 형태를 규정하는 얼굴뼈지수에서도 량자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얼굴뼈지수에서의 차이가 겨우 1.0이고 다같이 중간얼굴형에 속한다는데 있다.

이틀의 크기와 입천정의 형태에서도 두 집단은 넓은 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입천정형에 속한다.

이밖에 다른 징표에서도 고대조선주민의 특징이 현대조선사람에 그대로

유전된 사실을 알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조선사람은 주민집단들사이의 친연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들에서 고대조선주민의 모습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현대조선사람이 고대조선주민과는 대단히 류사하지만 이웃 지역의 옛 주민류형들과는 징표들의 절대적크기에서는 물론 류형학적으로도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며 그들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현대조선사람과 이웃 지역 옛 류형들과의 류형학적차이는 고대조선주민과 이웃 지역 옛 주민집단들과의 중요징표들에서 본 류형학적차이와 같다.(표 2, 표 3 참조)

고대조선주민이 현대조선사람과 유전학적으로 직접적인 계승관계에 있다는것은 선후관계에 있는 두집단들사이에 이루어진 형태학적류사성에 따르는 분류학적거리를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분류학적거리를 평가하기 위한 수학적방법가운데 하나는 펜로즈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징표들사이의 집단내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에 일부 수정되여 사용한다. 집단내 평균상관계수는 0.23으로 계산되여 리용된다.

이 글에서는 펜로즈공식이 아니라 그 부족점을 수정한 펜로즈-크누스만 공식을 리용하였다.

$$CR^2 = CH^2 - \frac{KR}{1-R+KR} \cdot CQ^2$$

R-징표들사이의 집단내 평균상관계수

K-징표의 수

CH^2 -'크기'에 따르는 거리

CQ^2 -'형태'에 따르는 거리

CR^2 -총체적인 거리

집단간 비교의 대상으로 15개의 징표를 가지고 그 합계로 집단들사이의 분류학적거리를 계산하였다.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과의 집단간거리는 다음과 같다.

'크기'에 따르는 거리(CH^2)－0.206

'형태'에 따르는 거리(CQ^2)－0.142

총체적인 거리 (CR^2)－0.089

이것은 비교하는 두 집단이 형태학적으로도 전혀 구분되지 않으며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류사한 경우에만 그러한 분류학적거리에 있게된다.

또한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사이에 이루어진 집단간거리는 동부아시아에서 계보학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집단들사이에 이루어진 집단간거리가운데서 가장 작다.[7]

동부아시아에서 집단간거리가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집단이 반파류형과 남중국사람의 경우인데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의 경우는 그보다도 1.8배나 더 가깝다.

이것은 동부아시아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두 집단간의 형태학적류사성이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의 경우에 가장 가깝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조선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오늘에 이르는 기간에 이웃 지역의 다른 종족집단들과 혼혈되었다면 현대조선사람은 고대조선주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을수 없으며 그와 구별되는 형태학적차이도 적지 않게 나타나

7) 1989, 『조선사람의 기원』(사회과학원출판사), 206~217쪽.

게 되었을것이다.

이렇게 현대조선사람은 고대조선주민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고대조선주민과 현대조선사람은 직접적인 계승관계에 있다.

이것은 고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혈연적으로 그 어떠한 다른 갈래의 집단들이 흘러들지 않았다는것이며 조선민족은 하나의 족을 혈연적기초로 한 단일민족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고대조선주민들의 고유한 인류학적모습은 동부아시아의 다른 옛 주민들과 뚜렷이 구별되며 조선민족은 인류학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조선의 통치제도

김유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수)

만조선은 고조선의 3왕조가운데서 마지막왕조에 속하였다.

정변의 방법으로 후조선을 무너뜨리고 성립된 만조선은 성립이후 왕조교체의 혼란상태를 점차 극복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일정한 안정과 발전을 가져왔다.

만조선은 특히 후조선의 통치제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최고군주인 왕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통치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토론에서는 고조선의 3왕조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왕조인 동시에 우리나라 다른 고대국가들중 가장 완비되었다고 볼수 있는 만왕조시기의 통치제도에 대하여 고찰하므로써 고대국가로서의 고조선의 발전상을 론하려고 한다.

만조선의 통치제도가 종전에 비해 완비되었다고 볼수 있는것은 우선 군

주제가 보다 강화된것이다.

만조선을 포함하여 전조선이래로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에서는 모두 동방노예제국가들에서 보편적인 군주제가 확립되여있었다.

그런데 같은 고대노예제국가들이라고 하여도 군주제의 강약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

전조선의 경우 단군에 의한 성립초기나 그후 강성기에도 대체로 많은 지역들에 후국을 두고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에까지 왕권이 강하게 미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되는것으로서 군주제의 시기적미약성을 표현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만왕조는 선행왕조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여 군주제를 더욱더 강화하였다.

40여대나 존재했던 후조선을 비교적 쉽게 무너뜨리고 성립된 만왕조는 전왕대통치제도의 약점들에서 교훈을 찾고 최고권력자로서의 왕의 지위를 더욱 철저히 하였다.

만조선통치배들은 아들, 손자에 이르는 왕위세습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1] 최고통치자로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제후들이 다스리는 속령의 비중을 줄이고 왕이 직접통치하는 직할지의 비중을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대외관계의 모든 문제를 왕에게 집결시켜 왕의 명령지시에

1) 『사기』 권115 조선렬전에 의하면 만조선왕조는 모두 한가문 즉 만과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우거에 의해 계승된것으로 된다. 우거도 고조선-한전쟁당시에는 벌써 자기 아들을 태자로 두고 있었다. 이것은 전조선이래의 왕위세습제가 여전히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보다 강하게 관철되여나갔다는것을 보여준다.

의해 단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쟁의 강화담판문제도 태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2] 왕권의 계승관계와 최고권력자로서의 권한을 절대적인것으로 체계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나라침략군에 투항하자는 대신들의 제기를 단호히 물리쳤다든가 그리고 멸수에 침입해온 한나라 수군이 적은것을 보고는 맞받아나가 쳐버렸던 사실들[3]은 만조선에서 종전보다 최고군주의 전제권이 더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만조선시기에 또한 관직제도가 이전시기에 비해 더욱 새롭게 정비보강되였다.

만조선은 후조선시기의 관직제도를 이어받고 새롭게 발전시켜 중앙에 비왕, 상, 장군 등의 관직을 갖추게 되였다.[4]

만조선시기에 비왕[5](裨王)은 왕의 정치를 보좌한 최고위급의 측근관료

2~3) 우와 같은책, 우거왕은 한나라와의 강화담판에 담판사신으로 태자를 보냈는데 이것은 다른 고대국가들 지어는 후세의 중세봉건국가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였다. 물론 그전에 왕밀의 최고관료였던 비왕이 살해되여 그렇게 했다고 볼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왕위계승자인 태자를 전쟁상대방의 군영으로 보낸다는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하나는 모든 국정처리에서 왕권의 역할을 높이려는 일상적인 정치적고려가 작용한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는 대신들의 항복제의에 대한 우거왕의 태도에서도 재현되였는바 그는 이른바 '중신'들인 여러 대신들이 입을 모아 권고하는 항복도 단마디로 일축해버렸다. 만일 우리 나라 중세봉건국가들에서도 가끔있는 간관이나 중신들의 여러차례 되는 끈질긴 제의에 왕들이 혹 동의하는 그런 처지였다면 즉 우거왕이 중신들이 몇차례 제의하여 움직인 실례가 있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을것 같으면 위태하게 적진으로 도망치거나 지어는 왕까지도 살해할 극단한 경우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것이다.

4) 『사기』 조선렬전.

5) 비왕은 같은 시기의 중국의 한나라 관직제도에는 없는 고유한 벼슬로서 만조선관직

였다고 인정된다. 한나라사신이 왔을 때 왕의 위임을 받고 그를 바래준 사실과 벼슬이름으로 보아 비왕은 왕을 도와 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처리하였다고 볼수 있다. 만조선시기 비왕의 직무는 단군조선시기의 호가에 견주어 볼 수 있을것이다.

비왕이 맡은 다른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일반정사와 함께 군사를 관할하는것이였다고 인정된다. B.C. 109년에 국경일대에서 고조선의 비왕을 죽이고 도망친 한나라사신 섭하가 자기 나라 임금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이고 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비왕이 군사를 거느린 장수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왕의 이러한 직책과 임무는 고구려의 최고벼슬아치인 국상이나 막리지가 나라의 군사를 통솔하였던것과 비슷하였을수 있다.

만조선의 상은 대신급의 중앙관료였다.

만조선에는 상이 여러명 있었다. 『사기』 조선열전에 전해지는 고조선-한전쟁(B.C. 109~108) 당시 적에게 투항한자만 하여도 상 한음, 조선상 로인, 니계상 참 등 3명이나 된다. 고조선의 통치층이 다 투항한것은 아니였으므로 상은 그보다 더 많았을것이다.

상들은 왕을 도와 나라의 주요한 부문별 행정을 담당관할할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왕에게 자기 의사를 직접 표명할수 있고 왕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 '충고'할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고조선-한전쟁시기 상들이 모여 투항을 모의하고 왕에게 제기한 사실, 조선상 력계경이 왕에게 충고를 주었던 사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제도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른바 '위만조선' 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 되고있다.

큰 정치적사변이나 사건이 있을 때면 상들은 왕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의 상들가운데는 지방을 맡아 다스릴 임무를 겸해서 맡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조선상이나 니계상 등이 그러하였다. 조선상과 니계상이라는 관직명에 붙어있는 '조선'이나 '니계'는 다 해당 상들이 담당관할한 지역이름을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이 출신지명을 밝힌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 설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것은 상 한음과 같이 '상'자앞에 아무런 지방명칭도 없는 상들이 있었기때문이다.

중앙에 상을 여러명씩 두는 관직제도는 대신급의 많은 '가'들을 두고 나라를 다스린 단군조선시기의 중앙관직제도에 뿌리를 둔 고조선의 고유한 제도였다. 『한서음의(漢書音義)』의 저자가 만조선시기의 상제도에 대해 쓰면서 "오랑캐들이 관직제도를 잘 모르기때문에 모두 상이라고 칭하였다."고 한것은 대국주의적필법에서 모사한것이기는 하나 상제도가 중국의 관직제도와 구별되는 고조선의 고유한 제도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만조선시기의 상제도는 단군조선시기의 '가'라는 관직명이 후조선말기의 과도적단계를 거쳐 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결과였다고 볼수 있다.

장군은 왕과 비왕밑에서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는 고위급의 무관직이였다. B.C. 109~108년 전쟁시기에는 장군 왕협 한사람만이 등장하지만 이러한 장군직을 가진자들은 여러명이였을것이다.

만조선에는 상이나 장군밖에도 후조선말기의 대부나 박사[6]와 같은 관직

6) 『삼국지』 한전에 인용된 『위략』에 반영된 이 관직들은 한나라의 중앙관직에도 보이는것들로서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도 그 기능면에서는 류사하였을것으로 짐작된다.

도 있었을것이다.

이와 같이 만조선시기의 중앙관직에는 비왕, 상, 장군, 대부 등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높은급의 관료들은 대신이라고 불리웠다. 이들은 '우거의 대신'이라는 『사기』 조선렬전의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왕에게 직속되여 왕명을 집행할 임무를 지닌 존재들이였다.

만조선의 중앙관료집단은 비왕이나 상, 장군과 같은 고위급관료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대신급의 관직밑에는 다시 여러등급의 관리들로 이루어진 관료집단이 있었고 통치기구들도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었다고 추정해볼수 있다.

만조선에는 중앙통치기구와 함께 지방통치제도도 정비되여 있었다.

한나라에서 중앙관직으로 승상, 태위, 어사대부가 있었는데 후에 태위는 대사마로, 어사대부는 대사공으로 되여 '삼공(三公)'으로 불리웠다. 그중 어사대부는 감찰관인 어사를 통솔한 관직으로서 부승상격으로 승상과 함께 국가업무를 맡아보기도 하였다.

후조선시기에 대부 례가 연나라와의 충돌시에 왕에게 충고를 주어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후조선에서도 대부의 기능은 비슷하였을것이며 또 만조선에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도 볼수 있다.

박사는 중국의 경우에는 진(秦)나라 제도에서 유래된것인데 B.C. 136년에 처음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었고 후한이후로는 주로 태학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후조선말기에 준왕이 만에게 준 '박사'라는 벼슬도 대체로는 '고금동서의 일을 달통한' 사람에게 준 벼슬로서 만에게 그런 벼슬을 준것은 혹 만이 연나라땅에서 살면서 후조선서쪽변방의 정세, 이웃 나라의 문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나 준왕에게 조언을 준 사정과 관련되여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여하튼 박사벼슬 역시 만이 자기가 직접 받았던 관직이고 보면 만조선시기에도 쉽게 없애지 않고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만조선의 지방통치제도는 후조선시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직할지와 후국의 두부류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만 만조선시기에 직할지의 비중은 종래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에 맞게 직할지에 대한 통치체계가 정비보강되게 되였다.

만조선시기에는 직할지를 여러개의 큰 지방행정단위로 나누고 그것을 중앙의 상들에게 분담시켜 다스렸다고 볼수 있다.

조선상 로인, 니계상 참의 실례가 그것을 실증해주는데 조선상은 수도 왕검성일대, 니계상은 니계지방을 관할하였다고 본다. 지방을 담당한 중앙의 상은 이밖에도 더 있었을것이다.

조선상이나 니계상 등이 해당 직할지를 담당관할하였다고 하지만 후세 리조시기의 관찰사(감사)들처럼 해당지방에 상주한것은 아니였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B.C. 109~108년 전쟁때 니계상 등이 부수도 왕검성에 집결되여 왕과 함께 움직인 사실, 조선상이나 니계상 등이 상 한음, 장군 왕협 등과 한데 어울려 갑히 역적모의를 한 사실이 주목된다. 그들이 역적모의까지 한것을 보면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맞다든자들이라고 보기보다 평소부터 가까이 맴돌면서 속을 터놓을수 있는 처지에 있던 자들이라고 보는것이 한결 순조롭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그들은 원래 수도에 상주하다가 왕을 따라 부수도로 옮겨 왔다고 볼수 있다. 지방을 담당한 상들이 해당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수도에 남아 중앙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왕과 같이 움직였다면 그들은 멀리 수도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담당지역에 나가군 하였을것이다. 고려시기의 사심관이나 안렴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해볼수 있다.[7]

7) 고려때의 관직인 사심관은 중앙의 관료들이 대체로 자기 출신지방의 백성들을 안정

직할지의 지방행정을 담당한 이러한 상들은 해당 지역과 깊은 인연을 가진 자들이였을것이다.

여러명의 중앙대신급관료들이 직할지의 행정단위를 분담하여 다스리는 제도는 단군조선시기에 구가라는 중앙관료 한명이 지방행정을 담당했던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만조선시기의 이러한 제도는 단군조선초기와는 달리 왕의 직할지가 크게 확장된 조건에 맞게 왕권의 지방침투와 지배를 보다 원활하게 실현할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왕이 상들에게 직할지를 분담관할하도록 한 제도는 한동안 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복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대신들의 재지세력지반을 강화시켜 왕권에 대립되는 세력을 낳는 공간의 하나로 변모되여갔다.

만조선말기에 2,000여호나 되는 많은 주민을 이끌고 진국으로 망명한 조선상 력계경의 실례[8]가 그것을 말해준다.

만조선에는 또한 왕의 직할지밖에 후국과 속령이 있었다. B.C. 209년경에 서쪽 100리땅을 봉토로 받은 만, B.C. 128년경의 예군남려, 만조선말기의 부조예군 등은 다 그런 후국의 통치자들이였다.

고조선시기 후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

시키게 할 목적으로 둔것으로서 그들은 일상적으로 서울(개경)에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거기로 나가서 일을 처리하군 하였다.
안렴사는 주로 고려시기의 지방행정단위였던 도의 통치를 맡아보던 지방관료로서 사심관보다는 자기 통치지역에 고정적으로 나가있다고 할수 있지만 아직은 리조후기의 관찰사와 달리 일정한 기간만 나가있던 림시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8)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조에 주석으로 인용된 『위략』.

보기로 한다.

> 만이 준왕을 설복하여 서쪽변경지대에 살면서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니 준이 그를 믿고 박사의 벼슬과 규를 주었으며 100리땅을 봉토로 떼주어 서쪽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만은 무리가 점차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여 한나라군대가 10개길로 쳐들어 오니 왕검성에 들어가 왕궁을 지키겠다고 거짓보고를 하고는 드디여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이 만과 싸웠으나 대적할수 없었다.[9]

> 동이의 예군 남려 등이 28만명을 거느리고 항복하니 창해군으로 만들었다.[10]

자료를 통하여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첫째로, 후국가운데는 지역의 크기나 인구상으로 볼 때 만의 후국과 같이 사방 100리를 포괄하는것, 예군 남려의 경우와 같이 28만명을 거느린것들도 있었다는것이다.

둘째로, 후국이 상당히 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후국의 통치자가 그 통솔권을 잡고있었다는것이다.

만이 한나라군대가 쳐들어 온다고 하면서 왕궁호위를 맡아 나섰던 사실, 준이 만과 싸웠으나 대적할수 없었다고 한 사실 등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후국이 군대를 가지고 일정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

9)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조에 주석으로 인용된 『위략』.
10) 『한서』 권6 무제기 원삭원년조.

셋째로, 후국이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통제와 관할밑에 있었다는것이다.

준왕이 후국을 새로 만들어 만을 그 통치자로 앉히고 그에게 박사의 벼슬과 '규'라는 일정한 신임표를 준 사실, 만이 준왕의 승인을 받고서야 자기 관할하의 군대를 움직인 사실 등이 그 일단을 시사해 준다. 또 이 사실을 통하여 후국이 고조선왕앞에 변방수비, 유사시의 군사동원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는것도 엿볼수 있다.

만조선에는 지방통치제도의 한고리로서 부수도 제도도 정비되여 있었다.

당시의 교통운수조건에서 만조선의 광활한 령토를 다스려 나가자고 해도 그렇고 특히 서변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대응하는 지방통치의 일정한 거점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통치거점이 바로 부수도였다.

B.C. 109~108년전쟁때 한나라 침략군과의 최후결전이 벌어진 왕검성은 평양의 기본수도 왕검성이 아니라 그와 다른 왕검성 즉 료동지방의 부수도 왕검성이였다.

고조선 즉 3조선의 수도가 평양의 왕검성이였다는것은 『삼국사기』(고구려본기 동천왕과 『삼국유사』(고조선조), 『고려사』(지리지서경류수관 평양부조)를 비롯한 우리 나라 력대문헌들에 명기되여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뚜렷이 확증되였다.

그런데 B.C. 109~108년 고조선-한전쟁과정을 기록한 『사기』 조선렬전에는 분명히 평양의 왕검성과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또 다른 왕검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고조선말기의 부수도로 볼수밖에 없다.

이 부수도 왕검성은 료동의 개현(개주시)일대에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양복의 루선군이 왕검성전투를 앞두고 열수의 하구 즉

멸구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멸수가 오늘의 료하라고 인정되기때문이다. 루선군은 발해를 가로질러 멸수에 이른만큼 멸수는 발해로 흘러드는 강이 분명하다.

전한시대 양웅의 『방언』에 나오는 고조선의 멸수에 대하여 곽박은 조선의 멸수는 료동에 있다고 주석을 달았고 료하를 (오)멸수로 불렀다고 볼수 있는 자료도 있다.

또 『산해경』에 패수(대릉하)는 멸도에 흘러든다고 한 기사가 있는데 이 멸도를 멸수의 니토지대로 본다면 멸수는 패수와 하구를 가까이한 강으로 되는데 그런 강으로는 오늘의 료하를 들수밖에 없다.

개현 일대에 한나라와의 최후결전이 벌어진 왕검성이 있었다는것은 멸구 즉 멸수(료하)의 하구에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 루선군이 륙군의 진격이 가로막히자 단독으로 왕검성으로 달려들었으나 왕검성방어군에 의해 몰상당한 전투경위로 보아 왕검성이 멸구(료하 하구)로 부터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고 인정되기때문이다. 개현은 바로 료하 하구에 자리잡고 있고 바다로부터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개현일대는 크고작은 산들로 둘러쌓여있어 예로부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또 여기에는 고인돌무덤이 밀집되여 있고 석붕산에는 굉장히 큰 특대형 고인돌무덤이 있어 이 일대가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고장이였고 정치적중심지의 하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개현일대에는 지금도 왕검성과 깊은 관계를 가진 웅악(곰산)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고대지명들에서 볼수 있는 '곰산', '곰미달'의 '곰', '금' 등은 다 '검'과 음이 통하는 말로써 크다는 뜻 혹은 임금을 의미하였다.

제반사실은 료동지방이 평양의 기본수도 왕검성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왕검성, 부수도 왕검성이 존재했다는것을 보여준다.

만조선시기에 이러한 부수도가 몇개나 되였는지 알수 없으나 부수도제가 있었다는것만은확실하다.

만조선의 부수도제에는 몇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우선 부수도의 지위문제이다.

고조선말기의 부수도 왕검성에는 왕과 태자, 대신급관료들이 집결되여 있었고 또 그 부수도의 함락과 더불어 고조선왕조가 무너지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의 부수도 왕검성이 전략적으로 수도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것, 형식은 부수도였지만 왕이 그곳에 나가 있을 때에는 실제상 수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만조선시기에 부수도가 개주일대의 왕검성뿐은 아니였을것이다.

전조선시기의 장당경에 두었던 부수도같은것도 이때에도 있었으리라고 볼수 있다.

만조선이 특별히 료동일대에 부수도를 두었던것은 아마도 령토확장과 관련하여 서변이 기본수도인 왕검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당시의 사변들이 모두 주로는 한나라와의 접경선인 료동일대에서 생겨났던 사정과 관련하여(이것은 만왕조가 생겨나게 된 동기자체로 보아도 그렇다) 나라의 방위전략상 중요성으로 하여 설치되게 되였을것이다.

한편으로 이 부수도 왕검성은 만이 후조선으로 넘어와서 후왕으로 있을 당시의 수도(『한서』 권28 지리지 료동군 험독현조)였고 만조선으로 말하면 왕조의 발상지인 셈이므로 부수도로 격을 높였을것이라고 볼수도 있다.

다음으로 부수도의 명칭이다.

고조선시기에는 부수도의 이름도 기본수도와 마찬가지로 왕검성(王儉城)으로 불리웠다. 이것은 마치 고구려시기에 기본수도 평양이 있고 압록강 이북의 봉황성에 있던 부수도와 남쪽 장수산일대의 부수도를 평양(북평양,

남평양)이라하여 수도와 부수도를 다 같이 '평양'이라고 부른것과 같다.

부수도제는 후조선이나 전조선시기에도 있었을것이다. 구월산일대의 장당경(당장경)은 그러한 부수도의 하나였으리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만조선은 선행시기 왕조들 특히 후조선의 통치제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중앙과 지방에 보다 정연한 관료체계, 통치제도를 갖추어 놓았던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와 그 시조 동명왕에 대한 력사적인식

강세권 (력사연구소 고구려사연구실 연구사)

고구려가 강국이였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력사는 동아시아력사에서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력사적바탕으로 되고있다.

그런데 최근년간에 와서 천수백년동안 전해내려온 고구려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력사주의원칙을 떠나 '현재'라는 틀에 력사를 억지로 맞추려는 옳지 못한 사관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와 그 시조 동명왕에 대한 인식이 력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여왔는가 하는것을 고찰함으로써 고구려가 명실공히 조선민족의 력사임을 재삼 명백히 하려고 한다.

력사연구의 기본수단이 문헌사료와 물질사료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문헌사료라고 할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고구려와 그 시조에 대한 력사적인식은 문헌기록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취급되여왔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먼저 고구려가 력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여왔는가 하는것을 보려고 한다.

여기서 우선 말할수 있는것은 고구려관련 문헌사료들이 모두 고구려를 조선민족의 독자적인 나라로 취급하고 있다는것이다.

건국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력사를 전면적으로 전하고있는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 편찬)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우리나라 삼국시기의 력사가 체계적으로 수록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삼국사기』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로, 정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자타가 다 인정하는것처럼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은 자기의 사회계급적립장으로부터 삼국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옮겨놓은것이 적지 않으며 력사적사실을 사대주의적관점에서 분석평가한것도 많다.

그렇지만 『삼국사기』의 앞부분에 본기를 설정하고 신라본기, 백제본기와 함께 고구려본기에 상당한 몫을 돌리고있다.[1]

『삼국사기』 편찬에서 저자가 취한 이러한 태도는 고려사람들속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족의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우기 이 책이 사대주의사관에 립각

1) 모두 28권으로 된 본기에서 고구려본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10권(권 13~22)으로서 신라본기(권 1~12)에 비해서는 2권이 적고 백제본기(권 23~28)에 비해서는 4권이 많다. 본기에 올라있는 왕대수를 보면 고구려는 28대, 백제는 31대, 신라는 56대로

하여 편찬되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설사 개별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을수는 있어도 이른바 대국의 것에 속하는 다른 민족의 력사를 통채로 '탈취'하는 그런 엄청난 력사위조는 김부식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김부식은 『삼국사기』 표문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를 보건대 삼국이 정립하여 례절로써 중국과 통할수 있었다. 때문에 범엽(范曄)의 『한서(漢書)』와 송기(宋祁)의 『당서(唐書)』에 모두 그 렬전이 있으나 자기 나라의 것은 상세히 하고 다른 나라의것은 간략하여 구체적으로 싣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리조시기의 리계복(李繼福) 등은 그 발문에서 '우리 동방 삼국의 본사와 유사'라고 명백히 표현했다.

이것이 바로 천수백년동안에 걸친 우리 조상들의 고구려에 대한 력사적 인식이다.

만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세나라가 서로 다른 민족의 국가들이고 그들 사이에 그 어떤 이질적인것이 존재했다면 구태여 '삼국'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것이다.

고구려가 중국과 계통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나라라는 인식은 다른 나라의 문헌사료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력사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있는 다른 나라의 문헌사료로는 중국의 25사를 들수 있다. 25사는 중국의 력대정통왕조들의 력사를 집대성하고있는 책으로서 여기에는 중국의 주요 정사들이 들어있다.

서 고구려와 신라의 왕대수는 2배나 차이난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신라가 전기와 후기를 다 합친것이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고구려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신당서(新唐書)』 이전 다시말하여 고구려가 존재할 당시 중국에 존재한 나라들의 력사기록들은 대부분이 렬전에 고구려전을 설정하고 그의 력사를 서술하고있다.

고구려전을 싣고있는 25사를 일괄해보면 고구려전은 여러 나라와 지역 또는 종족과 함께 대체로 '동이(東夷)' 렬전부분에 위치하고있다.

'동이'는 고대중국인들이 동방의 여러 나라와 민족, 종족을 멸시하여 부르던 말로서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과 함께 중국과 구별되는 다른 지역에 대한 범칭이였다.

그것은 25사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고구려전을 실은 『삼국지(三國志)』의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2]

『삼국지』(권 30 위지 오환선비동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4이(고대 중국의 주변에 있던 민족 및 종족에 대한 총칭)는 "모두 황복(荒服)의 밖에 있어 중국이 관심할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동이는 "황역(荒域)의 밖으로서 통역을 여러번 거쳐야 이르며 사람의 발길과 수레가 미치는 바가 못되여 그 나라 풍속의 차이를 아는것이 없는" 형편이였다.

여기에 보이는 '황역'이니 '황복'이니 하는것은 중국의 변방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였다.

결국 『삼국지』에서는 고구려를 포함한 동이지역이 '황역의 밖', '황복의 밖'으로서 중국과의 인연이 없는 변방밖의 별개의 지역으로 간주되고있다.

2) 력대 중국왕조들의 존립순서로 볼 때 고구려전을 실은 첫 25사는 『후한서(後漢書)』이지만 편찬년대로 보면 『후한서』는 남조시기 송나라의 범엽이 쓴것(5세기)이고 『삼국지』는 진나라(晉)의 진수(陳壽)가 쓴것(3세기)으로서 『삼국지』가 시기적으로 훨씬 앞선다.

이것은 그 이후의 력사책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삼국지』이래 25사편찬자들의 인식에 '동이' 구체적으로는 고구려를 비롯한 동방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기원을 달리하는 다른 민족의 나라들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5사는 고구려의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규정하고있다고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명백히 하려는듯 당나라의 령호덕분(令狐德棻, 583~666)은 『주서(周書)』에서 '동이' 대신에 '이역(異域)' 즉 '다른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있다.

이처럼 력대중국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등 동방나라들을 중국의 령토로 간주한적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김부식이 말했듯이 자기 나라의것은 상세히 하면서도 다른 나라의것은 간략하여 구체적으로 싣지않은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침략시 "료동은 원래 중국의 땅"이라고 한 말마디에 집착되어 마치도 그것이 고구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인 듯이 사실을 오도하고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둘러볼 때 어느 침략자치고 저들에게 유리한 침략명분을 표방하지 않은것이 없다. 그 명분아닌 명분때문에 침략자는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기가 일쑤였다. 그런 침략명분을 가지고 진리인듯이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나접수될수 없다.

"료동은 원래 중국의 땅"이라는데 대해 말하더라도 그것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일시 강점했던 사실을 정당화하려는데서 나온 말이다.

제반 사료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고구려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나라로 인식되여왔다.

고구려에 대한 인식에서 다음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로 인식되어왔다는것이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되여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번에는 고찰대상을 바꾸어 중국사료들부터 보기로 한다.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반영하고있는 문헌사료로는 『송사(宋史)』를 전후한 25사를 들수 있다. 그가운데서도 고구려-고려관계를 직접적으로 전한것은 『송사』로서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라고 한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의 기사이다.

> 당나라말년에 중원에 사변이 많아지자 드디여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후당 동광, 천성년간에 그 임금 고씨가 여러번 공물을 바쳤다. 장흥년간에 권지국사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唐末中原多事遂自立君長後唐同光天成中其王高氏累奉職貢長興中權知國事王建承高氏之位)[3]

『송사』의 이 기사대로 한다면 중국에서 내란이 많이 일어나던 당나라말기 즉 9세기말~10세기초에 고려에서는 고씨성을 가진 임금이 나와서 920~930년에 후당과 여러 차례 외교관계를 맺어오다가 930년대초에 이르러 왕건이 그뒤를 이은것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있는 고려의 건국과정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왕건이 918년에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되는 통일국가 고려를 세웠다는것은 『삼국사기』, 『고려사』와 같은 우리 나라의 정사들에 의해 확인되는

3) 『송사』 권487 외국렬전 고려.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사』의 저자는 고려의 건국과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고씨임금에 대한 내용을 끼워넣음으로써 고려의 력사서술에서 착오를 범하였다.

『송사』 고려전의 이러한 착오는 그 기사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일정한 혼란을 가져오고있다. 지어는 당나라말년에 고씨가 고려정권을 세웠다는 기록이 다른 력사책들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결부되여 "왕건이 고씨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는 기사도 무근거한것으로 밀어붙이면서 문제를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부정하는데로 끌고가는 견해까지 산생시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력사의 진실을 외면한 지나친 편견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송사』의 기록이 오유를 범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와 관련된 이여의 기사까지도 전면부정하는것은 사료에 대한 옳은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문제는 기록들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오유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거기에서 력사적사실을 옳게 찾아내는데 있다.

『송사』 고려전에 고씨임금에 대한 잘못된 기사가 실리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주요하게는 그 편찬자가 전시대의 기록, 구체적으로는 『구오대사』의 기록을 부정확하게 옮겨놓은데 있다고 본다.

고려전에 고씨임금의 내용을 제일 먼저 기록한것이 『구오대사(舊五代史)』이다. 여기서는 "고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나라의 도읍은 평양성이다"라는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의 지리적위치와 정치제도 등을 간단히 서술한 다음 이런 기사를 싣고있다.

당나라말년에 이르러 중원에 사변이 많아지자 그 나라가 드디여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 전왕의 성은 고씨이다. (후)당 동광, 천성년간에 여러번 사신을 보내여 조공하였다.(及唐之末年 中原多事 其國遂自立君長 前王姓高氏 唐同光天成中 累遣使朝貢)[4]

얼핏보면 이 기사는 『송사』의 기사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스쳐지날수 없는 엄중한 차이가 있다.

『구오대사』의 기사를 주의깊게 살펴보건대 여기에는 명백히 '전왕의 성은 고씨'로 되여있다. 이 기사내용을 음미해보면 당나라 말년 중국에서 내란이 많아지던 시기에 고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전의 임금은 고씨였다는것이다.

그러면 『구오대사』가 말한 고씨성을 가진 임금은 어떤 존재였겠는가.

우에서 보았지만 『구오대사』 고려전의 앞부분은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을 념두에 둘 때 고씨성을 가진 임금은 분명히 고구려임금을 가리킨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그 편찬자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여 선 나라이지만 그 왕성은 다르다는것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가설이 아니라는것을 방증할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있다.

『구오대사』는 북송초기인 973년경에 설거정(薛居正)이 편찬한 책으로서 그 전시기 고려와 북송사이에는 여러차례의 사신교환이 있었다. 그런데 『구오대사』가 편찬되기 바로 한해전인 972년(광종 23년)에 고려에서는 내의시랑 서희(徐熙)를 송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서희로 말하면 그로부터 20년후인 993년에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

4) 『구오대사』 권 138 외국렬전 고려.

려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정정당당한 론거로 주장함으로써 적장의 궤변을 짓눌러버린 명장이다. 그런 그가 『구오대사』가 편찬되기 시작할 무렵에 사신으로 간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결국 『구오대사』 고려전의 사료적원천은 서희를 비롯한 고려사신들의 왕래과정에 마련된것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그런즉 이 기사는 설거정이 자의대로 만들어낸것이 아니다.

그런데 『송사』의 편찬자는 『구오대사』의 '전왕의 성은 고씨'를 '그 임금 고씨'로 바꾸어놓고 그 문구를 동광, 천성년간의 뒤로 가져감으로써 기사내용의 해석에서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는 제대로 전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송나라사람 서긍(徐兢 1091~1153)이 1123년(고려 인종 원년, 송 휘종 선화 5년)에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도 잘 반영되여있다. 서긍은 이 책의 「건국기」에서 고려조상들의 력사를 개괄하면서 고구려력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백제나 신라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것은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 고구려의 정통성에 대한 말없는 시사로 된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고려사람들은 자신들을 고구려의 후예로 자처하고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기록에 의한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력사발전과정에 굳어진 관념이였다.

고려를 건국한후 평양에 대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서경으로 고친 왕건은 말년에 남긴 『십훈요(十訓要)』의 다섯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요 대업만대의 땅이다. 그러니 마땅히 사계절의 중간에 그곳으로 가서 백날동안 머무름으로써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西京水德調順 爲我國地脈之根本 大業万代之地 宜當四仲巡幸留過百日以致安寧) [5]

여기서 왕건은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는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경(평양)을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으로, '대업만대의 땅'으로 여기고있다. 하기는 구태여 고구려-고려관계를 밝힐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왕건이 고구려의 도읍이였던 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의 지위를 계승했다는것을 표명한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다면 왕건이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길 하등의 근거도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희는 "우리 나라는 곧 고구려의 후예이다.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도읍을 평양으로 했다"고 당당히 선언한것이다. (『고려사』 권 94 서희렬전)

고려시기의 이름있는 학자이며 관료인 리제현(李齊賢, 1287~1367)도 "우리 태조가 즉위한후 …… 자주 서도(평양)에 행차하여 친히 북쪽변경을 순찰하였는데 그 뜻은 역시 동명의 옛 땅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반드시 이를 소유하려는것이였다." (我太祖旣卽位之後 ……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靑氈 必席卷而有之)고 썼다. (『익재집(益齋集)』 권7 국사찬 서)

당시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였다는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정하고있었다. 933년 3월 후당은 고려에 파견한 사신을 통하여 왕건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전통을 이어 그 곳의 임금으로 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고려

5)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26년.

사』 권2 세가 태조 16년 3월)

결국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력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로서의 고구려에 대한 력사적인식이다.

고구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 시조 동명왕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한마디로 동명왕은 력대로 삼국시조의 한사람으로, 그것도 정통시조로 신성시되여왔다.

다 알다싶이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고구려건국설화에 실려 전해오고있다.

414년(장수왕 2년)에 고구려사람들자신이 직접 세운 광개토왕릉비는 제쳐놓고라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리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하여 그 건국설화를 싣고있는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들은 많다.

고려의 대관료이며 문호인 리규보(李奎報, 1168~1241)는 자기의 저서 『동국리상국집(東國李相國集)』(권3 고률시) 동명왕편 서문에서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기한 일이 많이 이야기되여오는데 비록 보통농부나 아낙네라도 즐겨 그 일을 말한다"(世多說東明神異之事 雖愚夫騃婦亦頗能說其事)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 동명의 일은 신비로운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것이 아니라 실은 국가창건의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서술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장차 무엇을 보겠는가. 이때문에 시를 지어 기록하노니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의 당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東明之事 非以變化神異眩

惑豈目 乃眞創國之神迹 則此而不述 後嗣何親 是用作詩以紀之 欲使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耶

이 글에서 볼수 있듯이 고려에서는 대관료뿐아니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다 동명왕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이것은 고려사람들속에서 동명왕에 대한 숭배열의가 매우 높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정부에서는 고구려의 강대성과 그 시조 동명왕의 지위를 인정한데로부터 평양에 그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는것을 통하여 고려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고구려를 계승한 저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동명왕에 대한 제사는 비단 정부급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민간급에서까지 진행되였다.

『고려사』(권58) 지리지 북계 서경류수관 평양부조에는 동명왕묘에 대해 전하면서 "인리방에는 사당이 있는데 고려에서 때때로 어압(임금의 수표가 있는 지시문-인용자)을 내려보내여 제사를 지냈고 초하루와 보름날에 역시 지방관리에게 명하여 제사지내게 했다. 고을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제를 지낸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동명성제사라고 한다."(仁里坊有祠宇 高麗朝時降御香行祭 前星亦令其官行祭 邑人至今有事輒禱 世傳東明聖帝祠)고 주석했다. '동명성제'라는것은 『삼국유사』에도 보인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정부급으로부터 민간급에 이르기까지 동명왕에 대한 제사가 보편화되고있었다.

1017년(현종 8년) 12월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왕들의 릉과 사당들을 그 소재지의 주현들에서 수축관리하며 그 주변에서 나무를 하거나 벌초하는것을 금지하며 지나가는 자들은 말에서 내릴데 대한 조치까지 취해졌다. (『고려사』 권4 세가 현종 8년)

리조시기에 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426년(세종 8년) 11월 삼국시조왕들의 사당설치문제가 론의되는 장소에서 세종은 "옛날을 상고하건대 우리 동방은 삼국시조존에는 12한, 9한의 강역이 복잡하게 널려있었다. 그런 즉 삼국의 시조들이 이를 점차 통합한 공적은 실로 작지 않다. 그러니 마땅히 의로운 사당을 지어 그 공로를 갚아야 한다."(若稽於古 吾東方三國始祖之前 十二韓九韓疆域紛如也 然則三國始祖稍合之功誠不細矣 宜立義祠以報其功)고 하면서 사당설치를 주장했다.(『세종실록』 권34 8년 11월 갑오)

그리하여 그 이듬해인 1427년 3월에는 사당의 설립지문제가 상정되고 8월에는 삼국시조들의 사당설치와 제사에 관한 법제가 구정되였으며 1429년에는 마침내 사당이 설치되였다.

이처럼 리조통치층의 인식에도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함께 우리 민족사의 뗄수 없는 한부분이라는것이 강하게 자리잡고있었다. 그중에서도 동명왕은 제일 강대한 고구려의 시조로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대상으로 되였다. 그것은 1460년(세조 6년) 10월 고구려시조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 임금이 "삼국에서 고구려는 막강했다"고 말한데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동명왕에 대한 인식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가 단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속에 있다는것이다.

13세기에 편찬된 『삼국유사』(왕력)에서 저자 일연(一然)은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써놓았다. 다른 개소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하여 소개한 그가 고조선의 시조 단군과 고구려시조 동명왕이 시공간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로 묘사하였다는것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동명왕을 정통국가의 시조로 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겠는

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라고 하겠는지 1429년(세종 11년) 리조정부에서는 단군의 사당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동명왕의 사당을 합치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을 내려보내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것은 우리 나라의 고전들에 동명왕의 사적이 수없이 올라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의 사서들에서는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동명왕이 어느 다른 민족의 구성원이나 다른 민족국가의 시조가 아니라 다름아닌 바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의 한사람이라는데서 산생된 필연적현상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다른 나라의 력사책들이 자기 나라의것은 상세히 하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것은 간략하여 구체적으로 싣지 않았다고 말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의 불가분리의 구성부분이며 그것은 고구려에 대한 내외의 력사적인식, 동명왕에 대한 력사적인식에 의하여 뚜렷이 증명되는것이다.

高句麗의 國內 地域 遷都와 意味

금경숙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건국하여 홀본에 도읍하였다가, 기원 3년인 유리왕 22년에 국내(오늘의 集安) 지역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집안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장수왕 15년인 427년에 평양으로 다시 천도할 때까지 400여년 동안 이곳에서 고구려 발전의 기틀을 쌓았다. 천도란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중심부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 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천도를 단행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신라가 천도를 하지 않았으나, 삼국통일 이후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한 적은 있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

절되고 말았다. 백제의 경우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한 것은 고구려에 의한 급작스러운 것이었고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의 또 다른 웅비를 위한 전제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정치 사회경제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을 에고한다. 천도에 대한 배경에는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새로 도읍할 수도의 방어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이유도 거론될 수 있겠지만 우선 정치적인 요인이 필수요인이고, 그외의 것은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록을 보면 건국세력인 주몽집단 외에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존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삼국사기』를 사료로 信取하는 문제에서도 매우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다. 즉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압록강 유역에 그 만큼 다양한 세력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명왕 즉위 기사가 주몽만을 위하여 과장되게 서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구려 본기 초기 기사에 의하면 주몽집단이 우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압록강 유역에 있던 기존의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정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존재는 고구려 초기 역사를 더욱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며, 고구려의 발전은 내적으로는 이들 제 세력들을 제압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한다. 안으로 여러 세력을 제압하여 국가의 제도 안에 편제시키는 한편, 외적으로 건국초기에는 말갈이나 선비와 같은 종족들을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편제시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구려 초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국가는 한(漢)과 부여였다.

고구려는 중국 사서에도 부여의 別種으로 지칭될 정도로 계통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부여가 도읍하고 있던 송화강 유역은 다양한 청동기 문화를 가

지고 있을 만큼 선진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국지』에 의하면 이 지역이 동이 지역 가운데는 가장 비옥하다고 할 만큼 정치 • 사회 • 문화 발전이 선진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일찍 국가를 형성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여는 자신들의 세력 가운데 이탈 세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 발전에 위기를 가져왔는데, 주몽의 이탈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주몽의 아들 유리 세력이 다시 이탈하여 부여에는 타격을 주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건국한지 40년 정도 되었을 때인 기원 3년에 새로운 곳, 즉 위나암 지역으로 천도를 한다. 이곳에서 고구려는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아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한 적도 있었으나, 국내지역은 고구려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고구려가 졸본 지역에서 위나암 지역으로 천도를 감행한 것은 유리왕대의 국내정치와 고구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또한 국내성이 있었던 오늘날의 집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지리적인 측면을 통하여 천도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고찰하려고 한다.

Ⅱ. 高句麗 建國 당시의 諸勢力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탈한 세력인 주몽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주몽이 출자한 곳은 대체로 송화강 유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몽이 출자한 곳이 북부여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남쪽에 있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1) 주몽의 出自지역에 대해서 이용범은 두만강 유역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

방위로 생각해 볼 때 송화강 유역으로 보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다.[1] 주몽이 북부여에서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의 동가강 유역에 다다른 것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압록강 유역의 졸본지역(지금의 환인)은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로 이곳의 오녀산성은 紇升骨城 또는 졸본성으로 비정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 동명성왕이……(중략)……졸본천에 이르러 그 토양이 비옥하고, 山河가 험고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2] 환인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渾江(佟佳江) 상류로는 통화, 혼강 지류인 신개하로는 집안(국내성), 혼강 유역의 환인 분지에 여러개의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그 주변에 비옥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3] 따라서 이 일대에는 청동기 관련 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4] 고구려 초기 積石墓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환인 지역에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하며 이 지역이 도읍하기에 적당하다는 『삼국사기』의 언급을 뒷받침한다. 주몽세력은 압록강 유역으로 남하하는 도중 毛屯谷에서 자신에게 귀부해오는 여러 세력에게 賜姓

다.(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4)

2)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東明聖王 卽位條.

3)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30~33쪽.

4) 梁志龍·王俊輝, 1994, 「遼寧桓仁出土靑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硏究』 1994-2.

5) 陳大爲, 1960, 「桓仁縣考古調査發掘簡報」, 『考古』 1960-1.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30~33쪽.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6)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東明聖王 卽位條.

하여 그들을 새롭게 편제한다.[6] 고대 사회에서 姓을 부여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세력으로 편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압록강 유역에 이르러서는 주몽에 앞서서 이곳에 이주해 있던 召西奴의 세력과 만나게 되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고구려를 건국함에 있어서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다.

A-1) 온조왕 즉위기사 細註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이니 북부여왕 해부루의 庶孫이요, 어머니는 召西奴이니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서 처음 우태에게 시집을 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비류요 둘째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은 뒤 졸본에 홀로 살았더니, 그 후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前漢 建昭 2년 봄 2월에 南萍하여 卒本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으며, 召西奴에게 장가들어 왕비를 삼았다. 주몽이 나라의 기초를 개척하며 왕업을 창시함에 있어 자못 내조가 있었으므로 주몽은 소서노를 특별한 사랑으로 후하게 대하였고, 비류등을 대함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하였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제1 백제시조 온조왕 즉위조)

이들은 주몽이 압록강 유역에 이르기 전에 이미 부여에서 이탈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던 세력이다. 그러나 召西奴 집단은 고구려 건국이후 琉璃가 합류하면서 다시 주몽집단과 갈등이 생겨 고구려에서 이탈하여 한강 유역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7]

고구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몽집단과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송양세력이다. 송양국은 비류국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고구려의 5부

7)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東明聖王 即位條

가운데 소노부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8]주몽과 송양이 만나는 장면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왕 즉위조 기사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에 잘 나타나 있다.

A-2) 동명왕 즉위년 조……(전략)……왕이 비류수 중류에 채소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아 그 상류 지방에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사냥을 하면서 찾아 올라가 비류국에 이르렀다. 그 나라 임금 송양이 나와 보고 말하기를 "내가 해변 구석에 외따로 살기 때문에 한번도 훌륭한 사람을 만나 보지 못하였더니, 이제 우연히 그대와 서로 만나게 되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주몽이 대답하기를 "나는 天帝의 아들로서 아무 곳에 와서 도읍을 정하였노라"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째 왕이 되어 온 터에 땅이 작아서 두 임금을 용납할 수 없고,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屬國으로 되는 것이 어떠한가"하였다. 왕이 그의 말에 분개하여 곧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활로 재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송양은 이에 대항할 수 없었다.[9]

A-3) 東明王이 서쪽에서 수렵하다가 흰 사슴을 잡아 蟹原에 거꾸로 매달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물에 잠기게 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이 어려움을 면하려면, 너는 하늘에 호소하라"고 하였다. 그 사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마비가 이레 동안이나 퍼부어 송양의 도읍을 漂沒시켰다.……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왔다.

8)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編.
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東明聖王 2年條.

A-4) 東明王 2년 여름 6월에 松壤이 와서 나라를 바치며 항복하므로 그 지방을 多勿都로 개칭하고 송양을 봉하여 그곳 우두머리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한 것을 '多勿'이라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위의 사료에 의하면 松壤國은 압록강 유역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으며, 이러한 토착성은 이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0] 주몽은 그가 가지고 있던 騎馬와 善射라는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도 송양국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사료 A-3)은 주몽이 사만으로 송양을 제압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송양국을 비롯한 기존의 정체세력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송양의 세력은 동명성왕에게 항복하여 왔으며, 왕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부용세력으로 남게 하였다.

A-5) 동명성왕 6년(기원전 32) 왕이 부분노에게 명하여 太白山 東南 荇人國을 정 벌하여 城邑으로 삼았다.
A-6) 동명성왕 10년(기원전 28년) 11월에 왕이 부위염에게 명하여 북옥저를 쳐서 멸하게 하고 그 땅을 城邑으로 삼았다.

고구려는 마천령 동쪽의 행인국을 정벌하였으며[11], 이어서 연해주 남단

10) 압록강 중류 일대에는 이미 기원전 3세기~2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적석묘가 산재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미 이 지역에 이 적석묘를 축조할 정도의 정치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39쪽)
11) 金瑛河, 2002,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03쪽.

에서 함흥평야에 걸쳐 있던 북옥저를 정벌하게 한다.[12] 고구려는 먼저 행인국을 정벌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여 북옥저 정벌에 나선다.[13] 북옥저 지역은 대체로 두만강 일대로서 무산의 '범의 구석'에서 철기 유적이 발굴될 정도로 철 생산과 깊은 연고를 가지고 있다.[14]

또한 이 지역은 농업생산 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속한다. 東明王은 이 북옥저 지역을 확보함으로서 전략물자인 식량과 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건국 초기에 주변의 소국들을 정벌하여 영역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인국이나 북옥저의 영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조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북옥저는 바다와 가까이 있어 소금과 생선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위의 사료들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우선 필요했을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고구려가 건국 직후 주변의 소국을 정벌하고 있을 때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부여에서 사망하게 되고, 이에 부여에서는 유화부인을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고, 神廟를 세웠다. 이때가 동명왕 14년으로 부여는 고구려에 대해서 국력의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12) 金瑛河, 2002, 위의 책, 103쪽.

13) 동명왕이 먼저 행인국을 정벌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북옥저를 정벌하였다는 것은 고구려 발전과정에서 매우 의도된 군사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5쪽) 옥저의 복속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김미경, 2000, 「고구려의 옥저복속과 그 성격」, 『하현강 교수 정년기념 논총』)

14) 金貞培, 1977, 「韓國의 鐵器文化」, 『韓國史硏究』 16, 11~26쪽; 박경철, 1996, 위의 논문, 146쪽.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동명왕 19년에 부여에 남아있던 동명왕의 아들 琉璃가 자신의 세력을 거느리고 또 다시 이탈하여 고구려로 왔다. 그리고 이 해 동명왕이 사망하고, 유리가 왕위를 계승하여 2대 고구려 왕으로 즉위하고 있다.

고구려는 주몽이라는 대표세력 집단에 의해서 건국되었으나,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주몽에 앞서 압록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던 우태로 대표되는 부여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적극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송양과 같은 토착세력을 제압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召西奴로 대표되는 주몽지지 세력은 고구려 건국 직후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소서노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어쩌면 동명왕을 잇는 왕위계승권자로서의 정치세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琉璃라는 새로운 부여 이탈 세력이 들어오면서 왕실의 분열 양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주몽을 도와 고구려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召西奴 세력은 다시 압록강 유역을 떠나 남하하여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된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건국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압록강 유역의 정치세력이 일정한 기간 동안 편제되거나 이탈되는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건국 직후의 고구려는 아직 주변의 小國을 정벌하여 성읍으로 만들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Ⅲ. 琉璃王代의 政治狀況

고구려 왕실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유리가 왕위 계승자가 되어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15] 고구려 왕실에서의 새로운 세력인 琉璃는 즉위 다음

해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다. 송양은 동명왕에게 투항을 하였으나, 동명왕 주몽 역시 그를 완전하게 정복했다고는 볼 수 없어, 송양의 기존 정치력을 인정하는 主로 남겨두고 고구려의 부용세력으로 삼았다.[16]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유리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기 위하여 송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것이다.

유리왕이 즉위하고 왕비를 맞이한 후에도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왕 3년의 離宮에 관한 사료이다. 유리왕은 鶻川에 이궁을 설치하였으며, 그해 왕비가 사망하였다. 유리왕은 漢族 세력과도 결탁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고구려의 기존 세력에 의해서 견제를 당한다.[17]

B-2) 유리왕 19년 가을 8월에 郊祭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왕이 탁리와 사비를 시켜 따라가 잡게 하였더니, 그들은 長谷 늪 가운데 이르러 돼지

15) 고구려 초기 역사에서 주몽에서 유리왕으로의 왕위계승을 부자상속이 아니라, 주몽이나 유리가 속했던 정치집단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고구려 초기에 관한 『삼국사기』 사료에서 모본왕대까지 解氏 성이 보이는 것과 태조왕의 왕호등을 그러한 근거로 삼고 있다.(金龍善, 1980, 「高句麗 琉璃王考」, 『歷史學報』 87; 金賢淑, 1994,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邱史學』 47) 한편 김종은은 유리왕이 소노부왕실의 시조이자 사실상 고구려의 시조였으며, 주몽은 유리왕과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계루부의 시조일 뿐이었다고 보고 있다.(김종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 3)

16) 송양을 부용세력으로 보는 것은 이들이 일단 고구려 국가 세력안으로 편제되었으나, 기존의 자기 정치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17) 金基興은 漢 세력과의 결혼관계의 성립은 유리왕과 현도군 사이에 교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였다.(金基興, 1987, 「高句麗의 成長과 對外交易」, 『韓國史論』 16, 33쪽)

를 발견하여 칼로 그 다리의 힘줄을 잘랐다. 왕이 이 사실을 듣고 성을 내어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할 희생에 어찌 상처를 낼 수 있으랴"하고 드디어 두 사람을 구렁 속에 던져 죽였다. 9월에 왕의 병이 위중하였다. 무당이 말하기를 "탁리 사비의 귀신이 화근이 되었습니다"하므로 왕이 사람을 시켜 귀신에게 사과하였더니 병이 곧 나았다.[18]

B-3) 유리왕 21년 봄 3월에 郊祭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왕이 掌牲 설지를 시켜 좇아가게 하였더니,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서 돼지를 붙잡아 국내 사람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였다. 설지가 돌아와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돼지를 좇아 국내 위나암에 갔더니 그 곳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토양이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産物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일 그 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 뿐 아니라, 또한 전쟁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9월에 왕이 國內에 가서 지세를 돌아보고 오다가 沸勿澤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못 옆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하므로 왕이 흔연히 허락하고 그에게 沸勿이라는 이름을 주고 姓을 位씨라고 하였다.[19]

B-4) 유리왕 21년 겨울 10월 왕이 國內로 도읍을 옮기고 城을 쌓았다.[20]

사실 유리왕은 고구려가 건국된 이후에 합류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왕으로서의 권력 장악력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왕비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료B-2)에서와 같이 郊祭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는

18)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第1 琉璃王 19年條.
1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第1 琉璃王 21年條.
20)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第1 琉璃王 22年條.

것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료에 의하면 마치 국내 천도가 교제에 쓸 돼지가 달아나서 비롯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교제에 쓸 돼지는 상징성이 많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천도와 관계된 자료로서의 '郊祭에 쓸 돼지'는 유리왕이 대외적으로 천도의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먼저 그 돼지가 달았다는 것은 현재의 도읍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는 또 다른 대안(복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 준다.

그리고 먼저 사건인 달아난 돼지의 다리를 잘라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유리왕이 관리들을 매장한 것은 내외에 대하여 '교제에 쓸 돼지'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성도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왕권에 관하여 천명하는 것이고, 다시 무당의 입을 빌어 표현되는 것은 당시 권력 내부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유리왕은 國內지역으로의 천도를 작정하고, 왕 자신이 그 방면에 있는 '尉中林'에서 사냥을 나간다. '王如國內觀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의 유력 집단으로 추정되는 沙勿澤의 사람에게 位氏姓을 賜與하기도 한다. 이는 유리왕이 국내 지역을 자기의 지배 아래 편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리왕은 대내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정치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21]

21) 琴京淑, 1999, 「高句麗 前期 戰爭과 王權强化」, 『韓國古代史硏究』 16, 288쪽.

Ⅳ. 琉璃王代의 對外關係

유리왕대의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충돌한 것이 鮮卑族이었다. 오환과 더불어 東胡의 별종으로 알려진 선비족은 선비산을 근거지로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비는 목축과 수렵을 주생산경제로 하고, 粗放農耕을 부수적으로 하던 유목민족이었다.

C-1) 유리왕 11년 여름 4월에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선비가 地勢가 험한 것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려 하지 않으며, 정세가 유리하면 나와서 노략질을 하고 불리하면 들어앉아 지키므로 우리나라에 걱정거리로 된다. 만일 누가 이를 꺾어내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장차 큰 상을 주겠노라."하였다. 부분노가 나서서 말하기를 "鮮卑는 지세가 험하고 튼튼한 나라로 사람들이 용감하나 우둔하여 힘으로써 싸우기는 어렵고 꾀로 굽히기는 쉽습니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부분노가 대답하기를 "사람을 시켜 反間으로 적의 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고 군사가 약하므로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鮮卑가 반드시 우리를 만만히 여기어 수비를 하지 않을 것이니, 제가 그 틈을 타서 精兵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들어가 산림 속에 숨어서 그 성을 노리고 있겠습니다. 이 때에 왕께서는 약간명의 군사를 시켜 적들의 성 남쪽으로 출동한다면 적들은 반드시 城을 비우고 멀리 쫓아 올 것이니 이때 저는 정병을 거느리고 그들의 성으로 뛰어 들어가고 왕께서는 용감한 騎兵을 거느리고 그를 양쪽에서 공격하게 되면 곧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왕이 그 말대로 좇았다. 선비가 과연 성문을 열고 군사를 출동시켜 쫓아 올 때 부분노가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으로 뛰어 들어가니 선비가 이를 보고 크게 놀래어 다시 성으로 달려 들어갔다. 부분노가 성에서 버티고 대항해 싸워서 목베어 죽인 적들이 매우 많았다. 왕이 깃발을 들고 북을 울리면서 앞으로 들어가니 鮮卑는 앞뒤

로 적을 받게 되어 계책이 아득하고 힘이 모자라서 항복하여 屬國으로 되었다.[22]

위의 사료에 의하면 선비족이 다분히 공격적이고, 고구려는 守勢的인 입장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고구려는 鮮卑와의 전쟁에서 反間이라는 戰法을 구사하여[23] 이들을 제압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다. 고구려는 이민족을 제압한 다음에는 직접지배보다는 간접지배를 통하여 기존의 세력을 온존시키면서, 대외 정벌 시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공납을 받았다.[24] 유리왕은 선비집단을 屬國으로 하여 부용세력으로 만들면서 동명성왕대에 이미 고구려에 항복한 말갈과 함께 異種族을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전쟁은 국가의 형성 유지와 발전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국가 구성원 결속의 응집력 내지 정치체제 변동 등 내면적인 사회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25]

고구려가 鮮卑를 속국으로 만든 위 C-1) 사료의 사건은 부여에게는 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부여의 주변에는 漢의 현도군을 비롯하여 挹婁나 鮮

22)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11年條.
23) 박경철은 고구려가 鮮卑에 대하여 구사한 전법을 騎戰兵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騎戰'이란 我軍을 가볍게 보는 적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비굴하게 보여 주어 적이 경계심을 약하게 가지게 한 다음,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일격에 공격하는 방법이다.(박경철, 1997, 앞의 논문, 155쪽)
24)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金瑛河, 2003, 앞의 책, 155쪽~156쪽; 김현숙, 1993, 「고구려의 말갈지배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
25) 申瑩植, 1983,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 『韓國史硏究』 43, 2~3쪽.

卑 등이 있어서 위협적이었으며, 남쪽에는 고구려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탈세력인 주몽집단이 세운 고구려가 부여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鮮卑를 제압하여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 것에 위기감을 가졌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사료는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C-2) 유리왕 14년 봄 정월에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어 방문하고 볼모 교환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태자 도절을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더니, 대소가 분개하였다.
> 겨울 11월에 대소가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와서 침범하다가 눈이 크게 내리고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으므로 곧 돌아가고 말았다.[26]

위의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여왕 대소는 고구려에 대해서 質子를 요구한다. 고대 외교관계에서 質子는 강한 나라가 국력이 약한 나라에 요구하고, 이것을 상대국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외교 방법이다. 質子의 요구에 유리왕은 부여의 요구에 부응하려 하고, 태자 도절을 보내려고까지 하였다. 도절이 가려고 하지 않아 보내지 못하였는데, 이 해 겨울 11월에 군사 5만을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한다. 고구려가 앞서 선비를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부여가 이에 대해서 긴장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고구려는 부여에 대해서 국력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質子를 요구하는 부여에 대해서 유리왕과 태자인

26) 『三國史記』 卷 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14年條

도절이 취하는 태도에서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와 부여의 첫 번째 무력적인 충돌 사건인데, 물론 일방적으로 부여가 고구려에 대해서 밀어 붙이는 형국이지만, 이 안에서 고구려의 국가 성장과 부여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다.

부여는 이전에 동명왕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 돌아갔을 때에는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고, 神廟를 세워주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서 동명왕은 사례를 하였다. 이것은 동명왕 당시 즉 고구려가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여가 고구려에 대해서 크게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리라는 새로운 세력이 다시 고구려로 이탈하였고, 그 이탈 세력이 고구려의 왕으로 즉위하고 북방 세력인 鮮卑를 제압한 이후 부여는 고구려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위의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고구려와 부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사건을 예단하는 것이다. 부여가 고구려에 대해서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은 겨울 11월에 군사를 동원하는 행동을 하였다가 凍死하는 사람이 많아 되돌아갔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만큼 부여는 고구려가 팽창해가면 자신들을 압박해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초기 당시 대외 관계에서 우선시 되는 상대는 漢과 夫餘였을 것이다. 그것은 고구려를 건국한 세력들이 부여에서 이탈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초기 대외관계에서 부여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부여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였다.

부여왕 대소는 고구려의 발전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인식하여, 고구려에 대하여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사료에서 보듯이 부여는 고구려에 대하여 인질 교환을 요구하는 고압적인 외교공세를 폈으나 이것이 무산되자, 그 해 겨울에 5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부여의 공격은 大雪로 실패하고 말았다. 고구려가 건국 이래 행인국이나 북옥저를 정벌하여 영역화하고, 鮮卑를 屬國으로 만들기는 하였으나 고구려에게 있어서 부여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대외적인 조건과 함께 환인 지역에서 보이는 유리왕을 둘러싼 국내 정세가 유리왕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다.

대소왕 때의 부여는 전통적인 지배구조 운영상의 다원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권력 집중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5만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바[27], 그 이후 부여의 이러한 국력 결집은 사료 상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고구려 유리왕대에 해당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양국 역사 전개 과정에서의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대소왕대의 부여는 국력이 쇠퇴하는 시점이었고, 고구려는 이제 막 흥기한 동북아시아의 신흥세력이었다. 부여의 이 출병이후 유리왕대 이른바 학반령 회전을 계기로 고구려가 공세적 자세를 취한다.

C-3) 유리왕 28년 가을 8월에 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와서 왕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우리 왕이 그대 선대 임금 東明王과 서로 사이가 좋았던 터에 지금 우리 신하들을 이곳에 도망하도록 유인하여 성곽을 만들고 사람들

27) 부여가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시도할 때 동원한 군사의 수가 5만이라는 것과 그 밖에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서 군사행동시 동원되는 숫자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의 사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숫자 그 자체 보다 당시의 정황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을 모아 나라를 이루려하였다. 국가란 크고 작은 구분이 있고, 사람이란 어른과 아이의 순서가 있으니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예절이요, 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은 도리이다. 이제 왕이 만일 예절과 도리로써 우리를 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서 나라의 운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왕조를 아무리 보존하려 하여도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이 때 왕의 생각으로는 나라를 창건한 역사가 짧으며 백성을 약하고 군사의 수는 적으니, 이러한 정세로는 치욕을 참고 굴복함으로서 후일의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옳다 하여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고 부여왕에게 회답하기를, "내가 바다 한 구석에 외따로 살면서 예의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제 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감히 명령대로 좇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28]

위의 사료 C-3)은 고구려가 國內지역으로 천도한 이후 부여와 처음으로 접촉하는 사건이다. 부여 왕실은 고구려에 대해서 다시 事大의 예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리왕은 부여와 고구려와의 현실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수긍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고구려는 천도 이후에 아직 내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천도 이후 압록강 유역의 여러 세력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확보하려고 質山으로 5일 동안 田獵을 나간 것에 대해서 大輔陝父가 간하는 등 기존 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태자 해명이 여전히 졸본 지역에 남아 있어 국내로의 천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大餘에서 온 사신의 태도에 대해서 왕자 무휼이 반박한다.[29] 이는 고구려 왕실 내부에서

28)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28年조.
29)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28年條.

도 무휼로 대표되는 집단이 부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유리왕과 같이 부여를 직접 이탈한 세력과 무휼처럼 부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의 차이는 고구려 초기 왕실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세력이 混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어하튼 고구려는 방어적인 잇점이 많은 國內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에 부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시작한다.

C-4) 유리왕 29년 여름 6월에 荇川가에서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떼를 지어 싸우다가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은 보고 논의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검은 것은 북방의 색이니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은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라고 말하였다.[30]

C-5) 유리왕 32년 겨울 11월에 부여 사람이 와서 침범하였다. 왕이 아들 무휼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방어하게 하니, 무휼이 군사가 적어 능히 대적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기묘한 계책을 꾸며가지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대기하고 있었다. 부여 군사가 곧바로 鶴盤嶺 밑까지 이르자 숨어있던 군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불의에 공격하니, 부여 군사들이 크게 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무휼이 군사를 풀어 그들을 모두 죽였다.[31]

위의 사료 C-5)에서 보이는 이른바 학반령에서의 전투를 왕자 무휼이 승리로 이끌자, 유리왕은 이듬해인 유리왕 33년에 그를 太子로 삼는다. 유리왕은 태자를 3번이나 바꾸게 되는 데, 이것은 유리왕대에 왕위계승에서

30)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29年條
31)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王 32年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유리왕이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무신왕의 즉위조 사료에 의하면 그는 유리왕이 송양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낳은 아들이다.

國內 지역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부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으며, 대무신왕이 즉위한 이후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 C-6) 대무신왕 3년 겨울 10월에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어 머리는 하나요, 몸은 둘인 붉은 까마귀를 보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 왕에게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부여왕에게 말하기를 "까마귀는 원래 검은 것인데 이제 빛이 변하여 붉게 되고 또 머리는 하나인데 몸통이 두 개인 것은 두 나라를 병합할 징조이니, 왕께서 고구려를 병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하였다. 대소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면서 겸하여 어떤 사람의 말까지 전하였다.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부여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검은 것은 원래 북방의 색인데 이제 변하여 남방의 빛으로 되었으며,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이를 가지지 못하고 나에게 보냈으니, 두 나라의 흥망은 알 수 없구나"하였다. 대소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32]

위의 사료는 매우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구려는 부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에서 보면 부여가 공세적이었고, 고구려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위의 사료

32)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3年條.

에서 보이는 붉은 까마귀 사건이후 고구려는 부여를 먼저 공격하고 있다.

C-7) 대무신왕 5년 ⓐ봄 2월에 왕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그 지방에 진창이 많으므로 왕이 군사들로 하여금 평지를 선택하여 병영을 만들고 말 안장을 풀고 병사들을 쉬게 하여 겁내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였다. 부여왕이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나와 싸우는데, 고구려가 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덮치려고 말을 급히 달려 앞으로 나오다가 진창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왕이 이때 괴유를 출동시켰다. 怪由가 칼을 뽑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가니 부여의 만 여 軍卒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부지하지 못하게 되니, 이때에 바로 내달아 부여왕을 불잡아 목을 베었다. 부여 사람들이 이미 자기 왕을 잃고 기세가 꺾였으나, 오히려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 (중략) …… 왕이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飮至의 예를 행하고 말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경솔하게 부여를 쳐서 비록 그 나라 왕을 죽였으나 그 나라를 멸하지는 못하였으며 또 우리의 군사와 물자들을 많이 잃었으니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하고 드디어 친히 죽은 자에게 조문하고, 잃는 사람을 문병하여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3월에 神馬 駏驉가 부여의 말 백필을 거느리고 鶴盤嶺 車廻谷까지 함께 왔다. ⓒ여름 4월에 부여왕 대소의 아우가 갈사수가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하니 이 사람이 부여왕 金蛙의 막내 아들인데 사서에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帶素가 살해되자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짐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백여명을 이끌고 압록곡에 이르러 海頭王이 사냥하러 나온 것을 보고 그를 죽였다. 그 백성을 취하여 비로소 도읍을 하니 이 사람이 曷思王으로 되었다. 가을 7월에 부여왕의 從弟가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왕이 죽고 나라가 멸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데, 왕의 아우는 몰래 도망하여 曷思에서 도읍을 하였다. 나 역시 어질지 못하여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하고 곧 만여명을 데리고 투항하여 왔다. 왕이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하고 등에 힘줄 무늬가 있다하

여 絡氏로 성을 주었다.[33]

大武神王은 4년 12월에 부여공격에 나서고 이 와중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국경의 공백지대에 있던 제 세력을 확보하는데, 負開氏를 賜姓 받는 세력이나, 北溟人 怪由, 赤谷人 麻盧 등이 그들이다.[34] 이것은 고구려가 여전히 주변의 소국을 정벌하거나 통합하면서 영역을 팽창시켜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무신왕 4년 겨울에 부여정벌에 나섰던 고구려군은 이듬해인 5년 2월에야 끝나는데, 이 전투에서 부여는 온 나라의 병사를 동원하여 고구려에 임하고, 부여왕 대소가 전사한다.

대무신왕이 부여 정벌에서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 내부의 정치세력을 결속시키는 데는 더욱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부여가 멸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여의 지배세력이 다시 한번 이탈하여 고구려에 항복해 오고 있다. 이후 고구려는 부여에 대해서는 우월한 입장에 섰으며, 광개토왕대까지 부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리왕대 국내로의 천도는 부여를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의 방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표는 고구려 건국 이후 대무신왕대까지의 대외관계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고구려 초기의 대외관계〉

	王代	王名	年月	內容	
1	1代	東明聖王	즉위년	鞭靼畏服	
2			2年	松壤以國來降	

33)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5年條.
34)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4年條.

3			6年	荇人國征伐	
4			10年	北沃沮征伐	
5	2代	琉璃王	11年	鮮卑降爲屬國	
6			14年 正月	夫餘王帶素請交質子	
7			14년 11月	夫餘來侵	
8			27年	太子解明과 黃龍國의 접촉	
9			28年	夫餘王帶素 事大의 禮 요구	
10			31年	漢王莽發我兵伐胡	
11			32年	夫餘人來侵	
12			33年	梁貊征伐	
13	3代	大武神王	2年	百濟民來投	
14			3年	夫餘王帶素遣使送赤烏一頭二身	
15			4年 12月	王出師伐夫餘	
16			5年 2月	王進軍於夫餘國南 夫餘王舉國出戰	夫餘王帶素戰死
17			5年 7月	夫餘王從弟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18			9年	王親征伐蓋馬國	
19			11年	漢遼東太守將兵來伐	
20			15年	(王子)好童勸王襲樂浪	

V. 천도의 역사적 의미

집안은 압록강의 우측변에 위치하면서 통구분지의 서부에 자리잡고 있다. 집안시 동쪽으로 6km 지점에 龍山이 있고, 시의 북쪽 1km 지점에 禹山이 위치하고 있다. 노령산맥에서 발원하는 통구하는 북쪽에서 굽이쳐 내려와 시의 서쪽을 돌아 서남쪽에서 동남향으로 굽어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시 서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칠성산이 있다. 압록강은 시의 남단에서 500m 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은 기온이 온화하고 물과 땅이 적합하여

길림성의 小江南이라고 불린다.[35]

요동쪽이나 부여에서 환인으로 들어오는 길은 비교적 평탄하며 큰 장애가 별로 없다. 반면에 국내지역은 노령산맥이 병풍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한 방어시설의 기능을 한다. 국내에서 요동으로 통하는 통로는 남북에 두개가 있었다. 남도는 집안 시내에서 출발하여 麻線溝, 石南子를 거쳐 小板岔河를 지나 西北天溝와 板岔嶺을 넘는다. 1963년도 도로를 수축할 당시 서북천구문에서 대량의 鐵矛, 화살촉, 鐙子, 四齒武器, 鐵刀 등을 발굴하였다. 이것은 이곳이 고구려가 한 군과 교전을 하던 지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도로 이어지는 두 길에는 망파령 관애와 패왕조산성이 있어 검문소의 역할을 한다.[36]

북도는 집안에서 출발하는 데 보문령, 번로령, 순위사하 계곡의 꾸불꾸불한 길을 들어선 이후 다시 清河, 頭道등을 거쳐 혼강까지 이르는 전체 길이 약 90km 구간이다. 북도에는 관마산성과 大川哨所 두 곳의 관문이 있다.[37]

유리왕대에 있었던 국내지역으로의 천도는 고구려 초기 정치지배 세력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표출하고 있다. 유리왕 22년 국내지역으로 천도한 이후 그해 12월에 왕이 質山 북쪽으로 사냥을 나가 5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대보 협보가 "왕이 새로 도읍을 옮겨서 백성들이 아직 안착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치안과 행정 사업을 돌보는데 몰두하여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달려 사냥만 하여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왕께서 만일 허물을 고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 政事는 거칠어지고 백성들

35) 『集安縣文物志』; 魏存城, 1996,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36) 魏存城, 1996,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68쪽.
37) 魏存城, 1996,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71쪽.

은 흩어져서 先代 임금의 업적이 땅에 떨어질 것이 두렵다"고 간하였다. 이에 유리왕은 그 말을 듣고 노하여 협보의 관직을 파면하고 관가의 동산을 관리하게 하였더니, 陜父가 분개하여 남한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협보는 주몽이 압록강 유역으로 南下할 당시 동행한 사람으로 『三國史記』에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협보는 건국 주도 세력이었다. 이 사료의 내용에 의하여 추정해 볼 때 협보는 유리왕의 국내 천도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 가운데 한명이었을 것이다. 유리왕이 質山 북쪽으로 사냥을 나간 것이 군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간 것이거나 협보는 유리왕의 천도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협보의 간언에 대하여 유리왕이 취한 태도도 매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료에는 이들 두 사람간의 갈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사실 이들은 각 세력을 대표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유리왕의 천도 단행은 이러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기에 천도에 관한 기사는 더욱 설화적인 내용으로 분식될 수 밖에 없었다. 유리왕이 반대를 무릅쓰고 천도를 감행한 원인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리왕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면서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 지역은 지리적인 환경이 환인과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유리왕이 국내지역으로 천도를 한 것은 부여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도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에게 있어서 잠재적이고 강한 적은 漢의 세력이었겠지만, 당장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환인은 요동지

역으로의 교통로는 좋았으나,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지역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진 방어체제를 보면 그들이 가졌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로 천도하기 전인 유리왕 14년에 고구려는 태백산 동남쪽의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벌하여 교통로와 비옥한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벌활동은 부여를 긴장하도록 하였다. 부여라는 존재는 고구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현실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아직 부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몽이나 유리를 비롯한 세력들이 이탈해간 세력들이 주변을 정복하고 급기야 鮮卑 마저 고구려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자 부여는 사신을 보내어 볼모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에도 유리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太子 都切을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都切 역시 두려워하여 가지 않았고, 빌미를 잡은 부여는 그해 11월에 고구려를 침범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는 유리왕대까지 계속 긴장관계의 연속이었다. 고구려가 국내 지역으로 천도한 직후인 유리왕 28년에 부여왕 帶素는 사신을 보내어 事大의 예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리왕은 부여에 대해서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입장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국내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이다. 국내지역으로 천도한 이후 새로운 정치중심지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렸을 터이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잇점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고구려가 국내 지역으로 천도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고구려를 구성하는 예맥족이 압록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것은 고구려 건국이전부터라고 하더라도, 건국 40년 만에 천도를 스스로 단행한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배경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몽 집단이 압록강 유역으로 남하하였을 당시, 이미 이 지역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료에 召西奴 집단으로, 송양 집단으로 그리고 毛屯谷의 3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松壤은 압록강 유역에서 여러 대 동안 왕 노릇하였다는 점에서 토착세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집단들을 아우르면서 건국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장악력은 컸다고 할 수없을 것이다.

유리왕은 동명성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나중에 합류하여 기존의 정치세력들과는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大輔 협보와의 관계가 그것을 표출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유리왕이 이러한 내부적으로 불리한 정치상황을 돌파하고, 외적으로는 부여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또한 요동지역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漢과의 관계에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왕은 천도를 단행하여 성공하였다. 국내 지역은 기후도 온화하고 物産이 풍부하면서 자연지세적인 측면에서도 방어적인 측면이 우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국내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고구려가 발전할 수 있었다.

國內城시기 고구려 都城의 구조

임기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기획실장)

Ⅰ. 머리말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國內城의 위치는 지금의 집안 일대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국내성의 도읍 기간은 기원 3년에 졸본에서 천도한 이후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20여 년이라는 장기간이다. 이렇게 國內城 시기는 그 定都 기간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초기 국가체제를 갖추는 중심지로서 고구려 도성제의 근간을 만들게 되었던 시기이다.

고구려 도성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문헌자료가 소략하기 때문에 주로 도성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가 대부분이지만, 그 조사 결과 역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도성의 개괄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도성의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왕궁을 비롯하여 성곽, 관청, 사원 등 종교적 시설, 시장, 주민 주거공간, 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전반적으로 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성곽과 왕궁, 그리고 주민 주거공간의 행정적 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유적의 분포와 현황

국내성 일대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북으로 방어선의 구실을 하는 노령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남으로 수운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압록강을 끼고 있으며, 그 사이에 비교적 비옥한 충적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어, 도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1] 이 通溝 분지는 압록강 중류 일대에 위치한 비교적 큰 평원으로, 동서 길이는 10km, 남북 길이는 약 5km 정도이다. 현재 집안 일대에는 고구려의 도성 유적으로 평지성인 國內城(집안현성)과 산성인 丸都山城(산성자산성)이 남아있다.[2]

國內城은 평원에 자리잡고 있는 평지성으로, 성의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老嶺에서 발원한 通溝河가 국내성 옆을 바로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들면서 천연의 垓字를 이루고 있다. 동•북•서

1)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國內로의 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기록하고 있다. "琉璃王 二十一年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者追之 遂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拘於國內人家養之 返見王曰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産 王若移都 則不唯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2) 『三國史記』 등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국내시기 도성으로는 國內城과 丸都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치 비정은 논란이 적지 않다. 본고는 국내성을 집안현성에, 환도성을 환도산성(산성자산성)에 비정하는 견해에 따른다.

쪽으로는 龍山·禹山·七星山이 둘러쳐 있으며, 북쪽 2.5km 거리에는 丸都山城이 자리잡고 있다. 성의 평면은 方形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2,686m이다. 성벽의 바깥 북·동·남 3면에는 해자가 설치되었고, 서쪽은 통구하가 천연 해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석축 성벽은 고구려시대의 축조물이지만, 그 아래쪽의 토축 성벽은 그 이전 玄菟郡시대에 축조된 高句麗縣治의 성터로 추정된다. 성문은 본래 남벽과 북벽에 1개씩, 동벽과 서벽에 2개씩 모두 6개 있었다. 이들 성문을 연결하는 대로가 고구려시대에도 국내성의 내부 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國內城은 20세기 초 이래 여러 차례 조사되었다.[3] 특히 1975년~1977년에는 성벽의 구조를 면밀하게 발굴 조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성안팎 곳곳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고구려 시기의 유물과 건물터를 상당수 발견하기도 하였다. 국내성 내부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물지에 대한 조사 발굴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 현재 성안에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고구려 시기의 건물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

3) 국내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池內宏, 1931, 『通溝』上, 17~23쪽.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61~65쪽.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1984-1; 崔茂藏 譯, 1985, 『高句麗·渤海文化』.
董峰, 1993, 「國內城十新發現的遺迹和遺物」, 『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
李殿福·車勇杰·金仁經 역), 1994, 『中國內의 高句麗遺蹟』(學研文化社), 19~24쪽.
車勇杰, 1993, 「高句麗前期의 都城」, 『國史館論叢』 48, 8~11쪽.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 2004, 『國內城』(文物出版社).

그 중 중요한 곳은 60~70년대에 조사된 3곳의 건물지이다. 1963년에 목욕탕을 짓다가 발견된 건물터에서는 '太寧四年太歲□□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灰色券雲紋瓦當이 출토되었다. 1971년에는 운동장 서쪽에서 동서 2열의 초석열과 건축 기단, 기와막새, 돌담장 기초 등을 발견하였으며, 1975년에는 集安縣廳舍 공사장에서 위와 동일한 고대 담장의 기초와 붉은색 기와편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들 건축지를 연결하면 동서로 일직선을 이루며 동서 약 240m의 범위를 이룬다. 이 건축지는 성안의 중심부로서 그 규모와 위치로 보아 국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보이는데, 대개 왕궁터로 추정하고 있다. 2000~2003년에도 국내성 내부 모두 21곳의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의 유적과 관련하여 운동장, 실험소학교, 유아원 등 중앙부의 유적에서 건축지와 와당, 벽돌 등 중요한 유구와 유물이 나타났다.[4] 이들 건축지는 성안의 중심부로서 그 규모와 위치로 보아 국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보이는데, 대개 왕궁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건축지가 발견되었는데[5], 대체로 성의 중앙부와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성 동문 바깥 제2백화점 북쪽에서도 건축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내 건축군과 성곽 동쪽 외곽의 건축

4)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 집안시박물관, 2004, 『國內城』(文物出版社).

5) 1985년에는 國內城 동북 모서리 즉 동벽에서 50m, 북벽에서 48m 떨어진 지점에서 건축지가 발견되었다. 1988년 4월에는 동벽에서 안쪽으로 40m 떨어진 團結大路 남측에서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을 출토하였으며, 동벽에서 150m, 남벽에서 175m 떨어진 곳에서 돌담장, 구들 板石, 토기, 와당, 쇠도끼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987년 6월에는 남벽에서 9m, 서벽에서 190m 떨어진 老道德會터에서 토기, 와당, 벽돌 등 다수의 유물을 출토하였다. 1985년에는 인민회의당 동쪽에서 고대 碑石의 龜趺, 토

군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배치가 성곽의 윤곽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통일된 구획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6]

丸都山城은 국내성 북쪽 2.5km 거리에 있다. 해발 676m의 丸都山에 위치한 산성의 주위는 산봉우리들이 첩첩히 둘러싸고 있어 대단히 험준하며, 산성의 남쪽 바로 아래에는 압록강의 지류인 통구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산성의 자연적인 垓字 구실을 하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흘러간다. 산성의 서쪽은 七星山으로 험준한 봉우리들과 연결되어 산성의 자연 방어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압록강가까지 뻗어 있다. 산성의 동쪽은 통구하를 따라 비교적 넓은 산골짜기가 펼쳐져 있다. 산성은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지형으로, 성벽은 환도산 산정상부에서 산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넓은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包谷式 산성이다. 산능선의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산성의 평면은 불규칙한 형태이며, 성벽의 총길이는 6,951m이다. 성문은 모두 5개가 설치되었는데, 동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이며, 남쪽에 1개가 있다. 가장 낮은 계곡 입구에 있는 남문이 산성의 정문으로 기능하였다.

성안에는 매우 넓은 경사면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 3곳의 건물지가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안 동북쪽의 넓은 경사면에는 있는 궁전터로 추정되는 건물지이다. 그 규모는 남북 길이 92m, 동서 폭이 62m 정도로, 경

기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었다. 또 集安市 인쇄공장 위치에서는 토기편, 기와편, 금동불 등을 발견하였고, 영화관을 짓다가 초석을 발견한 바 있다. 이외에 集安縣 公安局 경내에는 동서로 나란히 배열된 두 줄의 초석이 있다.

6) 吉林省考古研究室·集安博物館, 1984, 「集安高句麗遺蹟新調査」, 『文物』 1984 -1기; 崔茂藏, 앞의 책, 1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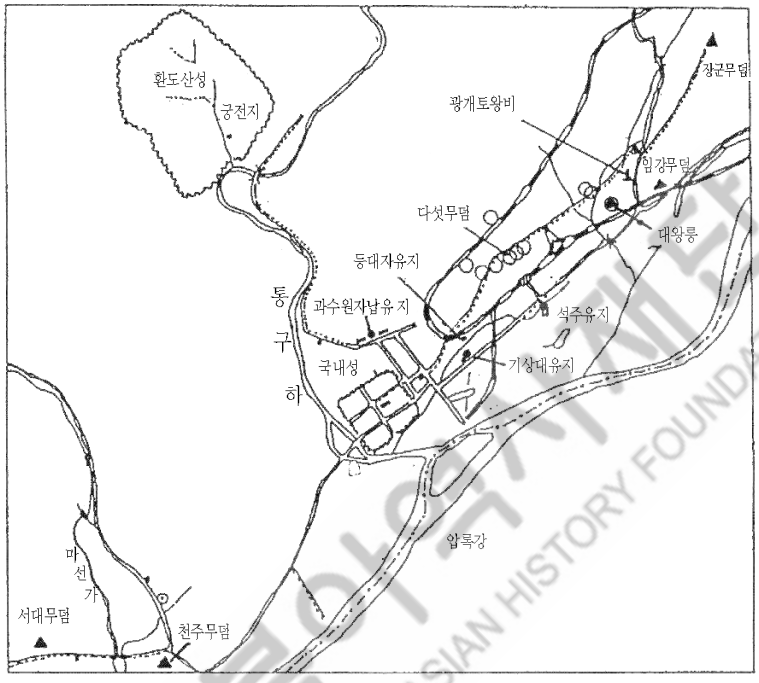
사면으로 올라가면서 3층의 대지를 만들어 놓았다. 각층은 돌로 1m 높이로 단을 쌓았으며, 중간 단이 가장 넓고 큰 규모이다. 전체 넓이는 5,700㎡에 이르며, 열을 이룬 수십개의 초석과 다량의 기와가 발굴 조사되었다.[7] 그러나 환도산성은 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도성의 정치적·행정적 중심지나 일반 거주지역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초기 **都城**의 공간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국내성과 그 일대의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지역에서도 주민 거주구획과 도로 유적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당시의 도시 면모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성곽 유적 이외에 지금까지 알려진 또다른 유적으로는 **東臺子** 유적, **果樹園子南** 유적, **民主石柱** 유적, 기상대 유적, **國東大穴** 유적 등이 있는데, 이들 유적은 고구려 당시의 국내 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8]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0.5km 떨어진 **東臺子** 유적은 동서 500m, 남북 150m, 지표의 높이 8~10m의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지의 남쪽으로는 탁 트인 충적 평원이 펼쳐져 있다. 1958년에 대지의 동쪽 일부를 발굴 조

7) 丸都山城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池內宏, 앞의 『通溝』上.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65~69쪽.
李殿福(車勇杰·金仁經 역), 앞의 책, 35~39쪽.
李殿福, 1982, 「高句麗丸都山城」, 『文物』1982-6, 82~85쪽.
李殿福, 1982, 「集安高句麗山城子山城考略」, 『求是學刊』1982-1.
林直樹外, 1994, 「高句麗都城と山城」, 『靑丘學術論叢』5, 62~63쪽.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 2004, 『丸都山城』(文物出版社).

8) 이하의 유적지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43~48쪽.
李殿福(車勇杰·金仁經 역), 앞의 책, 89~99쪽.



〈그림 1〉 국내지역 고구려 유적 분포도

사하였는데, 그 결과 회랑을 둘린 건축물 4채가 발견되었다. 가옥은 正屋 두 칸과 偏房 두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옥 두 칸의 중간에는 남북으로 길고 좁은 통로가 있고, 처마 돌출 부분의 지주에 있대어 廊道가 있다. 이 廊道와 偏房 廊道는 서로 이어져 통한다. 정옥 1실의 위치는 동쪽이며 폭은 15m, 앞 뒤 폭은 11m이고, 그 중앙에는 잘 다듬지 않은 장방형 石座가 있다. 석좌의 위면 중앙에는 동서 방향으로 4개의 방형 홈이 파여있으며, 석좌의 서측과 남측에도 네 개의 홈이 파여진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社主로 보는 견해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건축 장식물로서 판와·통와·와당·塼·치미 잔편 등이다.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건축물의 규모로 보아 왕실의

社稷과 宗廟 내지는 이와 관련된 제사유적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禹山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果樹園子南 유적은 국내성 동북 모퉁이에서 북쪽으로 300m 거리에 있다. 유적은 넓은 산비탈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평지보다 7~10m 정도 높으며, 비탈의 경사도는 5° 정도이다. 유적의 범위는 동서 150m, 남북 80m이고, 유적의 서쪽 부분에는 동서로 배열된 거대한 초석이 4개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는 지하에 다수의 초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유지에서 다수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특히 卷雲獸文銘文瓦當 2점이 주목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와당 가운데 '泰'의 명문이 있고, 주위 명문은 '歲口戊年造瓦所記'이다. 다른 하나는 잔편인데, 남아있는 명문은 중앙부에 '吉'이란 명문이, 와당 주위에는 '十谷民造'라 명문이 남아있다. 그외의 출토 유물로는 白玉耳盃, 도금동촉 20점, 도금그릇뚜껑 1점 등이 있다. 그 중 白玉耳盃은 漢王室의 유물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와당과 유물로 보아 영성·사직 등 제사 유적으로 추정되기도 하나,[9] 출토 유물이 최고급인 것으로 보아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어쩌면 국내성 내에서는 왕궁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성 북쪽에 별궁의 형태로 왕궁을 축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건축지의 축조연대는 명문 와당을 근거로 고국원왕 8년경으로 추정되기도 한다.[10]

기상대 유적은 국내성 동쪽 1km여 거리의 우산 남쪽의 충적 평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압록강과 0.5km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3만㎡

9) 李殿福, 위의 책, 93쪽.

10) 李殿福, 1984, 「集安卷雲獸文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 1984-4; 김정배 외 엮음, 1991,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인식』, 70쪽.

이고, 건축지로는 초석•돌담장•벽돌 담장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 일대에는 적색기와편•토기편•철촉 등이 흩어져있다. 출토 유물로 보아 고구려의 주거유적으로 추정된다.[11]

民主•石柱 유적은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2.5km, 기차역에서 남쪽으로 0.5km 지점에 있다. 방추형의 石柱 2기가 동서로 나란히 있으며, 이 일대에서 석축 기초와 석축 담장이 조사되었다. 2003년도에는 3기의 대형건축지가 발굴 조사되었다.[12]

國東大穴 유적은 국내성 동쪽 上解放村의 永洞子溝里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곡 안쪽의 산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 동굴이다.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록인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에 보이는 隧穴로 추정되고 있다.

Ⅲ. 국내기 都城의 구성

앞장에서 집안 일대에서 조사되어 있는 고구려시대의 유적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아직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주민의 거주 유적 등이 조사되지 않아 도성의 공간적 구성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먼저 문헌자료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

11)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46쪽.
12)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 2004, 앞의 『國內城』, 제2편 民主遺址

도성의 행정적 구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고국천왕대부터 등장하는 방위명 5部의 존재이다.[13] 이 방위명부는 畿內지역에 설정된 것으로, 王都 일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那部와 구분된다.[14] 그러면 국내지역에서 방위명 5부의 위치는 어디에 비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내성을 포함하여 畿內의 지역 구분과 지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단서 역시 매우 불충분하지만, 葬地名으로 정해진 고구려왕의 王名이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장지명에서 비롯한 왕명으로는 故國川王(故國川原)·山上王(山上陵)·東川王(柴原=東川原)·中川王(中川原)·西川王(西川原)·峰上王(峰山原)·美川王(美川原)·故國原王(國岡上王; 故國原)·小獸林王(小獸林)·故國壤王(故國壤) 등이다.[15] 또한 장지를 알 수 있는 왕으로 新大王(故國谷)·廣開土王(國岡上)이 있다. 이들의 왕릉이 국내지역에 있음은 분명하다.[16]

그런데 현재 집안 일대에 남아있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거대 적석총을 보면, 국내지역 서쪽 끝에는 千秋塚과 西大塚이 자리잡고 있고, 동쪽 끝에는 臨江塚·太王陵·將軍塚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다섯 고분은 그 규모나 축

13) 『三國史記』 권16, 고구려본기 4, 故國川王 13年 夏4月 "(左可慮等) 聚衆攻王都 王徵畿內兵馬平之 遂下令曰 近者官紀廢弛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令沸四部 各舉賢良在下者 於是 四部共舉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14)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49~55쪽.

15) 閔中王과 慕本王 역시 葬地名에 의거한 왕명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두 왕은 국내시기의 왕이 아니라, 그 이전 졸본이 왕도였을 때의 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왕의 장지는 국내 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16) 대표적으로 서천왕묘 역시 국내 지역에 있었다. "慕容廆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5, 봉상왕 5년조.)

조 방식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왕릉으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겠다. 즉 이들 5개의 고분은 대략 미천왕·고국원왕·소수림왕·고국양왕·광개토왕·장수왕 등 6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6왕 중 '國'이란 장지명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국원왕(國岡上王)·고국양왕·광개토왕(國岡上)의 3왕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사에 나타나는 '國'은 주로 수도 國內 지역을 가르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필자는 장지명에서 의거한 왕호에 나타나는 '國'은 國內 지역의 특정지역을 가르키는 것으로 본다.

적어도 고국원왕과 광개토왕은 國岡上이라는 동일 장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의 위치로 보아 인근의 장군총이나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의 후보로 본다면, 국내지역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臨江塚·太王陵·將軍塚을 고국원왕·고국양왕·광개토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千秋塚과 西大塚을 미천왕·소수림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유의되는 점은 국내시대 후기 5왕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거대 적석총이 국내지역의 동서 양 끝단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이 지역에는 더 이상 거대한 묘역을 갖는 왕릉을 축조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즉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평원지대에는 이미 다수의 고분군과 주민의 거주 공간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후기 5왕과 산기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상왕·봉상왕을 제외하면, 대략 동쪽의 장군총·태왕릉·임강총(國原·國岡上)으로부터 서쪽의 천추총·서대총(小獸林·美川原)까지의 중간 지대에 동천왕·중천왕·서천왕의 왕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지명에서 유추하면, 국내성을 중심으로 동서로 펼쳐진 평원지

대를 東川原·中川原·西川原으로 지역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문헌자료에 전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東·中·西로 구분되는 일련의 지역명은 일정한 기준(방위)으로 국내지역이 지역 구분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中川이란 지명은 지금의 국내성 서쪽으로 흘러가는 통구하를, 西川은 마선하를 가르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국내지역이 압록강을 따라 東西로 길게 전개되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면, 지형상 北川原·南川原이란 지역 구분은 상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일정 지역을 방위명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珊弥王의 장지인 忽本東岡이나, 琉璃王의 장지인 豆谷東原이 또다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國原(國岡上)·東川原·中川原·西川原·美川原 등의 지역 구분이 행정구역명이 아닌 단순히 지리적 조건에 따른 지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지역의 전반적인 지리적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방위의 기준이 되었을 국내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위로 구분되는 방위명 部의 위치를 설정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단 현존하는 고분의 분포 지역을 제외한 평원 지역을 주거지역의 대상으로 삼아 추정한다면, 국내성을 中部로 놓고 보면, 東部와 北部에 해당되는 구역은 주민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성 남쪽과 서쪽으로는 통구하 서쪽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西部와 南部의 둘 중 하나 정도만이 구역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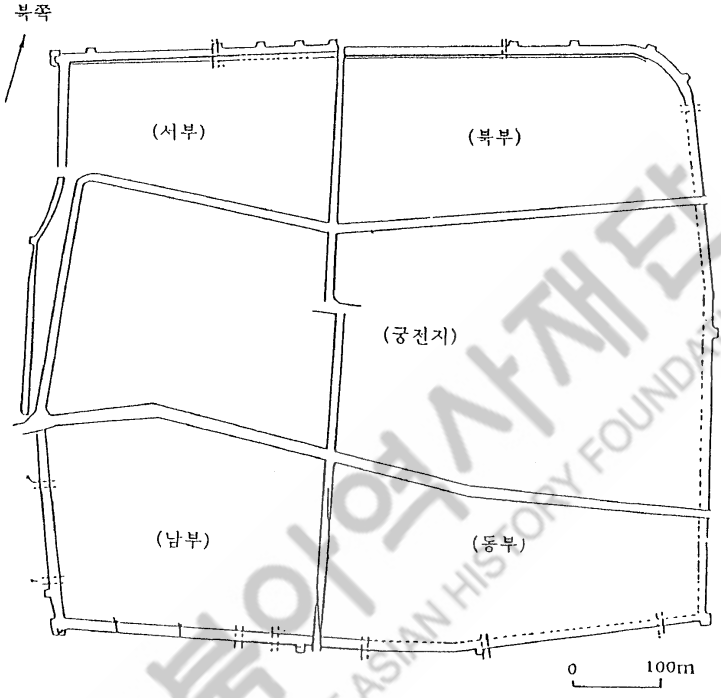
물론 행정구역이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행정구역 설정 자체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국내성을 기준으로 국내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방위명 部를 설정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葬地名에서 추정한 東川原·中川原·西川

原·美川原 등의 지역명과의 구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川原 지명이 방위명 部 안에 포괄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부의 외곽에 설정된 지명일 수도 있다. 현재 주거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가능하다.

한편 5부가 국내성 안에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필자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사료상으로 방위명 部가 처음 등장하는 고국천왕대에 왕궁 및 왕실 구성원, 그리고 관청 등이 국내성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 작다고 볼 수 없는 국내성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의당 귀족세력들의 거주지도 국내성 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방위부가 등장하는 초기에는 5부가 국내성 내부의 지역 구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고구려 당시 국내성 내부의 구획은 현존하는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크게 東西 방향 2개의 도로와 南北 방향 1개의 도로로 구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체 국내성의 공간은 6개 구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왕궁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주로 도성 안 중앙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궁궐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왕궁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남북 도로가 중앙부 부근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이 일대가 두렷이 2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었다기 보다는, 본래 하나의 구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략 동서 2개의 도로로 구획되는 중앙부 일대를 왕궁과 관청 등이 위치하는 中部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곽의 나머지 4개 구획을 방위에 따라 각각 동·서·남·북의 4部로 비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5부의 구역 구분은 왕궁을 중심으로 보면 방위상으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17]

17) 이러한 방위에 따른 지역구분 방식이 5행사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 지는 좀 더 검토할 문제이다.



〈그림 2〉국내성 평면도와 5부

그런데 초기의 방위명 5부를 국내성 내부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평양 천도 이전까지 지속되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집권체제가 정비되면서 지방 部의 지배세력이 王都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국내 지역의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18] 판부의 분화에 따라 도성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귀족세력들이 도성 안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증가 및 왕궁과 관청의 확

18) 林起煥, 앞의 논문, 55~60쪽.

대 과정에서 국내성의 외곽에도 거주 지역이 마련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성 동쪽의 거주유적지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면 이러한 국내성 외곽 지역에 대한 행정적 구분은 어떠하였을까? 5部를 확장하여 편제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별도의 편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자료에는 5부 이외에 별도의 행적구역명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5部의 행정구역이 국내성 외곽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19]

한편 왕궁의 확대도 유의된다. 봉상왕대에는 왕궁을 增營하거나 수리한 기사가 보이고, 광개토왕대에도 왕궁을 增修한 기사가 보인다.[20] 그런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국내성 내부에서 새로이 왕궁의 공간적 확대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환도산성의 궁궐도 별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국내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나 산성이라는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일상의 왕궁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내성 부근에 또다른 왕궁지가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유력한 후보로는 앞에서 살펴 본 果樹園子南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을 왕궁지로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출토된 와당 등 유물이 최고급인 것으로 보아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유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왕궁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 유적의 조성 시기는 출토 명문 와당을 근거로 고국원왕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20] 대략 4세기 전반

19) 동천왕대에 나타나는 下部의 존재가 혹 東·西·南·北部와 구분되는 국내성 외곽의 행정적 편제일 가능성도 고려된다.

20) 『三國史記』권17, 고구려본기5, 峰上王 7年 冬10月 "王增營宮室".
峰上王 8년 8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三國史記』권17, 廣開土王 16年 春2月 "增修宮闕".

으로 추정하는 데에 그리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 유적과 국내성 북벽과의 사이에는 확장된 거주구역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왕궁지 유적이 국내성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조성된 배경은 그 중간 지대에 이미 주민 거주지역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제사 관련 유적지로는 앞서의 東臺子 유적과 國東大穴 유적이 주목된다. 동대자 유적의 조성시기를 고국양왕 9년(392) 3월의 "命有司 立國社修宗廟"와 연관하여 보기도 한다.[22]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廟社가 있었기 때문에,[23] 동대자 유적의 조성 시기를 반드시 고국양왕대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고국원왕 대에 前燕의 침입으로 수도 국내성 일대가 파괴된 점을 염두에 두면,[24] 東臺子 유적의 조성을 4세기 전반경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 동대자 유적과 국내성이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그 중간 지대에 이미 거주지역이 조성되었던 결과로 짐작된다. 한편 東臺子 유적이나 國東大穴 유적이 국내성 동쪽에 위치한 것은 국내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쪽을 상위로 인식한 고구려인의 관념에서 볼 때,[25] 이들 제사 유적이나 종교적 성소가 동쪽에 배치된 배경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 확장된 도시 구역의 범위를 살펴보자.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 李殿福, 앞의 책, 93쪽.
22) 李殿福, 위의 책, 91쪽.
23) 『三國史記』 권17, 고구려본기5, 東川王 21年 春2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移民及廟社".
24)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6, 故國原王 12년 "慕容皝從之 發美川王廟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毁丸都城而還".
25) 『翰苑』 所引 高麗記 "其國從事以東爲首故 東部居上".

국내성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왕궁지로 추정한 果樹園子南 유적의 남쪽 일대가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동쪽으로는 東臺子 유적이나 기상대 유적의 서쪽 일대까지가 도시 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대자 유적 동쪽으로는 고분군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칠성산고분군의 남단에서 시작되는 압록강 일대의 평지가 유력하다고 보겠다. 대략 이런 지역이 주민이 밀집된 시가지 구역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 현재 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평원지대에는 일반 주민들의 촌락과 농경지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 1 참조)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국내지역 都城의 공간적 구조가 갖는 특성을 개관해 보자. 먼저 전기의 도성제에서 중요한 성곽 유적은 왕궁성이며 거주성으로서 기능한 平地城인 國內城, 방어성의 역할을 하면 山城인 丸都山城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조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이 都城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점 역시 유의된다.[26] 그러나 후술하듯이 평양 천도 이후에도 산성과 평지성이 조합된 도성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 점이 고구려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전개되었음은 주목된다.

고구려가 평지성의 주위에 방어시설로 산성을 구축한 것은 산성을 중심으로하는 고구려 독자의 방어전술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 전술에

26) 고구려에서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은 고구려가 영역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한군현의 평지토성을 이용하는 한편 토성 주위에 방어용 산성을 축조한 결과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인의 下古城子城과 五女山城, 蠟甸城과 覇王朝山城, 제2玄菟郡治로 비정되는 永陵鎭의 漢代土城과 舊老城, 제3玄菟郡治로 비정되는 무순의 勞動公園古城과 高爾山城, 西安平縣治로 비정되는 丹東의 麒麟下尖古城과 虎山山城 등이 있다.

서 보면 도시 외곽을 둘러싸는 외곽 나성의 조성은 불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도성의 방어체계에 있어서 국내지역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교통로 선상에 다수의 산성과 차단성을 위성으로 축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내기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27]

마지막으로 도성의 주거구역의 확대 과정에서 왕궁을 중심으로하는 공간구조의 변화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국내성 중심에 왕궁을 조성하고 그 주위를 5部로 구획하는 공간 구조였다. 그런데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왕궁과 도시구역이 확장되면서 일정한 변화상이 엿보인다. 즉 앞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果樹園子南 유적를 왕궁터로 볼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도성의 공간 구조는 '坐北朝南'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그 북쪽에 환도산성이란 방어성이 구축된 형태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는 도성이 '江南山北'의 조건에서 조성되었음도 유의된다.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 '坐北朝南'의 공간배치, '江南山北'이란 지리적조건 등 특성은 평양 천도 이후에도 평양기 도성의 공간 구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27) 그 분포 상황을 보면 먼저 환인에서 渾江으로 따라 집안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城墻砬子山城·瓦房溝山城등의 산성과 北溝關隘이 있다. 다음 轉水湖山城·黑溝山城에서 富爾江 유역을 거쳐 新開河를 따라 남하하는 경로에는 建設山城·覇王朝山城·望波嶺關隘이 있다. 自安山城에서 통화를 거쳐 清河·위사하를 따라오는 남하하는 경로에는 大川哨所·關馬墻山城이 있으며, 통화에서 羅圈溝河·通溝河를 따라 남하하는 경로에는 二道溝門關隘·石湖關隘가 있다. 그리고 위 두 경로를 따라 국내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夾河溝哨所와 板盆嶺哨所가 있다.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따라 올라오는 경로를 중간에서 통제하는 곳으로는 七個頂子關隘, 老邊墻關隘이 자리잡고 있다. 임기환, 1998, 「高句麗 前期 山城 硏究」, 『國史館論叢』 82, 61~66쪽 참조.

Ⅳ.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국내기 도성제에서 성곽은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이라는 도성 구조는 고구려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계승된다. 주된 거주성은 국내성으로 성안은 동서 도로 2개, 남북 도로 1개 등 3개의 도로에 의해 5구획되었다. 그중 중앙부에 왕궁과 관청들이, 그리고 수도의 행정구역인 5부는 각각 국내성 내의 각 구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성 외곽 지역은 國原·東川原·中川原·西川原·美川原 등으로 구분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도성의 발전과정에서 거주구역은 국내성 외곽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5부 구역도 확장되었다. 또 국내성 북쪽에는 새로이 왕궁성이 마련되고, 동쪽에는 國社나 宗廟등 종교적 성소가 시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도성의 공간 구조는 '坐北朝南'와 유사한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주성 북쪽에 산성이 구축되고, 도성 전체가 '江南山北'의 조건에서 조성되었음도 유의된다. 이러한 형태는 평양천도 이후의 대성산성과 안학궁 및 도시구역으로 이루어지는 전기 평양 도성의 공간 구조에서 다시 반복되었다.

고구려도성의 특징과 력사적지위

김경삼 (고고학연구소 고구려고고학연구실 실장)

고구려는 B.C. 277년부터 A.D. 668년까지 근 1,000여년간 존재하면서 광대한 령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과시한 동방의 대강국이였다.

삼국시기 고구려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대강국이였던것으로 하여 세나라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은 고구려의 도성형식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저는 이 토론회에서 동방의 대강국이였던 고구려의 도읍지에 따르는 도성형식에 기초하여 고구려도성의 특징과 그 력사적지위에 대하여 발표하려고 한다.

고구려는 나라를 세운 때로부터 마지막시기까지 도읍지를 여러차례 옮기였는데 도읍지에 따라 보면 졸본도읍시기(중국 료녕성 환인일대에 도성

을 두고 있던 시기 B.C. 277~A.D. 3), 국내도읍시기(중국 길림성 집안에 도성을 두고 있던 시기, A.D. 3~A.D. 427), 안학도읍시기(평양시 대성구역일대에 도성을 두고 있던 시기. A.D. 427~A.D. 586), 평양도읍시기(평양성도읍시기 A.D. 586~A.D. 668)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러한 도읍시기에 따르는 고구려도성들의 형식을 고찰하여 보면 자체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있다.

고구려도성의 특징은 첫째로, 도읍지의 지형선택에서 찾아볼수 있다.

도읍지에 따르는 고구려도성이 자리잡았던 지형을 보면 주변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와 산지가 결합되여 있어 군사적으로 방위하기 유리하고 물산이 많이 나며 교통이 편리하여 경제적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들이다.

이것은 국내일대와 평양일대의 지리적조건이 잘 말하여 주고있다.

고구려의 두번째도성이 자리잡았던 국내일대는 동서가 약 30리 남북이 약 10리 되는 면적을 가지고있는 집안평야에 있다. 이 집안평야의 북쪽에는 로령산줄기가 높이 솟아 평야를 병풍처럼 막아주고있고 남쪽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어 천연요새를 이루고 있으며 기온이 온화하여 농사에 알맞춤하고 산짐승잡이와 수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또한 집안평야에서는 동북쪽으로는 통화로, 서북쪽으로는 환인으로, 압록강을 리용하여 의주를 거쳐 서쪽으로, 압록강을 건너 남쪽의 평양, 동남쪽의 함흥으로 쉽게 갈수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도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하여 국내일대는 기원 3년 강성하여가고있던 고구려의 두번째수도가 자리잡은 곳으로 될수 있었다.

고구려의 세번째, 네번째도성이 자리잡았던 평양일대역시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춘 곳이였다. 우선 군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었다. 평양일대의 남, 북, 동쪽에는 정방산줄기, 북대봉산줄기, 묘향산줄기를

비롯하여 많은 산줄기들이 동서로 남북으로 첩첩히 늘어서있어 산지대방어에 능한 고구려사람들에게 견고한 방어선으로 리용될수 있었다. 또한 남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르면서 조선서해로 들어가기때문에 남쪽을 방어하는 천연해자의 역할을 하고있었다.

평양은 또한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서북조선일대에는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있어 농업생산에 유리하며 대동강과 그 지류를 비롯한 큰 강들과 서해를 끼고 있어 수산업에도 유리하였다.

평양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평양에서는 북쪽으로 순안, 순천을 거쳐 의주에 이르고 또 순천을 지나 만포선을 따라 집안일대로 갈수 있으며 중화, 황주를 거쳐 남쪽으로, 대동강상류를 거슬러 강동, 성천을 지나 동쪽으로, 대동강하류를 따라 서해안으로 쉽게 갈수 있다.

국내와 평양일대가 갖춘 이러한 지리적조건은 고구려가 일찍부터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천연요새를 이루고있으며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에 도읍지를 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류리명왕 21년(A.D. 2년)에 설치가 "……국내 위나암에 갔더니 그곳 산과 물이 깊고 험하며 토양이 오곡을 지배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일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면 백성들의복리가 무궁할뿐아니라 전쟁걱정을 면할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1]

이것을 보면 고구려는 일찍부터 국내일대와 평양일대의 지형조건이 보

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류리명왕 21년.

여주는것과 같이 군사적으로 방위하기 유리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있는곳을 도읍지로 택하여왔으며 이것을 마지막시기까지 견지하여 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도읍지의 선택은 당시 주변나라들의 도읍지의 선택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후한과 북위의 도성 락양성이나 당의 도성 장안성이 자리잡은 지형을 보면 평지에 건설되였다.

고구려도성의 특징은 둘째로,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되여 있으면서 궁성인 평지성을 중심으로 수도가 전개된 도성형식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는 졸본도읍시기에 산성에 궁실을 둔 형식으로부터 궁성인 평지성과 수도방위성인 산성이 결합되여 있는 형식으로 자기의 도성형식을 변화발전시켰다.

고구려의 시조왕 주몽은 B.C. 277년에 나라를 세운 후 "비류골의 홀본 서쪽에서 산우에 성을 쌓고 수도를 정하였다."[2]라고 광개토왕릉비에 써놓은 것과 같이 료녕성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에 고로봉식의 졸본성(오녀산성)을 쌓고 이것을 첫 수도로 정하였다.

고구려가 첫 왕궁을 오녀산성안에 두고 이곳을 수도로 정한것은 성립초기 나라의 령역이 협소한 조건에서 방대한 력량을 가진 적들이 수도로 쳐들어오게 되는 조건을 타산한데로부터였다.

고구려는 오녀산성을 수도로 정한후 정사를 진행하면서 부단히 령역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령역의 확대와 높아가는 나라의 권위에

2) 『광개토왕릉비』 제1면 3행.
3)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제1, 류리명왕 3년.

맞게 자기의 도성형식을 변화시켰다. 즉 "골천가에 궁을 지었다."[3]는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보이는것처럼 혼강가에 평지성을 쌓고 그 안에 궁을 두었다.

이 평지성은 오늘의 하고성자고성으로 보이며 여기에 건설된 궁은 그 후 왕이 궁에서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는 때가 많아짐에 따라 궁적성격으로부터 왕이 전문적으로 거처하는 왕궁으로 전변되였다. 결과 궁실이 있는 하고성자고성은 궁성으로 전변되였으며 오녀산성은 그 시기부터 궁성과 그 주변의 주민거주구를 보위하는 수도방위성의 역할을 하게 되였다. 왕은 평시에 평지성인 하고성자고성의 궁실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진행하다가 유사시에는 오녀상성에 들어가 적들과 항전하게 되였다. 결국 졸본도읍시기에 고구려의 도성은 산성에 수도를 둔 도성형식으로부터 궁성인 평지성과 수도방위성인 산성이 결합되여 있는 도성형식으로 발전하였다.[4]

국내도읍시기는 졸본도읍시기에 창조된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여 있는 도성형식이 더욱 발전한 시기였다. 이 시기 국내일대의 도성관계유적들은 고구려가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여 있는 도성형식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발전시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자기의 도성을 궁실과 관청이 있는 국내성(평지성)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하였다. 즉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의 경치좋은 곳(티수원자 남쪽)에는 고구려귀족들의 거주구를 배치하였으며[5] 동북쪽(동대자)에는 국가의 사당을[6], 동쪽의 비교적 낮은

4) 『조선고고연구』 1998년 2호, 21~23쪽.
5) 1991, 『조선고고학전서』 중세편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50쪽.
6) 우와 같은 책, 48~49쪽.
7) 우와 같은 책, 52쪽.

우산남쪽기슭에는 일반주민들의 거주구를[7] 배치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것으로서 북쪽에 있는 산성자산에 수도방위성(위나암성)[8]을 쌓아놓았다.

국내일대의 이러한 도성관계유적들은 고구려가 이 시기 졸본도읍시기에 창조된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어 있는 도성형식을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평지성을 중심으로 수도가 전개된 도성형식으로 발전시켰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학도읍시기 고구려는 국내도읍시기의 도성형식을 더욱 발전완성시켰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성산성을 가장 중요한 수도방위성으로 하고 대성산성과 청암토성, 고방산성을 련결하는 안쪽지역에 궁성인 안학궁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를 전개하였다. 대성산의 남쪽기슭의 대지에 자리잡은 안학궁은 총 건평 31458㎡에 달하는 면적에 21개의 궁전과 그것들을 련결하는 회랑들, 못과 정원들을 품위있게 건설하여 고구려왕의 권위를 시위한 궁성이였으며[9] 대성산성은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유사시 수도에 침입한 적들과 싸우기 위한 수도방위성이였다.

청암토성은 나라를 운영하는 중앙통치기관들과 절간들이 자리잡은 성이였고 고방산성은 남쪽에서 대동강을 건너 들어오는 적들을 견제하기 위한 강방어성이였다. 안학궁 남쪽 대동강가(오늘의 청호동, 림흥동, 고산동일대)의 넓은 지역은 수도의 시가지가 전개되어 도로들이 질서있게 교차되면서

8) 1982, 『문물』 (중문) 6기, 83~84쪽.
9)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05~106쪽.
10) 1986, 『조선고고연구』 1호, 43~44쪽.

그 량옆에 주민지구가 배치된 수도의 기본거주구였다.[10]

안학도읍시기 고구려의 도성형식은 국내도읍시기의 도성형식을 더욱 발전시킨것으로서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여 있으면서 평지성을 중심으로 수도가 전개된 형식에서는 제일 발전된것이였다.

평양도읍시기 고구려의 도성은 이미전에 건설하였던 도성형식의 우점들을 모두 수용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평산성형식의것이였다.

고구려는 A.D. 552년부터 A.D. 586년사이에 면적이 11.85㎢에 달하는 평지와 산지가 결합된 오늘의 평양시 중심부지역을 총 길이 23㎞에 달하는 돌성벽으로 둘러 쌓고 그 안에 수도를 전개한 평양성[11](장안성)을 건설하였다.

평양성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 등 네개의 부분성들로 갈라져 있다.

성안을 네개의 부분성으로 가른것은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의도에서였다.

우선 정치적으로 성안의 거주구역을 계급신분에 따라 가름으로써 봉건통치질서와 국왕의 권위를 시위하자는데 있었다. 평양성 각 부문성의 역할을 보면 내성은 궁성, 중성은 중앙관청들이 자리잡은 성, 외성은 수도주민들의 거주구였으며 북성은 내성북쪽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차단하기 위한 성이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각 부문성들을 지세에 따라 높은 모란봉기슭으로부터 시작하여 내성, 중성, 외성으로 가르고 거기에 궁전, 중앙관청, 주민들의 살림집순서로 질서있게 배치함으로써 도성건축이 국왕의 권위와 고구려 봉건국가의 위세를 시위하는데 복무하도록 하였다.

평양성을 네개의 부분성들로 가른것은 또한 군사적으로 성의 방위력을

1991, 『조선고고연구』 4호, 29~33쪽.

11)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4쪽.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평양성은 총체적으로 한개의 성으로 되어있으나 네개의 부분성으로 갈라쌓아졌기때문에 몇겹으로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있다. 이것을 궁성인 내성을 중심으로 보면 내성의 서남쪽은 중성벽과 외성벽이 둘러져있어 3중성벽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북성 북벽이 있어 2중성벽을 이루고있다.

또한 외성벽으로 된 평양성의 동, 서벽들은 절벽과 험한 산지에 쌓아져 있어 공격하기 아주 어렵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평양성이 궁성인 내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봉건국가의 권위를 잘 나타내게 하면서도 성의 방위력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견고하게 건설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졸본도읍시기로부터 평양도읍시기까지의 고구려도성들은 고구려가 자기의 독특한 도성형식인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평지성을 중심으로 수도를 전개하는 도성형식을 존재전기간 부단히 발전완성시켜왔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도성형식은 당시 존재하였던 주변나라들의 도성형식에는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고구려가 존재할 당시 있었던 후한과 북위, 당의 도성들은 모두 고구려의 도성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건설되였다. 후한과 북위의 도성 락양성은 불규칙한 장방향이며 성안에는 남쪽과 북쪽에 궁성을 두고 무기고와 창고, 중앙관청에 복무하는 지배계급의 주택들이 자리잡은곳이였다. 이 락양성의 남쪽과 동, 서쪽에는 주민거주구가 전개되여 있었는데[12] 이것은 후한과 북

12) 1987, 『중국도성의 기원과 발전』 (일문, 가꾸세이샤), 158~167쪽.

위의 도성이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여 있는 고구려의 도성과는 다른 형식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 장안성 역시 장방형의 평지성으로서[13] 평산성형식이면서도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평양성의 도성형식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있다.

고구려도성의 특징은 셋째로, 도성을 보위하기 위한 방위체계에서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적해야 할것은 수도를 보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수도방위성의 발전이다.

고구려에서 각 도읍시기에 따르는 수도방위성들은 오녀산성, 산성자산성, 대성산성이였으며 평양성은 도성이면서도 수도전체를 방위하는 수도방위성이였다.

수도방위성의 발전에서 보이는것은 우선 수도방위성인 산성이 도읍시기에 따라 궁성이였던 평지성과 점차 접근하였다는것이다. 즉 수도중심부와 수도를 보위하는 방위성과의 거리에 점차 짧아진다는것이다. 평지성과 산성과의 거리를 도읍시기에 따라 보면 졸본도읍시기에는 9.3㎞, 국내도읍시기에는 2.5㎞, 안학도읍시기에는 1.2㎞이며 평양성은 그 자체가 수도방위성이다. 고구려의 도성형식에서 평지성과 산성이 점차 접근하게 된것은 수도방위성의 사명으로부터 일단 유사시 수도안에 있는 주민들을 빠른 기간안에 피신시키고 방위준비를 갖추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고구려의 수도방위성발전에서 보이는것은 또한 도읍시기에 따라 수도방위성의 방위력이 점차 강화되여가고있는것이다. 성의 방위력은 그 크기와

13) 1962, 『신중국의 고고수확』(중문, 문물출판사), 96쪽.

축성방법, 성이 차지하고있는 지형조건 등에 많이 의존된다. 오녀산성, 산성자산성, 대성산성은 모두 방어에 유리한 고로봉식의 산성들이나 그 방위력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성의 면적을 규정짓는 크기에서 보면 오녀산성은 그 둘레의 길이가 2440m, 산성자산성은 6951m, 대성산성은 7076m(2중, 3중 성벽까지 합치면 9284m)로서 차이가 있다. 성벽쌓기에서 보면 오녀산성과 산성자산성은 험준한 산세에는 성벽을 쌓지않고 산릉선을 그대로 성벽으로 리용하였으나 대성산성은 주위를 모두 성벽으로 둘러 쌓고 더우기 낮은 지대에는 2중, 3중으로 성벽을 쌓아 방위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수도방위성들에 보이는 방위력의 점차적인 강화정형은 고구려가 존재 전기간 수도방위를 위하여 큰 관심을 돌렸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고구려도성의 방위체계에서 다음으로 보게 되는것은 위성방어체계의 발전이다.

고구려에서 수도를 보위하는 위성방어체계는 국내도읍시기에 형성되였다. 국내에 도읍을 두고 있던 시기 고구려는 수도 국내로 들어오는 중요도로들과 압록강변에 관마장관성과 대천보루, 패왕조산성과 망파령관성, 강변보루 등과 같은 성과 보루들을 쌓아[14] 위성방어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수도로 들어오는 적들을 일시 견지하는데서는 효과적인것이였으나 차단성들과 보루의 크기와 그 방어력으로 하여 적들을 완전히 격퇴하기는 힘든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국내도읍시기 고구려는 두차례에 걸쳐 수도가 큰 병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은 고구려는 안학도읍시기 수도에서 60~100여리 떨어져있으면서 산성쌓

14) 『문물』(중문) 1984년 1기, 39~40쪽.

기에 유리하면서도 수도로 들어오는 중요도로들과 가까운곳에 방위력이 강한 고로봉식산성들을 쌓아 위성방어체계를 세워놓았다. 이 위성방어체계에 속하는 성들은 평양일대 북쪽의 청룡산성, 서쪽의 황룡산성, 동쪽의 홀골산성, 남쪽의 황주성으로서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도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고구려의 도성에 존재하였던 도성방위체계는 당시 이웃나라들의 도성방위체계와는 다른 형식의것이였다. 당시 이웃나라들에는 수로를 보위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성방어체계가 존재한것을 찾아 볼수 없었으며 유사시 수로도 쳐들어오는 적들은 그 통로에 있는 각 주, 군, 현성들이 견제하는 형식이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지형적조건, 도성의 전개형식, 도성방위체계에 보이는 고구려 도성의 특징은 고구려가 자기의 도성형식을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완성시켰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고구려의 도성은 같은 시기 존재하였던 백제 신라의 도성들뿐아니라 그 이후시기 존재한 고려, 리조의 도성들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 공통성은 무엇보다도 도성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형적조건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고려, 리조의 도성들은 모두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자연요새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평지와 산지가 결합된 지역이면서도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잡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들의 도성이 자리잡고있었던 국내와 평양, 서울, 부여, 경주, 개성일대의 지형조건들이 단적으로 잘 말하여주고있다.

세나라도성의 공통성은 다음으로 이 나라들의 도성형식에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우선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평지성인 궁성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가 전개된 고구려의 도성형식은 백제, 신라의 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가 안학에 도성을 두고있던 5세기중엽 백제의 도성이 자리잡고있었던 서울일대의 도성관계유적들을 고찰하여 보면 풍납동토성과 삼성동토성, 이성산성을 련결하는 안쪽지역에 궁성이였던 몽천토성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의 도성이 전개되였으며[15] 이성산성은 수도를 지키는 중요한 수도방위성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시기 신라의 도성이 자리잡고 있던 경주일대에서 5세기까지의 도성관계유적들은 금성과 도당산토성, 명활산성을 련결하는 지역안에 궁성인 월성을 중심으로 하여 도성이 전개되였으며 명활산성은 중요한 수도방위성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16]

이 세나라의 공통성을 론하는데서 흥미있는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평양에 큰 다리를 놓았다."[17]라는 기록이다.

이 다리는 413년에 평양의 대동강을 가로질러 놓은 너비 9m에 달하는 나무다리[18]를 가리키는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고구려나무다리가 평양에 건설된것을 신라본기에 기록한것은 당시 신라가 평양의 안학일대에서 건설되고 있는 고구려의 도성건설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15) 『조선고고연구』 1999년 2호, 25~29쪽.
16) 『조선고고연구』 1998년 3호, 31~33쪽.
1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제3, 실성니사금 12년.
18) 『력사과학』 1982년 3호, 46~48쪽.

동시에 자기들의 도성도 고구려의 도성형식을 모방하여 건설하였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평산성형식의 도성인 평양성의 도성형식은 그 지형적조건과 축성형태, 도성의 전개형식 등에서 백제의 사비성이나[19] 그 이후시기의 고려의 도성 개경성, 리조의 도성 한성건설에서 기틀로 되였다.

이러한 고고학적 및 력사적자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겨레의 나라로서 오래전부터 문화적공통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교류를 끊임없이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시기 나라들인 고려, 리조 역시 같은 민족의 나라로서 고구려의 문화전통을 련면히 계승하여 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는것이다.

고구려가 당시 함께 존재하였던 백제, 신라와 같은 겨레의 나라였다는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247년 평양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옮기면서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의 도읍터 왕검이라고 한다."[20]라고 밝힌데서도 잘 알수 있다.

고구려가 백제 신라와 같은 겨레의 나라가 아니였다면 력사기록에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것이다. 평양이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활동한 곳이고 또 고조선의 수도가 자리잡았던 곳이였으므로 단군을 자기의 조상으로 간주하고있던 고구려는 평양에서의 도성건설의 첫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고 종묘와 사직을 옮기면서 조상의 도읍터를 찾아 돌아왔다는것을 력사기록에 당당히 밝혀놓았던것이다.

참으로 고조선의 계승자 고구려의 도성형식은 인류의 력명기로부터 유

19) 『조선고고연구』 2002년 3호, 11~15쪽.
2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21년.

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높은 건축술을 남김없이 보여주는것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그 이후시기 고려, 리조의 민족적공통성을 깊이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屬民에 대한 연구

김현숙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광개토왕(391~413) 사후 2년 뒤인 414년에 그 아들인 장수왕(413~491)이 세운 광개토왕비에는 '屬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비문에서 '속민'으로 표현된 존재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동부여이다. 여기서 속민은 '예속되어 있는 민', 또는 '속국의 민'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백제, 신라, 동부여 등은 민이 아니라 국가체를 지칭하는 명칭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속국이나 附庸이란 표현이 더 알맞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에서는 4세기말 5세기 초에 백제와 신라, 동부여를 자국의 '속민'이라고 표현했다.

고구려는 건국과정을 거쳐 일차적으로 내부체제를 정비한 1세기 이후 5

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줄곧 대외정복 전쟁을 활발히 수행했다. 전쟁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을 늘려왔갔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안 밖에는 항상 성격이 다른 구성원들이 존재했다. 내부에도 이질적인 성격을 가졌거나, 집단성과 반독자적인 성격이 가시지 않은 구성원들이 존재했고, 외부에도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세력집단이 존재했다. 고구려와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 성격상 차이가 나는 존재들이 고구려 중심 천하의 안팎에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속민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3세기 중엽 경에 동옥저와 예가 고구려에 '屬'해 있었다는 기사가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나온다. 동옥저와 예는 고구려에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공납을 바쳐야 했다. 이 책의 고구려조에는 또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한다. 田地가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적혀 있다.[1]

이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다른 지역을 침공하여 식량을 약탈해 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생산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동옥저와 예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납은 고구려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옥저와 예는 광개토왕비문의 屬民의 先例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성격이 다른 존재로 보아야할까?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속민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조공'이었다. 일반적으로 조공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책봉과 아울러 중국 왕조와 주변 외국과의 관계를 규정지우는 의례의 일종이라고

1)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보고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비에는 고구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에 대해 조공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심지어 조공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고해서 직접 군사를 보내 응징을 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에서도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해 그러한 고구려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광개토왕 비문에 보이는 조공, 즉 속민들이 고구려에 대해 지고 있던 의무인 조공과 중국이 주변의 다른 나라로부터 받고 있던 조공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나? 아니면 다른 것이었나?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속민의 성격을 분석해봄으로써 이런 의문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논지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3세기와 4~5세기 대 고구려의 국가적, 사회적 성격변화와 4~5세기 대 고구려 천하의 구조 및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상황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는 등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본고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선학제현의 질정을 부탁드린다.

Ⅱ.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속민

속민이란 표현은 광개토왕비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1)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가-2) 十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

□國酸□□□□□□□□□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遣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鴨[illegible]婁鴨盧肅斯舍鴨盧□ □□□鴨盧

사료 가-1)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어서 조공을 해왔다고 한다. 이 구절 뒤에 이어져 나오는 부분은 논란이 많은 이른바 신묘년 기사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본고의 중심주제가 아니므로 앞부분에만 주목하기로 하겠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신묘년에 왜가 출현했고 그로 인해 그에 뒤이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민이 된 것은 어쨌든 신묘년 이전의 일이었다. 즉 391년 이전에 이미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이었고, 그래서 조공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가-2)에 의하면 동부여는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제와 신라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고 하고, 동부여의 경우에는 '추모왕의 속민'이었다고 한다. 이 구절들은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침공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일방적인 과장이었다고 본다.[2]

과연 이 구절들이 전혀 사실성이 없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만한 약간의 근거라도 있는 것일까? 이들 나라와 고구려의 관계사를 정리해봄으로써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동부여의 경우부터 보기로 하자.

길림 지역에 중심부를 두고 있던 부여는 285년에 慕容廆의 침공을 받아 왕인 依慮가 자살하고 부여인 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國滅의 위기상황

2) 盧泰敦, 1988, 「5세기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市民講座』 제3집, 71쪽.

을 맞이했다.[3] 이에 依慮의 자제들은 옥저로 달아났다. 이때 옥저지역은 고구려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다음 해에 부여는 晋의 도움으로 다시 나라를 복구할 수 있었다.[4] 옥저로 도망 와 있던 부여세력은 왕도였던 현재의 길림시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일부 세력은 옥저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들은 3세기 후반부터 길림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기회를 노리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던 고구려의 도움으로 慕容외의 군대로부터 벗어나 옛날 북옥저가 있던 고구려의 동북 변경인 연변지역으로 와 건국을 할 수 있었다. 이 나라가 곧 광개토왕비문 庚戌年條에 나오는 동부여였다.[5]

동부여는 처음 얼마동안은 吉林에 있던 부여 본국과 交通하기도 했었으나 본국이 農安으로 옮겨간 다음[6] 고구려가 길림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이후 동부여는 형식적으로만 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

3) 『資治通鑑』권81 晋武帝 太康 6년조, 「(慕容)廆(前略)又東擊夫餘 夫餘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慕容)廆夷其國城 虜其餘人而歸」.
이 기사에 나오는 國城을 孔錫龜는 沃沮國의 城으로 이해했으나, 이는 夫餘國의 王城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孔錫龜, 1990, 「廣開土王陵碑의 東夫餘에 대한 考察」, 『韓國史硏究』70, 1990, 『高句麗 領域擴張史 硏究』(書景文化社) 再收, 250쪽.

4) 『晋書』권97 列傳67 夫餘國傳, 「明年 夫餘後王依羅遣詣龕求率見人還復舊國 仍請援龕上列 遣督護賈沈以兵送之 廆又要之於路 沈與戰 大敗之 廆衆退 羅得復國 爾後每爲外掠其種人 賣於中國 帝愍之 又遣謁以官物贖還 下司冀二州 禁市夫餘之口」.

5) 동부여에 관한 부분은 拙稿, 2000, 「延邊地域의 長城을 통해 본 高句麗의 東夫餘支配」, 『國史館論叢』88의 내용을 요약했다.

6) 『資治通鑑』권97 晋紀19 穆帝 永和2년(346) 정월조에는 「初夫餘居于龜山 爲百濟所侵 部落寖散 西徙近燕 而不設備 燕王皝遣世子儁 帥慕容軍·慕容恪·慕輿根三將軍萬七千騎 襲夫餘 儁旣中 指授軍事 皆以任恪 遂拔夫餘 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而還 皆以玄爲鎭軍將軍 妻以女」라고 나온다. 이 기사에 나오는 백제는 고구려의 오기라

하며 고구려 영역 안에서 존재하다가 광개토왕 20년(410)에 이르러 완전히 해체되었다.

성립과정과 그 역사의 변천 및 고구려 영역 안에 존재한 국가였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동부여는 강대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반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으므로 안정적인 국가운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주민의 숫자도 처음보다는 증가했을 것이다. 4세기 전반경까지도 부여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자 부여에서 동부여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7], 토착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듯이 고구려 중앙정부로부터 중간에 배반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로 朝貢을 게을리 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 고무된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410년 광개토왕이 이 지역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 王城에 도달했을 때에도 東夫餘는 그다지 강력한 정치세력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고구려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구축하지도 못했다. 그것은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동부여전 관련내용이 다른 세력과의 전투에

보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고구려가 원래 부여의 중심지였던 鼬山 즉 지금의 길림지역에 자주 침략하여 부락이 약해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여는 견디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서 燕에 가까운 지역인 農安 일대로 옮겼다.

7) 『晋書』권97 列傳67 夫餘國傳에 晋의 도움으로 復國한 이후에도 燕이 수시로 부여에 침략하여 부여인들을 중국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官物을 주고 속량시켜 돌려보내기도 하고 司州와 冀州에 부여인 매매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으며, 『資治通鑑』권97 晋穆帝 永和 2년조(346)에도 農安으로 나라를 옮긴 뒤에도 燕으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고 왕과 5만여구가 포로가 되는 참변을 겪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많은 유이민이 발생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비해 상당히 소략하고 단순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지만 동부여 세력은 屬民으로서 고구려에 충성을 표하는 의미에서 조공을 바쳤을 뿐 거의 반독립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광개토왕 대에 들어와 동부여에 대한 고구려의 방침이 달라지게 되었다. 동부여지역을 해체하여 직접 통치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에 동부여로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독립성을 계속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광개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부여의 王城에 육박했던 것이다. 이에 동부여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곧바로 항복했다. 그리고 광개토왕은 동부여의 관료들 가운데 왕을 따르고자 하는 味仇婁鴨盧 등 5입로를 데리고 개선했다. 이들은 이후 신진 귀족의 한 부류로서 중앙정계에 편입되었다.

이처럼 다른 세력과의 전쟁 때와는 달리 상황이 종료된 후 동부여 출신의 관료들을 중앙으로 데려간 것을 통해 광개토왕비문에 적혀있는 여타 정복 대상들과 차이가 나는 동부여의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4~5세기에 고구려 왕실에서는 자신들이 북부여에서 출자했다는 건국신화를 정립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표방했다. 즉 자신들이 부여의 적장자임을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에서 3세기 후반 국멸의 위기에 처해 도망 온 부여의 망명집단을 동북 지역의 변경에 안치한 뒤 국가를 세우게 해 준 것도 4~5세기 대의 북부여출자 건국신화의 표방과 관계가 있는 일이었다. 물론 3세기 당시에는 이것보다 북부여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명분확보가 더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부여 지역을 완전히 점한 이후에도 동부여를 계속 존립시킨 데에는 부여계의 정통계승자임을 자임하려는 의도와 고구려 왕족의 同族을 보호한다는 명분 및 大國으로서의 포용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면 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410년에 행해진 광개토왕의 親征으로 인해 동부여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동부여인이자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이 지역사람들은 이 때부터 고구려의 일반민으로 되었다. 이 때문에 영락 20년조의 동부여전 기사에는 5입로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내용만이 원정의 결론으로 적혀있는 것이다. 다른 연대의 정복기사에 이때 이후로 조공논사하게 되었다든가, '어느 지역 어느 성을 몇 개 공취했다'라든가, '牛馬群羊을 수없이 취해 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전쟁결과 얻어낸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8]

그런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것처럼 동부여가 추모왕대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통해 고구려의 건국세력이 북쪽의 송화강 유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동부여가 있던 연변지역 일대, 즉 두만강유역에서 옮겨왔다고 보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주몽집단이 동부여로부터 온 것으로 기록해 놓은 『三國史記』의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 대 고구려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왕실이 북부여에서 출자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광개토왕비문과 牟頭婁墓誌 등 5세기에 고구려

8) 물론 庚戌年條에 이어서 나오는 '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이라는 구절을 동부여전의 결과로 보고 동부여와의 전쟁이 광개토왕이 행한 정복전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朴時亨과 孔錫龜 등의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사회과학원출판사), 207~208쪽; 孔錫龜, 1998, 앞의 책, 229쪽) 하지만 비문에 나오는 훈적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광개토왕의 전쟁대상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백제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구절을 광개토왕 대 공취한 성촌을 합산한 숫자라고 본다.

인들이 남긴 자료들에 실린 건국신화는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동부여가 추모왕의 속민이었다는 것은 동부여가 원래 주몽이 출자했던 북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집단이었다는데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북부여와 동부여 모두 현재, 즉 광개토왕 당대에는 고구려의 지배권 아래 있다는 점도 바탕에 두었을 것으로 본다.

즉 이 구절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몽과 동부여가 관련이 있었다는 것에 근거를 둔 분식이자 과장이었으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동부여가 추모왕의 속민이었다고 한 광개토왕비문의 구절이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구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백제가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는 한 군현이 존재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직접 부딪히게 되는 것은 4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였다. 두 나라는 대방계를 두고 경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호적이지 못했다. 두 나라의 충돌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고구려가 백제에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성에서 백제군을 맞이하여 싸우던 고국원왕(331~371)이 전사한 것은 이런 형세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역전되었다. 丙申年인 396년(광개토왕 6년, 아신왕 5년)에 한강을 건너 백제의 아신왕(392~405)을 끌어내 항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백제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광개토왕비는 잘 보여준다. 그러나 비문에 쓰여 있는 것처럼 391년 이전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을 계속했다고 하는 기록은 현재 전하는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기사도 분명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완전한 허구였던 것 같지는 않다. 『삼국사기』 백

제본기에도 나오듯 백제의 건국 세력 속에는 온조집단과 비류집단처럼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백제가 오래 전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 역시 백제를 속민으로 두려고 내세운 고구려의 명분에 지나지 않지만,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동부여 및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광개토왕비문의 기재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장된 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실제적인 면이 더 강했다.

고구려와 신라가 최초로 접촉한 때는 助賁尼師今(230~247) 16년(245) 10월이었다.[9] 이 해에 魏가 고구려를 침공해 수도를 유린하자 東川王(227~248)은 옥저 방면으로 피신했다. 아마도 이때 일부 고구려군이 남쪽으로 달아나게 되면서 신라군과 무력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10] 이로부터 3년 뒤 신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했다.[11]

그러나 이후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한동안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고구려는 魏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漢郡縣 축출과 요동지역으로의 진출에 힘을 집중했고, 신라는 진한연맹체를 통합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어 두 나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 같다.

9)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16년(245) 10월조와 같은 책,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19년(245) 10월조.
10) 노태돈, 1997,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고구려관계 기사검토」, 『慶州史學』 16, 75쪽.
11)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2 沾解尼師今 2년(248) 2월조와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2년(248) 2월조.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는 4세기 중엽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경주 월성로 가-5호분[12]에서 나온 고구려계 토기가 그런 상황을 반영해준다.[13] 이때의 두 나라의 교류도 신라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의 국제적인 고립을 타개하고 북방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섰던 것이다.[14] 신라는 이후 377년[15]과 382년[16]에 고구려의 도움으로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對中國通交의 길도 열게 되었다.

이런 관계는 광개토왕비 경자년조에 보이듯 신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구려 군 5만이 파견되어 신라에 들어와 있던 왜와 가야군을 축출해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에 일방적으로 인질을 보내야했다.[17] 그리고 왕위계승을 비롯한 국내정치에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도 했다.

즉 391년 이전에 이미 신라는 고구려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

12) 李熙濬, 1996,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墓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鎭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과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硏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7쪽.

13) 월성로 가-5호분에서는 황녹색 빛의 유약을 발라 구운 고구려계 小壺 한 점이 나왔다(國立慶州博物館外,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68쪽 도면27-①, 69쪽의 설명 및 朴永福, 2001, 「新羅古墳變遷史」, 『新羅黃金』(특별전도록, 국립경주박물관), 300쪽 참조.

14) 전덕재, 2000, 「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역사와 현실』 36, 80~85쪽.

15) 『資治通鑑』 권104 東晋 武帝 太元 2년조.

16) 『太平御覽』 권781 四夷部 東夷2 新羅條.

17)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奈勿王 37년(392) 정월조, 奈勿王 46년(401) 7월조, 實聖尼師今 11년(412)조, 訥祇麻立干 2년(418) 정월조, 같은 책 권18 고구려본기6 故國壤王 9년조.

티고 두 나라의 관계는 처음부터 수평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다지 무리하다고는 할 수 없는 관계였다.

그런데 4세기 후반 경에 고구려가 자국의 속민이라고 인식한 정치세력이 동부여와 백제, 그리고 신라 외에는 없었을까? 속민들이 부담했던 의무는 고구려에 대한 '조공'이었다. 속민의 의무인 조공이란 면을 주목하면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또 다른 대상도 속민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八年戊戌 教遣偏師 觀帛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영락 8년에 광개토왕은 한 부대의 군대를 보내 식신토곡을 돌아보게 하고, 莫□羅城과 加太羅谷의 男女 3백여 명을 초득해 왔는데, 이로부터 이래로 조공논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나오는 식신에 대해서는 이를 동예로 보는 설과 숙신으로 보는 설로 나눠져 있지만, 필자는 동만주 일대에 퍼져 살던 숙신계 종족 일부라고 본다.

그런데 비문에 의하면 영락 8년 이후 식신이 조공논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속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숙신은 속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표현의 누락일 뿐 고구려와 숙신은 속민관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숙신과 고구려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4세기 후반 당시 연변지역의 북방인 지금의 鏡泊湖 부근, 寧安과 그 인근의 牧丹市 유역과 黑龍江 유역, 그리고 沿海州 일대 등에는 후대에 靺鞨로 불리게 되는 숙신계 종족이 살았다. 숙신계 집단 가운데 3~5세기경 고구려

와 접촉한 세력들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1)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中略) 自漢以來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挹婁條)

다-2)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 南北皆同 與挹婁接 挹婁喜乘船寇鈔 北沃沮畏之 夏月恒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冰厚船道不通 乃下居村落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다-3) (正始六年復征之 宮遂奔買溝 儉遣之玄菟太守王頎追之 過沃沮千有餘里 至肅愼氏南界(『三國志』권19 毌丘儉傳)

다-4) 肅愼來侵 屠害邊民 (中略) 王於是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三國史記』권17高句麗本紀 西川王 11년 10월조)

다-5) 八年戊戌 教諭扁將 觀見肅慎土谷 因更收得莫口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朝貢論事(廣開土王碑)

먼저 위의 사료 다-1), 다-2), 다-3)은 모두 읍루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는 동일한 실체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다. 즉 다-3)에서 王頎가 동천왕을 좇아 그 南界에 이르렀다고 하는 '肅愼氏'와 다-2)에서 북옥저와 거주지역이 맞닿아 있었다고 하는 挹婁는 동일한 집단이다. 같은 사서에서도 읍루와 숙신이란 종족 명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1)에 보이듯이 읍루는 漢代 이래 부여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租賦를 너무 과중하게 부과하는데 불만을 품고 黃初 年間(220~226)에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부여에서 여러 차례 응징했다고 한다.

부여에 예속되어 있었고 북옥저와 남으로 경계가 접해 있어 배를 타고 자주 노략질하러 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읍루의 거주지역은 길림지역과

가까우면서 바다와도 인접한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읍루가 지금의 寧安市와 牧丹江市 주변으로부터 沿海州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다.[18]

동천왕이 왕기의 추적을 피해 그 경역으로 피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3세기 중엽 경에도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곳은 고구려가 북부여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다.

다음으로 다-4)에 나오는 숙신족은 고구려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邊方의 民들을 괴롭혔다고 하므로 3세기 당시 고구려의 영역범위로 보건대 송화강 유역과 연변의 북방 지역 등을 그들의 거주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의 남부 지역으로 이들을 옮겼다고 하는 점과, 5세기 이후 고구려와 국경분쟁을 벌였던 勿吉과 6~7세기 대에 활약했던 粟末靺鞨 등이 고구려와 관계를 시작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松花江 유역 근처에 있던 숙신계 집단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이들에 대한 정복은 고구려가 북부여지역으로 진출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숙신족을 부여의 남변 근처로 옮긴 것은 본거지에서 유리시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나, 이들을 부여의 남쪽에 이식함으로써 부여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다-5)의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숙신은 그럼 어느 곳에 거주했던 종족일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비

18) 傅朗云·楊暘, 1983, 『東北民族史略』(吉林人民出版社), 54~57쪽.

문의 내용과 4세기 후반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거주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비문에 의하면 숙신지역에 대한 원정은 광개토왕의 親征이 아니라 偏師를 보내 수행케 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 뒤 여러 지역을 병합하고 포로나 노획물을 다량으로 획득했던 다른 정치세력과의 전투 때와 달리 숙신족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 숙신 지역〔肅愼土谷〕을 돌아보게〔觀〕한 뒤, 莫二羅城과 加太羅谷의 남녀 300여명을 抄得하여 돌아오는데 그쳤다. 비중있고 대규모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영토로 편입한 것도 아니었다. 稗麗를 공격했을 때처럼 노획물을 대량으로 거둬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숙신은 398년 이 해에 처음으로 정복한 세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전부터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던 세력집단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탈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규모의 부대를 보내 응징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비문에 보이는 '觀'字에 주목하여 이는 觀察使, 觀覘 등의 '觀'과 같은 의미로서, 이 해의 원정이 이미 국내의 일부로 간주될만한 반복속 상태에 있던 숙신에 대하여 그 관계를 강화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본 견해[19]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4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된 고구려의 동북 장성의 이북 지역에 살던 숙신, 즉 지금의 寧安市 부근에 거주하던 숙신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들은 곧 위의 사료 다-1), 2), 3)에 나오는 읍루, 숙신과 관련이 있는 존재들이다. 즉 이 종족의 여러 부족 가운데 영안시 부근

19)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再論」, 『金載元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538쪽.

에 있던 집단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부여지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었을 것이다.[20]

요컨대 고구려는 이전부터 영향권 아래 들어와 있던 숙신과의 관계를 398년에 이르러 재정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이래로 조공논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 恒例化되고 강화된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이들도 이제 고구려의 속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조공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동부여, 백제, 신라 모두 속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공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광개토왕으로부터 응징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곧 속민과 조공이 고구려가 독립을 유지하는 타정치 세력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면서 관계를 맺을 때 함께 적용하는 의례, 또는 규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이후로 조공논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숙신도 이 해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속민으로 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4세기말 5세기 초 고구려에서 자국의 속민으로 간주했던 세력은 동부여와 백제, 신라, 숙신 등이었다. 이들은 대왕국토에 사는 고구려의 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외곽에 존재하는 세력으로서 고구려왕의 천하 아래 들어 있고, 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할 세력들이었다. 속민은 고구려왕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존재들이었다.

이들과 달리 稗麗와 倭, 임나가라, 안라 등은 고구려의 속민이 아니었다. 광개토왕 대 고구려와 잦은 충돌을 빚었던 후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고

20) 이에 대해서는 拙稿, 1992, 앞의 논문 및 2008, 「6~7세기 고구려 역사에서의 말갈 연구」, 『강좌 한국고대사』10-고대사연구의 변경(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구려왕의 천하에 들어 있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Ⅲ. 3세기 대 집단예민과 4세기 말 5세기 초 속민의 차이

3세기 중엽의 상황을 보여주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라-1) 國人有氣力習鬪戰 沃沮東濊皆屬焉(『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
> 라-2) 國小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賦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위의 책, 東沃沮條)

위의 기사 라-1)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기력이 있어 전투에 능했기에 옥저와 동예가 모두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라-2)에는 고구려에 신속해있던 동옥저가 고구려에 내어했던 조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다. 옥저와에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고구려에 신속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방식은 어떠했는지 정리해보겠다.[20]

동옥저와 동예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과정에 대해서는 『三國史記』고구려 본기에 비교적 소상하게 나온다. 먼저 옥저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고구려는 서변과 북변의 두 방향에서 동옥저를 압박해 들어갔다.

---

21) 동옥저와 예에 대한 정복과정과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拙稿, 1996,「高句麗 地方統治體制 硏究(慶北大 博士學位論文), 50~65쪽 참조.

마-1)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毋虜掠但以其地爲郡縣(大武神王 9年10月條)

마-2) 句茶國王 聞蓋馬滅 懼書及己擧國來降 由是拓地浸廣(위의 왕, 9年 12月條)

마-3) 王子好童 遊於沃沮 樂浪王崔理 出行因見之 問曰 觀君顔色 非常人 豈非北國神王之子乎 中略 好童勸王 襲樂浪 崔理以鼓角不鳴 不備 我兵掩至城下 然後知鼓角皆破 遂殺女子 出降(위의 왕, 15年 4月條)

마-4)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 南至薩水(太祖王 4年 7月條)

마-1)에 나오는 蓋馬國은 명칭의 유사성에서 볼 때, 개마고원 부근에 있던 소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구다국은 그 인근에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 두 나라는 계루부가 자체의 병력만으로 정복한 곳이었다. 개마고원은 낭림산맥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桓仁에서 集安으로 와 압록강을 건넌 후 江界로 내려온 다음 雪寒嶺을 넘어 咸興으로 가는 고대 교통로 상에 있었다.[22]

『三國志』에는 동옥저가 고구려의 개마대산 동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3] 이때의 蓋馬大山에 대해서는 白頭山이라 보는 설[24]과 狼林山脈이라 보

22) 고구려의 王都로부터 咸興까지는 압록강의 東岸에서 건너 禿魯江을 따라 江界에 이르러 禿魯江의 지류인 南川계곡을 東으로 거슬러 올라가 牙得嶺을 넘든가, 혹은 江界에서 禿魯江의 本流를 따라 雪寒嶺 부근에서 嶺을 넘어 長津江 유역으로 나와 함흥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있었다고 한다(和田清, 「玄菟郡考」, 『東方學』第1輯; 『東亞史研究』, 滿州篇; 日野開三郎, 1988, 「沃沮考」, 『東北アジア民族史(上)』東洋史學論集第14卷, 136쪽).

23)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24) 星湖 李瀷, 順菴 安鼎福과 茶山 丁若鏞 등이 이 설을 주창했는데, 오늘날 북한과 중

는 설[25]이 있다. 동옥저의 중심지가 咸興이었으므로 그 동쪽에 있었다면 백두산보다는 개마고원 또는 낭림산맥에 있는 어느 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구려로서는 蓋馬國과 句茶國을 병합함으로써 동옥저의 서쪽 방면에 하나의 전진기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전진기지는 개마국과 구다국을 발판으로 삼아 획득한 崔理의 樂浪國이 바로 그것이다. 대무신왕 15년(32)에 항복한 好童王子와 樂浪公主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긴 설화적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낙랑국은 호동왕자가 옥저로 놀러갔다가 그 왕인 최리를 만났다고 하므로[26] 漢代縣邑으로서의 낙랑은 아니었다.

당시는 樂浪郡의 東部都尉를 철폐하고 각 소국을 侯國으로 삼아 羈縻統治를 하던 때였으므로 최리의 낙랑국도 그런 소국 가운데 하나였을 것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옥저의 동변은 바다이고 북변은 이미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북옥저와 맞닿아 있었다. 또 남변에는 濊가 있었으므로 그 서변의 어느 곳에 낙랑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마국과 구다국을 병합한 다음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최리의 낙랑국을 복속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동옥저는 북변과 서변 양쪽에서 고구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었

국의 학자들이 상당수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鈗禹, 1995, 「蓋馬大山과 單單大嶺에 관한 고찰-沃沮의 위치 문제를 중심으로-」, 『民族文化』18, 154~169쪽 참조.

25) 蠅溪 柳馨遠과 古山子 金正浩. 그리고 李丙燾가 이 설의 대표적인 논자들인데, 김윤우도 이 설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金鈗禹, 위의 논문, 169~184쪽 참조.

26) 『三國史記』권14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5年 4月條.

는데, 그 남쪽에는 또 동예의 소국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옥저는 자체의 지역적 기반이 양호했고, 또 일찍부터 한군현과의 교류도 빈번했다.[27]

비교적 문화수준도 높고 강대한 정치세력이었다. 따라서 계루부 단독의 병력만으로 일거에 정복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주변세력의 정복 등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준비를 마친 태조왕 대에 이르러 계루부의 병력 뿐 아니라 다른 나부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공격한 후에야 비로소 항복시킬 수 있었다.

이곳은 해산물과 농업 생산물 등이 풍부했으므로 물산이 부족한 고구려로서는 국력 비축을 위해 대단히 긴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곳으로의 진출을 위해 공을 들일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옥저는 濊로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복속시켜야 할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지역이었다.

濊는 동옥저와 함경남도 永興 界線에서 서로 접경하고 있었다. 이 정치세력은 『三國志』에 濊傳이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濊 또는 東濊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濊貊이라고도 표현되는 곳[28]도 있듯이 종족 구성도 단일하지는 않았으며 濊族과 貊族이 각각 부락별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29]

---

27) 평양과 함흥과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寧遠을 거쳐 이 강의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향해 劍山領의 峙를 넘는 교통로가 있다. 이 寧遠郡 溫和面 溫陽里에서 明刀錢 및 方足布가 출토되었는데 日野開三郎은 이것이 先秦시대부터 중국인이 이 길을 따라 진출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았다(1988, 「沃沮考」, 앞의 책, 133쪽).

28)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東沃沮……南與濊貊接」.

29) 이에 따라 漢과 高句麗에서는 이들을 종족별로 또는 읍락별로 분리, 조정하는 기미

바-1) 漢末更屬句麗(中略)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詣闕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四時詣闕賀正 二郡有軍征 賦調與協 供給如民(『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濊條)

바-2) 國人有氣力習鬪戰 沃沮東濊皆屬焉(위의 책, 高句麗條)

바-3) 正始7年(246) 2月 幽州刺史毌丘儉討高句麗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各率種落(위의 책, 권4 齊王芳紀)

고구려는 태조왕(53-146) 대에 濊 지역으로 진출했다(바-1)). 고구려에 정복될 당시 濊는 漢의 羈縻政策에 따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후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嶺東 7縣 가운데 옥저를 제외한 東暆, 不而(耐), 蚕台, 華麗, 邪頭昧, 前莫 등의 6縣이 濊 가운데 가장 유력세력이었다. 고구려가 이 6현을 모두 병합한 것은 118년을 전후한 시기라 보는 설이 있다.[30] 그러나 濊 세력은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定平 이남의 함경남도 지역을 위시하여 황해도의 동부 지역과 강원도 지역 전체 및 "晉率善穢佰長"이란 銅印이 출토된 迎日郡[31]에 이르기까지의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漢末에 이미 이 지역 전체를 정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濊의 거주지 가운데 동해안의 북부 지역 일대만을 거점 식으로 점령해

정책을 썼던 것 같다.

30) 日野開三郎은 『後漢書』 卷115 東夷 列傳 高句麗傳 元初 5년(118)의 「復與濊貊寇玄菟 攻華麗城」란 기사에 의거하여 그렇게 보았다(1988, 「東濊考」, 앞의 책, 143쪽).

31) 武田幸男은 이 부근에 3~4세기경에 西晉으로부터 '率善佰長'이란 稱號를 받았던 渠帥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72쪽).

에속시켰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그 하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6현 가운데 東部都尉의 治所인 不耐濊에 대해서는 德源, 安邊, 永興 등 諸說이 있고, 邪頭昧는 강원도 삼척 부근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廣開土王碑文에는 安邊으로 비정되는 碑利城에서 차출한 수묘인을 '舊民'이라 부르고 있다. 이 舊民들은 광개토왕 이전에 복속했던 지역의 주민이었다.[32] 수묘인 출자지의 위치 가운데 현재 위치비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본다면 동북 방면에서 安邊 이남의 지역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개토왕 이전까지 동북방 영역의 界線은 이 부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2세기에 고구려가예속시킨 지역도 이 선 이하로는 내려오지 못했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요컨대 東沃沮와 濊 지역의 정복은 생산물 수탈과 교역권 확보 등 경제적인 면과 주변 정치체에 대한 경계를 위한 후방기지 확보[33]라는 군사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했으며 이후 고구려의 부강과 세력 팽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옥저와 예는 245년 관구검의 침략 이후 고구려의 예속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34] 하지만 곧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가 중국 군현에 대

32) 拙稿,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硏究』 65.

33) 『三國史記』 권2 新羅本紀 助賁尼師今 16年 10月(245條)의 다음 기사는 고구려가 직접 신라를 침공한 것은 아니지만 濊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감에 따라 신라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인다(「高句麗侵北邊 于老將兵出擊之 不克退保馬頭柵 其夜苦寒 于老勞士卒 躬撫榮撫之 羣心感激」).

34)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濊條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詣闕貢 詔更 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 賦調 供給如民」.

해 투쟁을 지속한 결과 서천왕 대인 3세기말에는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동옥저와 예는 3세기 대 고구려에 예속된 복속민, 즉 집단예민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 바) 國小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賦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위의 기사는 집단예민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소위 복속민의 공납 내용과 고구려의 통치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사에 대한 해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35]

35) 이 기사에서 "又使大加統責其租賦……"란 부분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대가로 하여금 조세수취를 책임지게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使相主領"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구려에서 옥저의 大人 즉 재지지배층을 고구려의 使者로 삼아 반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가게 하는 간접적인 집단지배책을 썼다고 보는 설, 둘째, 고구려의 대인을 옥저에 파견해 지배했다고 보는 설, 셋째, 옥저의 大人을 使者로 삼되 相國相이나 相加으로 하여금 통치케 했다고 보는 설이 그것이다. 이 중 첫번째 설의 논자로는 武田幸男(1967, 앞의 논문, 19~20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金基興(1991,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71쪽), 하일식(1991,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12·13合, 17쪽), 趙法鍾(1994, 「한국고대신분제연구」, 『國史館論叢』52, 137쪽) 등 상당수의 학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또 두번째 설의 논자로는 日野開三郎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동옥저에 대한 정복이 나부체제기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국왕의 직속군 뿐 아니라 각 나부 대가들의 병력도 동원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동옥저 자체가 독자적인 운동성을 가진 다수 읍락의 결합체였으며, 그때 다른 읍락에 대한 국읍의 지배권이 고구려나 부여만큼 강화되지 못한 상태였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기사를 해석한다면 동옥저에 대한 지배방식을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옥저의 재지지배층인 大人을 고구려의 사자로 삼았는데, "使相主領"했다는 것으로 보아 다수를 설정하여 서로 견제하면서 옥저민을 통치하도록 以夷制夷策을 구사한 것 같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취는 대가들에게 맡겨 租賦와 貊布, 魚鹽을 비롯한 海中食物 등을 옥저민이 져 나르게 했다.

이때 '대가'가 공납물 수취를 책임졌다고 하는 점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三國志』東夷傳에 나오는 용법에 의하면 '대가'는 스스로 관인조직을 보유하고 일정 지역을 반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였다.[36] 대외전쟁 시에는 大加와 主簿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37]

그는 고구려의 大人을 옥저 땅에 파견해 使者, 使相이란 職名을 가지고 主領에 한 것(1988, 앞의 책, 145쪽)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세번째 설의 論者로는 徐毅植(1990,「新羅中古期 六部의 賦役動員과 地方支配」,『韓國史論』23, 127~128쪽)과 金羨泉(1996, 앞의 논문, 50쪽 註154))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설에 따라 재지세력을 使者로 삼아 그를 통해 간접지배를 한 것으로 보았다(拙稿, 1992,「高句麗의 鞘羯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韓國古代史研究』6, 210쪽).

36)『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諸大加亦自置使者皁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皂衣先人同列.

이는 肅愼部의 長인 大加와 국왕의 직속 官人인 主簿가 각각 병사를 이끌고 공동 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서 租賦의 수취를 책임진 大加는 계루부의 대가일 수도 있고, 다른 나부의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공납물들이 고구려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가들에게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동옥저로부터 공납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곧 동옥저를 정복할 때 그들도 자신의 병력을 거느리고 출정한 결과 그 전리품의 일종으로 수취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대가는 계루부와 다른 4나부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기사를 동옥저의 여러 읍락 가운데 어떤 읍락은 계루부에, 어떤 읍락은 연나부, 비류부, 관나부, 환나부 등의 나부에 각각 공납을 바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동옥저에 대한 전체적인 통치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했겠지만, 개별 읍락에서의 공납물 수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그 지역을 할당받은 각 나부의 대가에게 전적으로 주어졌다고 보아야겠다. 따라서 이 당시 복속민 지역에 대한 지배는 행정적인 측면의 통치 체계와 경제적인 면의 수취 체계가 분리된 분권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38]

동옥저에 대한 이러한 지배방식을 통해 肅愼部의 권력의 성격, 기본적인 정치운영원리, 그리고 國王과 大加 兩者의 역학관계 등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동옥저가 漢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바로 고구려에 예속되었고, 또 毌

37) 『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韓山賊破之」, 「景初二年 太尉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雛數千人助軍」.
38) 徐毅植, 1990, 앞의 논문, 127~128쪽.

丘儉의 침략을 받은 후 고구려의 지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으면서도 끝내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고구려에 편입되게 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漢이나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할 때 읍락별, 종족별로 분리하여 통치[39]했으므로 그 여파로 독립 후에도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지배방식과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濊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계루부를 비롯한 여러 나부에 각각 예속된 복속민 집단이 있었

39) 東沃沮와 濊 지역에는 沃沮族과 濊族의 단일 종족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족이 혼재해있었으며 종족별로 읍락을 달리하여 살았다. 이는 부여와 고구려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濊族, 貊族 그리고 이 두 종족이 거의 완전히 융합된 성격의 濊貊族 등이 혼재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濊族의 서남부나 동남부 지역 일대에는 韓族들도 거주했을 것이다.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에 沃沮가 남쪽으로는 濊貊과 접해 있었다고 나오며, 「廣開土王碑文」에 '新來韓濊'란 표현이 나온다. 이로 보아 『삼국지』에는 옥저, 예 등으로 대표적 종족명을 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족별로 독립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있거나 거주지역의 경계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종족이 부락별로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종족별, 정치세력별로 자급자족의 공동체적 읍락 생활을 영위했다.(「其俗重山川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濊條), '責禍'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풍속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其邑落相侵犯輒相責讓生口牛馬 名之爲責禍」(濊傳). 그런데 沃沮와 濊를 복속한 강대 세력들은 이런 지역적 상황을 이용하여 개별 읍락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이 서로 통합하여 세력을 강화시킬 수 없게 지배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 같다. 「漢光武六年 省邊郡諸縣 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邑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 諸曹皆濊民作之」(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詣闕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闕賜謁二郡有軍征 賦調供給復與民同」(같은 책, 濊條) 이란 기사들을 통해 그런 면들을 엿볼 수 있다.

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3세기 중엽 무렵까지는 어떤 나부에 속해 있는 복속민이건 그 내부의 지배는 기존의 재지지배층이 여전히 담당하고, 그 위에 고구려의 통치권이 설정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집단적이고 간접적인 통치가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집단성을 해체하지 않고 또 각 공동체의 자체 운동성을 해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배권 설정이었던 것이다.

즉 3세기말까지 복속민은 기존공동체를 온존한 위에서 고구려 중앙정부로부터 집단적으로 간접통치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을 집단예민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은 고구려에 조부를 바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내의 민들이 내는 조세라기보다는 공납물에 더 가깝다. 이들의 처지도 고구려의 일반민이라기보다는 노복적인 면을 지녔다. 따라서 3세기까지의 동옥저, 예에 대한 지배형태를 집단예민-공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3세기 중엽 고구려에 예속되어 공납을 바쳤던 동옥저, 동예민과 광개토왕 대에 존재했던 속민은 그 성격이 서로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정리해보기로 하자. 먼저 고구려와의 관계가 설정된 배경을 보면, 동옥저와 동예 모두 군사력에 굴복하여 고구려에 공납을 바치게 되었다. 이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속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옛날부터, 또는 추모왕대라고 그 관계의 연원을 밝히고 있지만, 관계가 설정되고 유지되게 한 가장 결정적인 기반은 고구려의 군사력이었다.

다음으로 고구려에 대한 의무 면을 살펴보자. 동옥저 등은 고구려에 租賦와 貊布와 魚鹽을 비롯한 海中食物, 그리고 美女를 바쳤다. 4~5세기의 속민들이 고구려에 바친 것은 조공이었다. 미녀를 바쳤는데 이들을 노복과 같이 대우했다는 것에서 국내 민들이 부담하던 조부와 성격차이가 있지만, 일단 '租賦'라고 표현된 이상 속민이 바친 조공과는 성격이 달랐다고 보아야 한다. 조부라고 한 것은 조세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3세기의 집단예민과 4세기의 속민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성격상 차이가 있었다. 양자의 차이는 시기에 따른 고구려의 통치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물품을 받는 상대가 3세기 대에는 계루부 왕실과 다른 나부의 대가 등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4세기 이후에는 모두 중앙 정부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었다.[40] 이는 곧 3세기말까지는 나부통치체제기였고 4세기 이후에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통치체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반면 동옥저, 동예가 고구려에 속해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고구려에 납부하는 물품을 조부라고 한 것과, 동부여, 신라 등을 속민이라 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조공이라 한 것은 고구려와의 관계가 기본 성격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옥저, 동예 등은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공물을 바치던 존재로서 그 처지가 노복과도 같았다. 동옥저와 예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구려 중앙정부에서는 이들을 부락별, 집단별로 분리 통치했다.

이에 반해 동부여, 백제, 신라 등은 비록 노객이라 칭하기도 했지만, 국왕이 존재하는 가운데 독립 국가를 유지하면서 고구려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의례에 맞게 조공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3세기 때의 집단예민은 속민보다는 예속성이 더 강했고 경제적 부담도 더 많이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0) 여호규, 1997,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Ⅳ. 고구려 속민-조공제의 특징

4세기말 5세기 초에 고구려가 동부여, 백제, 신라, 숙신에 대해 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했음을 광개토왕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의 조공 제도는 그 개념과 내용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본 떴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중국 조공제의 외피만 빌려왔을 뿐이다. 고구려의 속민-조공제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 나름의 해석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한 자국의 논리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조공제는 周나라 때 제후가 정기적으로 方物을 휴대하고 직접 천자를 배알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고 君臣之義를 밝혔던 가장 기본적인 臣禮行爲였다. 이 제도는 뒤에 漢族 중심의 中華思想을 기조로 하여 주변 이민족을 위무, 포섭하는 외교 정책으로 되었다. 그리고 漢代 이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대외 정책상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원할 경우 모두 조빙공헌과 하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공의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때 중국에서는 타국의 왕에게 작위를 내려주는 절차를 함께 행하는 것을 국제 관계상의 규범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를 묶어 조공-책봉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이 구상하는 조공-책봉제가 원래의 내용 그대로 시행된 것은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되었을 뿐이다. 중국과 주변국가의 내부 상황에 따라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또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도 중국 측의 의도와 주변국의 인식상에 큰 괴리가 있을 때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의 외연만 보고 이를 종주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보거나, 직접적인 지배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비역사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 맺어졌던 조공 관계도 명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시종일관 지속되지는 않았다. 대무신왕(18~44) 15년(32년)에 후한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니 후한의 광무제가 그 이전 王莽이 '下句麗'로 卑稱했던 국호를 회복해주었다는 내용이 『三國史記』에도 실려 있다.[41] 고구려에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중국에 조공을 했던 것이다. 또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고구려조에는 幘溝漊를 통해 朝服衣幘을 인수해왔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조공과 함께 중국의 관복을 하사받는 절차도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작까지 받는 정식 책봉은 고국원왕(331~371) 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355년 前燕으로부터 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의 관작을 받은 것이 그 첫 예였다.[42] 하지만 이때는 전연이 침입하여 수도를 도륙한 뒤 미천왕(300~331)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싣고 가고, 王母인 周氏를 인질로 잡아가는 사태가 발생한 시기였다. 355년 당시까지 왕모가 연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고구려로서는 연의 관작수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전연에 조공한 것은 단1회에 그쳤다.

이후 광개토왕이 後燕으로부터 '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장수왕도 즉위한 413년에 동진에 조공하고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郡公'에 봉해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광개토왕 대에 고구려는 후연과 수차에 걸쳐 전쟁을 치른 끝에 결국 후연세력을 요하 서쪽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다.[43] 장수왕 대에는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조와 북조의 왕조에 모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

41) 『三國史記』권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년 12월.
42) 『三國史記』권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25년 12월.
43) 拙稿, 1996, 앞의 논문, 87쪽.

제적인 사안에서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등 이른 바 자주적인 등거리외교를 했다.[44]

이 시기 중국에 대한 고구려의 조공내용을 보면, 조공, 回賜, 封典, 稱臣, 年號와 曆의 채용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천손임을 자칭하고 太王을 칭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장수왕 대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가 우리나라 외교사상 가장 자주적인 외교를 한 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에 대한 조공이 가장 정례적으로 행해졌고, 그 횟수도 대단히 빈번했다. 매우 역설적이게도 조공제가 궤도에 올라선 시기가 바로 장수왕 대라고 한다.[45] 이렇게 보면 결국 중국이 요구하고 구상하는 조공제가 상대국들에게 내용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고구려 역시 이 제도를 중국 측 의지와는 달리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한편 고구려에서는 중국 조공제의 외피만을 받아들이되 그 내용과 성격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자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에 적용했다.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속민-조공제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조공이란 용어를 빌어 쓰면서도 그 내용상에서는 중국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고구려식 조공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4)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政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45) 임기환, 2003,「남북조기 한중 책봉, 조공 관계의 성격 -고구려, 백제의 책봉, 조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2(서경문화사).

이는 고구려 자체가 이 시기까지는 중국의 조공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중국식 조공제의 내용을 알면서도 자국 나름대로 설정한 조공제를 실시하려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주변세력을 거느리게 된 이래 그 세력들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설정하여 실시해왔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고구려의 국가적 발전에 발맞추어 발전했다. 즉 국가 내부의 각 집단도 중앙 정부에서 모두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수장 층을 통해 간접 통치하던 3세기까지는 복속민 집단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의 질서를 온존시킨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간접통치하는 집단예민-공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국가 내부를 직접 통치체제로 정비하게 되면서는 일부 특수한 집단을 제외하고는 왕명을 대신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개별지배, 직접지배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국외에 존재하되 동류의식을 가진 대상으로서 고구려왕의 천하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자국의 속민으로 삼았다. 그들로 하여금 고구려왕의 권위에 순응하는 표시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속민-조공제를 실시했던 것이다.

이때 고구려의 속민이 될 대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라, 백제, 동부여, 숙신이었다. 이들 속민은 고구려와의 관계의 지속성과관계 정립의 시기, 그리고 그 계기 등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속민은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는 타국보다 예속성이 좀 더 강했다. 속민은 자타공인 奴客이었다.

광개토왕비에는 노객이란 단어가 두 차례 등장한다. 광개토왕에게 끌려나와 항복했던 백제의 阿莘王이 앞으로 영구히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한 부분과 신라의 奈勿王이 국내에 침입한 왜를 물리쳐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객

을 자칭한 부분이 그것이다. 노객이란 표현은 광개토왕 서거 당시에 北扶余守使로 파견되어 있던 고구려의 중견귀족 牟頭婁의 墓誌에도 나온다.

즉 노객은 절정에 달한 고구려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국내의 귀족이 자칭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엄연히 독립적인 타국의 왕에게 노객을 칭하도록 강요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면 이는 중국의 조공제에서 보이는 군신관계, 부자관계보다는 예속성이 좀 더 강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와의 관계가 더 수직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중국과 달리 자국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조공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자국의 인근에 존재하며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한 집단 외에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제하는 입장이었다. 거란, 후연, 왜는 타파, 또는 공파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속민으로 삼을 대상은 아니었다.[46] 그러나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속민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몇 번이나 도발을 감행한 백제는 집요하게 속민으로 두려고 했다. 고구려에서는 자국이 정한 원칙, 또는 자국이 구상하는 바에 따라 속민이 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자국이 속민이라고 간주하는 대상의 경우, 고구려가 설정한 속민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또 집요하게 응징을 했다.

고구려에서는 조공논사를 요구했지만 책봉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국의 조공제와 다른 점이다. 현실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속민제가 소멸된 5세기 중후반 이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문자왕(491~519) 대에 건립되었지만 장수왕 대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중원고구려비에는 고구려왕이

46) 서영수, 1988,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정복기사재검토」, 『역사학보』119.

신라 매금과 그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신라왕에게 작위를 내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즉 고구려에서는 시종 중국의 조공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광개토왕비문에 나오는 속민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검토한 내용에 바탕하여 고구려 속민제의 성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기로 하겠다.

고구려의 속민-조공제는 이전 3세기 대까지의 집단예민-공납제와도 다르고 5세기 중후반경 신라와의 관계를 지칭했던 如兄如弟 관계와도 다르며, 중국의 조공제와도 차이가 있었다. 즉 속민-조공제는 4세기부터 5세기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독특한 제도였다.

속민은 고구려왕이 자신의 독자적인 천하를 구축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해줄 대상으로 설정한 존재였다. 이들은 고구려국가의 외연에 존재하되 고구려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서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기를 요구받았다.

속민관계는 지속성이 없었고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는 매우 한시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속민으로 있던 나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면 독립성을 잃고 고구려 영토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었다. 반대로 속민으로 있던 나라가 힘을 키워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었다. 둘 가운데 어느 경우가 되든 고구려와 맺은 속민관계는 해소되게 된다. 동부여의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되었고, 신라와 백제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었다.[47]

즉 속민은 고구려왕의 권위를 빛내주는 보조 장치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내부를 해체하여 고구려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점에서도 고구려의 속민-조공제는 중국의 조공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47) 숙신의 경우에는 그 중간과정이 분명치 않지만 6~7세기의 상황을 통해 보면 집단 내부의 독자적인 운동성은 유지하면서 여전히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 들어있었다. 이것은 숙신이 타세력집단과 존재양상이 다른 특수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義

이성제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高句麗는 長壽王의 치세 50년(462)에 北魏로 사절을 보내었다. 장수왕 27년(439)의 사절 파견[1]이 있은 지 실로 23년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고구려는 9차례에 걸쳐 宋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그 동안 송 일변도의 외교를 추진하였음을 뜻한다. 이 고구려의 對宋外交는 긴장이 고조되던 對北魏 관계에서 고구려가 북위로의 사절 파견을 중지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高句麗의 對宋外交는 北魏와의 대립에서 비

1) 『魏書』 卷4上, 90쪽. "是月(11월) 高麗及粟特國鳥萬陀破洛那悉居半諸國各遣使朝獻"

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북위의 위협에 맞선 西方政策의 흐름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高句麗와 北魏의 대립은 이미 장수왕 24년(436) 北燕을 둘러싼 분쟁에서부터 보여지고 있었다. 북연과 관련된 분쟁을 배경으로 하여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는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위와 대립하던 시기 고구려가 추진한 서방정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對宋外交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위의 세력확대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이 치열한 상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로 하여금 각축의 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 對宋外交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송 일변도 외교를 당시 宋이 추진하고 있던 對北魏包圍戰線과 연결된 것으로 주목하여 왔다.[2] 자연히 북위

2) 여기서의 對宋外交는 물론 장수왕 26년부터 동왕 50년까지 고구려가추진한 송 중심의 외교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아래와 같은 글들이 있다.
江畑武, 1968,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冊封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極東書店); 上田正昭·井上秀雄編, 1974, 『古代の日本と朝鮮』(學生社).
坂元義種, 196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史林』 51-4;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武田幸男, 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徐榮洙a, 1981,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 『東洋學』 11.
徐榮洙b, 1987, 「三國時代 韓·中外交의 展開와 性格」, 『古代韓日關係史의 硏究』
三崎良章a, 1982, 「北魏の對柔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三崎良章b, 1982, 「高句麗の對北魏外交」, 『早稻田大學大學院文化硏究科紀要別冊』 9.
노태돈,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柔關係」, 『東方學志』

에 적대하는 대북위 포위전선의 전략과 연관지워 고구려의 외교를 이해하여 왔다. 하지만 고구려가 對宋外交를 전개한 것은 송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북위의 위협을 막기 위함이었다. 즉 고구려의 대송외교는 당시 고구려·송·북위 사이의 미묘한 대립과 견제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송외교에 대한 검토는 기존의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44; 1999,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盧重國, 1985, 「高句麗對外關係史硏究의 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硏究』(一潮閣).

池培善, 1990, 「北燕에 대하여(III)-馮弘 재위시와 對高句麗관계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32.

孔錫龜, 1998, 「5-6세기 高句麗의 對外關係」, 『高句麗 領域擴張史 硏究』(서경문화사).

金鍾完a, 1995, 『中國南北朝史硏究-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一潮閣).

金鍾完b, 2000,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硏究14-高句麗의 國際關係-』.

金翰奎, 1999, 『한중관계사』 I (아르케).

井上直樹, 2000,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政勢」,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8.

李 烋, 2002, 「高句麗와 北朝의 關係」, 『高句麗硏究14-高句麗의 國際關係-』.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 몇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외교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使行이 宋 위주였다는 점이 거론되었고, 성격은 '反北魏親宋說'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보겠다. 둘째, 고구려의 송에 대한 외교는 당시 宋이 추진하고 있던 北魏包圍網線에 가담하는 행동으로 파악되었다. 북위와 송의 대립관계에서 고구려가 송에 가담하여 북위에 대항(武田幸男, 앞의 글, 223쪽 및 池培善, 앞의 글, 44~45쪽과 井上直樹, 앞의 글, 180쪽)했다거나 송 및 柔然과 직접 관계를 맺고 대북위 연합전선을 형성(노태돈, 앞의 책, 307~316쪽 및 朴漢濟, 앞의 책, 210쪽, 孔錫龜, 앞의 책, 280쪽, 金鍾完b, 앞의 글, 210~211쪽)했던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셋째, 고구려의 송에 대한 외교를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江畑武, 앞의 글,

첫째, 對宋外交의 수립에 근거가 되었을 대외정세에 대한 문제이다. 430년대 말에 이르러 북위가 華北 일대를 석권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세계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맞이하였던 고구려의 대외정책은 그 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長壽王 27년(439)을 親宋外交의 출발점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고구려가 송의 요청에 따라 軍馬를 보내주었다는 사실과, 이 해의 사절을 끝으로 고구려가 대북위 외교를 단절하고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장수왕 27년을 기점으로 고구려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대송외교 중심의 대외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구려가 북위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송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계기는 어떤 것이었으며, 당시 고구려가 인식한 대외정세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을 구

32~44쪽 및 三崎良章의 글a • b; 노태돈, 앞의 책, 296~333쪽; 金鍾完a, 앞의 책, 1~173쪽).

여기에서 먼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다. 고구려의 외교는 당시의 일반적인 외교형식이었던 冊封과 朝貢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이들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책봉 • 조공의 여부와 그 빈도수는 매우 중요한 단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고구려가 對宋外交를 전개한 것은 북위와의 불안한 긴장관계를 배경으로 삼은 것이다. 이 점에서 對宋外交를 살피기 위해서는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고구려와 북위는 사절을 주고받지 않았고, 고구려는 송 위주의 외교를 전개하였다. 즉 사절의 교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시기 고구려의 외교는 송 일변도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고구려가 親宋的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망설여진다. 필자는 송 위주의 외교를 '親宋外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對宋外交'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長壽王 26年(438) 宋의 北燕王 迎入사건을 돌려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3] 달리 말하면 北燕王 사건을 통해 송은 고구려와의 연결 의지를 드러냈으며, 고구려에게 연결의 상대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高句麗의 親宋外交가 宋을 중심으로 한 對北魏 包圍戰線과 연계하였음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4] 고구려와 대북위 포위전선의 연결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고구려의 西方 경계인 遼西 일대는 북위의 東方과 맞닿고 있어 그 위협에 곧바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위와의 외교 단절로 고구려의 서방 일대에는 북위의 적대행위가 벌어질 위험성이 늘 있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북위의 위협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송과 송의 연합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대북위 견제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3) 宋의 北燕王 迎入사건이란, 高句麗로 피신해 있던 北燕王 馮弘을 宋이 맞아들이려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는 고구려와 송, 그리고 북연왕 풍홍이 직접 관련되었고, 이 삼자와의 관계 속에서 북위도 관련이 있었다. 고구려의 대송외교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이 시기의 외교에 대한 이해는 '反北魏親宋'으로 축약될 수 있다. 아마도 북위와 송이 대립하고 있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구려조차도 이 두 강대국의 대결관계의 일각을 이루는 한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태돈만은 연결의 정도로 보아 송과 북위의 대결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노태돈, 앞의 책, 303~333쪽)고 보았다. 송과 북위의 대결에 적극 개입한 국가들과 고구려를 일단 구별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노태돈의 연구는 필자의 논지에 도움을 주었다.

것이다. 먼저 宋의 北燕王 迎入사건을 중심으로 對宋外交의 性格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高句麗가 對宋外交를 추진하게 된 원인이었던 北魏의 對高句麗政策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對宋外交期 高句麗와 北魏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高句麗가 對宋外交로써 어떻게 北魏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對宋外交期 高句麗의 西方政策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長壽王의 北燕王 馮弘 제거와 對宋外交

北魏가 遼西와 지금의 河北省 일부를 영역으로 했던 北燕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차지한 것은 長壽王 24年(436)의 일이었다. 이것은 이제부터 고구려가 북위와 요서 일대를 경계로 마주하게 되었음을 뜻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의 西方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장수왕 23년 무렵에 北燕王 馮弘을 迎入하여 북위의 위협을 저지하려 하였다.[5] 북연왕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악화되어 있었다.[6]

5) 이와 관련하여서는 李成制, 2004. 3,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2005. 1, 『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國學資料院)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 고구려는 冊封·朝貢과 무력시위라는 强柔兩策을 사용하였다.

6) 고구려는 북연왕을 건네 달라는 북위의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에 북위 조정에서는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논의가 열릴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王遣將冦盧孟光 將綠幢萬 隨場尹至和龍 迎燕王. …… 魏主聞之 遣媽端侍拔來 令送燕王. 王遣使入魏 奉表稱當與馮弘 俱奉王化

한편 華北 전체의 석권이 가까워지면서, 북위의 군사행동은 북쪽의 柔然과 남쪽의 宋에게도 전개되기 시작하였다.[7] 이에 따라 북위에 대항하기 위한 柔然과 宋의 움직임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동아시아세계의 국제관계는 北魏와 反北魏 진영의 대결이라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고구려도 이러한 대결관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이 가는 사실이 고구려의 對宋外交이다. 고구려가 宋과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長壽王 11年(424)의 일이었다.[8] 고구려가 사절을 보내 朝貢하였던 것이다. 송에서도 이에 답하는 사절을 보내었다. 그러나 이때의 冊封과 朝貢이 양국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이로부터 14년 뒤인 장수왕 26년(438)부터는 비교적 구체적인 외교의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구려는 점차 북위에 사절을 보내지 않는 대신, 송 일변도의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

魏主以王遣詔 譴擊之. 將發龍右騎卒 劉懿樂平王丕等諫之 乃止."『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24年條.

7)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한 北魏와 宋의 전략에 대해서는 三軍大學編의 1972,『中國歷代戰爭史』第5冊(臺灣, 軍事譯文出版社), 136~157쪽이 참고된다. 이에 따르면 北魏는 우선 北燕과 北凉을 차지하여 華北 전체를 장악한 뒤, 柔然과 宋을 상대할 전략을 세웠다. 반면 송은 內政 문제로 이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북위에 대항하기 위해 유연과 연결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8) 송이 고구려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長壽王 7년(420) 7월의 일이었다. 동년 6월 건국한 송은 건국 37일만에 고구려 장수왕을 책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王朝의 성립을 기념하는 책봉으로서 고구려의 조공을 받고서 책봉한 것은 아니었다(金鍾完, 앞의 책, 118~120쪽). 고구려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송에 조공하였고, 송의 사절도 이때서야 처음 고구려에 이르렀다(『宋書』卷97, 2392쪽). 그 뒤 대송외교를 전개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사절 파견은 장수왕 24년의 단 한차례에 그쳤다(『宋書』卷5, 84쪽).

에서 당시 고구려의 주요 외교상대는 송이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면 고구려가 송 위주의 외교를 전개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다음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에서 보이는 대송외교의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표 1〉 高句麗의 對宋外交 內容

年 代	高句麗 使節의 活動	使行의 目的	비 고
長壽王 26 (438)년	是歲武都王·河南國·高麗國·倭國·扶南國·林邑國·遣使獻方物	宋使의 호송과 처벌 요구	宋, 사절 처벌
長壽王 27	是歲武都王·河南王·林邑國·高麗國·遣使獻方物	軍馬 800필 수송	宋, 北伐위해 軍馬 요구
長壽王 29	是歲肅特國·高麗國·蘇摩黎國·林邑國·遣使獻方物		
長壽王 31	是歲河西國·高麗國·百濟國·倭國·遣使獻方物		長壽王 30년, 北魏軍이 대거 宋을 침공, 柔然은 송과 연결하여 북위를 침입.
長壽王 39 (451)	冬十月癸亥 高麗國遣使獻方物		長壽王 38년, 北魏軍이 대거 宋을 침공, 宋軍의 北伐과 후퇴. 兩軍이 講和.
長壽王 43	(11월) 辛亥 高麗國遣使獻方物	慰國哀再周	
長壽王 46	(10월) 乙未 高麗國遣使獻方物		
長壽王 47 (459)	十一月 己巳 高麗國遣使獻方物 肅愼國重譯獻楛矢石弩		長壽王 41년, 宋 文帝 弑害
長壽王 49	(7월) 丁卯 高麗國遣使獻方物		

먼저 고구려가 長壽王 26年(438)과 27年 사절을 파견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는 송의 사절을 돌려보내기 위해서이고, 장수왕 27년의 사절은 송이 요청한 軍馬를 보내주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것이다.[9] 그렇지만 나머지 사절의 파견은 예외없이 "遣使獻方物"로 기록되고 있어, 당시 외교의 현안이 무엇이었는가를 전혀 알 수 없다. 더욱이 사절을 보

내고 방물을 바친 고구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외교는 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대송외교에 대해 송은 차라리 무관심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반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초반의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송이 사절을 보낸 사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長壽王 31年(443)에서 39年(451)에 걸친 기간은 대규모의 격전이 北魏와 宋, 그리고 柔然 사이에서 벌어졌던 시기였다. 특히 장수왕 38년에 있었던 송과 북위의 대결에서는 북위의 공격은 물론이고, 늘 수세에 몰려있던 송이 北伐에 나서기도 하였다. 송이 북위에 대해 모처럼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송으로서는 북위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고구려가 북위의 東方을 위협해 준다면 송의 공세는 적지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 고구려와의 군사적 유대를 도모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10] 도리어 송과 북위 사이에서 정작 본격적인 대결이 벌어졌던 이 기간동안 고구려의 후원을 필요로 하였을 송은 물론이고, 고구려조차 2차례 사절을 보내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구려가 송에 기우는 외교를 전개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9) 이 사실은 고구려가 북위에 맞서면서 송과 연대하는 '反北魏親宋' 외교의 구체적 증거로 파악되기도 한다(江畑武, 앞의 글, 33쪽 및 金鍾完a, 앞의 책, 84~85쪽, 井上直樹, 앞의 글, 180쪽).

10) 고구려와 송 사이에서 군사적 유대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는 이보다 11년 전인 장수왕 27년(439)의 '군마의 요청'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확정지우기 위해서는, 長壽王 26年(438)과 同王 27年(439) 고구려가 어떤 이유에서 사절을 송에 보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송측으로부터의 使行도 이때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장수왕 27년 고구려는 송의 軍馬 요청을 수락하고 海上을 통해 軍馬 800匹을 보내주었다. 고구려는 陸路가 아닌 海路를 통해, 그것도 800필의 적지 않은 군마를 보냈던 것이다. 이것으로 고구려와 송의 긴밀한 결속, 즉 고구려는 송을 위해 군사적인 협력도 제공했다[11]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송외교를 전개한 고구려의 의도가 송에게 군사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러한 협력이 있었다면 고구려가 송으로부터 제공받으려 했을 것이고, 이것이 북위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도 온당하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았고, 이 점에서 종래의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長壽王 27年의 使行은 바로 전해의 사절 파견에 뒤이은 것이었다. 그리고 장수왕 26년에는 北燕王 馮弘 문제에서 비롯된 고구려와 송의 무력충돌이 있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연거푸 사절을 보낸 것은 앞서의 분쟁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옳다. 즉 양국 사이에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장수왕 26년에 판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와 송 사이에 중요한 현안이 있었고, 그것을 둘러싸고 대립한 적이 있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장수왕 26년의 분쟁은 송이 북연왕의 구원 요청에 따라 그를 영입하기 위해 고구려로 사절을 보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 고구려는 송의 기

11) 주 9)를 참조.

대와는 달리 북연왕을 제거하였고, 송이 고구려 장수를 살해함으로써 양국 사이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그런데 고구려가 북연왕을 제거한 조치는 송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므로 북연왕 풍홍을 둘러싼 고구려와 송의 갈등은 고구려와 송 사이에 있었던 현안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여겨진다.[12]

물론 장수왕 26년의 사건으로써 대략 20여 년 동안 고구려 장수왕이 추진한 對宋外交에서의 양국 관계와 입장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대송외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추진되었고, 그 외교정책의 수립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양국 관계와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아래에 보인 기록은 이 사건을 전해주는 자료로써, 고구려가 대송외교를 전개하기까지의 자세한 사정을 전해준다.

A-a) (元嘉-필자주, 이하 필자주 생략)十五年(438; 長壽王 26年) 復爲索虜所攻 (北燕王 馮弘)敗走 奔高麗(北豊城 表求迎接. b) 太祖遣使王白駒·趙次興迎之 幷令高麗淨埋資遣 c) (高句麗 長壽王 高璉)不欲使弘南 乃遣刺客刺歡·高仇等襲殺之. d) 白駒等到所頓七千餘人掩討歡等 生禽歡 殺高仇等二人. e) 璉以白駒等專殺 遣使執送之 上以遠國 不慾違其意. 白駒等下獄 見原. 璉每歲遣使 (『宋書』 卷97, 中華書局, 2393쪽,

12) 북연왕 풍홍문제를 둘러싸고 고구려가 송과 북위의 대결관계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처음 지적한 이는 武田幸男이었다(武田幸男, 앞의 글, 223쪽). 그에 따르면 고구려는 북연왕을 죽임으로써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때 고구려가 위기의 국면을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장수왕이 북연왕을 제거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하 中華書局 생략)

먼저 A-a)에 따르면 北魏의 공격을 피해 北燕王은 고구려의 北豊城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서 北燕王은 宋에 表를 올려 맞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북연왕의 요청을 받은 송의 대응은 A-b)에 잘 드러나 있다. 宋은 북연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迎入하려 시도하였다. 그리고 송은 북연왕을 맞아들이기 위해 王白駹 등 사절을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아울러 馮弘의 인도와 함께 이들이 송에 오는데 필요한 제반 편의를 보아줄 것을 고구려에게 요구하였다. 송은 북연왕의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송이 북연왕을 영입하겠으니 협조를 당부한다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를 맞이하기 위해 고구려의 경내에까지 사절단을 보내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長壽王은 北燕王을 迎入하겠다는 宋의 요구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A-c)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는 북연왕이 송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북연왕을 맞이하려는 송의 사절이 오자, 도리어 장수왕은 북연왕과 그의 일가를 제거하였다.[13] 나아가 A-d)는 고구려가 북연왕을 제거함에 따라서 고구려와 송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음을 전한다.

고구려는 북연왕을 영입하려던 송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곧바로 사절 王白駒의 지휘를 받은 宋軍의 공격이 이어졌고, 양측은 충돌하였다. 북연왕의 처리를 둘러싸고 고구려와 송은 무력충돌이라는 극단적인 관계로까지 나아

13) 고구려는 북연왕 뿐만 아니라 그 자손 10여 명도 아울러 제거하였다("殺弘于北豊并其子孫十餘人"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6年條).

갔던 것이다.

양국의 대결이 벌어진 뒤의 사정은 A-e)의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태를 수습한 쪽은 고구려였다. 장수왕은 고구려 장수를 죽인 송의 사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사로잡은 송의 사자를 송으로 보냈다. 양국의 분쟁은, 장수왕의 이러한 처리에 힘입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연왕을 영입하려는 송의 의도와는 달리 고구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고구려는 왜 이처럼 송의 북연왕 영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는지 궁금해진다. A-a)의 기록은 고구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르면, 북연왕은 고구려의 영내에 머물고 있었다. 북연왕은 고구려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송의 북연왕 영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를 장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는 어째서 북연왕을 통제아래 두려고 하였을까. 고구려는 영내로 들어온 북연왕을 平郭에서 北豊城으로 옮겨가며 머물도록 하면서 그의 侍人을 빼앗고 太子를 인질로 취하였다.[14] 이러한 조치들에서 고구려가 북연왕의 독자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二十六年春三月初 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馮君 爰離陋僻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豊. 弘素侮我 政刑嚴罰 獨如其國 王乃奪其侍人 取其太子王仁爲質 弘怨之 遣使如宋 上表求迎"

이러한 북연왕에 대한 고구려의 처우을 들어, 이는 고구려가 북위와 충돌을 야기하거나 망명집단을 내세워 북위 방면으로 진출할 의도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池培善, 앞의 글, 42~44쪽 및 노태돈, 앞의 책,

고구려는 북연왕의 독자적 행동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고구려를 피신처로 선택한 북연왕의 의도는 일단 북위의 공격에서 벗어나 장래를 기약하겠다는 것이었다.[15] 그러므로 고구려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북연왕의 復國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북연왕의 움직임은 북위를 자극할 것 또한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고구려는 북연왕의 독자적 행동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는 북연왕을 확보하고서도 그를 내세워 북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즉 고구려는 대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위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북연왕을

301~302쪽). 고구려가 북연왕의 복국을 지원하지 않고 통제하였던 것은 북위가 침공계획을 철회하였고, 적극적인 동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가 북연왕을 영입한 것은 그에게 북위의 세력확대를 막는 억제력의 역할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북위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고구려는 그에 대응하여 북연왕이라는 억제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북연왕을 영입한 당초부터 고구려가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고는 여길 수 없다. 그럴 경우 고구려가 북연왕을 확보한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북연왕과 그의 세력집단을 머물게 한 곳이 平郭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평곽은 요하선 가까이(평곽이 요하 이서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한 바 있었으나, 이를 수정한다)에 자리잡고 있었고 4세기 후반 後燕이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와 대결할 때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慕容農至龍城……進擊高句麗, 復遼東玄菟二郡.……燕王垂以農……鎭龍城, 徙平州刺史帶方王佐鎭平郭" 『資治通鑑』 卷106, 3356쪽). 이 점에서 반대로 고구려가 요서방면에 대해 공세를 취할 때 평곽은 和龍龍城을 겨냥한 위협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고구려가 북연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제거하기에 이른 것은 북위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북연왕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렸던 데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5) 『資治通鑑』 卷122, 3859쪽.

세력아래 두었던 것이다.[16] 이것은 고구려가 북연왕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북위와의 대결은 애써 피하였던 사실로써도 분명하다. 따라서 고구려는 북위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과 관련하여 북연왕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필요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송의 영입 시도를 계기로 북연왕과 그의 일가를 제거하였다.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와 고구려의 북연왕 제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는 좀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고구려와 송, 북연왕 사이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자.

먼저 北燕王은 高句麗의 통제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復國을 바랄 수 없었다. 北燕王 馮弘은 宋에 사람을 보내 영입을 요청하였다. 그의 의도가 송의 지원으로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점에서 북연왕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그의 왕국을 차지한 북위에 적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북연왕이 송에게 도움을 바랐을 뿐만 아니라, 송 또한 그의 영입에 나섰다는 점에서 송과 북위의 관계는 첨예한 대결관계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북연왕의 거취는 고구려와 송 두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위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

16) 高句麗軍의 和龍城 入城과 北燕王 迎入 과정에 대해서는 李成制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李成制, 앞의 책). 高句麗軍의 和龍城(북연 수도) 진출은 당시 이 곳을 공격하고 있던 北魏軍을 당황하게 하였다. 고구려가 북위와 대결하려 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했던 기회였던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북위와 교전하여 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위에게 무력을 과시하고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가 송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송과의 관계 뿐 아니라 북위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즉, 북연왕을 송에 넘겨준다는 것은 송과 북위의 대결 관계에서 고구려가 송 측에 선다는 것을 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면 북연왕의 향배를 둘러싸고 송과 대립한 고구려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고구려는 송측에 서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對北關係도 송이 북위와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지고 있었다. 고구려에게 있어서 송은 북위를 배후에서 위협해 줄 수 있는 세력이었고, 대북위 포위진영의 한 축이었기 때문이었다. 북연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뒤, 고구려는 북위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실제로 북위 조정에서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논의조차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는 대송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북연왕을 송에 인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연왕 일가를 제거하였다. 송군과의 무력충돌도 이 때문에 빚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같은 고구려의 행동은 선택적인 것이었고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고구려와 송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이 적극적으로 북연왕을 영입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구려가 북연왕을 제거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즉 북연왕을 제거함으로써 고구려가 기대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송과 북연왕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고구려의 북연왕 제거가 송이 북연왕을 영입하려 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연왕은 그의 왕국이 붕괴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송에게 도움을 요청

한 바 있었다.[17] 북위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북연은 송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송의 지원은 당사국 북연은 물론이고 고구려에게도 기대되는 바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冊封朝貢關係에도 불구하고 송은 위급한 북연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적어도 북연왕 영입에 나서기 전까지 송의 입장은 북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송은 북연왕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절을 고구려의 경내에까지 보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위에 대한 송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음을 뜻한다. 북위를 자극할 행동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할 정도로 송도 북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연왕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송은 그를 각별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북연왕을 영입하려한 송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북연이 붕괴하기 전까지 송은 북연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점에서 북연왕에 대한 송의 태도가 변하였던 것은 북연이 붕괴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북연의 붕괴로 북위가 곧 화북의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18] 북연 공략에 몰두해 있던 북위가 조만간 세력확대의 방향을 남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17) 『資治通鑑』 卷122, 3840, 3855, 3857쪽.

18) 430년대의 시기는 五胡諸國 가운데 北燕과 北凉만이 남게 되어 북위의 화북통일이 임박하였던 때였다(金鍾完, 앞의 책, 17쪽). 그러한 상황에서 북연이 망하자, 북위의 화북통일은 주변국가들에게 현실로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연의 붕

이제 송은 종전의 방관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야만 하였다. 송은 王白驅·趙次興 등의 사신과 7,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들 사절과 군대는 점차 커져가는 북위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도에서 보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하여 송의 북연왕 영입시도로 고구려는 송과 북위의 대결관계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에게 있어서 북연왕의 전략적 가치는 어디에 있었을까[19]

앞에서 보았듯이 북연왕의 復國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풍홍의 망명세력만으로는 북위에 대해 어떤 위협도 될 수 없었음을 뜻한다. 이 점에서 북연왕을 영입하려라도 송이 북위의 위협에 맞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의문이 든다. 송이 북연왕을 세력 아래 둔다고 하여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의 의도는 북연왕을 영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연왕을 영입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연왕의 거취를 둘러싸고 송이 교섭한 상대가 고구려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0]

송은 북연왕의 영입조차 고구려의 이해를 얻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었

괴는 북위의 위협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되었다고 여겨진다.

19) 노태돈은 송이 북연왕을 영입하려 한 것은 그와 연결하여 북위의 측면에 세력 근거를 구축하려는 의도였다(노태돈, 앞의 책, 302쪽)고 보았다. 그러나 송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여기에 머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망한 국가의 군주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세력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노태돈은 송이 7,000명에 달하는 군대를 사신과 함께 보낸 것은 고구려를 위압하기 위해서였다(노태돈, 앞의 책, 302쪽)고 보았다.

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 점에서 요서 일대에 대한 송의 영향력은 전무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북위의 동방, 즉 요서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고구려였다. 따라서 송이 요서 일대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구려의 협력과 지지가 절실하였다. 그리고 이 행동은 아마도 북위를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믿어진다. 즉 송은 북연왕의 영입을 내세워 고구려를 송측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송의 태도는 고구려의 수중에 놓여 있던 북연왕을 인도해 달라는 것이나 제반 준비를 요구했다("迎之 幷令高麗料理遣")는 점에서 일방적이었다. 더욱이 송은 고구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동하였다. 송이 북연왕을 영입하겠다는 것이나, 7,000명에 달하는 병력("宋使王白駒等率所領七千餘人")을 고구려 영내에 보낸 것 모두 고구려가 그것을 허용하고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야 온당하다. 고구려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송은 북연왕 영입 사절과 군대를 보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송의 사절 파견과 출병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송의 군대와 북연왕 영입 사절이 고구려로 보내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양측의 연결로 의심받을 행동이었다. 특히 북위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다. 요서 일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송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이것이 송의 표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의 출병은 북위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다. 그것도 7,000명의 병력이 양국의 접전지역과 무관한 요서 근방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구려의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위측이 고구려와 송의 연결을

의심할 것은 당연하였다. 또한 북위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게 되리라는 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구려가 송과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북위의 동방이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와 출병은 고구려와 북위의 불안한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설령 고구려의 협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것으로 송은 전략적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북위에게 있어 이것은 두 세력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동방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위로서는 감당해야 할 戰線이 확대됨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북위와 고구려의 관계가 긴장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송은 북위의 위협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반면 고구려는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미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던 대북위관계가 이로 인해 긴박한 적대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연왕 제거는 고구려가 송의 출병으로 빚어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던 셈이다. 고구려는 문제의 발단인 북연왕을 제거하여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송 측과 대립하였다. 이 점에서 이들 조치는 북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송의 요청을 거부하고 북연왕을 제거함으로써 고구려는 송과의 연결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였다. 아울러 이것은 북위와의 분쟁 원인을 제거한 것이기도 하였다. 풍홍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의 자손도 함께 제거함으로써 고구려는 이들을 이용할 뜻이 없음을 보였다.

결국 고구려는 대북위 관계에서의 견제수단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와 적대하기 보다는 송의 북연왕 영입 시도를 역으로 활용하여 양국의 불안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는 對宋關係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고구려는 송에 사절을 돌려보내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였다. 양국 분쟁의 책임을 宋使에게 돌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귀국한 王白駒 등을 처벌함으로써 송은 고구려의 일방적인 요구를 인정하였다. 고구려는 송이 고구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송에게 사죄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연왕 사건은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 있어서 고구려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였다. 북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제2전선으로서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특히 송측이 고구려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고구려가 송과의 관계에서 무력충돌이라는 이해의 극단적 대립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호적인 관계에 놓일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가 송의 사절을 처벌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나 송이 요구한 軍馬를 보내주었던 것은 송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고구려는 송과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송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보여지는 고구려의 입장은 '親宋外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즉 고구려는 송에 기우는 외교를 전개했지만, 어디까지나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었다.[20] 고구려의 송에 대한 외교를 '親宋外交'로 바라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

21)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북위와의 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후원세력이 필요하였을 송이 고구려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절을 단 한차례도 보내오지 않았다는 점으로써도 분명하다.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전적으로 고구려의 일방적인 사절 파견에 의지했다는 점일 것이다.[22] 북연왕 사건으로부터 머지않아 고구려는 대송외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20여 년간 고구려가 송에 보낸 사절의 회수는 모두 9회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위에 대한 사절의 파견이 중단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었다. 이것으로 이후 고구려의 외교가 송 위주로 전개되었음은 분명하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고구려는 송측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북위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송과의 연결을 긴밀하게 해야만 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위의 동향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 더욱이 북연왕 제거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려가 대북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고구려로 하여금 對宋外交를 전개하도록 돌고 간 북위의 움직임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고구려와 관련하여 북위의 對東方政策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추진한 對宋外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고구려는 심지어 宋文帝의 3週忌를 조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절을 보내기까지 하였다(『宋書』 卷97, 2393쪽). 週忌에 위무사절을 보낸 이러한 예는 한중관계사와 관련하여 유일한 것이었다(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硏究』, 41쪽).

Ⅲ. 北魏의 和龍鎭守와 東方政策

앞 장에서 高句麗가 對北魏戰略에서 宋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으면서도 宋에 기우는 외교를 추진해 나갔음을 알게 되었다. 고구려가 대송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북위에 대해 宥和的인 조치를 취한 점이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고구려는 송에 협력하여 북위를 적대하기보다는, 대북위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장수왕 26년(438) 이후 점차 대북위 외교를 중단하고 송 일변도의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23]

고구려가 북위에 대해 더 이상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대북위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뜻한다. 고구려는 유화책을 통한 대북위 관계의 개선을 단념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의 대송외교가 지니는 의미를 밝혀 보기 위해서 먼저 대송외교가 추진되는 배경을 북위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3) 고구려는 장수왕 27년에도 한차례 사절을 보낸 바 있다("延和 5년; 439년 11월) 是月 高麗及粟特諸胡各懼破滅, 各潛還舊國, 諸國各遣使朝獻" 『魏書』 卷4上, 90쪽). 이때의 사절은 풍홍의 주살을 통보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江畑武, 앞의 글, 33쪽 및 노태돈, 앞의 책, 303쪽). 특히 江畑武는 이를 알림으로써 고구려는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 했지만, 국교 회복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연왕 풍홍이 제거된 것은 전해 3월의 일이었다("延和 4년; 438년 3월) 是月 高麗殺馮文通" 『魏書』 卷4上, 88쪽).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북위측에 알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양국 관계의 개선을 바란 고구려의 의도와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장수왕 27년의 사절은 다른 임무를 띠고 북위에 보내졌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24) 고구려의 대송외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북위의 입장일 것

그러면 북위의 움직임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진다.[24] 북연 공략의 결과 북위는 장수왕 24년(436) 北燕의 수도 和龍城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동방 진출은 고구려에 의해 가로막혔다. 또한 고구려가 영입해 간 北燕王과 和龍城民을 인도해 달라는 북위의 요구는 거부되었다.[25] 이에 북위 조정에서는 고구려 공격을 논의할 정도로 고구려에 대한 불만이 컸다. 북위가 西方 일대에 주둔한 병력을 돌려서라도 東方에서의 군사행동을 재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6] 북위는 고구려를 동방에서의 새로운 적대국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위가 고구려 공격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전쟁 발발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긴장관계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북위의 동향에는 고구려의 각별한 주의가 기울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북위는 북연 일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북위 조정에서 고구려 공격을 논의한 뒤의 조치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 기록부터 자세하게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B-1) (太延 3年, 437年) 二月 乙卯 行幸幽州 存恤孤老 問民疾苦 還幸上谷

이다. 그것이 적대적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적대적인 입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종래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노태돈이 북위의 입장과 관련하여, 북위가 시급한 현안, 즉 柔然과의 전쟁, 北凉 공격, 새 정복지의 안정 등으로 고구려 공격을 뒤로 미루었지만, 고구려를 당면한 주요 적으로 계속 간주했음을 지적하였다(노태돈, 앞의 책, 299~309쪽).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시시각각 변화하였을 북위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24年條.

26) 『資治通鑑』 卷123, 3863쪽. "魏主以高麗數召 議擊之 將發隴右騎卒 劉絜曰 秦隴新民 且當優復 俟其饒實 然後用之 ……魏主乃止".

遂至代, 所過復田租之半(『魏書』 卷4上, 87쪽)

-2) (同年)三月 丁丑 以南平王渾 爲鎭東大將軍 儀同三司 鎭和龍(『魏書』 卷4上, 87~88쪽)

B-1)의 부분은 北魏 太武帝가 幽州 일대를 巡行한 내용을 전한다. 북연을 멸하고 난 이듬해(장수왕 25년) 북위 태무제는 유주 일대를 돌아 보았다. 태무제의 순행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름아니라 유주에는 많은 북연인이 사민되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27] 태무제는 순행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구휼하였으며, 백성들의 고단함을 위문하였다.

또한 B-2)에 따르면 황제의 순행에 뒤이어 구 북연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북위의 통치기구가 설치되었다. 南平王 拓拔渾이 和龍을 鎭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탁발혼은 抚撫와 懷柔의 재간으로 현지의 백성과 오랑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在州綏導有方 民夷悅之)"는 기록[28]에서 북위의 구 북연지역에 대한 지배는 안무와 회유를 위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북위는 북연 공략이 끝난 뒤 구 북연 지역을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회유와 무마를 위주로 하여 통치해 나갔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북위가 북연지역에 대해 온건한 통치방식을

27) 북위는 북연 공략 과정에서 많은 북연인을 영토 내로 사민하였다. 이들 사민 사례 가운데, 그 수효를 알 수 있는 것만도 3萬家·3千餘家·6千口에 달한다(『資治通鑑』 卷122, 3840, 3849, 3858쪽). 또한 북연인들이 사민된 지역은 대체로 幽州(432년) 九月 乙卯 魏主引兵西還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資治通鑑』 卷122, 3840쪽)였다고 보인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 무렵 유주에는 상당히 많은 북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8) 『魏書』 卷16, 400쪽.

적용한 것은 그것이 북연 통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점령지와 정복민을 지배체제 아래 편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北魏가 온건한 방식으로 舊北燕지역과 征服民을 통치해갔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북위는 정복지를 지배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망국의 지배층을 흡수해가는 방식을 취했는데[29] 정복지의 하나인 북연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위의 북연지역에 대한 온건한 통치는 북위의 북연 정복이 그만큼 불안정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것은 북위의 북연 통치가 북연을 무너뜨린 이듬해에 가서야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0]

이와 관련하여 北燕王이 고구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북위는 북연을 차지했지만 북연왕 등 북연의 지배층 상당수를 장악하는데 실패하였다. 고구려가 이들을 대거 영입하여 통제아래 두고 있었기 때문

29) 북위의 정복지 지배방식이 대규모 사민정책이었다는 것은 谷川道雄의 글(1971,「第II篇 北魏統一帝國の支配構造と貴族制社會」,『隋唐帝國形成史論』(筑摩書房), 130~131쪽 및 203~208쪽)을 참조하라.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민된 정복민들은 주로 북위의 수도 平城과 그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을 이주시킴으로써 북위는 반항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이들이 가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능력을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연인에 대해선 이러한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30) 池培善은 북위의 和龍鎭守가 이듬해 2월에 가서야 이루어진 까닭을 고구려의 영향력이 화룡성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池培善, 앞의 글, 34~35쪽). 그의 이해는 북위의 북연 통치를 고구려와 연관지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위의 화룡진수가 늦어진 것으로써 고구려가 화룡성 부근까지 확보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었다. 그러므로 북위로선 정복지를 통치해 나가는데 필요한 助力을 얻기 힘들었다. 도리어 북위의 북연 통치는 고구려의 통제아래 있는 구 북연의 지배층들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북위에 대항하여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의도를 가진 북연왕이 고구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연왕 세력의 복국 활동이 구 북연 지역에 미칠 것을 북위는 염두에 두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였다. 북위의 온건한 통치방식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였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북위는 북연인을 회유하여 그들이 북위의 통치에 순응하기를 바랐다. 이로써 북위는 고구려의 북연 지배층 영입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북연지역을 안정시키려 하였던 것이다.[31]

이러한 구 북연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북위가 이 지역의 통치를 비롯한 동방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는지 궁금해진다. 여기에서 고구려에 대한 북위의 입장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이 가는 사실이 북위의 和龍鎭守이다.

C-1) (太延 3年; 437年)三月 丁丑以南平王渾 爲鎭東大將軍 儀同三司 鎭和龍 (『魏書』 卷4上, 87~88쪽)

-2) 南平王 拔(渾)子弓馬 射鳥 輒墜而殺之 時謂其異焉. …… (世祖) 器其藝能 常呼侍左右 賜馬百匹 僮僕數十人. 後拜隨節 都督平州諸軍事 領護東夷校尉 鎭東大將軍 儀同三司 平州刺史 鎭和龍. 在州綏導有

31) 당시 북위의 동방정책이 안정적 통치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음은 북위 조정의 논의에서도 엿보인다("魏主以高麗蕞詔 議擊之 …… 樂平王丕曰 和龍新定 宜廣脩農桑 以豐軍實 然後進取 則高麗一擧可滅也. 魏主乃止." 『資治通鑑』 卷123, 3863쪽).

方民夷悅之(『魏書』卷16, 400쪽)

C-1(B-2와 동일)에 따르면 북위는 和龍 일대를 鎭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南平王 拓拔渾을 鎭東大將軍에 임명하여 그 임무를 맡겼다. 和龍城은 과거 북연의 수도였다는 점에서 그 일대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북위가 화룡성에 진을 두고 군대를 배치한 것은 북연 지역에 대한 통치의 일환[32]이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구려 사절이 다녀간 직후에 북위가 화룡 일대를 진수하였다는 점이다.[33] 고구려의 사절이 다녀간 다음달 북위는 과거 북연의 수도였던 화룡성을 동방의 가장 주요한 거점으로 삼고, 이곳에

32) 북위는 화룡성 함락 후 일단 和龍鎭을 두고, 얼마 뒤인 太平眞君 5(444)년 營州로 개편하였고, 太和(477~499) 초기 무렵까지 州에 鎭을 竝置하였다. 이처럼 과거 적국의 요지에 鎭을 두었다가, 진을 없애지 않고 일정기간 주와 병치하는 방식은 과거 北凉의 凉州鎭(凉州) 등을 비롯하여 북위의 점령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방식이었다(濱口重國, 1936, 「東魏の兵制」, 『東洋學報』 24-1; 1996, 『秦漢隋唐史の硏究』 上(東京大 出版部), 142~145쪽).

33) 장수왕 25년 2월의 조공 사절이 어떤 목적으로 보내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때의 사절에 앞서 불과 5개월 전에도 사절을 보낸 바 있었다. 고구려가 북위에 대해 거듭 사절을 보내야만 할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구려가 북위의 세력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북위의 불만은 컸다. 북위 조정에서 있었던 고구려 침공의 논의는 이것을 말해준다. 고구려는 긴장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위의 불만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장수왕은 바로 전해의 사절 파견에 뒤이어 조공 사절을 보내었다고 보인다. 고구려는 북위의 불만을 무마해야 하였던 것이다. 조공의 사절은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조공함으로써 장수왕은 고구려가 북위 중심의 국제질서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국의 책봉조공관계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고구려는 북위의 불만을 달래려고 하였던 것이다.

군대를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위가 그 동방 일대에 군사적 조치들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북위는 고구려의 조공을 받고서도 고구려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북위의 화룡 진수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C-2)에 전한다. 拓拔渾은 "假節 都督平州諸軍事 領護東夷校尉 鎭東大將軍 儀同三司 平州刺史"로서 화룡을 진수하였다. 이들 "假節 都督平州諸軍事 領護東夷校尉 鎭東大將軍 儀同三司 平州刺史"는 탁발혼이 북위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가 무엇이었는가를 알려준다. 우선 "假節"과 "都督平州諸軍事"의 권한으로 탁발혼은 평주 일대의 군대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탁발혼은 平州刺史로서 평주의 民政에 대한 권한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즉 화룡을 진수한 탁발혼은 평주 일대의 정치·군사에 대한 모든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탁발혼의 권한은 당시 북위가 동방에 설치한 州와 鎭의 군사와 민정을 모두 아우른 것이었다. 적어도 북위의 동방에서 그의 권한에 버금갈 지방관은 없었다.

또한 그는 북위 황제의 宗親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아 황제의 측근에 머물던 이였다. 즉 황제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던 인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탁발혼을 화룡에 보낸 것은 太武帝의 각별한 의도에서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에게 거는 기대 역시 각별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북위의 東方政策은 탁발혼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탁발혼이 진수한 곳이 和龍城이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화룡성은 과거 북연의 수도였던 곳으로 북연지역의 중심지였다.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탁발혼은 정복한 지역의 통치를 다져갈 것이었다. 그런데 북위가 구 북연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변의 동이 諸

勢力을 통제 아래 두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화룡성은 북위 동방의 여러 세력들이 교통과 교역을 위해 넘나들던 東北아시아 세계의 요지[34]였기 때문이었다. 교통의 요지를 차지함으로써 북위는 동방의 여러 세력, 즉 東夷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것은 북위 조정이 탁발혼에게 "護東夷校尉"의 직을 겸하게 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拓拔渾이 護東夷校尉를 겸직하였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35] 그것은 종전의 동이교위와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위가 종래 설치한 동이교위 관부는 북연 붕괴의 상황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동이세력을 監護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36] 이 점에서 통령할 대상이나 실제에서의 감호권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북위가 북연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북위의 세력권은 동이세력들과 경계를 마주하게 되었다. 호동이교위가 통령할 대상을 확보하고, 실제에

34) 노태돈, 앞의 책, 427쪽. 아울러 훗날 영주가 설치되고 난 뒤의 일이지만, '東夷·北狄'에 대한 통제는 영주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日野開三郎, 「粟末靺鞨の對外關係」, 『史淵』 41(1949. 10)·42·43·44(1950. 8); 1991, 『東洋史學論集』 第15卷(三一書房), 216~217쪽).

35) 앞에서 보았던 濱口重國의 연구는 북위의 지방지배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북위와 주변 국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鎭과 해당 방면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화룡진의 설치와 개편은 북위의 지방지배 뿐만 아니라 동방 일대에 대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진 결과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위가 가장 동방에 둔 기구였다는 점에서나 護東夷校尉職을 兼領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36) 북위시대 탁발혼 이전의 동이교위에 대해서는 拓拔嬰文과 馮崇의 활동이 있었다. 당시의 동이교위는 가까운 장래에 동이세력을 감호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었다(李成制, 앞의 글, 34~38쪽; 앞의 책, 32~37쪽).

서의 감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연의 붕괴 이후 북위가 契丹의 조공을 받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D) (太延 3: 長壽王 25(437)年 2月) 高麗契丹國並遣使朝獻 (『魏書』 卷4上 87쪽)

위의 기록은 北燕을 정복한 이듬해(장수왕 25) 2월 北魏가 契丹의 朝貢을 받았음을 전한다. 그런데 契丹의 朝貢이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동방 일대에 대한 북위의 세력범위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북위가 거란 등 주변의 東夷 세력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북연 공격을 앞두고 있던 太延 2年(436; 장수왕 24) 2월의 일이었다. 북연 공격을 앞두고 북위가 東夷諸國에 사절을 보내었던 것이다.[37] 그러나 이때의 접촉이 북위와 동이세력의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이로부터 1년 뒤인 太延 3년(437), 북위는 거란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북연의 붕괴로 북위가 거란의 영토와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거란의 조공으로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열었다. 북위는 거란을 세력 아래 포함시킬 수 있었다. 북위의 위세가 주변의 동이세력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제 북위는 요하 일대의 국제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태무제가 탁발흔에게 "護東夷校尉"의 직을 겸하게 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였다고 믿어진다. 북위는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한 국제질서를 운영하기 위해 "호동이교위"의 역할을 필요로 하였

37) 『資治通鑑』 卷123, 3861쪽. "(436년 2월) 壬辰 (北魏)遣使者十餘輩 詣東方高麗等諸國 告諭之"

던 것이다. 이 점에서 和龍城은 북연지역을 통치하는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동이세력을 감호하는 거점이기도 하였다.

탁발혼의 재임기간동안 북위의 호동이교위가 감호한 대상은 우선 거란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몇몇 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全 동이세력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동이교위의 역량에 비추어볼 때, 본래의 역할이 거란 감호에만 두어졌을 리는 없다. 和龍鎭 일대의 통치체제는 동방 일대의 모든 역량을 탁발혼에게 집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호동이교위의 활동이 북위 동방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동이교위의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북위의 세력권은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이 탁발혼이 "護東夷校尉" 직을 겸한 것은 그 설치의도에서나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의 정도에 비추어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북위는 고구려의 실력저지로 입은 충격에서 벗어나, 和龍의 鎭守와 東夷勢力에 대한 監護로 대표되는 東方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믿어진다. 동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에서 북위의 동방정책이 우선한 것은 접경지에 대한 안정적 확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위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북연왕이 고구려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였다. 접경한 북연지역은 고구려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었다. 북위의 태무제가 측근인 탁발혼을 파견하고 아울러 동방 일대의 정치·군사와 관련된 諸權限을 그에게 집중시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東夷校尉를 두어 契丹을 監護하였다는 점에서 북위는 동방 일대의 국제질서를 주관하려 하였다고 보인다. 이 점에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라도 북위는 동방 진출을 재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북위의 동방정책은 우선 불안한 현상황에 대한 안정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었지

만, 고구려의 개입으로 저지된 동방 진출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위의 동방정책이 의도한 계획들은 모두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북위가 북연지역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고 동방 진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구려를 굴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북위의 동방정책에는 고구려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北燕王이라는 억제력을 내세웠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北魏에 대해 高句麗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이 점에서 고구려는 북위에 등을 돌릴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長壽王 26년 宋의 北燕王 迎入 시도는 바로 이러한 긴장 국면의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에 장수왕은 북연왕을 제거하고 송과의 연결을 거부함으로써 대북위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유화적인 조치를 거듭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긴장은 여전하였다. 북위의 東方政策은 변하지 않았다. 유화책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고구려가 대북위 관계에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점차 송측에 기우는 관계를 전개해 나아갔다. 고구려가 장수왕 27년의 사절 파견을 끝으로 이후 22년간 북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한편으로 송의 전략을 무산시켰던 고구려가 이때부터 송으로 다가서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사정도 여기에 있었다. 고구려는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북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와 함께 對宋外交로서 고구려는 북위의 東方政策에 대응하였다. 북위에 대한 새로운 억제력으로 대송외교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는 북연왕을 내세운 종전의 조치보다 한층 강도를 높인

것이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의 대송외교 추진과 관련하여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Ⅳ. 對宋外交 中心의 西方政策 추진과 그 意義

앞에서는 高句麗가 宋의 北燕王 迎入 시도를 무산시켰던 점에 주목하여 高句麗와 宋의 관계, 高句麗와 北魏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북연왕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전의 입장과 달리하여 고구려가 對宋外交를 추진하게 된 것은 북위의 적대적인 東方政策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런데 당시 東아시아 세계의 국제정세를 보면, 北魏는 북과 남으로 柔然·宋과의 전쟁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현재의 青海省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던 吐谷渾과 甘肅 일대의 仇池, 그리고 河西의 武都國 등에 대한 군사행동을 쉴새없이 전개하고 있었다.[38] 하지만 북위의 동방, 즉 북위와 고구려의

38) 436년부터 북변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柔然에 대해, 北魏는 438년부터 449(2회)·450·454·458년에 이르기까지 북벌을 거듭하여,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특히 450년에 벌어진 北魏의 宋 침공도 이러한 柔然의 세력 약화로 가능하였다. 유연과 송, 그리고 북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朴漢濟의 글(朴漢濟, 앞의 책, 196~201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고구려의 對宋外交가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격전에는 다음을 들 수 있다. 青海省 일대를 차지한 吐谷渾은 북위의 西方에서 고구려에 비견될 정도였다(三崎良章a, 앞의 글, 159~162쪽). 그러나 강국이었던 토욕혼도 북위의 침공(442년에서 이듬해까지)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왕이 西域으로 달아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宋書』 卷96, 2372쪽). 또한 河西 지방의 武都國은 宋측에서 北魏로, 다시 북위측에서 송으로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바꾸

관계에서는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 그것도 고구려의 對宋外交가 추진되고 있던 22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구려가 어떻게 북위와 대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 따져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먼저 아래의 기록에 눈을 돌려 보자.

> E) 彼往日北通芮芮 西結赫連·蠕蠕·吐谷渾 東連馬弘·高麗. 凡此數國 我皆滅之 以此而觀 彼豈能獨立. 芮芮與提已死 其子寃書眞襲其凶迹 以今年二月復死 我今北征 先除有足之寇. 彼若不從命 來秋當復往取 以彼無足 故不先致討. 諸方已定 不復相釋(『宋書』 卷95, 2346쪽)

北凉마저 멸하여 華北 일대를 모두 차지한 北魏는 442년 무렵부터 宋과의 대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북위와 송의 대결로 전개된 국제정세는 북위 太武帝가 송 文帝에게 보낸 國書의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장수왕 38년(450) 2월 북위 太武帝는 송 文帝에게 북위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순종하라는 국서를 보내었다.

었다. 그러나 親北魏 혹은 親宋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국에 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북위와 송의 군사행동이 예외없이 이어지곤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金鍾完의 글(金鍾完, 앞의 책, 139~147쪽)을 참조하라.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해, 노태돈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력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노태돈, 앞의 책, 332쪽)고 보았다. 주변의 강대국 간의 力關係의 균형을 이용하여 小國들은 自存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吐谷渾과 武都國의 경우만 보아도 강대국 간의 역관계를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은 입증된다. 또한 北魏와 反北魏 진영 사이의 대결관계가 지속되면서, 잦은 분쟁들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당시의 국제정세를 상대적인 안정상태로 바라보는 그의 이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국서의 내용에 주목이 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 동안 송이 추진해온 對北魏包圍戰略이 언급되었고, 고구려에 대한 북위의 입장도 보이기 때문이다. 국서에서 태무제는 송의 대북위 포위전략이 북위를 위협하였음은 인정하였다.[39] 또한 송을 위시하여 북위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 국가 모두가 북위에 적대하였음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태무제가 강조하려 한 것은 송의 대북위 포위전략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이었다. 말하자면 대북위 포위전략으로 북위의 송에 대한 공격이 어의치 않았지만, 이제는 그 장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위가 서방의 夏(赫連定)·北涼(沮渠蒙遜)을 비롯한 북방과 동방의 여러 국가들을 멸하였다고 전제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40] 북위가 이들 국가들을 멸하게 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록에서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북위는 이들 국가를 송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였다.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서 북위가 이들 국가를 정벌한 이유는 이들이 북위를 저버리고 송과 연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북위는 송과 연결한 국가들을 공략함으로써 송을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41] 예컨대 芮芮(柔然)을 먼저 공략한 뒤에 다시 오겠다고 한 점이나, 모든

39) 북연·북량·토욕혼 등이 송과 연결하였음으로 이들 국가를 멸하게 되었다고 한 점은 일단 송 중심의 대북위 포위전선이 북위에게 위협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40) 실제에 있어서 태무제의 호언장담처럼 열거된 적대세력 모두가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태무제의 국서는 당시 북위에 맞서려는 芮芮(柔然) 등이 송과 연결하여 대북위 포위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전해준다. 유연 정벌에 곧 나서게 됨을 과시하면서 홀로 남게될 송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두었다고 한 점에서 그러하다.

방면이 평정되고 나서는 송으로서도 북위의 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점은 일단 북위의 전략이 송측에 선 국가들을 먼저 제압한다는 데에 있고 나서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태무제는 유연 공격에 나서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즉, 송과 연결을 꾀하던 국가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에 있어서는 유연과 송의 연결이 북위를 가장 위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위는 유연을 먼저 공격한 다음 송을 치러 오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송과 연결하여 북위를 위협할 유일한 세력으로서 유연이 지목되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북위에 대해 고구려가 취했던 행동이 어떠하였는가를 가늠케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가 송과 유연 간의 交通을 연결해 주는 등 북위에 대한 적대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42] 따라서 북위가 고구려 공격에 나서지 않

41) 三軍大學編, 앞의 책, 136~142쪽 및 152~182쪽.

42) 노태돈은 고구려가 북위와 대립상태를 지속하면서 송 및 유연과 각각 연결하였을 뿐 아니라, 송과 유연의 연결도 중계해 주었다고 보았다(노태돈, 앞의 책, 307~308쪽). 혹은 유연과의 연결을 강조한 이해도 있다(孔錫龜, 앞의 책, 280쪽). 고구려는 북위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과 연결을 도모해 북위를 포위·견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고구려와 송, 그리고 유연의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겨져 왔다.

"(大明) 七年(463; 장수왕 51) (宋) 孝武帝詔曰 使持節 散騎常侍 督平營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驪王 樂浪公璉 世事忠義 作藩海外 誠系本朝 志尙勤篤 遣使沙表 克宣王猷 宣加寵進 以爲持節 可車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 持節·常侍·都督·王·公如故." 『宋書』 卷97, 2393쪽.

위의 463년 宋의 高句麗 長壽王 冊封文에서 '沙表'란, 柔然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 이유로 유연이 宋을 이은 齊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沙漠'으로 지칭하였고, 472년 百濟가 북위에 보낸 表文에도 고구려와 유연의 연계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은 것은 송과 유연 등의 견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고구려와 다른 국가들의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애당초 북위가 적대세력의 범주 안에 고구려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것이다. 그리고 '王獻'는 북위를 共伐하자는 송의 뜻이라고 한다. 송과 유연의 교섭이 주로 북위에 대한 공동전선의 구축이었기 때문이다(金鍾完b, 앞의 글, 210~211쪽). '勅表'와 '王獻'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기록은 고구려가 송과 유연 사이에서 양측, 특히 송의 뜻을 유연에 전달해 주었음을 알려준다. 이 점만 놓고 보면 고구려와 송, 그리고 유연은 군사적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긴밀한 유대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위의 기록에서 언급된 對宋外交期 동안 송은 對高句麗 관계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 있었다. 여기에서 송과 고구려의 관계는 고구려의 일방적인 외교에 의해 유지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구려의 간접적인 중개가 사실상 얼마나 송의 대북위 전략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기록은 고구려가 對宋外交를 전개하였지만, 대북위 전선에서 맡은 역할이라고는 송과 유연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고구려의 對柔然·對宋 연결이란 것이 어떤 수준에 머물렀는가를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한적인 연결로서 고구려가 어떻게 북위를 포위하고 견제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의 대북위 전략을 고구려의 전략적 중요성에서 찾아보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덧붙여 長壽王은 이미 420년에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바 있었다. 이는 위의 기록에서 장수왕이 征東大將軍에서 車騎大將軍으로 進號되었고, 開府儀同三司를 더하여 받았다는 점으로써도 알 수 있다. 金鍾完의 지적대로 송이 책봉사절을 파견한 것은 고구려가 대북위 관계를 재개했기 때문이었다(金鍾完b, 앞의 글, 211쪽). 대고구려 관계에서 그 동안 보였던 송의 냉담함을 염두에 두면, 송의 사절 파견과 進封은 꽤나 각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여겨진다. 고구려의 대북위 관계 재개로 송은 잠재적 우군이었던 고구려를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송은 종전까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던 간접적인 중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의 우호를 강조했다고 보인다.

북위는 고구려를 송측에 선 국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위의 전략에 따르면, 고구려도 제압되어야 마땅한 세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위가 고구려를 침공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북위가 적대의 대상에서 고구려를 제외한 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북위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고구려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북위가 실제의 행동에 있어서는 적대적 행동을 삼가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사실 고구려가 풍홍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나아가 송 위주의 외교관계를 전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고구려가 송으로 기우는 외교를 추진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의 전략은 송과 연결하였던 柔然·夏·北燕·北·武都·吐谷渾 등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위의 세력확대를 막고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전략은 앞에서 열거한 국가들의 그것과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송측에 서서 북위에 대항한 다른 국가들의 전철을 고구려는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위의 입장을 고려하면 드러난다. 북위

43) 심지어 고구려가 대북위외교를 재개한 이후에도 북위 조정은 고구려를 적대적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494년 북위 孝文帝가 洛陽 遷都에 대해 중신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燕州刺史 穆가 진언한 다음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燕州刺史 穆爲進曰 移都事大 如臣愚見 謂爲未可. …… 北有獫狁之寇 南有荊揚未賓 西有吐谷渾之阻 東有高句麗之難. 四方未平 九區未定." 『魏書』 卷14, 359쪽.

로서는 이들 국가들이 송과 연결하게 될 때 그 위협은 심각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북위는 동방과 서방, 그리고 북방을 번갈아가며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제압해 나갔다. 북위의 공세로 이들 국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敗亡하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관계가 북위를 적대하는 정세였음을 염두에 두고 보면, 북위가 사방을 적대국으로 돌려놓고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였다. 북위에게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송측에 섰던 점이나, 이를 이용한 송의 대북위 전략이 수립되었던 점에서, 북위가 사방을 적대국으로 돌려놓아도 될만큼 강대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이 당시 국제질서에서 보이는 북위의 한계였다. 그러므로 북위는 힘의 우위를 내세우면서도 일방적으로 국제관계를 이끌어 갈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위의 한계를 고구려는 이용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양 진영 사이의 격전은 北魏·宋·柔然 사이의 국경 일대에서 뿐만 아니라 '河南路'[44]

44) 유연과 송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柔然自西路通京師三千餘里 歲時遣使詣京師 如中國朝禮"(『宋書』 卷95, 2357쪽)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西路는 송을 이은 南齊가 河南道를 경유하여 유연과 교통하였기("芮芮常由河南道而抵益州" 『南齊書』 卷59, 1025쪽) 때문에 하남도를 의미한다. 하남도에 대해서는 金鍾完의 설명(金鍾完a, 앞의 책, 139~150쪽)이 자세하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坂元義種은 結節點이라고 표현하였다(坂元義種, 앞의 글, 253쪽).

당시 河南道에는 吐谷渾과 武都國이 있었는데, 이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송은 이들을 세력 아래 두려 애썼고, 반대로 북위는 송과 하남 제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그 결과 송과 북위는 이들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회유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외교와 군사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金鍾完의 글(金鍾完a, 앞의 책, 139~150쪽) 및 三崎良章의 「南北朝の對仇政策についての一考察-氐族楊氏集團への冊封を通して-」, (『史觀』

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자연히 북위는 북과 남, 그리고 서쪽방면이라는 세 개의 戰線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감당해나가야만 하였다. 이것은 북위로서도 벅찬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장수왕 26년(438)의 풍홍사건에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서 고구려의 戰略的 重要性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고구려가 북위의 동방에서 새로운 전장이 될 수 있음을 북위에게 인식시키는 계기였던 것이다.

북위와의 대결관계에 고구려를 끌어들이려던 송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풍홍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그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비추었다. 고구려는 송의 사절을 돌려보내 사태를 마무리짓고 양국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였다. 그리고 장수왕 27년(439) 고구려는 송에 軍馬 800匹을 보냄으로써 직접적인 군사적 제휴관계로 나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45] 이와 함께 고구려는 대송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행동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고구려의 대송외교는 우선 송에게 제휴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었지만, 고구려의 이러한 태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던 쪽은 다름아닌 북위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북위에게 감당해야 할 전선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양국이 교전하기 시작한다면, 고구려는

114, 11~24쪽을 살펴보라.

45) 같은 해 11월 고구려 장수왕은 북위에 사절을 보내었다. 고구려는 대북위 관계를 단절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북위에 사절을 보냈던 것이다. 송에 대한 군마의 수송도 이 해의 일이었다. 만일 대북위 사절에 앞서 군마 수송이 있었다면, 장수왕 27년 11월에 고구려는 북위에게 고구려의 전략적 중요성을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통보하기 위해 사절을 보냈다고 여길 수 있다.

곧바로 柔然과 군사적으로 연결하여 북위의 북방과 동방을 함께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46] 또한 이러한 위협은 국경 일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위의 수도 平城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柔然軍이 439년 平城 인근까지 진출하여 북위 중심부를 노렸던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47]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구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대적 입장에 선 것이 분명한 국가들보다는, 북위에게 고구려의 항배를 더욱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북위에게 더 중요하기는 적대적 입장에 선 것이 분명한 국가들보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고구려의 움직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대송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북위의 동방을 위협하려 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북위의 위협에 맞서 송측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견제의 선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이다.[48]

달리말해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서 고구려는 中立에 가까운 태도를 표

---

46) 柔然의 군사적 역량은 북위가 적대세력을 공격하거나 對抹戰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만큼 위협적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金鍾完a, 앞의 책, 83쪽 및 朴漢濟, 앞의 책, 183~205쪽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북위의 대대적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유연은 442년이래 송에 접근하고 있었다(『宋書』 卷5, 89쪽) 및 "(柔然)常懷謀襲北魏 世爲仇讐 故頻年每羈縻之" 『宋書』 卷95, 2357쪽).

47) 439년 유연군은 북위의 수도 인근까지 진출하여 북위를 크게 위협한 적이 있었다(『魏書』 卷4上, 89~90쪽). 당시 유연군의 침공은 북위의 공격을 받고 있던 北凉과의 密計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것은 북위의 수도가 북방으로부터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

48) 송과 연결하여 북위에 적대하게 되었던 국가들의 전략 역시, 본래의 취지는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송과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를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그 바람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들은 견제의 선을 넘어서 송과 북위의 대결에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방하였다.[49] 이 점에서 대송외교를 내세운 고구려의 전략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달랐다. 특히 이것은 북위의 입장에서 절실하였던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고구려가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은 북위 동방 일대 세력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북위에 대한 고구려의 태도는 遼河 일대의 여러 세력들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북위로서는 고구려를 상대로 한 행동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가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북위의 적대적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구려의 대송외교는 만일에 있을 지 모를 북위의 적대행동을 견제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위와 송의 대결이 본격화되어, 양 진영의 군사적 동맹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그를 막으려는 군사행동이 거듭될수록, 고구려의 중립적 입장은 더욱 부각되었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고구려의 중립적 입장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송과 유연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대북위포위망의 타도가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 對宋·對柔然戰의 승리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북위 조정의 판단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북위로서는 고구려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면서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었던

49)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책봉과 조공의 여부에 따라 외교관계를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송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북위 외교를 재개한 462년 이후부터 고구려는 양면외교를 전개한 것으로 이해된다(金鍾完b, 앞의 글, 210~211쪽).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대송외교기의 고구려는 송측에 선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대송외교기나 이후의 시기를 막론하고 고구려는 양측의 대결관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보인다.

것이다.

한편 고구려가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송과 북위의 대결관계에 대해 한하는 것이다. 장수왕이 요하 일대의 주변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북위의 세력확대마저 묵인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북위 태무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태무제로서는 북위의 동방 일대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억누르고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었겠지만, 이것은 송과 유연이라는 강적이 사라진 뒤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었다. 송과 유연이라는 적대국이 건재하는 한, 태무제도 고구려 장수왕과 일정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和龍鎭의 설치 이후 營州를 新設하는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서도 북위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한 것[50]도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대송외교 추진으로 북위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혹시 양국 사이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르겠다. 사실에 있어서 이 기간동안 고구려는 단 한차례의 사절도 보내지 않았고, 북위측에서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교섭을 통한 타협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대송외교를 추진하기에 앞서 타협을 바라는 입장을 거듭 보였고, 송으로 기우는 외교마저도 북위의 적대적 행동을 견제하는 선에

50) 앞에서 보았듯이 북위의 동방정책은 鎭將 1인의 개인적 역량과 동방 일대의 한정된 자원에 의지하여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과도기의 잠정적인 조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북위는 본격적인 동방정책 추진에 대비하여 기반을 우선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도 북위는 본격적인 동방경영에 나서지 못하였다.

그치는 것이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고구려의 장수왕 23년(435) 무렵의 대북위 교섭과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대송외교가 전개되던 시기에 고구려는 북위의 위협을 차단하고 요하 이동의 세계에 대한 고구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장수왕이 대북위 교섭으로 이루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암묵적이긴 하지만, 서로가 인정한 경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장수왕 23년(435) 무렵 고구려가 추진한 양국의 타협은, 불가침 조약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엄밀하는 冊封과 朝貢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대송외교 추진시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앞서의 교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책봉과 조공의 名分은 더 이상 소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하 일대에 대한 위협도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국 군대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태에서의 불안한 평화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위가 여전히 和龍城에 東夷校尉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구려가 북위와의 경계에 배치한 군사력을 이전보다 약화시켰을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北燕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高句麗는 對北魏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北燕과 그 일대의 東夷 제 세력을 장악하려던 북위의 전략은 고구려의 군사적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또한 고구려는 和龍城에 진출하여 북연의 지배층을 영입함으로써 북위의 북연 정복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연지역 통치에도 불안감을 주었다. 이에 북위는 고구려를 적대국가로 간주하였고, 우선 북연지역을

안정시킨 후 **東方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 하였다. 북위가 북연지역과 정복민을 유화적인 통치방식으로 다루고, **和龍鎭**을 두고 **要人**을 파견하였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구려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북위에 비해선 열세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북위의 동방정책으로 고구려가 무력시위로써 얻은 억제력도 상당부분 상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長壽王** 26年(438) **宋**이 **北燕王 馮弘**을 영입하려 시도하자, 고구려는 대북위 관계에서 송의 존재를 내세울 수 있었다. 송의 전략은 북위의 동방에 새로운 **戰線**을 만들어 북위의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려는 데 있었다. 대송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장수왕은 고구려가 북위와 송의 대결관계에서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대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장수왕은 대북위 관계를 단절하고 대송외교를 추진함으로써 **北魏**와 **反北魏戰線**의 대결관계에서 고구려의 전략적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다. 물론 고구려의 전략은 북위와 송으로부터 쉽사리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풍홍사건의 수습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송에게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를 목표로 한 군사행동을 삼가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고구려는 송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송·유연과 북위의 대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전략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북위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4~5세기 고구려의 무기·무장과 중장기병

이인철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4~5세기에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반도의 중부이북, 서쪽으로는 요하, 북쪽으로는 동류 송화강, 동북쪽으로는 목단강 유역과 연해주 일대를 차지하는 동북아의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였다. 첫째,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어 당시의 국제정세가 고구려의 영토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피정복민에 대한 고구려의 간접지배방식이 적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쉽게 항복하게 하였다. 셋째, 피정복민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영토확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힘써 농사지어도 먹을 것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

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넓은 영토에 대한 동경과 그것으로 인한 영토확장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다섯째, 고구려인들의 전략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여섯째, 소수림왕대의 불교수용, 태학의 설립, 율령의 반포 등을 포함한 체제정비가 영토확장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고구려의 영토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우수한 무기와 무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우수한 무기와 무장, 그것을 뒷받침한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경제적 여건의 성숙이 커다란 영토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군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무기체계,[1] 병력동원체계, 방어체계, 군사훈련과 緖戰, 전쟁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2] 이

1) 전주농, 1958,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1)－고분 벽화 자료를 주로 하여」, 『문화유산』 1958-5; 전주농, 1959, 「고구려 시기의 무기와 무장(II)－고분 벽화 자료를 주로 하여」, 『문화유산』 1959-1; 력사과학연구소, 1988, 「무기와 무장」, 『고구려문화사』(논장); 金基雄, 1985, 「武器와 馬具(高句麗)」(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 15, 39~61쪽; 耿鐵華·孫仁杰·遲勇, 1993, 『高句麗兵器研究』(延邊大學出版部); 金性泰, 1993, 「高句麗의 武器(1)」, 『文化財』 26; 金性泰, 1994, 「高句麗의 武器(2)」, 『文化財』 27.

2)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247~283쪽; 余昊奎, 1998, 「高句麗 初期 兵力動員體系」, 『軍史』 36, 1~37쪽; 余昊奎, 1998,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1, 1~76쪽;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 3~82쪽; 余昊奎, 1999, 「高句麗後期의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事史研究』 3, 3~70쪽.

글에서는 고고발굴을 통해 조사된 무기·무장, 고분벽화에 나타난 武器·武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고구려군의 무기·무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의 전제가 되는 무기·무장이 고구려의 것이어야 한다. 가령, 안악3호분의 주인공이 동수이고, 무덤의 벽화가 전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무덤의 벽화를 근거로 고구려의 무기 무장을 논할 수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릉임을 방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이 글의 논지 전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황해도 연탄군 송죽리에서 새로 발견된 벽화무덤에도 고구려의 무기 무장이 그려져 있고, 서울 아차산 일대의 보루성에서도 다수의 고구려 무기와 무장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중국당국이 고구려유적을 정비하면서 새로이 발견한 무기와 무장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새로 발견된 자료를 포함시켜 고구려군이 사용한 무기의 비율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군의 兵種構成을 조감해보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동천왕 20년(246)에 魏의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을 맞아 步騎 2만을 출동시키고, 이어 鐵騎 5천을 보내 대적한 바 있다.[3] 여기서 말하는 鐵騎는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에서 철제갑옷으로 무장한 鐵甲騎兵 바로 그것으로 생각된다. 삼실총 벽화에는 鐵騎의 전투장면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鐵騎를 흔히 重裝騎兵이라 불러왔다. 중국에서는 철기가 후한대에 출현하였고,[4] 선비족 모용씨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三燕에서 鐵製甲冑와 馬具가 다량으로 발

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20年.
4) 『後漢書』 列傳 卷73 劉虞公孫瓚陶謙 列傳 第63 公孫瓚

견되어 그것이 동북아 전쟁사 내지 군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구려가 三燕과 대결하여 결코 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요하를 넘어 요서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무기·무장이 三燕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대등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영토확장 과정에서 중장기병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안악 3호분 武器·武裝 분석의 전제

안악 3호분에는 노부행렬도를 포함한 여러 장면의 벽화에 보병과 기병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와 무장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벽화의 내용을 토대로 흔히 고구려의 무기·무장의 상태를 논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모습을 고구려왕으로 보고 각종행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화의 내용을 고구려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덤 자체가 고구려인의 무덤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한다. 중국인의 생전 활동 모습을 벽화에 그려놓았다면 그것은 고구려의 무기·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이라 주장한 적이 있다.[5] 이제 다시 그 주장의 근거를 간단히 열거하고, 종래의 논지를 다소 수정 보강함으로서 안악3호분의 노부행렬도를 포함한 무덤 내의 무기와 무장을 고구려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기로 한다.

첫째, 안악 3호분에는 천정과 팔각돌기둥을 비롯한 여러 곳에 연꽃무늬

5) 李仁哲, 1997, 「安岳 3號墳의 연꽃무늬와 墨書銘」; 2000, 앞의 책, 83~210쪽.

가 그려져 있다. 연꽃무늬는 불교에서 극락정토 혹은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안악 3호분의 연꽃무늬 역시 불교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고구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소수림왕 2년(372)이후에 이 무덤이 조영되었음을 나타낸다.

둘째, 안악3호분 묵서명에는 동수가 죽은 후에 이 무덤에 묻었다는 기록이 없어, 묵서명을 묘지명으로 볼 수 없다. 가령, 덕흥리고분묵서명에는 영락 18년 무신 12월 신유삭 25일 을유에 (무덤을) 완성하여 옥구를 옮겼다는 기록이 있고, 광개토왕비문에도 왕이 39세 죽으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으로 옮기고 碑를 세우고 훈적을 기록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안악 3호분에는 동수의 시신을 묻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동수에 관한 묵서명은 안악3호분 주피장자의 묘지명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사지절도독제군사평동장군호무이교위낙랑상창려현도대방태수도향후'라는 동수의 관작은 동수가 모용인 휘하에 역임한 관작과 동수의 사후에 추증된 관작을 함께 기록해놓은 것으로, 동수가 相과 太守를 역임했다고 하는 낙랑·창려·현도·대방 등의 지역 또한 고구려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3년·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된 후에 요동·요서 지역으로 옮겨진 군현 명칭이다. 따라서 동수는 지금의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서 태수직을 역임하지도 않았고, 국왕도 아니므로 안악 3호분과 같은 왕릉급 무덤에 묻혔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묵서명에는 동수의 출신지가 「幽州遼東平郭都鄕敬上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요동군이 유주에 속해 있을 당시에 이 묵서명이 기재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晉書』지리지에 의하면 함녕 2년(276)에 평주를 설치하고 창려·요동·현도·대방·낙랑 등 5개군을 관할하게 하였고, 370년까지 요동군은 幽州에 속한 적이 없다. 요동군이 유주에 속하였던 시기는 370년

에서 380년까지 10년간이었다. 전진은 370년에 전연을 멸망시키고 157군을 획득한 다음에 곽경을 유주자사에 임명하고 376년에는 부락을 유주자사에 임명하였다.[6] 380년 8월에 가서야 전진은 유주를 나누어 평주를 두고 평주자사와 유주자사를 임명하였다.[7] 즉, 370년에서 380년까지는 平州는 존재하지 않았고 幽州 단 1개의 州만 존재하였으며,[8] 요동군은 前秦의 유주에 속하였다. 출신지가 「幽州遼東平郭都鄕敬上里」로 되어 있는 동수 묵서명은 이 기간에 幽州 遼東郡의 지방행정편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이는 곧 안악 3호분이 370년에서 380년 사이에 조영되었고, 묵서명도 이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357년에 이 무덤이 조영되었다면 동수의 출신지는 '평주 요동 평곽'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은 이 무덤 묵서가 370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뜻이 된다.

다섯째, 357년에 죽은 동수를 370년에서 380년 사이에 안악 3호분에 묻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안악 3호분은 371년에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薨去한 고국원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지 3년 만에 장례를 치렀으므로, 371년에 죽은 고국원왕의 장례는 37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葬地名을 딴 왕명이 고국원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죽은 직후에 가매장하였던 곳이 故國原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서』 고구려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屋內에 시신을 관에 넣어 안치해두었다가 3년이 지나 吉日을 택하여 장례를 치른다고 하였으므로, 시신을 가매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이에 안

6) 『資治通鑑』 권102, 태화 5년 11월 ; 권104 태원원년 10월.
7) 『資治通鑑』 권104, 태원 5년.
8) 武田幸男, 1989, 「德興里壁畵古墳被葬者出自と經歷」, 『朝鮮學報』130, 27쪽.

악 3호분에서 2개체분의 인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명 중에 한명이 고국원왕이라면 또 다른 한명은 고국원왕비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373년에 집안 지역의 고국원에 고국원왕의 장례를 치르고, 그 후 고국원왕비가 죽자 합장하였을 것으로 생각해본 바 있다. 그 시기는 378년에서 380년 사이였을 것으로 고국원왕비가 죽자, 안악 3분을 조영하고, 집안에 있는 고국원왕의 시신을 옮겨와 합장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다.[9]



〈사진 1〉 성상번

여섯째, 안악3호분 노부행렬도에 '聖上幡'이라는 글씨가 있는 깃발이 있는 것도 이 무덤이 왕릉임을 말해준다.[10]

9) 이인철, 2000, 앞의 책, 115쪽. 현재, 길림성 집안 지역에는 파헤쳐진 듯한 무덤이 칠성산 211호분(서천왕릉 추정)과 서대묘(미천왕릉 추정), 칠성산 871호분 등이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39~117쪽)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봉상왕 5년에 모용외가 침입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묘를 보고, 사람을 시켜 발굴하다가 일하는 사람 중에 갑자기 죽는 자가 있고, 무덤 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므로 귀신이 있는가 하여 그만 두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칠성산 211호분이 있는 곳이 '故國原'이었다는 의미가 되나, 서천왕무덤은 조금 파헤치다가 그만두었으므로, 칠성산 211호분은 파헤쳐진 상태로 보아 서천왕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서천왕의 무덤은 오히려 칠성산 871호분이고, 칠성산 211호분이 본래의 고국원왕릉이 아니었을까 한다.

10) 박진욱, 1990, 「안악 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75호, 3쪽.

이상과 같은 필자의 논지를 보강해주는 연구가 북측에 나왔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악3호분을 고국원왕릉으로 볼 경우에 백제가 평양까지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평양 남쪽의 황해도 안악에 과연 왕릉을 조영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국원왕릉설의 최대 약점이었는데, 장수산성 일대가 고구려의 남평양이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11] 373년에서 380년 사이에 평양 이남에 해당하는 황해도 안악에 왕릉을 조영하였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해결되었다. 이는 『삼국사기』 권37 지리4 백제조에 근초고왕이 고구려 남평양을 취하고 한성에 도읍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문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실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는 예성강일대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었고, 이따금 백제가 그 이북으로 북상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강원도 철령 유적의 고구려건물터에서 발견된 기마모형의 배치와 배열 구성이 안악3호분의 행렬도를 방불케 한다는 발굴 연구결과와 나왔다.[12] 기마모형은 모두 58개로, 4개가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54개가 주조되었으며, 가장 작은 말모형을 제외하고 모두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고, 등에 안장이 얹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갑옷을 입힌 개마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연대하한이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이 유적에서 드러난 기마모형의 무리들

11) 안병찬, 1990, 「장수산성일대의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75호, 7~11쪽; 최승택, 1991, 「장수산성 1호 건물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81호, 34~38쪽; 최승택, 1991, 「장수산성의 축조년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80호, 14~19쪽; 최승택, 2000, 「고구려남부 부수도의 위성방위체계」, 『조선고고연구』 제117호, 22~26쪽.

12) 리순진, 1994, 「강원도 철령 유적에서 발굴된 고구려기마모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2~6쪽.

이 건물터 안의 동쪽과 북쪽에 ㄱ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대열편성도 동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앞무리, 가운데무리, 뒤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치와 배열구성은 고국원왕무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 철령에서 나온 고구려기마모형이 안악3호분의 그것을 방불케 한다면 안악3호분 무덤 그 자체뿐 아니라 무덤벽화의 무기 무장도 고구려의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01년과 2002년에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발굴하고, 이 무덤을 미천왕릉으로 비정한 견해가 나왔다.[13] 발굴보고에 따르면 태성리 3호분은 동명왕릉이나 덕흥리벽화무덤보다 크고 안악3호분에 버금가나 그 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다. 형태 또한 안악3호분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는 金冠을 장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제꽃잎형 장식품과 금제 살구잎형장식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부장품이라 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미천왕릉으로 보는 근거는 출토된 도기에 발려진 황록색이 4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것이고,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이 왕릉급에 해당되고 미천왕의 시신을 343년 2월에 전연에서 찾아왔고 그 해 7월에 수도를 임시 평양으로 옮겼다는 점을 든다.[14] 이처럼 태성리3호 벽화무덤이 미천왕릉이라면 그보다 규모가 약간 더 크고, 벽화가 세련된 안악3호분을 태성리3호 벽화무덤 축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고국원왕릉으

13) 「태성리에서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제121호, 47·49쪽; 「새로 발굴된 태성리3호고구려벽화무덤」, 『조선고고연구』 제122호, 37~39쪽, 49쪽; 김인철, 2002,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년대와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 122호, 6~13쪽.

14) 김인철, 2002, 앞의 논문, 7~11쪽.

15) 김경삼, 2004, 「새로 발견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 대하여」,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로 비정할 수 있다.[15]

이상과 같은 북측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 안악 3호분이 고국원왕릉이었음이 더욱 확실시되며, 안악 3호분의 노부행렬도(그림 1 참조)를 포함한 무덤내의 벽화를 고구려의 무기무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Ⅲ. 4~5세기 高句麗의 武器·武裝과 兵種構成

필자는 4~5세기에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이 백제와 신라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6] 이러한 주장은 고구려고분벽화와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된 무기와 무장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표 1〉 고분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무기와 무장

무덤명 \ 무기종류		활	철모	환두대도	철검	단도	철부	갑주	연대
1	평양역전벽화고분				1		6		4C전
2	감신총			4			4		4C전
3	안악 3호분	8	27	5	3		20	다수	4C후
4	씨름무덤	1				1			4C말
5	안악 1호분	1						2	4C말
6	안악 2호분		14	1				2	4C말
7	무용총	4				1			4C말

연구』(고구려연구재단), 282쪽.

16) 李仁哲, 1996, 앞의 논문; 2000, 앞의 책, 247~283쪽.

8	봉구 12호분	4	2	2					4C말
9	배산리사신총	1							4C말
10	약수리벽화고분	3	13	2			5	15	5C초
11	세간무덤		2	1				3	5C
12	대안리 1호분	1	7					다수	5C
13	팔청리벽화고분		1					1	5C
14	쌍기둥무덤	1	1					1	5C후
15	송죽리고분		6	1				다수	5C전
계		24	732	16	4	2	31	다량	150

우선,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무기와 무장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종래에 조사된 고분벽화의 무기·무장에 더하여, 2002년 황해도 연탄군 송죽리에서 새로 발견된 벽화무덤의 무기와 무장의 숫자가 포함되었다.[17] 송죽리 벽화무덤에는 다양한 주제의 벽화가 그려져 있으나 이 글의 논지전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안길 동벽의 창을 든 기병행렬과 서벽의 보병행렬이다. 보병이 들고 있는 무기는 벽화의 상태가 나빠서 확인할 수 없고, 기병이 들고 있는 무기는 약수리고분의 기병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긴 창이다. 안칸 남벽 서쪽에도 갑옷을 입고 환두대도를 든 병사가 그려져 있다. 사이길 두 벽에도 갑옷을 입은 문지기 장수가 그려져 있으나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송죽리벽화고분에서 확인된 무기는 기병용 긴 창 6개, 환두대도 1개이다. 이를 포함시켜 통계를 내면 〈

17) 김경삼, 2004, 앞의 논문, 278쪽; 조희승, 2004,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 벽화무덤의 력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고구려연구재단) 245~263쪽.

표 1)과 같이 된다.[18]

송죽리고분의 무기를 포함한 고구려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총합은 150점이다. 이 중에 고구려고분벽화에 철모가 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철부 21%, 활 16%, 환두대도 11%, 철검 2%, 단도 1%로, 철모와 환두대도의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표 2〉 고구려유적의 무기와 무장

유적명 \ 무기종류	활	철촉	명적	철모	끝형무기	환두대도	단도	도자	철부	철갑쪽	갈구리
1 노남리 남파동유적		3	2					1	1		
2 노남리 104호분			1								
3 심귀리 73호분		1							1		
4 풍청리 33호분				1				2	1		
5 공귀리 돌각담무덤		1									
6 고산진 적석무덤				6					1		
7 자성군 송암리유적		1									
8 범동리 돌간무덤							1				
9 농오리무덤				1			1				
10 평양역 구내고분	2	3									
11 안악 3호분				3							
12 고산동 10호분		3									
13 평양 평천리						1					
14 고산리 6호분					1						
15 고산리 7호분		4									

18) 송죽리고분벽화 발굴이전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의 총합은 143점이었고, 개별무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철모가 46.85%, 철부가 21.68%, 활이 16.78%, 환두대도가 10.49%, 철검이 2.79%, 단도가 1.39% 순으로, 철모가 가장 많았다(李仁哲, 1996, 앞의 논문; 2000, 앞의 책, 251~255쪽).

16	보림리 18호분					1						
17	장성리 적석총		5									
18	고령묘자촌 15호분		2		1		1					
19	집안동대자유적									1	1	
20	마선구 1호분		4						1			
21	집안 상해방고분		1		3		1			1		
22	산성자산성		1		1							
23	통구 13호분		4									
24	집안 만도리고분		2									1
25	환이현 연강향고분		2		2		5					
26	무순 고이산성		7		2							
27	집안 성후대대		6									
28	집안 민주대대		1									
29	북창군 대평리유적		3									
30	집안우산묘구적석묘		31		5		2	5			77	
31	집안장천2호분		5						1			
32	하활룡촌 고묘						1					
33	국내성지		2									
34	나통산성		4									
35	통구 고구려묘							1		1		
36	집안고구려묘		4				1				2	
37	산성하묘구332호분		12									
38	중강 토성리		4						1	1		
39	칠성산96호분		2		1							
40	우산하 41호분		1		2						155	
41	노남리 125호분		3									1
42	운평리 8호분				1		1			1		
43	평양시상원군2호분				1							
44	평양시 지경동무덤		6						1			
45	아차산·구의동유적		1350여		10			3	3	6	175	
46	마선 626호분		1									
47	칠성산 871호분		1									
48	우산 2110호분		2									
49	칠성산 211호분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0	우산 992호분										6	
51	마선 2100호분		2		1			3		1	263	
52	천추묘							1			21	
53	태왕릉		8					5	1	1	237	
54	장군총							1				
55	환도산성		42		1							
56	국내성		64		1							
57	오녀산성		397		1			3		3	342	
계(2117)		2	1995	3	44	2	13	24	11	21	1046	2

유적에서 나온 무기와 무장의 숫자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 구의동유적이 발굴되고, 최근 환인·집안지역 고구려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된 무기 무장의 숫자에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구려 무기와 무장은 활이 2점, 철촉 1995점, 멍적 3점, 철모 44점, 끝형무기 2점, 환두대도 13점, 단도 24점, 도자 11점, 철부 21점, 찰갑쪽 1046점, 갈구리 2점으로, 찰갑쪽을 제외한 무기의 총합은 2117점이었다. 무기 중에는 철촉의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19] 개별무

19) 이 통계는 1998, 『고구려문화사』(논장) 101쪽과 기타 발굴보고서 그리고 아차산 및 구의동 고구려 보루성 발굴자료(崔鍾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硏究』 28, 144쪽; ___, 2001, 「5~6世紀高句麗の武器と馬具」, 『古代武器硏究』 2, 4~17쪽; 2004년에 나온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의 『五女山城』,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집안시박물관가 펴낸 『國內城』, 『丸都山城』, 『集安高句麗王陵』 등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가 전체 무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활이 0.09%, 鐵鏃이 94.2%, 멍적이 0.14%, 철모가 2.08%, 끌형무기가 0.09%, 환두대도가 0.61%, 短刀가 1.1%, 刀子가 0.5%, 철부가 0.99%, 갈구리 0.09%였다. 이 통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은 철촉이다. 그렇다고 고구려군의 94%이상이 弓手였다고 볼 수는 없다. 화살촉은 그 속성상 각개 병사가 여러 개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무기의 속성으로 보면, 고구려병사들이 많이 소유했던 무기는 오히려 鐵矛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이 鐵斧와 短刀이고, 環頭大刀, 刀子 순이었다.

개별 무기의 속성을 보면, 우선 고구려의 활은 彎弓으로 길이가 짧아서 騎兵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20] 하지만 고분벽화에서는 수렵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활은 원칙적으로 보병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21] 고구려의 활촉은 초기에는 도끼날형·五角形·柳葉形 등의 넓적촉이 많았으나 나중에는 넓적촉 뿐 아니라 외날칼형·끌형·송곳형 등 뾰족촉이 나타나고 드물게는 變形細莖形도 있다.[22] 넓적촉은 적군이 화살을 맞았을 경우에 살상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나 적군이 甲冑로 무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통력이 떨어진다. 후기로 가면서 고구려군의 활에 뾰족촉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은 고구려의 전쟁 상대인 백제나 신라의 병사들이 점차 갑옷으

20) 전주농, 1958, 앞의 논문, 12쪽; 박진욱, 1964,「삼국시기의 활과 화살」,『고고민속』1964-3, 7쪽; 박진욱, 1970,「3국무기의 특성과 그것을 통하여 본 병종 및 전투형식」,『고고민속논문집』, 68쪽.

21) 堀田啓一, 1983,「高句麗壁畵古墳にみる武器と武裝-特に安岳3號墳と藥水里壁畵古墳を中心に」,『展望アジアの考古學講原考古學研究所論集』, 515쪽.

22) 金基雄, 1980,「古代 韓·日 兩國의 武器-考古學上으로 본 古代 韓·日關係史의 한 側面」,『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374쪽.

로 무장하였다는 의미가된다.

鐵矛는 자루 길이에 따라 장창과 단창으로 구분하는데, 기병은 長槍을, 보병은 短槍을 사용하였다.[23]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창을 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기병이다.[24] 칼에는 철검과 환두대도·대도·단도·도자가 있었다. 삼국시대에 칼을 사용한 병사는 대부분 보병이었다.[25] 도끼는 갑옷을 입은 적을 쳐 죽이는데 적절한 무기였다.[26] 안악 3호분이나 약수리고분의 벽화에는 보병만이 도끼를 들고 있다.[27] 갈구리나 鐵戈는 보병이 말을 탄 적의 기병을 끌어내리는데 적절한 무기였다.[28]

안악 3호분, 약수리고분 등의 고분벽화에서 보면 각개 병사들은 하나씩의 무기만을 소지하고 있다. 화살은 그 특성상 한명의 병사가 여러 개를 소지하지만 다른 무기들은 한 명의 병사가 한 개의 무기만를 소지하고 있어, 1병사 1무기가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발굴된 무기나 고분벽화에 그려진 무기 숫자를 파악하여 전체 군인의 병종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5세기경까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무기를 소지한 병사들을 보면, 활을 든 弓手가 24명, 창을 든 槍手가 73명, 환두대도를 소지한 刀手가 16명, 검을 든 劍手가 4명, 도끼를 든 斧鉞手는 31명이다. 이 가운데 刀手·劍手·斧鉞手는 모두 步兵이고, 弓手과 槍手 가운데는 步兵 혹은 騎兵이 있

23) 보병용 창은 200cm, 기병용 창은 250cm정도였다고 한다(金姓泰, 1994, 「高句麗의 武器(2)」, 『文化財』 27, 234쪽).
24)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68쪽; 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515쪽.
25)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68쪽; 김기웅, 1980, 앞의 논문, 460쪽.
26) 篠田耕一, 1992, 『武具と防具(中國編)』, 67~69쪽.
27)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68쪽.
28)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69쪽.

지만, 弓手는 주로 보병이고 창수는 주로 기병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보병은 궁수 24, 도수 16, 검수 4, 부월수 31, 도합 75명이고, 기병은 창수 73명이다. 보병이 50.7%, 기병이 49.3%정도였다. 간단히 말해, 5세기경 고구려군의 절반이 기병이고, 절반이 보병이었던 것이다.

최근 발견된 송죽리고분에도 기병과 보병의 행렬이 그려져 있다.(그림 2) 무덤의 안길 동벽에는 창을 든 기병행렬이, 서벽에는 보병행렬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29] 벽화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안길 동벽과 서벽에 같은 숫자의 기병과 보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벽면 배치 상, 같은 숫자의 기병과 보병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검토한 사항을 아울러 고려하면, 5세기경에 고구려군은 보병과 기병이 같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벽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전투에 기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사와 말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기병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전투에 투입되는 말은 그에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하고, 병사도 역시 기병으로서 수행해야 할 승마훈련과 승마를 한 상태에서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병사가 말 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있어,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자이다.[30]

등자란 사람이 말을 탈 때 디디고 오르며 말에 올라앉은 다음, 발을 넣음으로써 몸자세의 균형과 안정을 보장하고 다리의 피로를 방지할 뿐만 아니

29) 김경삼, 2004, 앞의 논문, 278쪽; 조희승, 2004, 앞의 논문, 256쪽.
30) 송태호, 2001,「우리나라에서 등자의 발생과 보급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20호, 23쪽.

타 말에게 속도를 가하기 위한 박차의 역할도 수행하는 마구이다. 고구려 유적에서 나온 등자로는 길림성 집안시 칠성산 96호 무덤, 만보정 78호 무덤, 마선구 1호 무덤, 우산하41호 무덤, 평양시 지경동 무덤, 통구12호 무덤, 요녕성 무순시 고이산성 유적 등에서 나온 등자가 있다.[31]

고구려 등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나무에 금속판(금동판 또는 철판)을 씌운 등자이고, 다른 하나는 쇠등자이다. 칠성산 93호 무덤과 만보정 78호 무덤에서 나온 등자들은 모두 나무에 얇은 금동판을 씌운 둥근 등자(윤등)들로서 자루가 길고 고리는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발 디디는 면을 불룩하게 하거나 못을 몇 개씩 박아 기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지경동 무덤과 우산하41호 무덤에서는 나무 전면을 철판으로 씌운 등자가 나왔는데, 자루가 비교적 짧고 기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발 디디는 면에 꼭지를 형성했거나 못을 박았다.[32]

무순 고이산성유적과 통구12호 무덤에서는 쇠등자가 출토되었다.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등자는 모 죽은 방형에 가까운 고리 윗부분에 구멍이 뚫린 꼭지부분이 있으며, 통구 12호 무덤에서 나온 등자는 긴 타원형을 절반 자른 듯한 고리윗부분에 길쭉한장방형의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다.[33]

고구려 등자 가운데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칠성산 96호분과 만보정 78호분에서 나온 것이다. 등자가 나온 이들 무덤이 기단식 적석총이라는 점과 유약을 바른 단지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3~4세기 정도로 편년될

31) 송태호, 2001, 앞의 논문, 23쪽.
32) 송태호, 2001, 앞의 논문, 23쪽.
33) 송태호, 2001, 앞의 논문, 24쪽.
34) 송태호는 칠성산 96호분을 2~3세기에 사용된 유약 바른 단지가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34] 태왕릉에서도 금도금한 등자가 발견되었는데, 4세기 좀 늦은 시기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5] 그 다음 시기인 5세기 초에서 중엽의 등자로는 마선구 1호 무덤과 우산하41호 무덤, 평양 지경동 무덤에서 나온 등자가 있다.[36]

덕흥리고분 벽화에 기병이 등자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고구려에 등자가 전래된 시기를 415년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37] 3세기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는 철령 유적에서 발굴된 기마모형에 등자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에 유의하면[38] 덕흥리고분이나 안악3호분에 등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화가가 등자까지 그려 넣는 섬세함을 보이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벽화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태왕릉에서 나온 등자는 장병계 등자이고, 풍소불묘에서 나온 등자는 단병계 등자로 차이가 나는데, 4세기대 조양지역의 등자가 모두 장병계 등자이므로, 고구려의 등자는 조양지역의 4세기대 등자를 계승한 반면에 풍소불묘의 등자는 단병계로 고구려와는 다른 별도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견해도,[39] 4세기 이전에 이미 고구

어 늦어도 3세기로 편년될 수 있다고 보았다.(송태호, 2001, 앞의 논문, 25쪽) 그러나 董高는 칠성산 96호분과 만보정 78호분에서 나온 등자를 4세기 중엽에서 4세기말로 편년하였다.(董高, 1995, 「公元三至六世紀慕容鮮卑,高句麗,朝鮮,日本馬具之比較研究」; 孫進己·孫海 主編,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326쪽)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379쪽.

36) 董高, 1995, 앞의 논문, 327쪽.

37) 申敬澈, 1985, 「古式鐙子考」, 『釜大史學』 9, 94~95쪽.

38) 리순진, 1994, 「강원도 철령유적에서 발굴된 고구려 기마모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5~6쪽.

39) 송계현, 2005, 「환인과 집안의 고구려갑주」, 『北方史論叢』 3, 184쪽.

려에 등자가채용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에서 검토된 바에 따르면, 고구려군은 기병만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기병과 보병으로 편성되었다. 이 점은 안악3호분이나 약수리고분 등의 고분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 뿐 아니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이나광개토왕비문을 통해서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철령에서 발굴된 기마모형은 기병을 핵심으로 하고, 거기에 보병을 배합한 고구려 육군의 병종구성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 육군의 병종구성은 당시 육군이 순 기병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흉노와도 다르고, 육군에서 보병이 기본 전투역량으로 되어 있던 남북조시기 이전의 중국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40]

요컨대, 고구려유적과 고분벽화에 보이는 무기와 무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고구려군은 기병을 기본 전투역량으로 하고 거기에 보병을 배합한 병종구성을 갖추고 있었는데 5세기경에 고구려육군은 보병과 기병이 대략 같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Ⅳ. 4~5세기 고구려의 重裝騎兵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동천왕 20년(246)에 鐵騎 5千을 거느리고 魏의 대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군이 鎧馬와 甲冑로 무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3세기중반 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41] 고분벽화에서는 4세기

40) 리순진, 1994, 앞의 논문, 5쪽.

41) 손영종, 2004,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 떨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북한의최근 고구려사 연구』(고구려연구재단), 196쪽.

전반부터 고구려 병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갑주는 대부분 鐵로 된 札甲로 만들어졌으나 革甲도 있었다.[42] 감신총에 이어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는 사람뿐 아니라 말까지도 갑주로 무장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43] 개마총에는 '塚主着鎧馬之像'이라 하여, 철갑으로 무장한 말을 '鎧馬'라 기록하고 있다. 말과 병사가 鐵鎧甲冑와 장창으로 중무장한 鎧馬長槍騎兵이야말로 상대편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줄 뿐 아니라 적군의 살상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쟁양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이를 '重裝騎兵'이라 불러왔다.[44]

고구려개마는 말투구(마면갑), 말갑옷(마갑), 말장구(마구)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말투구는 말의 머리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철판을 말머리모양으로 오려서 둥그렇게 감싸 덮었다. 콧구멍 부분은 드러내거나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름을 잡았다. 말의 눈 부분은 원형으로 오려내었고, 볼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반원형의 볼막이를 만들었다. 말귀부분에는 귀막이를 달았는데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꽃잎모양을 만들었다. 삼실총, 마선구1호분, 쌍영총, 개마총 등의 벽화에 그려진 개마와 철령 유적에서 나온 개마모형에서 이러한 말투구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악3호분이나 약수리고분에 보이는 말투구의 귀막이는 둥근 형태를 띠고 있으며, 덕흥리고분,

42) 전주농, 1959, 앞의 논문, 53~66쪽; 박진욱, 1970, 앞의 논문, 56쪽.
43) 송순탁, 2004, 「고구려가 동아시아문화발전에 논 역할」 앞의 책, 212~214쪽.
44) 중장기병 이외에 '鐵甲騎兵'이라는 용어도 필자가 출현한 방송제작진이 사용한 이후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 또한 철제갑옷으로 무장한 기병을 적절히 묘사한 용어라 할 것이다.

삼실총, 마선구1호분, 쌍영총, 개마총의 말투구 귀막이는 3개의 꽃잎모양으로 되었고, 그 위에 술이나 뱅기, 새 깃털과 같은 치레걸이들이 꽂혀있다.[45]

말갑옷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찰갑(철갑옷)이고, 다른 하나는 혁갑(가죽갑옷)이다. 갑옷은 말목부분과 몸통부분을 다 씌우고 아래는 말발굽을 제외한 다리부분을 다 가릴 수 있도록 길게 내렸으며 밑에는 톱날형의 두꺼운 천을 대었다. 말꼬리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칼이나 창에 의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말잔등 부분에는 갑옷을 2중으로 덧대었다.[46] 말장구는 일반기병들이 사용하는 마구와 같이 사람이 말에 타기 위한 안장과 등자 및 그것을 장치하기 위한 말띠와 띠고리, 말을 부리기 위한 자갈과 굴레, 고삐와 행엽 그리고 행엽, 운주, 방울, 기발대를 비롯한 장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다.[47]

동천왕 20년(246)에 위군과 싸운 鐵騎는 철갑옷으로 무장한 중장기병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중장기병에는 본래 철갑옷을 입은 철갑개마와 가죽옷을 입을 혁갑개마가 있었다. 안악3호분과 약수리고분의 행렬도에는 두 종류의 개마가 모두 그려져 있다. 하지만 5세기에는 혁갑개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48] 고구려는 313년경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대동강유역으로 남하하였다. 고구려의 낙랑지역 점령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사항은 낙랑지역인 정백동 2호분, 정오동 5호분•10호분, 부조예군묘 그리고 석암리 9호분•200호분•212호분, 이천리 1호분 등에서 쇠뇌가 출토되었다는

45) 손수호, 1997, 「고구려의 개마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04호, 22쪽.
46) 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2쪽.
47) 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2쪽.
48) 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5쪽.

사실이다.[49] 낙랑지역을 점령한 고구려가 낙랑의 쇠뇌제작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쇠뇌를 제작하거나 그 기술을 섭취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원도 철령 유적에서 발굴된 58개의 고구려 기마모형은 안악 3호분의 행렬도와 비슷한 무장과 배열을 하고 있어서[50] 4세기 후반에는 고구려의 기마문화가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음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요녕 원태자묘, 同북묘 풍소불묘, 同 北溝M8, 西溝墓, 나마동묘, 대년자묘, 朝陽의 원태자4호묘, 요금구1호·2호묘, 십이태향 전창 석곽묘 등에서 나온 甲冑와 馬具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모용선비의 기마문화가 고구려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다.[51] 하지만 고구려의 갑주기마문화가 중국의 그것에 비해 우수했다는 주장도 있고,[52] 馮素弗墓의 馬甲이 동시기 고구려의 마갑 소찰과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4세기 대에 三燕의 갑주가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으나 5세기초에

4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1, 『北韓文化財總攬』, 34~55쪽; 리창언, 1986, 「귀틀무덤에 묻힌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년 1호, 6~12쪽.

50) 리순진, 1994, 앞의 논문, 1~7쪽.

51) 中山淸隆, 2002, 「馬具からみた鮮卑·高句麗·伽耶」, 『淸溪史學』 16·17, 312~317쪽.

5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진-동진시기(4세기)로 편년되는 초창파1호무덤에서 나온 개마도용을 보면, 태성리1호분이나 안악3호분 벽화에 나오는 완전한 개마의 형태에 비해 훨씬 미숙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고구려 중장기병의 무장이 중국의 그것에 비해 우수했다는 견해도 있다.(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6쪽) 또, 4세기 이후 5~6세기 백적산 소찰 127굴 벽화에 보이는 북위시기(435~533)의 개마는 가죽갑옷을 입힌 것이며, 남조시기의 무덤인 단양현 호교대무덤에 그려진 개마나 서위시기(534~564)의 돈황벽화에 그려진 개마들도 몸통부분을 한겹으로 감싸고 말다리부분을 다 드러낸 것이었다고 한다.(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8쪽)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157~172쪽; 沈從文, 1997, 앞의 논문, 190~191쪽.

는 三燕과 고구려가 재지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각각 별도로 변화해갔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었다.[53]

영락 18년(408)에 조영된 덕흥리고분에는 계현령이 쇠뇌를 들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중장기병대가 그려져 있다. 광개토왕대의 또 다른 벽화고분으로 약수리고분이 있다. 이 고분에 보이는 행렬도는 안악 3호분의 그것에 비하여 빈약하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에서는 좌우 각기 3열의 병사들이 주인공을 호위하고 있으나, 약수리고분의 벽화에서는 좌우 1열의 병사들이 주인공을 호위하고 있다. 안악 3호분에 보이는 弓矢는 약수리고분벽화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약수리고분벽화의 주인공이 안악 3호분벽화의 주인공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54] 지위가 낮음에도 약수리고분벽화는 찰갑으로 무장한 鎧馬의 숫자(14)가 안악 3호분(8)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다.

송죽리고분 역시 무덤내부의 구조형식과 벽화의 내용들로 보아 5세기 전반기로 편년된다.[55] 송죽리고분벽화는 다양한 화제로 이루어져 있다. 문지기장수와 꿇어앉은 시종관 비슷한 인물(무관), 말을 타고 활로 노루나 범을 사냥하는 인물, 투구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무사대오와 대열, 말을 끌고 가는 견마잡이 아이, 소달구지에 무엇을 가득 싣고 가는 인물, 평상 위에 앉은 주인공 등 다양한 그림들이 펼쳐져 있다. 특히 현실(무덤칸) 안쪽 벽에 앉은 주인공이 동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소달구지를 싣고 온 물건들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 벽화무덤의 주인공이 지방행정장관을 겸한 높은 관료이며 무장적인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56]

53) 송계현, 2005, 앞의 논문, 185쪽.
54) 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523쪽.
55) 조희승, 2004, 앞의 논문, 251쪽.

송죽리고분 벽화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안길 동벽과 서벽에 그려진 갑옷을 입은 기병과 보병의 행렬도이다. 기병행렬은 약수리고분 노부행렬도 뒤편의 기마대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아직 벽화를 전체적으로 복원하지 못한 단계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렬도 자체가 약수리고분이나 안악3호분에 비해 규모가 작다. 고분의 위치나 규모로 보아무덤의 주인공이 지방행정장관을 겸한 무장적인 인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수리고분은 그보다 신분이 높은 왕족이나 귀족이고, 안악 3호분은 왕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지방행정장관급의 무장이 거느린 병사가 갑주와 개마로 무장하였다는 사실은 5세기 전반 약수리고분이나 송죽리고분 벽화의 단계에 이르면, 고구려의 일반 병사들도 甲冑와 개마로 상당수 중무장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57]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는 바로 이처럼 갑주와 개마로 무장한 鐵騎를 앞세우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던 것이다.[58]

그러면 5세기이후 고구려군은 모두 重裝騎兵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56) 김경삼, 2004, 앞의 논문, 278쪽; 조희승, 2004, 앞의 논문, 249~251쪽.

57) 약수리고분 벽화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고구려군의 무기와 무장이 步兵重視에서 騎兵重視로 전환하고 기마병의 방어용무장인 甲冑와 鎧馬의 장비와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가 있었다.(堀田啓一, 1983, 앞의 논문, 511~512쪽)

58) 4세기말~5세기초에 중장기병의 성격이 호위병적인 성격에서 기마전사단으로 변화해간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金斗喆, 2000, 「韓國古代馬具의 硏究」(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계현, 2005, 앞의 논문, 171쪽) 고구려 중장기병이 본래 호위병적인 성격을 지녔느냐는 문제는 고분벽화양식에 따른 현상인지, 실제 그러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기마전사단으로 변해갔다면 이는 일반병사들도 중장기병으로 편성되었다는 의미가 될 터이다.

사실은 약수리고분벽화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약수리고분벽화에 보면, 말을 탄 사람 가운데 20명은 갑주와 개마로 무장한 병사가 아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기병 가운데 절반정도는 여전히 갑주와개마로 무장하지 않았다. 기병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은 궤멸되어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중장기병은 輕騎兵에 비해 질주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퇴각할 시기에 적의 輕騎兵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전투에서 인명피해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때 발생한다.[59] 반대로 반격을 가하는 측에서 적군을 추격하는 데는 경기병이 질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리하다. 자연히 고구려성내부에는 적을 반격하기 위한 경기병이 상당수 주둔하고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경기병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마를 탄 중장기병은 강력한 철갑장비에 의거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격전선에서는 전투대형의 선두에서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가 되었다.[60] 비록 신라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백제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官昌이 甲馬와 單槍으로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 싸우다가 붙잡혔는데, 계백이 갑옷을 벗겨보고 나이가 어리고 용감한 것을 사랑하여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다.[61] 이때 관창의 갑옷을 벗겨보고 나이가 어린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관창이 얼굴까지도 가리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양국군이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공격을 망설일 때, 적진을 돌파하여 적의 전열을 흐트리는데 重裝騎兵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59) 아더 훼릴 저/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110쪽.
60) 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5쪽.
61) 『三國史記』 권5 太宗武烈王 7년 7월 9일.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고구려고분벽화에서는 팔청리고분과 대안리1호분 벽화에 보면 기마대열의 앞에 항상 중장기병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어전에서는 중장기병이 전면에서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방호벽의 역할을 하였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고분의 행렬도에서 왕과 귀족의 수레 제일 바깥 열에 중장기병이 줄지어 행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이들 벽화는 전투시나 행군시에 중장기병이 항상 전면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62]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병은 주로 정찰을 위한 목적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적군의 측면 또는 후면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다.[63] 정찰이나 적군의 측면이나 후면 공격은 기동력이 빠른 輕騎兵이 훨씬 유효하다. 기병공격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병의 근접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기병 못지않게 보병이 필요한데 약수리고분의 벽화에는 도끼를 멘 상당수의 보병이 그려져 있다. 이는 고구려군의 병종편성이 기병이 중심이었기는 하지만 보병도 상당수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요컨대, 고구려의 중장기병은 처음에 혁갑과 철갑으로 무장하였으나 점차 혁갑은 사라지고 5세기경에는 모두 철갑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철갑으로 무장한 철갑기병 즉, 철갑중무장기병을 주변국에 비해 훨씬 많이 보유하였고,[64] 그 중장기병은 전투시나 행군시에 항상 전면에서 적에게 커다란 타격을 줌으로써 고구려군에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막강의 고구려 철갑중장기병도 단독 전투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步兵과 輕騎兵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영토확장에 중요한 역

62) 손수호, 1997, 앞의 논문, 25쪽.
63) 아더 훼릴, 1990, 앞의 책, 109쪽.
64) 이인철, 2000, 앞의 책, 262~282쪽.

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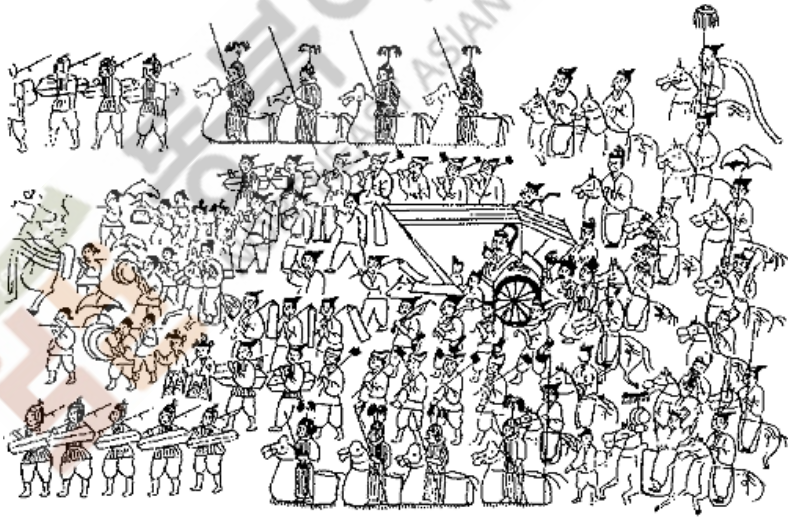
고구려는 4~5세기에 남쪽으로 낙랑·대방을 축출하고, 동예를 복속하고, 백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중부이북을 차지하였다. 북쪽으로는 북부여와 동부여를 손아귀에 넣고, 숙신을 정복하고, 요동을 차지하였으며, 한 때는 요서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영토확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였지만 무엇보다 고구려의 우수한 무기와 무장의 역할이 컸다.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에 대한 연구는 고분벽화를 근거로 한 연구와 유물을 분석한 연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고분벽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안악3호분 벽화에 보이는 무기와 무장이 그 규모와 내용면에 있어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동안 무덤의 주인공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릉이라는 주장을 한층 보강함으로서 분석의 전제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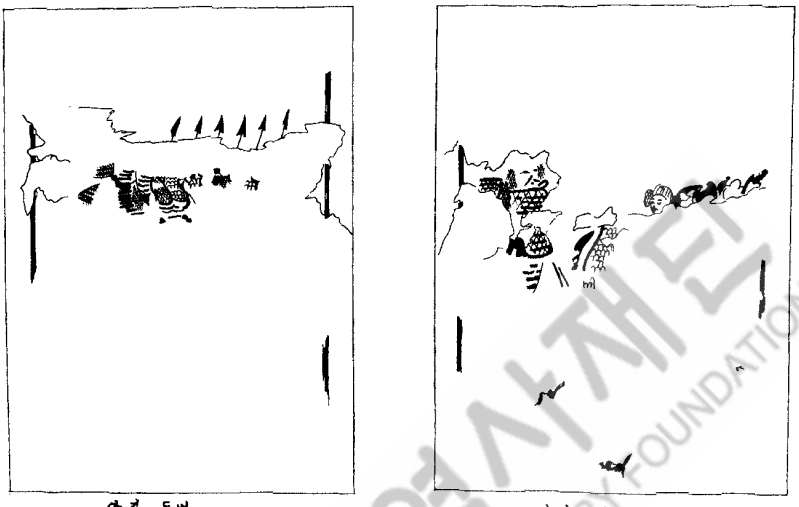
고구려의 무기로는 활, 鐵鏃, 명적, 철모, 끌형무기, 환두대도, 短刀, 刀子, 철부, 갈구리 등이 있었는데, 출토유물을 통해서 보면 활이 2점, 철촉 1995점, 명적 3점, 철모 44점, 끌형무기 2점, 환두대도 13점, 단도 24점, 도자 11점, 철부 21점, 찰갑쪽 1046점, 갈구리 2점으로, 찰갑쪽을 제외한 무기의 총합은 2117점이었다. 활을 제외하고 고구려병사들이 많이 소유했던 무기는 鐵矛였고, 그 다음이 鐵斧와 短刀이고, 環頭大刀, 刀子 순이었다. 고분벽화를 통해서 보면, 활을 든 弓手가 24명, 창을 든 槍手가 73명, 환두대도를 소지한 刀手가 16명, 검을 든 劍手가 4명, 도끼를 든 斧鉞手는 31명이었

다. 이 가운데 보병은 궁수 24, 도수 16, 검수 4, 부월수 31, 도합 75명이고, 기병은 창수 73명이었다. 보병이 50.7%, 기병이 49.3% 정도로서, 5세기경 고구려군의 절반이 기병이고, 절반이 보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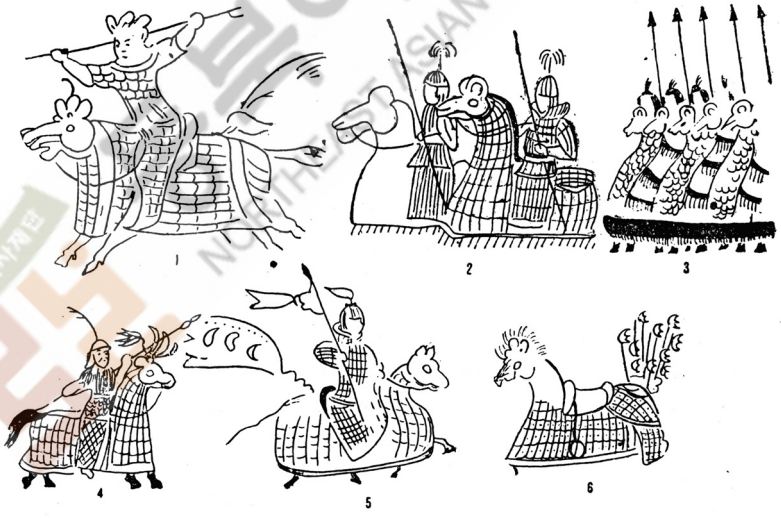
4~5세기에 고구려군이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鐵甲으로 무장한 중장기병, 즉 鐵騎의 보유비중이 주변국보다 높았던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이 주변국에 비해 우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무기와 무장을 만들 수 있는 제철·제련 기술을 포함한 고구려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5세기 고구려의 대대적인 영토확장은 고구려의 무기와 무장을 포함한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이 주변국에 비해 우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1〉 안악(安岳) 3호분의 행렬도



〈그림 2〉 송죽리고분의 기병과 보병



〈그림 3〉 고구려 중장기병
1. 삼실총 2. 안악3호분 3. 약수리고분 4. 덕흥리고분 5. 쌍영총 6. 개마총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

-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 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

고광의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高句麗는 5세기 초를 전후하여 주변 민족들을 복속키시고 영토를 펑창하는 등 이전에 비해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 시기는 고구려의 書寫文化的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佛經이 수입되고 太學이 설립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서사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碑, 金屬器, 印章, 瓦·塼·陶器 등의 명문과 벽화무덤에 남아있는 다양한 墨書들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서사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414년에 세워진 廣開土太王碑는 규모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글씨 또한 매우 뛰어나 고구려 서사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은 중원 지역에서 東漢 말기 이래 시행되던 禁碑令이 한창 강하게 지속되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서는 오히려 대대적인 立碑를 추진하였고, 또 金石史에 길이 빛나는 광개토태왕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중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관 속에서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던 고구려인의 天下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에 나타난 광개토태왕의 立碑政策을 검토하고 石碑樣式과 書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해 봄으로써, 광개토태왕비에 반영된 고구려 서사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廣開土太王의 自主的 立碑政策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는 제5대 太祖大王이 즉위 46년에 "東巡柵城"하고 "紀功於巖"했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고구려 초기의 금석문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 봄 3월에 왕은 동쪽으로 柵城을 돌아보았는데, 책성의 서쪽 嶲山에 이르러 흰 사슴을 잡았다. 책성에 이르자 여러 신하와 더불어 잔치를 베풀어 마시고, 책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차등을 두어 물건을 내렸다. 마침내 바위에 공적을 새기고 돌아왔다. 겨울 10월에 왕은 책성으로부터 돌아왔다.[2]

1)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19, 31~66쪽; 2000, 『고구려사 연구』(서울, 사계절), 356~391 참조.

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第3, 大祖大王四十六年條: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嶲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群臣宴飮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功於巖 乃還 冬十

위의 내용은 태조대왕이 당시 고구려의 東邊인 柵城으로 순수하여 대신들과 연회를 베풀고, 그 곳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하사품을 내려준 사실 등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책성으로부터 국내성으로 귀환하기 전 대왕의 공적을 암석에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원후 98년에 고구려 태조대왕이 책성을 巡狩[3]하고 현지의 백성들을 위무한 공적을 금석문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금석문은 1세기 말 고구려 책성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며, 그 내용은 당연히 巡狩紀功的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또 그 재질이 '巖'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금석문은 돌에 글자를 새긴 石刻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석각은 쉽게 옮겨질 수 있는 것이거나, 혹은 산야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암벽일 것이다. 고대 금석문에서 석각은 일반적으로 磨崖와 碣을 포괄하는 刻石을 비롯하여 碑, 墓誌, 塔銘, 經幢, 造像題記, 畵像石, 經版, 地券 및 건축물에 부속된 刻銘 등으로 분류된다.[4] 따라서 이 석각의 형태를 추정해 보면, 만약 이동 가능한 암석일 경우는 碑 또는 碣이라고 할 수 있고, 고정된 암벽이라면 磨崖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애와 갈을 비와 구분하여 각석이라고 통칭함으로, 이 석각의 형태는 비 혹은 각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석각을 제작 주체와 명문의 내용 및 서사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름을 붙인다면 '柵城太祖大王巡狩

月王至自柵城"

3) 太祖大王의 東巡柵城의 巡狩的 性格에 대해서는 申瑩植, 1981, 「巡幸의 類型과 性格」, 『三國史記硏究』(서울, 一朝閣), 172~184쪽; 1981, 「巡幸을 통해서 본 三國時代의 王」, 『韓國學報』25; 1984, 『韓國古代史의 新硏究』(서울, 一朝閣), 85~110쪽; 金瑛河, 1985, 「高句麗의 巡狩制」, 『韓國學報』106을 참조할 것.

4) 趙超, 1997, 『中國古代石刻概論』(北京, 文物出版社), 3~32쪽 참조.

碑' 혹은 '柵城太祖大王巡狩刻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석각은 행방이 묘연하여 실물은 향후 발굴을 기대해야 되는 실정이다. 다만 석각이 책성 또는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책성 유지로 유력하게 비정되는 溫特赫部城[5]의 지리적 위치가 琿春 분지의 평야지로서 가까운 주변에 암벽지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석각은 이동 가능한 碑 또는 碣의 형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든다.[6]

고구려에서 금석문으로서 碑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타나고, 立碑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광개토태왕대에 이르러서이다. 당시 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광개토태왕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祖先王 이래 무덤에 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守墓人 烟戶들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었다. 이에 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는 조선왕을 위하여 무덤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셨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셨는데, 수묘인을 지금 이후로 다시는 서로 팔아넘기지 못할 것이며, 비록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영을 거스른 자가 있다면, 판 사람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사람은 자신이 수묘하도록 하라고 하셨다.[7]

---

5) 방학봉, 1999, 「고구려 책성의 위치에 대한 고찰」, 『京畿史學』3 참조.

6) 이 석각의 형태와 관련하여 참고 되는 것으로는 평안남도 용강군 해운면 어을동 낙랑 토성지에서 발견된 平山君師哥碑(혹은 祖禰新師哥碑)가 전하고 있다. 이 석각은 관례상 '碑'라고 칭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문에 명시된 것처럼 일종의 '刻石'이다. 이 석각은 대략 1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고구려와 인접했던 평양 지역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각석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책성에 건립된 석각 또한 전형적인 '碑'라기 보다는 '碣'의 형태를 한 刻石일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인다.

7) 『廣開土太王碑』第4面.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惟國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는 광개토태왕 이전에는 무덤에 石碑를 세우는 일이 없었으며, 광개토태왕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를 세운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도 守墓人들이 유력자들에 의해 사사로이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광개토태왕이 생전에 이러한 특별한 영을 내린 것은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광개토태왕대에 이미 고구려 왕릉의 수묘제도에 어떤 형태로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마도 외적인 세력 팽창에 집중한 나머지 귀족세력의 발호 등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부작용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 이에 광개토태왕은 왕권의 강화 차원에서 왕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묘제도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일환으로 조선왕의 릉에 碑를 세워 수묘인 연호를 기록하였다고 보인다. 즉 고구려에서 이전에는 왕릉에 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광개토태왕대에 이르러 수묘제도의 보완책으로 석비를 세우고 수묘인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묘비를 세우는 제도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광개토태왕은 고구려 제19대 왕으로 수묘 대상인 祖先王은 모두 18명이다. 따라서 묘비제도의 시행으로 세워질 석비는 18기였을 것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始祖 東明聖王은 卒本 龍山에 장사지냈으므로[8] 그의 묘비는 졸본지역에 있을 것이고, 생전 교시에 따라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고 閔中原 석굴에 장례한[9] 閔中王의 묘비 건립 유무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

강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第1, 始祖東明聖王十九年秋九月條.

도, 졸본과 국내성 지역에는 적어도 17기의 왕릉과 묘비가 있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集安 지역에는 20여 기의 왕릉급 무덤들이 있다고 한다.[10] 그러나 이들 왕릉급 무덤 가운데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태왕비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석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광개토태왕 재위 기간에 과연 묘비들이 실제로 세워졌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광개토태왕대 입비 정책의 시행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고구려에서 이러한 국책성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당시 중원에서는 曹操가 厚葬으로 인한 사치의 폐허를 막고 전란으로 피폐해진 북방의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시행하였던[11] 禁碑令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되었고, 특히 광개토태왕 재위 시기인 東晋 말기에는 다소 느슨해졌던 금비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

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第2, 閔中王四・五年條.

1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北京, 文物出版社).

11) 『宋書』卷15, 「誌」第5, 〈禮〉2. "漢以後, 天下送死奢靡, 多作石室石闕石獸石人碑銘等物. 建安十年, 魏武帝以天下彫弊, 下令不得厚葬, 又禁立碑."

12) 『宋書』卷64, 「列傳」第24, 〈裴松之〉. "松之以世立私碑, 有乖事實, 上表陳之曰: '碑銘之作, 以明示後昆, 自非殊勳異德, 無以允應茲典. 大者道動光遠, 世所宗推, 其次節行高妙, 遺烈可紀. 若乃亮不登庸, 績用黜著, 敷化所茲, 惠訓靡遠, 述詠所寄, 有賴勸勒, 非其施也. 則幾乎僭黷矣. 俗敝偽興, 華頌已久, 是以孔悝之銘, 行是人非; 蔡邕制文, 每有愧色. 而自時厥後, 其流彌多, 預有臣吏, 必爲建立. 鞏銘寡取信之實, 刊石成虛僞之常, 眞僞相蒙, 殆使合美者不貴, 但論其功費, 又不可稱. 不加禁裁, 其敝無已.' 以爲'諸欲立碑者, 宜悉令言上, 爲銘讚所許, 然後聽之. 庶可以防遏無徵, 顯章發實, 使百世之下, 知其不虛. 則義詩於仰止, 道孚於來葉.' 由是並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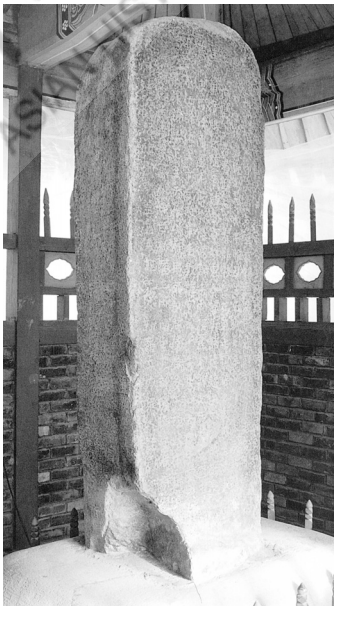
이다.[12] 중원의 삼엄한 금비정책 하에서 광개토태왕이 이에 반하는 대대적인 입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실은 중화적 역학 질서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곧 국력의 신장으로 형성된 고구려 중심적 천하관의 자연스런 표출인 것이다.

Ⅲ. 墓上立碑와 石柱碑 樣式의 採用

廣開土太王의 立碑政策을 계승한 長壽王은 대왕의 서거 2년 후인 414년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현재 中國 吉林省 集安에 우뚝 서있는 廣開土太王碑(그림 1)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1〉 광개토태왕비



〈그림 2〉 중원고구려비

비의 높이는 6.39m이고, 한 면의 넓이가 1.3m에서 2m까지 불규칙적이며, 무게가 약 40톤에 이르는 거비이다. 재질은 표면에 자갈돌이 여기 저기 박혀 있어 글자를 새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산암의 일종인 角礫凝灰巖이다. 주지하다시피 집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적석무덤이나 성곽 유적은 화강암으로 축조되었고, 석재를 공급하던 채석장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개토태왕비의 채석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석질이 화산암이란 점과 지역적 근접성으로 보아 백두산 부근어디에선가 광개토태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옮겨온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비의 전체적인 형태는 글자를 새기기 위해 비면을 약간 다듬은 흔적을 제외하면, 자연석에 가까운 거대한 돌기둥 모양을 하고 있어 일종의 石柱碑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주비는 중원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광개토태왕대의 자주적 입비정책이 반영된 고구려의 독창적인 석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에서 채용된 이러한 석주비 양식은 이후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편입된 고구려의 최남단지역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그림 2)에도 계승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비는 높이 126~144㎝, 한변의 너비가 31~55㎝인 화강암 재질로 각 면의 형태가 불규칙한 사각 기둥 모양이다. 광개토태왕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면의 치석이 잘되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외형은 그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닮아 있다. 장수왕대 서로 멀지 않은 시기에 건립된 두 석비에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점은 고구려에서 석주비가 독립된 양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석주비는 5세기 이후 무덤 양식의 변천과 함께 귀족 사회에서 더욱 독특한 묘비 형태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고구려 시기의 묘비로 알



〈그림 3〉 M1411 묘비



〈그림 4〉 M1080 묘비

려진 유물은 모두 3기로, 주로 봉토무덤인 산성하무덤떼 M1411무덤과 우산무덤떼 M1080무덤 및 네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M1411무덤의 것(그림 3)은 원래 분구 위에 있던 것이 굴러떨어져 현재는 무덤 앞쪽에 세워져 있다. 비의 전체 높이는 116cm, 위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팔각기둥 형태이다. 팔각기둥의 가장 아래 부분의 직경이 85cm이다. 정상 부분은 직경 48cm, 높이 14cm의 팔각뿔 형태로 마무리 되었다. 팔각 변의 길이 차이가 약간씩 나기는 하지만 기둥의 모서리가 분명하고 비면이 고르게 치석되었다. 또 M1080무덤에서 수습된 것(그림 4) 역시 원래는 분구의 정상부에 세워졌던 것인데 도굴 구멍으로 흙이 유입되면서 거꾸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비의 전체 높이는 160cm, 정면 폭 97cm, 측면 폭 73cm의 사각기둥형 원석의 아래 부분을 27cm가량 남겨두고 위쪽으로 네 모서리 부분을 따내어, 몸통의 넓은 면과 좁은 면이 반복되는 팔각기둥 형태이다. 몸통의 중간부터 조금씩 폭을 좁혀가다가 상단을 원형에 가깝게 마무리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방형의 좌대를 갖춘 위가 좁고 끝이 둥근 팔각기둥의 형태이다. 이들 두 비석은 비면이 풍화로 인해 부분적인 훼손이

많고, 글자는 원래부터 새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3]

한편 네무덤 3호 무덤의 것은 언제 어떻게 출토되었는지 아직까지 정식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필자가 몇 차례 답사를 통해 조사한 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14] 이미 알려진 것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집안 우산무덤떼 다섯무덤 1호 무덤 뒤쪽으로 4기의 무덤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 이를 네무덤(현지에서는 四盜墳이라 함)이라고 한다. 네무덤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서쪽에서부터 차례로 1·2·3·4호 무덤이라 부른다.(그림 5)



〈그림 5〉 네무덤 전경

그 중 2호 무덤과 3호 무덤 사이에서 약간 붉은색이 도는 화강암 석비 하나가 발견된다.(그림 6) 그 형태는 위 부분이 사각뿔에 가깝고,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져 전체적으로는 위가 뾰족한 사각기둥 모양이다. 밑 부

13) 阮起東·林至德, 1983, 「集安洞溝兩座樹立石碑的高句麗古墓」, 『考古與文物』2;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94~96쪽.

14) 이 유물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필자가 2002, 「5세기 高句麗 書藝의 特徵 硏究」, 『書藝學』2(韓國書藝學會)에 발표한 바 있다.

분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높이가 약 140cm 정도이다. 측면에서 가장 넓은 면의 폭은 약 68cm, 몸통의 가장 굵은 부분에서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약 80cm이다. 석비의 표면은 비교적 매끄럽게 치석되었으며, 글자를 새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6〉 네무덤 3호무덤 묘비



〈그림 7〉 네무덤 3호무덤 좌대

이 석비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네무덤 1·2·3호 무덤 분구 정상에 놓여 있는 판석형 좌대이다. 3호 무덤의 좌대는 먼저 작은 자갈로 편평하게 고른 뒤 그 위에 놓여진 상태이다.(그림 7) 좌대는 윗면이 비교적 편평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자연석 형태로 변의 길이는 약 186cm×160cm, 두께 약 35cm이다. 특히 이 좌대 남쪽 아래 부분의 분구 중간에는 석비와 같은 재질로 보이는 화강암 석편들이 여기 저기 박혀 있어 원래의 석비 위치는 3호 무덤 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1호 무덤 좌대는 약간 붉은 색이 도는 화강암으로 비교적 정교하게 다듬었다.(그림 8) 그 측면의 형태가 평행사변형 꼴로 가장 긴 밑변이 약 178cm이다. 윗면의 한 변 길이는 약 82~86cm이다. 표면은 매끄럽게 가공되었으며, 경사면에는 정으로 쪼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호 무덤 좌대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변의 길이는 220cm×197cm, 두



〈그림 8〉 네무덤 2호무덤 좌대



〈그림 9〉 네무덤 1호무덤 좌대

께가 약30㎝이다.(그림 9)

이상과 같이 집안 지역 봉토무덤에서 발견된 석비들의 실체는 고구려 사회에서 석주형 묘비가 일정하게 유행하였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무덤 봉분 위에 놓여 있는 일련의 좌대는 이들 묘비의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다. 광개토태왕비문에는 "墓上不安石碑……墓上立碑"라고 하여 석비의 위치가 '墓上'이라 하였다. 이 '墓上'을 일부 학자들은 무덤의 위라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관례를 들어 '墓前'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15] 그러나 봉토무덤에서 이러한 명백한 고고학적 유물들의 발견은 고구려 묘비의 건립 위치가 비문에 기록된 것처럼 '墓上' 즉 '무덤의 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독특한 무덤 양식인 '墓上立碑'는 계단식적석무덤의 묘상건축의 구조적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집안 지역에서 왕릉급으로 보고된 계단식적석무덤인 서대무덤, 천추무덤, 태왕릉 등에서는 기와나 벽돌 등 건축 자재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보다 축조

15) 吉林省古考研究室·集安縣博物館, 1984, 「集安高句麗古考的新收獲」, 『文物』1.

년대가 후대로 보이는 將軍塚의 정상부 네 변에는 직경이 10cm 가량 되는 원형의 구멍들이 뚫려 있어 일정한 시설을 위한 기둥을 세웠던 자리로 추정된다. 그리고 장군총 남쪽에서 이 시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삭 22마디가 발견되었다.[16] 각 마디의 길이는 28cm이며, 모양은 양쪽을 둥글게 말아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중에서 두 개의 철삭에는 "條一"과 "條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원래 사용된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 구멍과 철삭들은 무덤 위 난간에 기둥을 세우고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군총 상부에 건축물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17] 이러한 적석무덤에서 나타나는 묘상건축의 특징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평양천도 이후 점차 봉토무덤으로 이행되면서 무덤 위에 시설물을 세우는 것이 구조상 어렵게 되자, 이전의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구 위의 공간에 대체물로서 묘비를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묘비가 발견되는 무덤들은 대략 5세기 중엽 이후의 중상류급 귀족들의 것으로 추정되어,[18] 광개토태왕대에 묘비제도가 성립된 이후 일부 귀족들의 무덤에서도 점차 묘비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묘비는 그 형태가 끝이 둥글거나 뾰족한 사각기둥 혹은 팔각기둥 형태의 비교적 정교하게 조각된 人工石材碑로서, 이전의 광개토태왕비나

16) 무덤 위에 일정한 구조물을 세우는 풍습은 東北亞 古民族 가운데 하나인 勿吉에서도 행해지고 있다.(『魏書』卷100, 「列傳」第88, 〈勿吉國〉. "其父母春夏死, 立埋之, 冢上作屋, 令不雨濕" 이는 『北史』卷94, 「列傳」第83, 〈勿吉國〉에서도 똑같이 인용되었다.)

17) 陈起東·林至德, 앞의 논문.

18) 고광의, 2004, 「중국학계의 廣開土太王碑 연구 현황」,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서울, 고구려연구재단).

중원고구려비와 같이 거의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自然石碑와는 또 다른 양식임을 알 수 있다.

Ⅳ. 廣開土太王碑體의 完成

1. 廣開土太王碑體의 槪念

19세기 말 廣開土太王碑가 발견된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9] 그러나 연구의 주된 방향은 碑文의 내용과 拓本 등에 관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명문의 형태학적 측면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書體 분야는 이 비의 글씨가 지니는 독특한 풍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다.

〈표〉 廣開土太王碑 書體 硏究史

硏究者	書 體	出 處
王志修	漢隸類	「高句麗永樂太王碑考」, 1895.
鄭文焯	八分, 隸體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 1900.
榮禧	隸楷之間	『高句麗永樂太王墓碑讀言』, 1903
葉昌熾	隸楷之間	『語石』「奉天一則」, 1909.
張風台	非秦漢以下文字	「按說」, 1910.
顧燮光	隸楷之間	「夢碧簃石言」, 1918.
歐陽輔	似楷似隸	『高麗好太王碑』「集古求眞」, 1923.
蔣善國	古隸	『漢字形體學』, 1959.
박시형	예서	『광개토왕릉비』, 1966.
金膺顯	廣開土王碑(字)體	「高句麗書法考」『書通』創刊號, 1973.

19) 金膺顯, 1973, 「高句麗書法考」, 『書通』創刊號, 41쪽.

金基昇	漢隸의 八分書	『韓國書藝史』, 1975.
任昌淳	楷로 변해가는 隸書	「中原高句麗碑小考」『史學志』13, 1979.
王健群	東晋隸書	『好太王碑研究』, 1984.
朴魯姬 李亨求	창조성을 띤 종합 서체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1986.
羅繼祖 叢文俊	隸書	「簡談好太王碑字體」『博物館研究』1986-1.
東夷	隸書	『中國美術全集』書法篆刻編2, 1986.
張道興	隸書	『中國書法鑑賞大辭典』, 1989.
조선유적 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예서	『조선유적유물도감』3, 1990.
金世豪	漢代의 楷書體	『韓國美術辭典』, 1991.
秦維國	漢隸書體	「好太王碑及其書法藝術」『韓報』, 非律賓, 1991年 9月 25日⑫.
徐榮洙	漢隸의 八分書에 가까운 고구려 특유의 웅혼한 필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周榮順	隸書	「好太王碑書法淺談」『高句麗研究文集』, 1993.
劉濤 唐吟方	隸書	『中國書法史圖錄解說』, 1995.
王靖憲	隸書	『中國書法藝術』, 1996.
李樂瑩	古隸體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1996-1.
叢文俊	舊體銘石書	「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1996.
金洋東	儀式用 서체로서의 勒銘書(儀式用 隸書體)	「'高句麗好太王碑 文字와 書法에 관한 研究'에 대한 토론」『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1996.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中原高句麗碑 新照明』, 2000.
李圭馥	隸書(國家 儀式用의 公式書體)	『概說韓國書藝史』Ⅰ, 2001.
高光儀	廣開土(好)太王碑體	「5세기 高句麗 書藝의 特徵 研究」『書藝學』2, 2001.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는 비의 발견 초기에 주로 중국학자들에 의해 **漢隸·八分·隸楷之間·眞書·古隸**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70년대에 들어 남측 학계를 중심으로 서체에 대한 견해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 **金膺顯**의 '**廣開土大王碑字體**'[20]는 비록 단편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판단을 자형 겉구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서체에 내포된 역사적,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종합적인 연구서들이 출간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학계의 **王健群**은 '**東晋隸書**'[21]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羅繼祖**와 **叢文俊**이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이를 비판하고, **西漢**의 일부 **銅器銘文**이나 **石刻** 문자의 풍격과 유사한 점을 들어, '**隸書**'[22]라고 주장하였다. 남측에서는 **朴魯姬**와 **李亨求**에 의해 '창조성을 띤 종합 서체'[23]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서예가적 감식안을 통해 단편적으로 언급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자형의 고증과 비교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그리고 최근에 **叢文俊**이 다시 이전의 관점을 보완하여 '**晉隸銘石書**'[24]설

20)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7~201쪽.
21) **羅繼祖·叢文俊**, 1986, 「**論好太王碑字體**」, 『**博物館研究**』1期.
22) **朴魯姬·李亨求**, 1986, 『**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서울, 同和出版公社), 40쪽.
23) **叢文俊**, 1996,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高句麗研究2(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서울, 학연문화사), 285~318쪽 참조; 1999, 『**叢文俊書法研究文集**』(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3, 「《好太王碑》書法及其相關問題略論」, 『中國書法』 9.
24) **高光義**, 1999, 「4~7世紀 高句麗 壁畵古墳 墨書의 書藝史的 意義」, 『高句麗研究』

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가 구체명석서라고 명명한 이유를 살펴보면, 晉唐에서 八分隸書를 銘石書라 하였고, 廣開土太王碑 문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東晋 사람들이 한창 王羲之·王獻之의 楷書 풍격을 따르고 있던 시기에 高句麗 사람들이 書刻한 好太王碑는 아직 八分隸書에 의해 도태된 이전의 隸書楷式에 머물러 있는 점은 高句麗의 祓禊傳說 및 壁畵가 시대에 뒤떨어진 상태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중원에 비하여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 구체명석서를 사용한 이유는 변화하지 않고 停滯된 고구려 문화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는 시대에 뒤떨어져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풍격을 보면 漢代의 金文이나 磨崖刻石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함 때문에 광개토태왕비의 서체가 낙후된 상태라는 인식은 당시 고구려의 書體演變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고구려에서 八分의 사용 흔적은 안악3호 무덤의 朱書나 산성하무덤떼 332號 무덤과 장천 2호 무덤의 墨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들 주서와 묵서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팔분의 書寫法은 당시 고구려에서도 이미 일정하게 隸變 과정을 지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덕흥리 벽화무덤의 묵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에서는 광개토태왕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서체인 草書나 楷書 및 行書의 결구들이 사용되고 있다.[25] 이는 광개토태왕비 글씨에 보이는 八分 이전의 古式 결구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서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개토태왕비의

25) 高光儀, 1999, 「4~7世紀 高句麗 壁畵古墳 墨書의 書藝史的 意義」, 『高句麗硏究』 7(서울, 학연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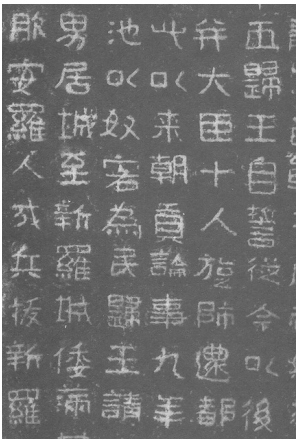
고식 결구들은 광개토태왕의 존엄을 표현하기 위한 銘石書로서 정중함이 극도로 추구되어 나타난 특수한 목적성을 띤 의도적 선택인 것이다.

서체는 문자결구의 시대양식으로 그 용도 및 서사 재료, 개인적인 풍격 등의 차이에 의해 시기별로 명칭이 다르게 불려져 왔다. 예를 들면, 甲骨이나 鐘鼎에 새겨진 문자는 각각 '甲骨文'과 '金文'으로, 北魏시대의 碑 또는 墓誌에서 주로 사용된 楷書는 '魏碑體', 歐陽詢이나 顔眞卿의 개성적인 서체는 각각 '歐體'와 '顔體' 등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 서체에 나타난 풍격이나 예술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도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개토태왕비의 글씨가 지니는 예술성과 자형결구의 다양성 및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이 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서체는 '廣開土太王碑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廣開土太王碑體의 完成과 流行

廣開土太王碑體(그림 10)는 용도상으로 보아 銘石書로 분류할 수 있다. 중원에서 魏晋시대의 공식적인 명석서는 여전히 팔분이 통용되었지만, 고구려에서는 이와 다른 광개토태왕비체 類의 명석서가 발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고구려 와당명문은 해서에 접근된 新隸體가 나타나고 있어, 고구려 명석서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개토태왕비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는 왕릉급으로 분류되는 천추무덤(그림 11)과 태왕릉(그림 12)에서 발견된 명문전을 들 수 있다. 여기의 서체는 古式의 자형결구와 평직한 필획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인 풍격이 광개토태왕비체에 매우 접근되어 있다. 이러한 서체는 광



〈그림 10〉 광개토태왕비 탁본



〈그림 11〉 천추무덤 명문전



〈그림 12〉 태왕릉 명문전

개토태왕비가 제작되기 이전에 왕릉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으로, 고구려 명석서의 발전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광개토태왕비체는 이러한 고구려 명석서의 발전 과정에서 국력이 집약된 광개토태왕비체의 건립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결부되어 하나의 서체 양식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에서 광개토태왕비체가 완성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 서사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415년에 제작된 명문 호우(그림 13)는 광개토태왕을 추모하는 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물로서 서사 시간이나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서체는 광개토태왕비체와 흡사하다. 광개토태왕비체가 완성된 이후에도 대왕과 관련된 기물에 동일한 서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서체의 완성을 통해 부여하고자 했던 위대한 왕의 추모라는 특수한 목적에 대한 부합인 것이다.

또한 광개토태왕비체가 완성된 후, 10년 뒤인 42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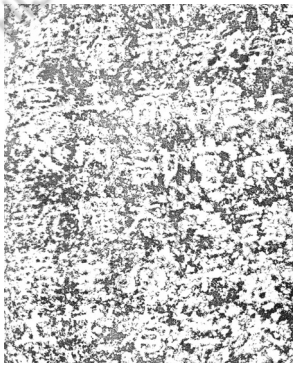
로 추정되는 癸亥年銘印章(그림 14)의 서체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魏晋시대의 인장 서체는 관행처럼 繆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광개토태왕비체와 같은 隸書 결구가 사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 주로 3~4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官印 역시 繆篆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私印은 광개토태왕비체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왕의 추모라는 공식적인 성격을 벗어나 보편적인 서체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체 선택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장에서까지도 광개토태왕비체가 나타나는 것은 5세기 초기 고구려에서 이 서체가 이미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개토태왕비체는 이후 특유의 自然石碑 양식과 함께 중원고구려비의 서체(그림 15)로 이어지고, 한동안 계속 사용되어 5세기 고구려 서사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그림 13〉 광개토태왕 호우 탁본



〈그림 14〉 계해년명 인장



〈그림 15〉 중원고구려비 탁본

Ⅴ. 맺음말

건국 초기부터 史書의 편찬, 石刻의 제작 등 서사문화가 발전하였던 고구

려는 4세기 후반 이후 교육기관의 설립, 입비정책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중원과 뚜렷이 구분되는 서사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廣開土太王碑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전에 없었던 祖先王들의 墓碑를 광개토태왕대에 비로소 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원 지역의 삼엄한 禁碑令에 반하는 정책이다. 만약 고구려가 중화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었다면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것으로 이러한 입비정책은 고구려 정권의 자주적 천하관이 반영된 것이다.

광개토태왕대 묘비제도의 확립을 통해 추진된 자주적 입비정책은 아들 장수왕에게 전해져 그 실체로서 광개토태왕비의 건립을 가져왔다. 비는 당시 중원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연석에 가까운 돌기둥 모양의 石柱碑로서 고구려의 독창적인 석비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석주비의 양식적 특징은 이후 고구려의 변경지역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로 계승되었고, 또한편으로는 무덤 양식의 변화와 함께 일부 봉토무덤의 묘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구려 "墓上立碑"의 전형적 모습으로 집안 지역에서 발견된 M1141 묘비, M1080 묘비 및 네무덤 3호 묘비는 그 형태가 정교하게 가공되어 광개토태왕비나 중원고구려비에서 나타났던 自然石柱碑가 人工石柱碑로 이행되는 5세기 고구려 석비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면은 글씨에도 나타나고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서체인 廣開土太王碑體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서체의 변화 발전 과정을 기반으로 위대한 왕의 추모라는 특수한 상황과 결합되어 고구려의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최상의 가치가 반영된 서체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광개토태왕의 자주적 입비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채용된 독창적인 석비양식 및 광개토태왕비체의 완성은 당시 고구려 사회에 나타난 서사문화의 독특한 현상으로 중원과 구별되는 특징인 것이다.

평양지역 고구려 천문벽화무덤의 천문도 복원 문제

: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의 복원을 중심으로

김일권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Ⅰ. 서론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103기에 이른다. 고구려 전반기의 중심지였던 환인과 집안지역에 30기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73기는 평양과 안악지역에 분포하여 있다.[1] 그 중 24기의 벽화고분에서 고구려의 천문

1) 그런데 최근 撫順 高爾山城 부근에서 고구려의 봉토석실벽화고분이 새로 발견되어 이를 추가하여야할 전망이다. 魏存成, 2004, 「中國高句麗墓葬的發現与研究」, 『고구려 고분의 보존과 관리』(ICOMOS 한국위원회), 25~28, 59~65쪽 참조. 기존에 길림성 집안을 벗어난 곳의 벽화묘로는 1991년 발견된 요녕성 환인의 미창구장군묘가 유일하였었다. 이제 무순 지역에 새로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성과 분포 문제를 또다른 각도로 고찰하게 한다.

학 면모를 알려주는 별자리그림이 그려져 있다. 시기별로 볼 때 생활풍속도를 주제로 삼는 4세기의 초기 벽화무덤에서부터 사신도 중심의 후기 벽화무덤까지 골고루 포진되어 있다. 이들 벽화무덤들이 천문성수도를 벽화의 소재로 특별히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천문벽화무덤"이라는 독립된 장르 이름을 부여한 바 있다.[2]

이들 천문벽화무덤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가치는 매우 높다.

우선 고구려의 천문학 면모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자료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 행성과 별자리에 대한 관측이 상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지만, 고구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천문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천문 관측의 결과물인 천문도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고구려의 벽화무덤 속에 그려진 별자리그림들인 것이다.

둘째로, 이렇게 많은 별자리그림 벽화를 남긴 나라는 고구려가 단연 으뜸이다. 신라와 백제 및 통일신라에는 현재로서 이에 필적할 만한 자료가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한 일본과 중국의 천문 유물 자료 중에서도 고구려만큼 많은 천문벽화자료를 남긴 나라가 찾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벽화 자료는 고구려의 역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고,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학사를 논함에 있어서도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고구려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우를 비교하면, 별자리를 그린 벽화무덤이 남북조시기

2) 졸고, 2004ㅅ. 12월, 「벽화천문도를 통해서본 고구려의 정체성」, 『고구려연구』 18집(고구려연구회) 참조.

에 6기 가량이고, 이보다 앞선 위진십육국시기는 겨우 3기 가량이다. 수당대의 것도 7기 가량에 불과하다.[3]

수량적인 면에서 고구려가 이처럼 압도적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로서 고구려의 벽화천문자료가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를 않다. 본 발표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천문벽화묘의 자료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왜 이들의 천문도 복원 문제가 중요한 지를 몇 가지 짚어내려 한다.

Ⅱ. 고구려 천문벽화무덤에 대한 정밀 모사 작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한 고구려의 천문벽화무덤은 24기인데, 그 위치한 상황을 살펴보면, 집안지역이 8기이고, 안악지역에 3기, 나머지 13기의 무덤이 평양지역에 분포하여 있다. 결국 북한지역에 16기에 이르는 벌자리 무덤들이 분포하여 있기 때문에 고구려 벽화의 천문학 연구를 위하여 이곳의 자료가 가지는 가치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기존에 고구려의 천문벽화무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을 낸 학자로 북한 사회과학연구원의 리준걸 선생을 꼽을 수 있다.

리준걸 선생은 1980년대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3) 졸고, 1999ㅂ. 12, 「魏晋南北朝時代 古墳壁畵의 天文星宿圖 考察」, 『한국문화』 24집(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참조.

고구려 벽화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별자리그림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기한 연구사적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천문학 주제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1. 「벽화리2호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력사과학』 1981-1 ; 日譯 1993, 『古文化談叢』 12)
2. 「28수를 다 그린 진파리 4호 무덤」 (『력사과학』 1981-3, 46-48쪽)
3. 「고구려 별그림의 특징」 (『력사과학』 1983-2, 27-31쪽)
4.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9, 1984, 2-58쪽)
5. 「고구려벽화무덤의 해와 달그림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특히 1984년에 발표된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는 당시까지 확인된 21기의 별자리 무덤 전체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그 작업의 의의는 매우 높다. 현재에는 21기보다 많은 24기 벽화에서 별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문에 제시된 고구려 벽화의 별그림 모사도가 대부분 상당히 부정확하게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고구려 고분 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 (『백산학보』 47호, 1996ㄱ. 12)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자세하게 점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존에 알려진 사진 도판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별그림의 위치와 갯수, 방향 등을 모두 새롭게 분석 검토하였으며, 그 끝에 새로운 모사도를 제시하였었다.[4]

---

4) 필자의 이 논문은 일본 역사학자 金井塚良一 선생에 의하여 1998. 11, 「高句麗壁畵の星座圖の考定」, 『硏究紀要』 3号(日本, 山武考古學硏究所)라는 제목으로 日譯되었으며, 여기에는 리준걸 선생의 모사도와 필자의 새모사도가 나란히 비교될 수 있도

별자리그림의 위치와 갯수 및 무덤 내의 방향 문제는 고구려 천문도의 분석에 앞서 무엇보다도 정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대목이다. 방향이 다르면 전혀 엉뚱한 별자리로 해석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별 갯수가 달라도 별자리의 동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 속에 그려진 별그림의 정밀한 모사가 고구려 천문학 연구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상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필자가 1996년 새로운 모사도를 작성한다고는 하였지만, 사진이나 도판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리준걸 선생의 자료를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유적유물도감』에서도 모사도만 있고 사진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은 별그림을 담고 있는 복사리고분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매우 이른 시기인 4세기 후반 내지 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편년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고찰의 중요성이 큰 무덤이다. 남벽에 南方이라는 묵서명까지 별그림 옆에 씌어져 있으며, 태양의 표현 기법도 다른 무덤과 달라보인다.

별무덤(성총)의 별자리 구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산리 1호와 2호무덤의 별자리그림도 고구려의 천문학 체계를 밝히기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무덤이다. 별을 Ⓐ 모양으로 그려 인상적인 천왕지신총은 고구려의 "사숙도(四宿圖)"[5] 천문 체계를 밝히기 위하여 정밀

록 실렸다.

5) 고구려 벽화의 사방 천정에 사신도와 마찬가지로 각 방위를 수호하는 고유한 방위 별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고구려 벽화무덤에 널리 그려져 있었는데 이 천문체계를 알아보기 쉽게 개념화시키고자 사숙도란 용어를 고안하였다. 사신도가 동청룡, 서

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무덤이다. 동암리고분은 별그림이 있는 벽화편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면모가 어떠한지 궁금한 무덤이며, 안악1호분의 남벽 천정 별자리는 부분 박락이 되었는데 좀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무덤이다. 가장 빠른 시기의 천문벽화묘에 해당하는 안악3호분(357년)은 천정석의 별자리그림이 너무 희미하여 적외선 촬영과 같은 정밀 조사가 필요한데, 이곳의 별자리 동정 여부에 따라 고구려 중대이자 초기 벽화시대의 천문학이 어떠하였는지를 가늠하게 된다.

이렇듯 정밀조사를 필요로 하는 무덤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외에 또다른 무덤에도 별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고구려의 벽화천문연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앞으로 이들 벽화무덤들의 천문 자료가 면밀하게 정밀조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Ⅲ. 덕흥리고분을 통해서 본 5세기 고구려의 천문학

고구려가 동시대에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천문벽화무덤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천문학적 수준이 높은 무덤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없이 덕흥리고분과 진파리4호분의 두 무덤을 제시할 것이다.

백호, 남주작, 북현무 하듯이, 사숙도는 북쪽에 북두칠성, 남쪽에 남두육성, 동쪽에 심방육성, 서쪽에 삼벌육성이 채택되었다. 이 문제를 졸고, 2004ㄷ. 9월,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천문관과 천문학 : 덕흥리고분(408)의 별자리 동정과 천문학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한국고대사학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루었다. 사숙도라 하기 이전에는 필자가 우리말로 "사방위별자리"라 불렀던 천문체계이다.

최근에 필자는 남포시 강서구역의 덕흥리고분(408년)에 그려진 별자리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동정한 바 있다.[6] 이 발표를 통하여 고구려가 얼마나 정밀한 천문관측 체계를 지녔는지 그리고 중국과 얼마나 다른 천문도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논하였다.

덕흥리고분은 그 묵서명으로 인하여 편년이 확실하면서도 그 연대가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기에 담겨진 별자리 내용은 5세기 초엽 고구려의 천문학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특징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벽의 북두칠성 그림이 실제 겉보기 등급에 비례하여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구려 벽화의 별그림이 단순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의 천문관측학적인 측면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 북두칠성에는 제8의 별인 보성(輔星)도 함께 그려져 있다. 이 보성은 한국천문역사에서 처음 그려진 것으로 역시 고구려 천문학의 관측적 정밀성을 높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고구려의 관직명에서 최고 재상을 좌보(左輔)와 우보(右輔), 또는 대보(大輔)라 일컫는 문제를 이와 연관지어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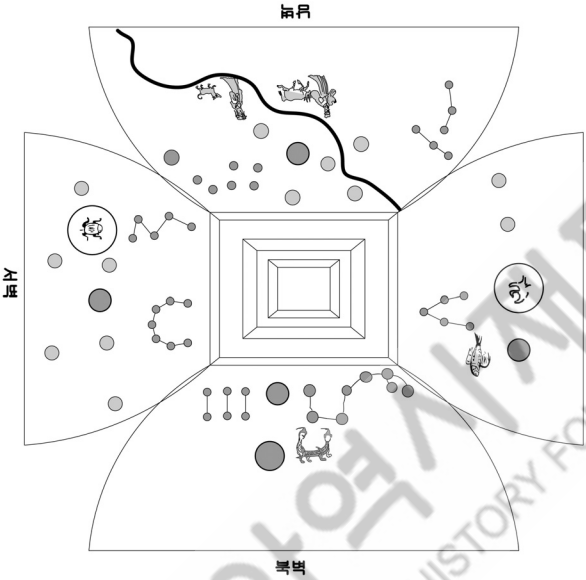
셋째,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목성, 토성과 같은 오행성을 그림으로 표현한 동아시아 최초의 자료라는 점이다. 행성 관측은 고구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도 이루어졌었지만 이를 그림으로 남긴 것은 고구려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 졸고,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천문관과 천문학 : 덕흥리고분(408)의 별자리 동정과 천문학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2004 ㄷ)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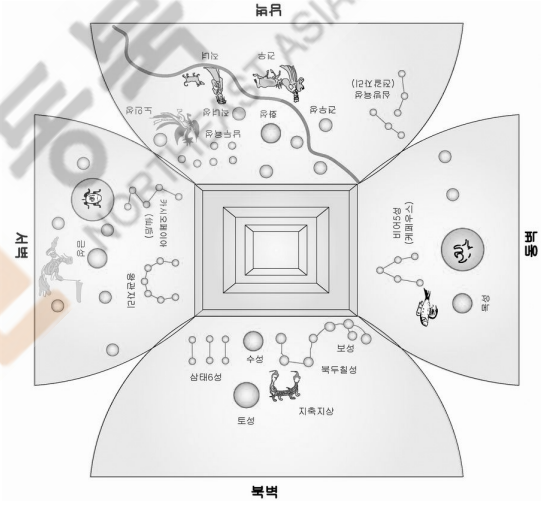
넷째, 북벽 천정에서 북두칠성 아래에 그려진 지축일신양두(地軸一身兩頭)의 방제와 신화도상이 당시 고구려의 천문학에서 북극과 남극이라는 지축 개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좌가 아닐까 조망되었다. 천왕지신 중에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그려져 있다. 이같은 지축 표현은 천체들이 지축을 중심으로 주천한다는 천문학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더구나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행성과 별들이 모두 공처럼 둥글게 천구형태로 그려진 것으로 미루어 현대 천문학에서 입증된 천체의 구형설 내지 지구설(地球說) 관점마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되었다.

다섯째, 서벽의 W자형 5성과 동벽의 V자형 5성 별자리가 한당의 중국 천문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별자리임이 밝혀졌다. 별자리의 형태학을 따라서 동정하자면 현대의 서양천문학에서 말하는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와 케페우스 별자리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고구려의 천문학이 중국과는 다른 천문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되었다. (그림 1, 2)

이처럼 덕흥리고분은 고구려가 중국과 다른 자체의 천문학 전통을 수립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엿보여주는 중요한 무덤일 뿐만 아니라, 현대 천문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어서 당시 동아시아의 천문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 무덤이다.



〈그림 1〉 덕흥리고분 앞칸천정 벽화천문도(김일권, 2004년 3월 크기와 위치 수정보완)



〈그림 2〉 덕흥리고분 앞칸천정 벽화천문도 동정 (김일권, 2004ㄷ, 9월)

Ⅳ.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의 동아시아적 가치와 복원 문제

이상의 덕흥리고분과 더불어 가장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무덤이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서 발견된 진파리4호분이다. 1960년대에 전면 재조사되었으며, 옛지명이 평안남도 중화군 무진리 진파동이어서 무진리 1호무덤으로도 불리었고, 현재에는 동명왕릉 고분군 제1호무덤으로도 불린다. 사신도를 주제로 삼는 단실 벽화무덤으로,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의 부부합장묘로 추정되었다.

덕흥리고분의 것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조명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무덤들이 대개 사방의 벽면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그린 이른바 사방위천문도 형식이라면, 진파리4호분은 전체의 별자리를 한 판의 천정석에 한꺼번에 그린 개천식천문도라는 점이다.

이것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근대로 내려올수록 과학적인 천문도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7세기 명말청초에 유럽의 천문학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천문도에 정밀한 좌표체계가 부여되었으며, 적도좌표와 황도좌표에 따라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적도남북항성도 내지 황도남북항성도가 제작되었다.

이보다 정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적황도와 내외규의 좌표 형식을 갖춘 개천식 전천천문도가 송대부터 제작이 되는데, 동양천문학사에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천문도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기의 것들에서부터 부여한다. 남송 순우연간에 제작된 『소주석각천문도』(1247)가 그 대표적인 천문도이다. 조선 태조년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1395)가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그 과학적인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북송 철종연간

에 그려진 『소송성도』(1094)는 5폭의 두루마리에 그린 방형성도로서 비록 개천식은 아니지만 적경선을 구분하고 적도선을 가로축으로 삼은 가운데 황도선을 사인곡선으로 표시한 매우 우수한 과학적인 천문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기를 거슬러 당송지제로 올라가면, 개천식 전천천문도이기는 하되 전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천문성수의 요체라 인식된 28수 중심의 천문도를 그리는 형식이 유행을 하였다. 이를 개천식 28수 천문도라 이를 수 있다. 오대시기 오월국 전원관(錢元瓘)묘의 석각성도(942년)와 역시 오월국 오한월(吳漢月)묘의 석각성도(952년)가 이에 해당하는데, 내규 속에 북극성좌와 북두칠성의 중궁 별자리를 담고 적도원 주변에 28수를 그리는 형식이다.

다시 이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당 내지 오대시기에 걸치는 8~10세기 추정의 돈황성도(갑본과 을본)가 있다. 이들은 수당천문학에서 정립된 3원 28수 형식의 천문도를 담았는데, 특별한 좌표 표시는 없이 두루마리에 북극권 별자리와 28수 및 그 주변의 별자리를 전개도처럼 펼쳐놓은 작품이다.[7]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 고구려 이후의 후대 천문도들이며, 각 시대에 따라 점점 과학성이 부여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시기에 해당하는 위진남북조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천문도를 담았을까 할 때 바로 벽화천문도 형식이 유행하였다고 이를 수 있다. 위진수당의 90기 가량

7) 이러한 천문성도의 시대적 자료 특성에 대하여 졸고, 2008ㅇ. 12월, 「고구려 벽화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전통 고찰 : 일본 기토라 천문도의 새로운 동정을 덧붙여」, 『고구려연구』 16집(고구려연구회)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벽화고분 중에서 16기의 고분에 별그림이 확인되었다는 언급을 앞서 하였지만, 이들 자료가 바로 이 시기의 별자리 내용을 알려주는 주요 형식이다.

그런데 이들 위진수당의 천문벽화무덤들에 그려진 자료들은 요녕의 북연 풍소불(馮素弗) 부부묘(415)와 낙양의 북위 원에(元乂)묘(526) 등 5, 6기를 제외하고나면, 대개 연결선이 부여된 별자리가 아니라 장식적으로 천공에 별을 흩뿌리듯 그렸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그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북위 원에묘인데, 중간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연결선을 지닌 별자리가 주변에 여럿 그려져 있다. 별자리의 형태와 위치가 정밀하지 못하여 동정하는데 애로가 많다. 원에묘보다 120년 앞선 시기에 이미 은하수와 뚜렷한 별자리를 그렸던 덕흥리고분에 비하면, 고구려의 천문도 수준이 당시에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8]

이러한 가운데 6세기 전반 편년의 진파리4호분 천정에 전천의 별자리를 개천식으로 그린 천문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일단 천문도의 제작 형식면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더구나 중궁에 북극성좌와 북두칠성을 담았고 주변에 28수를 그린 것으로 동정되고 있으므로, 고구려보다 훨씬 뒷시대인 당송연간에 유행하였던 이른바 개천식 28수 천문도의 선구적인 형태를 진파리4호분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진파리4호분은 동양천문학사에서 28수를 다그린 개천식 천문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보다는 앞선 시기의 것으로 편년되는 덕화리2호분에 이미 28수 별자리가 그려졌고 또한 각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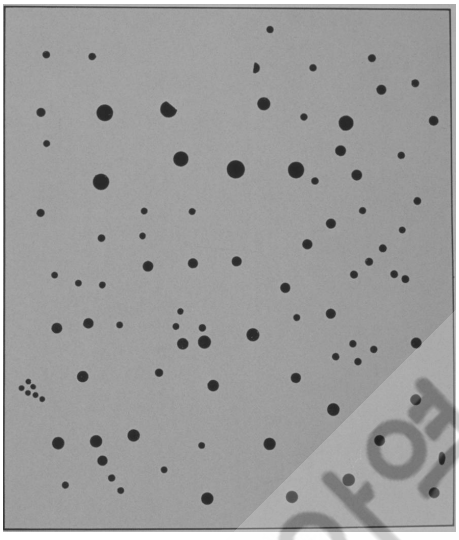
8) 위진수당의 벽화 별자리그림에 대해서는 졸고, 1999ㅂ. 12, 「魏晋隋唐代 古墳壁畵의 天文星宿圖 考察」, 『한국문화』 24집 참조.

대한 28수 방제명이 함께 씌여져 있어, 고구려의 5, 6세기에 이미 28수 천문도가 깊이 인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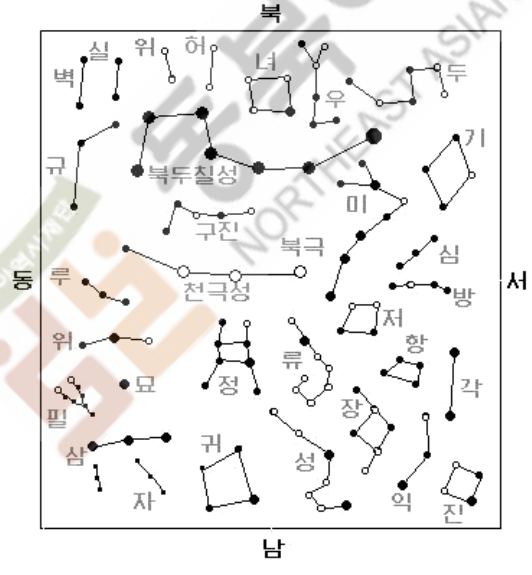
이처럼 진파리4호분은 가장 오래된 전천천문도서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별들을 모두 금박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금박전천천문도라고도 이를 수 있다. 이 양식은 훗날 700년 전후 무렵으로 편년되는 일본 기토라고분의 천정 천문도가 진파리4호분과 동일한 기법의 금박천문도로 제작되었기에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토라천문도는 실상 적황도와 내외규를 갖춘 것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천문도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인데, 일월과 사신도를 함께 구비한 그 구성 방식이 고구려의 천문전통에 맞닿는 연장선에서 조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그 천문도로부터 계산된 관측위치가 북위 38~39도선의 평양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토라천문도의 제작주체를 고구려에서 찾는 관점이 거의 대세를 이룬다.[9]

9) 기토라고분의 천문도에 대해서는 일본 同志社大學 宮島一彦의 1998, 「キトラ古墳天文圖と東アジアの天文學」,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7號 및 明日香村教育委員會, 1999. 3, 『キトラ古墳學術調査報告書』와 졸고, 2003 ㅇ, 「고구려 벽화와 고대 동아시아의 벽화천문전통 고찰: 일본 기토라 천문도의 새로운 동정을 덧붙여」, 『고구려연구』 16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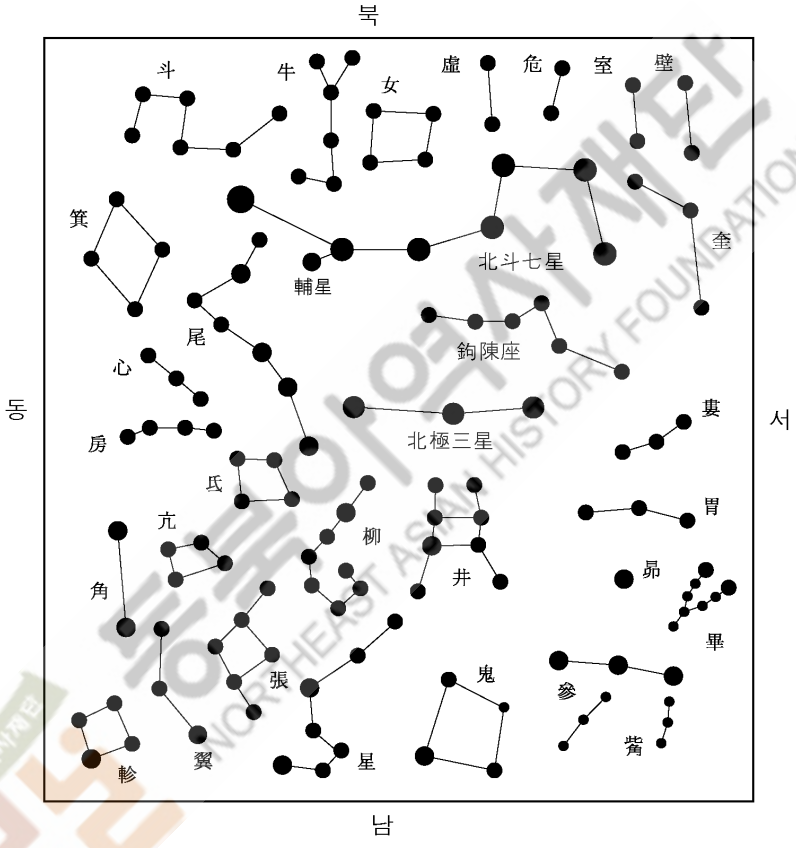
〈좌우를 전도시킨 유물도감과 리준걸 선생의 모사도〉



〈그림 3〉『조선유적유물도감』 6권 No. 230 진파리4호분 안칸 천정 별자리 배치도 (좌우동서가 뒤집힘)



〈그림 4〉 리준걸 선생의 모사와 동정도(1981-3, 1984, 좌우동서가 뒤집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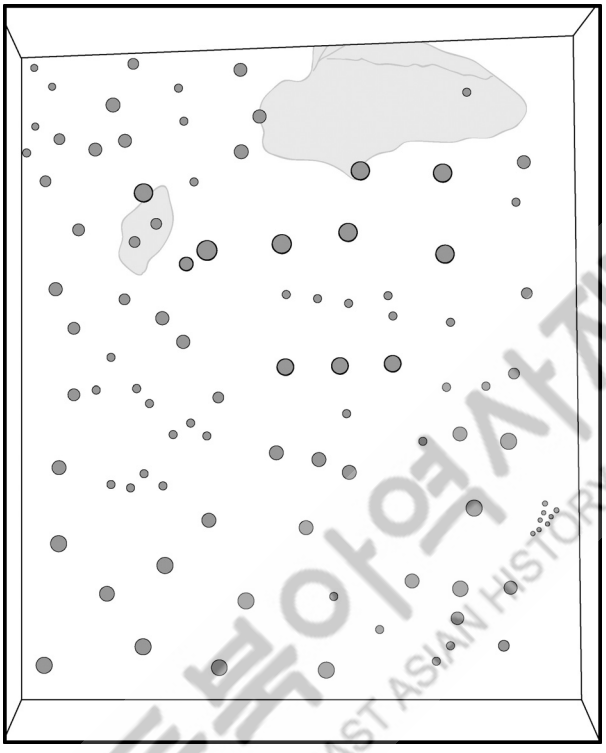
〈그림 5〉 진파리 4호분(6세기전반)의 金箔天文圖 (필자가 좌우동서방위를 전도시킨 리준걸의 모사도를 교정하면서, 북극3성으로 연결선을 수정하고 북두 제8 輔星을 분리시킨 것임)

그런데, 이렇게 진파리4호분이 지닌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문도의 내용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지를 않다. 기존에 제시된 사진 도판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북한의 리준걸 선생이 제시한 모사도와 『조선유적유물도감』에 실린 모사도가 둘다 신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가 최근 비교검토한 바에 따르면 『조선유적유물도감』의 진파리4호분 천문모사도가 좌우로 뒤집힌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과 그림 6 비교) 또한 별의 위치와 크기 및 모양도 사진 자료상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10] (그림 3~7)



〈그림 6〉 진파리4호분 금박 천문도의 새로운 동정 작업 (김일권, 『고구려연구』 18집, 2004년 12월)

10) 졸고, 2004ㅅ. 12월, 「벽화천문도를 통해서본 고구려의 정체성」, 『고구려연구』 18집(고구려연구회)에서 필자 나름의 모사도를 작성하였으나, 제대로 판독이 되지 않는 별자리는 그냥 두었다.



〈그림 7〉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의 새로운 모사도 (김일권, 2004년 6월)

진파리4호분의 천문도는 이미 리준걸 선생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별그림의 크기가 6종류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육안 관측상 별의 겉보기 등급에 따른 6등성 구분법과 일치하는 대목이어서, 고구려의 천문관측학적인 측면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그럼에도 아직 모사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정밀판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고해상도의 촬영 및 적외선 촬영과 같은 첨단 기법을 동원하여 진파리4호분의 금박천문도를 새롭게 복원할 필요성이 이상과 같이 매우 긴요하다

할 것이다.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져 그 금박천문도의 온전한 면모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면 고대 동아시아의 한중일 가운데 고구려의 천문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여실하게 보여줄 것이라 기대되며, 그 중심에 진파리4호분이 놓이는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렇게 진파리4호분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정확하지 않은 모사도로 인하여 연구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다. 이번 2005년 2월의 남북고구려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진파리4호분의 금박천문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복원해낼 수 있다면, 고구려의 역사와 천문학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의 고천문도로 평가되는 기토라천문도의 제작 주체가 고구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진파리4호분의 금박천문도에서 도출될 것이라 충분히 기대가 되므로 그 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고구려의 천문학 연구를 위하여 정밀조사되어야할 벽화무덤이 여럿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양의 천문도가 어떠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검토하다보면 그 시대에 벽화천문도가 제작될 수 밖에 없는 양식적 흐름을 이해하게 되며, 그런 가운데 고구려의 벽화천문이 위진수당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고도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었던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고구려 중기(5세기~6세기 초)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제재와 그 연원

김진순 (고구려연구재단 전문연구원)

Ⅰ. 머리말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곧 사후 세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믿음과 관습을 낳았으며, 특히 그들이 믿었던 영혼불멸(靈魂不滅)이나 계세사상(繼世思想)은 독특한 동아시아의 고분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으며, 무덤은 바로 영혼이 안식하는 거처였다. 이처럼 무덤이 사자(死者)가 안식하거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공간이었던 만큼, 무덤 안에는 사자를 위한 용품(用品)들이 부장되거나 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벽화들로 장식되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도 이러한 동아시아의 고분문화권 속에서 고유의 독

자성을 지니며 변화 발전해 갔다. 특히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에는 불·보살상, 연화문, 비천, 화염문 및 공양인 행렬도와 같은 불교적 소재들이 중심 주제를 이루면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72년 고구려 왕실에 의해 정식으로 공인된 불교가 이후 널리 성행하게 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고구려인들이 고유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외래문화인 불교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 속에 정착시켜 갔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귀중한 단서이다.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한 중국 학계의 통념적 인식 속에는 중원으로 대표되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1] 그것은 이를테면 고구려 고분벽화를 구성하고 있는 제재는 물론, 벽화의 내용 저변에 흐르는 세계관에서도 중원 문화의 영향을 연결지어, 그 문화적 원류를 중국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중국 문화의 영향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당시 중원의 역외에 존재하면서 중국 문화와는 구별되는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북방민족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 고유의 예술적 제재나

1)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도교 신화의 제재들에 대해 李殿福과 董長富 등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에 대한 중원의 영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壁畵初探」, 『社會科學集刊』 1980-5, 124쪽; 同著, 1997, 「通溝高句麗古墓壁畵看高句麗社會生活習俗的硏究」, 『第3回 高句麗國際學術大會發表論集-高句麗 古壁畵-』, 270~271쪽; 劉永智, 1982, 「高句麗壁畵墓與中國文化的關係」, 『學術硏究叢刊』1982-4, 50쪽; 董長富·文琳, 1984, 「集安高句麗古墓壁畵」, 『文物天地』 1984-6, 11~13쪽; 耿鐵華, 1993, 「集安五盔墳五號墓藥井壁畵新解」, 『北方文物』 1993-3, 41쪽.

사고방식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와 다른 북방새외민족 사이에 중원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적인 문화교류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當代 중국의 그것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요소들을 아래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에 표현된 불교적 제재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내용은 묘주 초상과 생활풍속도, 도교와 불교적 제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주목할만한 점은 초기 고분벽화의 주요 제재인 묘주 초상이나 생활풍속장면 등이 5세기 중엽을 거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불교적 제재들은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깊어진 신앙심을 반영하며, 불교사상이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사후세계관과 결합하여 무덤 안의 벽화로 새롭게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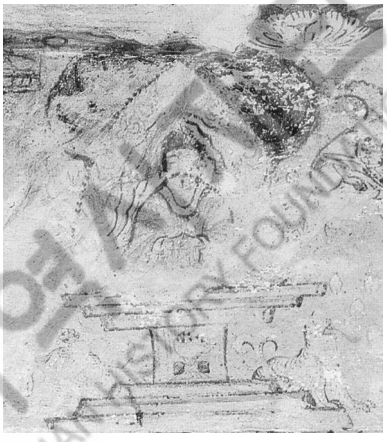
중기의 고분벽화 중 불교적 색채를 보여주는 벽화고분은 우선 집안 지역의 미창구(米倉區) 장군무덤, 장천 1호무덤(長川1號墳), 춤무덤(舞踊塚) 등이 대표적이며, 평양지역에서는 감신총(龕神塚), 덕흥리 벽화무덤(德興里古墳), 연꽃무덤(蓮花塚), 쌍기둥무덤(雙楹塚), 수산리 벽화무덤(水山里古墳), 안악 1, 2호무덤(安岳1,2號墳)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벽화에 표현된 불교적 제재 들은 불•보살상과 비천(飛天), 연화문(蓮花紋)과 연화화생(蓮花化生) 그리고 공양인 행렬도(供養人行列圖)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아래

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 불·보살상과 비천

1) 불상과 보살상

고구려 고분벽화 중 유일하게 불상과 보살상이 표현된 고분은 바로 장천리 1호무덤이다(그림 1). 먼저 불상의 형태를 살펴보면, 화염 광배(火焰 光背)와 대좌(臺座)를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결과부좌에 선정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수미좌의 형태이며 대좌 양 옆으로 두 마리의 사자가 밖을 향하여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다. 이처럼 결과부좌에 선정인의 수인을 보여주는 불상과 사자가 떨린 수미좌는 서진시기 불교미술에서 매우 유행한 형태로서 북량시기의 불상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특히 돈황에서 발견된 5세기 초의 고구려 불상이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고구려에서 신봉되었던 불상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2]



〈그림 1〉 불상,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불상의 오른쪽에는 묘주 부부로 보이는 인물이 불상을 향해 예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왼쪽에는 남녀 시종이 화개를 들고 이들 부부를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졌다(삽도 1). 이와 같은 예불도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유

2) 장천 1호분 벽화의 불상과 고구려 초기 불상에 대한 연구로 文明大, 1991, 「長川1號墓佛像禮拜圖壁畵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1, 137~153쪽 참조.

일하게 표현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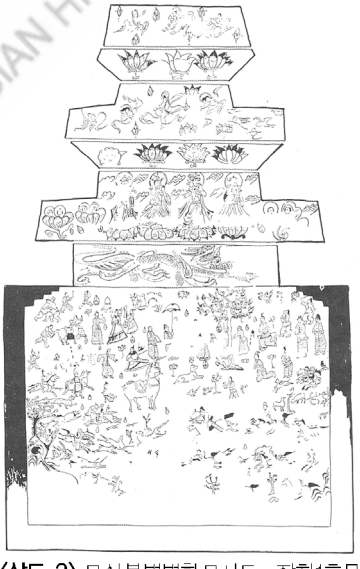
천정 고임부의 2층에 표현된 보살상은 모두 8구로 불상이 그려진 벽을 중심으로 좌우 벽에 4구씩 대칭으로 그려졌다(삽도 2). 한결같이 머리에는 두광이 씌어져 있고 영락장식을 목에 걸고서 연화대좌를 밟고 서 있다(그림 2).



〈그림 2〉 보살상,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삽도 1〉 묘실동벽벽화모사도,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삽도 2〉 묘실북벽벽화모사도,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2) 비천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비천이 등장하는 중기의 고분벽화는 장천 1호무덤과 안악 2호무덤 등으로 다른 제재에 비해 사례가 드문 편이다.

장천 1호무덤의 전실 천정 2층과 3층 고임부에는 모두 20명의 비천이 표현되었다(그림 3).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꽃 접시를 받쳐 들고 散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비천들은 상반신이 반라이며 하늘거리는 천의에 의지해 비행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행하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으로 처리된 상반신이나 정면형의 다리 표현에서 아직은 서툰 회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주위에는 연꽃들이 떠다니고 있어 불교의 천상세계임을 암시해준다.



〈그림 3〉 비천,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장천1호무덤보다 기법면에서 보다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는 바로 안악2호무덤의 비천상이다(그림 4). 천정부가 아닌 묘실 벽에 그려진 이 비천상은 비례가 잘 맞는 아름다운 자태로 세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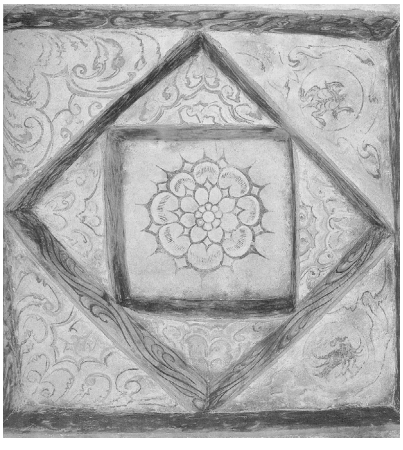
〈그림 4〉 비천, 안악2호무덤, 5세기 후반

게 묘사되었다. 두 명의 비천이 양손으로 연꽃 접시를 받쳐 들고서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에서 死者가 염원하는 평화로운 불국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연화문과 연화화생

연화문은 초기의 고분벽화에서부터 후기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된 매우 보편적인 제재로, 중기 고분벽화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표현되는 제재이다. 그 장식 범위는 주로 천상을 상징하는 천정부의 고임돌이나 천정중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창구 장군무덤이나 연화총과 같이 묘실 전체에 걸쳐 꾸며진 예도 있다.

천정 고임부에 연화가 표현된 고분 중 주목할 만한 예는 장천 1호무덤, 덕흥리 벽화무덤, 쌍기둥무덤과 안악 2호무덤 등이 있다. 특히 장천 1호무덤의 고임돌 아래에는 측면의 화려한 연꽃이 장식되었는데, 고임돌 정면의 공중을 떠다니는 연화 표현과 함께 불교적인 천상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그림 5〉 하늘연꽃, 쌍기둥무덤, 5세기 후반

중기 고분벽화의 또 다른 특징은 천정 중앙에 만개한 연꽃이 장식된다는 점이다. 쌍기둥무덤의 예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그림 5), 모줄임 방식(말각조정)으로 축조된 천정에는 중앙의 연꽃을 중심으로 화염문과 천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이 표현되었다. 이처럼 하늘 중앙에 연꽃을 크게 그려 넣은 것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불교가 사후세계의 천상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중앙에 연꽃을 표현함으로써 무덤 내부를 화생(化生)의 기운이 가득한 불교적 공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불국토에서의 재생을 암시적으로 상징하는 이러한 연화문은 인물이 직접 연꽃으로부터 탄생하는 연화화생의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각화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러한 연꽃이나 연화화생의 제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그림 6), 이는 연꽃을 통한 재생과 불국 정토에서의 영원한 삶이 고구려인들의 전통적인 영혼불멸사상이나 계세사상과 맞물려 불교적 사후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무덤 안에서의 표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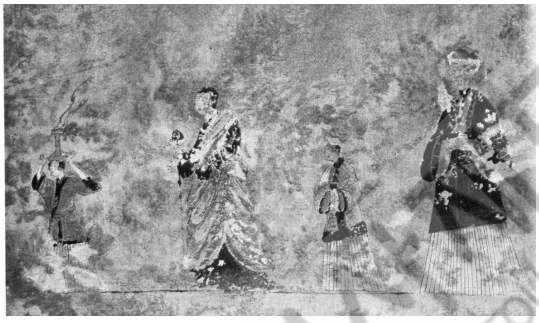


〈그림 6〉 연화화생,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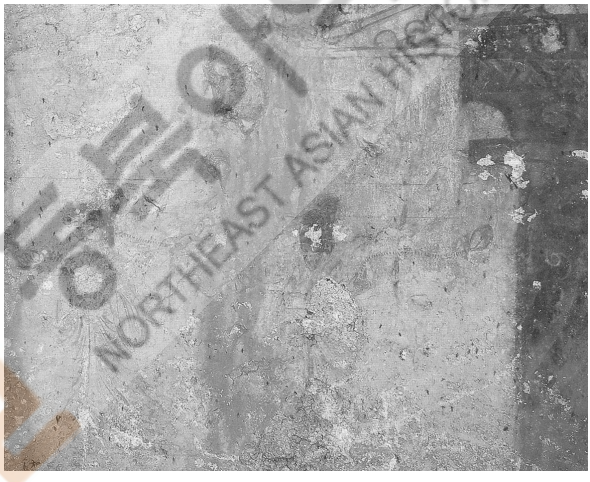
3. 공양인 행렬도

쌍기둥 무덤과 안악 2호무덤의 묘실 벽에는 스님이 앞에서 인도하거나, 각자 연꽃을 손에 쥐고 일렬로 나아가는 행렬도가 그려졌다(그림 7,8). 그림 7은 향로를 머리에 인 시녀와 스님이 차례대로 앞서고 그 뒤를 묘주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과 또 다른 시종들이 따르고 있다. 그림 8의 행렬도는 2구의

비천상 아래에 그려졌는데 세 명의 인물이 연꽃줄기를 손에 쥐고 일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7〉 공양인행렬도, 쌍기둥무덤, 5세기 후반



〈그림 8〉 공양인행렬도, 안악 2호무덤, 5세기 후반

공양인 행렬도는 중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벽화 제재이지만, 하서지역 북방민족의 불교미술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제재이다. 이는 묘주 생전의 봉불활동을 묘사한 것이거나 혹은 묘주의 극락왕생을 비는 가족들

의 공양 행렬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궁극적으로 사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불교적 사후세계관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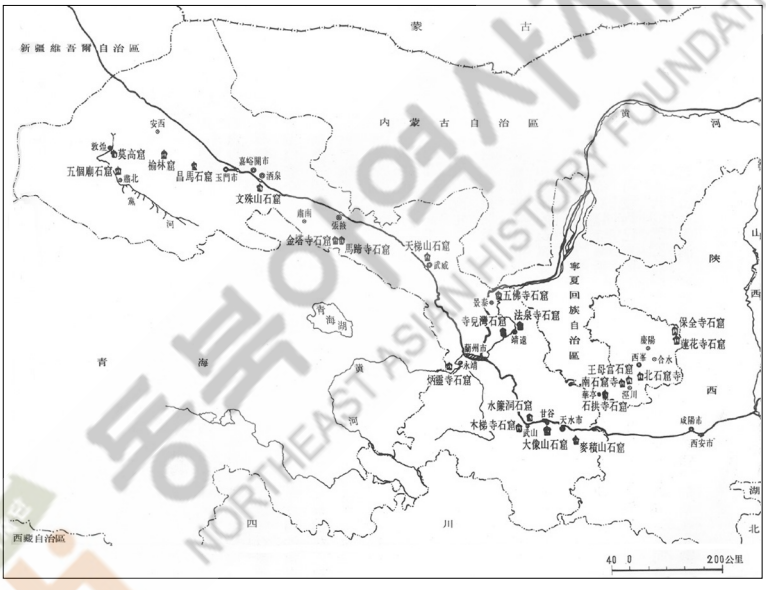
Ⅲ.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불교적 제재와 오호 16국 시대 하서(河西)지역 불교 석굴벽화와의 비교

동한 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삼국시기와 오호 십육국 시대를 거쳐 불교는 중원이 아닌 감숙, 즉 하서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의 중원은 잦은 전란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가 불안하였으며 그 결과 새롭게 전래된 불교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경제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게다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으로부터 소개되는 불교문화를 바로 접할 수 있었던 하서지역에서는 북방새외민족 군주의 열렬한 후원아래 수많은 서역 승들이 역경사업과 석굴 개착 사업 등 활발한 불교문화활동을 펴나갔다.

당시 이 지역의 불교문화의 양상을 알려주는 유물, 유적으로는 사원에 세워졌던 석탑과 거대한 규모의 석굴사원을 꼽을 수 있다. 석탑은 주로 주천(酒泉)과 돈황지역 일대의 북량시기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그 중 상당수가 기년명을 확인할 수 있다.[3] 또한 당시에 개착된 초기 석굴사원으로는 영정(永靖) 병령사석굴(炳靈寺石窟), 무위(武威) 천제산석굴(天梯山石窟), 문수산(文殊山) 천불동(千佛洞),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등이 있는데[4], 흉노

3) 관련자료는 張寶璽編著, 2000, 『甘肅佛教石刻造像』(甘肅人民美術出版社. 蘭州)참고.
4) 문헌기재에 의하면 돈황 막고굴은 장씨(張氏)의 전량(前涼) 시기인 4세기 중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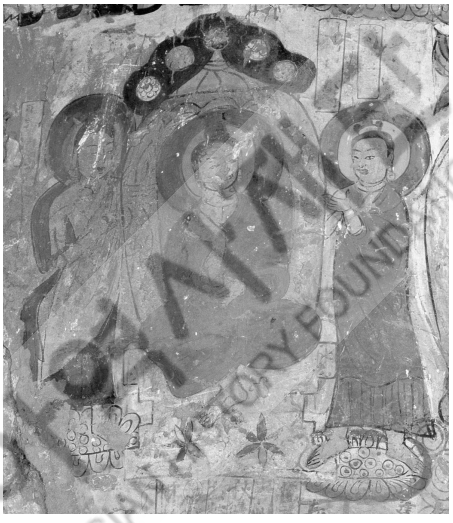
(匈奴)나 선비족(鮮卑族) 등에 의해 조영된 이 석굴사원들은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인도미술의 특징이외에도 북방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다(삽도 3). 특히 서진(西秦)시기에 조영된 병령사 169굴은 420년이란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벽화가 남아있어, 초기단계의 북방민족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삽도 3〉 중국 하서지역석굴분포도

석굴이 개착되기 시작하였으며 양주에서는 북량시기에 이르러 저거몽손에 의해 개착된 석굴이 가장 이른 예라고 한다. 양주지역 석굴에 사원에 대해서는 宿白, 1986, 「凉州石窟遺迹和"凉州模式"」, 『考古學報』1986-4, 435~446쪽; 董玉祥·杜斗城, 1986, 『北凉佛教與河西諸石窟的關系』, 『敦煌研究』1986-1, 90~98쪽 참고.

당시의 석탑이나 석굴벽화에 표현된 주요 제재들을 살펴보면 불, 보살상과 비천, 부처의 일생을 표현한 불전도 그리고 공양인 행렬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양인 행렬도는 실재하는 인물들을 묘사한 것이니만큼 인물의 표현 방식이나 복식 등에서 북방 민족 고유의 전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제재들과 도상적인 상관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을 앞에서 소개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제재들과 간략하게 비교, 고찰해 보겠다.



〈그림 9〉 불상, 병령사169굴, 西秦(420)

먼저 장천1호무덤의 불상과 관련 있는 사례는 병령사 석굴의 169굴 6호 감벽에서 발견된다(그림 9). 불신(佛身) 뒤로 화염형의 신광(身光)이 보이며 그 뒤로 타원형의 검은 물체가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서진시기의 병령사 석굴을 제외하고는 감숙지역이나 중원지역에서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고구려에서도 장천1호무덤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형태이다. 또한 불상의 대좌도 장천1호무덤과 동일한 수미좌(須彌座) 형식으로, 두 상 사이에서 연상되는 도상적인 상관 고리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장천1호무덤에서 불상과 함께 좌우 양 벽에 표현된 8구의 보살상들은 주

천에서 발견된 북량시기의 석탑에서 그 시원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북량시기의 석탑에 장식된 제재는 바로 칠불과(七佛) 팔보살(八菩薩)이 주류를 이루는데, 장천1호무덤에서의 팔보살이라는 제재의 등장 배경이 바로 북량시기의 석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5] 특히 돈황 막고굴 275굴에 표현된 두 구의 보살상(그림 10)은 머리의 두광(頭光), 영락(瓔珞) 장식, 옷 주름 등에서 장천1호무덤의 보살상과 양식적 유사점을 보여준다.

또한 장천1호무덤에 묘사된 비천상도 병령사 석굴 169굴의 6호 감벽에 나타나는 비천상(그림 11)이나, 주천에서 발견된 북량의 민주묘탑(旧酒泉



〈그림 10〉 보살상, 돈황막고굴 275굴, 북량



〈그림 11〉 비천, 병령사 169굴, 서진(420)

5) 溫玉成, 2001, 「集安長川一號高句麗墓佛教壁畵研究」, 『北方文物』 2001-1, 32~38, 70쪽 참고.



〈그림 12〉 연꽃, 병령사 169굴, 서진(420)



〈그림 13〉 연꽃, 장천1호무덤, 5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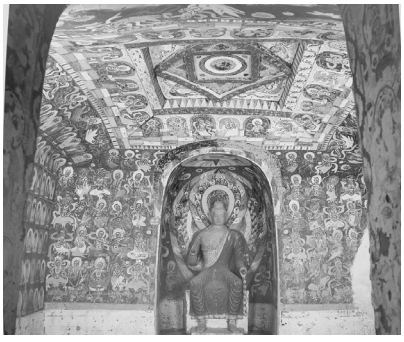
塔)(426년)에 새겨진 비천상과 비교가 되는데, 두광과 상의에 걸친 천의, 하의만 착용한 점 등에서 강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특히 비행하는 자세와 상체와 하체가 모두 평면으로 처리된 점에서도 기법상의 연관성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장천1호무덤에 나타나는 불교적 제재는 바로 서진 및 북량시기의 불교석굴벽화와 석탑에 표현된 제재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작 연대로 병령사 석굴과 주천 민주묘탑의 연대를 감안해 볼 때 늦어도 5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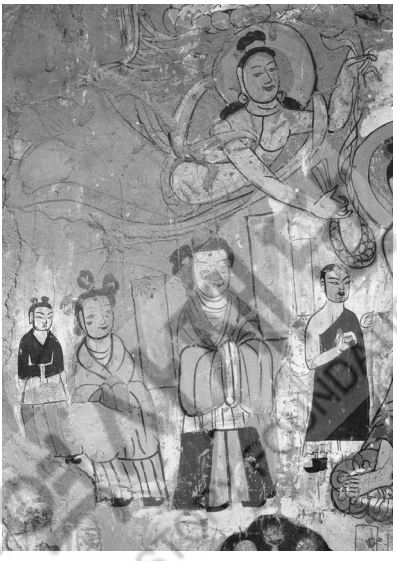
불교미술에서 자주 표현되는 또 다른 제재로서 연꽃을 빼놓을 수 없다. 연꽃은 불교적 세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식제재로서, 불상과 보살들이 장엄된 공간의 여기저기에 장식되기도 하는데(그림 12), 이러한 표현은 바로 장천1호무덤의 앞칸 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그림 13).

연꽃이 주로 표현되는 또 다른 공간은 하늘을 상징하는 천정의 중앙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연꽃이 천정 중앙에 그려진 예를 중의 하나는 쌍기둥무덤으로, 감숙지역에도 이처럼 무덤의 천정 중앙에 연꽃이 장식된 사례가 주천의 정가갑5호묘(丁家閘5號墓)(북량시기로 추정)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쌍영총을 비롯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는 삼각고임의 천정 중앙에 만개한 연꽃이 그려지며 주변에는 화염문이 장식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유사한 천정의 구조와 장식 제재를 보여주는 사례는 북량시기의 돈황 막고굴 268굴에서도 발견된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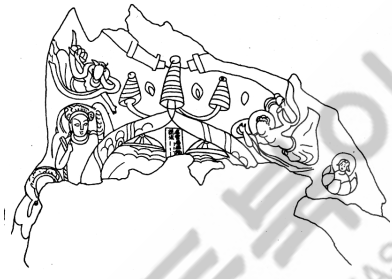
연꽃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한 제재로 연화화생이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화화생이 등장하는데, 연꽃에서 사람이 바로 화생하는 형태(그림 6), 연꽃이 담긴 정병에 화생의 기(氣)를 표현하여 생명력을 암시한 형태, 그리고 연꽃 위에 생명을 상징하는 화염이나 기를 표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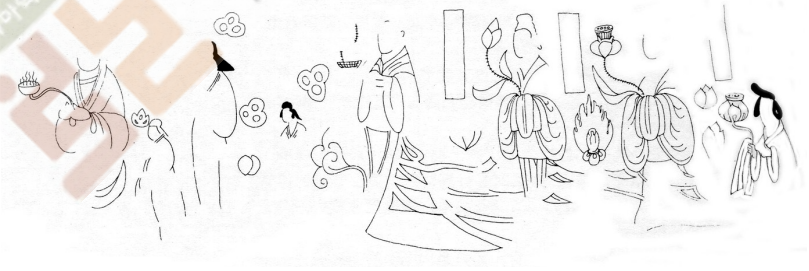
〈그림 14〉 천정화, 돈황막고굴 268굴, 북량



〈그림 16〉 공양행렬도, 병령사169굴, 서진(420)



〈그림 15〉 연화화생, 병령사 169굴, 서진(420)



〈그림 17〉 공양인 행렬도, 병령사 169굴, 서진(420)

형태 등이다. 이러한 예들도 역시 감숙지역의 석굴벽화를 통해 북방민족들에 의해 즐겨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병령사 석굴벽화(그림 15)에서, 세 번째 유형은 문수산 천불동 석굴의 연화화생 표현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양인 행렬도를 살펴보면, 감숙지역의 경우 병령사 석굴 169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공양인 행렬도가 표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7). 이들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나, 검은 머리의 스님이나 향로를 든 시종이 앞서는 모습, 연꽃 봉오리를 손에 쥐고 있는 점 등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공양인 행렬도와 아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제재들을 감숙 지역의 초기 불교석굴벽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는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석굴벽화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농밀(濃密)하게 보이는 불교적 정취는, 세속적 생활상이나 도교적 신화로 가득 채워진 중원의 고분벽화나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북방새외민족의 그것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며 새로운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석굴이나 석탑 등 불교미술에 사용된 제재들을 묘실의 벽면에 장식하여 무덤의 공간을 마치 석굴사원과 같은 불국정토로 꾸며 놓았다. 이것은 고구려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위에 불교적 세계관이 도입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유한 문화적 바탕 위에 새로운

외래문화를 흡수함으로써 중국보다 다양하고 독자적인 고분미술을 창조해 내었던 것으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고구려인들의 성숙한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창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 때 광활한 화북지방을 통일하였던 북위는 무리하게 한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고구려는 시종일관 그들의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또한 견지하여 새로운 문화적 조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는 전통과 조류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었다.

고구려가 감숙지역의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배경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의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고구려의 활발한 대외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고구려는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진(前秦)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북방민족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방민족의 교통로인 몽고 초원길을 왕래하면서 서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교문화 및 서역의 새로운 문화들을 신속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덤벽화에 반영된 고구려의 정치, 군사 및 문화의 독자성

지승철 (과학지도국 부국장)

우리는 지난해 9월 금강산에서 고구려력사유적 세계문화유산등록기념 북남공동사진전시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 또다시 고구려와 함께 빌해를 회억하는 의의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였다.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벽화무덤은 수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색으로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세태풍속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한국가의 력사와 전통을 한눈에 그려볼수 있게 묘사해낸 민족의 귀중한 재보일뿐아니라 가치있는 력사자료이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는 고구려사람들의 훌륭한 예술적재능과 우수한 회화술이 반영되여있으며 고구려사람들의 다양한 생활면모가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고구려무덤벽화가운데 인물풍속도를 통하여 고구려

의 정치, 군사 및 문화의 독자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무덤벽화에 현실주제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인물풍속도에는 당대의 정치, 군사, 문화의 발전정도가 폭넓게 묘사되여있으며 이 분야에서의 고구려의 독자성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에는 첫째로, 황제국가의 위용을 과시한 고구려의 독자성이 잘 반영되여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정사도와 행렬도 등 여러 그림들에는 자신의 사회정치적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려는 봉건통치배들의 모습을 비롯하여 당대의 정치생활의 일단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고있다. 그려한 그림들이 있는 대표적인 무덤들은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평양역전무덤, 감신무덤, 안악1호, 2호무덤, 태성리1호무덤, 복사리벽화무덤 등이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에 반영된 황제국가의 위용을 무엇보다 먼저 최고군주의 황제적지위를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최고군주의 황제적지위를 잘 보여주고있는것은 고국원왕릉의 행렬도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우선 왕이 탄 수레앞에 날리는 '성상번(聖上幡)'이라는 기발에 주목해야 한다. 아시다싶이 '성(聖)'이란 지극히 존귀함을 이르는 말로서 '천자'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력대로 천자의 생일을 '성단(聖旦)'이라고 하고 황제의 훈계나 지시를 '성훈(聖訓)', '성유(聖諭)'라고 하였다. 결국 '성상'이란 지극히 존귀한최고군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황제', '천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

이것은 고구려가 황제국가의 틀을 갖춘 대국이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만약 고구려가 그 누구의 '속국'이였다면 감히 '황제'를 의미

하는 '성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였을것이다.

이 그림에서 또한 의장대-대행렬도의 방대함에 류의해야 한다.

전배와 중배의 일부분만 그린 고국원왕의 대행렬도에는 250여명의 많은 인원이 그려져 있는데 뒤부분까지 그렸다면 500여명이 넘는 대행렬이였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고국원왕의 행렬도는 실지 행렬을 집약 함축한 그림으로서 전배와 중배일부분에도 많은 인원들이 빠져있다고 할수 있다. 실례로 궁중악수들인 마상고취악대의 악수들은 단 4명뿐이며 왕의 호위병인 부월수들은 각각 5명, 개마무사도 각각 4명씩밖에 그리지 못하였다. 왕의 시위대인 환도수, 창수, 궁수들도 각각 2명, 7명, 4명밖에 안된다. 고려시기 왕의 의장대별악수가 258명, 리조시기 궁중악대의 한대오가 128명이였고 리조시기 왕의행렬시위군의 한개 시위대가 50명, 중배총통위가 300명이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고국원왕의 행렬중배인원은 매 시위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만 그린것으로 인정되며 왕의 행렬이 어련(임금의 수레)뒤부분에 더 많은 인원이 따라섰던 사실을 비추어 볼때 고국원왕 행렬의 실제인원은 500여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였음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이런 요란한 의장대는 속국의 국왕으로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으로서 당시 고구려의 군주는 황제적지위에 있었고 고구려는 황제국가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수서(권81) 고구려전에서 고국원왕이 '소렬제(昭烈帝)'라는 시호를 받은 황제였음을 밝히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 반영된 황제국가의 위용은 다음으로 제천의식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제천의식장면을 형상한 벽화는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던 국내성 즉 오늘의 집안에 있는 장천1호무덤의 벽화를 들수 있다. 앞칸 동쪽벽전체를 차

지하고 그려진 전경화형식의 화폭중심웃부분에는 배인듯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큰 과일나무를 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경배(존경하여 절하는것)하는 모습을 중심주제로 두드러지게 묘사하였고 그 둘레에는 노래와 춤 및 씨름, 말타기와 말다루기, 손재주 등 여러가지 성대한 축제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화면아래에는 넓은 지대에서 갖가지 짐승들을 사냥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화면좌측아래에는 산중의 굴속에 한마리의 곰이 장식무늬를 타고앉아있는것을 그리였다.

벽화에서의 배나무는 경배장소를 의미하며 무르익은 과일들과 누른 잎사귀들은 가을철을 표현하고있는것으로 리해된다.

벽화에 보이는 이 장면들은 고구려에서 큰 정치행사의 하나로 벌어지던 제천행사를 가리킨것이라고 할수 있다. 『후한서』(권85) 고구려전이나 『삼국지』(권30) 고구려전 등에서는 고구려에서 해마다 10월에 나라안에서 큰 행사—'국중대회'인 '제천대회'를 가지고 왕이 직접 참가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전하고있다.

옛날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제천' 행사는 "오직 천자만이 할수 있는것"이라고 하였으며 제후는 땅에 제사지내는 의식 즉 '제토(祭土)' 행사만을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제천행사를 '국중대회'로서 거행한것은 고구려가 당당한 황제국가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고구려무덤벽화의 정치생활주제화들에는 황제국가의 위용을 과시한 고구려의 정치적독자성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에는 둘째로,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고구려의 군사적독자성이 잘 나타나있다.

해당나라의 군사력가운데서 군사적독자성이 명백히 안겨오는것의 하나

는 무기무장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나라마다 자연기후적조건과 생활습성 등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무기무장을 창조하여 발전시키기때문이다.

고구려의 무덤벽화의 군사물주제화에는 자기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무기무장을 창안제작하여 사용한 고구려의 군사적독자성이 잘 반영되어있다.

고구려무기무장의 고유성은 무엇보다도 살상무기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안악2호무덤, 쌍기둥무덤, 감신무덤, 고국원왕릉, 세칸무덤 등의 고구려무사도와 군사대렬도에 보이는 살상무기에서 먼거리무기에 속하는 활은 짧은 활이 대부분인데 짧은 활은 전형적인 굽은활로서 그 탄력이 매우 셌으며 『삼국지』 위서 고구려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맥궁'(고구려활)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것이였다. 살상무기에서 육박전투무기로 쓰인 무기는 칼과 창이 대부분인데 칼은 고구려무덤들에서 많이 드러나는 고리자루긴칼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며 창 역시 고국원왕릉의 무덤벽화에서 나오는것처럼 독특한 형식의것이였다.

군사물주제화에 보이는 고구려무기무장의 고유성은 다음으로 방어무장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방어무장에서 기본은 갑옷과 투구, 방패이다.

무덤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갑옷은 고국원왕릉, 세칸무덤, 감신무덤을 비롯하여 4세기의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이 웃옷과 아래옷이 구분되고 목깃(경당)이 있으며 어깨와 팔 웃부분, 다리까지 가리우게 되여있는 쇠찰갑(패갑)이였다. 이것은 당시 이웃 나라에서 쓰이던 가슴과 배, 등만을 가리우게 된 갑옷들과는 다른 고구려고유의 갑옷으로서 중세 방어무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형식의것이였다.

방어무장에서의 고유성은 투구에서도 볼수 있는데 세칸무덤벽화에 나오는 고구려군사가 쓴 투구는 쇠패쪽투구이나 적병이 쓴 투구는 쇠주물투구

로서 투구의 호상차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또한 고구려군대가 쓴 방패는 사과쪽모양의 타원형의 방패와 긴 륙각형모양의 방패로서 당시 고구려이외의 무덤벽화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유한것들이였다.

군사물주제화에 보이는 고구려무기무장의 고유성은 다음으로 마구와 말갑옷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쌍기둥무덤벽화의 고구려기마군사그림에는 안장과 등자, 말띠와 띠고리가 다 나오며 안장에도 전안교와 후안교, 안교깔개, 말다래가 있고 말띠에는 가슴걸이, 고들개가 있으며 말띠고리에 교차금구까지 있다. 자갈은 물려개, 자갈멈추개, 끌대 등 세부분으로 되어있고 치레거리로서 방울, 운주, 행엽까지 달려있다. 마구는 고구려의 칠성산96호무덤이나 만보정87호무덤에서 나온 등자로 보아 3세기에 이미 완성되였으며 서쪽으로는 중국과 유럽으로, 남쪽으로는 백제, 신라, 가야를 거쳐 일본에까지 보급되였다.

고구려무기무장의 고유성은 개마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구려의 개마형태는 고국원왕릉,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세칸무덤, 통구12호무덤, 대안리1호무덤, 태성리1호무덤, 팔청리벽화무덤 등 많은 무덤벽화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의 개마는 말머리에 씌우는 마면갑, 말몸체부분을 씌우는 말갑옷과 개마장식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마면갑은 통철판으로 만들었는데 눈부분을 원형으로 도려내고 옆에는 볼보호형호판을 달았으며 귀에는 꽃잎모양의 귀막이를 하였다. 말갑옷은 쇠패쪽으로 만든것과 가죽으로 만든것이 있는데 모두 말의 다리아래까지 내려오도록 드리웠다. 꽃잎모양의 귀막이를 한것이라든가 다리아래까지 드리우도록 말갑옷을 만들어 씌운것은 고구려개마의 고유성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있다.

이처럼 고구려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자기식의 고유한 무장장비를 만들어 낸 사실은 고구려가 군사분야에서도 독자성이 뚜렷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들에는 셋째로, 고유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창조발전시킨 고구려문화의 독자성이 잘 반영되어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인물풍속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 문화생활주제화이다. 고구려무덤벽화의 문화생활주제화는 그가 반영하고있는 문화생활의 종류에 따라 무용도, 음악도, 집안생활도, 씨름도, 교예도, 작화도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진 벽화무덤들은 춤무덤, 장천1호무덤, 통구12호무덤, 마선구1호무덤, 태성리1호무덤, 강서큰무덤, 통구17호무덤, 고산동10호무덤, 고국원왕릉, 쌍기둥무덤, 안악1호무덤, 평양역전벽화무덤, 감신무덤, 약수리벽화무덤, 팔청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 씨름무덤 등이다.

문화생활주제화에 보이는 고구려인민들의 문화생활풍속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무엇보다 먼저 옷차림풍습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벽화에 그려져있는 고구려사람들의 옷차림은 크게 남자의 옷차림과 녀자의 옷차림으로 갈라서 볼수 있다.

남자옷에는 저고리와 바지, 겉옷과 띠, 머리쓰개와 신발 등이 있다. 저고리는 모두 앞을 터졌으며 곧은 깃을 달고 섶은 어긴섶이며 소매끝과 깃, 도련에는 선을 달고 허리에는 띠를 매였다. 팔소매와 바지가랑이는 통이 좁은것과 넓은것이 있으며 통치계급은 통이 큰 넓은 바지에 무늬장식을 한 화려한 색갈의 옷을 입고 인민들은 통좁은 바지에 단조로운 색갈의 옷을 입었다. 겉옷으로는 두루마기와 덧저고리가 있으며 모두 띠를 매게 된것들이다. 귀족들은 가죽띠에 금, 은, 동으로 장식하고 평민들은 천띠를 매였다. 머리쓰개는 머리수건, 절풍, 책[1], 관, 패랭이 등이 있는데 머리수건은 일반평민들이, 절풍, 책은 중등급귀족들이, 관은 높은 급의 귀족들이 쓴것이다. 신에는

목달린것과 목없는것이 있는데 모두 앞창이 들리고 코가 뾰족하게 도드라진 신들이다.

녀자옷차림은 저고리와 바지, 치마, 겉옷, 띠, 머리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된다. 저고리와 바지는 남자의 것과 비슷하며 귀족부인들이 입는 옷은 무늬가 호화로운 비단으로 만들었다. 치마는 대체로 주름을 잡고 단에 선을 댄것으로서 지금의 주름통치마와 비슷하다. 겉옷에는 두루마기가 있는데 깃이 곧고 단에 선을 대었으며 허리에 띠를 매게 되였다. 겉옷에는 또한 통치마와 통저고리가 맞달린 형식의것도 있다. 머리쓰개는 고구려에 고유한 '건괵'이라는 머리수건과 털모자가 있으며 신은 남자의것과 같이 목달린것과 목없는것이 있는데 모두 코가 뾰족하게 들린 코신들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보이는 남자들과 녀자들의 옷차림풍습은 다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것들이다.

특히 곧은 깃에 어김섶을 한것이며 소매끝과 깃에 선을 단것, 여러가지 색갈로 이루어진 주름치마의 단에 선을 댄것, 소매와 바지가뱅이가 좁은것, 절풍, 머리수건 같은 특징은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민족옷차림에서 특징적인것으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을 잘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문화생활주제화에 보이는 고구려인민들의 문화생활과 생활풍속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다음으로 음악과 무용 교예도들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춤무덤의 무덤벽화에 나오는 고구려의 악기인 4현금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악기인 거문고와 비슷한것으며 고국원왕릉과 평양역전벽화무덤의 무덤벽화에 보이는 뿔나팔은 당시 다른 나라의 나팔과는 형태가 다른 고유한

1) 고구려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대가, 주부 등 벼슬이 귀한 자는 책을 쓴다고 하였다. (『삼국지』 권30 위서, 고구려 및 '한원' 번이부 고려기 참조)

것이였다. 무용도와 교예도들에 나오는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가락과 씩씩한 춤동작들, 아름다운 무용복, 현재도 볼수 있는 말타기교예와 손재주, 말재주들은 우리 나라 교예의 오랜 력사와 그 원형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장천1호무덤에 그려진 무용장면은 부드러운 릉동으로 긴 소매옷을 입고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팔을 많이 놀리는 우리 나라 춤의 특색을 잘 살리고 있다. 팔청리벽화무덤의 말재주, 수산리벽화무덤의 나무다리교예사와 손재주교예사를 그린 장면은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기교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나라 교예의 민족적전통을 알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문화생활주제화에 반영된 고구려인민들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또한 씨름도와 장방생활도에도 엿보인다. 씨름무덤의 무덤벽화에 그려진 씨름그림은 고구려시기의 씨름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씨름과 같은 형식이며 우리 나라 고유의 씨름이 이미 고구려때 존재하고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집안생활풍습에서도 고국원왕릉의 왕비장방도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이 신을 벗고 구들에 올라가 생활하기 즐겨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풍습이 고구려시기부터 굳어져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문화생활주제화들에 보이는 이러한 고유한 생활풍습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우수하고 독특한 고구려의 문화생활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는 동시에 오랜 문화전통을 가지고 련면히 계승되어 온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을 잘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덤벽화의 정치생활, 군사물 및 문화생활주제화들에 표현되는 정치체제의 독자성, 무기무장의 고유성과 우수성, 문화생활의 민족적특성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정치제도 및 군사제도를 가지고 문화생활에서 강한 민족적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민족의 나라였다는것을 실물로 보여주고있다.

고구려풍습을 통해 본 조선민족의 력사적전통

-온돌유적과 수자를 중심으로-

조희승 (력사연구소 고구려사연구실 실장)

무릇 풍습(또는 관습)이라 할 때 개인적인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회적집단속에서 진행되는 상습적행위로서 사회적유산의 총체를 가리킨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집단이 상습적으로 진행하는 폭넓은 문화의 한 요소를 풍습 또는 관습이라고 한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살면서 찬란한 문화와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창조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이웃나라들에는 없는 독특한 여러 풍습들이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뜨뜻한 구들장우에 앉아 방안생활을 하는 풍습과 조선사람의 기호와 정서적감정에 맞는 수자를 즐겨 쓰는 관습 등은 그러한 독특하고 특색있는 풍습가운데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학계의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조선민족의 특징적인 난방시설의 하나인 온돌(구들)풍습과 조선사람들이 력사적으로 즐겨쓴 수자

'8'과 관련된 관습을 통해 민족의 력사적전통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조선이래 고구려와 발해, 고려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온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는것을 고증하기로 하였다.

온돌생활풍습은 조선민족의 특유한 방한난방풍습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살림집의 난방보장을 위한 시설은 있기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비하는가는 서로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살림집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생활양식과 풍습을 반영한다. 특히 겨울용 방한난방시설마다에 그 나라 그 민족의 자연기후적조건과 생활풍습이 비껴있다.

온돌은 아궁, 고래, 굴뚝으로 이루어져있다.

온돌시설은 하나의 아궁을 통하여 넓은 면적의 방안전체를 덮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고유의 취사용을 겸한 난방시설이다.

연도(연기가 나가는 길-고래구들)를 몇길로 뽑는가 하는것은 그 나름대로의 시기별로되는 발전사적단계가 있다.

온돌은 조선민족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대에서 살면서 창조한 특수한 난방시설이다. 그것은 신발을 벗고 방안 생활을 하는 조선의 민족적특성에 맞는 난방시설이였다. 다시말하여 신발을 신고 방안생활을 하는 한족이나 만족, 유럽 여러 민족들 그리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기후지대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신발을 벗고 방안생활을 하는 조선민족의 특성에 맞게 창조된 아주 우월한 난방시설이였다는 사실이다. 유목민족들인 로씨야족을 비롯한 여러 유럽나라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나무마루바닥에서 생활하는 습성에 맞게 벽난로나 뻬찌까식난방이 도입되였고 일본은 습기가

많은 자연기후적생활환경에 맞게 처음은 방안가운데에 바닥을 네모반듯한 홈을 따서 만든 난방시설을 만들었다. 이것을 로를 둘러싼다는 의미에서 '이로리'(囲爐裏)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히바찌'(火鉢)라는것이 있다. 이것은 나무나 금속제 및 도기로 한 아름이나 되게 만든 큰 버치로서 그안의 재무지속에 숯불을 넣어 손을 덮히거나 찬물을 끓이는데 쓰는 이동식 '이로리'이다. 신발을 벗고 방안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조선과 같으나 난방시설로서의 온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본에는 이밖에도 '고따쯔'(炬燵)가 있다.

'고따쯔'는 '따따미'(畳짚깔게)생활을 하는 일본풍습에 맞게 창안도입된 난방시설이다. '이로리'가 주로 지방농촌들에서 주고 많이 도입된것이라면 '고따쯔'는 도시생활에 적응된 난방시설이다. '고따쯔'는 '이로리'우에 나무로 틀거리를 만들어 그 우에 이불을 씌운것이다.

중국은 처음 깔개를 땅바닥에 깔고 생활하던 습관이 위나라와 진나라때에 와서 앉는 의자가 생겨났고 당나라와 송나라때에는 오늘과 같이 신발을 신고 앉는 풍습이 생겨났다. 의자는 대개 등받이있는 의자와 등받이없는 의자를 썼으며 탁이나 책상을 많이 썼다. 난방시설로는 방안에 화로를 설치하거나 이동식화로를 두는것을 보편화하였다. 앙소문화시기의 락양이나 서안시 그리고 은나라때의 가옥은 입구가까이에 로가 있거나 가마터가 있었으며 벽체에 접하여 불을 때는것이 상례였다. '캉'은 황하류역과 같은 중국중원지방의 고유한 난방시설이라고 할수 없다. 그것은 오늘의 동북부지역의 것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의 난방시설인 '캉'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비롯한 비교적 추운 지대에 많이 분포되여있다. '캉'이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서는 잘 알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쓴 풍습자료는 금나라(1115~1234)때에 나온다.[9] 부뚜막명기가 드러난 무덤은 호북성 방현에서 나온바 있다. 이 무덤들

의 년대는 132년과 176년이라고 한다.[2]

우리 나라의 온돌과 '캉'은 일련의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은 첫째로 '캉'은 조선온돌과 달리 고래가 꺾이지 않고 곧추 편결되어 있으며 고래가 높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캉'은 온돌처럼 전면구들이 아니라 부분구들이라는 사실이다. 셋째로 '캉'은 온돌보다 고래가 높기때문에 굴뚝의 구경이 크다.[3] 요컨대 '캉'은 바닥이 높게 설정된것으로하여 방바닥에 편히 앉아서 생활하는 조선민족의 풍습과는 달리 걸터앉기를 좋아하는 한족이나 만족들의 민족적풍습에 맞게 만들어진 난방시설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도 한족들은 온돌구들장우에 편히 앉아 지내지 못하고 의자우에 앉아있기좋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캉'은 신발을 신고 방안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방안생활을 하면서 걸터앉게 만든 난방시설인것이다.

하지만 온돌과 '캉'은 서로 류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것은 '캉'이 온돌의 영향하에 만들어졌다는것이다. 즉 '캉'이 조선의 온돌과 비슷한 형식이고 그 유물이 극히 적은것으로 하여 '캉'은 본시 고구려에 존재한 온돌이 7세기중엽에는 중국동북지방에, 10~12세기에는 다른 여러 지방들에확대되였다고 볼수있다.[4]

온돌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난방시설로서 내용이 독특하며 우월성이 많다. 또한 력사도 오래다. 온돌은 조선민족을 특징짓는 풍습, 관습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구들(온돌)유적으로서는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1~3) 「우리 나라와 이웃나라들의 살림집난방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6년 1호, 41쪽.
4) 우와 같은 잡지 인용도서 1967, 『중국동북지방중국인들의 물질문화』(로문), 65쪽.

1호, 2호집자리, 중강군 토성리, 평안북도 녕변군 세죽리,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유적 (제2지구 2호집자리) 등이 알려져 있다. 토성리유적에서는 제4구와 제5구의 문화층에서 5개의 구들시설이 드러났다. 이러한 구들시설은 곧은식고래와 꺾음식고래의 두가지가 다 있었다.[5]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에도 구들장을 놓고 겨울을 나는 난방시설이 계승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고구려 건국초기의 방어요새인 오녀산성의 병영터에서 온돌이 드러났다. 1996~1998년까지 조사 발굴된 결과 오녀산성꼭대기의 여러 병영터 바닥에는 모두 구들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병영집터에서는 질그릇과 철기, 쇠활촉, 쇠갑옷, 쇠찰갑 등이 드러났다. 고구려초기의 첫 왕궁터로 비정되고 있는 오녀산성도 일단 유사시에 주민집단이 들어가 방어하는 성새였던것으로 보아진다. 초기의 왕궁은 대성산성과 안학궁과의 관계처럼 오녀산성아래의 하고성자(下古城子) 토성일대였을것이다. 만약 오녀산성산꼭대기에 왕궁이 있었다면 그것은 림시별궁이였을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나 광개토왕릉비에서 말하는 졸본(卒本)이나 비류골의 홀본(忽本)은 하고성자나 오녀산성을 포함한 지대전체에 대한 지리적개념이였을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서 말하는 비류골 홀본의 서쪽성산우에 수도를 세웠다고 한것은 맨 처음의 일이였을것이고 곧 불편한 산꼭대기우의 생활로부터 내려와서 하고성자토성일대에 왕궁과 주민집단의 거주지를 꾸렸을것

5) 1984, 『조선원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7~162쪽; 1996, 『고고민속』 4호, 16~18쪽; 1974, 『고고학자료집』4(사회과학원 출판사), 140~146쪽 등. 여기서는 구들자체에 대한 자료와 설명은 본 론문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략하였다.

이다.

병영의 방전체를 덮히는 구들-온돌시설은 고구려의 고유한 난방시설이였다. 이와 같이 병영에 구들장을 놓은것은 고구려사람들이 가는곳마다에 설치하군하는 고정적시설이였다.

실례로 고구려장수왕(통치기간 413~491)때 고구려군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구려군의 장수 걸루와 만년은 맡에서 내려 절하는 백제개로왕의 죄를 따진다음 아차성아래에 끌고가서 죽여버리였다. 고구려의 장수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이 개로왕을 아차성아래에 끌고간것은 바로 아차산일대에 고구려의 군사기지-군사병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최근 아차산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의 결과 고구려의 원형 보루라는 독특한 고구려병영이 드러났고 또 이 일대에서 13기의 온돌(구들)이 조사되였다. 여기 온돌은 모두 외고래온돌이며 직선형과 ㄱ자형의 온돌이 있었다.[6] 온돌은 몽촌토성내에서도 드러났다.

고구려의 온돌은 대동강문화발상지의 하나인 표대유적에서도 드러났다. 대동강연안에 위치한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俵大)유적에서는 고구려의 문화층에서 두개의 온돌이 검출되였다. 하나는 외고래온돌이고 또하나는 하나의 주택에 두개의 온돌을 놓은 두개짜리 온돌이였다. 두개짜리온돌은 길이가 11m가 넘는 대단히 큰 주택에서 드러났다. 고구려의 정치적중심지인 평양에서 정릉사 다음에 두번째로 온돌유적이 드러난것은 온돌력사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표대유적뿐아니라 이른시기의 온돌유적은 2004년 개성공업지구의 북

6)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년 5월, 84~88쪽 및 사진 283.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종합보고서-』 2000년 10월, 102~119쪽.

남공동발굴장에서도 드러났다. 대체로 3~4세기경의 구들고래로 보아지는 온돌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고구려의 온돌자료로는 이밖에도 국내성이 있던 동대자유적과 동명왕릉 앞 정릉사승방터에서 드러난것이 있다.

온돌모습이 뚜렷한 동대자유적은 동서로 긴 장방형평면으로 되어있다. 기단우에는 회랑에 둘려싸인 몸체가 있다. 몸체는 동서로 잇달린 3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다. 동쪽과 서쪽방은 크고 가운데방은 좁고 길다. 동서의 큰 방들에는 각각 하나씩의 구들들이 놓여있었다. 구들은 낮고 길었다. 그 평면은 아궁목이 꺾이우고 ㄱ자형으로 되어있다. 동쪽방의것이 외고래이고 서쪽방의것이 두고래이다. 온돌은 동쪽벽 남쪽부분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가다가 북쪽벽에 이르러 서쪽으로 꺾이여 나갔으며 서쪽벽에 이르러 북쪽으로 빠져나가 굴뚝과 이어졌다.

굴뚝은 매우 크다. 6m가량 떨어져있는 굴뚝은 개자리의 직경이 1m이상되며 굴뚝에 쌓인 돌무지직경은 4m가 넘는다.[7]

평양시 교외 동명왕릉앞 정릉사터에서도 1구역10호건물터에서 온돌이 드러났다. 8각형우물과 가까운 위치에 놓여있는 이 구들은 정릉사의 중들이 살던 승방터로 추측된다.

고구려사람들은 안악 3호무덤이나 약수리벽화무덤의 벽화들에서 보는 것처럼 취사용부뚜막아궁을 고래와 직각이 되게 옆에 낸것과 고래와 같은 방향으로 내면서 연기를 고래를 통하여 굴뚝에서 뽑는 형식의 온돌을 사용하였다. 평안북도 운산군 룡호동의 기단돌각담무덤에서는 고구려벽화에서

7) 『고고』(중문) 1961년1기, 50~55쪽.

보는것과 꼭같은 쇠부뚝막모형(룡호리 2호무덤)이 드러났다.

문헌적으로 보아도 『신당서』(권 220, 동이렬전) 고려전에 "백성들이 추운 겨울철에 긴 구덩이를 파고 밑에서 불때서 (방안을) 덮힌다"고 하였다. 그와 꼭같은 기사가 『구당서』 (권 199 고려전)에도 있다.

구들장을 놓고 온 방안을 덮히는 독특한 난방시설인 온돌은 고조선과 고구려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백제와 신라, 가야사람들도 온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금관가야국이 있던 김해부원동C지구 2호집자리에서 확인할수 있었고 『삼국지』(위지변진조)에도 "가마터는 모두 집의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변진가야사람들이 집모서리에 가마를 걸었고 그 가마의 연기가 고래를 통하여 굴뚝으로 빠지는 구조를 가진데 대하여서는 상기 부원동의 고고학적자료가 립증해준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역시 고구려살림집의 기본적인 구조형식과 난방형식을 계승하였다.

발해에서 온돌이 드러난것은 무엇보다 먼저 왕궁이 있던 상경룡천부의 궁성 서구침전터에서였다. 궁성서구침전터는 상경룡천부 궁성의 중심구역의 서구의 남쪽으로부터 두번째 소구역 서북쪽에 있었다.

궁성서구의 침전터에는 온돌을 놓았다. 우선 방들과 회랑들에 온돌을 놓았다. 온돌은 1~2개의 고래로 된 ㄱ형의 긴 고래온돌이다. 아궁목도 ㄱ자로 꺾이였다. 침전터에 놓은 온돌은 모두 7개로서 동쪽방, 가운데방, 서쪽회랑에 각각 1개, 서쪽방과 북쪽회랑에 각각 2개의 구들을 놓았다. 아궁은 구들골과 련결되여있다. 구들골은 1~2개이다. 벽체에 붙여 평행으로 놓았다. 구들골은 벽체와는 평행이고 아궁이와는 거의 직각으로 련결되여있다. 북쪽회랑의 동, 서 량쪽에 놓은 구들은 외골이고 나머지 구들은 구들골이 2개이다. 모두 구들골은 2개의 굴뚝으로 뻗어나갔다. 동서 2개의 굴뚝은 대칭적

인 위치에 있으며 그 형태와 크기가 서로 같다.[8] 굴뚝은 굉장히 큰것이 특징이다. 굴뚝목이의 길이가 5.2m, 너비 3.2m, 높이가 1~1.4m이다.

이밖에도 발해의 온돌로서는 상경룡천부의 4궁전본전터에서 3개의 매 방에서 온돌시설이 드러났다. 4궁전서전터의 동서방에서도 3개정도의 온돌이 드러났다. 금호지구 오매터절골유적 금산 1호건물터에서도 2개의 온돌이 드러났다. 보건데 병영터에 온돌을 놓은것 같다.

서고성자(西古城子)성터내성안에서도 온돌굴뚝이 드러났고 발해의 주요한 도시성인 팔련성의 내성에서도 2호집터의 서쪽집터에서 북쪽으로 2개의 굴뚝과 온돌이 드러났다. 남경남해부의 소재지인 청해토성에서도 두고래로 된 10여개의 온돌시설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서 1호건물터와 2호건물터의 온돌은 땅바닥을 파서 고래를 만든것으로서 온돌면적은 상당한 정도 넓었다. 여기서 보는것처럼 발해사람들은 아궁목이 꺾이우고 ㄱ자형평면으로 된 긴 고래구들을 놓았다는 사실이다.

발해의 온돌유적으로는 그밖에 로씨아연해변강 노보고르제에브까고성, 스따로베첸스크고성, 보리쏘브까부락터, 끄르까끄브까부락터 등에서도 드러났다.

이상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온돌(구들)유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온돌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방안전체를 덮히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리용한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조선민족뿐이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겨울철난방으로

8) 199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사회과학원출판사), 185~187쪽.

는 돌로 구들시설들을 설치하고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돌을 달구어 방안전체를 덮히는 온돌을 리용하였다. 일본렬도에 건너간 조선사람들도 처음에 섬나라땅에서 조상전례의 풍습대로 온돌을 놓고 살았다. 실례로 후꾸오까현 니시징정유적 F지구 제1호집자리를 비롯하여[9] 가야사람들은 고국에서 살던 생활습성대로 구들장을 놓고 살았다. 또한 두드러진것은 660년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일본렬도에 망명해가서도 구들장을 놓고 살았다는것이 고고학적자료로서 증명되고 있다.[10]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 망명한 백제망명귀족들을 야마또정부는 특별히 우대하여 좌평 귀실복신의 공로로써 달솔 귀실집사에게 소금하의 벼슬을 주어 백제의 남녀 400여명과 함께 오오미국(시가현)의 가미사기고을에 살게 하였다.(권 27, 천지 4년 2월) 그 몇해후(669)에는 좌평 여자신과 좌평귀실집사 등 남녀 700여명을 가미사끼고을과 그리 멀지않은 가모고을에 옮겨 살게 하였다. 가모군은 다같이 현 시가현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가미사끼군의 서남일대가 가모군이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백제이주민집단들이 많이 살던 고장으로서 백제적무덤떼가 많다. 천지 '천황'(나까노오오에) 등 정변파는 반대파들을 피하기 위하여 오오미에 수도옮김을 하고 백제로부터 건너온 망명귀족집단을 수도가까이에 살게함으로써 저들의 정권강화를 획책하였다. 오늘도 가모군히노정오노(日野町小野)에는 귀실집사를 제사지내는 귀실신사(鬼室神社)가 있고 거기서 5km 떨어진 히노정데라지리(寺尻)에 있는 노다미찌(野田道) 유적에서는 돌로 고래구들장을 놓은 가

9) 2001, 『가야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01쪽.
10) 『아시히신붕』 (시가현), 1994년 1월 10일부기사.

마터가 드러났다.

이것뿐이 아니다. 일본 고분시기 중기 이후 5~6세기에 이르러 로(爐) 대신 조선식의 가마터가 출현하게 된것도 일본력사에서는 획기적사변이다. 이시기부터 살림집벽체에 가마터를 걸고 연기를 집밖에 내보내는 살림집들이 대대적으로 나오게 되였다. 화로(이로리)로부터 가마터에로의 이행은 취사용을 위한 화력의 분화를 의미하였으며 그전의 화로보다도 더 높은 화력을 얻을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질그릇을 굽는데서 평로로부터 등요에로의 이행이라는 기술적측면에서의 획기적개선이라는 력사적배경이 안받침되고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주민들의 식생활의 개선과 도기(수에끼)의 생산 등 생활양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나가노현의 히라이데(平出)유적 30호집자리처럼 가마터의 연기를 굴뚝으로 해서 집밖에 내는 실질적인 온돌이 출현하였다. 이 유적의 고래는 너비 약 20cm, 길이 80cm[11]라는 짧은것으로서 온전한 구들고래로는 될수 없으나 일본별도에는 종래 없었던 취사용 및 난방용고래였다.[12]

이처럼 우리 조선민족은 그 어디에 가나자기의 고유한 세속적풍습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갔다. 따라서 이러한 온돌풍습 하나만 보아도 민족의 오랜

11) 『세계고고학대계』(평범사), 1959년판 3, 일본 III, 65~66쪽.
『일본문화사대계』(소학관), 1957년판 2, 아스까시대, 249~252쪽.

12) 1m에 달하지않는 이 고래를 온돌구들로 보겠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가마터를 벽체에 붙여 연기를 집밖으로 내보내게 구조한것은 종래의 살림집구조에는 전혀 없었던것으로서 온돌과 같다. 살림집의 난방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획기적사변이였다. 5~6세기에 와서 이와 같은 가마터가 출현한것은 시루식가마의 형태와 더불어 조선식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다는것을 보여준다.

력사적전통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다만 왜땅에 건너간 조선사람들의 온돌풍습이 전반에 확산보급되지 못하고 의연히 '이로리'가 후세에까지 지배적인 난방시설로 유지된것은 조선이주민집단의 수가 원주민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수였고 또 온돌이 습기많고 겨울이 짧은것과 같은 일본의 자연기후적조건에 맞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왜정때 재일동포들이 일본땅에서 온돌을 쓰고산것은 1세대에 한할뿐 2세, 3세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같았던것이다.

다른 한편 발해사람들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도 계속 고구려의 옛 강토에서 조상전래의 온돌풍습을 유지한것은 발해국가를 창건하고 운영한 발해지배계급자체가 혈통적으로 고구려의 후손인 고구려유민들이였고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지켜나간 사람들이였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해동성국'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룡천부의 왕궁터를 비롯한 발해의 여러 주요도시들에 대를 이어 온 온돌구들을 찾아보게 되는것은 섬나라 일본땅과는 달리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주민들이 1세에 끝난것이 아니라 면면히 이어져왔다는것을 보여주며 또한 발해땅이 옛 고구려땅으로서 자연기후적으로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이 그들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필수불가결이였기때문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에는 발해멸망이후 거란족과 녀진족, 몽골족, 한족 등 여러 종족과 민족들이 살아왔지만 온돌을 쓰고 산 민족은 오직 고구려와 발해사람들뿐이였다.

바로 발해사람들은 고구려사람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온돌풍습을 귀중히 여기는 한 피줄, 한 민족으로서 력사적으로 형성발전된 민족의 고유한 온돌풍습을 사랑하고 고수해온 조선력사의 주요한 구성원이였다.

원래 수자(수사) 그 자체는 지각적 대상이 아니다. 수자관념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유의 종합과 추상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 수자사용에는 국경도 그 어떤 민족간의 계선도 없다. 만민공유가 바로 수자이다. 하지만 사회적집단에 따라 관습적으로 어떤 수자는 길수로 여기고 어떤 수자는 즐겨 쓰이지 않은 그러한 관습이 있기마련이다.

가령 일본에서는 '9'와 '4'를 관습적으로 꺼리는것이 있다. 유럽에서는 '13'을 꺼리는 풍습이 있다. 그와 반면에 유럽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은 '7'을 가장 좋은 길수로 여기고 많이 사용해왔다. 이런데로부터 칠일째를 안식일 즉 휴식일로 여긴다. '7'을 '행복의 7'이라고도 하고있다. 이렇게 수자하나에도 해당 민족 혹은 사회적집단의 풍습이 반영되기도 한다. 다시말하여 어떤 수자를 즐겨쓰는가에 따라 해당민족의 관습상특징과 기호, 사상정서적감정이 반영되는것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수자를 즐겨쓰며 꺼리는가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감정과 전통이 비끼게 되는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오래동안 수자 '8'을 즐겨 써왔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은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8'과 관련된 도형 등을 즐겨 썼다. 그러면 고구려사람들은 어떤 모퉁이에 수자 '8'과 관련된것을 많이 써왔겠는가.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무엇보다 먼저 고구려사람들은 지상과 지하의 건축물들에서 8각형도형을 도입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아다싶이 고구려는 외래침략자들의 략탈과 파괴, 방화들에 의해 자기의 문화적창조물을 상실하였다. 고구려문화로서 지상건물은 에누리없이 모조리 방화파괴당하였다. 다만 지상의 상부구조를 고이던 하부구조-토대인 축대자리와 주추돌들만이 간신히 남아전할뿐이다. 그중에는 불교절간(사원-

가람)터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고구려의 절터는 평면구조가 일탑3금당가람배치형식이고 또 중심탑 혹은 중심당의 평면이 8각형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실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평양시 대성구역(청암리) 금강사절터
②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 (옛 진파리) 정릉사터
③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 (옛 대동군 림원면 상오리) 상오리절터
④황해남도 봉산군 토성리절터

상기 이 절터들의 8각형건물이 탑인지 당(堂)인지는 둘째치고 불교가람에서 가장 중시하며 신성시되는 건물(탑으로 추측)의 평면구조가 8각형이라는 사실은 고구려사람들의 미감에 '8'이 아주 중요시되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고구려사람들의 지상건물에 8각형이 즐겨 쓰이였다는것은 집안 장군무덤과 천추무덤, 동대자(東台子)의 집터들에서 8각형기둥자리를 돌친 주추돌들이 나온것 등을 보아도 잘알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건물들에 팔(8)각형의 큐정 혹은 건물들이 수많이 건설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사람들은 돌등도 8각형이 되게 만들었다.

대체로 탑과 등(돌등)은 항상 붙어다니기마련이다. 불교의식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돌등은 등불을 지피는데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구려사람들은 탑과 함께 돌등도 8각형이 되게 만들었다. 실례로 『삼국유사』(권3 탑과 불상) 고려의 령탑사에 의하면 고려(고구려)의 령탑사(靈塔寺)땅속에 '8면 7급(층)의 석탑'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 령탑사 석탑의 평면구조가 8각형이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즉 『삼국유사』는 고구려 령탑사

의 돌등이 8각형 도형이 도입된 7층석등이었다고 전한것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지하구조의 하나인 우물도 8각형으로 만들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구려우물로 특징적인것은 8각우물이다. 8각형우물은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과 평양시 력포구역 동명왕릉앞 정릉사승방터에 남아있다.

고산동의 우물은 4각과 8각, 원통형으로 되어있다. 우물안의 유물로 보아 고구려우물이 틀림없다.[13] 정릉사의 8각형우물은 1974~1975년의 발굴이 일단 끝난 다음 정릉사에 대한 일부 구역에 대한 복원이 실시될때 승방가까운 자리에서 새로이 드러나게 되었다. 우물안에는 사슴과 범, 투구갑옷과 농기구 등이 들어있었다. 이것 역시 고구려우물이 틀림없다.

고구려사람들은 지상건물뿐아니라 무덤칸을 장식하는데서도 8각형도형을 써서 구조물들을 완성하였다.

고구려무덤 특히 돌칸흙무덤에서 특징적인것은 호방한 8각형기둥을 세워 천정을 버틴모양이다. 8각형기둥을 버틴 대표적인 고구려무덤으로는 평안남도 룡강읍 쌍기둥무덤과 강서 태성리(台城里) 1호무덤이다. 쌍기둥무덤은 8각형의 기둥 2개를 입구에 세웠으며 또한 안악 3호무덤과 매우 류사한것으로 유명한 강서 태성리 1호벽화무덤은 앞칸과 안칸사이 가운데부분에 8각돌기둥을 세웠다. 8각돌(화강암)기둥은 앞칸과 안칸이 련결되는 부분인 안칸입구중심부에 세워졌다.[14]

안악 3호무덤 역시 8각기둥이 세워졌다. 8각기둥은 장방형의 앞칸에 세워졌는데 앞칸에는 대돌우에 8각기둥 3개, 4각기둥 1개가 서있다. 또한 방

13) 「고산동의 고구려우물」, 『조선고고연구』 1986년 1호, 43쪽.
14) 1959, 「태성리고분군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5집(과학원출판사), 93쪽.

형의 후실에도 8각기둥 세개를 세웠다.[15] 8각기둥우에는 귀면그림을 그려놓았다.

고구려사람들은 8각형기둥뿐아니라 무덤칸의 천정고임을 평행고임이나 삼각고임뿐아니라 8각고임으로도 장식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거북등이음무늬벽화로 온벽면을 장식한것으로 하여 유명한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리의 천왕지신(天王地神)무덤, 비단짜는 녀인으로 유명한 남포시 대안구역 은덕동 대안리 1호무덤, 벌자리가 있는것으로 유명한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1호, 2호무덤 등이 있다. 그중 덕화리 1호무덤은 6단전체가 8각고임천정으로 무덤칸천정을 형성하였다. 덕화리 2호무덤 역시 5단으로 된 8각고임천정이다. 천왕지신무덤은 천정은 평행고임으로 하면서 동쪽끝부분의 천정은 8각고임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도리부분부터는 8각으로 짰다. 도리우에는 활개그림을 8개 그리고 활개의 웃부분에는 실물제공과 소로를 만들고 두번째 8각부분을 고이게 하였다. 두번째 8각부분은 다시 4각으로 좁혀올라 그우에 삼각고임을 한단올린 다음 뚜껑돌을 마감하였다. 대안리 1호무덤은 안칸천정이 8~9단의 8각고임으로 특색있게 만들어졌다. 전반적으로 볼때 8각천정고임의 구도와 착상은 매우 호방하고 웅정한것이 특징이다.

고구려사람들은 기와막새의 련꽃무늬를 가공하는데서도 '8'을 즐겨썼다.

고구려의 기와막새무늬가운데서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것이 련꽃무늬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대부분이 여덟꽃잎을 즐겨 썼다는 사실

15) 1966, 『미천왕무덤』(사회과학원출판사), 6~7쪽. 안악 3호무덤은 한때 미천왕의 무덤으로 추측되였었다. 지금은 고국원왕무덤으로 확정되였다. 그러니 『미천왕무덤』이라는 발굴보고서는 안악 3호무덤 혹은 '고국원왕무덤'으로 고쳐야 할것이다.

이다. 안학궁터와 정릉사터 등 고구려건축물에서 드러난 기와막새의 련꽃잎은 여덟잎이 기본이 되면서 여기에 여섯잎이 배합되였고 그중에는 네잎련꽃무늬기와도 있었고 지어 열두잎련꽃무늬기와도 있었다.[16] 기와막새무늬가 반드시 련꽃무늬여야 한다는것도 없으며 또 련꽃잎의 수가 꼭 여덟잎이 되여야 한다는것도 없다. 하지만 고구려와 그리고 고구려에서 가지쳐나온 백제의 수키와막새무늬가운데서 여덟잎련꽃무늬수키와 막새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2001년의 아차산일대에서 드러난 고구려기와에는 열잎련꽃무늬도 있었고 정릉사터에서는 여섯잎련꽃무늬기와도 드러났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지배적인것은 못된다.

이밖에도 고구려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쓰는 물건함같은것도 8각형으로 만들었다. 실례로 비단천을 넣는 함도 8각형함이였다. 그러한 실물이 일본 나라현의 동대사 정창원에 남아있다. '8각형고려(고구려)비단함'(八角高麗錦藏箱)이 바로 그것이다. 곁해말하면 일본에도 8각형집이있다. 이것 역시 고구려적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현 법륭사동원가람(일명 이까루가왕궁터)의 중심에 위치한 '몽전'(夢殿)은 성덕태자가 늘 사색하고 거처한 '당'이였는데 그는 고구려의 고승 혜자를 스승으로 받든 인물이였기때문이다. 아스까사(원흥사)가 일탑 삼금당으로 건설된것도 아스까사(飛鳥寺)에서 살게 된 성덕태자의 스승 혜자의 영향으로 볼수 있다. 처음 백제사람들의 직접적발기와 기술적후원밑에 백제식으로 일탑일금당식으로 절이 축성

16)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88~91쪽 • 226~231쪽의 도판 및 1964, 「대성산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유적발굴보고』 제9집(사회과학출판사), 26쪽의 도판과 도판 XXXV참조.

되었다가 완공후 아스까사에 살게 된 혜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탑 삼금당식으로 절형식이 축성된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더 증축하는 일은 할수 있어도 이미 건립했던 탑만은 8각형으로 새로 건설할수가 없어 종전 그대로의 4각형탑을 그대로 둬둔것으로 보아진다.

이밖에도 팔각당집은 고구려, 백제와 인연이 깊었던 후지와라가마다리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나라 흥복사(興福寺)의 북원당(北円堂)에서도 볼수 있다.

이상 간단히 고구려사람들이 즐겨 쓴 '8'과 관계된 유적유물의 한 토막을 자료적으로 벌거하였다. 우와 같은 단편적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사람들은 여러 요소들에 '8'과 관계된 문화창조물들을 창작완성하였다. 8각탑과 8각집, 8각기둥, 8각돌등집, 8잎(八葉)모양무늬, 8각우물, 8각함 등 8과 관련된 유적유물들을 수많이 만들어 사용한것은 고구려사람들의 하나의 특유한 관습이며 특질이였다고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건물 특히 기둥을 세울때 사각형의 평면구조를 가진 기둥을 세우기마련이다. 고구려사람들도 4각형의 기둥을 만들어썼다. 물리력학적으로 볼때 든든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창조하고 버티기위해서는 4각형기둥이면 충분하다. 기둥모양으로는 삼각형이상되는 각을 가진 립체물이면 천정구조물을 버티는데서는 충분하다. 4각형과 5각형이나 6각형, 7각형, 9각형의 기둥도 될수 있다. 지어는 각이 없는 원형이 버팀목기둥으로도될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사람들은 4각형기둥과 함께 평면구조가 특별히 8각형으로 된 구조물들(집, 탑, 기둥, 돌등집 등)을 즐겨 창조하며 사용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8각형으로 되는 여러구조물들을 창조함으로서 고고학적으로 견고하고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미관상 보기에도 좋은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게 만들었던것이다. 또한 고구려사람들은 둥근원형의 기둥을 세우거나 우

물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때도 배부른기둥 등 요곡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끔 만들었다. 이것 역시 고구려사람들의 기교상 특질의 하나였다.

물론 고구려사람들은 8각이외에도 6각형을 더러 쓴것만은 사실이다.

실례로 순천 천왕지신무덤의 벽화에는 6각형의 거북등이음무늬가 벽면 전면에 그려져 있다. 8각고임천정을 착상한 천왕지신무덤의 무덤벽화전면에 그려져 있는 6각형모양의 거북등이음무늬는 무늬로서는 완성된 양식으로서 고구려의 특징적무늬장식의 하나이다. 그것은 고구려시조왕 고주몽이 아리수(엄체수)라는 큰 강을 건널때 부여국의 추격군으로부터 무사히 강을 건네준 거부기의 형상에서 착상된것으로 보아진다. 고구려사람들은 나라의 시조왕의 인상깊은 사건장면에 등장한 거부기의 모양을 본따서 거북등이음무늬라는 무늬구도양식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거북등이음모양무늬는 남쪽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도 전해졌다.

공주백제 무녕왕릉에서 드러난 칼에 새겨진 거북등이음무늬와 경상북도 경주시 로서동의 신라꽃신무덤(신라총)의 신발에 새겨긴 6각형거북등이음무늬, 대구 달서면 비산동(비단동) 55호무덤의 금동띠음무늬말안장턱에 새겨진 거북등이음무늬 등은 그러한 대표적실례들이다. 그리고 후세에도 그와 같은 6각형도형은 부분적으로 계승되였다. 고려시기의 흥복사 7층탑(평양시 중구역 을밀대아래)의 6각 7층탑은 그러한 실례에 속한다. 물론 6각형은 고구려에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8각이나 '8'과 관련된것만을 즐겨 쓴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고구려사람들은 어느 일반적인 수자도 쓰면서도 특별히 '8'과 관계된 수자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17] '8'과 관련된 수자를 즐거쓰는 여기에 조선민족의 미관과 감정세계의 특성이 반영되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자 '8'이 불교와 관련된 수자이며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수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론증할만한 자료적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많다는것을 표시하기 위해 '8'이나 '9'자를 많이 쓰며 석 '3'자를 즐겨 쓰는 관례가 있다. 앞으로 또 론하게 될것이지만 고구려를 비롯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수사 '8'은 불교와는 전혀 무관계하다.

그러면 고구려사람들이 즐겨 쓴 수사 '8'이 고구려의 독특한 수자이며 그와 같은 하나의 관습이 고구려에서 발생발전한것이였겠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그것은 고조선에서 발생발전한것이 고구려에 계승되였다는 사실이다.

고려의 최고승려의 직위(국존)에 있던 일연(1206~1289)이 『삼국유사』(권1 왕력)에서 고구려시조왕 고주몽(동명왕)을 고조선의 시조왕 단군의 아들로 만들어놓은것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이라는 사실을 시공간을 뛰여넘어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실지로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이였다. 그러하듯이 고조선의 관습과 문화정서 역시 고구려에도 이어졌다.

고조선은 일찌기 망한데다가 침략자들에 의해 력사문헌자료들이 흩어지고 없어진데로부터 력사자료들이 남아전하는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고조선사람들의 미관과 감정세계를 반영한 수자 '8'과 관계된 자료들이

17) 고구려에서 '8'만을 썼다는것이 아니다. 고조선의 한개후국이였던 구려국을 계승한 고구려는 마지막까지 5부(五部) 제도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8'만이 아니라 여느 수자도 흔히 썼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만 고구려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특별히 '8'을 즐겨썼다는것뿐 여느 수자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5부가 중국의 관습적인 수자 5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얼마간 남아있다. 후한때사람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고조선에는 '법금 8조'라는 법률이 있었다고 하였다. 비록 고조선의 '법금 8조'의 모든 내용이 전해오지 않는것이 유감이지만 고조선에는 '법금 3조' 또는 '법금 10조'가 아니라 바로 '법금 8조'라는 국가적인 법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10조가 아니라 '8조'라는데 류의하여야 할것이다. 아랍이나 헤부라이(이스라엘)에서는 계률을 정할때 '10계'(十戒)로 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조선에서 계률(법조항)을 오(5)나 십(10)이 아니라 팔(8)로 한것은 고조선의 고유한 관습이 국가의 상부구조에도 강하게 반영되었기때문이다.

고조선에는 이밖에도 국가기구를 정할때도 '8'을 숭상한데로부터 중앙관료기구로 '8가'(八加)를 설정하였다.[18]

고려시기 수자 '8'을 즐겨쓰는 풍습은 청동유물에도 반영되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유적(무덤)에서는 좁은놋단검과 잔줄무늬거울, 청동도끼, 청동비수, 청동쌍수형방울과 함께 팔수형청동방울(八手型靑銅鈴)이 드러났다.[19] 전라남도 화순일대가 당시의 고조선령역이였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락동강류역에서도 팔수형방울이 드러난것이 있다.[20] 아무튼 고대조선사람들이 여덟팔(8)자의 청동제품을 즐겨

18) 북애자(北崖子)저 『규원사화』(揆園史話)중의 「태시기」와 「단군기」 참고. 8가는 호가, 우가, 마가, 응가, 로가, 학가, 구가, 웅가 등 여덟가지의 짐승이름을 붙힌것이다. 이것을 단군8가라고 한다. 『규원사화』의 저자 북애자는 1676년(리조숙종 2년) 3월에 「조판기」, 「태시기」, 「단군기」, 「만설」 등이 들어있는 이 『규원사화』를 써냈다고 한다. 이 책이 후세의 위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믿을수있는 자료도 있다. 8가도 그러한 자료들중의 하나이다.

19) 1979, 『조선전사(고대편)』 2(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7쪽.

만든것만은 틀림없다.

같은 겨레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도 '8'을 숭상하며 즐겨 '8'과 관련된 도형을 써서 문화유물들을 창작완성하였다. 실례로 백제미륵사에 있는 돌등은 방형받침돌우에 여덟잎복련을 놓고 8각형의 불집을 얹은 8각정자형 돌등이다. 7세기전반기의 축조로 보아지는 이 돌등은 고구려적영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백제에 불교와 불교건축물들을 전파보급한것이 바로 고구려사람들이였기때문이다. 혹은 고조선이래로 조선사람들이 8각을 즐겨쓴 전통이 그대로 살아서 8각형의 돌등이 되었을수도 있다. 무녕왕릉의 묘실 련꽃무늬벽돌 역시 여덟잎무늬이며 그밖에 대통사터(大通寺址)와 군수리절터, 동남리절터, 정림사절터, 서혈사절터 부소상출토련꽃무늬기와막새를 비롯한 백제절간의 압도적다수가 여덟잎련꽃무늬기와막새를 얹었다.

기와막새의 련꽃무늬의 련꽃잎은 규정된 수자가 없다. 가령 신라에서는 구황리에서 6잎련꽃무늬, 인왕사에서 8잎, 황룡사는 9잎, 황남리는 16잎, 흥륜사, 인왕사 등의 유적지에서는 10잎이 넘는 련꽃무늬기와막새가 나왔다. 이것은 련꽃무늬기와막새제작에서 각이한 잎수가 만들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덟잎련꽃무늬기와막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것은 우리 민족전통에 있어서 특징적인 징표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여덟잎모양의 련꽃무늬기와막새를 만드는 하나의 관습은 바다건너 일본에도 전해졌다.

20) 1947, 『조선고문화종감』 1권 양덕사, 도판 29 • 사진 138. 락동강류역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하는 팔(8)수형청동방울은 8각형으로 된 무늬가 들어있다. 사진에는 2개의 팔수형방울이 있다. 하나는 온전하고 또 하나는 몇개의 팔이 떨어져나갔다.

실제로 성덕태자가 지었다는 오사까 사천왕사(四天王寺)출토 기와막새 무늬는 8잎련꽃무늬기와막새였고 나라현 산전사(山田寺 야마다데라) 역시 8잎련꽃무늬기와막새였다. 하지만 나라현 정림사(定林寺)의것은 1잎련꽃무늬기와막새, 나라현 법륭사 약초사(若草寺)터의 기와막새는 9잎련꽃기와막새무늬였다. 이렇게 여러련꽃잎기와막새가 제작되는것은 조선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삼국시기의 고구려와 백제의 강한 정치문화적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일본땅에서 불교사원건축물의 한개 요소인 기와장 역시 고구려적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을수 없었다. 나라 야마또 아스까땅에 세워졌던 후지와라궁터(藤原京址)출토 기와막새에 8잎련꽃무늬가 새겨지게 된것도 우연하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는것처럼 백제 역시 팔(8)을 즐겨썼다. 대성팔족(大姓八族)이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가될것이다. 사씨, 연씨, 협(목협, 또는 목라)씨, 해씨, 정(貞)씨, 국씨, 목씨, 묘씨[20]의 여덟개대족은 봉건국가, 백제지배층을 구성하고 통치한 8대거족들이였다. 이러한 어덟(팔)과 관계된 전통적관념은 바로 백제를 위주로 한 일본의 아야씨집단에도 이어졌다. 야마또노 아야씨(東漢人)를 중심으로 하여 제정된 8색, 8성(八色八姓 야꾸사노 가바네. 684년제정)가 바로 그것이다.

이상 고구려에서 수자 '8'이 어떻게 자기의 문화창조물들에 구현되고 발현되였는가를 유적유물의 이모저모를 통하여 자료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고구려의 전통적관습이 어디에 기원하였는가하는데 대

21) 『북사』 백제전.
『신당서』 백제전.

하여서도 보았다. 그러면 고조선에서 시작되고 고구려에 이어진 조선의 전통적관습의 하나인 수자 '8'은 후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발현되였는가. 이에 대하여 발해와 후기신라 그리고 고려와 리조시기에 나누어 간단간단하게 보기로 하자.

고조선에서 시작되고 고구려에서 하나의 틀거리가 만들어졌던 수자 '8'과 관련된 관습은 발해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건축물들에 발현되였다.

발해의 건축물유적으로 8각루정이 있다. 상경룡천부 궁성 금원에서는 인공못가운데에 동서에 나뉘여 인공조산이 있다. 그 조산들에 각각 하나씩의 8각루정터가 발견되였다. 두 8각루정터의 구조형식은 기본적으로 같은데 8각형을 이루는 모서리마다에 한개씩 8개의 주추돌이 놓이고 그 복판에 4개의 주추돌이 배치되여있었다. 복판에 있는 주추돌들은 바깥주추돌들을 서로 잇는 교차점들에 놓여있었다. 그 루정들은 록유기와를 이은 8각지붕에 붉은색배부른기둥을 세우고 일정한 높이에 마루를 깐 화려한 감상용루정이였다.

발해건물로는 이밖에도 24개돌유적이라는 특이한 유적이 있다. 그것은 모름지기 건물터가 틀림없다. 이 유적은 기단이 갖추어져있고 기단우에는 한줄에 8개씩 3줄의 주추돌이 놓여있다. 기단은 남북 19.2m, 동서 13.5m의 장방형평면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은 기단우에 8개씩의 주추돌이 3줄로 놓여있는것이다. 그러한 24개돌유적은 함경북도 어랑군 회문리, 청진시 송평구역 김책시, 동흥리와 현 중국의 길림성 돈화현성 남쪽 교외와 관지, 해청방, 요전자, 도문부문이 월청 등지에서 발견되였다. 이 24개돌유적이 어떤 건물유적이였는지 아직 이렇다할 정확한 견해가 없다. 다만 이 건물이 8개의 주추돌을 썼다는데서 알수 있는것처럼 고구려시기의 전통적수자 '8'에

맞추어 건설되었다는것만은 틀림없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전통적수자 '8'은 건축부속물인 불집돌(돌등)에 발현되였다. 발해돌등은 상경룡천부 외성 동반성의 제2절터에 당시의 모습그대로 남아 전해온다. 이 돌등은 건축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아주 우수한 돌등이다. 이 발해의 상경돌등은 발침대, 기둥, 불집과 등머리의 4개부분으로 조성되어있다. 돌등높이는 약 6m이다. 문제는 발해문화를 상징하는 이 돌등의 평면구조가 8각이라는 사실이다. 바닥돌의 평면도 8각이고 기둥우에 얹은 정자모양의 지붕도 8각이다. 기둥돌우에 얹은 불집역시 8각불집대돌이다. 돌기둥은 고구려고유의 배부른기둥이다. 정자의 몸채인 불집돌은 8면에 다 불구멍을 냈다. 불집돌의 여덟모서리에는 8개의 기둥을 세웠다. 상경돌등에서 기둥과 로반, 복발, 보륜은 원으로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다 8각형으로 되어있다. 이 돌등의 정면도를 분석하면 크고작은 원돌과 8각형의 결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게 되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돌등의 기본요소들이 8각평면으로 되고있으며 고구려의 전통적인 배부른기둥을 썼고 그것들이 여러가지 도형으로 구도되여 균형이 잘 잡힌 것이다.

사실 상경돌등우에 고인 정자는 앞서 본 상경룡천부 궁성금원의 8각정자를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말하면 상경돌등의 불집돌을 궁성금원의 8각루정터 주추돌우에 확대하면 당시의 8각루정을 그대로 복원할수 있다는 사실이다. 돌등이 위치한 제2절터가 발해봉건국가의 최고위급국왕만이 다닐수 있다는 중앙대통로(너비 110m)의 옆의 터방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절이였으므로 궁성의 루정과 전혀 무관계하다고 할수 없다. 사실 발해상경돌등은 태성리 1호무덤이나 룡강쌍기둥무덤등에서 볼수 있는 고구려사람들의 호방한 기풍을 그대로 방불케하는 지상구조물이다.[22] 여기

에도 고구려사람들의 넋과 력사적전통이 살아서 계승되고있다.

마감으로 고구려의 전통적수자 '8'이 구현된 8각도형은 지하구조물인 우물에도 구현된 사실을 지적하게 된다.

우물은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하여 창조한 인공구조물의 하나이다.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생존수단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었다. 땅속에서 물이 나올때까지 구멍을 뚫어 우물을 만든다는점에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공통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과 어떤 재료로, 어떤 형태로 우물벽을 쌓는가 할때는 역시 서로마다 각이하며 해당 나라, 해당 민족의 민족적특성, 민족적관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한 풍습은 후세에까지 계승된다.

발해우물은 여러곳에서 발견되였다. 우물은 서고성터에서 하곳, 상경룡천부 궁성터에서 한곳, 의성터에서 한곳, 림구현 오도하자성에서 한곳 그리고 함경남도 북청 청해토성에서는 세곳에서 나왔다. 이들중 대표적으로 상경룡천부궁성터에 남아있는 8각형돌우물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발해상경룡천부의 8각형돌우물은 제2궁전터의 동쪽에 위치한다. 『녕안현지』에 '팔보류리정'이라고 전하는 돌우물이 바로 그것이다. 『백운집』에 의하면 상경룡천부궁성에는 좌우에 돌우물 2개가 있다고 하면서 흰돌로 8

22) 『금사상교』 권3상. 상경로조에 인용된 청나라초기의 사람 장분의 『백운집』에는 성남쪽의 옛절에 큰 돌부처와 함께 그앞에 8각형돌부도가 있다고 하였다. 이보다 늦은 고사기라는 사람은 여기를 찾고 『고종동순일록』에서 이 큰 돌부처에 대하여 설명한다음 그앞에 돌탑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8각형부도나 돌탑이 우에서 보아온 상경돌등이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돌탑이 또 따로 있었는지 앞으로 더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아무튼 발해에서는 8각형도형을 쓴 구조물들이 특별히 많았다는 사실이다.

각형이 되게 쌓았다고 하였다. 이 8각돌우물은 그중의 하나이다. 우물은 형태상 8각형이며 우물벽은 현무암으로 쌓았다. 우물아가리에서 2m깊이까지는 단면이 8각형을 이루며 그 직경은 약 0.66m이다. 거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면은 원형이되면서 점차로 넓어졌다.[23]

상경룡천부 궁성의 8각돌우물은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평면형태가 8각형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평양시 대성구역(대성산일대)고산동의 고구려우물이나 동명왕릉앞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 정릉사승방터 고구려우물과 꼭 같다는 사실이다. 량자는 시공간적차이를 뛰여넘어 호상공통된다. 지역(공간)적으로는 수백㎞나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는 30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우물벽을 쌓는데 현무암이라는 돌을 썼다는 사실이다.

이웃한 중국에서는 우물을 쌓을때 대부분 벽돌 혹은 오지관으로 둥글게 우물 벽체를 쌓는것이 일반적관습이다. 일부 나무로 쌓는 경우도 있다. 일본 역시 나무로 쌓는다. 그런데 고구려를 비롯한 조선은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돌을 네모나거나 장방형으로 마치도 성벽쌓듯이 우물벽체를 쌓는다. 발해우물 역시 그렇게 쌓았다. 돌쌓기와 돌다루기는 조선사람의 장귀이다. 이와 같은 돌다루기, 돌쌓기기술의 장끼와 솜씨가 우물에도 반영된것이다.

그 특징은 셋째로 우물안의 립면을 요곡선으로 되게 원형을 구성한것이다. 말하자면 8각형단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상건물에서 배부른기둥을 보듯이 우물벽을 형상한것이였다. 이렇게 한것은 땅속의 구조물에 맞게 지

23) 196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사회과학원출판사), 168~169쪽, 도판 15, 사진 1, 2.

압을 견뎌내며 재료자체의 무게도 견디어 내는것 등 력학적계산과 함께 미학적견지의 측면에서도 타산한것이였다. 고구려의 전통을 이은 발해사람들은 조상들인 고구려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물에도 지상건물의 배부른기둥을 방불케하는 곡선미와 실용성이 높은 우물을 지하에 만들었던것이다.

평면구조가 8각형으로 된 이와 같은 상경룡천부궁성터의 8각돌우물은 이밖에도 상경룡천부외성 남동문터곁의 8각형돌우물, 『백운집』에서 나오는 궁성안의 또 하나의 8각형돌우물, 청해토성의 8각형돌우물(일명 '동경수') 등 적지않은 발견실례가 있다.

고조선, 고구려의 전통은 후기신라에도 계승되었다. 여기서는 지면상관계로 대표적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 및 불집돌에 국한시켜 이 유물들에 어떻게 8각도형이 도입되고 구현되어있는가 하는것만을 보기로 한다.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은 후기신라시기를 상징하는 문화재보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유적들을 대표적으로 실례들어 보기로 하는것이다.

석굴암은 장방형의 앞칸과 짧은 사이길, 그 뒤의 둥근굴칸으로 되어있다.

둥근굴칸(직경 7.2m)은 8각대좌우에 앉아있는 중심부처(석가모니)를 가운데두고 여러 보살들을 돋우새김으로 빙 둘러 배치해놓았다. 석가모니조각은 석굴암의 굴칸중심에서 약간 뒤로 치우쳐 8각련꽃대돌우에 올방자를 틀고 틀스럽게 앉아있다. 굴칸입구에는 2개의 8각기둥이 서있는데 그것은 마치도 고구려쌍기둥무덤의 8각기둥을 방불케 한다.

이와 같이 8각도형이 도입된것은 후기신라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창조물인 불국사 다보탑(경상북도 경주시)에도 발현되고있다.

불국사, 다보탑을 본다면 탑몸 첫층은 8각벽면으로 배치한 8개의 기둥과 8각의 대돌로 이루어져있고 탑몸의 2층은 8각으로 된 란간속에 8각벽면

으로 배치한 8개의 참대모양기둥이 있어 8각련꽃받침대를 이루고 있다. 탑몸 세번째층은 웃쪽이 꽃솔모양으로 된 8개의 기둥우에 8각지붕들을 올려놓은것으로서 마치 8각정자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듯 석굴암과 다보탑의 형상은 '8'과 관계된 수많은 도형들이 도입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고조선이래부터의 전통적인 풍습인 동시에 고구려적문화의 직접적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그밖에도 불집돌과 부도 등에 8각도형이 구현되었다.

후기신라의 거의 모든 돌등가운데서 기본형식이 불집부분 혹은 기둥부분이 8각형평면을 가지고있다. 일부 장고형기둥형식과 쌍사자기둥형식도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가 8각형평면이다. 이와 같은 형상은 부도에서도 볼수 있다. 실례로 개선사 돌등(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은 바닥돌과 지붕이 8각이며 병암사 쌍사자돌등(경상남도 합천군 가희면 둔내리)은 바닥돌과 지붕이 8각이며 보림사 돌등(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역시 8각돌등이다. 화엄사 각황전앞돌등(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은 바닥과 지붕돌이 8각이며 법주사 쌍사자돌등(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은 8각바닥돌우에 두마리의 사자가 있고 불집돌은 보주를인 8각정자모양이다. 부석사무량수전앞돌등(경상북도 영풍군 부석면) 8각돌과 법주사(충청북도 보은군) 4천왕돌등이 8각기둥형식이며 진전사(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의 부도와 쌍봉사(전라남도 화순군 리양면 중리), 철감선사의 부도, 쌍계사(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부도 등은 8각형 탑몸 부도들이다.

첨성대는 8각은 아니지만 고구려이래의 전통적요곡선인 배부른기둥을 형상한 전통을 살린것으로 유명하다.

이상 간단하게 후기신라시기의 8각도형이 도입된 대표적 문화유적 몇개를 실례들어 보았다. 이와 같이 후기신라시기에 들어와서 '8'과 관련도형이

도입된 창조물들이 갑자기 증가하는것은 고조선이래의 오랜 관습과 더불어 고구려사람들의 대대적이주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아진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 다음 많은 고구려사람들이 후기신라에 넘어갔다. 그것은 고구려왕의 서자 혹은 연개소문장군의 동생 대신 연정토의 아들 등으로 전해오는 안승이 거느린 고구려사람들이 수많이 신라땅에 이주정착하게 되였다. 문헌에 나오는것만 해도 안승이 거느린 고구려사람은 4,000여호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안승은 검모잠과 함께 재령 장수산아래의 남평양성(신원)에 고구려국을 재건한 사람이다. 신원장수산의 남평양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였고 그것이 통채로 신라에 넘어간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멸망이후 국가기구를 갖춘 상태에서 관하주민들을 거느리고 신라에 넘어갔다. 따라서 그 인원은 상당한 정도로 많았다. 단꺼번에 4,000여호로 표현될 정도로 많은 관하주민들이 움직였다는것은 하나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몇천명이나 몇만명만 움직였다고 볼수 없다.

이와 같은 고구려사람들의 후기신라에로의 이동이주는 고구려의 전통이 그대로 후기신라에로 계승되게 된 큰 계기가 되였다. 그렇기때문에 신라의 대표적 문화유적들에 고구려사람들이 즐겨 쓴 '8'과 관련된 도형이 광범히 도입구현된것이다.

혹은 고조선이래로 계승되여온 '8'을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그와 같은 8각도형이 많이 쓰이게 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신라초기 경주 6부에 고조선유민들이 많았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후기신라뿐아니라 발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발해는 신라와 한 피줄을 이었고 고구려 옛 땅, 옛 강토에서 고조선,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그대로 계승발전시켰다. 그렇기때문에 발해사람들은 진국 혹은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고구려의 략칭인 고려라는 국호를 널리 사용하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많은 글들이 나왔다. 발해사람들은 조상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수도의 궁성인 상경룡천부의 궁성들을 조선식으로 꾸린것이였다.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대부분의 문헌들이 인멸되었으나 우에서 본 단편적인 고고학적문화유적 몇개만 보더라도 발해가 혈연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것을 일목료연하게 잘 알수 있는것이다. '8'이라는 수자 하나에도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사람들의 민족적 및 력사적전통이 비껴있는것이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국호를 고려(고구려)로, 수도를 평양(부수도)으로 삼은 고려봉건국가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다. 고려의 창시자인 시조왕 왕건(태조)은 고구려사람의 후손이였다. 왕건은 사람들의 의사대로 고구려의 모든 전통을 계승하였다. '8'을 즐겨쓰는 관습 역시 고려에도 계승되였다. 이러한 전통은 발해사람 수십만명이 고려에 넘어오면서 더해졌다.

그러면 고려는 고조선과 고구려아래로 내려온 어떠한 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하였는가. 그 범위는 실로 폭넓고 방대하다. 다만 여기서는 앞에서 본 '8'을 즐겨쓴 민족적전통에 국한시켜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먼저 고조선과 고구려→발해(후기 신라포함)에 계승된 '8' 관련도형 즉 8각도형이 고려에서도 왕궁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들에 구현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실례로 고려말의 유명한 장수이며 재상인 최영장군이 들어갔다고 하는 8각형건물을 들수 있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최영장군은 명나라의 대국주의적 철령위설치를 반대하여 료동공격군을 무어 그 총사령관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고려의 역적 리성계에 의해 체포되여 사형당하였다. 리성계가 여러장수들을 휘동하여 위화섬에서 회군하자 최영은 우왕과 함께 급히 평양에서 서울(개경)

에 돌아와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온 나라의 정예군사모두가 티성계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어 중과부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형세가 궁해진 최영은 황급한 나머지 왕궁화원의 8각전(八角殿)에 뛰어들어갔는데 그 화원을 반변한 수만명 정예군사들이 수백겹이나 에워쌌다. 이렇게 되여 최영은 8각전안에서 곽충보 등 서너명의 망나니 군사들에게 잡힌 몸이 되였다.[24] 이것이 최영의 마지막생애의 이야기이다. 바로 최영이 마지막에 뛰어들어간것이 8각전이였다. 노한 최영이 문지기를 창으로 찔러죽이고 들어갔다고 한것을 보면 8각전은 왕궁안의 한집이며 화원속에 있다고 한것을 보아 경치좋은 화려한 당집같다. 여기서 발해 상경룡천부의 궁성안의 인공못에 세워졌던 8각루정과 고구려중 혜자를 스승으로 삼은 성덕태자가 늘 있군하였다는 이까루가왕궁의 8각전인 '몽전'(현재는 법륭사)을 상기하게 된다. 바로 최영과 우왕이 뛰어들어간 8각전은 오늘날 현물로 전하는 일본법륭사의 8각 '몽전'과 같이 아담하면서도 모양새가 독특한 당집이였던것이다.

고려의 8각전이라면 평양에도 그와 같은 8각전이 있었다는것이 자료적으로 전한다.

평양은 고구려유민들의 직계후손들과 수많은 발해유민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하여 살던 곳이다. 그들은 신라왕족출신의 김부식, 김부일형제들이 나라의 수도인 개경에서 큰 세력을 이루면서 금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1135년을 전후한시기 묘청과 백수한, 정창상을 위시로 한 평양사람들은 고려의 국왕이 옛날처럼 건원칭제를 제지하여야한다고 주장한 다음 송나라와 약속하여 협공함으로써 오랑캐의 나라

24) 『고려사』 권 113, 열전 최영.

인 금나라를 멸하게 하자고 제기하였다. 지어는 고구려옛 강토를 다시 찾을 의도에서 아예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평양에 옮길것을 제창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한때 오늘의 룡성에 대화궁(림원궁성)까지 짓기도 하였다. 그 림원의 궁성안에는 바로 8성당(八聖堂)이라는 당집이 있었다.[25] 흥미있는것은 이 8성당안에 '호국백두악 태백선인 실덕문수사리보살'(나라를 지키는 백두산선인인 문수사리보살)과 '구려목멱선인 실덕비파시불'(고구려의 목멱산 선인인 실덕비파시부처)을 비롯한 여덟명의 성인이 있어 제사지낸다는것이였다.[26] 모름지기 8각당집의 여덟면에 이 선인들의 화상을 그려놓고 제지내는것이다. 8각당집에 8성인을 제사지낸다는것은 아주 시사적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8각당집에 고구려를 상징하는 백두산선인과 고구려선인이라고 명문으로 찍은 성인들을 제사지낸다는 바로 여기에 고려가 고구려의 전통을 직접 계승하였다는 력사적사실이 반영되여있다.

이밖에도 고려사람들은 '8'을 즐겨썼다. 가령 '8만대장경'도 그러한 실례의 하나에 속한다.

본래 불교에서 말하는 '대장경'은 일명 '일절경'(一切經) 또는 그저 '장경'(藏經)이라고 한다. '대장경'에서 기본은 률(律)과 경(經), 그리고 론(論)의 '삼장'(三藏)이다. '대장경'을 얼마로 하는가 다시말하여 '삼장'을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전개하는가에 따라 당시의 목판인쇄기술인 판본의 수가 달라졌다. 따라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삼장'의 해석이 차이나기때문에 그 분량도 달라지기마련이였다. 고려사람들은 '8'을 즐겨썼기때문에 '대장경'도 '8'자를 써서 '8만대장경'이라고 하였다. 실지로 판본이 꼭 8만매가 되

25~26) 『고려사』권 127, 렬전(반역) 묘청.

었기때문에 '8만대장경'(일명 고려대장경)이라고 한것은 아니였다.

송(宋, 960~1279)나라 태조 조광윤은 금은문자로 '대장경'을 필사한다음 971년부터 983년어간에 사천성 성도에서 판본으로 '대장경' 몇조를 만들었다. 이것을 북송판(北宋版) '대장경' 또는 촉판(蜀版) '대장경'이라고 불렀는데 판목수가 13만매였다. 이렇게 '대장경'의 판목수가 본시 8만매였기때문에 고려에서도 '8만대장경'이라고 한것이 결코 아니였다. 사실 따져놓고보면 '고려대장경'은 앞뒤판에 새겼기때문에 모든 16판매가 된다. 고려사람들은 많다는 의미와 그리고 전통적관습에 따라 '대장경'의 판목수를 '8만'이라고 한것이였다. 그것은 오래동안 내려온 공통된 하나의 전통적관습이였다.

이밖에도 고려시기의 중요한 행사로서 팔관회(八關會)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시기에 처음 나온다.(『삼국사기』 권 4, 신라 본기 진흥왕 33년 10월) 고려는 직접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으나 발해와 신라도 넓게 포용한 나라였기때문에 신라의 팔관회도 받아들였다. 본시 팔관회는 불교에서 말하는 팔관재(八關齋)와 일정하게 관계되는 행사였다. 하지만 고려의 팔관회는 거기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토착신앙을 포함하여 노래와 무술, 교예, 무희가면극 등 종합적인 예술과 무술의 국가적대행사였다. 고려에서 팔관회를 불교적인 틀을 뛰여넘어 국가적수준의 대행사로까지 승화시킨것은 이 행사이름에 조선사람들이 즐겨 좋아하는 팔(8)이 들어가있었기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상 문헌상으로 본 고려의 여덟(8) 관련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고구려의 전통적인 8각도형은 이밖에도 이여의 건축물들 특히 탑과 불집돌들에도 구현되였다.

우선 고려의 궁궐인 개성 만월대의 창합문(閶闔門)터의 활주의 주추돌들

이 8각주추돌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문헌상으로 본 8각형 건축물들이 고려의 왕궁에 존재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로 된다.

다음으로 돌등인 불집돌은 대개가 8각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실례로 고달사(경기도 려주군 북내면 상교리-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음)의 쌍사자돌등에서 불집돌은 부동변 8각형이며 화장사(개성시 룡흥리)부도의 밑바닥은 8각대돌이다. 또한 신광사(황해남도 해주시 신광리)의 8각탑형 부도도 8각형이다. 이것은 8각몸돌바닥에 8각련꽃대좌돌을 앉히였고 8각의 모서리마다에 하나씩 큼직한 겹잎의 복련8잎을 새기였다. 여기서는 특히 조선고유의 배부른 8각몸돌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다.

고려시기의 탑으로는 영명사(평양시 중구역 경상동-10세기중엽)의 8각5층탑과 묘향산 보현사의 8각 13층탑이 그중 유명하다. 보현사의 8각 8층탑은 우로 갈수록 좁아졌는데 13층의 매층마다 8각형으로 도형하였다. 이 탑은 비례가 잘 맞고 보기에도 좋은 잘된 탑이다.

리조에 들어와서도 우리 인민은 '8'을 즐겨썼다.

묘향산 상원암의 불유각이 8각형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건축물들에 8각도형을 사용하는것은 여전하다. 경복궁의 향원정(香遠亭)도 전통적인 8각정을 본따서 만든 건물이다. 그밖에도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8'을 즐겨썼다. 조선전체를 가리킨 '8도강산', 평양 련광정, 강계 인풍루, 의주 통군정, 성천 강선루, 녕변 약산동대, 만포 세검정, 안주 백상루, 선천 동림폭포의 '관서 8경', 간성 청간정, 강릉 경포대, 고성 삼일포, 삼척 죽서루, 양양 락산사, 울진 망양정, 통천 총석정, 평해 월송정(혹은 흡곡의 시중대)의 '관동(령동) 8경', 단풍든 대성산을 비롯한 '평양 8경', '회령 8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의 법주사 팔상전(捌相殿)도 건물형식에 관계없이 수자 '8'를 달아서 팔상전이라고 이름달았다.

1796년에 건립된 수원성의 팔달문(八達門)도 여덟팔(8)을 달았다. 이렇듯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민족은 수자 '8'을 즐겨썼다.

'금강산 8선녀' 이야기 역시 우리 인민에게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태고적부터 우리 인민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이지만 어느때라고는 찍어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선녀가 여덟명이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 날개옷을 감추어 두었다가 부부가 된다는 전설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백조처녀전설'과 일맥상통한다. 선녀의 의복(날개옷 羽衣)을 감추었다는 내용은 이웃나라들인 중국과 일본에도 있다. 중국의 전설은 농사군과 선녀가 하늘에 올라 견우직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의 전설은 어부가 선녀의 의복을 감추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 우리 나라는 금강산에서 나무군이 8탕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는것으로 되어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금강산에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미역을 감았다는 여덟개의 못(팔담)이 있다.

일본에는 『풍토기』(일문, 오오미국, 713년이후편찬)와 『회풍조』(懷風藻)에 실린 어고(伊香)마을의 8선녀이야기가 전해온다. 그것은 여덟명의 선녀가 백조가 되어 내려와 미역을 감는데 이까고노도미(총각이름)는 이것을 보고 자기의 흰개를 시켜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게 함으로써 선녀와 함께 살게 된다. 부부가 된 선녀는 2남2녀를 낳지만 끝내 날개옷을 찾아 하늘에 올라간다……

이 내용은 우리의 금강산 8선녀와 내용이 꼭 같은것으로 하여 고대조선 이주민집단의 일본렬도진출정착과 무관계하지 않는다. 오오미(시가현)여고마을의 호수가에 전해오는 8선녀전설을 아주 이른 시기의 전설로서 고대조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데로부터 여덟선녀가 되였다. 하지만 일본은 민족적으로 칠(7)을 좋아한데로부터 여덟은 점차 칠(7)로 변해갔다.

일본은 이미 력사적으로 7을 즐겨썼는데다가16세기에는 7을 길수로 여기는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면서 7을 큰 길수로 여기게 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7을 'luckyseventne'(행복의 7)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한편 중국에도 '8선'(八仙)이라는 말이 있으나 그것은 리태백이나 두보가 술먹고 읊는 여덟명의 신선 즉 남자를 념두에둔 말로서 이후 시인이나 술친구들은 '8선'이라고 하였다.

이상 앞에서 수자 '8'과 관련된 단편적자료 몇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여기서 알수있듯이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8'을 즐겨 써왔다. 물론 용도에 따라 3이나 6도 썼을것이다. 하지만 우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인민들은 건축물을 비롯한 여러 용도에서 8각형도형을 많이 썼듯이 '8' 관련 수자를 특별히 많이 썼다는것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이였다. 이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에 이어 발해, 고려, 리조에 이어진 우리 민족의 하나의 관습이였으며 장구한 력사적기간에 걸쳐 형성된 민족적전통이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이와 같은 조선민족의 정서적감정과 오랜 력사적전통을 계승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선군 8경'[27]을 제정하고 길이 전하고있다.

마감으로 수자 '8'이 불교와 관계되지 않으며 또한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수자가 '8'이 아니라는것과 우리 나라에서 '8'을 즐겨 쓰는 전통적관습이 이웃나라의 영향에 의해 생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팔(8)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수자 팔이 불교와 관계된 수사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옳바른 견해, 정확한 인식이라고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즐겨쓰인 수자

27) 『사회과학원학보』 2004년 4호, "우리 시대의 새로운 풍경을 반영한 선군 8경".

는 팔(8)이 아니라 석삼(3)이였고 또한 그러한 주장은 아무런 자료적근거가 없기때문이다.

불교의 사상과 내용은 경전에 집약화되고 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즐겨쓰인 수자는 팔(8)이 아니라 삼(3)이였다. 불교경전에는 석삼을 위주로 많이 쓰면서 많다는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8이나 9를 썼다. 그러면 이 문제를 따져보자.

먼저 팔이 붙은 불교술어, 불교개념, 불교용어의 수량을 보기로 하자.

1932년 도쿄 동방서원(東方書院)에서 출판한 『불교사전』에 의하면 팔(8)관련용어(술어)가 대략 120개이고 삼(3)관련불교술어가 대략 500개였다. 1998년에 출판된 『콘사이스 불교사전』(도쿄 大東出版社)에 의하면 팔(8)관련용어가 180개, 삼(3)관련용어가 790개로서 삼이 압도적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삼(3)과 팔(8)관련용어도 더러 들어간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서 알수 있는것처럼 불교경전에 쓰인 수자는 대부분이 석삼(3)이였고 일부 팔(8)이 보조적으로 쓰인데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실례는 비근한 실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자 팔(8)이 불교와 관련된 고유한 수자라고 말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팔(8)이 불교와 관련된 수자이기때문에 불교관련시설들에 8각도형이 많이 적용되였다고 보는 견해 역시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8각도형은 불교관련건물에만 적용된것이 아니였기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특히 고구려와 고려의 문화유산은 극히 희귀할 정도로밖에는 남은것이 없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것은 거의가 다 지하구조물에 한한다. 절칸터, 고분, 탑, 우물들이 그속에 속한다. 그리고 중세시기에는 불교가 세계적추세로 보급되고 있던 시기여서 민족적특질은 일부 불교라는 종교적외피를 띠지않을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불교관련시

설들에 8각도형이 일부 적용되었던것이다. 만약 굳이 8각도형건축물을 불교와 관련시킨다면 우리 나라뿐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나라들의 절간탑과 부도, 당 들도 모두 8각형이 되여야 할것이 아닌가. 하지만 력사적사실은 불교이외의 건축물에 8각도형이 건축물들에 고유하게 반영된것은 유독 우리 나라뿐이였다는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8각도형은 불교관련건축물에만 도입된것이 아니였다. 불교와는 일단 무관계한 고구려벽화무덤들에도 8각기둥 등 8각도형들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보았다. 일부 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왕궁의 8각루정과 우물까지도 불교와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는것인데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닐수 없다. 후기신라초기의 경주석굴암의 2개의 8각기둥도 고조선의 문화전통을 직접 계승하였거나 혹은 고구려쌍기둥무덤 등 고구려적 영향에 의한것으로 보아야 옳지 불교적영향으로 보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수자 '8'을 이웃나라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 역시 부당하다.

이웃한 중국에서도 더러 8자를 쓸때도 있다. 실례로 소상(瀟湘 호남성의 소주와 상수라는 뜻) 8경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에서도 일정하게 8자를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수자라로 말할수 없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많이 쓰인 수자는 8보다도 다섯(5)이였다.

중국에서는 다섯이 8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였고 더 숭상되였다.

실례들을 들어보자. 가령 명산을 가리키는 오산(五山), 인물들을 꼽는 오자(五子), 천하를 상징하는 오방(五方), 국가들을 꼽는 오대(五代), 시구를 가리키는 오언(五言), 오고(五古), 백성을 가리키는 오민(五民), 제사를 가리키는 오례(五禮), 제후를 가리키는 오작(五爵), 오작들이 다는 구슬을 오옥(五

玉), 형벌을 오형(五刑), 천지간의 활동을 가리키는 상생과 상극의 오행오상(五行五常), 글씨체의 총체를 오체(五体), 인물들을 가리키는 오백(五伯), 오패(五霸), 무기를 가리키는 오병(五兵), 병법과 중요한 인간대사를 통털어 가리키는 오사(五事), 인간도리를 오전(五典), 관직을 오관(五官), 높은 산을 오악(五岳), 신분적제복과 왕기주변을 오복(五服), 년간제사를 오사(五社), 공로급수를 오품(五品), 삼황오제의 오제(五帝), 오언률시의 오률(五律), 삼강오륜의 오륜(五倫), 고을수의 오원(五原), 한나라와 당나라의 수도를 오도(五都), 진시황이 정하고 제갈량이 죽은곳이 오장원(五丈原), 한나라 고조이하의 릉을 오릉(五陵) 등 그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어 5가 8에 비할바 못될 정도로 많다. 요컨대 중국에서 관습적으로 즐겨 쓴 수자는 다섯(5)이지 팔(8)이 아니였다. 오십보백보, 오호 16국, 오대 10국 등 여러 력사술어와 성구속담들도 다 다섯(5)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널리 퍼졌다. 지어는 국기를 상징하는 국기에도 그것이 반영되었다. 즉 1911년부터 1928년까지 중화민국의 국기는 오색기(五色旗)였으며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도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다섯은 국기에도 반영될 정도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쓰이는 수자였다. 그만큼 중국은 다섯을 즐겨쓰는 풍습이 있다. 결국 중국에서 8은 5을 제꺼놓고 전통적으로 쓰인 수자라고 말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8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전혀 무관계하다.

이상 고구려의 온돌유적과 수자 팔(8)을 통해 본 조선민족의 력사적전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고찰은 어디까지나 한 시론(試論)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고려에로 이어져왔으며 그속에서도 고구려가 조선중

에 력대봉건국가들속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역할을 논 동방의 강대국이였다는것이 더욱더 힘있게 확증되게 될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

박영해 (력사연구소 중세사연구실 연구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력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날 일제어용사가들은 부당한 론거를 가지고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부인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다른나라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것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은 첫째로 고려의 창건자 왕건이 고구려 유민의 후손으로서 고구려옛땅전체를 회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데서 잘 알수 있다.

고려의 력사를 적은 『고려사』에 실린 왕씨계보에 의하면 왕건의 조상인 성골장군은 백두산에서 왔다고 하였다. 당시 백두산은 고구려국가를 상징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건은 활을 잘 쏘아 '신궁'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고려인' (高麗人) 즉 고구려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왕건의 조상은 백발백중의 활쏘기(궁술)를 장끼로 여기는 고구려 사람들이였다. 바로 작제건을 고구려사람이라고 찍어 말한 여기에 왕건의 조상의 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서 왕건이 고구려유민의 후예라는 근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왕건이 고구려유민의 후예라는것은 그가 고구려땅을 회복할 큰뜻을 편데서도 잘 알수 있다.

왕건은 즉위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918년 9월에 벌써 사촌동생 왕식렴을 평양에 보내여 고구려의 옛 수도를 복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개성에로 옮기기전의 일로서 그만큼 왕건이 평양회복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도를 개성에로 옮긴 해인 919년 왕건은 평양에 성을 쌓게 하였으며 922년에는 여러 군현들의 향반자제들과 백성들을 옮겨 평양을 강화하였다. 그뿐이 아니라 왕건은 직접 평양에 행차하여 북쪽변경을 순찰함으로써 고구려의 옛 강토를 회복할 의지를 가다듬었다. 그후 926년부터 935년까지 거의 해마다 왕건자신이 직접 평양에 행차하고 북쪽변경도 돌아보았으며 검하여 산청경개에 제사를 지내였다. 지어 932년에는 평양에 수도를 완전히 옮길 뜻을 신하들에게 내비친데 이어 938년에는 평양에 타성을 쌓았다. 그후 947년에는 정종이 태조 왕건의 뜻을 이어 평양에 왕성을 쌓고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길 잡도리로 궁궐건축공사를 벌리도록 하였다. 그후 광종은 960년에 개성을 황도로, 평양을 서도로 삼았다. 이렇게 왕건은 단순히 한강이남의 신라땅만을 병유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옛 고구려땅까지도 회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그토록 중시하며 타성과 왕성도 쌓았으며 동시에 직접 자주 찾아가 옛 삼국시대의 강토를 통합할 원대한 포부를 실현코저 한것이다. 그는 평양이 조선지맥의 근본을 이루며 만년대업의 터전이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기였다. 고려시기의 대판료이며 문호였던 익재 리제현은 충선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다. 즉 "태조가 자주 평양을 순행하고 북쪽변경을 순찰한 그 뜻이 동명왕의 옛땅을 우리 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이를 석권하여 가지려고 한것이다. 걸코 닭(신라)이나 오리(후백제)를 잡는데만 머무르는것이 아니였다" 고 한것이 그것이다.

왕건은 건국초기에 사실상 발해를 도와 거란족을 치고 발해땅까지 통합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것은 『동사강목』(6, 상)에 실린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동사강목』에 인용된 「속통전」에 의하면 939년 서역의 중 말라가 고려에 찾아 왔을때 왕건이 례를 갖추어 만나주었다고 한다. 그때 왕건은 "발해는 본시 나의 친척의 나라이다. 그 나라왕이 거란에 의해 포로가 되였으니 (우리가) 공격하여 가지려고 한다. 그 나라왕이 거란에 의해 포로가 되였으니 (우리가) 공격하여 가지려고 한다. 스님은 돌아가서 이 말을 진나라국왕에게 전달하여 때를 정하여 협공해서 거란을 쳐 없애자"고 말하였다. 왕건의 이 말속에는 왕건이 고구려유민의 후예라는 사실과 고구려옛땅을 회복하려는 그의 뜻이 담겨져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은 둘째로 고려사람들자신이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무한한 긍지로 여기고 있었다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것처럼 993년 거란이 수십만의 침략군을 내몰아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서희는 중군사로서 직접 적진에 들어가 위풍당당하게 담판

을 진행하였다. 그때 서희는 고려가 신라에서 일어났다는 적들의 침략적궤변을 짓부시고 "우리 나라는 곧 고구려를 회복(계승)한 나라이다. 따라서 국호를 고려(고구려)라고 하고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만약 지경을 가지고 론한다면 동경(료양)은 모두 우리의 지경인데 어찌 우리가 땅을 침식하였다고 하겠는가"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다. 적장 소손녕은 서희의 사리정연한 대답앞에서 할 말을 찾지못하고 물러서고 말았다.

당대의 대문호였던 리규보 역시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며 고려사람들은 고구려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사람이다. 봉건정부의 고위급관료였던 리규보는 고를시 동명왕편에서 고려사람이라면 보통 농부나 시골아녀자들도 동명왕의 건국전설을 다 알고있다. 동명왕의 건국전설은 도깨비나 허튼소리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할뿐 아니라 그것은 조상들이 이룩한 국가창건의 귀중한 력사적사실이라는것 등을 력설한 다음 동명왕의 사적을 시로 지어 후세에 전하는 것은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성인의 나라임을 밝히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리규보의 글에는 고려가 고구려와 같은 나라로 취급되고있다. 여기서도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려의 대관료뿐아니라 고려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동명왕의 출생과 국가창건의 력사적사적을 다 알고있었다. 그것은 동명왕의 고구려창건이야기가 저들 고려사람들의 조상이야기이고 바로 고려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려사람들은 자기들을 고구려의 후손으로, 고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고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신라사람들이 편찬한것으로 보아지는 구 『삼국사』이래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력사가 정당하게 밝혀지게 된것이다. 1017년 12월에는 봉건정부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 나

타들의 릉묘들을 각기 소재지의 주현들에서 잘 수축 관리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릉묘주변에서 벌초를 하거나 사냥하는것을 금지하며 대소인원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시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저들의 조상국으로 알고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였다는것은 셋째로 국제적으로도 그것이 공인된 사실에서 잘 알수 있다.

『고려사』 뿐아니라 이웃한 나라의 력사기록들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밝혀놓았으며 심지어 고구려와 고려를 한 나라, 한 왕조로 알고있은 것이 드문하였다. 고려에 찾아왔다가 돌아가서 고려에 대한 견문기를 적은 송나라사람 서긍은 자기의 글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고려국기」에서 백제, 신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고려의 조상국으로서의 고구려의 력사만을 서술함으로써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음을 강조하였다. 즉 서긍은 고구려의 건국설화로서의 동명왕의 출생과 활동에 대하여 개괄한 다음 고구려사람 대조영이 40만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계루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 계루는 고구려의 계루부의 계루로서 고구려를 상징하였다. 이어 서긍은 '왕씨'라는 항목에서 "왕씨의 조상은 대개 고(구)려의 대족이다. 고씨의 정치가 쇠해지면서 나라 사람들이 어진 사람을 내세워 드디여 군장이 되였다" 고 하였다. 고구려에도 왕산악과 같은 재상이 있었기때문에 왕건가문은 고구려의 왕씨가문의 후예일 가능성이 크다. 서긍은 고구려와 고려사이에 250년이라는 시공간적차이가 있었다는것을 무시하고 고구려와 고려를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였다. 궁예와 왕건은 처음 나라를 세울때 나라 이름을 고려(고구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궁예의 고려나 왕건의 고려를 후고구려하고 하였다. 『송사』 「고려전」에도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하였으며 『구오대사』도 서긍의 『고려도경』처럼 고구려와 고

려를 한 나라, 한개 왕조처럼 취급하면서 고씨와 왕씨가 한 나라안에서 서로 교체된 듯이 써놓았다. 이것은 명실공히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였다는 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와 같이 이웃나라사람들이 고구려와 고려를 동족의 한 나라로 취급하게 된 것은 모름지기 고려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데로부터 오는것이라고 보아진다.

잘 알려져있는것처럼 고려사람들은 저들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자부하고있었다. 이런데로부터 고려사람들은 고구려를 우리 나라 즉 '본국'(本國)이라고 해왔다. 실례로 14세기말의 고려의 최고관료이며 실권자로서 외래침략자들을 격퇴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쳤던 최영장군은 외적을 물리칠 수군을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불교승려의 우두머리를 불러 "당태종이 우리 나라(본국)을 칠적에 우리 나라(본국)는 승병 3만명을 동원시켜 격퇴하였다." 고 말하였다. (『고려사』권 113 최영렬전)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고려사람들이 고구려를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로 뿐아니라 한 국가, 한 왕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송사』를 집필편찬한 원나라 승상 탈탈은 최영과 직접 많이 접촉한 사람이다. 최영은 탈탈(脫脫)과 함께 고우(高郵)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27번이나 함께 싸워이긴 장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탈은 최영을 비롯한 여러 고려장수들과 접촉하면서 고려에 대한 보다 넓은 지식과 견문을 취득할수 있었다. 바로 고려사람들의 말을 직접 듣고 쓴 것이 『송사』(고려전)였다. 이미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탈탈한 고려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려태조 "왕건이 고씨(고구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썼던것이다.

고구려와 고려를 시공간적차이를 초월하여 한개 나라의 개념으로 인식한것은 비단 원나라 승상 탈탈뿐이 아니였다. 그것은 훗날 원(元)나라를 세운 구비타이(세조)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다. 구비타이는 '태자출륙'으로 강

화도를 떠나 몽골을 찾아간 왕전(고려 24대왕 원종)을 만나보고는 "고려는 만리 먼밖에 있는 나라로써 당태종이 친히 쳐들어갔으나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세자가 스스로 찾아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와 고려를 한개 나라로 보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였다.

이상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단편적인 몇가지 사실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것은 이밖에도 많은 자료가 방증해주고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세 동아시아에서의 '책봉'과 '조공' 체계의 본질에 대하여

최준경 (력사연구소 고구려사연구실 연구사)

봉건시기 동방나라들의 외교무역관계에서는 '책봉'과 '조공'이 하나의 의례형식으로 존재하였다.

최근 '책봉'과 '조공'에 관한 평가는 중세시기 동방력사에 출현하였던 거의 모든 국가들의 정치적지위와 외교무역관계를 해명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것으로 하여 내외학계의 중요한 론쟁거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지난날의 력사를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력사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들중의 하나이다.

'책봉'과 '조공'에 관한 문제도 당시의 력사적환경과 밀접히 결부시켜 편견없이 고찰할때만이 그 본질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다.

이 론문에서는 중세기 동방국가들의 외교무역관계에서 하나의 의례형

식으로 존재하였던 '책봉'과 '조공'에 대하여 몇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우선 '책봉'과 '조공'의 본질과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봉건시기 동방국가들사이에 '책봉'이니 '조공'이니 하는 의례형식이 성립된것은 매우 오랜 력사적연원을 가지고있다.

'책봉'이란 임금이 지위가 높은 왕족, 외척, 관료들에게 '책' 형태의 벼슬임명장을 갖추어주었던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조공'이란 지방특산물을 '선물(바침거리)'로 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공'의 형태는 원시시대에도 존재하였다. 원시말기이래 세력이 약한 종족집단이 보다 강한 종족집단에게 자기를 침공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물건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공납'이란 말을 썼다. 계급사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지방관이 '공물'의 이름으로 인민들에게서 물품들을 징수하여 임금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공'이라고 할 때에는 한개 나라안에서 특정한 신하가 왕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대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특산물을 바치는 경우에 주로 쓰인 말이었다.

한 나라의 범위에서 생겨난 '책봉'과 '조공' 관계는 그후 점차 여러 나라들의 통치자들사이에 맺어지는 외교무역관계에로 확대적용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그러한 관례가 전한(B.C. 206~A.D. 8)이후시기에 부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남북조시기(420~589)에는 국제관계에서 보편화된 일종의 의례규범으로 되었다.

이러한 관례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의 력대통치배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책봉', '조공'으로 간주하였으며 '칭신조공'(자신을 신하로 부르고 공물을 바친다는 뜻)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의 외교무역관계를 맺는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칭신조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봉건관료, 봉건사가들은 그렇게 한것처럼 꾸며놓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고대로마의 안또니우스(안돈)가 한나라와 무역한것도 "공물을 바쳤다" (『후한서』권118 서역전 대진국)는것으로, 인디아의 마가다국이나 아라비아의 대식국도 당나라, 송나라에 조공하였다는 것으로(『구당서』권198 서융열전 천축국, 『송사』권490 천축국, 대식국), 로씨야나 영국도 청나라에 '칭신조공'을 했다. (『단재 신채호전집』 상, 57쪽)고 기록하였다. 명나라도 일본, 루쏜, 자와, 쑤마뜨라, 말라까, 불림(수리아)등 바다건너 먼곳에 있는 나라들의 통치자들에 대해서까지 술한 '책봉'을 하고 '공물'을 받는 형식으로 외교무역관계를 맺었다. (『명회요』권 78~79 외번)

'책봉'과 '조공'은 중국의 력대 봉건통치배들만이 '하사'하고 받을수 있었던 특권적인 독점물이 아니였다. 이와는 반대로 흉노, 돌궐, 료, 금 등의 통치배들도 봉건중국으로부터 '조공'을 요구하고 받기도 하였다.

대국으로 자처하던 전한(서한)통치배들은 흉노선우(임금)에게 해마다 2억 7,000만전어치에 달하는 막대한 '세폐'(해마다 내는 공물)를 바치였고 당나라도 그 초기에 돌궐에 많은 물건들을 보내지 않을수 없었다.(『신당서』권215 상 돌궐전, 『구당서』 권194 상 돌궐전) 또한 1004년에 송나라 황제는 거란(료) 황제를 '백숙형제'(아저씨 또는 형제)로 부르면서 해마다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공물로 바쳤다.(『료사』권14 통화 22년 12월 무자, 『고려사』권 97 김부의전)

우리 나라에서도 삼국시기에 고구려는 강대한 나라로서 한때 백제, 신라, 동부여를 『속민』, 『노객』으로 인정하였다. (『광개토왕릉비』 제1, 2면)

이처럼 처음에는 한 나라안에서의 군신관계의 표현이였던것을 국가관계의 어떤 주종관계나 예속관계로 몰밀어 규정한다면 고대로마, 인디아, 로씨야, 영국은 물론 전한, 당나라, 송나라 등도 모두 자기의 주권을 가지지 못하

었던 속국이나 지방정권으로 보아야 하는데 력사연구에서 이보다 더 큰 오유는 없을것이다.

당시에는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것이 나라들사이의 외교무역관계에서 있을수 있는 자연스러운 의례형식으로 간주되었을뿐 결코 이것을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종관계를 맺거나 속국으로 전락되는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문제는 '책봉'과 '조공'이라는 개별적인 표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개 나라가 어떠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대내외정책에서 어느만큼 자주성을 고수하고실현하는가에 달려있다.

큰 나라와 대등한 독자적인 정치체계를 가지고 자기 결심에 따라 자기 리익에 맞게 행동하면 그것은 엄연한 자주독립국가이며 큰 나라의 압력에 굴복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나라를 추종한다면 그의 구속을 얼마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나라에 종속되어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자주권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곧 속국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은 봉건적인 의례형식이 생기기 전이나 없어진 이후시기에도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징표로 된다. 그러므로 해당 나라의 정치적지위를 '책봉'과 '조공'의 표현에서만 규정할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주권을 어느만큼행사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관계사료들에 남아있는 '책봉', '조공' 기사들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구려와 발해의 력사를 서술한 내외력사기록들에는 '책봉'과 '조공'기사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

만일 고구려와 발해가 봉건중국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던 '속국', '지방정권'이였다면 독자적인 정치체제는 물론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그 어

떤 자주성도 견지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것처럼 고구려와 발해는 봉건국가의 왕조들과 같은 급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던 동방의 대강국들이였다.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는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B.C. 277년에 압록강중류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발해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선 나라 즉 당나라가 자기의 변방에 세운 '속국'이나 '지방정권'이 아니라 고구려유민들이 당나라를 반대하는 오랜 투쟁을 통하여 698년에 옛 고구려령토였던 돈화일대를 중심으로 세운 당당한 주권국가였다.

고구려와 발해는 다같이 황제국의 정치체제를 갖추고있던 천자국들이였다.

고구려군주는 건국초기에 벌써 다물후를 비롯한 여러 후왕들을 복속시키고있었으며 그후에도 력대 왕들이 책봉한 제후들이 있었다.[1] 고구려군주는 4세기말엽부터는 중국식용어를 써서 자신을 황제로 부르게 하였고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였으며 황제국이 갖추어야 할 제반 제도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2]

발해에서도 존립전기간 자체의 독자적인 년호가 제정실시되였으며 3사 3공제도 작위제도, 군사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정치제도가 황제국의 체모에 맞게 편성되여있었다. 발해의 군주는 황제를 의미하는 표현인 황상, 성왕, 대왕 등으로 불리웠으며 군주의 아래에는 고려후국왕, 계루왕, 속령의 우두

1) 『고자묘지명』에 의하면 그의 20대조 고밀이래 대대로 제후로 되였다.
2) 『수서』 권81 고려전에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소렬제로 불리웠다고 밝히고있으며 소수림왕때에는 천자만이 제정하는 년호를 제정실시하였다고 하였다.

머리를 비롯한 여러 제후들이 있었다.

고구려와 발해의 정치제도는 명백히 큰 나라에 제도적으로 종속된 '속국'이나 '변방지방정권'의 제도가 아니라 천자국의 틀거리를 정연하게 갖춘 제도였다.

만일 '책봉'에 의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정치체제가 규정되었다면 이 나라들의 정치제도는 '왕' 또는 '군왕'급으로 왜소화되었을것이였다. 그러나 봉건중국의 통치배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군주들을 '도독', '군왕' 등으로 '책봉'한것과는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군주가 황상, 대왕 등 황제급으로 불리웠으며 모든 정치체제가 이에 맞게 편성되여있었다. 이것은 '책봉'과 '조공'이 하나의 완전한 외교의례형식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로 된다.

고구려와 발해는 존립전기간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 주권국가들이였다.

고구려왕에 대한 '책봉'기사가 력사기록에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355년에 전연의 왕 모용준이 고국원왕에게 '정동대장군 영주자사 료동공'의 벼슬을 보내주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42년 전쟁에서 고구려왕의 전략전술상 실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고 왕의 어머니 주씨가 전연으로 련행되여 간 조건에서 전연이 제멋대로 취한 조치에 불과한것이였다. 고국원왕은 그것을 내심으로 접수한 일이 없었고 근 30년동안 화친상담하면서 국력을 강화해나갔으며 마침내 370년대에는 유주로 진출함으로써 전연에 대한 보복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395년에 후연왕 모용보가 광개토왕을 '책봉'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희극이였다. 당시 후연은 고구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다. 모용보가 과대망상증에 걸려 제 분수도 모르고 깊히 '책봉' 놀음을 하였으니 광개토

왕으로서는 그것을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여겼다. 400년에 후연왕 모용성이 고구려가 후연에 대한 외교의례에서 '거만하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것을 보면 후연을 하대한 고구려 광개토왕의 당당한 자세를 알수 있다.

북연(407~436)의 창건자 고운은 고구려사람 고화의 손자였다. 그가 나라를 세우자 광개토왕은 곧 그를 고구려왕족으로 대우해준다고 통보하였다. 그후 북위(386~534)에 의하여 북연이 망하게 되자 고구려는 북연왕 풍홍을 데려왔으며 북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중국 남북조나라들도 관례에 따라 고구려군주를 '책봉'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언제나 가장 높이 대우하였다. 그것은 고구려가 당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서 남북조나라들과 맞먹는 령토와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고구려와 남북조나라들사이에 존재한 '책봉', '조공' 형식의 관계는 당시 외교무역상의 관례일따름이지 결코 고구려가 남북조나라들의 '속국'이였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였다. 고구려는 남북조나라들에 대하여 자기 식으로 대했으며 자기 결심에 따라 사신을 파견하였다. 480년에 남제로 가던 고구려사신이 북위의 수군에게 붙들리여 수도로 압송되였을 때에도 북위는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고 고구려로 돌려보냈다. 북위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고구려는 결심대로 다시 사신을 남제로 떠나보냈다.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고구려의 자주적인 외교의 진면모를 알수 있는것이다.

지난날 봉건중국의 통치배들은 주변나라들의 '조공'을 자기 체면과 위신을 높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양제나 당태종 같은자들은 '조공'형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으로 침공한

것은 바로 '책봉', '조공' 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고 그것이 복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기때문이다.

당나라 고조 리연은 이런 사정을 알고있었기에 '명목과 실제사이에서는 리치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 고려(고구려-인용자)가 수나라에 칭신하였지만 종당에는 양제에게 항거하였으니 또한 무슨 신하가 삼았다고 할것이 있겠는가. 나는 만물을 존경하며 교만하게 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데 힘쓰면 될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로 하여금 신하로 자칭하게 해서 스스로 존대하게 하라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강력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책봉', '조공'조차도 필요없다고 말했던것이다.

수나라, 당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은 자기들의 령토욕과 명예욕을 채워보려고 당치도 않은 구실을 들어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고구려인민들은 완강한 투쟁으로 맞서 싸움으로써 그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버렸다. 수나라, 당나라통치배들은 또한 고구려를 외교적방법으로 굴복시켜보려고 여러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고구려는 그들이 제멋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게 빈집에 가두어두거나 지어 굴실에 6년동안 감금해두기까지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근 1,000년을 헤아리는 자기의 력사에서 수십차례의 외세의 침공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싸움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발해도 당나라의 '책봉'을 받기 썩 이전시기에 출현하여 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하면서 국력을 강화해온 '해동성국'이였다.

발해가 처음으로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것은 713년이였다.

713년에 당나라는 발해에 최흔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고왕 대조영을 '좌효위 원외대장군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그전까지 발해를 모욕하여 낮

추어 부르던 '말갈'이라는 별칭을 없애고 오직 발해로만 부를 것을 약속하였다. (『신당서』권 219 발해전)

당시 당나라가 최흔을 파견한 목적은 712년부터 시작된 해족과 거란족의 변경침범에 대처하여 '원교근공' (먼 곳에 있는 나라와는 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는 친다는 뜻)의 원칙에서 그 배후에 있는 발해와의 협력관계를 더 밀접히 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자기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하였기때문은 아니였다.

712년 8월에 즉위한 당나라 현종은 국내의 정치적안정을 보장하며 동북방을 계속 공격하는 거란과 해족 등 종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발해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륙로가 차단되여 왕래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흔을 바다길로 보내여 발해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던것이다.

당시 발해군주에 대한 당나라의 '책봉'은 대외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빠져있던 당나라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사신을 보내여 관계수립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외교의례형식이였을뿐 그밖의 다른것은 아니였다. 만일 당시 동방세계에 실지로 '책봉체제'라는것이 있어서 봉건중국의 군주만이 천자이고 다른 나라들의 군주는 모두 제후였다고 한다면 '책봉'은 발해가 스스로 찾아가서 요청하고 당나라가 그것을 승낙하는것으로 진행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일은 이와는 정반대로 당나라사신이 찾아와 관계수립을 요청하고 발해가 수락하는 것으로 진행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결국 당시의 '책봉', '조공'이라는것이 완전한 허구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나라가 주변종족들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705년부터 발해에 대한 대외정책을 크게 변경시켜 화친관계를 요구하여 나온 조건에서 발해는 이를 자기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과시하고 인정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것이다.

발해존립기간 발해군주가 즉위하면 그에 뒤따라 의례히 당나라의 '책봉' 기사가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책봉'과 '조공' 기사들은 713년의것처럼 모두 발해와 당나라사이의 외교무역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에 불과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처럼 존립전기간 언제나 자기 판단에 따라 나라의 대내외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우세를 차지하군 하였다.

8세기 20년대에 들어와서 당나라가 발해의 동북방에 위치한 흑수말갈을 꾀여 발해를 앞뒤로부터 공격하려고 획책하였을 때 발해는 흑수말갈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였다. 당시 정벌군의 총지휘자였던 대문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나라에 도망쳤을 때에는 그의 송환을 강경히 요구하였으며 732년에는 당나라가 반역자 대문에를 돌려보내지 않고 발해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린것과 판련하여 당나라 산동반도의 등주를 공격하고 동시에 료서의 마도산에 있는 당나라군대를 공격하였다.

726년 발해의 흑수말갈원정과 732~733년 발해-당나라 전쟁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견지하고있던 주권국가인 발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발해는 존립전기간 중국의 여러 봉건왕조들과 동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자기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오랜 기간에 걸치는 외세의 침공을 막고 자주권을 지키면서 동방의 대강국으로 륭성했던 나라들이였다. 이러한 대강국들을 당시 나라들 사이의 외교무역관계에서 하나의 허례형식으로 되였던 '책봉'과 '조공'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속국'이니 '지방정권'이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의 억지에 불과하다.

남북의 고구려 역사연구 협력방안

최광식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북측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2004년 7월 1일 쑤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로 결정되었다. 북측이 2001년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하였으나 보존상태가 미흡하다는 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주변 지역의 고구려 문화유산과 비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03년 7월 등재가 보류된 이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얻은 값진 결과이다. 이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고구려의 문화에 대해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하여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된 결과를 국제사회에 널

터 알리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북측과 중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재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구려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한 축을 담당한 국가로 중국 및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인접하여 많은 분쟁속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고구려의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시켰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 고구려 고분벽화일 것이다.

더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많은 요소들은 현재적 나아가 미래적 측면에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벽화에 묘사된 감각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나 캐릭터, 아름다운 복식들은 벽화가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이나 생활속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고분벽화를 통한 과거 역사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문화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1.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의 문제점

현재까지 고구려 고분벽화는 약100여기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계에 자세하게 소개된 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고분벽화의 경우 2002년 일본학자들과 공동으로 발굴을 하였으나 아직 그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 이와같이 아직도 많은 벽화들이 완전하게 조사되거나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벽화들이 학술적으로 조사된다면 더 많은 연구 자료들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는 입체적인 다큐멘터리 시네마스코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분벽화가 소재한 북측과 중국 뿐만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문화애호가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유네스코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고구려 고분군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중국은 고분군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및 귀족의 무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북측이 등재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은 평양 동명왕릉 등 진파리 고분군 15기, 평양 호남리 사신총과 호남리 1~16호분 등 34기,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1·2·3호분, 강서삼묘, 덕흥리·약수리·수산리 고분과 용강대총·쌍영총, 안악 1·2·3호분 등 3기로 63기이다. 북측이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세계유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고구려 수도, 왕릉·귀족묘'는 오녀산성·국내성·환도산성 등 왕성 3곳과 태왕릉·장군총 등 왕릉 13기, 각저총·무용총·장천 1·2·4호분 등 귀족묘 26기와 광개토왕릉비 등 43건이다. 즉 환인지역의 오녀산성과 집안지역의 환도산성과 국내성 및 광개토왕릉비 등이 모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중국지역에 있는 유적이 중심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고구려의 중심이 중국지역에 있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에 중국지역에 있는 고구려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북녘의 고구려고분군이 동시에 등재가 됨으로써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사일 수도 있고, 한국사일 수도 있다는 일사양용론(一史兩用論)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지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홍보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지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과 북녘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이 동시에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니 고구려가 중국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사가 될 수도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오해될 가능성이 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측에서 신청한 고분군 이외에 대성산성과 안학궁, 평양성 등과 고구려시기의 절터 등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왕경인 역사도시 평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측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먼저 등재하고 나서, 나중에 역사도시 경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고구려의 왕경이었던 평양지역의 고구려 고분군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주요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녘 고구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상경성 유적을 비롯한 발해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역사박물관을 비롯한 북측에 있는 발해의 유물을 남측에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발해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남북 공동연구 방안

우리는 동시 등재를 계기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남북공동으로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남측은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해 등한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이 중국과 북녘 등 공산권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료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북측

과 공동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 등재를 계기로 중국당국도 중국지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산을 전면 개방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제 고구려의 문화유산은 남과 북, 중국의 문화유산을 초월하여 세계의 문화유산으로서 '인류의 뛰어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누구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는 남과 북 어느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이므로 남북 공동보조로서 고구려의 역사를 지켜낸다면 남북 공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북측이 신청한 고구려고분군이 2003년 보류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존상태 미비이므로 기술지원이나 시설지원을 통하여 관리상태를 호전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6년마다 관리상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고구려고분군 주변의 정비사업을 도와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볼 거리를 다양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분벽화의 경우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옆에 모형관을 만들어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관리 보존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남북공조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남측과 북측이 협력하여 '고구려 문화유산 공동 보존대책'과 '중국의 고구려 왜

곡문제'에 대한 남북 전문학자들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북측에 소재한 고구려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실태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제대로 보존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함께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녘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을 남북의 전문학자들이 공동으로 조사·발굴·연구할 수 있도록 북측 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과거에 이미 조사 발굴한 지역을 함께 답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 발견된 유적은 공동으로 조사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남북의 고구려 관련 자료들을 모아 연구논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연구자와 공동으로 기존에 출판된 조사보고서나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정리하고, 중국과 북측에 산재한 고구려 유적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물론 고구려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박물관 등을 통해 고구려 관련 특별전시회, 특히 북측과 남측이 공동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도록 한다. 이 때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며, 고구려와 관련된 문화원형컨텐츠, 케릭터 상품, 게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생활화하여 대중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연구결과와 대중적 문화상품을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에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북 공동 보존방안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63기의 고분에 대하여 남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상태의 사진 및 연구자료를 발간하여 고구려 연구의 중요한 학술자료로 활용한다. 남측에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보존관련학자 등 10여명으로 구성하고, 북측도 비슷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한다. 출토된 유물의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 및 유물보존 관련 비품을 제공하고, 이후 남북이 고구려 유물을 공동으로 전시한다. 북측 소장의 유물들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와 보존비품의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후 이를 남측에서 전시하여 북측 문화재의 실물을 학계 및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2005년 5월 7일부터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북녘에서 대여해온 고구려 유물 60점을 비롯한 고구려 유물 특별전은 대중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북녘에 있는 고조선과 발해의 유물도 남녘의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가져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63기 고분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온습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분의 보존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수리하고 고분의 출입을 통제하며 고분내에 들어가지 않고 온습도를 매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영구히 보존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분 인근에 모형관을 축조하고 모형고분내에 벽화를 복원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분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보존에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여 모형고분을 실물 크기와 같이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남북 공동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측은 이러한 사업을 정부 당국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남북 장관급 회담 의제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 학술교류와 관련된 민간 학술기구를 통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학술기구를 창구로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통일부와 문화재청이 이를 후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

Par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Articles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는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독립국가

정창규 (력사연구소 소장)

동방의 광활한 령토를 차지하고 해동성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던 중세 우리 민족의 당당한 독립국가 발해가 세워진 때로부터 1300여년의 년륜이 새겨졌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그 10년이 100번은 더 바뀌었어도 더더욱 잊지 못할 력사로 뇌리에 새겨지는 발해이다.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220여년간 존재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가로서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마치도 발해가 '말갈족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이고 당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이였던 듯이 력사의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나는 이번 토론을 통하여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사실자료들을 들어 발해는 결코 당나라의 '속국'이나 '지방정권'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을 해명하려고 한다.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은 첫째로, 발해가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승인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에 따라 이웃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진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웃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는것은 독립국가의 권리이다. 속국이나 지방정권이 제마음대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가질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다.

발해는 존립 전기간 동족의 나라인 신라는 물론 돌궐, 일본 등 나라들뿐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견해대로 하면 자기의 '중앙정권'이라고도 할수 있는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가지면서 독립국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발해는 698년에 건국한후 곧 돌궐과 국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는 "(대조영은) 건국하여 스스로 진국(발해)왕이라고 하였다. 사신을 보내어 돌궐과 국교를 맺었다."[1] 라고 전하고있다.

이에 발해는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가지였다. 돌궐과 거란 등 북방 여러 종족들의 거듭되는 변경침입으로 하여 곤경에 처해있던 당나라는 위기를 모면하는 방도는 강대국으로 등장한 발해와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705년에 측천무후를 대신하여 다시 임금으로 된 당중종은 발해에 대한 종전의 적대시정책을 완화하고 집권 첫 사업으로 시어사 징행급을 파견하여 두 나라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제기하여왔다.[2]

---

1) 『신당서』 권219 발해전.
2) 『구당서』 권199 발해전.

물론 이것은 발해를 끌어당겨 거란과 돌궐을 견제하려는 당나라정부의 책략으로부터 취해진 조치이기는 하지만 궁지에 빠져있던 당나라가 큰 나라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게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를 먼저 제기해온것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확고히 고수한 발해의 외교적승리라고 할수있었다.

713년에 당나라는 또다시 탕장 최흔을 사신으로 보내어왔는데[3] 이에 대하여 『구당서』 발해전에서는 "마침 거란과 돌궐이 해마다 변경을 침입하였다. 예종 선천 2년(713)에 탕장 최흔을 보내어 가서 책봉하게 하였다." 라고 전하고있다.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나라는 거란과 돌궐의 해마다 계속되는 변경침입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부터 '큰 나라'의 자존심을 '책봉'의 너울밑에 감싸고 찾아와 발해국을 승인하였던것이다.

여기서 '책봉'과 '조공'에 대하여 명백히 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때 당나라가 발해국왕을 '발해군왕', '홀한주도독'으로 '책봉'하였고 "이때로부터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4]고 한 기록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것을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으로 된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책봉'이나 '조공'이 중세 동방에서 하나의 외교무역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바이다.[5]

'책봉', '조공'이 어떤 주종관계, 예속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는

3) 『책부원귀』 권 964 외신부 봉책2.
4) 『구당서』 권 199 발해전.
5) '책봉', '조공'의 허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까밝혀졌다. (『력사과학』 1990년 2호, 43~46쪽; 같은책, 1993년 1호, 40~45쪽)

데 대해서는 력대 중국의 봉건통치자들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다. 당나라의 고조 리연은 고구려가 수나라에 칭신하였지만 마침내 수양제를 반대하여 골탕을 먹였으니 굳이 신하로 부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존대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다.[6]

또한 고려말기 명나라는 고려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는 자고로 성교를 하여왔다"[7]고 하였다. '사원'의 주석에 의하면 '성교(聲敎)'는 '천자의 명예와 위엄, 교화'를 의미하는것으로서 '황제의 자주정치'를 의미한다. 리조때에도 명나라는 리씨조선의 '성교자유(聲敎自由)'에 대하여 긍정하면서 두 나라가 화목하게 지낼것을 희망하였다.[8]

력대 중국의 봉건통치자들이 소위 '책봉체제' 안에 두었다고 한 고구려, 고려, 리조에 대하여 그의 독자성, '성교자유'를 인정한것은 이 '책봉', '조공' 이라는것이 외교무역관계에서 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허례의식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발해국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당나라가 '책봉'했다고 한것은 허례적인 낱말을 빌어 발해의 국가주권을 승인해준데 불과하다. 이것은 당나라가 '발해군왕'으로 '책봉'해준것과는 상관없이 발해임금들이 자신을 '국왕'으로 당당히 높여 부른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9]

이처럼 발해는 당나라가 먼저 찾아와 국가를 승인하고 관계정상화를 제기

6) 『구당서』 권 199 고려전.
7) 『고려사』 권 137 열전50 신우5 14년 6월 신해.
8) 『태조실록』 권2 원년 11월 갑진.
9) 762년에 당나라는 발해왕을 '국왕'으로 올려서 '책봉'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구당서』 권199 발해전) 그러나 기록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발해군주들은 나라를 세우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였고 계승자는 태자에게는 '군왕'의 봉호를 수여하

해오게 하였으며 이것은 발해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가져다준 결실이였다.

이밖에도 발해는 그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대외정책방향에 따라 일본[10], 후기신라[11]등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맺고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이처럼 발해는 그누구의 절제를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였다. 만약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이였다면 반드시 중앙정부의 승인밑에서만 이웃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가질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명나라가 1393년에 자기의 제후왕부인 료왕부와 녕왕부가 리조정부와 거래를 가진다고 하여 시비질한 사실을 실례로 들어 확인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발해는 어느한번 당나라에 사전승인을 받은일 없고 당나라는 언제한번 발해가 다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시비질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한후에도 발해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본[12], 후기신라[13] 등 나라들과 선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새로

였다. (『신당서』 권219 발해전, 『책부원귀』 권1000 수원)

10) 발해는 727년에 일본에 사신단을 파견하여 국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속일본기』 권10 성무기 신구4년 9월 경인)

11) 발해는 건국후 곧 후기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보인다. (『동문선』 권33 표전 사불허북국거상표) 이후 후기신라는 790년 3월 일길찬 백어를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6년 3월), 812년 9월 급찬 숭정을(같은책, 헌덕왕 4년 가을 9월) 발해에 사신으로 보내였다.

12) 발해는 908년과 919년 두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속본조통감』 권3, 권5)

13) 발해의 마지막임금 대인선은 거란의 침입에 대처하여 후기신라와 지원협정을 맺었다. (『거란국지』 권1) 이 시기를 『발해국지장편』 권3에서는 대인선 19년 즉 925년으로 보았다.

등장한 고려[14]등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가지였다.

이것은 발해가 결코 당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관계에서도 '성교자유'였던 완전한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은 둘째로, 발해가 당나라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철저히 자국의 리익을 고수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발해는 자국의 령토완정을 침해하는 당나라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선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발해는 726년에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결탁함으로써 앞뒤에서 협공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속으로는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를 적대시하면서도 군사적힘으로는 당할수 없어 골머리를 앓던 당나라는 이때에 흑수말갈이 사신을 파견하여 '보호'를 요청하자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흑수부를 '흑수주'로 만들었으며 거기에 자기의 장사(감독관)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발해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위협이였다. 발해 2대 무왕 대무에는 "흑수가 당나라에 가려면 우리의 지경을 지나게 된다. 전날에 돌궐에 토둔(吐屯)을 청할때도 먼저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와 함께 갔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당나라의 관리를 청하니 이것은 필시 당나라와 모의하여 등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서일것이다"[15]라고 그 침략위협을 까밝혔다.

당나라의 침략위협에 격분한 대무에는 즉시 흑수말갈원정을 조직하고 동

14) 발해는 918년에 궁예의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세워진 왕건의 고려국과 혼인관계를 맺기까지 하였다. (『자치통감』 권285 후진 제왕 개운2년)

15) 『자치통감』 권213 당기29 현종 개원14년.

생 대문에를 종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문에가 흑수말갈을 치는 것은 당나라를 배반하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원정을 반대해 나서자 그를 죽여버리게 하고 사촌형 대일하를 대신 임명하여 보내면서 원정을 끝까지 단행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무에가 자국의 령토완정을 침해하는 당나라에 강경히 대응하면서 자기의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해는 또한 원정을 반대하다가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고 당나라에 도망친 대문에를 처형하도록 강한 압력도 가하였다. 발해 무왕은 당나라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면서 문에를 싸고돌자 "큰 나라라면 응당 남에게 신의를 지켜야 할텐데 어찌하여 그런 권모술수로 일을 처리하는가" 고 되게 다불려댔다. 이때 당나라임금의 가긍한 처지에 대하여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은 이렇게 개탄하였다. "당명황(당현종—인용자)의 힘은 당당히 무에를 징벌할수 없었고 정면으로 문에를 비호해나설수도 없었으므로 겨우 거리의 협잡군놀음으로 일시를 모면하려다가 그것도 탄로되여 작은 나라로부터 막심한 수모를 당하고 자기의 신하 홍려소경(대외관계사무를 맡아보는 고관—인용자)을 파면시키는것으로써 일을 마감지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16]

발해는 당나라가 대문에처단요구를 접수하지 않고 지어 그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위협공갈까지 해나오자[17] 그들의 발해침략기도가 조금도 변함이

16) 『자치통감』 권213 당기 29 현종 개원14년.

17) 『곡강집』 권9, 『문원영화』 권471에 수록된 당나라측의 국서에 의하면 발해가 계속 문에처단요구를 제기해오자 당나라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장수에게 명령하지 않고 있는것도 때가있기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대응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암시한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이 국서를 731년 8~9월경에 작성된

없다는것을 간파하고 주동적으로 군사적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발해는 732년 9월 대장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18] 한편 발해무왕은 지상무력을 거느리고 료서로 진격하여 마도산(하북성 청룡현)까지 진출하였다.[19]

발해는 군사작전을 통하여 당나라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력사적 사실은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또한 발해는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그의 절제를 받으며 맹종맹동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리익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행동하였다.

8세기중엽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란'이 일어났다. 755년 11월 북방종족 출신으로 영주자사, 평로군절도부사, 압량번 발해흑수4부 경략사의 벼슬을 하던 안록산은 자기 판하의 15만대군을 거느리고 억적 양국충을 친다는 명분밑에 범양(베이징부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로부터 당나라는 7년나마 계속된 '안사의 란'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었다. 12월에 동경(동도-락양)을 점령한 안록산은 756년 1월에는 대연국을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로 칭하였으며 6월에는 당나라왕정을 서쪽의 촉군(사천성 성도)으로 밀어냈다.

대연국의 출현으로 발해는 당나라와 대연국 두 나라를 상대로 하는 2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은근히 대연국을 지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만약 이때

것으로 보고있다. (1986, 『집간동양학』55, 24쪽) 732년 7월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선학보』 112집, 1984년 2호, 89쪽)

18) 『자치통감』 권213 당기29 현종 개원20년 9월 을사조.

19) 『신당서』 권136 오승자전, 한유의 『오씨묘비』, 허멍용의 『오승흡(오승자)신도비』.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면 자기의 '중앙정권' 즉 당나라를 위해 군사를 발동하여 대연국의 배후를 쳐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발해는 이와는 정 반대의 태도를 취하였다.

758년 4월 당나라 영주자사이며 평로군절도사였던 왕현지는 장군 왕진의를 발해에 파견하여 군사적지원을 요청하였다. 왕진의는 당나라정부가 서경(서도-서안)으로 돌아왔고 반란군을 몽땅 쳐없앴기때문에 자기가 파견되여왔다고 하였다.[20]

그러나 발해는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그를 억류한다음 따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내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오도록 하였다.[21] 결과 대연국은 소멸된것이 아니라 사사명의 지휘밑에 더욱 강화되여 759년 9월 동경을 점령하고 장강이북의 넓은 지역을 련이어 차지하였다[22]는것을 알게 되였다.

발해는 정세료해에 근거하여 당나라측의 원병요청을 거절하였다.

발해는 756년 가을 안록산의 부하인 당나라 평로 류후사 서귀도가 류성현령 겸 4부경략판관인 장원간을 파견하여 안록산을 치겠으니 기병 4만을 보내여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도 그에게 당나라정부를 반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장원간을 억류하였으며 그의 요청도 거절하였다.[23]

당시와 같은 동란의 시기에는 어는 한쪽에 군사적지원을 하는것은 무의미하였으며 자칫 잘못하면 이후의 대외관계에도 불리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따라서 발해정부가 당나라와 대연국의 지원요청을 모두 거절한것은

20) 『속일본기』 권21 순인기 천평보자2년 12월 무신.
21) 우와 같은 책.
22) 『신당서』 권6 본기 숙종 건원2년 9월 경인.
23) 『속일본기』 권21 순인기 천평자2년 12월 무신.

대외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자국의 리익의 견지에서 취한 옳은 외교적조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당나라에 취한 태도는 발해가 결코 그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하거나 자기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이없이 큰 나라의 절제를 받은 속국, 지방정권이 아니였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자국의 리익을 철저히 고수한 발해의 정확한 대외정책은 오히려 당나라로 하여금 고구려 발해침략기구인 '안동도호부'를 완전히 폐지하고[24] 발해 임금을 '국왕'으로 올려서 '책봉'한다고 하면서[25] 발해에 바싹 접근하게 만드는 외교적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사실자료들은 발해가 당나라의 통제를 받은 '속국', '지방정권'이 아니라 자국의 령토완정과 리익을 위하여 강경한 대외정책을 실시한 완전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해당 나라의 주권적성격은 많은 경우 대외관계를 통하여 반영된다. 이웃 나라들과 국교관계를 맺는데서 철저히 독자성을 견지하고 당나라에 강경한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자국의 리익을 고수한 력사적사실들은 발해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 독립국가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24) 당나라는 지덕년간(756~758)에 유명무실하게나마 동방침략도구로 검질지게 두고있던 '안동도호부'을 완전 철폐하였다. (『구당서』 권39 지리지 안동도호부)
25) 『구당서』 권199 발해전.

정치제도에 반영된 발해의 황제국가적성격

공명성 (력사연구소 근대사연구실 실장)

발해는 동방에서 가장 오랜 력사국인 단군조선과 천년강대국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 조선중세시기의 당당한 독립국가의 하나였다.

발해가 강력한 주권국가였다는것은 발해의 정치제도에 반영된 황제국가적성격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주가 국가기구의 대표자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봉건전제국가에서는 주로 최고통치자인 군주의 지위에 따라 권력구조가 황제국의 틀을 갖추거나 제후국의 틀을 갖추어 그 형식을 달리한다. 물론 봉건사회에서 그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든지 군주적인 통치형식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에 따라 국가의 대외적지위가 달라지고 그것이 국가의 위력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제도에 반영된 권력구조의 성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발해는 존재전기간에 걸쳐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서 황제국가의 틀을 만들어놓고 중앙통치기구를 편성하여 주권국가의 위력을 대내외에 떨치였다.

발해의 최고주권자는 중세대국의 군주인 황제의 지위에 있었다.

우선 발해의 왕들은 자신을 지상최고의 권력자로 자부하면서 자기들을 '천손' 즉 '하느님의 자손'으로 자처하였다.

발해의 군주들이 자칭한 '천손'이라는 말에는 자기들을 천자로 자부한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과 함께 고구려의 천자-황제들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천자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제가 자식을 시켜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는 하늘숭배의 관념으로부터 나온 말로서 천하를 지배하는 최고권력자에 대한 칭호로 '황제'라는 말과 함께 써왔다.

고구려에서는 최고통치자를 천자로 신성화하면서 높이 떠받들어왔다. 발해에서도 역시 천자와 같은 천손이라는 말로 군주의 지위를 신성화하였다. 이것은 771년에 발해국왕 대흠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천손 고려국왕 대흠무'라고 하여 자기를 '천자'국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천손'으로 표기한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속일본기』 권32 광인기 보구 2년) 당시 군주를 '하느님의 자손'으로 묘사하는것은 황제국가의 주권자만이 할수 있었다.

발해왕들이 자신들을 '천손' 즉 '하느님의 자손'으로 신성화한 것은 자신들이 다름아닌 '천자의 나라' 고구려의 후손국 즉 '천손국'이며 자기들의 지위는 고구려의 제왕들처럼 천자 즉 황제와 같은 지위로 보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발해주권자들은 '천자', '천손'의 관념에서 자기들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고 당당하게 표방하였다.

정효공주묘비문에는 "……조상과 부왕께서는 창조하시였으며 그들이 쌓아놓은 큰 업적과 무공은 그 누구도 비길수 없다. 만약 그들이 시기를 장악하고 정사를 처리하면 그 빛발은 해와 달처럼 온 천하를 비치였고 기강을 세워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면 그 어진 정치는 온 천하에 차고넘쳤다"라고 하였다

비문에 '왕도를 창조'하고 '빛발은 해와 달처럼 온 천하를 비치'고 '어진 정치는 온 천하에 차고넘쳤다' 라고 한 요란스러운 표현들은 모든 권력을 수중에 틀어쥔 최고권력자만이 할수 있는것이였다.

발해의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 있었다는것은 그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발해에서는 선행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군주를 '왕'이라고 하였다. 정효공주묘비에 공주의 아버지인 문왕을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고 한 사실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수 있다.

우리 나라 중세봉건국가들에서는 대체로 '황제'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지만 '왕'을 그와 같은 격으로 써왔다. 중세에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군주호칭법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에는 '거서간', '니사금', '마립간', 백제에는 '어라하', '건길지' 등의 군주호칭법이, 발해에는 '가독부', '대가독'이라는 '왕'과 별개의 군주에 대한 고유호칭법이 있었다.

발해에서 '왕'이라는 군주호칭이 '황제'를 의미하였다는것은 '정효공주묘지'명이나 '정혜공주묘지' 명에서 왕을 가리켜 '황상'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다.

여기서 '황상'이 '황제'와 같은 의미라는것은 더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왕이자 황상(황제)인것이다.

발해에서 군주를 직접 황제라고 불렀다고 볼수 있는 자료도 있다.

문헌사료들을 참고해보면 발해는 11대 대이진왕때부터 력대로 황제와 같은 격에서 써온 왕이라는 호칭대신 황제를 칭했다고 보인다. 『료사』 권38 동경도조에 "12(11의 오기)대 이진때에 이르러 참람되게 호를 정하고 개원하였으며 궁궐을 모방하여 세웠다"고 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참람되게 호를 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황제라고 호칭한 사실을 기리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선행한 고구려에서도 민족고유의 호칭인 왕을 황제와 같은 격으로 사용하면서도 '소렬제'라는 시호를 받은 고국원왕(331~371)과 같이 임금들이 제호 즉 '황제'를 칭하기도 하였다.

발해의 최고군주가 황제로 자처하였던 사실은 발해의 군주들이 자기 자식들과 신하들을 황제들과 같이 왕, 제후 등으로 책봉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는 대조영이 그의 맏아들 대무에에게 '계루군왕'의 칭호를 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황제들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책봉하고 손자, 조카들을 '군왕'으로 책봉하는것이 당시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무에가 아버지 대조영으로부터 '계루왕'의 칭호를 받았다는것은 발해국이 황제국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1]

뒤우기 대무에외에도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도 '검교태위 반안군왕'으로 책봉을 받았는데 이것은 발해의 최고주권자가 그밑에 '작은왕'들을 거느린 대왕 즉황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1) 1997, 『발해사연구론문집』 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5~43쪽.

후국은 황제의 지배밑에 있는 제후국으로서 후국의 존재는 황제국의 통치형태를 상징하는 기본징표이다.

발해의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서 제후들을 책봉하였던 사실은 함화 4년명석불상의 "함화 4년 윤 5월 8일 전 허왕부 참군 기도위 조문휴의 어머니 리씨……"라는 명문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여기서 기본은 '허왕부'이다. '허왕부'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발해태조 대조영이 건국후에 함께 싸우던 말갈추장 걸사비우(허국공의 봉호를 당나라로부터 받았다)의 말갈부중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설치한 부라고 하였다. "하늘에는 두개의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임금이 없다"는 론리에 기초하여 봉건적전제군주제도하에서 발해에 두왕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앞의 견해에 의견을 달리한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허왕'의 존재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2]

문제는 발해통치자의 지위, 그 반영인 호칭을 '국왕' 급에 국한시켜보려고만 하는데 있다. 만약발해통치자의 지위, 그 반영인 호칭을 '……왕'이라는 제후왕을 임명할수 있는 황제로 본다면 이 '허왕부'의 허왕은 틀림없는 제후왕인것이다.

발해의 최고주권자는 자기를 황제로 자처하였을뿐 아니라 정치제도전반을 황제국가의 지위에 맞게 편성하고 대내외에서 황제국의 국가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였다.

발해의 황제국가적성격은 발해의 관제에 황제국가만이 가질수 있는 '3사 3공' 제도와 작호제도 등이 편성되여 있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2) 『북방문물(중문)』, 1999년 3기 (북방문물잡지사), 37~38쪽.

926년 발해국이 망한다음 거란은 전날 발해국의 사도 대소현을 괴뢰동단국의 좌차상벼슬에 임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3]

발해에 사도가 있었다는 것은 '태위', '사공'과 함께 3공제도가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3공제도는 3사제도와 대체로 함께 실시되는것이였으므로 발해의 관제에는 태사, 태부, 태보의 3사제도도 갖추어져있었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제왕들은 3사의 관리들을 보통신하로 대하지 않고 스승으로 대하였다. 3사는 최고관직인데 직무는 임금에게 충고를 주는것이였으므로 3공은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관청을 지도하게 되여있었다. 특히 3공은 큰 임금아래의 작은 왕으로서 제후적성격을 가지며 고려때에는 제왕으로 불리운 자들이였다.

발해에 사도 등 제후적존재가 있었다는것은 국가기구가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고있었으며 군주는 황제였고 그밑에 제후적존재인 작은 왕들이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시기의 사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

다음으로 발해에서 실시된 봉작제도에 대하여 본다면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그러한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자료들은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중세기 동방나라들에서 봉작제도는 나라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였지만 대체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5등급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발해에도 그러한 작위가 있었는데 그러한 실례를 몇개 들면 다음과 같다.

『속일본기』 권21 순인기 천평보자 2년(758) 9월 정해조에 "발해대사 보국대장군겸 장군 행 목저주자사 겸 병서소정 개국공 양승경이하 23명이(다

3) 『료사』 본기 태조 천현 원년 2월 병오.

모리를 따라) 래조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천평보자 6년(762) 10월 병오조에 "그 나라(발해인용자) 사신 자수대부 행 정당좌윤 개국남 왕신복이하 23명이 (일본사신을) 따라 래조하였다" 는 기사가 있으며 같은책 권34 광인기 보구 7년(776) 12월 을사조에 "발해국이 헌가대부 사빈소령 개국남 사도몽 등 187명을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밖에도 759년에 일본에 간 발해사신 고남신(개국공), 798년에 일본에 간 발해사신 대창태(개국자), 926년에 발해멸망직후 고려에 온 박어(개국남) 등도 모두 작호를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발해의 작호제도전체를 전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발해에 작호제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런데 봉작제도는 황제국가에서만 실시되는것으로서 발해에 작호제도가 존재하였다는것은 발해국이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발해는 황제국가였기때문에 작호제도를 실시하였을뿐 아니라 황제들만이 쓸수 있는 년호까지 사용하였던것이다.

년호는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즉위하면서 붙이는 년대적인 칭호로서 황제만이 '건원칭제'할수 있고 제후는 황제의 년호를 사용하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년호문제는 최고통치자의 지위와 나라의 독자성문제와도 관계되여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에서는 인안(仁安), 대흥(大興), 중흥(中興), 정력(正曆), 영덕(永德), 주작(朱雀), 태시(太始), 건흥(建興), 함화(咸和) 등 년호가 제정사용되였다.

『신당서』에 나타난 발해의 년호는 10개뿐이지만 아마도 발해의 임금 15명이 모두 재위년간에 년호를 사용하였으리라고 보아진다.

실학자 정학용은 이에 대하여 『발해속오』에서 "생각컨대 무왕이 '인왕'으로 년호를 고친것은 바로 선대임금인 고왕이 년호를 썼기때문이다"라고 하여 발해의 임금들이 처음부터 년호를 사용한것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협계태씨족보』에서는 대조영이 698년에 발해를 세우고 황제국가의 지위에 어울리게 '천통'이라는 년호를 제정하였다고 전하였다. '천통'이란 말 그대로 '하늘의 혈통'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는 년호인 것이다.

이처럼 발해에서 년호가 계속 사용되어왔다는것은 발해국이 황제국가의 체제를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발해의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 있었다는것은 또한 그들이 황제적 지위에 상응한 정연한 관료기구를 수립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발해는 당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식의 3성 6부와 여러 중앙관청을 정연하게 갖추어놓고있었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등의 3성은 천자를 보좌하여 전국을 통치하는 최고의 기구였으며 충부, 인부, 의부, 지부, 례부, 신부 등 6부는 국가의 기본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본부서들이였다.

발해의 3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하는 『신당서』 발해전은 그 기능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 책에는 다만 해당 관청의 소속관리들의 관직명만 실려있다. 그러므로 관청명과 관직이름을 통하여 그 소속 관청들의 기능을 짐작할수 있을뿐이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정당성(政堂省)에는 대내상, 좌사정(우사정), 좌윤, 우윤이 배치되여있었고 선조성(宣詔省)에는 좌상, 좌평장사, 시중, 좌상시, 간의가 중대성(中臺省)에는 우상, 우평장사, 내사, 조고, 사인이 배치되여있었다.

『신당서』에서 정당성의 좌, 우사정이 당나라의 최고통치기구인 상서도

성의 종2품직 좌복야, 우복야와 비길수 있다고 한것으로 보아 정당성이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었던 당나라의 상서성과 지위나 기능상에서 서로 대등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의 정당성은 당나라의 상서도성과 같이 행정6부를 통제장악하는 최고판청이였다.

선조성과 중대성의 기능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것이 없지만 그 명칭과 대외관계사를 통하여 볼 때 선조성은 왕의 명령지시를 아래에 선포하거나 전달하는 판청이였으며 중대성은 왕의 명령지시초안과 공문서를 작성하는 판청이였다.

특히 선조성은 황제만이 쓸수 있는 조서를 반포하는 뜻을 직접 판청의 이름으로 하였다. 이것은 발해의 3성이 황제국가인 당나라의 3성과 마찬가지로 전국인민을 통치하는 자기나라의 통치기구에서 최고의 기구라는것을 말해주며 동시에 관료편제상으로 보나 지위와 기능상으로 보나 명백히 황제급의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권력기구라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성밑에 좌6사로서 충, 인, 의 부와 그 지사 3개가 있었고 우6사로서 지, 례, 신 부와 그 지사 3개가 있었다. 발해의 6부는 '충성'을 다한다는 충(忠)자와 5상(常) 또 5법(法), 5행(行)의 뜻을 가진 인의례지신의 5개의 글자로 판청이름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직능을 직접 표시하여 리, 호, 례, 병, 형, 공 부로 나는것과는 구별되는 발해의 독특한 판청이름제정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이름부터 독특하게 제정된 발해의 최고통치기구들인 3성 6부는 황제국가의 틀거리에 따라 제정된것이였다.

발해국가에서는 3성 6부밖에 그 아래에 1대, 7시, 1원, 1감, 1국의 정연한 중앙판청기구들이 설치되여있었다.

또한 발해의 '천자'는 5경 15부 62주와 그 밑에 100여개 현을 통해 전국의 말단까지 자기의 통치를 일관시켰다.

발해의 주권자는 또한 당나라의 궁성수비군인 금군과 대등한 좌우신책군, 좌우3군을 두었다.

대이진왕때인 832년에 발해에 왔다간 당나라사신 왕종우는 발해에 좌우신책군, 좌우3군 120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4]

'좌우신책군, 좌우3군'은 '황제국가'를 칭하던 당나라에서 궁성을 수비하고 황제를 호위하던 금군의 명칭, 부대수와 같은것이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발해왕이 자신을 이웃나라의 '성인' 천자들과 같은 지위에 놓고 자신을 '천손'이라고 하면서 '황상', 황제 등의 호칭을 쓴 사실 그리고 발해의 주권자가 황제국과 같은 정연한 국가관료기구체계를 세운 사실은 발해의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최고주권자가 황제의 지위에 있던 발해는 당당한 독립국가, 주권국가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4) 『구당서』 권17 문종기 태화 6년 12월 무진.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

림호성 (력사연구소 발해사연구실 연구사)

조선 중세력사의 한 시기를 빛내이고 동방중세사에 두렷한 자취를 남긴 해동성국－발해가 세워진 때로부터 천수백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다.

오늘의 조선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 원동남부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동방의 륭성하는 나라로 시대의 각광을 받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은 력사의 풍진에 묻히고 검푸른 이끼밑에 잠들어있다.

무너진 성벽, 도자기단편을 비롯하여 오늘날 볼수 있는것은 과거의 잔해뿐이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번영하던 그날의 숨결을 느끼며 제모습을 돌려주고싶은 것이 모두의 심정이리라고 생각한다.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2백수십년간 존재하면서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친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해와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제기되여 론쟁이 계속되고있다. 그것은 발해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자체의 력사기록을 남기지 못하였고 많은 경우 력대 이웃 나라들에서 편찬된 력사 문헌들의 엇갈린 기록에 의거하여 연구가 진행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여러 론제들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발해건국자의 출신 및 주민구성문제와 발해의 주권적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발해건국자의 출신 및 주민구성문제를 취급함으로써 발해의 기본주민이 고구려유민이였다는데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기본주민이라고 할 때는 아마도 그 사회를 주도해나간 주민, 민족이라고 보아 크게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해사연구에서 기본주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된것은 발해가 다민족, 다종족국가였고 기본주민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오늘날 어느 민족사에서 취급하여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기때문이다.

발해의 기본주민과 관련하여 제기된 견해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고구려유민'이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말갈' 더 정확히는 '속말말갈인'이라는것이다.

'속말말갈'설은 『신당서』 권219 발해전에서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 고려(고구려-인용자)에 붙은것인데 성은 대씨이다." 라고 한데로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아래에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까밝히려고 한다.

발해의 기본주민이 고구려유민이였다는 것은 첫째로, 발해의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유민출신이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고대, 중세 국가들인 경우 그것이 어느 민족 또는 종족국가인가 하는것

은 대체로 그 국가를 세운 최고통치자가 어느 족속갈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였다. 때문에 최고통치자의 종족 및 민족적소속을 밝히는 것은 그 국가의 연원을해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려유민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발해건국경위를 통하여확인할수 있다.

발해의 건국경위에 대하여『구당서』권199 발해전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 발해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려별종이다. 고려(고구려-인용자)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족을 데리고 영주에 옮겨가 살았다. 만세통천년(696-인용자) 거란 리진충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영은 말갈 걸사비우와 각각 망명자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나 험한곳을 보존하여 스스로 굳건히 하였다. 진충이 이미 죽자 무측천은 우옥검위대장군 리해고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여당을 '토벌'하게 하였다. 먼저 걸사비우를 격파하여 죽이고 또 천문령을 넘어 조영에게 육박하였다. 조영은 고려, 말갈의 부대를 합쳐가지고 해고에게 항거하였다. 당나라군이 대패하여 해고는 몸을 빼여 달아났다. 거란과 해가 다 돌궐에 투항하여 도로가 막히고 끊기워 무측천은 '토벌'할수 없었다. 조영은 드디여 그 부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의 옛땅을 보전하였다. 동모산에 의거하여 성을 쌓고 거처하였다. 조영이 날래고 용감하며 용병에 능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려의 남은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돌아왔다. 성력중(698. 1~700. 6-인용자) 스스로 서서 진국왕이 되였다.

우의 기록에 의거하여 발해의 건국경위를 보면 대조영은 '고려별종'으로서 영주에서 폭동이 일어난후 말갈추장 걸사비우와 함께 각자 자기의 망명자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진군하여 계루의 옛땅을 보전하였다는것, 다시말하여 처음에 고구려유민폭동군과 말갈인부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였

으며 후에 계루 즉 고구려의 옛땅에 웅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만약 대조영이 말갈인이였다면 그는 고구려유민부대가 아니라 말갈인부대를 지휘하였을것이다.

더욱이 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대조영이 '계루의 옛땅'을 보전하였다고 한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계루'라는것은 본래 고구려국왕의 출신부명으로서[1] 고구려를 상징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여왔다. 고구려의 땅을 '계루의 땅'으로, 고구려의 옛땅을 '계루의 옛땅' 등으로 표현한 실례는 당대의 력사자료들에서 수많이 찾아볼수 있다. 대조영이 여기에 자기의 웅거지를 정한 것은 그가 고구려계통의 인물로서 자기의 출신을 명백히 하려고 한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지어 그는 자기의 계승자인 태자 대무에에게 '계루군왕'의 봉호를 수여하였다.[2] 여기서 '계루군왕'의 '계루'는 고구려를 상징하는 뜻으로 씌여진것으로서 '계루군왕'은 곧 '고구려군왕'이라고 한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다.

이처럼 대조영이 '계루의 옛땅'을 건국의 터전으로 정하고 태자에게 '계루군왕'을 책봉한것은 자신을 고구려계통의 인물로, 고구려의 계승자로,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선포하려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가 속말말갈인이였다면 응당 든든한 지지기반을 얻을수 있는 '속말말갈의 옛땅'에 거처을 정하고 태자를 '속말군왕'으로 책봉하여야 하였을것이다. 그런즉 대조영을 '속말말갈인'이라고 한것은 부정확한 기록이라는것을 알

1) 『삼국지』 위서 권30 고구려전.

2) "발해국왕 무에는 본래 고려(고구려-인용자)의 별종이다. 그의 아버지 조영이 동족에서 계루의 땅을 차지하고 새 나라를 세워 자신이 그 나라 진국(발해-인용자)의 왕이 되고 무에는 계루군왕으로 삼았다" (『책부원귀』 권1000 외신부, 수원조)

수 있다.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계통의 사람이였다는것은 또한 건국자의 후손들인 후대왕들의 고구려계승의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대조영의 아들인 2대 무왕 대무에는 727년에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보낸 국서에서 "고려(고구려-인용자)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지니였다."[3]고 밝히였다.

만일 이때 발해왕이 말갈인이였다면 그는 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하였다고 쓸것이 아니라 응당 자기네 말갈인들이 옛 고구려땅을 차지하고 발해국을 세웠다고 썼을것이다.

국서에 보인는 "부여의 유속을 지니였다"는 표현은 더욱 의심심장한것이다. '부여의 유속'을 풀어말하면 '부여의 전통적인 풍습'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건국자와 그가 의거한 기본세력이 부여계통의 사람들이였다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신당서』 권219 발해전에서 대조영을 속말인으로 밝히였는데 그의 출신지인 속말수류역이 송화강기슭으로서 부여인의 땅이였다는것은 문헌 및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건국자-왕실집단이 부여계통이라면 이 부여족은 단군민족의 후손이며 고구려의 건국자 고주몽도 다름아닌 부여출신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서 언어와 여러가지 일이 대체로 부여와 같다."고 하였다. 민족의 공통성을 특징짓는 징표의 하나인 언어가 같은 한 겨레로서 부여는 고구려의 적극적인 국토통합정책에 의하여 5세기말경에 그에 완전히 포섭되였으며 고구려라는 하나의 국가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였다.

3) 『속일본기』 권10 성무기 신구 5년 1월 갑인.

만일 건국자-왕실집단이 말갈계통의 인물이였다면 그들은 마땅히 '부여의 유속'이 아니라 '말갈의 유속'을 이어받았다고 밝혔을 것이다.

무왕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며 3대왕인 문왕 대흠무는 758년에 일본에 보낸 사신을 통하여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밝히였고[4] 이후에도 여러차례 '고려국왕'을 자칭하였다. 이러한 사실자료를 전하면서 17세기중엽부터 20세기초사이에 걸쳐 편찬이 완료되였다고 하는 『대일본사』에서는 "생각건대 이전에는 모두 발해라고 칭하였는데 이때(758년-인용자)에 이르러 고려라고 칭하였다. 대체로 흠무는 한때 옛 이름(고려-인용자)을 칭했던 것 같다."[5]고 주석하였다.

발해국왕이 자기를 '고려국왕'이라고 한것은 자기 왕조의 고구려계승성을 강조하려고 한것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발해의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계통의 주민이였다는것은 또한 그들의 단군의 자손의식, '천손'의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조영은 자기를 단군의 자손으로 간주하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직접 『단군봉장기년』을 지었고 동생인 검교태위 반안군왕 대아발로 하여금 그 서문을 짓게 하였다고 한다.[6] 또 대아발은 임금이며 형인 대조영의 지시에 따라 『단기고사』를 편찬했다고 한다. 이것은 발해건국자가 자기를 단군의 자손으로 여기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시조 동명왕도 자기를 단군의 자손으로 여기고있었는데[7] 이것은 발해가 단군을 원시조로 받들고있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

4) 『속일본기』 권22 순인기 천평보자3년 1월 경오.
5) 『대일본사』 권238 렬전165 제번7 발해 상.
6) 『협계태씨족보』 선조세계 2세 아발.

771년에 일본에 간 발해의 사신 일만복일행이 일본임금에게 전한 국서에는 '천손고려국왕대흠무'라고 밝혀져있다.[8]

'천제(하느님)의 자손'에 관한 의식은 고구려왕실과 그 귀족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로서 오랜 세월 전해내려오는것으로서 광개토왕릉비와 모두루묘지명, 『삼국사기』 동명왕본기 등에 잘 나타나있다. 고구려 왕은 자기를 '천제의 아들'로 자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해임금이 자기를 '천손'-'천제의 손자'로 표현한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아들' 국가, 후계국가임을 밝힌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발해의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유민이였다는것은 또한 력대 국내외 사가들이 인정하고있었다.

력대 우리 나라사람들속에서는 발해를 동족의 국가로 간주하고있었다. 발해국존립시기에 생존한 후기신라의 관료, 학자 최치원(857~?)은 당나라의 태사시중에게 보낸 글에서 "의봉3년(678년-인용자)에 이르러……고구려의 남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북쪽으로 태백산아래에 의거하여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9]고 하였다.

역시 발해국존립시기에 생존한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당나라에 끌려가 죽은 고구려 마지막왕 보장왕의 손자 고진의 묘지명에는 그가 '발해인'이였다고 씌여져있다. 이것은 이국에서 살던 고구려유민들도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유사』 권1 말갈발해조에 인용된 『신라고기』에서도 "고려(고구려)의

7) 『삼국유사』 권1 왕력1 동명왕.
8) 『속일본기』 권32 광인기 보구2년.
9) 『삼국사기』 권46 최치원전.

옛 장수 조영은 성이 대씨인데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고 밝히고있다.

발해멸망후 나온 여러 민족고전들에서도 발해를 동족의 국가로, 그 창시자를 고구려계통인물로 밝히고있다. 『제왕운기』 권 하에서는 발해를 고조선－삼국－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 취급하면서 "이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이 태백산남성에 의거하여 측천무후 원년 갑신(신라가 고려를 멸망시킨 17년이다)에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하였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고려사』 권1 세가에서도 발해의 건국자는 '고구려사람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력대 외국의 사가들도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유민이고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고있다. 발해멸망후 19년후인 945년에 편찬된 『구당서』 (권199) 발해전에서는 "대조영은 본래 고려(고구려－인용자)의 별종이다"고 전하고있다. 『구당서』에는 '별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족속, 완전히 친연관계에 있는 종족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례컨대 "고려(고구려－인용자)는 부여에서 나온 별종이다."(같은책, 고려전), "일본은 왜국의 별종이다."(같은 책, 일본국전) 등이 그러하다. 고려와 부여, 일본과 왜국이 서로 같은 갈래의 주민집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밖의 외국렬전들에 실린 남만, 서남이, 북적 등의 '별종'들도 모두 같은 의미에서 쓰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라고 한 표현은 '본래 고려와 같은 갈래의 주민'이라는 뜻으로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구당서』가 편찬된 이후에 나온 중국의 주요 력사책들인 『당회요』(961), 『오대회요』(961년전후), 『구오대사』(973), 『태평환우기』(976~983), 『책부원귀』(1013), 『신오대사』(1060년전후), 『무경총요』(1060전후), 『자치통감』

(1084), 『선화봉사고려도경』(1123), 『송사』(1345), 『료사』(1344), 『송회요』(원대) 등에서도 대조영을 '본래 고려의 별종', '부여의 별종' 등으로 밝히고있다. 특히 『선화봉사고려도경』권1 건국시봉조에서는 발해를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취급하고있다.

발해국존립당시의 일본인들과 일본의 력대 판변기록들도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국왕들은 발해국왕들이 자기를 '고려국왕'이라고 밝혀 국서를 보내오면 회답서에서 역시 '고려국왕'이라고 표현하였다. 발해와의 외교관계사료를 많이 담고있는 『속일본기』에는 발해를 '옛 고려국', '고려국', 발해사신을 '고려사'라고 표현한 례가 많이 보인다.

이처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그 건국자가 고구려계통의 인물이였다는데 대해서는 력대 국내외의 이름있는 사가들과 인물들, 국가판리들이 모두 인정하고있었다.

발해의 기본주민이 고구려유민이였다는것은 둘째로, 발해의 정치적 지배권을 고구려유민들이 장악하고있었고 인구상에서도 그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우선 발해의 정치적지배권이 고구려유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는데 대하여 보기로 한다.

발해정계에서 권력을 잡고있는 족은 고구려유민들이였다. 옛 기록인 『송막기문』(권 상)에 의하면 발해에서 가장 큰 귀족성씨는 '고, 장, 양, 두, 오, 리'씨라고 하였는데 이 성씨들의 태반이 고구려의 귀족성씨였다는데 대해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고증되였다.

『발해국지장편』 세기, 종신렬전, 유예렬전, 보유 종신렬전 및 제신렬전, 유예렬전 등에 실려있는 인물들과 정혜, 정효 두 공주 『함화4년명비상』의 명문에 실려있는 조문휴과 그의 어머니 리씨, 최치원의 글가운데 있는 대봉

에, 장건장의 묘비에 올라있는 하수겸 등 발해인물 6명을 포함하여 각 성씨의 비를을 보면 표와 같다.

〈기록에 보이는 발해성씨일람표〉

No	성씨	발해인 (%)	발해유민 (%)	No	성씨	발해인 (%)	발해유민 (%)
1	대씨	67* (33.33)	42** (30.88)	16	배씨	2 (0.99)	–
2	고씨	33 (16.41)	23 (16.9)	17	주씨	1 (0.49)	–
3	티씨	14 (6.9)	5 (3.69)	18	해씨	1 (0.49)	–
4	양씨	8 (3.9)	1 (0.73)	19	류(劉)씨	1 (0.49)	1 (0.73)
5	왕씨	8 (3.9)	14 (10.29)	20	진(陳)씨	1 (0.49)	–
6	장씨	2 (0.99)	10 (7.35)	21	위(衛)씨	1 (0.49)	–
7	오씨	7 (3.4)	5 (3.69)	22	려(몸)씨	1 (0.49)	–
8	하*** (賀)씨	4 (1.99)	–	23	김씨	–	1 (0.73)
9	마씨	2 (0.99)	–	24	은(隱)씨	–	1 (0.73)
10	최씨	2 (0.99)	–	25	홍씨	–	1 (0.73)
11	임씨	1 (0.49)	–	26	렬씨	–	1 (0.73)
12	안씨	2 (0.99)	–	27	라씨	–	1 (0.73)
13	조씨	2 (0.99)	–	28	하(夏)씨	–	1 (0.73)
14	문씨	1 (0.49)	1 (0.73)	29	곽씨	–	2 (1.47)
15	박씨	1 (0.49)	1 (0.73)	30	미상성명	39 (19.4)	25 (18.38)
					합계	201	136

*) 15명의 왕을 포함한 수자임.

**) 거란임금의 비로 된 발해대씨녀인 8명을 포함한 수자임.

***) 『송막기문』에 있는 큰 성씨 '고, 장, 양, 두, 오, 리' 가운데 두씨가 현재까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혹시 하(賀)씨의 오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우의 표에서 보다싶이 발해왕성인 대씨를 제외하고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 고씨와 리씨, 왕씨, 양씨, 오씨, 장씨, 하씨 등이다. 이 성씨들은 고구려관계기록들에 보이는것으로서 『송막기문』의 기록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이 기록에 남아 전해지는 발해인 201명가운데서 76명으로서 37.8%를 차지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 고씨는 16.41%로서 제일 비률이 높다.

발해유민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씨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은 고씨, 리씨, 왕씨, 장씨, 오씨인데 기록에 남은 유민 136명가운데서 57명으로서 41.9%를 차지한다. 그가운데서도 고씨가 차지하는 비률은 16.9%로서 가장 높다.

이상의 사실은 발해의 정계에서 고구려계통의 귀족출신들과 그 후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발해멸망후에도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영향력이 여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발해존립시기나 멸망후에도 고구려왕성인 고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던것은 그들이 발해의 형성과 발전에서 무시할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발해에서 고구려계통의 일반주민들도 그 사회적지위가 말갈인들보다 높았다. 일본 기록인 『류취국사』에는 그에 대해 전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발해국에는) 주, 현, 관역이 없으며 곳곳에 촌, 리가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토인(고구려인)은 적다. 모두 토인으로

서 촌장을 삼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고 하고 다음은 자사라고 하며 그 아래는 백성들이 다 두령이라고 한다. 땅이 매우 춥고 논농사에 적합지 않으며 풍속에 자못 글을 안다.[10]

이 기록에서 주, 현과관, 역이 없다고 한것은 전혀 맞지 않는것이다. 『신당서』 권219 발해전에는 발해의 지방통치제도로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기재되여있고 주밑에 현이 있었다는것도 여러 기록들에 보인다.

또한 『삼국사기』 권37에서는 가탐의 『고금군국지』를 리용하여 "발해국 남해, 압록, 부여, 책성 4부는 다 고구려옛땅이다. 신라 정천군으로부터 책성까지 무릇 39개 역이 있다."고 전하고있다. 그런즉 발해에 주, 현, 관, 역이 없다고 한 기록은 그것이 정연하게 갖추어져있지않던 발해 변방의 주민구성실태를 반영한것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계통사람들과 말갈인들의 사회적지위를 밝힌 부분은 중국측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것으로서 소중한 자료라고 할수있다.

기록에서 보다싶이 지방의 모든 장관직들도 고구려계통사람들이 장악하고있었으며 벼슬하지 않는 일반주민들도 말갈인들로부터 '두령'이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말갈인들이 고구려계통주민들의 통제의 대상으로 되여있었고 사회적으로 부차적인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만약 발해가 말갈인들에 의해 세워지고 그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우와 같은 일이 있을수 있겠는가.

말갈인들이 통제의 대상으로 되고 부차적인 지위에 있었다는것은 '압말

10) 『류취국사』 권193 수속 발해 환무기 연력15년 4월 무자.

갈사'[11]라는 벼슬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792년에 당나라에 간 발해사신 양길복의 벼슬이 '압말갈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말갈인들을 통제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발해통치층이 말갈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자기와 같은 족속들을 통제하는 벼슬까지 내오겠는가. 이것은 발해사회의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은것은 고구려계통의 주민들이였고 말갈인들은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발해의 주민구성에서 고구려유민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었다는데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구려가 자기 존재를 끝마칠 당시 고구려 호구는 69만 7,000호[12]였는데 호당 5명씩으로 환산하면 인구는 근 350만명이 된다. 이가운데 3만 8,300호(근 20만)는 당나라로 끌려갔다고 보고 돌궐과 말갈로 간 사람들[13], 신라, 일본 등지로 간 사람들을 포함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제 고장에 눌러앉아있었을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강점한 직후 투항하지 않은 성이 11개[14]였다고 한다. 또한 '이미 투항한 11개성'이라는것도 고구려말기에 반역자 연남생의 편에 섰던 성들을 모두 항복한 듯이 꾸며 기록에 올린것이고 실제로 당나라에 투항한 것은 그중 몇 개성밖에 없었다고 말할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고구려-당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 일단 함락되였던 성가운데 일부는 후에 고구려군이 다시 탈환하여 '항복하지 않은 성' 부류에 들어가있

11) 『당회요』 권96 발해전.
12) 『구당서』 권39 지리지.
13)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14) 『삼국사기』 권37 지리지.

다는 사실이다.[15] 이러한 성들에 남아있던 고구려유민들의 수는 수십만명에 달하였을것이다. 그리고 당나라에 '투항'하였거나 강점당하였던 성들가운데서도 발해건국후 인차 그에 포섭된 성들이 적지 않다. 례컨대 758년에 일본에 갔던 사신단성원인 양태사는 '목저주자사'[16]였는데 '목저주'는 이미 '항복한 성'에 들어있던 성이였다. 이렇게 당나라에 '항복'하였다가 발해에 들어간 성들에도 많은 고구려계통주민들이 남아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해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사실을 전한 기록들에는 대조영의 휘하에 있던 고구려인, 말갈인만도 '40만명'[17], '40여만호'[18]였다고 씌여져있다. 그리고 발해의 건국소식을 듣고 고구려사람들이 점차 발해에 모여들었다고 하니[19] 고구려유민의 수가 더욱 늘어났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이상의 사실자료들로 미루어보아 건국전후한 시기 남아있던 고구려유민의 수는 100만은 더 되였을것이다.

이에 비하면 말갈인수는 매우 적었다. 『수서』 권81 말갈전에 의하면 말갈족은 크게 '7부'가 있는데 '률미부, 백돌부, 안차골부, 불열부, 호실부, 흑수부, 백산부'라고 하였다. 이가운데 일부 부는 말갈부족으로 볼수 없다. 설사 그 '7부'를 모두 말갈부족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수는 15만~20만명정도이라고 통계되고있다.[20]

고구려의 멸망은 결코 고구려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끼친것이 아니였다.

15) 1997,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50~251, 262~264쪽
16) 『속일본기』 권21 순인기 천평보자2년 9월 정해.
17) 『신오대사』 권74 발해.
18) 『오대회요』 권30 발해.
19) 『구당서』 권199 발해전.

그의 지배하에 있던 말갈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백돌(일돌), 안차골, 호실부 등 부족들은 달아나고 흩어져 미약해졌으며[20] 발해건국후 일부 말갈인들이 옛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22] 그 수는 역시 고구려유민수에 비할바가 못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발해에서 고구려계통주민들이 인구상으로도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건국자-왕실집단이 고구려유민이고 고구려계통사람들이 발해사회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주민수에서도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사실은 발해의 기본주민이 고구려유민이였고 발해는 바로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계승국이였음을 립증해주고있다.

20) 1989, 『쏘련 원동민족들의 사회제도(로문) 초록』 (울타지보스또크), 24쪽
21) 『구당서』 권199 발해전.
22) 우와 같은 책.

발해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와 고구려와의 계승관계

차달만 (고적발굴대 대장)

발해는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옛 고구려땅우에 세워진 나라였던것만큼 정치, 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 문화와 풍습의 면에서도 고구려의것을 계승발전시켰다.

발해가 고구려문화를 계승발전시킨 사실은 문화와 풍습의 특성을 뚜렷이 반영하는 무덤을 통해보아도 잘 알수 있다.

현시기 발해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발해무덤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발해무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지역적인 연구에 머물러있으며 그 계승성문제해명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동해안일대, 중국동북지방 등 발해의 령역에서 드러난 무덤자료에 기초하여 발해무덤과 고구려무덤과의 계승관

게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발해무덤과 고구려무덤사이의 계승관계는 첫째로, 무덤의 외부시설과 류형, 구조형식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무덤의 외부시설꾸밈을 보면 발해에는 무덤무지우에 기와를 씌우거나 집을 짓는 풍습이 있었다. 실례로 정혜공주무덤과 삼령둔무덤의 무덤무지우에는 잘 다듬은 주추돌과 기와쪼각이 널려있었는데 이것은 무덤우에 기와를 씌운 집을 지었다는것을 말해준다.[1]

또한 발해의 륙정산무덤떼와 룡두산무덤떼, 북대무덤떼의 일부 무덤들의 무지우에는 기와를 덮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흔적은 경신리1호무덤과 같은 고구려의 큰 돌칸흙무덤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발해에는 또한 무덤의 두리에 무덤구역시설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삼령둔무덤과 하남둔무덤을 들수 있는데 삼령둔무덤의 두리에는 동서길이 123m, 남북길이 121m, 높이 약 1m정도의 크기로 흙담을 네모나게 쌓아만든 무덤구역시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풀색유약을 바른 기와쪼각이 발견되였다.[2]

이것으로 보아 이곳에 여러채의 화려한 건물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왕릉과 동명왕릉을 비롯한 고구려의 왕릉급무덤들에서도 볼수 있다.

발해에는 정혜공주무덤과 정효공주무덤에서와 같이 무덤안길앞에 무덤길을 내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안악3호무덤과 수산리벽화무덤을 비

1)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84쪽.
2)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66쪽.

롯한 고구려의 큰 돌칸흙무덤들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다.[3]

다음으로 발해의 무덤류형을 보면 돌칸흙무덤과 돌각담무덤, 돌곽흙무덤, 돌관무덤 그리고 움무덤과 벽돌-돌무덤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돌칸흙무덤과 돌각담무덤, 돌곽흙무덤이다. 이러한 형식의 무덤들이 고구려에서 널리 쓰인 무덤들이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당나라의 무덤형식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벽돌무덤이나 토갱무덤과 같은것이였다.

발해무덤과 고구려무덤은 구조형식에서도 뚜렷한 계승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무덤구조형식에서의 계승성은 우선 무덤칸의 평면구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발해무덤에서는 주검칸과 안길 혹은 주검칸에 안길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문시설을 한 방형 및 장방형의 평면구조를 가진 횡혈식무덤과 함께 안길이나 문시설이 없는 수혈식무덤이 존재하였다.

횡혈식무덤의 전형적인 실례는 돌칸흙무덤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발해돌칸흙무덤에서는 일반적으로 방형 및 장방형의 주검칸과 그 남쪽에 낸 안길로 이루어진 무덤칸평면구성을 흔히 볼수 있다. 금성리벽화무덤과 연차골1호무덤, 회령시 영수리 '장군무덤', 정혜공주무덤, 삼령둔무덤 등이 그 실례로 되는데 이 무덤들은 모두 주검칸과 안길의 평면구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무덤평면구조형식은 당나라에서 널리 쓴 우물식으로 구뎅이를

3) 『흑룡강문물총간』(중문) 1984년 2기, 4~14쪽.

깊이 파내려간 토갱묘나 무덤칸안에 껴묻거리칸을 따로 만들거나 안길이 없이 수혈식으로 만든 벽돌무덤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안길이 달린 횡혈식의 돌칸흙무덤은 발해에서 비로소 생겨난것이 아니라 선행한 고구려에서 광범히 류행되였던 무덤형식이다. 강서큰무덤과 내리1호무덤, 동명왕릉과 호남리사신무덤, 경신리1호무덤과 통구사신무덤 등은 발해와 고구려돌칸흙무덤의 계승관계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횡혈식의 이러한 평면구성은 돌각담무덤에서도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도현 동청2호, 8호무덤을 들수 있다.

안도현 동청8호무덤의 무덤칸은 평면생김새가 방형으로서 돌깨기단의 중심부분에 마련되여있다. 그리고 무덤칸의 남쪽벽에는 1m 남짓한 길이의 돌기둥 2개를 세워 문시설로 하였다.

바로 이러한 구조형식의 무덤은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33호무덤,[4] 고력묘자촌1호무덤[5]과 같은 고구려의 돌각담무덤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수혈식돌각담무덤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문리1호무덤을 들수 있는데 이 무덤은 자갈돌들을 쌓아만든 기단우에 장방형의 돌곽을 만들고 장자갈로 무지를 만든 무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수혈식의 돌각담무덤들은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73호, 75호, 78호무덤과 로남리 108호, 112호무덤들을 비롯한 고구려의 돌각담무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6]

금호지구 속후리2호무덤을 비롯하여 발해의 돌곽흙무덤들은 장방형의 무덤구뎅이를 파고 벽을 판돌 혹은 막돌로 쌓아올린 다음 흙을 씌워 만든 무

4) 1983, 『압록강, 장자강류역 고구려유적발굴보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3~85쪽.

5) 『고고』(중문) 1960년 제1기, 8쪽.

덤인데 이러한 형식의 고구려돌곽흙무덤으로서는 대표적으로 평안남도 운산군 남옥리1호무덤을 들수 있다.

무덤구조형식에서의 계승성은 또한 무덤칸의 축조방법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발해무덤들의 무덤칸은 대체로 판돌이나 잘 다듬은 돌 혹은 막돌이나 강돌로 축조되었다. 발해의 정혜공주무덤과 진릉, 삼령둔무덤과 같이 왕이나 왕실귀족의 무덤축조에는 잘 가공한 판돌이나 벽돌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고 일반관리나 평민들의 무덤축조에는 막돌이나 강돌을 리용하였다. 그리고 왕이나 상층귀족들이 묻힌 규모가 큰 무덤들의 무덤칸벽에는 회미장을 하였거나 회를 바른 벽우에 벽화를 그려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동명왕릉과 룡강큰무덤, 련꽃무덤과 같은 왕릉급의 무덤을 비롯하여 많은 무덤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무덤구조형식에서의 계승성은 또한 무덤칸천정형식에도 반영되여있다.

발해의 무덤천정형식은 그 축조방식에 따라 평행3각고임천정, 3각고임천정, 꺾음천정, 궁륭천정, 평천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천정형식은 고구려무덤의 천정형식과 같다. 정혜공주무덤이나 화룡 장인큰무덤과 같은 평행3각고임천정은 고구려의 강서큰무덤이나 내리1호무덤에서 볼수 있으며 릉산동4호, 5호무덤과 북대1호무덤, 회령시 영수리 '장군무덤'의 3각고임천정은 고구려의 집안 로호초4호무덤,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150호무덤에서 볼수 있고 삼령둔무덤의 꺾음천정은 고구려의 동명왕릉, 집안의 꺾음천정무덤과 같다.

그리고 연차골1호, 12호무덤과 화대군 주의리 송정동1호무덤의 궁륭천정은 집안의 만보정1368호무덤과 씨름무덤에서 볼수 있으며 륙정산 215호, 북대34호, 평리568호무덤의 평천정형식은 고구려의 칠성산234호무덤과

승호구역 금옥리18호무덤에서 볼수 있다.[7]

무덤구조형식에서의 계승성은 무덤칸의 개수에도 반영되여있다.

발해무덤의 대부분은 외칸무덤이지만 쌍칸무덤도 있다. 고구려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인 무덤형식은 외칸무덤이였으며 그밖에 갑 또는 곁칸이 있는 무덤, 쌍칸무덤, 두칸무덤, 여러칸무덤도 있었다. 그러므로 발해의 무덤형식에서 외칸무덤은 말할것도 없고 대주둔쌍칸무덤과 부거36호무덤 등의 쌍칸무덤, 해림현 이도하자의 세칸무덤도 마선구1437호, 1440호무덤, 로남리 남파동80호무덤, 세칸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의 무덤들과 뚜렷한 계승성을 보여주고있다.[8]

이와 같이 발해무덤들의 무덤칸평면구성과 축조방법, 천정형식, 무덤칸의 개수 등 구조형식은 고구려의 무덤구조형식과 같다.

발해무덤과 고구려무덤사이의 계승관계는 둘째로, 매장풍습과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매장풍습에는 홀로묻기와 부부합께묻기, 1차장과 2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구려매장풍습과의 계승관계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은 3년장과 같은 2차장풍습이다.

그것은 정혜공주무덤의 묘비문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 묘비문에는 정혜공주는 발해3대왕대흠무의 둘째딸로서 보력 4년(777) 4월 14일에 사망하여 그 3년후인 보력 7년(780) 11월24일에 진릉의 서원에 매장하였다고 씌

7)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150쪽.
1987, 『중국북방8성시고고론저휘편』(중문), 952~1257쪽.
8)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150쪽.
『북방문물』 (중문) 1987년 1호, 34~36쪽.

여있다. 이것을 통하여 발해의왕 및 왕실귀족들속에서 3년장이 성행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장법이 고구려에 널리 류행된 장법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북사』(고구려전), 『수서』(고려전) 등에 "죽은자는 집안에 두었다가 3년이 지나면 좋은 날을 골라서 장사지낸다"고 한 기록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무덤에서 나온 무기류, 마구류, 치레거리, 그릇류 등 유물에서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찾아볼수 있다.

우선 발해시기의 무덤들에서 나온 고리자루긴칼, 창끌, 활촉을 비롯한 무기류들은 고구려의것들과 뚜렷한 계승성을 보여준다.

고리자루긴칼은 연차골1호무덤에서 드러났는데 외날칼로서 자루부분에 네모진 반타원형의 고리가 붙어있다. 이러한 생김새의 칼은 고구려의 집안 상해방대대와 운평리4지구8호무덤에서 나온 칼과 형태상 공통하다.[9]

또한 안도현 동청1호무덤과 연차골1호무덤에서 드러난 주머니자루모양의 창끌도 집안일대의 고구려유적들과 풍청리33호무덤, 운평리4지구8호무덤에서 드러난 창끌과 생김새가 같다.[10]

발해무기무장의 발전정도는 활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활촉에는 세나래활촉, 도끼날형활촉, 끌형활촉, 독사대가리모양활촉, 좁은창날모양활촉 등의 각이한 형태의 활촉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촉들은 고구려에서 쓰이던 활촉들과 생김새가 매우 류사하다. 연차골12호무덤에서 드러난 세나래활촉은 고구려의 우산밑141호,

9) 1990, 『조선고고연구』 1호, 30~42쪽.
10) 1998, 『조선고고연구』 3호, 47쪽.

159호무덤에서 나온 활촉과 같고 연차골15호무덤에서 드러난 도끼날형활촉은 고구려의 통구17호무덤과 칠성산96호무덤, 산성밑322호무덤, 우산밑3296호무덤, 통구다섯무덤중의 4호무덤에서 드러난 활촉과 같다.[11]

또한 회령시 성북리돌곽무덤과 안도현 동청무덤떼의 1호 및 3호무덤에서 드러난 독사대가리모양의 활촉은 고구려의 동리무덤과 산성밑 3305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으며 연차골4호무덤에서 드러난 좁은창날모양의 활촉은 고구려의 집안 마선구1호무덤과 우산밑3296호무덤에서 나온 활촉과 생김새가 같다.[12]

유물에서의 계승성은 자갈, 등자, 행엽, 운주, 교차금구, 말띠고리 등 마구류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발해의 연차골1호무덤에서 드러난 판범추개로 된 자갈은 자강도 자성군 하구비돌칸흙무덤과 칠성산96무덤에서 나온 고구려의 자갈과 생김새가 공통하다.[13]

그리고 연차골1호, 2호, 13호, 15호무덤에서 나온 등자는 타원형의 발을 넣는 부분에 길죽한 드림띠가 붙어있고 발을 디디는 부분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개의 꼭지를 돋친것인데 이러한 생김새의것들은 고구려의 무덤들인 평성시 지경동무덤과 집안의 만보정78호, 칠성산96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다.

또한 연차골15호무덤에서 나온 행엽은 살구잎사귀모양으로 생겼으며 가

11) 1998, 『조선고고연구』 3호, 47쪽.
『고고』 (중문) 1977년 2기, 50쪽.
12) 1984, 『집안현문물지(중문)』 (길림성문물지편찬위원회), 215~217쪽.
13) 1998, 『조선고고연구』 3호, 47쪽.

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테두리를 조성한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행업은 고구려 칠성산96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다.

연차골12호무덤에서 나온 운주도 만보정78호무덤과 마선구1호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의 운주와 형태가 같다. 다만 보요가 있고 없는데서 차이날뿐이다.

그리고 연차골무덤떼에서 드러난 말띠고리, 4가닥과 6가닥의 고들개고차금구 역시 고구려의 무덤인 칠성산96호무덤에서 드러난 그것과 형태상 공통한것이다.

발해의 무덤에서 나온 치레거리로서 고구려의 유물과 공통성을 잘 보여주는것은 금귀걸이다. 창덕3호무덤에서 드러난 금귀걸이는 고리와 중간고리, 련결고리, 드림장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남포시 룡강군 룡흥리7호무덤,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3호무덤에서 드러난 고구려의 금귀걸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러한 계승성은 무덤에서 드러난 버치, 단지, 바리와 같은 그릇큐에서도 나타난다. 릉산동4호돌칸흙무덤에서 나온 버치는 밑굽이 납작하고 그릇벽이 우로 올라가면서 버러진 형태인데 이러한 생김새의 버치는 고구려정릉사터에서 나온것과 같다. 궁심13호돌칸흙무덤에서 나온 아구리가 오무라든 단지는 고구려의 칠성산96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으며 부거리29호돌곽흙무덤에서 나온 바리는 고구려의 정릉사터에서 나온것과 같다. 또한 평리21호, 24호돌칸흙무덤에서 나온 납작한 접시도 정릉사터에서 나온것과 생김새가 같다.

발해무덤과 고구려무덤사이의 계승관계는 셋째로, 발해의 무덤건축에 고구려자가 도입된 사실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발해사람들은 궁전이나 살림집, 절간 등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35

cm크기의 고구려자를 적용하였는데[4] 무덤건축에서도 같은 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자가 도입된 발해의 대표적인 무덤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무덤이름	실측치		고구려자에 의한 환산값		실측치와 환산값의 차	정밀도
				자	M		
1	정혜공주무덤	길이	2.7~2.8(평균2.8)	8	2.8	0	100.000
		너비	〃	8	2.8	0	100.000
2	삼령둔1호무덤	길이	3.9	11	3.85	+0.05	101.298
		너비	2.1	6	2.1	0	100.000
3	북대제1호무덤	길이	3.5	10	3.5	0	100.000
		너비	2.0	6	2.1	-0.1	99.422
4	정효공주무덤	길이	3.1	9	3.15	-0.05	101.298
		너비	2.1	6	2.1	0	100.000
5	하남둔무덤	길이	2.4	7	2.45	-0.05	101.298
		너비	1.4	4	1.4	0	100.000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발해무덤들의 크기를 고구려자로 환산한 값의 정밀도는 매우 높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벽돌무덤인 정효공주무덤에도 이 자가 큰 차이없이 들어맞는 사실이다.

14) 1971, 『고고민속론문집』 3권 (사회과학출판사), 149~160쪽.
1998. 7. 14, 『발해의 수도 상경룡천부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의 계승관계에 대하여』 (발해국창립 1300돐기념토론회에서 한 토론).

일부 학자들은 정효공주무덤축조에 벽돌을 사용한것을 놓고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론하고있는데 사실 이 무덤은 평면구조형식과 평행고임의 천정형식, 무덤천정에 돌을 쓴것, 무덤축조에 고구려자를 적용한것등 여러 측면에서 고구려적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발해의 무덤건축에 고구려의 단위자가 적용된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발해무덤은 무덤의 외부시설, 큰형, 구조형식, 매장풍습, 출토유물, 무덤건축에 도입된 자 등에서 고구려무덤과의 계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발해문화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킨 문화이며 발해국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의 령역확장과 그것을 통하여 본 고구려계승의식

채태형 (력사연구소 발해사연구실 실장)

발해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보인 기간은 20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만년 민족사에 섬광처럼 비껴간 그 순간은 깊고도 큰 여운을 남기였다.

발해는 698년부터 926년까지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자기의 판도로 차지하고 해동성국의 존재를 뚜렷이 과시한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그러나 외국학계의 일각에서는 발해가 '말갈인의 나라', 당나라의 '속국', '지방정권'이라는 견해가 계속 울려나오고있으며 발해가 고구려유민에 의하여 세워진 강력한 주권국가라는 주장에 첨예한 극을 형성하고있다.

필자 역시 발해사에 관심을 가지고 발해의 참모습을 찾아가던 과정에 그의 령역에 눈길이 미치게 되였다. 그것은 확실히 목적의식적인 령역확장의 산물이라는것이 알리였다.

필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발해의 부단한 령역확장이 분명히 고구려의 령역수복을 목적한것이였으며 그것은 바로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식의 발현이였다는데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본 토론에서는 첫째로, 발해의 부단한 령역확장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발해의 강역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령역을 통하여 고구려계승의식을 밝히는데 선결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내외의 일부 학자들속에서 발해의 강역을 부정확하게 그리고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조선반도 서북부와 료동반도 남단지역은 '안동도호부'의 관할지역으로서 마치도 당나라의 통제하에 있었던것으로 묘사하거나 흑수말갈을 발해의 령역에서 배제시키는가 하면 지어 발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당나라의 기미주로서 그 판도안에 소화시켜버리고있다.[1]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주관적욕망을 앞세우고 과학적사실을 부정한 그릇된 견해이다.

발해는 건국직후에 벌써 옛 고구려령토의 적지 않은 부분을 수중에 장악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당서』 권219 발해전에서는 발해건국초기의 사실을 전하면서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해북의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 물론 발해가 변한을 차지하였다고 한 것은 부정확하다. 변한은 삼한(진한, 변한, 마한)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의 락동강류역에 자리잡은 나라였으므로 발해와는 아무런 관련도 있을수 없다. 그리고 이 기사

1) 1989, 『쏘련 원동의 력사(로문)』 (과학출판사), 187쪽 지도11; 1982, 『중국력사지도집(중문)』 5책 (지도출판사), 36~37쪽 당시기전도; 1990, 『중국고대력사지도집(중문)』 (료녕교육출판사), 89~90쪽, 당대형세도.

에 보이는 조선은 단군조선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곳으로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고려후국'을 가리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오늘의 료동반도와 조선의 서북부지역이 건국직후에 벌써 발해에 장악되어있었다고 할수 있다.[2] 또한 부여와 옥저지역이 발해에 속하였다는것은 송화강류역[3]과 함경남북도 및 연해변강지역이 발해의 령역에 속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해의 령역에 속하였다고 한 '해북의 여러나라'는 '바다북쪽의 여러나라'라는것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이것은 조선서해 혹은 발해 북쪽의 여러 부족들을 가리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발해는 건국초기에 벌써 우리 나라 북부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로씨야 연해변강 남부지역을 차지하였다는것으로 된다.

발해는 8세기중 말엽에도 령역확장을 계속 단행하였다. 이 시기는 대체로 발해 2대 무왕(719~737)과 3대 문왕(737~793) 집권시기였다.

무왕 대무에는 재위기간에 령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는 "무에가 즉위하여 크게 령토를 확장하였으며 동북의 여러 이족들이 두려워 신속하였다."[4] 라고 전하고있다.

2) 732년에 발해는 바다길로 수군을 파견하여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발해가 이러한 공격작전을 단행하자면 적지 않은 병력과 함선을 동원시켜야 하였을것이다. 이러한 전쟁준비와 함대의 진출이 가능하자면 발해의 령역이 최소한 압록강하구일대에까지 미치고있어야 한다. 그리고 732~733년 발해-당전쟁에서 발해가 료동반도를 공격한 일이 없었다는것은 압록강하구뿐 아니라 료동반도일대도 당나라땅이 아니라 발해직속지 또는 그 후국지역이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1992, 『발해사연구론문집』 1(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69~76쪽 참고)

3) 1990,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4쪽 B.C. 3세기초엽 고구려중심지역략도 참고.

4) 『신당서』 권219 발해전.

발해는 3대 문왕 대흠무때에도 평역확장을 계속하여 740년대에는 불녈 및 철리말갈을 복속시키고[5] 8세기말~9세기초경에는 월희(越喜)와 우루(虞婁) 등 말갈부족들을 신속시켰다.[6]

발해는 9세기초엽에도 평역확장을 계속 하였다. 이때는 발해 10대왕인 선왕(817~830)의 통치시기이다. 이 시기에 발해는 자기 력사상의 최대판도를 가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대인수가 즉위하여 "해북(바다북쪽)의 여러 부들을 토벌하고 강토를 크게 넓히는데 공이 있었

5) 발해건국후에도 당나라에 부단히 사신을 파견하던 말갈족부락은 월희, 불녈(拂涅), 철리(鐵利), 우루이다. 불녈과 철리의 당나라에 대한 사신파견은 741년에 끝난다. (『책부원귀』 권971 외신부 조공 4) 이것은 발해가 불녈과 철리말갈을 복속시켰다는데 대한 증거로 될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는 "불녈고지로 동평부로 삼고 이(伊), 몽(蒙), 타(沱), 흑(黑), 비(比) 5개 주를 소속시켰으며 철리고지로 철리부를 삼고 광(廣), 분(汾), 포(蒲), 해(海), 의(義), 귀(歸) 6개 주를 소속시켰다"고 하였다.

6) 우루와 월희가 당나라에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것은 802년이다. (『책부원귀』 권972 외신부 조공 5) 월희말갈은 741년에 오사리를 사신으로 보낸후 802년까지는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없다. 우루말갈도 802년에야 등장한다. 이것은 월희나 우루부가 740년대에 발해의 영향하에 들어가있었다고 추측하게 한다. 798년에 당나라에 간 발해사신단 성원인 여부구가 '우후루번장(虞侯婁蕃長)'이라고 되여있는데 (『책부원귀』 권976 외신부 포이 3)이 '번장'이라는 벼슬은 발해에 소속되여있던 말갈족 부 즉 번(속령)들을 감독통제하던 직무였을것이다. '우후루'는 혹시 '우루'와 같은 부족의 서로 다른 표기일수도 있다. 우의 사실은 발해가 이미 740년대에 월희와 우루를 세력권안에 넣었다고 보게 한다. 802년에 월희와 우루말갈이 당나라에 다시 사신을 파견하게 된것은 아마도 발해의 기반에서 벗어나보려던 그 어떤 정치적시도의 결과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후 월희와 우루말갈이 더는 등장하지 않는것은 발해정부에 의하여 인차 제압당하였기때문일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는 월희고지에 회원부를 두고 달(達), 월(越), 회(懷), 기(紀), 부(富), 미(美), 복(福), 사(邪), 지(芝) 등 9개 주를 거느리게 하였다고 한다.

다."고 전하고있다. 이것은 대인수가 여러 말갈부족들을 토벌하여 완전히 복속시키고 령역확장을 줄기차게 단행하여 강토를 크게 넓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에 흑수말갈이 또한 발해에 완전 귀속되였다. 흑수말갈은 발해 북쪽에 있는 부족으로서 여러 말갈족속들가운데서 비교적 강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발해건국후 그의 영향하에 있던 흑수말갈은 몰래 당나라와 련계를 가지려다가 726년에 2대 무왕 대무예의 단호한 군사적조치에 의하여 움츠러들기도 하였다.[7] 그러나 당나라에 드문히 사신을 파견하며 관계를 가져왔다. 대인수는 집권후 강한 군력에 의거하여 흑수말갈을 완전히 제압하고 발해의 판도에 소속시켰다.[8] 옛 문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발해가 강성해지자 흑수 또한 그 소속으로 되였다."[9]고 전하였다.

발해는 남쪽으로 령역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도 벌리였다. 이에 대하여 옛 문헌에서는 "당나라 원화년간(806~820)에 발해왕 대인수가 남쪽으로 신라를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들을 점령하여 군, 읍을 새로 설치하였다."[10]라고 전하고있다.

물론 이때 발해의 남쪽진출로 하여 어느만한 지역이 개척되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하겠지만 이 시기 령역확장이 북쪽에서만이 아

7) 『구당서』 권199 발해전.
8) 『신당서』 권219 흑수말갈전에 의하면 흑수말갈의 사신이 마지막으로 당나라에 간것은 당헌종 원화년간(806~820)이였다고 한다. 그러니 9세기초경에 전체 흑수말갈이 발해에 완전히 소속되였다고 볼수 있다. 대인수의 '공적'으로 보아 흑수말갈이 발해에 소속된것은 더 정확히 그의 통치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9) 『당회요』 권96 말갈전.
10) 『료사』 권38 지리지 2 동경도 료양부 흥료현조.

나라 남쪽에서도 진행되었다는것은 명백하다.

9세기초엽에 흑수말갈을 포섭함으로써 발해는 오늘의 흑룡강(아무르강) 류역까지 령토를 확장하고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흑수말갈의 서쪽한계는 제야강상류였다고 한다.[11] 그리고 그의 "북쪽은 작은바다에 이르고 동쪽은 큰 바다에 이른다."[12]고 하였는데 작은바다는 오호쯔크해를 가리키는것이므로 흑수말갈의 동북쪽한계는 오호쯔크해라고 할수 있다. 즉 흑수말갈의 북쪽은 제야강 상류로부터 오호쯔크해를 련결한 계선이며 발해가 그를 포섭한 조건에서 이것은 결국 발해의 북변으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발해는 세대를 이어가며 부단한 령역확장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남변은 대동강을 계선으로 하고 서변은 료하 서쪽류역으로부터 눈강 상류, 북변은 제야강상류로부터 오호쯔크해를 련결하는 계선까지, 동쪽은 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령역을 차지하게 되였다.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발해의 령역이 사방 5,000리나 된다고 하였다.

본 토론에서는 둘째로, 발해의 령역확장을 통하여 볼수 있는 고구려계승의식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발해의 령역확장은 단순히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분명히 계승이 있고 자기의것을 되찾으려는 목적의식적인 투쟁이 있다.

우선 발해가 령역확장을 통하여 차지한 땅이 옛 고구려의 령역 거의 그대로였다는데 류의할 필요가 있다.

---

11) 2000, 『력사과학』 년 1호, 38~40쪽 참고.
12) 『당회요』 권96 말갈전.

고구려는 건국초부터 조상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가장 넓었을 때 동쪽은 바다, 서쪽은 대릉하류역으로부터 내몽고를 련결한 계선까지, 북쪽은 제야강상류로부너 오호쯔크해를 련결한 계선까지,[13] 남쪽은 중부조선이남의 넓은 지역까지[14]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옛 문헌에서는 고구려가 수나라때 최대판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동서로 6,000리나 된다고 하였다.[15]

우에서 본 고구려의 령역은 발해의 령역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발해는 서쪽에서 료하를, 남쪽에서 대동강을 계선으로 함으로써 고구려에 비하여 얼마간 적어졌을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발해가 북쪽으로는 고구려때보다 더 넓어졌다고 한것은 부정확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고구려가 흑수말갈을 복속시키지 못하였다고 본데로부터 나온 착오일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때도 흑수말갈은 고구려 령역안에 장악되였다. 『신당서』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해주는 기사가 있다.

> 무덕 5년 추장 아고랑이 처음 왔다. 태종 정관2년 이내 신속되였다. ……(당태종이) 고려(고구려)를 치자 그 북부가 모반하여 고려와 합하였다. 고혜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안시를 지원하였는데 매 싸움에서 말갈을 항상 앞에 세웠다.[16]

13) 1997, 『고구려사』 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09~124쪽 참고, 120쪽 고구려령역도(6세기말경).
14) 1990, 같은책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79~380쪽.
15) 『통전』 권186 하 변방 2 고구려.
16) 『신당서』권219 흑수말갈전.

무덕이란 당고조 리연의 통치년호이며 그 5년은 622년을 가리킨다. 태종은 당태종 리세민을 말하며 정관은 그 통치년호로서 2년은 628년에 해당한다.

우의 기사에 따르면 622년이전에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던 말갈이 처음으로 당나라에 갔고 628년에는 그에 소속된것으로 된다. 그러던것이 645년 고구려-당전쟁을 계기로 고구려에 포섭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북흑수말갈을 가리키고있는것이지만 그것은 남흑수말갈은 이미전에 고구려에 신속되어있었기때문일것이다. 6세기말엽까지 대체로 고구려에 포섭되였던 흑수말갈이[17] 7세기초 일시 당나라에 붙으려 하다가 후방의 안전을 노린 고구려조정의 강경조치에 의하여 645년 고구려-당전쟁직전 다시 고구려에 신속되였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고구려가 흑수말갈까지 령역을 포함시킨 조건에서 발해는 북변에서 고구려의 령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발해가 고구려의 옛땅을 계승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당시 이웃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고있었다. 『류취국사』라는 일본측기록에서는 발해가 "고려(고구려)의 옛땅에 있다."[18]고 하였으며 『속일본기』에서는 발해사신 고재덕 등이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한 사실을 전하면서 발해는 '옛 고려(고구려)국'[19]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발해가 령역확장을 통하여 옛 고구려땅을 수복계승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투쟁의 결과였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

17) 1997, 『고구려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12쪽.
18) 『류취국사』 권193 수속 발해 환무기 연력 15년.
19) 『속일본기』 권10 성무기 신구4년 12월 병신.

발해 2대 무왕 대무에는 727년에 일본과 국교를 맺으면서 보낸 국서에서 "고려(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지니였다."[20]

여기서 발해 무왕이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했다고 한것은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건국자 왕족집단이 말갈인이였다면 그들은 마땅히 국서에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했다' 혹은 '가졌다' 라고 밝혔을것이다. 례를 들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령토를 차지했던 유목족인 거란(료)도 고구려의 옛땅을 놓고 당치 않게 고려에 령토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고구려의 옛땅을 '소유'했다느니, '차지했다'느니, '가졌다'느니 하는 말은 하였지만 감히 '회복'했다는 말은 쓰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측은 자신을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하면서 그 옛땅을 '회복'하려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21]

말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고구려의 주민구성에는 소수 말갈족이 들어있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구려사회의 주도적력량은 단군민족의 후손들이였으며 말갈인들은 그의 통치하에서 자기의 고유한 유목 및 수렵생활을 유지하고있었다.[22]

이러한 말갈인들에게 강점당한 조상의 옛땅에 대한 그리움, 디사 찾을 감정의 분출이라고도 할수 있는 '회복'이라는 말이 쓰일수 없는 것이다. 떠돌이생활을 하거나 오늘은 여기 붙었다 래일은 저기 붙었다하며 생존하는 말갈인들에게는 조상의 땅을 '회복'한다는 관념이 전혀 있을수 없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려고 한것이 고구려유민이라

20) 『속일본기』 권10 성무기 신구5년 1월 갑인.
21) 『고려사』 권94 서희전.
22) 『구당서』 권199 말갈전.

면 그것은 명백히 그 유민들의 고구려계승의식의 발현인것이다.

발해 무왕의 국서에 대하여 일본임금이 발해가 '옛땅을 회복'한 것을 알게 되였는데 지난날의 우호관계를 수복한다면 기쁠것이라고 회답한 사실[23]은 그들도 옛땅을 회복하려는 고구려후손들의 계승의식을 인정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발해는 또한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본인인 당나라에 옛 고구려령역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오랜 력사이야기책인 『수당연의』에 의하면 발해의 대가독(임금)은 당나라임금 현종에게 보낸 국서에서 당나라가 강점한 고구려 옛땅을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발해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신 특산물을 보내줄것이며 수긍하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와서 칠것이라고 위협하였다.[24]

---

23) 『속일본기』 권10 성무기 신구5년 4월 임오. 일본측 국서에서 '옛땅을 회복하다'를 '회복구양(恢復舊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생동하다.

24) 『수당연의』는 오랜 력사를 가진 력사이야기책으로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력대로 독자들의 흥미를 끈 도서이다. 책에는 수문제가 진(陳)나라를 정벌하는것으로부터 당 현종이 죽을 때까지의 력사이야기들이 담겨져있으며 포괄하는 력사적시기도 근 200년간으로서 길고 사건들도 매우 복잡하다. 그가운데서도 진경과 단웅신과 같은 이른바 '영웅호걸'들과 수 양제 그리고 당 현종과 양귀비의 고사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있다. 책의 전신은 명나라 라관중(1130~1400?)이 지은 『수당지전』이며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였다. 그후 여러 문인들의 손을 거쳐 증보 편찬되였으며 청나라 초기에 저인확에 의하여 완성되게 되였다. 그는 정사와 야사에 기록된 수, 당사이의 많은 기사들을 모아 편집하였다고 한다. 현재 류포되여있는 책은 청나라 초기의 사설초당간본에 근거하여 정리한것이다. 책에는 물론 허구들도 있지만 '력사적인 진실을 얼마간 반영하고있다'고 본다. 발해관계설화는 『수당연의』 82회 앞부분에 실려있다. 설화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2004, 『력사과학』 3호, 37~39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령역을 되찾는것을 자기의 정당한 권리로 간주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옛땅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그것은 명백히 고구려계승의식의 발현인것이다. 만약 발해가 고구려인이 아니라 말갈인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면 '말갈고지'나 보존하면 될것이고 고구려의 옛땅을 요구할 체면이 없을것이다. 또 령토적요구가 제기되였다면 그 후손인 녀진인들의 금나라가 그러하였듯이 그누구의 땅을 '양도'하라느니 어쩌라느니 할것없이 곧바로 대륙에로 쳐들어가면 될것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관점에서 자기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발해의 부단한 령역확장과정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처럼 발해의 령역확장은 단순히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정당한 고토회복투쟁이였으며 계승의식의 발현이였다.

쪽에 실린 「『수당연의』 발해관계설화의 사료적가치」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였다.

對日本 關係를 통해서 본 渤海의 外交 戰略

구난희 (고구려연구재단 대외협력실장)

Ⅰ. 들어가는 말

698년 건국 이후 229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발해는 자체 문헌기록 없이 주변국 역사서 중의 일부 기록을 통해서만 자신의 역사를 문헌으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남아 있는 사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국 중심의 해석은 때때로 발해의 위상과 면모를 축소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渤·日 관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渤·日 관계 사료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발해 사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분절된 渤海史를 보완해 줄 수 있지만 일본 사료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본중심적 해석이 내재하여 발해의 대외관계와 국가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1]

그러나 일본측 사료라 할지라도 남아 있는 사료의 성격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발해의 외교 전략의 새로운 일면들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시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발해의 위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발·일관계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각은 첫째 '渤海와 新羅의 對立, 渤海와 日本의 友好'라는 두가지 기본 구도를 대치시키고 당시 동아시아를 이해하려는 경향이며[2] 둘째 일본의 小中華意識이라는 전제하에서 渤海를 藩國으로 여기는 경향이다.[3] 즉 발해는 신라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외교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藩國의 禮에 순응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발해의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발해

1) 특히 여기서 주목해 둘 것은 일본에서의 발·일관계 연구가 滿鮮史 연구의 일환으로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1906년 那珂通世가 발표한 「古の滿州」에서 발해를 다루었는데 일본을 종주국으로 발해를 조공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발해사 연구가 더욱 본격화된 것은 1907년 3월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調査部가 개시되면서 부터였다. 당시 滿鐵 總裁였던 後藤新平은 '文裝的武備論'을 우선적으로 내세웠고 이러한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은 白鳥庫吉이었다. 白鳥庫吉에 이어 池內宏, 松井等, 津田左右吉 등에 의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발해사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인식을 마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물론 전후 학계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암암리에 전전의 연구 성과들이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李成市, 1990, 「統一新羅と渤海」, 『アジア論4—朝鮮の歷史』(財団法人放送大學敎育); _____, 1991, 「八世紀新羅·渤海關係の一視角學—新唐書新羅伝長人記事の再檢討—」, 『槐□院轉志』 92-4; _____, 1994, 渤海の對日外交への理路, 古露忠夫 編, 『東北アジア史の再發見—歷史像の共有を求めて』(有信堂).

3) 鬼頭淸明, 1992, 「王畿論—中華·朝鮮·日本」,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III(東京大□出版□); 酒寄雅志, 1993, 「華夷思想の諸相」,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V(東京大□校出版□); 越智重明, 1995, 「華夷思想の形成と展開」, 『比較文化年報』 3.

와 일본과의 교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암암리에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8~9세기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형성했던 발해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것일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그간 일본에서 이루어진 渤·日 관계 연구 중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주요 주장과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新羅侵攻計劃, 到着地論爭, 訪期交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新羅侵攻計劃

'新羅侵攻計劃'이란[4] 『續日本紀』에 산견되는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을 일괄하여[5] 8세기 중엽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말

4) 대개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의 선행연구들에서는 '新羅征討計劃'이라고 명명해 왔다. 이는 『續日本紀』상의 '以將伐新羅', '爲征新羅也' 등의 기록을 토대로 '정벌' 혹은 '정토'라 명명한 듯하나, 정토나 정벌의 사전적 의미는 죄있는 무리를 군대로써 친다는 것으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新羅侵攻計劃'(한규철,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_____, 「渤海와 日本의 新羅侵攻計劃과 霧散」, 『중국문제연구』 5, 1993.) 또는 '발해의 신라침공계획'(박진숙, 1997, 「발해 문왕대의 대일본 외교」, 『역사학보』 153집)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발해가 과연 신라침공계획에 주도적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日本의 新羅侵攻計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5) 『續日本紀』에 나오는 관계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大宰府 行軍式 거행(卷22 天平寶字 3年 6月 壬子條), ②香椎廟에 제사(同 8月 己亥條), ③ 각 도에 造船 명함(同 9月 壬午條), ④ 美濃國, 武藏國 각 20명에게 신라어 교습(5年 正月 乙未條), ⑤각 지역의 조선 및 군사조직 점검(同 12月 丁酉條), ⑥ 향추묘에 제사(同6年 11月 庚寅條), ⑦天下諸帥에 화살을 바쳐 제사(同 6年 11月 庚子條, 同 6年 11月 壬寅條)

한다. 이 계획에 대한 논문이 집필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和田軍一의 연구였고[6] 1930년대 末松保和에 의해[7]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8] 이러다가 다시 발해사 연구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0년대이다.[9]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학계에서는 일본과 발해가 군사동맹을 맺고 이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당과 신라에 대해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발해가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이 기본적 시각이다. 반면 한국학계에서는 양국의 연합을 전제로 발해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하기도 했다.[10]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시각에는 발해가 신라와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고 신라는 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기본 인식이 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두고, 사료 검토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

---

①, ③, ④, ⑥의 기사 말미에는 신라정벌을 위함이라는 기록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나 나머지는 정황으로 신라정벌과 관계된 기사로 보고 있다.

6) 和田軍一, 1924, 「渤海における新羅征伐計劃について」, 『史□ 轉誌』35-10(史□ □).

7) 末松保和, 1934, 「日朝交涉」, 『日本古代史管見』.

8) 그러나 이미 19세기말에 편찬된 교과서에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伊地知貞馨, 1879, 『小□ 日本史略』) 훨씬 오래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

9) 酒寄雅志, 1977, 「8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政勢」, 『渤海史□』 130□ (渤海史□ □, 第一書房 復刊; _____, 1979, 「渤海渤家の史的展開と渤海交涉」, 『朝鮮史研究□ 論文集』10(朝鮮史研究□); 石井正敏, 1975, 「日渤交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渤意識について」, 『中央大□ 大□院研究年報』 4.

10) 한규철, 「발해와 일본의 신라협공계획과 무산」; 박진숙, 「발해 문왕대의 대일본 외교」.

다.[11]

新羅 侵攻 計劃과 관련한 기록과 渤海使의 일본 방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연도	(계획 추진 기사)	(발-일 사신 교류와 사신의 행적)
758년		정월 小野田守 遣渤海使로 임명 (2월에 발해 파견 추정) 9월 楊承慶 일본 도착 12월 楊承慶 입경
759년	6월 行軍式 8월 香椎廟에 보고 9월 歸化人에 대한 조치 9월 배의 建造 명령	2월 楊承慶 발해로 출발 10월 高南申 일본 표착 (→12월 難波國 도착) 12월 高南申 입경
760년		2월 高南申 발해로 출발
761년	정월 신라어 통역관 11월 領渡使 파견, 검정	
762년	11월 香椎廟에 제사	10월 王新福 일본 도착 12월 王新福 입경
763년		2월 王新福 발해로 출발

11) 이미 이 문제는 다음의 글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구난희, 1998, 「日本의 新羅侵攻 計劃 추진 의도」, 『靑藍史學』2; _____, 1999,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10.

楊承慶의 방문 이후 신라침공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발해가 신라를 침공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한 군사외교를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당시 渤海使는 연이어진 일본의 送使 동행으로 내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시기보다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었다. 楊承慶의 파견도 小野田守의 파견에 의한 초빙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곧 일본측의 주장과 달리 渤海使의 내왕이 일본 조정 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내부의 필요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집권자 藤原仲麻呂의 집권 위기였다.[12] 이 문제는 당시 양국외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므로 조금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仲麻呂는 光明皇后의 후원 속에서 집권하였다. 光明皇后는 聖武天皇이 죽자 孝謙天皇에게 讓位하였는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天皇家와 藤原家의 결집, 즉 天皇이라는 상징성과 藤原家가 지닌 집행력을 결합하여 권력 강화를 도모하였는데 이 양자를 이어 줄 수 있는 중심적 인물로 仲麻呂를 선택했던 것이다.[13] 하지만 光明皇后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징적 권력의 핵심인 孝謙天皇과 실질적 권력의 핵심인 仲麻呂간의 갈등은 점차 노골화되었고 이에 光明皇后와 仲麻呂는 계속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일정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光明皇后는 孝謙天皇으로 하여금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천황자리에서 물러나기를 권유하였고 결국 758년 8월 淳仁으로 讓

12) 이에 대해서는 앞의 글(구난희, 「日本의 新羅侵攻計劃 추진 의도」)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13) 『續日本紀』 卷10 天平勝寶元年 8月 辛未條.

位가 이루어졌다.[14]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仲麻呂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淳仁天皇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孝謙上皇과의 마찰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譲位 이후라 할지라도 孝謙上皇의 세력은 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권력 행사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光明皇后는 점차 연로하고 쇠약해져 갔기 때문이다.[15] 더욱이 이러한 정치 갈등은 仲麻呂(淳仁) 세력 대 孝謙 세력간의 갈등인 동시에 舍人親皇계열과 草壁皇子 계열간의 대립이라는 천황가 내부의 암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권 위기 속에서 仲麻呂가 택한 것은 발해와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정권 재편이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渤海使 楊承慶을 통해 입수한 安史의 亂을 비롯한 대륙의 정세는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당시 仲麻呂는 安史의 亂의 보고를 듣고 安祿山에 대해 교활하고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16] 사태가 불리할 경우 海東으로 침범해 올 우려가 있다는 정세 판단을 내리는 등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반응은 안으로는 군사조직의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밖으로는 唐國에 牛角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발해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17] 이어진다. 그리고 안으로의 군사 정비의 명분은 다름아닌 바로 新羅侵攻計劃

14) 『續日本紀』 권 21, 淳仁天皇卽位前紀.
15) 그것은 '上皇'이라는 그의 위치 때문이었다. 일본의 율령에 따르면 上皇이란 天皇에 준하는 권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관례상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16) 『續日本紀』 卷21, 天平寶字 2年 12月 戊申條.
17) 『續日本紀』 卷23, 天平寶字 5年 8月 甲子條; 同9月 辛酉條.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해가 일본이 구상한 이 계획에 적극적이었던가 하는 점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우선 759년 高南申의 귀국 이후 新羅侵攻計劃 추진과 관련한 기사는 761년 정월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으며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高南申 이후 王新福 파견까지의 시기는 新羅侵攻 계획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으므로 양국이 연합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몇 차례의 교류가 더 이루어졌어야 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백기로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18]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발해는 사신을 통해 대륙의 정세를 일본에게 제공하여 일정한 위기 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긴밀한 교류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발해의 국가적 위상을 일본에 분명히 인식시켜 주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高麗'라는 용어의 사용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다. 天平寶字 3년(759년) 정월 보고시, 2월의 발해왕에게 보내는 國書,[19] 그밖에 발해사신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 '高麗의……'라고 기록하고 있다. 778년에 高麗使五·送高麗使라고 기록한 것 외에는 모두 渤海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高麗'의 사용이 이 시기(759~763년)에 집중되어 있다

18) 이 외에도 필자는 당시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가 대립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는 점, 신라의 대일본외교가 실리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구난희, 「8세기 중엽 발해·신라·일본의 관계-일본의 신라침공계획을 중심으로-」, 16~26쪽)

19) 현존하는 20통의 국서 중 발해의 국왕에 대한 호칭으로는 渤海國王(혹은 渤海王)이라 칭한 예가 가장 일반적이며 초기에 渤海郡王이라 한 것이 1회, 高麗國王이라 칭한 것이 2회 있다. (山田英雄, 1975, 「日·唐·羅·渤間の檜書について」, 『日本考古學·古代史論叢(吉川弘文館), 349~350쪽)

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는 바로 발해가 고구려의 옛 강역을 회복하면서 그들 스스로 대외적 자주성과 국력의 자신감을 일본에 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당시 발해는 일본에 安史의 亂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정세를 적절한 위기적 상황으로 전달함으로써 일본 조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끌어 내었다. 이로써 일본이 제공하는 다양한 외교적 편의 속에서 원활한 교류를 지속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Ⅲ. 到着地[21] 論爭

新羅 侵攻 計劃 무산 이후[22] 국제정치는 완화되어 갔으나 발해와 일본간

---

20) 노태돈, 1986, 「渤海日本國書에 은위한 『高麗舊記』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記念論叢』, 623-626쪽 ; 송기호, 1993, 「발해 문왕대의 사회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 76-79쪽.
이에 대한 이견으로는 石井正敏의 경우가 있다. 그는 渤海가 高麗라고 자칭한 것은 고구려를 조공국으로 여기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임시적인 용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石井正敏, 1975, 「日渤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關係意識について」, 『中央大□大□院研究年報』4; 임상선 편역, 『발해사의 이해』(신서원), 294~295쪽)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왜 이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에는 왜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결국 일본측의 이러한 해석 역시 신라침공 계획 당시의 양국 외교를 이해하는 편협된 시각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21) 사료에는 '來着地'로 기록되고 있으나 일본조정의 발해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일본사료상의 용어임을 감안하여 '到着地'로 표현했다.

의 교류도 변함없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그러므로 일본학계가 일본주도의 渤·日 외교라는 시각을 新羅 侵攻 計劃 무산 이후에도 이어나가는 데는 일정한 논리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 시기에도 양국 외교에 있어 일본이 주도해 나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다른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러한 취지하에 형성된 주요 논리가 바로 신라 침공 계획 이후 발해는 經濟外交에 치중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 渤海와의 교류에 대해 반발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渤海使에 대한 반발과 기피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자주 제기되는 것이 到着地 論爭과 다음 절에서 살펴 볼 訂期 交涉이다.

到着地 論爭이란 일본 조정이 渤海使로 하여금 北陸 지방에 도착하지 말고 築紫의 길을 이용할 것을 강조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이르는 용어이다.[23] 773년 烏首弗의 파견시 '옛 날의 예에 따라 筑紫道를 이용할 것'을 강조하는 등[24] 일본 조정은 築紫 이용을 누차 제안하지만 발해사신은 계속 北陸 지방에 도착하였다.

양국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해를 거쳐야 하는데[25] 日本行은 대개 가을에

22) 新羅 侵攻 計劃의 무산 원인을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있다. 혹자는 발해의 태도 변화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일본의 정세 변화로 보기도 한다. 필자는 발해의 실행 의지가 약하였고 이 계획은 일본 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의 무산은 藤原仲麻呂 정권의 붕괴가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앞의 글(구난희, 「日本의 新羅侵攻計劃 추진 의도」)에서 다루었다.

23)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고 있다. 石井正敏, 1995,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日本古代の諸相と東アジア』, 佐伯有清先生古稀記念 編(吉川弘文館).

24) 『續日本紀』 卷32 寶龜4年 6月 戊辰條.

25) 古畑徹은 발해사의 단독 항해시에는 北回항로를 이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서 초봄에 이르는 시기에 발생하는 북서풍을 이용한다. 그러나 계절풍은 항해 속도를 단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만 항해 상황을 규정하는 보다 중요한 조건은 사실상 海流이다. 당시의 해양 조건이 지금과 극히 다르지 않았다면 티만 해류가 일본의 동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筑紫道를 통해 일본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築紫를 주장하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일찍이 일본학계는 교역에 따른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해 발해와의 외교를 기피하고자 했다는 전제하에, 발해사 방문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이해하였다.[27]

그러나 802년 발해사를 위하여 能登國에 渤海客院을 설치한 것을 볼 때 일본이 筑紫道 이용을 제안한 것이 발해와의 외교기피라고 보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논자에 따라서는 筑紫道 이용 제안건을 光仁의 정치간소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28] 다채널 창구를 개방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29]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이 왜 이 시기에 築紫 도착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古畑徹, 1994, 「渤海·日本間航路の諸問題」, 『古代文化』 46, 443~445쪽), 발해사의 왕래 기록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26) 윤명철, 1995, 「海洋 조건을 통해서 본 古代 韓日關係史의 理解」, 『日本學』 14, 68~76쪽.

27) 新妻利久, 1976, 「渤海椀吏に關する海路法規研究」, 『椀史□』 第56號(椀史□□) 370~375쪽.

28) 石井正敏, 1995, 428~433쪽.

29) 新妻利久, 앞의 글, 370~374쪽.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궁색하다.[30]

이에 필자는 蝦夷와의 충돌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31] 786년 李元泰 일행은 出羽國에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蝦夷의 침략을 받아 34인이 피살당했다.[32]

또한 795년 11월에 도착한 呂廷林 일행 또한 피해를 입는다. 이는 아마도 桓武천황의 征夷사업으로[33] 인해 蝦夷民의 불만이 증폭됨에 따라 표착민에 대한 거부의사가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 시기는 蝦夷와의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로, 蝦夷의 입장에서는 발해가 일본조정을 지원하러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응징하고자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34]

---

30) 최근 小嶋芳孝는 발해사의 도착지가 시기별로 다른 이유가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아 항로를 이탈하거나 표류하였기 때문이라는 종래의 학설을 비판하고 각 시기별로 나름대로의 선택이유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발해사가 加賀 지역에 도착한 것은 고구려 이후의 항로를 전승한 것이라고 보았다.(小嶋芳孝, 2004, 「渤海と日本列島の交流經路」, 『日本史の硏究』206, 3~5쪽)

31) 蝦夷와 渤海使와의 문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구난희, 1999, 「8世紀 後半 日本의 對外關係에 관한 고찰 —渤海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硏究』10.

32) 『續日本紀』 延曆年 9月 甲辰條.

33) 桓武의 征夷사업은 780년 伊治公呰麻呂의 반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791년 大伴弟麻呂와 坂上田村麻呂를 필두로 해 794년, 797에 걸친 대대적인 토벌로 801년에 이르러서는 胆沢에서 志波에 이르는 지역을 거의 토벌한다.

34) 小嶋芳孝는 蝦夷와 일본, 그리고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은 발해와의 대립과 반목은 발해교류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720년 『續日本紀』에 나오는 말갈사신 파견을 발해로 간주하고 일본이 발해에 사신을 보낸 것은 蝦夷를 정벌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았다.(小嶋芳孝, 1997, 「高句麗·渤海との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일본조정이 筑紫道 이용을 누차 강조했던 것은 바로 蝦夷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의 在地 首長層이 보유하고 있는 해상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征夷사업에 이용해 왔다는 점을[35] 감안한다면 이 세력과 발해가 독자적으로 교류 관계를 갖는다면 蝦夷와 대립하고 있던 桓武 조정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筑紫道 이용 제안은 동북지역과 발해와의 私的인 교류 가능성을 차단시키려는 것이었던 바 이는 곧 양국의 교류를 발해조정과 일본조정간의 단일창구로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일본 조정이 발해사로 하여금 筑紫道를 이용할 것을 강조한 것은 발해와의 외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과 조정간의 원활한 교류를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일본조정이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조정은 발해의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익히 알고 중앙조정과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渤海使의 안전한 내왕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流」, 共著, 『境界の日本史』(山川出版社), 201~202쪽.)

35) 川尻秋生, 1997, 「古代東北の外洋交通」, 『歷史□ 硏究』 7-3.

36) 사료상에 나타나는 '聘期'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일반적으로 '聘期'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본조정의 발해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일본사료상의 용어라 판단되므로 '訂期'로 표현했다.

Ⅳ. 詰期[36] 交涉

詰期 문제란 渤海使의 일본 방문 기한을 새롭게 정하고자 양국이 교섭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詰期 문제의 교섭은 발해로부터 먼저 제안되었다. 796년 呂定林 일행의 방문 당시 발해는 사신의 수를 20명으로 한정하는 대신 詰期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정할 사신을 다음 가을까지 보내 줄 것을 통고하고,[37] 이에 대해 일본은 798년 12월 內藏宿禰賀茂麻呂를 專使로 파견하고 양국간의 거리, 항해의 위험에 따른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조심스레 6년을 제안하였다.[38]

이에 발해는 일본사의 귀국시 大昌泰를 파견하여 다시 단축 조정을 추진하였고[39] 결국 일본은 年限에 대해 개의치 말라는 응답을 전함으로써[40] 오랜 방기를 둘러싼 교섭은 일단락된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학계는 일본 조정이 渤海使의 잦은 내왕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41] 그러나 과연 일본이

37) 『類聚國史』 卷 193, 殊俗·渤海 上 延曆 15年 冬10月 己未條; 『日本後紀』 卷5 皇統彌照天皇 桓武天皇 延曆15年 冬10月 己未條.
38) 『類聚國史』 卷 193, 殊俗·渤海 上 延曆 17年 5月 戊戌條.
39) 『類聚國史』 卷 193, 殊俗·渤海 上 延曆 17年 12月 壬寅條.
40) 『類聚國史』 卷 193, 殊俗·渤海 上 延曆 18年 夏4月 亥朔條; 『日本後紀』 卷8 皇統彌照天皇 桓武天皇 延曆18年 夏4月 己丑條.
41) 古畑徹, 1995, 「渤海使節の文化使節的側面—渤海後期の中華意識·對日意識と亮連させて—」, 『東北大□東洋史論集』6; 重松敏彦, 1997, 「平安初期における日本律際秩序の変遷」, 『九州史□』118·119; 山口博, 1994, 「奈良朝政治事件と東北アジアの律際環境」, 古代史忠夫 編, 『東北アジア史の再發見』—歷史像の公有を求めて—(有信堂); 石井正敏, 1991, 「大宰府および鞆海律司の外交文書調査—」, 『古代文化』

渤海使의 내왕을 기피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詰期 문제를 먼저 제안한 측이 渤海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즉각 專使를 파견하는데 이렇게 일본이 발해와의 외교에서 專使를 파견한 사례는 단 3회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42] 詰期 문제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결국 이 교섭은 일본의 제한 의사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원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오히려 양국의 잦은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흥미있게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방기 문제가 일본 조정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예민한 사안임을 감지한 발해가 먼저 교섭의 제안을 던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발해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詰期를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는, 다시 말해 일본이 자국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즉 발해는 詰期 문제를 먼저 제안함으로써, 양국간의 잦은 교류를 둘러싼 대내적 문제를 일단락 짓고 양국의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적 명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내적 문제란 무엇이었을까? 이를 추론할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이 시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800년대 후반부터 자주 등장하는 귀족들의 경쟁적인 구매 욕구와[43] 이를 제한하려는 중앙 조정의 조치,[44] 모피 착용 제

43; _____,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특히 石井正敏은 일본의 외교를 光仁·桓武의 정치 개혁의 일환인 행정간소화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고 국서내용을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방기 연한 문제를 覇者와 諸侯國간의 관계를 이용해 교역을 달성하려는 발해의 외교전략으로 지적하고 있다.

42) 나머지 2회는 신라침공계획이 추진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43) 『日本三代實錄』 卷21 淸和天皇 貞觀 14年 4月 辛卯條

한[45] 등의 기사와 연계시켜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발해사가 가져 온 물품에 대한 귀족들의 과잉 구매욕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였고 중앙 조정에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4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발해가 訃期 문제를 먼저 제안한 것은 文王 이후 긴밀하게 유지된 양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발해의 적극적인 외교 전략이라 하겠다.[47] 더욱이 이 시기는 당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려는 발해의 외교 전략에 의한 협상우도였음을 말해 준다.[48]

---

44) 『日本三代實錄』 卷21 淸和天皇 貞觀 14年 4月 庚寅條.

45) 『延喜式』 彈正台.

46) 이미 일본과 신라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즉 신라와 일본의 교류가 799년 이후 단절된 것이 아니라 8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이르러 양국의 관계는 공무역이 아닌 사무역 형태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김은숙, 1991, 「8세기 新羅와 日本의 관계」, 『梨史館論叢』 29; _____, 1998, 「9世紀の新羅と日本の關係」, 梨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新しい歷史表象をめぐって-歷史硏究と歷史敎育の對話-』; 李炳魯, 1997,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日本學誌』 16) 그러나 발해와는 일본조정이 계속 공적 교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이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47) 이 밖에도 발해의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은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술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48) 실제 800년을 전후로 발해와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保科夫士男, 1989, 「古代日本の外交竟係における贈進物の名ム-古代日本の嘲小意識に竟聯して-」, 『白山史□』25; 石井正敏,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 東野治之, 1984,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 『日本歷史』438

Ⅴ. 맺음말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발·일 관계 연구는 일본사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료비판과 재해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新羅侵攻計劃, 到着地論爭과 詰期交涉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비록 각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교류 현상이긴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渤海는 對日本 관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한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과의 원활한 교류가 어려웠고 수시로 대내적 정치 혼란을 겪어야 했던 일본 조정에 있어서는 발해가 전해주는 중요한 대륙 정세와 정보,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발해와의 교류는 매우 긴요한 것이었다. 발해는 이러한 일본의 정치 정세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국에 유리한 외교 환경으로 연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渤海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교역의 성과도 높여 나갔다.

때때로 일본 내부에서 발해와의 교류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 문제를 발해가 먼저 외교협상의 장에서 공론화하여 일

□ 一瀬和夫(吉川弘文館), 重松敏彦의 연구에서는 발해사신의 영접의례를 지칭하는 용어가 蕃禮에서 賓禮 혹은 勤禮로 변화하였다는 데 초점을 두고 발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우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重松敏彦, 1997, 「平安初期における日本國際秩序の變遷」, 『九州史□』118·119.)

본 내부의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발해와의 원활한 교류를 재확인하도록 유도해내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해의 외교 전략은 일본 조정으로 하여금 발해를 동북아 강국으로서 자국의 정치 안정과 경제적 욕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외교통로를 통해 본 渤海와 新羅 관계

김은국 (고구려연구재단 전문연구원)

Ⅰ. 머리말

발해사 이해의 몇몇 관점 가운데 '南北國時代論'과 발해사 관련 '기록의 多元性'은 발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의 한 디딤돌이다.

먼저 '남북국시대'란 발해사를 우리 역사 체계 속에 파악하고자 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연구 흐름은 '시대의 범위'와 그 '적용' 타진보다는 '남북국'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1) 金恩國, 1997, 「南北國時代論 再考」, 『中央史論』 第9輯, 참조.

또 하나의 발해사 접근은 사료와 그 해석일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해동성국으로 구가하였던 발해의 역사 기록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풍요로운 기록 속에 빈약한 서술이라 하겠다. 발해인들은 직접적인 기록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교류하였던 주변국가에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서 다양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교통로 연구는 한 나라의 발전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으로, 당시 당사국들 간의 문물교류를 살필 수 있는 문화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교통로 연구 속에는, 국가 간, 지역간 도로는 물론, 도로 주변의 유적과 유물, 그리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교통수단과 교통 구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간, 인적 물적 교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교통로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문화의 수급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여, 결국 나라 안팎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발해가 건국된 후는 그 남쪽의 신라와 함께 남북국으로 불리어 왔던 당연한 우리 역사이다.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당연시하여 왔던 남북의 발해사 인식은 공통점이 있지만 20세기의 분단 체제가 빚은 분단 인식은 남북국 인식마저 갈라놓은듯 느껴지기도 한다. 남녘부터 보면, 발해와 관련될 수 있는 통로는, 신라와 후삼국, 그리고 고려 정도의 정권이라 할 것이다. 그것도,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와 기록에 몇 건 정도 남은 양국의 사신파견 기록 등이 고작이며, 후삼국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그나마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해 유민의 고려 유입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팽배한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의 창을 빌면, 제일 연구가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북녘의 경우는 발해 시대 5경의 하나인 南京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어 우리와는 또 다른 연구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팽배한 동아시아 각국의 자국 중심적인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발해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로만 주장하긴 어려움이 많다. 문제는 현재 중국은 동북지방에 대하여, 자국 중심적인 인식 논리의 연장에서, 위로는 고조선으로부터 아래로는 근대사까지 명실상부한 역사공동체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발해사에 대한 기존의 중국적인 인식 정립은 현재 중국 동북공정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고까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2]

따라서, 발해사 연구는 이제는 우리만의 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 환경에서 우리는 발해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다시금 생각게 하는 시간인 것이다.

극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잣대를 통해 발해사의 귀속, 즉 어느 나라의 역사에 속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에만 몰입한다면, 우린 발해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상의 전제를 토대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발해사 이해의 접근 방법으로서 발해 대외교통로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新羅道에 주목하여 보겠다. 발해인들 스스로 남긴 자료가 없는 한계 속에서도 발해를 중심으로 발해의 대외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바로 『新唐書』 등의 주변국 사료에 보이는 '新羅道' 기사일 것이다.

아울러 '신라도'의 존재와 그 의미를 통하여, 두 가지 논점을 보강하려 하는 것이다. 먼저 남북국시대론 입론의 근거로의 활용, 그리고 발해 중심적 발해사 해석의 확충이다.

---

2) '중국의 동북공정' 상의 발해사 연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상선, 2004, 「중국의 발해·고구려사 왜곡의 내용과 문제점」,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고구려연구재단 제1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참조.

Ⅱ. 대외교통로 연구 추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해인들이 남긴 사료가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발해가 교류했던 주변국에 다양하게 남아 있는 사료들은 발해사 연구에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

발해의 대외교통에 대한 접근은 대외관계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사료를 통하여 보면,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전개해 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교통로인 것이다. 『新唐書』 北狄列傳 渤海條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 龍原의 동남쪽 연해는 日本道이고, 南海는 新羅道이다. 압록은 朝貢道이고, 長嶺은 營州道이며, 부여는 거란도이다.

이를 통해서 발해는 일찍이 중원, 거란, 일본, 그리고 신라 등 주변 제국으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한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발해의 대외교통로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교통, 운수의 주요 도로이면서, 대외적 물자와 사신의 왕래가 이 길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발해의 수도 상경용천부를 시발점으로 하여 동남쪽으로 뻗은 일본도와 서남방향으로 뻗은 신라도는 일본 및 후기신라와 통하는 육로노정이며 그것은 해로를 통하여 다시 일본에, 육로를 통하여 신라의 수도에까지 연장되었다.

상경용천부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압록도와 영주도는 당나라에까지 통하였으며 서쪽으로 뻗은 거란도는 거란의 수도까지 연결되었다. 이들 교통로는 국내 기본 간선도로로서 각지에 뻗은 여러 도로망과 연결되어 교통운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외적인 경제문화적 교류가 추진되었으며 국내의 특산물들이 외국에까지 많이 수출되고 사신왕래가 보장되었으며 문화교류

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흑룡강, 동류 송화강, 북류 송화강, 눈강, 홀한하의 교통운수 망과 연결되어 그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또한 동해와 서해의 대일항로, 대당항로와 연결됨으로써 대외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교류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실로 이 교통로들은 당시 동북아시아 기본 교통로의 하나로서 동서방의 경제와 문화의 교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던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3]

이러한 교통로 속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라도'란 발해가 신라와의 교류를 위하여 설정한 교통로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鴨綠道', '營州道', '日本道', '契丹道' 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제해 두어야 할 점은 다음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신라도가 대외교류를 위한 교통로라기보다는 신라와 발해간의 대립을 강조하는 시각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목이 그것이다. 즉 신라도 설치의 주체는 발해라는 점이다.[4]

신라도 설치 배경의 이해는, 그 운영의 실체와 그 의미 규명에 매우 긴요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자료 중 '남해는 신라도' 라고 있듯이 신라 교통의 최종적인 거점은 남경남해부로, 『三國史記』 권37 지리지에 의하면, "신라의 천정군에서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대충 39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도에 대한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4세기 무렵 고구려가 이용한 교통로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데, 국내성에서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東海路가 그것이라고 보았다.[5] 다음으로 그 설치시기에 대해

3) 장국종, 2004, 『발해사문답』(사회과학출판사), 38~39쪽.

4) 방학봉, 1992, 「발해유지로부터 본 신라도」, 『발해 유적과 그에 관한 연구』(연변대학출판사); 2000, 『발해의 주요교통로 연구』(연변인민출판사).

서는 이미, 8세기 특히 문왕대 전기로 파악하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그 근거로는, 757년에 쌓은 炭項關門에 주목하였는데, 이 關門은 이미 721년에 쌓은 長城에 기초한 것이다. 나아가 탄항관문 축조를 계기로 그 이전과 달리 신라와 발해는 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炭項關門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신라가 양국 간의 교섭창구로서 쌓았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6] 이러한 교섭창구의 존재는 당시의 발해와 신라가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보는 일본의 학자들의 그 주장과[7] 달리하는 것이다. 중국의 연구에서도 이 신라도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발해의 교통로를 소개하면서, 흑수도의 경우는 사료 상에 보이는 조공도라는 의미를 부각하여, 唐의 수도인 장안까지 통하는 길로 소개한다. 이러한 시각은 唐의 統一的多民族國家의 각지 정권 간, 혹은 지방정권과 종주국과의 통로로 설명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8]

그렇지만, 757년에 신라가 양국 간의 교섭창구로 보이는 炭項關門을 쌓았던 점으로 보아서는 양국관계를 적대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신라도가 통과하는 양국 국경지대의 관문인 것이다. 발해는 탄항관문을 지나야 신라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동해안을 따라 경주로 향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시발점인 남경남해부는 함경남도

5)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91.
6) 宋基豪, 1998, 「渤海 文王代의 개혁과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 6.
7) 鈴木靖民, 1998, 「渤海の國家構造」, 『しにか』 1998-9.
8) 王 俠, 2000, 「渤海國の海陸交通と隆盛した唐文化の東北アジアにおける傳播」 大阪經濟法科大學・北京大學考古學系 共編, 『7・8世紀の東アジア-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交流の再檢討』(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북청군의 청해토성에 비정되어지며, 동해를 따라 남하하는 「新羅道」를 수비하였을 것이다.[9]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신라와 발해의 관계사 연구는 대립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던 감이 있다. 무왕 시대인 733년 신라와 전쟁을 벌인 직후 상호 적대적이었다고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얼마 뒤인 735년 당은 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 주었고, 이후 신라는 이곳을 개척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개척은 대동강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던 발해를 방비하고자 하는 방어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日本이 발해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신라가 762년 5월 발해와의 서쪽 접경지역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다고 하여, 이때까지 양국 간이 적대적이었다고 본 견해도 있는데,[10]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감이 있으며, 757년에 신라가 양국 간의 교섭창구로 보이는 炭項關門을 만든 점으로 보아도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문왕(737~793) 후기에 들어 양국 간에 상설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渤海에 파견되었던 唐의 사신 韓朝彩가 이 新羅道를 이용하여 764년 신라로 갔으며, 790년 3월에 파견된 신라 사신 伯魚도 역시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 결국 文王 전기에는 신라와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류가 실현되

9) 김종혁, 2000, 『동해안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중심).

10) 鳥山喜一, 1968, 『渤海史上の諸問題』; 石井正敏, 1974, 「初期日渤交渉における一問題-新羅征討計画中止との関連をめぐって」, 『史学論集對外関係と政治文化』(吉川弘文館); 酒寄雅志, 2001,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関係」, 『渤海と古代の日本』(校倉書房).

고 있었고, 후기에 들어 신라가 전기에 이어 발해를 방비하기 위하여 변경을 경영하는 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양국관계가 원활해 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신라도의 설치와 그 성격과 함께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신라도는 고구려 때부터 이루어 진 동해안 교통로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된다. 또 문왕 후기에 들어 양국 간에 상설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이 신라도는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도는 발해 때 설치한 교통로로서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동해안의 주요 교통로로서, 또 후대 왕조의 동북 교통로 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Ⅲ. 신라도의 성격 – 발해와 신라간 적대적 관계설에 대한 재검토

탄항관문이 신라와 발해의 교섭창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신라의 대북방 축성 내지 개척사업의 성격 또한 달리 해석되어야 할 소지가 커진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 볼 것은, 7세기 이후의 신라 축성 사업에 대한 분석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다음의 기사들이 보인다.

①孝昭王 3年(694) 겨울에 松岳·牛岑·城을 쌓았다.(『三國史記』 卷8)
②聖德王 12年(713) 12월에 開城을 쌓았다.(『위의 책』)
③聖德王 17年(718) 10월에 漢山州 관내의 여러 성을 쌓았다.(『위의 책』)

④聖德王 20年(721) 7월에 하슬라도(강원도 강릉 부근)의 주민을 징발하여 북쪽 변경에 장성을 쌓았다.(『위의 책』)

이 중에 특히 ④의 기사는 발해와 신라의 대립관계를 증명이라도 하는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11] 그러나 721년을 중심으로 해서 발해와의 전투 기록이 없는 관계로 이 기사가 직접적인 대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12]

또 713년에 당이 형식적이나마, 발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신라로서는 발해-당의 접근이라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의식한 것이며, 718년 한산주 관련 사료 역시 발해를 자극시키게 하거나, 발해를 의식한 군사활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음의 사료들 역시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⑤聖德王 21年(722) 毛伐郡城을 쌓아 日本賊이 침입하는 길을 막았다.(『三國史記』 卷8)
⑥景德王 7年(748) 北邊을 검찰하였다. 비로소 大谷城 등 14郡縣을 둠(『위의 책』 景德王 7年條)
⑦景德王 21年(762) 6城을 쌓고, 각각 太守를 두었다. (『위의 책』)
⑧宣德王 3年(782) 漢山州를 순행하며 민가를 浿江鎭에 옮겼다. (『위의 책』)
⑨憲德王 18年(826) 牛岑郡 太守에게, 漢山 북쪽 여러 주군 사람 1만명을 징발하여 패강의 장성 3백리를 쌓았다. (『위의 책』)

11) 石井正敏, 1978,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5(朝鮮史硏究會); 임상선 편역, 1990, 『발해사의 이해』(신서원).
12) 송기호, 1989, 「東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발해와 신라」, 『韓國史市民講座』 第5輯(一潮閣); 趙二玉, 2001, 「8世紀 前半 新羅의 北方進出과 對渤海關係」,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硏究』(서경문화사), 100~102쪽.

즉, 713년의 開城 축성은 발해와 신라의 대립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

그런데 713년의 開城 축성과 관련하여 사료①을 참조하여 보면, 이미 694년 松岳이 축성되었으며, 文武王13年(673) 겨울에 唐兵은 高句麗 牛岑城을 쳐서 항복을 받아 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사료 ②의 713년 개성 축성은 바로 고구려 영토의 회복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발해에 대한 대비책으로까지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713년 당의 발해군왕 책봉 시기와 연결하여 신라가 발해에 대하여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곤 한다. 그러나 단지 713년의 해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 이 두 기사를 연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먼저 당이 신라를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곧 발해가 신라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둘째, 고왕 대조영 말기부터 신라와의 대립관계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시기 발해는 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정비해 나가는 단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당이 713년 발해군왕 칭호를 부여한 것은 당으로서 발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당이 발해를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시기는 발해 건국 64년 뒤인 762년이었다.[13]

이와 같이 본다면, 발해를 의식한 군사 활동은 713년 보다는 762년 이후에서 그 첫 단서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 본 炭

13) 韓圭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신서원) 및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硏究』(일조각).

14) 申瀅植, 1990, 「통일신라시대 고구려유민의 동향」, 『統一新羅硏究』(三知院).

項關門 축조 사실과 관련해서도 살필 수 있겠다. 이 관문이 721년 축조된 장성에 기초하여 간헐적인 교섭창구에서 정식적인 상설 교섭창구로 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721~762년 사이에 보이는 여러 축성 기사 중에는 발해와 신라의 직접적인 대립을 살필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든 축성관계 기사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관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14]

즉 위의 사료①, ②, ③ 등의 축성은 당·발해에 대비한 군사적 필요에서가 아니라, 예성강 이북의 고구려민에 대한 정치적 대응책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즉, 예성강 이북의 패서지방과 임진강에서 한강 유역에 이르는 이주민 지역과의 분리, 견제를 위해 그 중간지대에 開城을 축조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7세기말 이후 형성된 남북국 체제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할 때까지 이어졌다. 앞에서 발해가 설치한 신라도는 물론, 신라가 그 북변에 전개한 축성 사업들까지, 신라가 발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는 시각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다. 또 그러한 해석의 근거가 비논리적이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한편 북측의 연구 역시 관련 이해에 도움을 준다. 『조선전사』에서는 830년대를 기준으로 한 발해와 신라 관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발해의 732년 당 등주 공격이후의 일시적인 양국의 대립관계는 설정되었지만 결국 양국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경제 문화적 교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음을 언급하였다.[15]

15) 1991, 『조선전사』 5 중세편(백과사전종합출판사). 특히, 「제6장 발해 및 당나라, 일본과의 관계/ 제1절 발해와의 관계」 참조.

이처럼, 발해와 신라간의 대립관계라고 설정된 인식틀은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소지가 많지만, 워낙 발해 당사자의 기록이 없는 관계로 추측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발해·신라 관계사 연구의 방향은 물론 사료가 부족한 것도 있겠으나, 대립 내지 대결의 관계에 너무 주목해 온 감이 있다. 그 좋은 예가 732년에서 733년의 발해와 신라의 전쟁 문제를 부각시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발해와 신라 교류의 220년간 항상 그랬다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Ⅳ. 『태평광기』 소재 장인설화 분석

『新唐書』 新羅傳에는 다른 사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서술이 눈에 띈다. 이른바 長人 설화로, 이미 60년대에 분석이 행해졌는데,[16] 골 이 '장인' 또는 '장인국'이란 당시 신라가 대비하고 있었던 일본, 그 중에서도 蝦夷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최근 李成市의 반박 논고가 발표되었다.[17] 그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발해를 그 설화의 대상국으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9세기 사료에 보이는 寧靺國, 黑水國 등 신라 북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한 말갈족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16) 方善柱, 1963, 「新唐書 新羅傳所載 長人記事에 對하여」, 『史叢』 第3輯.

17) 李成市, 1991, 「八世紀新羅·渤海關係の一視角-《新唐書》新羅傳長人記事の再檢討-」, 『國學院雜誌』 92-4;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이 주장은 이후 일본의 발해사연구에 반영되어, "발해와 신라는 인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평한 바 있다.[18]

『新唐書』에 수록된 신라 관련 기사는 이같이 현재 신라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실로 인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1) 新羅는 弁韓의 후예이다. 漢代의 樂浪 땅에 위치하니, 왕으로는 1천 리, 종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은 長人에 닿고, 동남쪽은 日本, 서쪽은 百濟,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高麗와 접해 있다.[19]

특히 여기에 나오는 長人에 대하여, 같은 사료 신라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2) 장인은 그 키가 세 길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갈퀴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 몸을 덮고 있다. 火食을 하지 아니하여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 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婦人을 얻으면 衣服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의 산은 수 십리 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鐵闥(쇠문)을 만들어 달고 關門이라 한다. 新羅는 이곳에 항상 弩士 수 천 명을 주둔시켜 지킨다.[20]

18) 鈴木靖民, 1994, 「古代敦賀をめぐる對外關係-松原客館とその時代-」, 『松原客館の謎にせまる-古代敦賀と東アジア』(福井縣, 氣比史學會).

19) 新羅, 弁韓苗裔也. 居漢樂浪地, 橫千里, 縱三千里. 東抵長人, 東南日本, 西百濟, 南瀕海, 北高麗(『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20) 長人者, 人類長三丈, 鋸牙齒爪, 黑毛覆身, 不火食, 噬禽獸, 或搏人以食; 得婦人, 以治衣服. 其國連山數千里, 有峽, 固以鐵闥, 號關門, 新羅常屯弩士數千守之(『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이상과 같이 비합리적이라고까지 보이는 내용이 『신당서』라는 중국 정사에 당당히 수록되어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 수록에 대하여 일찍이 신라사 연구자들의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견문내용은 사실로 파악하는 것 같다.

顧愔이 惠恭王代 일어난 大恭의 난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이므로, 그가 당에 돌아가 저술한 『新羅國記』에는 이러한 난을 포함하여, 신라 국내 사정을 상세히 소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新唐書』 신라전의 기사일부는 이 『新羅國記』를 참조하여 서술한 것이라는 견해,[20] 또 『신당서』 소재 신라전의 내용을 풍속관련 기사로 보고, 8세기 대에 신라를 다녀간 唐의 사신이 실제로 견문했던 신라의 地勢와 關門의 모습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았다.[22] 즉, 지금까지 이 신라전의 내용을 고음이라는 당 사신에 의해 견문한 기록인 『신라국기』에서 그 원형을 찾아 왔다. 앞에서 든 일련의 연구 경향 또한 방선주의 언급에서 출발한다고 보인다. 그는 新羅傳의 문장구조의 분석비교를 통하여 '顧愔'의 『新羅國記』만이 이 長人記事의 원천이 될 것을 밝혔다. 또 718年 新羅에 使한 '고음'이 이 傳聞을 『新羅國記』에 수록한 것을 宋祁가 『新唐書』 신라전을 편집할 때 長人國이라는 관념을 심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3] 또 이 자료가 宋代에 이르러, 李昉(925~996) 등이 『太平廣記』에 이를 수록하여 전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筆記文學으로 장르가 설정되어 우리 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널리 유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던 설화집이라 할 수 있다.[24] 위의 장인 관련 기사는 이 설화집 권 제481 蠻夷2 〈新

21) 權悳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一潮閣).
22)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一潮閣).
23) 方善柱, 앞의 글.

羅>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25]

한편,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장인설화'는 신라와 발해의 대립관계를 묘사하는 자료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런데, 방선주의 견해에서는 이 장인을 달리 해석하고 있음을 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碧骨巨人記事의 발생 연유와 新唐書에 수록된 경위를 민족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여 검토하여, 新羅國의 碧骨巨人의 觀念信仰이 결국 신라인에 적대되는 異族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倭軍 중의 일부인 蝦夷兵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승을 양성하였다고 보았다.[26]

이상의 내용을 참조한다면, 당시 신라가 관문을 설치하고 노사까지 두면서 대비하고자 한 장인 또는 장인국이란 발해에 국한시킬 수 없으며, 그 이전 어느 때부터 형성되어 온 신라인의 북방에 대한 방어책의 한 반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장인의 구체적 대상은, 울릉도, 蝦夷, 日本, 그리고 신라의 경계 대상이 되었던 말갈계 변방민 등,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27]

이 기사는 신라도 설치와 운영과 아울러 신라와 발해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이는 남북국시대론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주장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24) 최근, 이 설화집의 완역본이 국내에서 간행되어 이 분야 연구에 도움을 준다. 김장환 • 이민숙 외 옮김, 2004, 『태평광기』 20 (학고방).
25) 김장환 외 옮김, 위의 책, 147~156쪽.
26) 方善柱, 앞의 글.
27) 본문 내의 사료 A-1) 중, "북쪽은 高麗와 접해 있다" 라는 내용 참조.

Ⅴ. 맺음말

발해가 7세기 이후 10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물류 유통의 주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대외교통로와 교역이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신라와 발해는 남북의 형세를 이루며 교통로를 통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전개하였을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사료와 해석이라는 양면적인 신라도 이해를 살펴보았다. 한 가지 전제하여 생각하여 볼 것은, 교류 혹은 교통이 반드시 평화로운 관계만에 한정하여 언급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활한 교통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진정한 교통과 교역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230여 년 간 북방의 역사를 이어갔던 나라로 인식하여 왔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발해는 북방을 영유한 마지막 국가였다. 고구려 다음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전하였던 나라인 것이다.

발해는 신라도 이외에도 일본도, 영주도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대외교통로를 개설하고 있었으니, 발해 역사의 폭넓은 개방성을 실필 수 있다. 이처럼 발해를 중심으로, 또는 발해와의 관련 속에서 교통로의 설치 의미는 단순한 교역 루트 정도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갈래의 교통로 중에서도, 新羅道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역사상의 해석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통교 흔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발해교통로 각각의 그 의미 부여가 분명하게 되어 온 반면, 신라도는 신라와 발해 관계를 통하여 언급되곤 있지만, 그나마

도 대립관계의 구도 속에서 언급되곤 하는 것이다.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라 명명되어, 7세기이후 10세기에 걸쳐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교류와 대결 이상의 경쟁 대상으로 보곤 한다. 『新唐書』 혹은 『太平廣記』 등에 소개된 〈장인〉 관련 설화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이다.

신라도의 의미가 다소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관련 사료가 없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사료 상에 그 교류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발해의 신라도 교류 역할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선입견의 작용은 아닌가 한다.

또, 732년의 등주 침공 이후, 신라가 발해 북변을 공격하였다는 기록 역시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절대적 자료는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新唐書』 중, 당을 도와 발해 남경을 공격했다는 기사에 관하여 각 사서가 서로 틀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시사하는 바 크다.[28] 실제로 이 발해원정에 대하여 그 후의 신라나 당의 사서에는 볼 수 없다. 이것은 그 원정을 꼭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29]

이와 아울러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발해와 신라의 교류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30] 특히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접한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에서 발해 시기의 벽화무덤 발굴 소식은 주목

28) 楊保隆編著, 1988, 『渤海史入門』(靑海人民出版社).
29) 박시형, 1979, 『발해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 50쪽.
30) 김종혁, 앞의 책 참조.

할 만한 성과이다.[30]

이상 살펴본 신라도는 여타 교통로의 설치 의미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본 발해와 신라 관계는 남북국시대론과의 연계성에서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라도의 운영은 바로 남북국시대론의 적극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31) 〈조선중앙통신〉 2004년 10월 21일자 보도 참조.

발해와 당의 경제교섭

-중국학계의 인식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윤재운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한·중간에 동북아시아 역사의 영유를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대상은 발해사였다. 발해사를 둘러싼 한·중간의 논쟁은 80년대 초반부터 중국학계가 발해사 연구를 본격화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이 때 중국의 발해사 연구의 배경에는 개혁개방 이후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내세우게 된 '統一的多民族國家論'이 깔려 있다. 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따르면, 각 시대에 존재하였던 많은 주변 국가·민족의 역사는 중원왕조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권의 관계로 규정되게 된다.

중국에서의 발해사 연구의 핵심은 발해국을 '唐의 지방 정권'이나 '당대에 소수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발해를 적극적

으로 중국사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발해를 매개로 만주지역(동북3省)에 대한 중국사의 시대적 범위를 唐 왕조까지 소급하여 기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점이 사실상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게 된 핵심적인 동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 다음의 타깃이 고구려사가 되리란 점도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었다고 보겠다.[1]

이하에서는 한·중간에 전개되고 있는 발해사의 귀속문제 가운데, 발해의 외교 특히 경제교섭인 무역에 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발해는 唐과 어느 나라보다도 빈번하게 접촉하였다. 발해가 신라와 5차례, 일본과는 34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비하여, 당과는 무려 100여 차례가 넘는 교섭기록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록만을 좇아 본 것이고 주로 발해 사신이 당에 파견되었던 것이 중심이지만, 양국의 관계가 신라나 일본에 비해 밀접한 관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조간의 교섭 의미를 횟수만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빈번한 접촉은 곧 두 나라간의 이해관계가 긴밀했었다는 하나의 방증일 것이다.[2]

이러한 발해의 대중국무역에 대해서는 발해사관련 개설서나 외교문제를 다룬 논문들에서 부수적으로 발해의 대중국무역에 대한 언급이 있어왔지만, 대중국무역을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해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정비과정에 유의하면서, 발해의 대중국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기환, 2004, 「동북아시아사에 대한 한·중간 역사 인식의 차이-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심으로-」, 『제47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집』, 15~18쪽.
2) 韓圭哲, 1996, 「발해의 대외관계」, 『한국사』 10-발해(국사편찬위원회), 114쪽.

Ⅱ. 발해와 당의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학계에서 발해를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보는 근거와 한계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중국이 발해를 고구려 계승의 자주국으로 보지 않고 당나라 지방정권의 말갈국으로 보는 근거는 『新唐書』가 발해 건국자를 粟末靺鞨로 여기며, 건국세력이 말갈이 다수였다고 하는 것에 근거한다. 다만, 속말말갈은 정치적으로 고구려에 부속되었던 별개의 종족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의 『新唐書』 등을 근거로 ①발해라는 국호도 唐으로부터 받았고, ②당으로부터 忽汗州都督府의 위치에 있으며 그 왕은 都督 등의 책봉을 받으며, ③당나라에 끊임없이 조공을 하였던 羈縻州의 관계였으며 ④黑水州(黑水靺鞨)에 파견되었던 것과 같이 발해에도 지역 관할관이었던 '長史'가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⑤문화적으로도 발해는 漢字를 사용하며 당 중심의 문화를 향유하던 왕조였으며 ⑥이러한 사실은 溫庭筠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발해와 당의 관계를 '詩書(車書)本一家'라고 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인가, 고구려와 다른 말갈국이었는가 하는 문헌적 근거는 『舊唐書』와 『新唐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의 『新唐書』는 중국에서 발해의 말갈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여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료이다. 즉 중국학계는 발해의 주민구성이 말갈과 고구려유민으로 나누어 있을 때 전적으로 전자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고구려계가 발해에서 남긴 영향을 무시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다음으로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논리로 주장되고 있는 한 근거인 발해의 국호 사용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 중국이 발해가 당나라로

부터 國號를 받았다고 하는 논리의 근거는 『舊唐書』의 "이로부터 비로소 말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발해로만 불렀다."이다. 그러나 위의 사료만으로는 발해라는 국호를 당에서 賜與했다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한다. 발해는 개국으로부터 '震國' 내지는 '渤海'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 말갈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말갈에서 발해로 국호를 바꾸어 부른 것은 당나라의 현실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외교행위였다는 것이다.[4]

한편 『舊唐書』에 발해 大祚榮이 당나라로부터 '忽汗州都督'의 冊封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역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발해왕들은 대조영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러나 발해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사실이 곧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발해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등에 대한 당나라의 책봉 행위가 곧 속국이나 지방정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상식이다. 아울러 발해의 조공 기록 역시 동아시아의 판영무역 차원에서 보는 것은 오해이다. 주변국들이 선진적 당나라로부터 경제·문화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무역과 외교행위 이상으로 보기가 어렵다.[5]

조공·책봉이라는 외교 형식은 중화적 세계관의 산물로서, 본래는 중국

3) 중국학계의 발해의 건국집단 및 주민구성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다음 논문 참고. 임상선, 2004, 「중국의 발해·고구려사 왜곡의 내용과 문제점」,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고구려연구재단 제1차 국내학술회의 발표요지문).
4) 한규철, 2004, 「발해의 고구려 역사 계승 문제」, 『韓國古代史硏究』 33, 104쪽.
5) 한규철, 2004, 위의 논문, 105쪽.

내부의 정치질서였지만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가의 군장에게 특정한 관작과 물품을 사여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공인하여 臣屬시키는 외교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책봉·조공은 中外관계의 한 유형이며, 중국적 세계질서를 규정하는 양식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남북조와 고구려, 백제가 맺고 있는 책봉·조공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양한 층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6]

발해는 당나라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발해인들이 당나라 賓貢科에 급제하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皇帝國의 면모까지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해가 독립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단순히 당나라의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다는 중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문왕이 자신을 大王, 聖人 등으로 부르면서 皇上이라 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天孫임을 자처하기도 하고, 주변의 말갈족을 번국으로 상정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당나라의 번국에 속하였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질서도 일부 갖추고 있었던 이중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7]

또한 중국학계의 주장과 같이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면 신라도 발해와 함께 평로치청절도사와 해운압신라발해양번등사의 관할이었다. 또한 발해는 '私謚' '私紀年'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발해의 중국에 대한 관계는 형식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흑수는 발해와 달리 당의 관리인 長史가 파견되었다. 만약에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흑수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발해는 사신이 아닌 관리가 당으로부터 파견되지 않았고, 특히 무왕이 동생인

6) 임기환, 2003,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관계의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32, 13~52쪽.
7) 宋基豪, 1998, 「발해 문왕대의 개혁과 사회변동」, 『韓國古代史硏究』 6.

문에의 말을 듣지 않고 당에 대항하여 본토를 침략한 것이나, 대문에 처리를 둘러싸고 당 조정을 적극적으로 비난까지 하였다.[8]

따라서 중국학계에서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Ⅲ. 발해의 무역망의 형성과 그 추이

발해는 唐과의 투쟁속에 건국하였고, 당·일본과 각각 713년·727년에 國交를 개시하였으나, 항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대당관계의 경우는 무왕때의 흑수말갈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대일관계의 경우는 무왕때의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외교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변나라와의 무역도계속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발해의 3대왕 文王은 文治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그가 사신을 당나라에 자주 파견한 데에서도 짐작이 간다. 그는 57년 재위기간 동안에 61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고, 많을 때는 한 해에 4차례 내지 5차례나 파견하였다.

한편 高王과 武王을 거쳐 계속적으로 수행되었던 말갈부족에 대한 정복활동은 文王 초기에 拂涅部, 鐵利部, 越喜部에 대한 복속이 단행됨으로써 일단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정복활동은 이후 宣王 시대에 재개된다. 그런데 740년대에 수행된 정복은 이들을 완전히 해체시켜 발해에 편입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수령을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8) 임상선, 2004, 앞의 글, 163쪽.

발해의 통제가 약화되던 802년, 841년에서와 같이 다시 독자적으로 당에 조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해는 신라·당과의 대립상황 가운데 대중국·일본외교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주변의 말갈부족을 포섭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말갈부족의 자율적인 대외통교를 발해왕권이 독점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것이다. 발해가 신라에 비해 지방세력(해상세력)과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사무역 관련 사료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발해의 재지세력 가였던 말갈족 수령들이 740년대에 발해왕권에 의해 흡수되어, 당이나 일본 사절단에 관리들과 같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721~757년 사이에, 특히 문왕 전기에는 양국 사이에 新羅道라는 교통로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 그러나 이 기간에는 발해가 신라국경선 가까이 진출하였고 신라가 이를 방비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양국간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757년에 이르러 721년에 축조한 장성에 炭項關門을 만든 것을 계기로 교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문왕 후기에 들어 양국간에 상설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10]

즉 신라가 영흥만 일대를 영토의 北境으로 위치 지우고, 675년에는 關城과 鐵關城을 쌓아 교류의 관리·통제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발해가 8세기 초에 한반도 북동부에 진출하자, 신라는 이를 721년에 長城으로, 景德王代

9) 新羅道 개통과 발해·신라의 교섭에 대해서는 尹載云, 2002, 「신라와 발해의 경제교섭」, 『史叢』 55 (歷史學硏究會) 참고.

10) 宋基豪, 1995, 「8세기의 遷都와 文王의 文治」, 『渤海政治史硏究』 (一潮閣), 106~116쪽.

(742~765)에는 炭項關門으로 발전시켰고, 발해도 新羅道에 南京南海府를 설치하여 교류의 관리·통제를 행하였다.[11] 이를 통해 신라와 발해 두 나라에 의한 무역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代)의 껄끄러웠던 당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정치 제도의 정비, 말갈 부족 정복을 통한 국가 교역 시스템의 정비, 新羅道 개통을 통한 남북교섭, 대외무역의 활성화 등을 이룬 문왕 전기(737~756년)가 발해의 貿易網이 성립된 시기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문왕후기부터 선왕즉위전까지의 발해무역의 推移에 대해 살펴보겠다. 문왕후기는 수도가 상경과 동경에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대당무역에서는 우선 안사의 난이 주목된다. 唐은 8세기중엽 安史의 亂(755~763)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각지에서 번진세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李正己·李納·李師古·李師道로 이어지는 李氏一家의 세력이다. 그들은 신라와 해상교통이 편리한 산동반도 전역을 장악하여, 3代 55年間(765~819)이나 治外法權的인 번진세력으로 唐內의 小王國으로 군림하였다.[12]

平盧淄靑藩鎭이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職名은 '平盧淄靑節

11) 古畑徹, 1999, 「環日本海諸'地域'間交流史の中の渤海國」,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刀水書房), 434쪽.

12) 金文經, 1975, 「唐代 藩鎭의 한 硏究-高句麗遺民 李正己一家를 中心으로-」, 『省谷論叢』6; 1984, 『唐代의 社會와 宗敎』(崇田大學校 出版部에 재수록); 鄭炳俊, 2002a, 「安史의 亂과 李正己」, 『東國史學』 37; 鄭炳俊, 2002b,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代宗時期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94; 池培善, 2003, 「고구려인 이정기의 아들 이납의 발자취」, 『東方學志』 119.

度觀察使海東諸國新羅渤海兩蕃使'인데, 이 職名은 羈縻政策으로서 주변 제민족을 통치하던 당이 변방의 국가 통치에 대한 업무를 부여할 때 除授하는 職名이다. 즉 이 직책은 '신라와 발해의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는 장관'이라는 의미이다.[13]

한편 『舊唐書』 이정기 열전에 발해 名馬가 계속하여 이정기의 平盧淄青藩鎭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발해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이 당 조정과 대립관계에 있던 이정기 藩鎭에 수입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安史의 난 때에 徐歸道가 발해에 기병을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사실[14]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정기의 淄青藩鎭에서의 무역활동을 소그드인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15]

발해는 국력신장을 위한 꾸준한 내적인 개혁과, 대당관계 특히 당 조정과 번진세력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를 통해 신라보다 국제적 위치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는 당시 안사의 난 이후 번진세력들의 할거로 계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당이 이정기의 平盧淄青藩鎭과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발해를 회유하기 위하여 발해에 계속적으로 進奉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6]

따라서 이정기 일가의 淄青藩鎭이 산동반도지역에 있던 765~819년에 발해는 당 중앙정부와 이정기번진과의 사이에서의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13) 사회과학연구소편, 1979, 『조선전사』 5-발해 및 후기신라사-, 48쪽.
14) 『續日本紀』 卷21, 天平寶字 2년 12월 戊申條.
15) 鄭炳俊, 2002b, 앞의 논문, 128쪽.
16) 최의광, 1999, 「渤海文王代의 對唐關係」, 『史叢』 50(高大史學會), 22~23쪽.

신라보다 국제정치 • 무역면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늠자인 遣唐使의 파견회수나 淄靑·淸眞과의 絹馬貿易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淄靑·淸眞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청해진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Ⅳ. 발해 중흥기 무역망의 재편

이번 장에서는 발해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는 선왕 • 대이진 시기의 대중국무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동아시아무역에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828년 청해진의 설치였다.[17] 828년 청해진 설치를 계기로 신라는 동아시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즉 재당신라인사회와 재일신라인사회 • 청해진을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 건설에 성공한 신라는 이전에 동아시아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발해를 대신해 새롭게 동아시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즉 청해진이 설치된 828년에서 장보고가 암살되는 841년까지 발해 사절의 일본왕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즉 장보고의 청해진에 의한 동아시아 해상무역 장악에 의해 그 이전시기까지 활발했던 발해사절의 일본 왕래[18]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7) 尹載云, 2003, 「8~9세기 동아시아의 교역-장보고의 청해진활동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66.

18) 尹載云, 2001, 「渤海의 王權과 對日貿易」, 『韓國史學報』 11의 〈표〉 왕권 강화기 발해 사절의 왕래와 〈표〉 왕권 동요기의 발해사절 참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장보고·신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보여진다. 821년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왕문구가 일본 귀족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그들과의 교역을 적극 전개해 나가자, 일본이 발해와의 사사로운 교역을 금지하면서 관리가 이를 어기면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서민이 어겼을 경우에는 100대의 매로 대신한다는 법을 정한 것[19]은 발해와의 외교를 크게 제한하였음을 의미한다.[20]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해는 당과의 외교를 적극 강화해 나간다. 즉 선왕은 818년부터 822년까지 2년마다 열렸던 대당외교를 824년부터 829년까지 매년 전개해 나갔다. 이처럼 발해가 집중적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장보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산동지방을 무대로 하여 주변지역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대규모 해상무역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의 대당외교 또한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등주에 新羅館과 渤海館이 설치된 것은 발해와 재당신라인, 특히 장보고와의 경쟁관계를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선왕의 다음 왕인 大彝震시기에도 계속된다.

大彝震은 즉위 초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정치·외교담당층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듯하다. 이것은 王弟와 王子層이 정치권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발해가 왕자층을 중심으로 대당외교를 추진한 것은 僖王 3년(815) 大庭俊[21] 이후

19) 『類聚三代格』 卷18, 夷俘幷外蕃人事.
20) 朴眞淑, 1998, 「渤海 宣王代의 對日本外交」, 『韓國古代史硏究』 14韓國古代史學會, 408~424쪽.
21) 『冊府元龜』 卷972, 外臣部 朝貢 5.

17년만의 일로, 대이진대 왕자들의 집중적인 활약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결국 왕족들은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부문까지 직접 참여하는 정국운영상의 변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이진대에 활약한 왕족 이외의 전문외교 담당층으로 賀守謙과 王文矩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이진이 841년 선왕대 왕문구가 파견된지 13년만에 일본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신라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장보고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따른 해상무역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장보고의 사망은 일본의 외교노선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였다. 이것은 840년 12월에 도착한 발해사신 일행이 장보고의 사망소식을 전달한 지 얼마 안되어 入京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나아가 천황이 발해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면서 대사 하복연 이하 20명에게 관위를 주는 각별한 대우를 해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대이진은 장보고의 사망으로 미약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역이용하여 선왕대 유지했던 당-발해-일본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감으로써 해동성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22]

22) 朴眞淑, 1999, 「渤海 大嵩璘代의 對日本外交」, 『韓國古代史研究』 15, 239~249쪽.

Ⅴ. 맺음말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代)의 걸끄러웠던 당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정치 제도의 정비, 말갈 부족 정복을 통한 국가 교역시스템의 정비, 新羅道 개통을 통한 남북교섭, 대외무역의 활성화 등을 이룬 문왕 전기(737~756년)가 발해의 貿易網이 성립된 시기로 판단된다.

발해는 安史의 亂기간(755~763)의 당 중앙정부와 반란군사이의 중립적 입장, 고구려 유민 李正己의 淄靑藩鎭과 당 중앙정부사이의 적절한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늠자인 遣唐使의 파견회수나 淄靑藩鎭과의 絹馬貿易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왕권동요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즉위한 宣王은 활발한 대외 정복활동과,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중흥의 기틀을 다졌다. 그 결과 사방의 경계와 5京 15府 62州의 행정구역이 이 때에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령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발해는 외교를 통하여 수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해 나갔다. 그리고 수령을 회유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 일환으로 발해가 수령을 교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업무, 예컨대 물품의 수취와 운반에 참여시킴으로써 회유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배를 유지해 간 것은 특기할 만하다.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통한 신라의 동아시아 해상무역장악에 대처하기 위하여 大祚榮은 즉위 초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정치·외교담당층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듯하다. 이것은 王弟와 王子層이 정치권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大祚榮은 장보고의 사망으로 미약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역이용하

여 선왕대 유지했던 당-발해-일본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감으로써 해동성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선왕의 중흥 노력에 힘입어 그 다음에 즉위한 11대왕 大彝震(831~857)으로부터 12대왕 大虔晃(857~871), 13대왕 大玄錫(871~894)에 이르기까지 발해는 크게 융성하여 마침내 중국으로부터 "海東盛國"이란 영예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멸망직전까지 활발한 대중국무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발해의 활발한 대중국무역은 신라정부와 신라상인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던 해상무역과 함께, 8~9세기 동아시아 무역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었고, 10세기 이후 거란·여진의 대외무역 발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중국·일본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교 연구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Ⅰ. 머리말

발해는 고구려에 이어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북방 지역의 국가였으나, 오늘날 '발해국'에 대한 역사해석은 관련 국가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지난 1980년대 이후 발해사 귀속을 둘러싸고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구려를 둘러싸고 다시 한중간에 다툼이 격화되었다. 고구려사 분쟁은 사실상 발해사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같이 발해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옛 발해의 영토가 오늘날 발해사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의 발해사도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발해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일반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교과서는 그 내용이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고, 관련 국가 학계의 일반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간의 견해 차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이하 본고에서는 발해사를 다루고 있는 남북한, 중국,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각국이 발해사를 자국의 역사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발해의 건국자와 주민

발해를 세운 인물은 일반적으로 대조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는 각국의 교과서의 서술이 매우 다르다.

『고등학교 국사』는 "고구려 장군 출신"[1]이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력사』1도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2] 하며, 남북의 학생들은 모두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임을 배우고 있는셈이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화강·흑룡강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한 지파인 "속말부의 수령"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였다.[3]

1)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04, 『고등학교 국사』, 62쪽.
2)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1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64쪽.
3)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 2001, 九年義務教育四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二册 (人民教育出版社 : 湖北), 16쪽.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어떤 민족의 출신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대조영에 대해서는 고구려계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말갈출신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왕족인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4]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로는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5]이라고 한 경우가 있다.

발해의 건국자에 대한 각국 역사교과서의 차이는 관련사료의 혼선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구당서』는 대조영을 '高麗別種'이라 하여 고구려계로 기술하고 있고, 『신당서』는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로서 대조영을 달리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일한 사료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쟁론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건국자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해의 주민 구성을 둘러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학교 국사』는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었다. 지배층의 핵심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인이었다"[6]고 하고, 『고등학교 국사』도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던 "말갈인"이라고 하였다. (193~194쪽) 이와 달리 『조선력사』1은 발해의 주민이 "고구려사람들의 후손"(67쪽)이라고 하며, 고구려주민들만을 기술하고 있다.

남북한 교과서는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발해 주민을

4) 2002, 『高等學校 世界史B』(第一學習社), 82쪽.
5) 2004, 『高校世界史B』(實教出版), 67쪽.
6)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 2004, 『중학교 국사』, 73쪽.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당서』와 『신당서』의 발해전에는 발해의 건국이 고구려 유민만이 아니라 말갈족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두 집단이 서로 협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7] 또한 국가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할 때, 발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말갈족을 고구려유민과 대립적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발해를 고구려계승국이라 하여 한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을 속말부의 수령이라 하고, 그 결과 발해는 "속말말갈의 정권"이라고 하고,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8] 『신당서』 발해전에서 '肅愼故地로서 상경을 삼고 용천부라 하였다'는 부분만을 인용하므로써, 발해의 말갈적 요소만 강조하기도 한다.[9] 그러나 같은 책에는 발해의 영역이 숙신고지 이외에도 濊貊故地(동경용원부), 沃沮故地(남경남해부), 高麗故地(서경압록부), 扶餘故地(부여부), 挹婁故地(정리부), 率賓故地(솔빈부), 拂涅故地(동평부), 鐵利故地(철리부), 越喜故地(회원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10]

일본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발해의 건국에 참여한 집단으로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을 서술하고 있다. "북으로 도망간 고구려인"[11], "고구려의 유민"[12],

7) 임상선, 1999,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신서원), 72~80쪽.

8)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 2002, 義務教育課程標準試驗教科書 『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3쪽.

9)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 1999, 『中國古代史』 (人民教育出版社), 198~199쪽.

10) 중국학계에서는 통일적다민족국가이론에 의하여 발해의 주민이 말갈 이외에 한족, 거란족, 해족, 돌궐족, 그리고 고구려유민까지도 포함된다는 이른바 '발해족' 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임상선 • 윤재운 • 김은국, 2004,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혹은 "舊高句麗의 系統을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조선반도 북부를 영역으로 삼아 성립한 국가"[13]라고 하며, 발해가 옛 고구려계통의 주민이 건국한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발해는 '말갈족과 고구려유민'에 의해 건국된 것[14]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Ⅲ. 발해의 문화

『고등학교 국사』는 "발해는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하층 촌락민들은 고구려나 말갈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194쪽)고 하고, 정혜공주묘의 구조, 상경성 궁궐의 온돌 장치, 불상, 그리고 벽돌과 기와 무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경은 당시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255쪽)고 당의 영향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기에 걸쳐 발해 문화에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발해사의 독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건국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 대략 1세기가 지난 8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구려의 영향보다는 그때는 이미 발해 독자의 문화라는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발해사

11) 2002, 『高等學校 世界史A』(清水書院), 13쪽.
12) 2004, 『高校世界史B』(實教出版), 67쪽; 2004, 『新世界史』(山川出版), 89쪽.
13) 2004, 『新選日本史B』(東京書籍), 39쪽 주3.
14) 2003, 『세계사B』(東京書籍), 102쪽; 2003, 『신편 고등세계사B 신정판』(帝國書院), 86쪽; 2003, 『詳說日本史B』(山川出版), 38쪽.

를 온전히 이해하는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력사』3은 상경성은 "고구려 평양성의 설계방식을 이어 받은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발해 건축물이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15]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발해 문화를 단군시대와 연관시키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16]

북한 학계는 발해의 정치제도나 문화의 모든 면에서 당보다는 고구려와 관련이 있거나, 발해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도, "발해와 고구려는 혈통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무덤의 깨임새와 묻기가 모두 같으며 생활풍습을 반영하는 살림집과 그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그릇과 무기 같은 것은 물론 기와나 조각품들이 서로 공통하다. ····· 일부 사람들이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고 그 문화가 높았던 것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력사에 대한 심한 왜곡과 날조"라고 주장하였다.[17]

이와 달리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당나라 문화의 영향만을 강조한다. 건국자나 주민구성에서 강조하던 말갈의 문화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당의 문화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는 "발해정권은 항상 귀족자제를 장안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당 문화는 발해에서 대대적으로 전파되었다"[18]고

15)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3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60쪽.
16) 임상선, 2004, 「북한 중등학교의 역사교과서 연구」, 『남북역사학논총』7-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3)(국사편찬위원회).
17)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력사과학』 1962-1; 주영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 『고고민속』 1967-2.
18) 課題研究所歷史課題研究開發中心編, 2002, 義務教育課程標準試驗教科書『中國歷史』七年級 下冊 (人民教育出版社), 23~24쪽.

규정하고 있다. 『중국고대사』에서는 "상경은 당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한 것" "궁전 초석의 배열이 당 大明宮 咸元殿과 비슷" "발해는 당조를 모방하여 郡縣制를 실시" "농업은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 "발해는 당나라에서 만든 삼색도기를 모방하여 '발해삼채'"라 하였다[19]는 등 제도나 문화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교과서의 내용은 중국 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의 발해사학계는 발해의 제도는 거의가 당나라의 것을 본받았는데, 다만 자기의 실제상황에 걸부시켜 적당하게 기구를 간소화하거나 적게나마 특유의 관직을 증설한 데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발해문화는 "당조문화 및 중국 고대 전통문화의 정체속에 넣어야만이 더욱 깊고도 투철하게 말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

일본 역사교과서도 발해가 '당의 제도·문화를 받아 들였다고 하면서, 이보다는 발해와 일본간의 문화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1] 桐原書店 『新日本史B』는 귀족문인들이 발해사신과의 禮作法이나 漢詩文의 교환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 의의를 찾고 있었다[22]고 하였다. 이것은 당이나 신라와의 교류가 끊기고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일본조정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바다 건너 발해의 사절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

19)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 1999, 『中國古代史』(人民教育出版社), 194쪽.
20) 위존성 저·방학봉 역, 1991, 「발해문화연구에 관한 몇개 문제」, 『발해사연구』 2, (연변대학출판사), 177쪽.
21) 가령 "발해의 궁궐 유적에서는 和同開珍이 발견되고, 일본에서도 발해계의 유물이 출토하는 등, 교류의 흔적이 알려지고 있다"(2003, 『詳說日本史B』(山川出版社), 38쪽 주4)한 것이 대표적인 기술이다.
22) 2004, 『新日本史B』(桐原書店), 82쪽.

을 이야기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23]

Ⅳ. 발해의 국가성격

『고등학교 국사』는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발해국의 위상을 설명하기를,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63쪽)고 보았다.[24]

『조선력사』 1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주변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심지어 "장문휴를 대장으로 하는 수군으로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여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았다(67쪽)고 할 정도였으며, 9세기에 들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의 칭호를 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발해를 전적으로 당의 지방정권이라 하여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7세기말 수령 대조영이 각 부를 통일하고 속말정권을 세우고 당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여 속말을 발해로 이름을 바꿨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조영이 발해군왕과 홀한주도독으로 책봉을 받은 것은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내의 하나의 州"가 된 것[25]이라고 하였

23) 김경일 • 임상선 • 정혜경, 2003,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 • 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한국정신문화연구원), 97~98쪽.

24) 이밖에도 발해 문왕대의 황제 칭호 사용,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의 국제교류와 무역 활동 등이나 『新唐書』와 『舊唐書』 발해전에서 8세기 중엽 이후의 발해가 '郡'에서 '國'으로, 왕은 '郡王'이 아니고 '國王'이 된 것도 발해가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25)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編, 1999, 『中國古代史』(人民教育出版社), 193~194쪽.

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당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모두 당이 요구하는 외교적 절차로서 조공과 책봉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해와 당이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은 관계라는 것은 '疆理雖重海 車書本一家'[26]라는 당나라 시인 온정균의 시를 예로 제시하고, 나아가 발해와 당이 같은 제도, 즉 동일한 국가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당의 문인들과 대등할 정도로 발해왕자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오히려 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27]

또한 『중국고대사』(198~199쪽)는 '독해와 사고' 단원에서 발해가 수나라 시대에 이미 당조에 귀부하고, 대조영이 발해군왕에 책봉되고, 그 후 매년 공물을 바쳤고, 또한 발해왕이 당에 학생을 보내 제도를 배웠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는 문항에서 "국외의 어떤 학자들은 발해국이 중국의 밖에 독립적으로 선 고대국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열독 재료를 상술한 후"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지만, 발해가 독립국가라고 대답할 학생은 하나도 없게 된다.[28]

그리하여 『중국역사』와 달리 『世界歷史』에는 '제10과 동아시아의 봉건국가' 단원에 '신라의 통일과 조선왕조의 건립'과 '일본의 대화개신' 항목만 있고, 발해는 없다.[29]

---

26) 『全唐詩』 제9함 제5책, 「送渤海王子歸本國」.
27) 임상선, 2004, 「중국의 시기별 발해사 연구동향」,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고구려연구재단), 47쪽.
28) 임상선, 2004,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구려·발해사」, 『대고구려역사 중국에는 없다』(예문당), 336~337쪽.
29)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編, 2003,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世界歷史』

일본 역사교과서는 전체적으로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해는 7~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면서 언급되고 있으니, 그 국제질서란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이다.

발해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당의 책봉을 받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30] 그러나 발해의 왕이 당으로부터 모두 책봉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책봉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들 왕이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1] 그리고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발해의 입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류의 기회를 통하여 발해에 필요한 각종 문화,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당시 동아시아세계의 선진지역인 당과 교류를 가진 모든 국가가에의가 아니었다.

한편 발해와 일본간의 관계에 대해서 山川出版『新日本史』는 발해가 7세기말에 諸 민족을 통합하고 건국된 후, "당이나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자주 사자를 파견하여 臣從하는 형태"를 취하고, 일본도 발해를 "蕃國으로 위치지우고, 일본은 종속국으로 다루려고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32]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발해의 교류 관계를 지나치게 일본사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7세기말 이후 당, 신라, 발해, 일본의 관계를 당과 일본이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발해와 신라는 정세 변화에 따라 당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며

第一冊 (人民教育出版社), 48~51쪽.

30) 2004,『世界史A』(東京書籍, 13쪽; 2004,『高校世界史B』(實教出版), 64쪽; 2004,『世界史B』(三省堂), 67쪽.

31) 임상선, 1997,「渤海의 王位繼承」,『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학연문화사).

32) 2004,『新日本史』(山川出版), 55~56쪽.

신종하는 존재로 설정한 것이다. 발해와 신라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주변 정세에 따라 일본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해가 8세기 중엽 이후 멸망 전후까지 일본보다도 더 교류에 적극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의도는 어디까지나 무역에서의 이득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역교류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은 가능한 일본의 무리한 요구라도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해가 일본에 신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설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33]

Ⅴ. 발해사의 계승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멸망후에는 어떤 나라가 이 발해를 계승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고등학교 국사』는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高麗' 또는 '高麗國王'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하고, 그 결과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62쪽)

『중학교 국사』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나 나라가 망한후 그 땅은 여진, 거란에 들어갔다는 것과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발해를 포함하지 않은 고려, 조선의 통일은 "반쪽 통일이요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86쪽)고 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33) 김경일 • 임상선 • 정혜경, 2003,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 • 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한국정신문화연구원), 96쪽.

『조선력사』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고려의 해석에서는 남북간 차이가 있다. 고려가 발해를 '우리 겨레의 나라'라 하며 그 강토와 유민을 '혈육의 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려가 계승한 것은 발해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남북의 서술이 일치한다.[34]

일본도 발해가 말갈 혹은 고구려유민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 멸망후의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책 앞 혹은 뒤에 있는 연표(도표)에는 해당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국가별 흥망, 혹은 계승관계를 요약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해에 대한계승관계를 엿볼 수가 있다.[35]

이 연표는 첫째, 고구려와 발해간 계승관계 없이 고구려는 신라에, 발해는 遼에 정복되는 것으로 표시한 교과서[36], 둘째, 발해사는 멸망 후 중국사로 연결되지만 고구려사는 멸망 이후의 계승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교과서,[37] 셋째, 발해사의 귀속이나 전후 계승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고구려사도 멸망 후 계승관계를 알 수 없는 교과서[38]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밖에 고구

34) 2001, 『조선력사(고등중학교 제4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5쪽.

35) 임상선, 2002,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발해 관련 내용 연구」, 『社會科敎育』 제41권 2호(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및 김경일 • 임상선 • 정혜경, 2003,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조사 • 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 2004, 『高校世界史B』(實敎出版), 세계사對照略表(책 뒤 속지); 2004, 『世界史B』(三省堂), 세계사對照略表(책 뒤 속지); 2004, 『高等學校 世界史B』(淸水書院), 諸國 • 諸王朝對照表(책 앞 속지); 2004, 『新選日本史B』(東京書籍), 卷末 年表(291~292쪽.)

37) 2004, 『世界史A』(一橋出版), 나라와 왕조의 흥망 對照略表(책 앞 속지).

려는 한국사가 분명하지만, 발해는 중국(唐)사와 한국(新羅)사 모두에 걸쳐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39] 이것은 현재 남북과 중국 학계 주장의 중간 형태에 가깝다. 고구려에 이어 발해를 연결하고, 다시 발해 밑에 거란, 金, 몽고를 차례로 배치하고, 발해 옆에 신라와 고려를 표시한 드문 경우도 있다.[40]

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건국되고, 그 후 거란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할 뿐 계승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학계가 거란과 이것에 이어 북방지역에서 일어난 금나라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 하고 있으므로, 중국 역사교과서가 발해사를 중국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Ⅵ. 맺는말

남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학계에서는 발해를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발해를 자신의 조공국, 중국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하며 발해를 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각국의 교과서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남북한과 중국간의 발해사 논쟁의 최종 종착점은 발해국의 귀속문제일 것이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역사

39) 2002, 『新日本史A 改訂版』(清水書院), 192~193쪽의 '역사연표'.

40) 연표에서는 막대 그래프의 朝鮮칸에 백제, 신라, 고구려를 표시하고, 고구려 밑에 발해를 표시하고, 발해만이 아니라, 거란, 금, 몽고까지도 조선에 포함시킨 특이한 형태이다. (2002, 『現代の日本史 改訂版』(山川出版), 183쪽의 연표)

적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양국 학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북방지역에 대한 현재 한중 학계의 인식은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가령 양국의 교과서를 통하여 이러한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중원지역에 비해 동북지방이 오늘날도 여전히 **邊方**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요나라와 금나라의 역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정통의 중원 역사가 아닌 비정통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교과서에서 동북지방은 변방의 역사인 것이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선사시대로부터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에 이르도록 북방지역을 역사의 주요한 활동무대로 삼아 왔다. 우리가 북방지역과 역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온 기간은 중국이 주장하는 1천년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수십만년에 이른다.

최근 동북공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측의 고구려사 왜곡도 사실상 발해사 왜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에서는 중국과 발해사 논쟁시 발해가 한국사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주로 이전의 고구려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고구려가 한국사임이 분명하므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응당 한국사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구려사도 중국사라고 하는 중국 학계의 주장은 그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서 남북한의 발해사 입론의 뿌리를 송두리채 흔드는 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상의 중국의 역사왜곡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무시하거나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역사는 점차 중국역사교과서에서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Могилы бохайских воинов найденные в могильнике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Суйфун в 2003–2004 году.

Ю. Г. Никитин.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Po–hai = Palhae), которое существовало в течение 229 лет в Маньчжурском регионе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глубоко интересует ученых Кореи, Китая,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В Корее, Китае и России так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обусловлена тем, что земли самого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на соврем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этих стран. В Японии повышенный интерес к археологии Бохая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бъясняется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исторических записей об интенсивном обмене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Бохае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этот интерес обусловлен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изучения больш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коллекции, полученной в результате раскопок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о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Маньчжоу–Го.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в самом Бохае собствен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истории, среди ученых этих стран слож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стройств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татуса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снов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определяются во взглядах на степень независимости Бохая и 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его населения. В этом плане, ученые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и,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считают Бохай независимым от Китая государством. Большинство же китайских ученых, рассматривают Бохай как "средневековый автоном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 Китая эпохи Тан".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населения Бохая, 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их,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японские ученые считают, что Бохай был создан на месте разруше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е и когуресцы в этом государстве правили, а мохэские племена управлялись ими.

Из официальной истории Танской династии известно, что Бохай унаследовал от Когуре многие обычаи и церемонии, в том числе отопительную систему и погребальный обряд. Такие черты,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бохайских погребений, как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аменных кладок стен, каменной камер и гробов, ведут св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от могил когуреских

аристокра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которое входило в состав Бохай с середины VIII века, располагались бохайские города и крепост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селения и храмы, отдельные мастерские и ремесленные центры. Материал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что бохайцы занимались земледелием 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ом, охотой и рыболовством, морскими промыслами. Занимались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ремёслами, в том числе обработка черных и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гончарство, ткачество,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а и архитектура.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изучение одной из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единиц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области Шуайбинь, названной по реке (Суйфэнь, Суйфун, Раздольная), в долине которой располагался её центр.

Среди бохайски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в Приморье, но и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Бохая,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могильник Чернятино 5, на котором обнаружены мохэские и бохайские погребения разного времени. Исследования этого памятника показали его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важность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й хронологии и периодизации всех мохэских и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Могильник,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невысокой террасе ключа Орловского в 3.3 км к юго–западу от села Чернятино

Октябрь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ыл обнаружен Ю. Г. Никитиным в 1997 г. В 1998 году были начат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ые ведутся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В 2003–2004 года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могильнике Чернятино 5 (рис.1) проводились совместно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оссия) и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уё,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о раскопано почти 500 кв. метров и обнаружено 25 могил, в том числе три могилы в каменных склепах, остальные грунтовые. Среди раскопанных могил, особенн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захоронения бохайских воинов, найденные в могиле № 62, 63, 64 и 69 на Раскопе 2, а также в могиле 71 на Раскопе 3(рис. 2).

Могилы 62 и 63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раскопа 2. Обе он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погребения в земляных ямах, на дне которых были уложены мелкие камни.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фрагменты лепной керамики – по одному сосуду в могиле и в каждой могиле было найдено по одному обломку меча (рис.3).

Могила 64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в 2,5 м к юго–западу от М.63 на фоне плотного серого суглинка в виде темного пятн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с юго–востока на северо–запад. Длина

могилы 1,4 м, ширина 0,7 м, глубина 35–42 см. Дно могилы было плотно уложено мелкими и средними гальками. Вдоль юго–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могилы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сгоревшие остатки деревянного гроба или рам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углу могилы был обнаружен целый станковый сосуд, который стоял вверх дном, а в юго–восточном углу могилы был найден железный наконечник копья (рис. 4).

Могила 69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в 2 м к юго–западу от М.64, также ориентирована с юго–востока на северо–запад. Длина могилы 1,7 м, ширина 0,7 м, глубина 0,23–0,27 м. Могила была сооружена в котловане, длиной чуть более 2 м и шириной 1,2 м. Все дно могилы также было плотно уложено мелкими камешками. По периметру этих камней удалось проследить остатки деревянной рамы.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могилы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два целых мохэских сосуда, железный меч, наконечник копья, каменное точило и обломки железной пряжки (рис.5).

Все эти могилы (62,63,64 и 69)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почти на одном уровне (горизонте), почти на 20 см ниже грунтовых могил следующего (верхнего) уровня (горизонта) и вытянуты в ряд с юго–запада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 как будто вдоль улицы. Все эти могилы имеют одинаковую конструкцию, примерно одинаковые размеры и однотипный инвентарь. Поэтому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эти погребения в этих могилах были

сделаны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судя по остаткам оружия, в них были погребены воины. Есть радиоуглеродная дата, полученная по остаткам сгоревшей каши в могиле № 60,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этом же уровне, но только и в 2 м к западу – ТКа –13488 (ВР1310±50 = 695 AD) и ТКа –13489 (ВР1310±45 = 690AD), что примерн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концу седьмого или началу восьмого века нашей эры, т.е. начальному периоду раннего Бохая.

Могила 46 – погребение в каменном склепе, обнаруженное на Раскопе 3 (рис.6).

На месте этого склепа каменные плит были видны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еще до начала раскопок, а после снятия дерна сразу выявились все перекрытия и стены склеп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длинной стороной с северо–запада на юго–восток. Юго–западная стена была соединена каменной кладк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на северо–запад, 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стена соединена с отдельным каменным сооружением в виде прямоугольной формы. Вся эта камен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вместе со склепом М.46 имела длину 16 м и ширину 11м (рис.7). Длина самого склепа с М.46, включая входную часть, была 4,6 м, а ширина 3,4 –3,5 м. После снятия восьми сохранившихся каменных плит перекрытия склепа были выявлены контуры всех стен. Две плиты были найдены у входа внутри, одна снаружи, которая,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в качестве ворот.

Все плиты были сдвинуты со сво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места. Ниже верхних плит оказалось еще 4,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один ряд вдоль центральной оси. Эти плиты были меньше и тоньше верхних перекрытий. Остальные шесть плит перекрытия расположенных у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и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стен сохранились на своих местах, но обрушились внутрь. Склеп, вероятно, был сооружен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сначала выложили первый ряд камней в один ярус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делали его форму. Потом, отступив чуть назад, сверху положили еще ряд камней в виде ступеньки. Поэтому, очевидно, что найденные перекрытия не возвышались над плоскостью стен, а лежали прямо на камнях второго и/или третьего яруса стен склепа. Если эт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является правильным, то оказывается, что перекрытия находились на высоте всего 20–30 см от дна склепа. Видимо, склеп построили, не копая яму, прямо на древнем горизонте после выравнивания поверхности земли, поскольку дно склепа находилось выше материка (около 14см) и почти на одном уровне с верхней частью грунтовой могилы. Основание склепа сооружено из камней длиной 20–35см и шириной около 15см. Коридор и вход были расположены прямо вдоль центральной оси склепа. Стены склепа сооружены из плоских камней в виде кладки, а пространство между камнями в некоторых частях заполнено землей. Сам склеп имеет в плане трапециевидную форму:

входная часть шире, противоположная ей – уже. Размеры склепа: правая стена (от входа) – 2,44 м, левая стена – 2,49 м, противоположная входу стена – 1,05 м, входная стена – 1,54 м. Размеры коридора: ширина 0,85 м, стены коридора в правой части длиной 1,3 м, в левой части длиной 0,93 м. Ширина стен склепа – 1,0–1,1м. Во всех стенах склепа сохранились по 4 яруса камней, а в некоторых частях 6 ярусов. Средняя высота стен около 65см (рис. 8). Входная часть склепа чуть ниже, чем противоположная ей часть. Заполнение склепа начиналось сразу ниже 4 плиты, расположенной по центральной оси склепа под перекрытиями. Следов огня, гроба и костей найдено не было, но мелкие фрагменты обожженных костей и угольки были разбросаны беспорядочно внутри камеры. Поэтому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сжигание произошло в другом месте, и уже сожженные останки были положены в склеп (возможно даже без гроба). Находок почти нет, но на дне склепа найден один очень маленький фрагмент сосуда, ниже стены входной части – также очень маленький фрагмент сосуда. 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склеп был ограблен еще в древности. Радиоуглеродная дата для М.46. – B.P.1190±40(830AD).

Могила 70 – погребение в каменном склеп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в 5 м к северо–западу от М.46 на раскопе 3.

Некоторые камни каменного склепа М.70 были видны уже прямо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а после снятия дерна сразу появилась

каменная кладка и перекрытия склепа. Основной склеп имеет почти прямоугольную, чуть вытянутую форму. Длинная ось, направленная по линии ЮВ–СЗ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8 м, по линии ЮВ–СЗ около 6 м (рис.9). Под верхней кладкой нашли основной склеп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с левой стороны. Три плиты перекрытия, сохранившиеся у правой стены, были положены немного наклонно к внутренней части. Остальные перекрытия либо стояли вертикально, либо были навалены друг на друга. В левой части склепа сохранились 3–4 ряда плит,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ложены толстыми краями к стенам. Стены склепа сооружены из 6–7 ярусов плоских камней, снаружи видно только один ярус. Общая высота всех 4 стен – до 57см. Ширина правой стены, которая хорошо сохранилась, около 1,1 м. Общие размеры склепа вместе со стенками: длина 4,9 м, ширина 4,25 м, внутренние размеры стен склепа: задняя 2,05 м, передняя 1,76 м, левая 2,58 м, правая 2,60 м. Вход найден не был. В нижнем левом углу и на дне могилы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сгоревшие кости человека, разница уровней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10 см, причем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были найдены кости, скорее всего, младенца. В кладке и в промежутке перекрытий встречены фрагменты сосудов и фрагмент железного ножа (рис.10). С левой стороны основного склепа находило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мещение, причем его нижняя стена являлась продолжением нижней стены основного склепа. Но остальные стены

сооружены только из одного яруса камней. Внутр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омещения обнаружены зубы коня и фрагменты керамики.

Могила 71 – погребение в каменном склеп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в 1 м к северо–западу от М.70 (рис.11).

Каменный склеп М.71 находился рядом со склепом М.70. Стена рядом с входом М.71 была частично перекрыта стеной М.70, поэтому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склеп с М.71 был сооружен раньше, чем склеп с М.70.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дерна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признаков существования М.71. Когда сняли дерн, то сразу выявилась поверхность стен склепа, а не кладки перекрытия. В склепе М.71 сохранились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о плит перекрытия, в связи, с чем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клепа М.70 частично использовали камни из склепа М.71.

Склеп с М.71 имеет в плане прямоугольную форму, ориентирован с ЮВ–СЗ, вход с юго–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Форма стен склепа сохранилась хорошо,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первоначальную ширину стен и методику ее сооружения. Стена была сооружена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из 4 ярусов камней положенных в 4 ряда, общей высотой около 50 см. Причем видно, что сначала положили 2 ряда камней внутри и снаружи, потом добавили еще 2 ряда более мелких камней. В основании стены сложили плоские камни длиной около 40см и

толщиной около 8–10 см, потом выше их сложили камни несколько меньших размеров. Шири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стены около 1,05 м. На входе имеется порог из камней размерами около 15x9x6см. Все стены могилы довольно хорошо сохранились, кроме части левой стены у входа, которая была перекрыта стенами М.70. Общие размеры склепа со стенами: длина 4,67 м, ширина 4,36 м. Внутренние размеры склеп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стена длиной 2,75 м, юго–западная стена длиной 2,78 м, северо–западная стена длиной 2,5 м, юго–восточная стена длиной 2,43 м. Ширина входа 0,72 м (рис.12).

В правом нижнем углу могилы обнаружена плита перекрытия, в правой средней части могилы и ниже ее находилось скопление мелких камней. Еще ниже, в средней части могилы обнаружена еще одна плита перекрытия, под которой был найден скелет человека в анатомическом порядке (скелет №1 – рис.13). У стоп этого скелета находились кости и зубы животного. Слева от черепа этого скелета находился еще один череп и другие кости человека (скелет №2). У входа в склеп найдена сердоликовая бусина, еще одна была найдена около черепа скелета №1. В районе тазовых костей скелета №1 был найден железный наконечник стрелы, а в части ноги – железный наконечник дротика (рис.14). У скелета №1 сравнительно хорошо сохранились череп, кости рук и ног, но остальные части плохо. Приблизительный рост человека по

скелету №1 около 165 см. У черепа неплохо сохранились его форма и зубы. Поэтому, скорее все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анализ DNA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Но уже сейчас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судя по зубам, возраст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превышал 35 лет.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у этого скелета в тазовой части и ноге воткнуты наконечники стрелы и дротика, м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этот человек был убит в бою, то есть он был военным. А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для его погребения был сооружен такой большой каменный склеп, то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это был не просто военный, а военачальник – т.е. человек довольно высокого ранга.

Скелет №2 очень плохо сохранился. Однако около черепа этого скелета, в самом углу могилы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три целых сосуда, стоящие вверх дном (рис.15).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следов гроба или каких–либо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оба скелета были найдены примерно в 15 –20 см над уровнем пола. Кроме того, интерес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первые на могильнике Чернятино 5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не кремация, а трупоположение.

Бибдиография

1. Nikitin Y., Gelman E.1998. Burial ground of early medieval epoch in the basin of Suifun river. The Society of North–Eurasian Studies Newsletter No

10, Tokyo:11 –16.

2.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1998. Итог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Россия и АТР, №1, 1998,Владивосток: 65–71.
3.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1998.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98 году. АО 1998. М.
4. Никитин Ю.Г. 1999 Раздольная кава рю:ики–но мокацу, боккай–но боти исэки: [Мохэ–Боха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в долине р.Раздольная]. Кодай кокка боккай–то ниппон–но ко:рю:–ни кансуру кохогакутэки тёса:[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бмена между древн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Бохай и Японией].Аояма Гакуин, Токио: 20–23.
5.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2002.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Раздольная.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д–во ДВО РАН. Владивосток: 195–215 Совместно с Е.И. Гельман).
6. Никитин Ю.Г. 2003.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Раздольная. Аояма ко:го, № 20. Токио: 99–118.
7. Никитин Ю.Г. Чжун Сук–Бэ. 2003. Боха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Чернятино 5 в Приморье. Новейшие результаты археологии Бохая. Материалы юбилей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ул: 27–39.

수이푼 강 연안 체르냐티노 5 발해 武將 古墳

유리 니키틴 (극동국립기술대학교)

동아시아 만주지역에서 229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존속했던 발해에 대한 역사와 고고학적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한국, 중국,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발해 연구에 대한 관심은 발해의 영역이 이들 국가들의 현재 영토 내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학자들의 발해 고고학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한편으로는 발해와 일본 간의 밀접한 교류에 관한 각종 사서기록들에 대한 연구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국 시기 일본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발해 유적지들에 대한 발굴 작업 결과 수집된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 발해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기록된 고유한 사서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들 나라 학자들간에는 발해국의 성립, 정치 체제와 국제적 위상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형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차이점들은 발해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당시 발해인들의 민족적인 구성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독립국으로서의 발해의 지위에 관해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와 일본은 발해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간주한다.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발해를 "당나라 시대의 중세 자치 지구" 정도로 평하한다.

발해인의 주민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학자들 대부분과 일본학자들 중 일부가 발해는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창건되었으며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었으며 말갈족들은 고구려인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간주한다.

중국 당나라 사서에 준하면 발해는 많은 고구려의 풍속과 의식을 계승하였으며 이 중에는 난방 시스템과 묘제도 포함되어 있다. 발해시대 묘제에서 특징적인 석벽, 석실과 석관 등의 사용은 고구려 귀족 무덤에서 유래하였다.

8세기 중반부터 발해의 영역이었던 연해주 남부 지역에는 발해의 성터들과 성벽들, 많은 수의 발해시대 주거지와 절터, 발해시대의 독립적인 제공 및 수공업 관련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 동안 발굴된 고고학적 출토 유물들은 발해인들이 농경과 가축 사육, 사냥, 낚시와 해양 어로업 등에 종사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발해인들은 철과 비철금속 제련, 도자기 제작, 방직, 토목과 건축 등의 여러 가지 수공업에도 종사하였다. 이런 점에서 발해의 행정적인 중심의 하나였던 솔빈부에 대한 연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발해 유적지중에서 연해주 내에서만이 아니라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전체 영역 내에서 체르냐티노 5 고분은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여러 시기의 말갈과 발해의 고분들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본 유적지의 연구는 연해주의 전 말갈 문화 유적과 발해 문화 유적들의 상호간 연대기와 시기구분을 위해 의미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연해주 아꼬짜브리스키 지역 체르나티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3.3㎞ 떨어진 오를롭스키 샘터의 높지 않은 段丘 지역에 위치한 고분은 1997년 Y.G. 니키틴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1998년 고고학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 동안 거의 500㎡가 발굴되었고 25개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 3기는 석실분이고 나머지는 토광묘이다. 발굴된 고분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발굴 2의 고분 M.62, M.63, M.64 와 M.69, 발굴 3의 고분 M.71 에서 발견된 발해 武將들이다(그림 2).

고분 M.62 와 M.63 은 발굴 2의 북부 지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둘 다 토광묘였는데 바닥에는 작은 돌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 각각에서 토기 편들이 확인되었는데 한 기의 고분에 하나씩이었으며 또한 대검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각각의 고분에서 하나씩 발견되었다(그림 3).

고분 M.64는 고분 M.63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5m 떨어져서, 남동에서 북서를 지향하는 검은 흔적의 빽빽한 회색 사질점토를 배경으로 해서 발견되었다. 고분의 길이는 1.4m, 폭은 0.7m, 깊이는 35~42㎝ 였다. 고분의 바닥은 작거나 중간 크기의 조약돌로 빽빽하게 덮여있었다. 고분의 남동쪽 선단을 따라서 타버린 나무널과 나무뗏널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고분의 북동쪽 모서리에는 바닥을 위로 하고 거꾸로 선 완전한 형태의 토기가 수집되고 남동쪽 모서리에는 철제 창의 선단부분이 수집되었다(그림 4).

고분 M.69 는 고분 M.64로부터 남서쪽으로 2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역시 남동에서 북서쪽을 지향하고 있었다. 길이는 1.7m, 폭은 0.7m, 깊이는 0.23~0.27m 였다. 고분은 길이가 2m 가 넘고 폭이 1.2m 인 토광에 구축되었다. 바닥 전체는 작은 돌들로 빽빽히 깔려 있었다. 이 돌들 주변으로 나무뗏널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고분의 북서측에는 2개의 완전

한 말갈 토기, 철채 대검, 철재 창의 선단부, 숫돌과 철제 물림쇠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그림 5).

이 고분들(M.62, M.63, M.64와 M.69)은 바로 상층의 토광묘들 보다 20cm 아래 정도에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마치 길을 따라 늘어선 듯 거의 동일 수준 지평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기도 비슷하고 출토된 유물들도 비슷하였다. 이 때문에 이 고분들은 같은 시기에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된 무기들의 파편들에 주목할 때 武將들이 매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바로 동일한 수준 지평에 단지 2m 떨어져 위치한 고분 M.60에서 수집된 확인된 유물들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TKa –13488 (BP1310±50 = 695 AD)와 TKa –13489 (BP1310±45 = 690AD)였으며 이는 7세기 말 8세기, 즉 초기 발해 시기에 해당한다.

고분 M.46은 발굴 3 에서 발견된 석실분이다(그림 6).

바로 이 석실분이 있던 위치에는 발굴 전 이미 지표 상에 판석들이 발견되었으며 잔디 층을 제거한 후 바로 무덤방의 모든 덮개와 벽들이 드러났는데 이 고분은 무덤방의 길이 지향선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을 지향하고 있었다. 남동쪽 벽은 북–서측 지향의 석단과 연결되고 북동쪽 벽은 장방형의 독립적인 석재 구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46의 전체 석실분의 길이는 16m , 폭이 11m였다(그림 7). 玄室 자체의 길이는 널길을 포함하여 4.6m 이고 폭은 3.4~ 3.5m였다. 현실을 덮고 있는 8개의 판석을 제거한 후 현실의 모든 벽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2개의 판석이 널문 안에, 1개의 다른 판석은 널문 밖에 있었는데 밖에 있던 1개의 판석은 출입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판석 들이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져 있었다. 하부 판석들은 4개였는데 중앙축을 따라 일렬로 놓여져 있었다. 이 판석들은 상단 덮개 판석들보다 작고 얇은 판석들이었다. 북동측과 북서측 벽들에 놓여진 나머지 6개의 덮

개 판석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나 내부는 무너져 있다. 현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축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한 단의 석단으로 맨 먼저 한 층을 깔아 무덤방의 형태를 잡는다. 다음 약간 뒤로 물러나 위에서 한 단의 석단을 더 깔아 폭이 크지 않은 계단형식으로 구축한다. 바로 이 때문에 발견된 덮개 판석들이 벽면들의 수평면 위로 더 높게 올려져 놓여있지 않고 무덤방 벽의 두 번째 층이나 세 번째 층의 석재들 위에 바로 놓여질 수 있었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덮개 판석들은 무덤방 바닥에서 20~30 cm 높이에 놓여졌을 것이다. 무덤방의 바닥이 하층토보다 높고(14cm 정도) 토광묘들의 상부와 거의 동일한 지평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덤방은 따로 구덩이를 파지 않고 지표를 균일하게 손질한뒤 고대의 지표 기존 층에 바로 구축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덤방의 토대는 길이 20~35cm, 폭이 15cm에 가까운 돌들로 구축되어 있다. 연도와 문은 무덤방의 중심축을 따라 직선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무덤방의 벽들은 평평한 돌들로 쌓여져 있고, 몇 군데 돌들 사이 공간에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무덤방 자체는 사다리꼴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 입구 부분은 넓고 그 반대 방향은 좁다. 무덤방의 크기는 오른쪽 벽(입구로부터)－2.44m, 왼쪽 벽－2.49m, 입구 반대편 벽－1.05m, 입구자체부분 벽－1.54m 이다. 연도의 크기는 폭이 0.85m, 연도의 우측 벽은 길이 1.3m, 좌측 벽은 0.93m이다. 무덤방 벽들의 폭은 1.0~1.1m 이다. 무덤방의 모든 벽들에는 돌로 쌓인 4층의 석단들 보존되어 있으며 몇 군데는 6층의 석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들의 평균 높이는 65cm이다(그림 8). 무덤방 입구부분은 그 반대편보다 조금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덤방의 內部建材들은 덮개들 아래 무덤방의 중앙축을 따라 놓여진 4개 판석들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다. 화재나 나무널, 뼈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타버린 뼈와 목탄의 작은 편들이 무덤방 내부에 어지럽게 버려져 있었다. 이

로써 추정이 가능한 결론은 화장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 이미 화장된 유골이 이 무덤방에 안치(아마도 나무널조차 없이)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출토된 유물은 거의 없으며 무덤방 바닥에서 한 개의 매우 작은 토기편, 입구벽 아래에서 역시 한 개의 작은 토기 편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모든 전후 정황에 주목하면 이 석실분은 이미 고대 시대에 도굴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실분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B.P.1190±40(830AD) 이었다.

고분 M.70 은 발굴 3의 고분 M.46 에서 북서쪽으로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석실분이다.

고분 M.70의 현실의 돌덩이 몇 개가 발굴 전 표면에 이미 목격되었으며 잔디층을 제거하자 현실의 석단과 덮개가 바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실은 약간 길게 늘어진 거의 장방형이었다. 남동-북서축을 지향하고 있는 길이-방향축은 8m 정도이고 남동-북서축을 따라서 폭은 6m 정도였다(그림 9). 상단의 석단층 아래에서 널방과 그 왼편 부속 공간을 확인하였다. 오른쪽 벽에 보존되어 있던 3개의 덮개 판석들은 내부를 향해 조금 么配를 가진 형태로 놓여져 있었다. 나머지 덮개들은 수직으로 서있거나 또는 서로 서로 위에 겹쌓여 있었다. 현실의 좌측 부분에는 3~ 4열의 판석이 있었는데 이들은 두터운 모서리를 벽들 쪽으로 향하도록 놓여져 있었다. 현실의 벽들은 6~7층의 평평한 돌들로 구축되었는데 외부로부터는 단지 한 층만 보인다. 4개 벽의 전체적 높이는 57㎝ 까지 달한다. 보존이 잘 되어있는 우측 벽의 폭은 1.1m 정도이다. 4벽을 포괄하여 석실분 전체의 크기는 길이 4.9m, 폭은 4.25m이며 현실 내부 벽들의 크기는 뒷면 벽이 2.05m, 앞면 벽이 1.76m, 왼쪽 벽이 2.68m, 오른쪽 벽이 2.60m 이다. 입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단의 왼쪽 모퉁이와 바닥에서 불에 탄 인골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0㎝ 정도

의 수준차가 나는 상부 수준층에서는 분명히 小兒의 뼈로 사료되는 인골이 발견되었다. 석단과 덮개들 사이에는 자기 편들과 철재 칼의 파편이 발견되었다(그림 10). 현실 좌측에는 부속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이 부속공간-벽의 하단은 현실-벽의 하단과 연속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벽들은 한 층의 석단으로만 구축되어 있다. 이 부속공간 내부에서 馬齒들과 토기 편들이 수집되었다.

고분 M.71은 고분 M.70 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m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그림 11).

석실분 M.71은 고분 M.70의 현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분 M.71의 입구가 있는 벽은 고분 M.70의 벽으로 덮여져 있어 고분 M.71의 현실이 고분 M.70의 현실보다 먼저 구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잔디층 표면에서는 고분 M.71의 존재와 관련한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잔디층을 제거하자마자 바로 M.71 현실-벽들의 상부표면이 드러났으나 덮개 석단은 목격이 되지 않았다. M.71의 현실에는 단지 몇 개만의 덮개 판석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M.70 석실분의 조성 時 M.71 현실의 석재들을 부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M.71의 현실은 장방형의 형태이며 남동쪽의 입구는 남동-북서축을 지향하고 있다. 현실 벽들의 외관형태는 잘 보존이 되어 있었으며 그 때문에 벽들의 원래 폭과 축조방법을 알아낼 수 있었다. 벽은 4 열로 이루어진 석단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전체 높이는 50cm 였다. 이 때문에 먼저 내부에 2열의 석단을 놓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조금 더 작은 돌들로 2열을 첨가해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벽의 기반에는 길이 40cm 정도에 두께가 8 ~ 10cm 인 평평한 돌들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돌들을 쌓았다. 북서벽의 폭은 1.05m 이다. 입구에는 15×9×6cm 정도 크기의 돌

로 만들어진 문지방이 있었다. 고분 M.70의 벽으로 덮여진 입구부분의 좌측벽을 제외하고는 석실분의 모든 벽들은 보존상태가 좋았다. 벽들을 포함하는 널방 전체의 크기는 길이가 4.67m, 폭이 4.36m 였다. 널방 내부만의 크기는 북동벽의 길이가 2.75m, 남서벽의 길이가 2.78m, 북서벽의 길이가 2.5m, 남동벽의 길이가 2.43m 였다. 입구의 폭은 0.72m 였다(그림 12).

널방 우측 하단모서리부분에서 덮개 판석이 확인되었고, 우측 중단부와 그 아래에서 작은 돌들의 더미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아래의 널방 중앙기구에서 한 개의 덮개 판석이 확인되었는데 이 판석 밑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다(인골 No.1 – 그림 13). 이 인골의 발바닥 부근에서 동물의 뼈들과 이빨들이 수집되었다. 이 인골의 두개골 왼편에서 사람의 두개골 또 한 개와 다른 뼈들이 수집되었다(인골 No.2). 널방 입구에서 紅髓玉 구슬 한 개가 발견되고 또 한 개의 紅髓玉 구슬 한 개가 인골 No. 1의 두개골 근처에서 수집되었다. 인골 No. 1의 골반뼈가 위치한 소구역에서 철재 화살촉 한기가 발견되었고 정강이 뼈가 위치한 구역에서 창의 끝부분이 수집되었다(그림 14). 인골 No. 1의 경우 두개골, 팔과 다리뼈들은 보존상태가 좋았으나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 인골 No. 1의 경우 신장은 대략 165cm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개골의 경우 두개골의 형태와 齒牙들은 보존상태가 나쁘지 않다. 그 때문에 DNA 분석과 이에 따른 인류학적 분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齒牙들에 준거 할 경우 인골 주인공의 나이는 35세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인골의 골반부와 다리 부분에 화살과 창의 끝부분이 꽂혀있는 사실에 주목하면 이 인골의 주인공은 전쟁터에서 죽었을 것으로, 즉 武將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그를 위해 이토록 커다란 석실분을 사용한 사실에 근거하면 그는 발해시대의 將軍 – 즉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 №. 2 는 보존 상태가 나쁘다. 그러나 이 인골의 두개골이 위치한 부분, 모퉁이에서 바닥을 위로 한 채 거꾸로 서있는 3개의 채색토기들이 수집되었다(그림 15).

널과 나무덧널과 유사한 구조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두 기의 인골들은 바닥층 위 대략 15~20㎝에서 수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체르냐티노 5 고분에서 처음으로 火葬이 아닌 土葬의 묘제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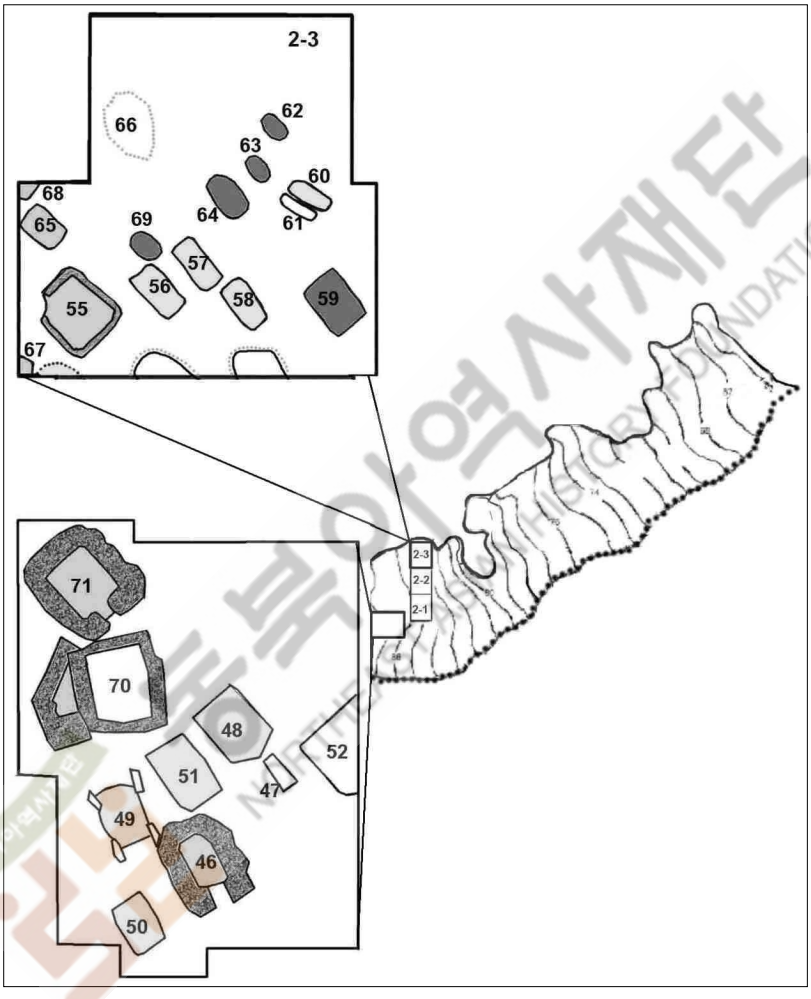
1. Nikitin Y., Gelman E.1998. Burial ground of early medieval epoch in the basin of Suifun river. The Society of North-Eurasian Studies Newsletter No 10, Tokyo:11 –16.
2.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1998. Итог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Россия и АТР, №1, 1998,Владивосток: 65–71.
3.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Гельман Е.И., Ивлиев А.Л. 1998.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 1998 году. АО 1998. М.
4. Никитин Ю.Г. 1999 Раздольная кава рю:ики–но мокацу, боккай–но боти исэки: [Мохэ–Боха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в долине р.Раздольная]. Кодай кокка боккай–то ниппон–но ко:рю:–ни кансуру кохогакутэки тёса:[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бмена между древн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Бохай и Японией].Аояма Гакуин, Токио: 2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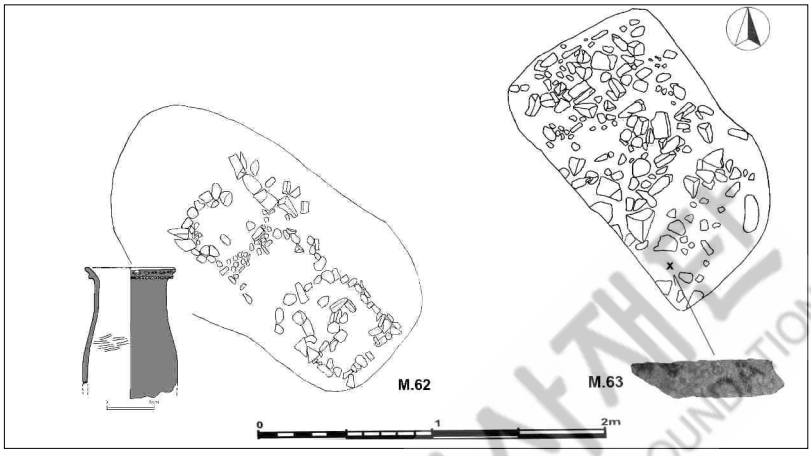
5.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2002.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Раздольная.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д–во ДВО РАН. Владивосток: 195–215 Совместно с Е.И. Гельман).
6. Никитин Ю.Г. 2003.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 5 в бассейне р. Раздольная. Аояма ко:го, № 20. Токио: 99–118.
7. Никитин Ю.Г. Чжун Сук–Бэ. 2003. Бохайский могильник Чернятино 5 в Приморье. Новейшие результаты археологии Бохая. Материалы юбилей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еул: 27–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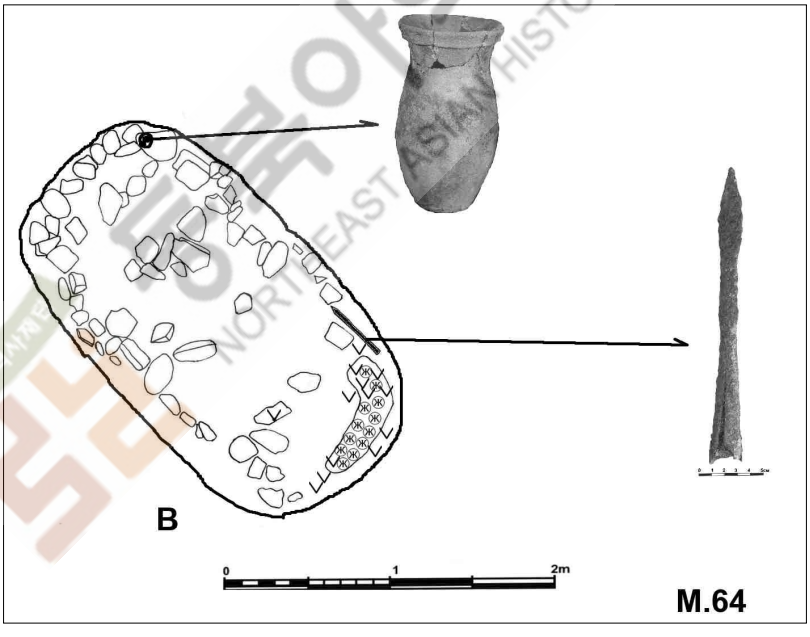
Bohai
Seoul
Vladivostok
Chernyatino 5
Our camp
Chernyatino 1
Chernyatino 2
Chernyatino 3
Chernyatino 4
Chernyatino 5
Chernyatino 6
Chernyatino 7
Chernyatino 8
Chernyatino 9
Chernyatino 10
Chernyatino 11
Chernyatino 12
Chernyatino 13
Chernyatino 14
Chernyatino 15
Chernyatino 16
Chernyatino 17
Chernyatino 18
Chernyatino 19
Chernyatino 20
Chernyatino


2-3
66
62
63
60
68
65
64
61
69
57
56
58
59
55
67
71
70
48
52
51
47
49
46
50
2-3
2-2
2-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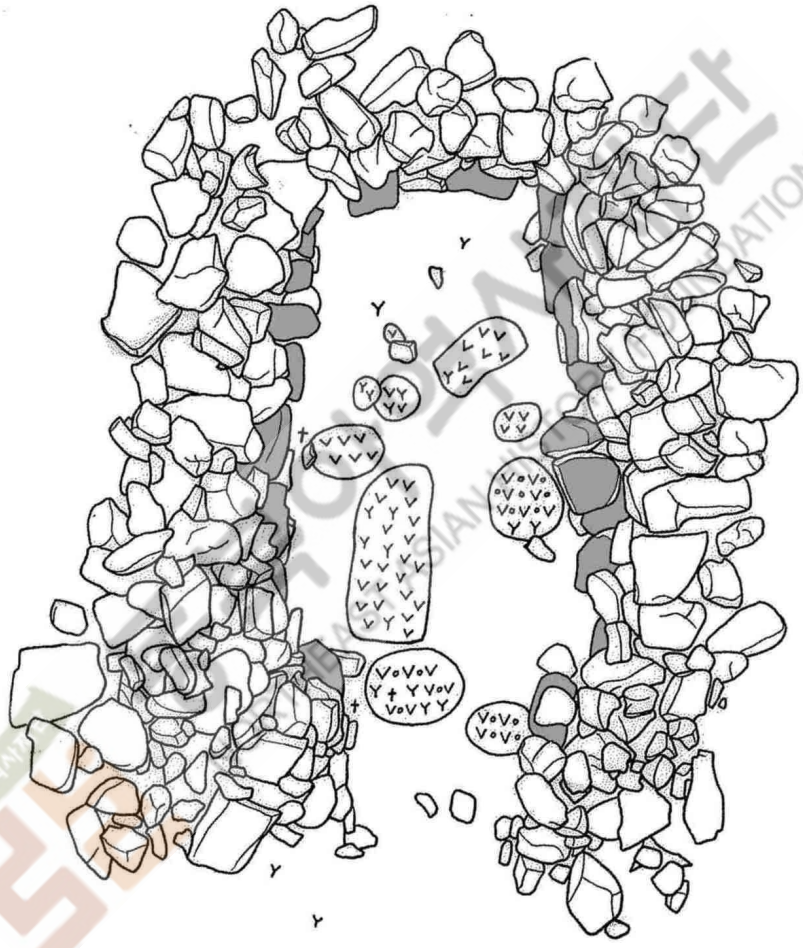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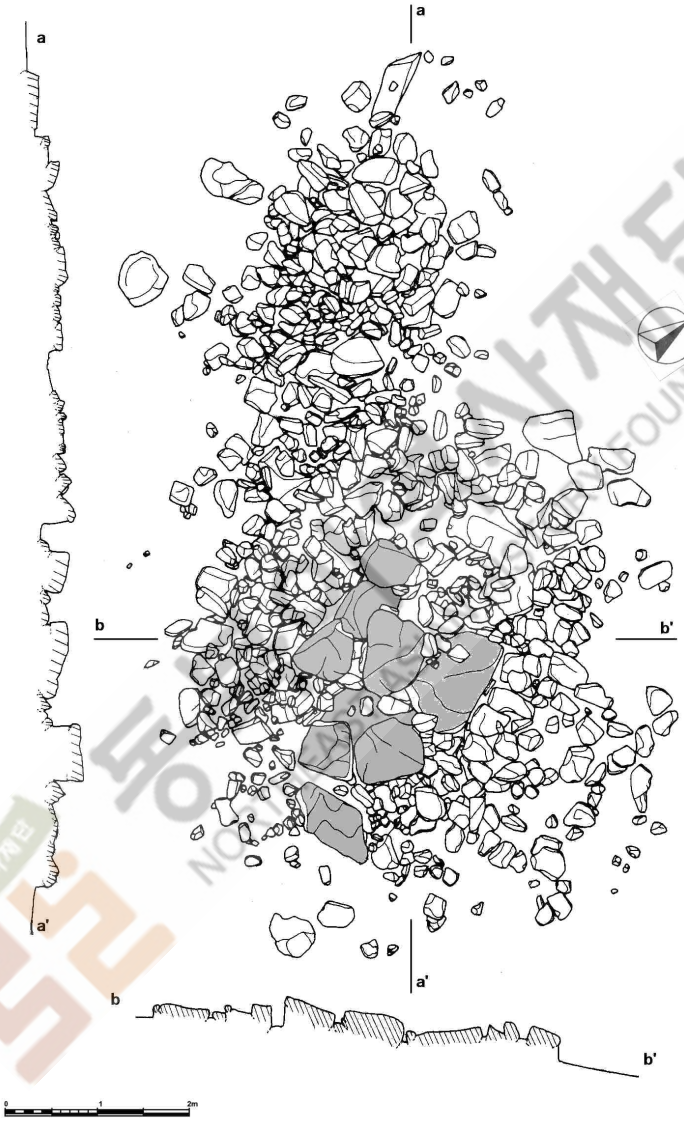
〈그림 4〉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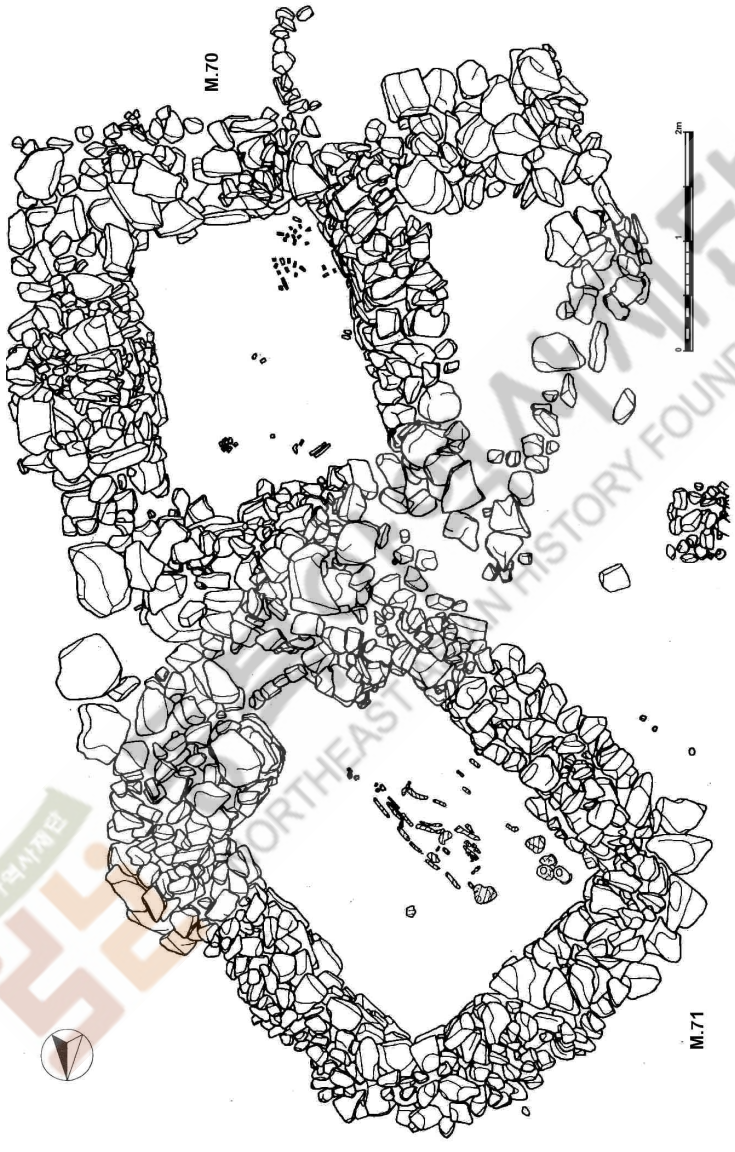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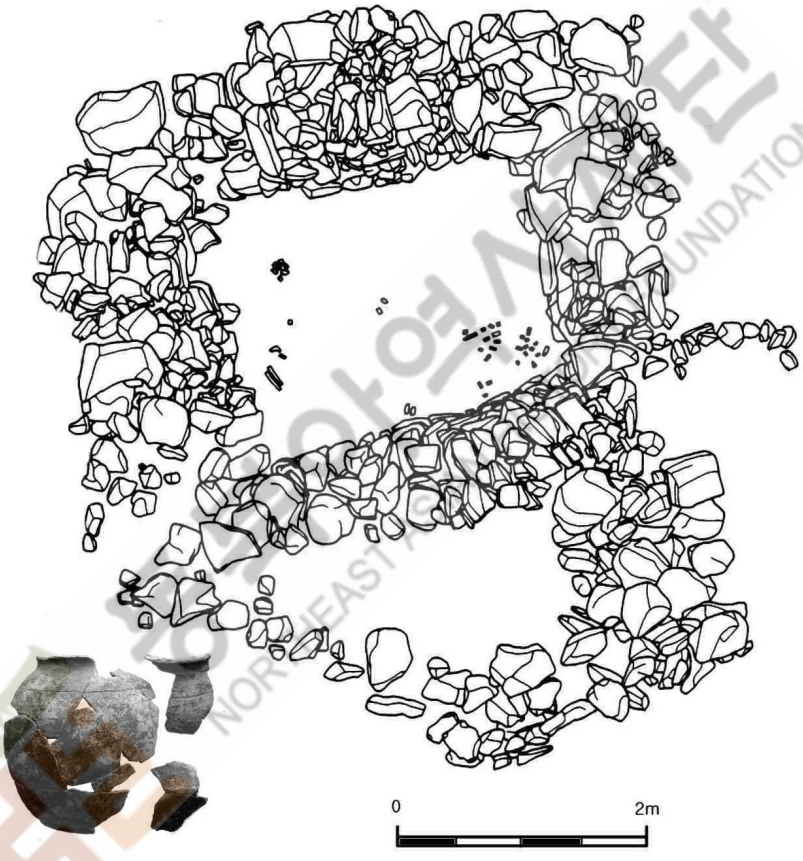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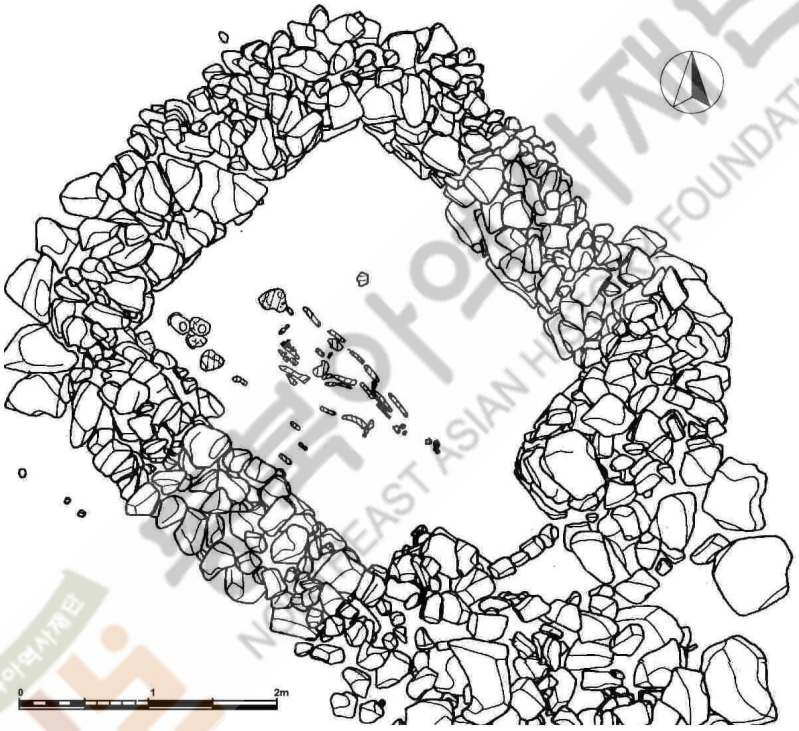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Ивлиев А.Л.

Приоритет открытия и научног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налич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амят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698–926) принадлежит Э.В.Шавкунову. В конце 50–х – в 6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им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аскопки Копытинского и Абрикосовского храмов, обследовано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в Хасанском районе и обнаружен боха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слой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Определению этих памятников как бохайских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сравнение с известными к тому времени материалами раскопок Верхней столицы Бохая в Дунцзинчэне японскими археологам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и в

кратком вид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А.П.Окладниковым.[1] Книга Э.В.Шавкунова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2] стала перв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в которой данны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были увязаны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записями о Бохае. Начатое Э.В. Шавкуновым исследование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в 1970–80–х годах было продолжено Л.Е.Семениченко и В.И.Болдиным. Раскопки памятников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городищ и поселений – в долинах рек Арсеньевка и Илистая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городище и селище,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1 и Николаевское–2) позволили выделить ранний и поздний этапы развития этой культуры и предположить наличие в ней локальных вариантов.[3] В 80–х годах В.И.Болдиным велись раскопки селищ Корсаковское–1,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1, где впервы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бохайские жилища с отопитель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 каном.[4]

1) Окладников А.П. Остатки бохайской столицы у г.Дунцзинчэн на р.Муданьцзян //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57. № 3. С. 198–214.

2) Шавкунов Э.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Л.: Наука, 1968.

3) Болдин В.И., Семениченко Л.Е., 1978. Стратиграфия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ка–II и периодизация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С. 57–63.

4)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Хорев В.А., Шавкунов В.Э. 1990. Новый тип

Продолженные тогда же раскопк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позволили уточнить атрибуцию слоев и сооружений к Бохаю и ко времени чжурчжэньской империи Цзинь.[5] Накопленные за двадцать с лишним лет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Бохаю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коллективной монографии Сектора археологии средневековых государств ИИАЭНДВ ДВО РАН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леме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6]

Новым этапом в изучении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стали начатые в 1980 г. раскопк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которое определяется как центр округа Яньчжоу Восточной столицы Бохая. Здесь были получены классические бохайски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равнения с материалами друг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оводившиеся совместно с японскими учеными во главе с проф. Тамурой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Аояма гакуин раскопки горного городища Синельниково–1 в Октябрьском район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яют интерес, так как пока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известное

бохайского жилища в Приморье //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С. 153 – 159.

5)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1989. О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ах чжурчжэнь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 Ново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Материалы медиевист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3 – 7.

6)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леме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994. М.: Наука. – 219 с.

в Приморье городище, на котором слой мохэской культуры перекрывается бохайским.[7] Сер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ов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выявлена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Михайловском районе, эти раскопк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ведутс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Е.И.Гельман.[8]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были также получены в ходе проводившихся Э.В.Шавкуновым и В.Э.Шавкуновым раскопок Марьян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Кировском районе, Абрикосовского селища и храма в Уссурийском районе и Аур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9] Также в 1971 г. В.Е.Медведевым были раскопаны остатки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7) Болдин В.И. 2001.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памятник Приморья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3. Благовещенск. С. 122–131; Болдин В.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и периодиз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Юго–западного Приморья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2002. С. 181–185;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Никитин Ю.Г.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Синил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ье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97 года.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1999.С. 259–261;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Итог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в 1997 г. // Россия и АТР. № 1. 1998. С. 65–71.

8)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городище Горбатка // Россия и АТР, 2001. № 1. С. 12 –19; Гельман Е.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2000–2001 гг. // Россия и АТР. 2002. № 3. С. 95–98.

9) Шавкунов Э.В., Шавкунов В.Э. Новые находки. Раскопки на дворе

близ села Борисовка Уссурийского района.[10]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ища Синельниково–1 Ю.Г.Никитиным обнаружен и обследуется могильник Чернятино–5.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это первый могильник, который вне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может быть отнесён к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е.[11]

Накопленные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бохай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сделали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 о её различении от культур племен, обитавших на периферии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е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 бохайской

Абрикосовской кумирни и на Аур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1997 г. // Россия и АТР. 1998. № 1. с. 72–74; Гельман Е.И. Керамика Марьян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ДВО РАН, Совет молодых учёных. 1998.С. 136–151; Шавкунов Э.В.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Абрикосовском селище в 1996 г. //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 1997. № 1. С. 82–85;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2. С. 75–108.

10) Медведев В.Е. Бохайская кумирня в Приморье. Сеул: Хакъенмунхваса. Совместное издание Института Когурё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8. –476 с.; Окладников А.П. Две бронзовые статуэтки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из Приморья // Сибирь, Центральная и 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средние века.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75. С. 47–52.

11)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в бассейне реки Суйфун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2002. С. 195–215.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сегодня это самый южный в бассейне Уссури памятник покровской культуры.[12]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в Приморье открыто свыше 200 памятников, содержащих культурные отложения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Они охватывают южную половину территории края, можно выделить такие их категории как городища, селища, могильники и культовые сооружения (Рис.1).

Степень изученности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не равнозначна. Только на 18 из них проводились раскопки.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собр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локальные варианты культуры: в юго–западной и южной частях края памятники имеют полные аналогии с материалами из столичных городов Боха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Приморье памятники имеют свою специфику, отражая их переходный характер между собственно бохайскими памятниками юга и юго–запада и мохэскими памятниками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севера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Особенно ярко эт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в керам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Так, на последних,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обладают венчики с двумя горизонтальными бороздками на

12) Гельман Е.И.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О РАН, 2002. С. 167–187.

валике, идущем по внешнему краю и отсутствуют ленточные горизонтальные ручки, являющиеся характерным признаком бохайской керамики (Рис.2).[13]

Бохайские городища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равнинные и горные. Равнинные бохайские городища, в основном, находятся в южной ч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ни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только в бохайское время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охранившие фортификацию той эпохи, и городища, перестроенные в XII–XIII вв. чжурчжэнями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отличающиеся более слож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валов и рвов. К памятникам первой группы относятся: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в Хасанском районе (Рис. 3:1),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1 и Николаевское–2 (Рис. 3:3,4), Горбатка (Рис. 3:2), Высокое в долине реки Илистой в Михайловском и Черниговском районах, Стародеченское в долине р.Раздольная в Октябрьском районе. К памятникам второй группы можно отнести Марьян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 Кировском районе, возможно, Стеклянух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в Шкотовском районе.

Формы бохайских равнинных городищ в плане с некоторыми оговорками можно признать близкими к прямоугольным. При

13) Гельман Е.И.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С. 177–178.

этом углы бывают сильно округлены, а сами линии валов часто следуют отдельным деталям рельефа (контуру возвышения, на котором построено городище, линии берега реки или озер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общий план памятника отклоняется от строгой геометрической формы. Это хорошо выражено в плане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то же время, форма и общая планировка городищ следуют образцам, заданным столичными городами Боха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ерхней столицей Лунцюаньфу в Дунцзинчэне уезда Нинъань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КНР /中國黑龍江省 寧安懸 東京城 渤海 上京 龍泉府/. Так,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имеет такую характерную черту, как наличие центральной улицы, идущей от южных ворот к северной, наиболее возвышенной части города, гд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храмовые, а, возможно,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здания. Размеры равнинных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в Приморье варьируют от 3,6 га до 13 га. Периметры самых крупных из них – Краскинского свыше 1300 м и Николаевского–1 около 1250 м, городища в Горбатке – 1220 м. Как правило, все равнинные бохайские городища окружены валом и рвом. Городища имеют раз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рот. Так, на городище Высокое имеются лишь одни ворота на южной стороне, на Николаевском–2 ворота были в южной и западной стенах, на Краскинском – в южной,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стенах, на Николаевском–1 – во

всех четырёх стенах. Чаще всего, ворот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остой разрыв в стене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ское–2, Высокое), однако, в ряде случаев они имели снаруж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На городище Николаевское–1 это "Г"–образный выступ вала, идущий параллельно основному валу снаружи от проёма юго–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на Краскинском – близкие к прямоугольным в плане укреп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ные построенным перед проёмом воро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алом с проходом в одной из боковых сторон,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вэнчэн" 瓮城 / или "вэнмэнь" / 瓮門 / в китайской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Устройство стен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было выяснено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Разрез через городскую стену показал, что она строилась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и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довольно сложную конструкцию, сочетавшую в себе кладки из каменных блоков, а также галечные и земляные насыпи. Видимо, во время надстройки стены появи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твода накопившейся в низине у вала воды. Для этого в старых блочных стенах был сооружен специальный водоотвод в виде тоннеля из больших каменных плит (Рис.4:1). Первоначальная конструкция городской стены имеет близкие аналогии на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ах в Приморье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Николаевское–2, Синельниково–1) и на когурёских городищ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и севера Кореи.[14] В целом, такой

способ кам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ородских стен, видимо, происходит от когурёской традици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аскопки городской стены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 районе 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в 2001 г. позволили выявить ещё одну важную деталь, ранее не известную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но также имеющую параллели в когурёском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е – наличие каменных оснований фронтальных башен. При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2002–2004 гг.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башня была пристроена к валу не сразу, а в ходе ег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пустя какое–то время после его сооружения (Рис.3:5).

Горные городища занимали одиночные сопки или выдающиеся в речные долины мысовидные горные отроги, они не имели строгих геометрических форм, так как их валы строили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льефом занимаемого участка. Примерами таких городищ могут быть Синельниково–1 в долине р.Раздольная,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е в долине р.Арсеньевки. Если последнее было существенно перестроено в XII–XIII вв., то первое после бохайской эпохи было заброшено и сохранило свой изначальный вид. Городище занимает вершину сопки на

14)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ДВО РАН, 1998. С. 152–

правом берегу р.Раздольной. Общий периметр городища около 700 м. С севера и юго–запада городище ограничено крутыми, а местами отвесными скальными склонами, его юго–западная часть, где склон более пологий, защищена валом. Общая высота вала с внешней стороны достигает 2,5 м, ширина в основании около 5 м. Длина вала около 185 м. Разрез вала показал, что его наружная сторона сложена из камня, а внутренняя сторона имела деревянное ограждение, пространство же между наружной каменной и внутренней деревянной стенками было заполнено землей (Рис. 4:2). При этом, в районе ворот и внутренняя сторона вала была облицована каменной кладкой. Разрез также показал, что бохайский вал был построен на месте более раннего мохэского земляного вала. В валу имеются ворота. В районе ворот восточный и западный концы вала заходят один за другой, образуя между собой коридор шириной около 2 м. Известные бохайские горные городища, скорее всего, служили в качестве убежищ для жителей долинных поселений и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для обороны территории.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такого городища–убежища может служить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в Анучинском районе, занимающее неприступный горный отрог (Рис. 4:3). Валы этого городища насыпаны из камня. Имея явные черты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 ряду материалов, включая монеты, городище, относящееся к последнему этапу существования

этого многослойного памятника, датируется послебохайским временем, X–XI вв.[15] (Шавкунов, Гельман 2001).

Бохайские селища –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1,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2, Чернятино–2 в Октябрьском районе, Абрикосов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е–1 и Корсаковское–2 в Уссурийском районе – расположены по долинам рек. Они занимают удобные для земледелия незатопляемые возвышенные участки вблизи рек и других водоемов. Площадь их значительна – до 50 га, толщина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порой достигает 2 м.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е –1 селищ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р.Раздольная, с севера на юг оно протянулось на 1 км,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 на 0,5 км (Рис. 5). На памятнике выделены три слоя, относящиеся к разным эпохам. Нижний слой относится к кроуновской культуре железного века, средний – бохайский, верхний, сильно перемешанный вследствие неоднократных распашек, содержит как северосунские монеты XI–XII вв., так и более поздние материалы вплоть до предметов, принадлежавших проживавшим здесь в начале XX в. корейцам.

15)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2. С. 75–108.

Толщина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памятнике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 м, хотя местами превышает и 2 м.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на поселении найдены остатки сооружений: жилищ, хозяйственных ям. Наиболее сохранившееся жилище в виде полуземлянки с Г–образным одноканальным каном и, возможно, с черепичной кровлей,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в 1988 г. Примечательной чертой конструкции кана в этом жилище является оформление стенок дымоходного канала вертикально поставленными плитами песчаника.[16] Аналогично дымоходы двухканальных канов на городище Горбатка были сооружены из вертикально поставленных каменных галек.[17]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прослеживалась и в жилищах с канами на Аур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Здесь дымоходы двухканальных Г–образных канов были сделаны "из поставленных на ребро каменных плит".[18] Аналогичные полуземлянки с Г–образными канами ранее были раскопаны в Китае, на бохайском поселении Туаньцзе в уезде

16)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Хорев В.А., Шавкунов В.Э. Новый тип бохайского жилища в Приморье //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90. С. 153–159.

17) Гельман Е.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2000–2001 гг.// Россия и АТР, 2002, № 3. – С. 95–98.

18) Шакунов В.Э. Раскопки Аур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ладивосток, 2001. С.173–183.

Дуннин, тоже в долине Суйфэньхэ–Раздольной.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этого жилища наряду с крупным горшком, стоявшим в очаге в перевернутом виде, была найдена серия изделий из кости (орудие из рога, наконечники стрел, украшения), из железа (ножи, наконечники стрел) и глиняное пряслице.

Селище Чернятино–2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обширной надпойменной террасе правого берега р.Раздольная близ слияния её с правым притоком – р.Орлих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по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не менее 800000 кв.м. На основании сборов подъёмного материала и тестирова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слоя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памятника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а поселении есть слои: неолитический (Зайса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эпохи бронзы, эпох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Кроу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времени мохэ–Бохая, а также следы корей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конца XIX – XX в. При этом площадь поселения варьировала в разные эпохи, в бохайское время она составляла около 20–25 000 кв.м. Бохайский слой в виде темно–коричневой супеси с углями и обмазкой имеет толщину 25–80 см, в отдельных местах, где встречены ямы и котлованы, его толщина превышает 1,5 м.[19]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в бохайском слое поселения обнаружено несколько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ов, следы строений.

Могильники. На сегодня единственным в Приморье, несомненно относящимся к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е, является

могильник Чернятино–5 в Октябрьском районе.

Раскопками на этом могильнике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2 поминов и свыше 70 погребений. По конструкции, все обследованные могилы разделяются на три группы. Первая группа – погребения в земляных ямах, внутри которых обнаружены следы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рамы или гроба, фрагменты обожженной бересты и коры дуба, фрагменты керамики и целые сосуды, а также разрозненные кучки сожжен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ост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этих могил ориентирована с юго–востока на северо–запад. Ко второй группе относятся погребения в каменных склепах. Внутренняя часть склепов углублена (от 17 до 50 см), их стены сложены из плоских камней, а с юго–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были сооружены "ворота" из большой плоской каменной плиты. Внутри склепов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сожженных деревянных гробов, фрагменты обожжен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остей, керамика. Сверху склепы накрывались большими плоскими каменными плитами.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2004 г. вскрыты остатки склепа с трупоположением.

К третьей группе относятся погребения в деревянных

19)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О РАН, 2002. С. 213–227.

гробах,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ямо на древней поверхности, в них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сгоревших деревян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фрагменты сожжен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костей и керамики.

Материалы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позволили выстроить хронологическую схему распределения погребений по горизонтам.

Нижний горизонт с архаичной керамикой относится к мохэ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датируется концом VI – VII веками н.э., а самый верхний – поздним периодом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Приморье известны и другие могильники,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синхронные государству Бохай – Рощинский в долине Большой Уссурки (Имана), Монастырка–3 в Дальн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и Глазковский на побережье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в Лазовском районе, однако, их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Бохаю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я. Из последних находок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открытие бохайской могилы – каменного склепа близ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сделанное в 2003 г.[20]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строили на вершинах невысоких сопок и у их подножья, а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ищ, которые

20) Yu.Nikitin, 白杵勳クラスキノ城址周辺の渤海墓調査 // 第5回 北アジア調査研究報告會。札幌: 北アジア調査研究報告會實行委員會, 2004年。32–33頁。

служили центрами округов. Первые (Абрикосовский, Копытин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Борисовский храмы в Уссурийском районе) представляли собой небольшие культовые сооружения, очевидно, сельских общин, поскольку сооружались рядом с селищами. Обычно это одно здание, сооруженное на искусственной платформе, прямоугольное в плане, площадью до 30 кв. м. Основанием колонн служили каменные базы, крыша была покрыта черепицей. Территория вокруг храма обнесена стеной на каменном фундаменте.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храм представлял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построек, начиная от головного храма (Рис.6), павильона и заканчивая хозяйственными (колодец, двор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и хранения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мастерская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черепицы,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горн). При этом весь храмовый комплекс отделялся стеной на каменном фундаменте от ост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ов находят ритуальную посуду, чугунные колокольцы, декоративные терракотовые украшения кровли, буддийские статуэтки и др.

В цело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изучение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Приморье добилось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пехов. Выявлены основные категории памятников, получ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зволяют 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хозяйство и культуру бохайцев. Однако, ещё предстоит много сделать в

таких вопросах как периодизация и хронология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границы её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Приморье, связи с культурам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и последующей культурой чжурчжэней цзиньской эпох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고고유적

•

A. L. 아블리예프 (극동국립기술대학교)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러시아 연해주 지역내의 발해(698~926) 고고 유적들의 발견과 학문적 연구는 E.V. 샤프쿠노프 박사의 연구에 근원을 두고 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샤프쿠노프 박사에 의해서 코프이토 사원지와 아브리코소프스키 사원지가 발굴되었을 뿐 아니라 하산 지역 크티스키노 성터가 발견되어 조사되었으며 아누친스키 지역의 노보고르제에프스키 성터에서 발해의 고고학적 문화 층이 확인된 것도 그에 의해서였다. A.P 오클라드니코프 박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의 발해 동경성 발굴 결과를 간략하게 러시아어 논문[1]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를 통한 동경성 발굴 결과와

1) Окладников А.П. Остатки бохайской столицы у г.Дунцзинчэн на р.Муданьцзян //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57. № 3. С. 198–214.

연해주 발해 유적과의 비교연구가 이들 연해주 발해 유적의 성격 규정에 커다란 근거가 되었다. 샤프쿠노프 박사의 저서 "발해국과 연해주 지역 내 발해유적"[2]은 이러한 연해주 발해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조사의 결과들이 발해와 관련한 각종 사서들의 내용과 관련되어 저술된 러시아 최초의 학술적 저작이었다. 샤프쿠노프 박사에 의해 시작된 연해주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L.E 세메니첸코와 V.I 볼딘에 의해 계속 진행되었다. 아르세니옙카 강과 일리스타야 강 연안 계곡의 성터와 거주지 등에 대한 발굴은 발해 문화 층의 초기와 후기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었고 연해주 지역 발해 문화층 내에 이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제공하였다.[3] 1980년대에 들어 볼딘은 코르사코프스키-1과 콘스타뇹스키-1지역의 거주지에 대한 발굴을 계속하였는데 연해주 지역 발해유적 발굴 사상 처음으로 온돌 난방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발해의 거주지가 발굴되었다.[4] 이와 동시에 노보고르제옙스키 성터의 발굴도 계속 진행되었었는데 발굴 결과는 이 곳의 고고문화층과 건축물들이 발해와 여진의 금왕조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5]

---

2) Шавкунов Э.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Л.: Наука, 1968.

3) Болдин В.И., Семениченко Л.Е., 1978. Стратиграфия городища Николаевка-II и периодизация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С. 57-63.

4)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Хорев В.А., Шавкунов В.Э. 1990. Новый тип бохайского жилища в Приморье //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С. 153 – 159.

5)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1989. О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ах чжурчжэнь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городище // Ново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2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연해주 발해 유적 발굴의 성과는 러시아 과학원 극동 지원 역사 고고 민속연구소의 중세고고학실에서 『발해국과 러시아 극동지역민족』[6] 이라는 논문집으로 출판되었다.

러시아 발해 연구사에 획기적인 전환은 1980년도에 시작된 크라스키노 성터 발굴이다. 크라스키노 성터는 발해 동경성 엄주의 중심부로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 다른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과 비교가 가능한 다수의 고전적인 발해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타무라 교수와 공동으로 발굴이 진행된 아끄싸브터 지역 씨넬리니코보-1 산성의 발굴결과는 한가지 특이한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말갈문화층이 발해문화층으로 덧씌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제까지 발굴된 다른 연해주 발해 유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7] 미하일롭카 지역의 고르바트카 성터 발굴에서도 일련의 발해 건축물의 지층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발굴은 지난 수년간 E.I 겔만의 관리감독

(Материалы медиевист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 3 – 7.

6)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леме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994. М.: Наука. – 219 с.

7) Болдин В.И. 2001.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памятник Приморья //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Вып.3. Благовещенск. С. 122–131; Болдин В.И. Городище Синельниково 1 и периодизация средневековы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Юго-западного Приморья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2002. С. 181–185;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Никитин Ю.Г.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Синил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Приморье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1997 года.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1999.С. 259–261;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Итоги поиска. Исследова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Бохая в Приморье в 1997 г. // Россия и АТР. № 1. 1998. С. 65–71.

하에 진행되고 있다.[8] 발해문화층의 새로운 유물들이 샤프쿠노프 父子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 키롭스키 지역 마리아놉스키 성터, 우수티스크 지역 아브티코소프스키 거주지와 절터 그리고 아무친스키 지역 아우롭스키 성터 등에서 추가로 발굴되었다.[9] 1971년도에는 우수티스크 지역 보티소프카 마을 인근의 절터가 V.E 메드베제프에 의해서 발굴되었다.[10]

씨넬리코보-1 성터 인근에서 Y.G 니키틴은 체르나티노-5고분을 발견하고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 전 지역을 통해 이 고분만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수 발해시기에 해당하는 고분으로 추

8) Гельман Е.И., Никитин Ю.Г.,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городище Горбатка // Россия и АТР, 2001. № 1. С. 12 –19; Гельман Е.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2000–2001 гг. // Россия и АТР. 2002. № 3. С. 95–98.

9) Шавкунов Э.В., Шавкунов В.Э. Новые находки. Раскопки на дворе Абрикосовской кумирни и на Аур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в 1997 г. // Россия и АТР. 1998. № 1. с. 72–74; Гельман Е.И. Керамика Марьян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ДВО РАН, Совет молодых учёных. 1998.С. 136–151; Шавкунов Э.В.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Абрикосовском селище в 1996 г. //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 1997. № 1. С. 82–85;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2. С. 75–108.

10) Медведев В.Е. Бохайская кумирня в Приморье. Сеул: Хакъенмунхваса. Совместное издание Института Когурё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8. –476 с.; Окладников А.П. Две бронзовые статуэтки 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из Приморья // Сибирь, Центральная и 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средние века.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75. С. 47–52.

정되고 있다.[11]

그간의 유적 발굴을 통해 축적된 연해주 발해 유적 층에 대한 각종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발해국의 변경지역에 거주했던 여러 다른 민족들과 발해 문화간의 차별 또는 구별의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부분적으로 아누친스키 지역 노보고르제엡카 성터의 발해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재검토되어 현재 이 성터는 우수리 연안지역에서 가장 남측에 위치한 펴크롭스카야 문화층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12]

현재까지 러시아 연해주 내에서 발해문화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적들은 총 200 곳 이상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연해주 지역의 남부 전체를 통해 분산되어 있으며 성터, 주거지, 고분 그리고 절터 등의 범주로 구분이 가능하다.(그림 1) 연해주 지역 내 발해유적들의 연구-정도는 유적들에 따라 천차만별의 진행수준을 보여준다. 200곳 이상의 발해 관련 유적지들 가운데 18곳 정도에서만 부분적 발굴이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발굴된 유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해주 내 발해 유적지들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연해주 남서 지역과 남부 지역의 발해 유적지들의 경우 발해의 수도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명백한 유사성이 드러나고 있다. 연해주 중부 지역의 경우 연해주 남부 및 남서부 지역의 전형적인 발해문화와 연해주 북

11)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Некоторы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могильника Чернятино–5 в бассейне реки Суйфун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2002. С. 195–215.

12) Гельман Е.И.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О РАН, 2002. С. 167–187.

부와 북동 지역의 발해시기 말갈문화의 혼재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같은 특징은 특히 자기 유물에서 두드러진다. 일례를 들어 발해시기 말갈 문화 층에서 발굴된 자기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기의 주둥이 쪽에 수평의 가느다란 고랑들이 새겨진 2개의 원환편이 있는 반면 발해자기들의 전형적인 특성인 티본형의 수평 손잡이가 없다.[13] (그림 2)

기본적으로 발해의 성터는 평지성터와 산지성터 2가지로 대별된다. 발해 평지성터들은 주로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평지성터들의 경우에도 2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세부분류가 가능한데 발해시기에만 성터로서 기능했던 곳과 발해시기에 건축된 후 7세기와 8세기에 걸쳐 여진족에 의해 증-개축되어 성벽과 굴강 등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 곳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부류로서는 하산지역 크라스키노 성터(그림 3-1), 니콜라옙스키-1과 2(그림 3-3 • 4), 고르바트카(그림 3-2), 미하일로프스키와 체르니곱스키 지역의 일리스타 강 연안에 위치한 브이소코에 성터 그리고 아끄짜브리스키 지역 타즈돌리나야 강 연안에 위치한 스타로베첸스코에 성터를 들 수 있다. 두번째 부류로는 키롭스키 지역의 마리아놉스코에 성터와 쉬코톱스키 지역의 스께끌라누힌스코에 성터를 들 수 있다.

평지 발해 성터들의 외형은 구도상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성터들의 사방구석들의 경우 곡선형의 형태로 휘어져 굽은 형태를 보이며 성벽의 선은 주변 지형 각각의 여러 지리적인 외형 기복(성터가 건설된 단층의 외형구조, 주변 강의 외형적 기복 및 섬의 기복)에 따라 축성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엄정하고 정확한 기하학적 형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

13) Гельман Е.И.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го селища. С. 177–178.

러한 사실은 특히 크라스키노 성터 북측의 도면과 고르바트카 성터의 북동측 도면에서 잘 나타난다. 아울러 이들 평지성터들의 형태와 전체적인 설계는 중국 흑룡강성 영안현 동경성 발해 상경 용천부에서 보이는 전형적 양상들에 준해 축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대표적인 일례를 들면 크라스키노 성터의 경우 남문에서 출발하여 절터와 중앙관청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북쪽의 보다 높은 지역을 향해 건설된 주작대로가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연해주 발해 평지 성터들의 면적은 3.6헥타르에서 13헥타르에 다양한 크기를 보여준다. 평지 성터들의 둘레면에서 보면 크라스키노 성터가 1300미터를 넘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1250미터 정도인 니콜라에프스키-1 성터 그리고 1220미터에 이르는 고르바트카 성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발해 평지 성터들의 경우 성벽과 굴강 등으로 둘러쌓여 있다.

이들 성터들에서 발견되는 대문의 수는 성터들에 따라 각기 다르다. 브이소꼬에 성터의 경우 남쪽에 하나의 대문이 있을 뿐이며 니콜라에프스코에-2 성터의 경우 남쪽과 서쪽 2개의 대문이, 크라스키노 성터의 경우 남쪽, 동쪽, 서쪽에 3개의 대문이, 니콜라에프스키-1 성터의 경우 4방 모두에 대문을 가지고 있다. 이들 발해 평지 성터 대문의 형태를 보면 성벽에 단순한 구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니콜라옙스코에-2 성터와 브이소코에 성터)이 대부분이며 대문 외부에 추가적인 방어요새화를 위한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니콜라옙스코에-1 성터의 경우 남동문의 외측으로 성벽과 평행을 이룬 채 설치된 Γ 자형의 성벽 돌출부가 있으며 크라스키노 성터의 경우 중국 건축 용어로 瓮城 또는 甕門로 불리는 성문의 통로 전면에, 한쪽 측면에 출입로를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성벽을 구축하여 형성된 성문 보강 구조물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발해 성터의 구조는 크라스키노 성

터 발굴 과정 중에 자세히 밝혀졌다. 크라스키노 성터 성벽의 단면은 성벽이 몇 단계를 거쳐 축성되었으며 석재구조물층, 조약돌층 그리고 흙더미층 등이 차례로 쌓아져 복합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크라스키노 성벽의 증개축시기에 성벽 하부에 고인 물의 배수처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오래된 석재 구조물 층에 커다란 석판들로 이루어진 터널 형태의 특수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4-1). 크라스키노 성벽의 초기 건축 구조는 연해주 지역의 발해 성터들(고르바트카 성터, 니콜라엡스코에-2 성터, 시넬리니코보-1 성터)과 중국 북동부와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고구려 성터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14] 전체적으로 볼 때 석재를 이용한 성벽건설은 분명 고구려적인 전통이다. 2001년 크라스키노 성터 동문 구역 성벽의 발굴은 다른 발해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적인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크라스키노 성터 치들의 기층들이 석재로 이루어져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 치들은 맨 처음부터 성벽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 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성벽에 대한 증-개축의 과정 중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3-5).

연해주 발해 산지성터들의 경우 각기 독립적으로 솟아있는 원추 형의 산이거나 강 연안의 두드러지게 돌출된 산지지맥들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벽들이 주변지형의 본래 기복에 준해 건축되어 기하학적으로 특정한 도형형태의 외관 하에 일별할 수 없다. 이러한 산지성터로는 라즈돌리나야 강 연안

14)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ДВО РАН, 1998. С. 152–

의 시넬리니코보-1 성터와 아르세니옙까 강 연안의 노보고르제옙스코에 성터가 있다. 노보고르제옙스코에 성터가 7세기와 8세기에 근본적으로 증-개축된 것과 대조적으로 시넬리니코보-1 성터는 발해 멸망 후 내버려진 채 방치되어 원래의 발해적인 양상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시넬리니코보-1 성터는 라즈돌리나야 강 우안 원추형 상등성이의 정상에 위치해 있다. 전체 성터 둘레는 약 700미터 정도이다. 성터의 북측과 남서측 방향으로 성터는 군데군데 수직의 바위들로 이루어진 가파른 급경사들로 둘러 쌓여있고 남서측에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들은 성벽을 쌓아 보강하고 있다. 이 남서측 성벽의 높이는 성벽 외곽에서 볼 경우 2.5미터에 이르고 성벽 기반의 폭은 5미터에 이르고 있다. 성벽의 길이는 185미터 정도이다. 성벽의 단면을 보면 성벽외측은 석재로 구축되고 성벽내측은 목재로 된 덥장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외측의 석재층과 내측의 목재층 사이의 공간은 흙더미로 채워져 있다 (그림 4-2). 특히 성터의 대문이 있는 지역의 경우 성터의 내측 역시 목재층이 아니라 석재층으로 보강이 되어 있다. 아울러 시넬리니코보 성터의 단면은 발해시기의 성벽이 이전 말갈 시기에 축성된 흙으로 쌓여진 말갈 성벽 위에 추가로 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벽에는 대문이 있다. 대문이 위치한 지역에 성벽의 동쪽끝부분과 서쪽끝부분이 서로서로 겹쳐져 2미터 가량의 폭이 되는 회랑을 이루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발해 산지 성터들의 경우 대부분이 재난 시 평지 거주민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또는 영토보전을 위한 저항거점으로서 기능했었다. 이러한 면에서 전형적인 연해주 발해 산지 성터가 아누친스키 지역 아우롭스코에 산지 성터인데 이 성터는 산성접근이 전혀 용이치 않은 산지 지맥에 위치해 있다 (그림 4-3). 이 성터의 성벽은 돌들로 쌓여져 있다. 발굴된 주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발해시기의 전형적인 문화를 보여주지만 그 외의 다양한 다른 문화층들을 포

함하고 있는 이 성터의 최상층은 발해이후 시기임이 판명되었다.[15]

아끄짜브리스키 지역의 콘스탄티놉스코에-1, 콘스탄티놉스코에-2, 체르나티노-2, 우수티스크 지역의 아브티코소프스코에, 코르사콥스코에-1, 코르사콥스코에-2 등의 발해 주거지들은 강 연안 분지들에 위치하고 있다. 연해주 발해 주거지들은 농업을 위해 유리한 지역인 강가나 저수지 인근지역이면서 물에 잠기지 않는 다소 높은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 이들 주거지의 면적은 상당한 크기에 이르는데 50헥타르까지 이르는 곳도 있으며 고고학적 문화 층이 심지어 2 미터 정도에 이르는 곳도 있다.

콘스탄티놉스코에-1 주거지는 라즈돌리나야 강 우안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지 남쪽 한계에서 북쪽 한계까지가 1킬로미터에 이르고 동-서한계간의 거리는 0.5킬로미터에 이른다(그림 5). 콘스탄티놉스코에-1 주거지에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된 3개의 고고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최하층은 철기시대의 크라우노프스카야 문화, 중간층은 발해문화, 수많은 개간으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최상층은 11~12세기 북송의 주화들 뿐만 아니라 20세기초 이곳에 정착했던 한국인들이 남겼던 각종 유물까지도 발견되었다. 콘스탄티놉스코에-1의 발해시기 유적 층은 경우에 따라서 2미터를 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1미터 정도에 이르고 있다. 발굴과정에서 주거시설과 생활물품 저장시설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ㄱ자형의 단일 통로 온돌 구조와 기와로 지붕이 얹혀진 듯 한 半地下의 상태가 좋은 주거시설이 1988년도 발견되었다. 이

15) Шавкунов В.Э., Гельман Е.И. Многослойный памятник Ауровское городище //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Т. XI.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2002. С. 75–108.

주거시설의 온돌 설비 구조에서 주목을 끄는 사항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의 벽을 砂岩 석판을 수직으로 세워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16] 고르바트카 성터의 2단 온돌 설비 구조의 경우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는 조약돌들을 쌓아서 만들어진 수직형의 돌단으로 세워 구축되었다.[17] 이와 유사한 온돌 구조 양상은 아우롭스코에 성터의 주거지에서도 목격된다. 이 곳의 2단 Г 자형 의 연기통로는 '가로로 쌓여진 석판'으로 구축되어 있다.[18] Г 자형의 온돌구조를 갖는 유사한 반지하형 주거지는 중국의 Suifenhe 강 유역의 Dongning 지역에서 발굴된 발해 유적지인 Tuanjie 주거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르바트카 성터 주거지 발굴 중에 아궁이 안에 뒤집힌 형태로 발견된 커다란 토기와 함께 여러 가지 뼈로 제작된 유물 (무기, 화살촉, 장식품), 철로 제작된 유물 (칼, 화살촉)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방추 등이 발견되었다.

체르냐티노-2 주거지는 라즈돌리나야 강이 우측 지류인 오를리하 강과 합류하는 합류점 인근지역 右岸의 넓은 대지에 위치해 있다. 주거지의 총면적은 800,000m²에 이른다. 상층부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이 주거지 유적의

16)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Хорев В.А., Шавкунов В.Э. Новый тип бохайского жилища в Приморье // Материалы п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археологии и ис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90. С. 153–159.

17) Гельман Е.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в 2000–2001 гг.// Россия и АТР, 2002, № 3. – С. 95–98.

18) Шакунов В.Э. Раскопки Ауров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 130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ладивосток, 2001. С.173–183.

다양한 고고문화층들을 분석한 결과 이 주거지에는 신석기 층(자이사놉스카야 문화), 청동기 시대 층, 초기 철기 시대 층(크로우놉스카야 문화), 말갈-발해 층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기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인의 문화 층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주거지 크기가 시대별로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해시기에는 20,000~25,000㎡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탄층과 쓰레기로 인해 검은 갈색의 사질토양을 이루고 있는 발해시대 층은 두께가 25~80㎝에 달하고 구멍들과 건축의 토대가 발견된 곳들은 1.5m를 넘기도 하였다.[19] 아울러 발굴 과정 중에 주거지 발해 층에서 건축물의 기층들과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고분군. 현재 연해주 전 지역을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발해문화와만 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분은 아끄짜브리스키 지역 체르냐티노-5 고분군이다. 체르냐티노-5 고분군의 발굴 중에 2곳의 공양시설과 70곳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고분들은 고분 조성 형식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의 무덤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로 토양에 갱을 파서 매장한 것들로 나무틀과 목관의 흔적들을 보여주며 불에 탄 느릅나무 편들과 참나무 껍질 조각들, 자기조각들과 토기들 그리고 불에 탄 인골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무덤들 대부분이 남동에서 북서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두번째는 석판묘 형식의 매장이다. 석판묘의 내부는 하부로 17~50㎝ 깊이 정도이며 석관의 벽면은 평평한 돌들로 구축되어 있으며 남동쪽으로 커다란 석재 판석으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석관의 내부에서는

19) Никитин Ю.Г., Гельман Е.И., Болдин В.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еления Чернятино-2 //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О РАН, 2002. С. 213-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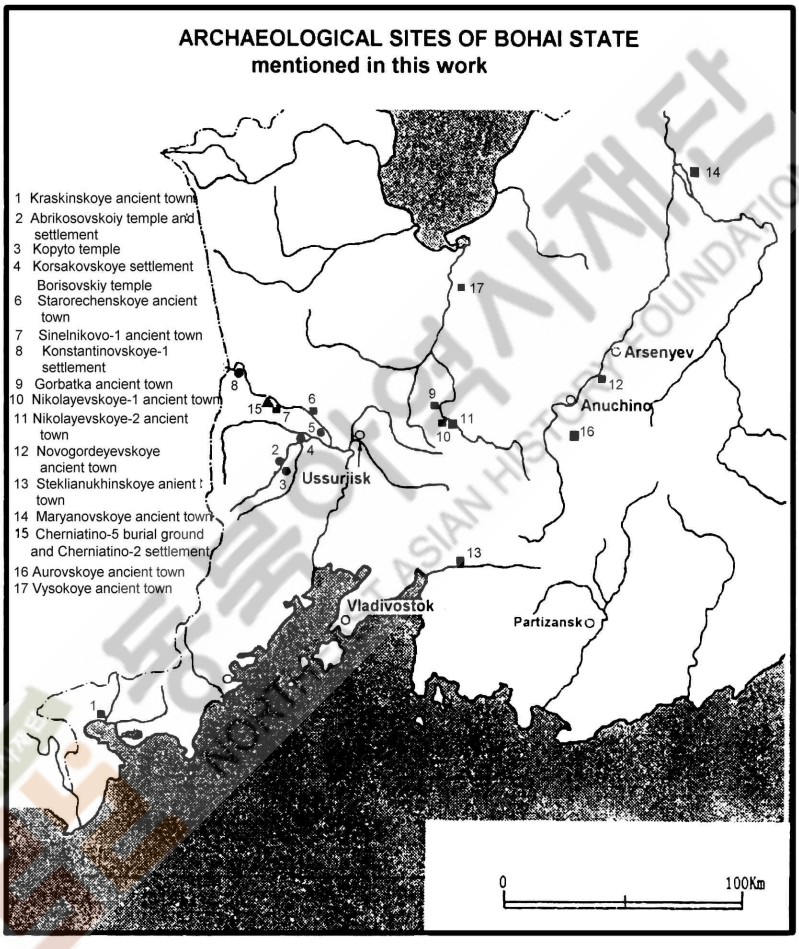
불타버린 목관의 잔해들, 타버린 인골조각들과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석판의 상부에는 크고 평평한 석판으로 덧씌워져 있었다. 2004년도 발굴 중에는 화장되지 않은 채 매장된 인골이 발굴되었다. 세번째로 이전 시기에 조성된 무덤의 상층에 덧씌워 조성한 목관 매장인데 내부에서는 썩은 목관의 잔해, 불에 탄 인골조각들과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체르냐티노-5 고분군에 대한 발굴결과는 각각의 고고문화층들에 따라 매장 양식의 시대별 특성들을 규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 오래된 자기들이 발견되는 하부 문화층은 말갈 문화 층에 해당하여 서기 6세기 말부터 7세기경으로 밝혀졌으며 최상층은 후기 발해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해주 지역 내에는 발해 문화와 어느 정도 동일 시기로 간주되는 또 다른 고분들이 있는데 대우수리스크 분지(이만)의 로시친스키 고분, 달리네고르스키 지역 모나스트이르카-3 고분 그리고 타죱스키 지역의 동해 연안에 위치한 글라즈콥스키 고분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 고분 군들과 발해 문화의 관계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고분 군에 대한 그 외의 최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2003년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이루어진 석판묘 – 즉 발해 고분의 발견을 들 수 있다.

불교 사찰들은 그리 높지 않은 산지 정상이나 산기슭, 또는 행정적 중심지로 기능했던 성터의 영역 내에 건설되었다. 산지 정상이나 산기슭에 건축된 사찰(우수리스크 지역의 아브리코소프, 코프이토, 코르사코프 그리고 바티소프 절터)들은 일반 주거지 주변에 위치된 이상 당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종교의식을 위한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기단 위에 장방형으로 세워진 단독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면적도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건물기둥의 기반은 석조 기단이었고 지붕은 기와로 덮어졌다. 사찰의 영역은 석재 기반 위에 조성된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크라스키노 성터의 절터는 금당지(그림 6)를 위시하여 정자, 세속적

생활 설비 시설(우물, 음식물의 보전과 재처리를 위한 공간)과 생산 활동 시설 (기와가마터, 대장간)까지 망라하는 총체적 사찰 건물터이다. 이와 아울러 전 사찰건물터가 석재기반 위에 조성된 담장을 통해 성터의 다른 영역과 구분이 되어있다. 크라스키노 절터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한 토기, 철로 된 종들, 지붕의 장식을 위한 테라코타 장식물, 불상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 연해주 내 발해 유적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발해 유적지들의 기본적인 범주적 유형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발굴된 유적들을 통해 발해인들의 경제생활과 문화를 어느 정도 고고학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문화의 시대적 구분과 특징, 연해주 내 발해문화의 영향범위, 발해 이전 철기 시대와 발해 이후 여진 시대 문화와의 연관성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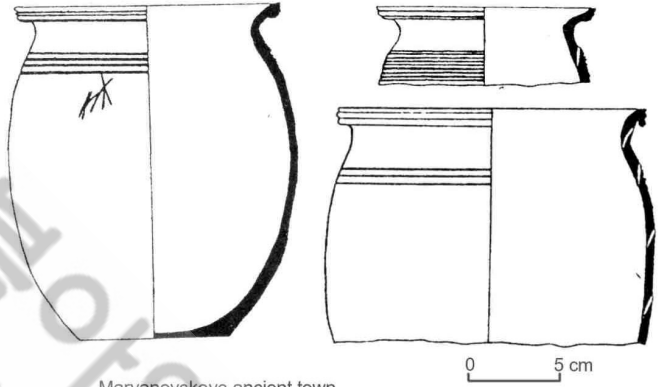

ARCHAEOLOGICAL SITES OF BOHAI STATE
mentioned in this work
1 Kraskinskoye ancient town
2 Abrikosovskoiy temple and settlement
3 Kopyto temple
4 Korsakovskoye settlement
Borisovskiy temple
6 Starorechenskoye ancient town
7 Sinelnikovo-1 ancient town
8 Konstantinovskoye-1 settlement
9 Gorbatka ancient town
10 Nikolayevskoye-1 ancient town
11 Nikolayevskoye-2 ancient town
12 Novogordeyevskoye ancient town
13 Steklianukhinskoye anient town
14 Maryanovskoye ancient town
15 Cherniatino-5 burial ground and Cherniatino-2 settlement
16 Aurovskoye ancient town
17 Vysokoye ancient town
Arsenyev
Anuchino
Ussurijsk
Vladivostok
Partizansk
0
100Km

〈그림 1〉

〈그림 2〉



Kraskinskoye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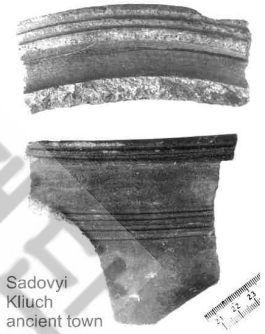


Maryanovskoye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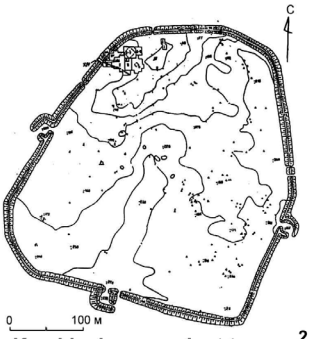
Nikolayevskoye-2
ancient town

Ceramic vessels typical for Bohai culture (left) and for North-Eastern periphery of Bohai in Primory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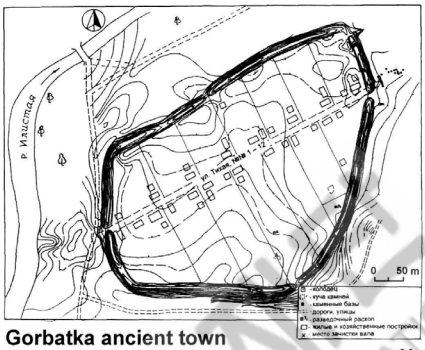


Sadovyi
Kliuch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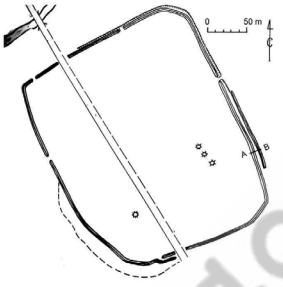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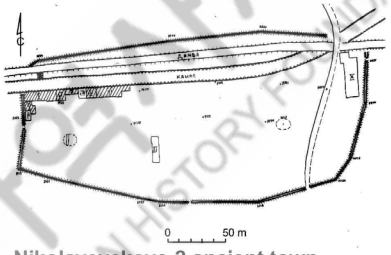
1. Kraskinskoye ancient town



2. Gorbatka ancient town



3. Nikolayevskoye-1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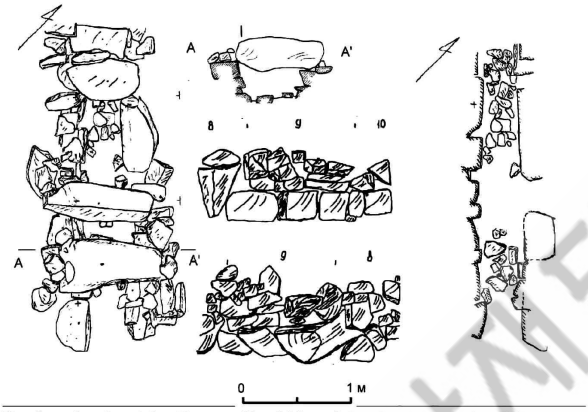


4. Nikolayevskoye-2 ancient town



5. Frontal tower of Kraskinskoye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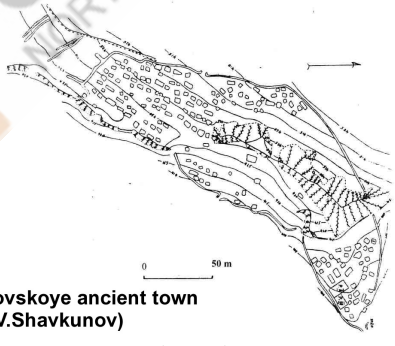
〈그림 3〉



1. Drainade duct in the wall of Kraskinskoye ancient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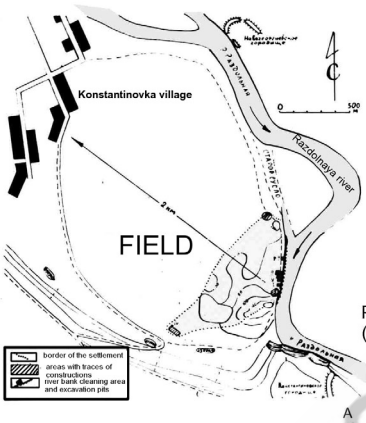


2. Outer masonry on the wall of Sinelnikovo-1 ancient town



3. Aurovskoye ancient town
(by V.Shavkun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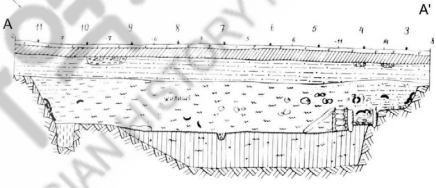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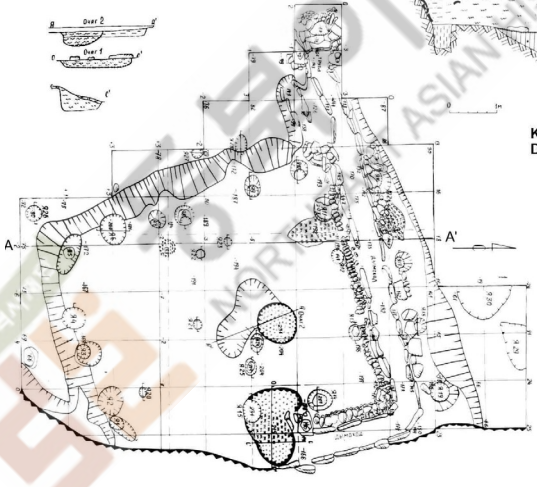




A kang in the dwelling No.4. Konstantinovskoye-1 settl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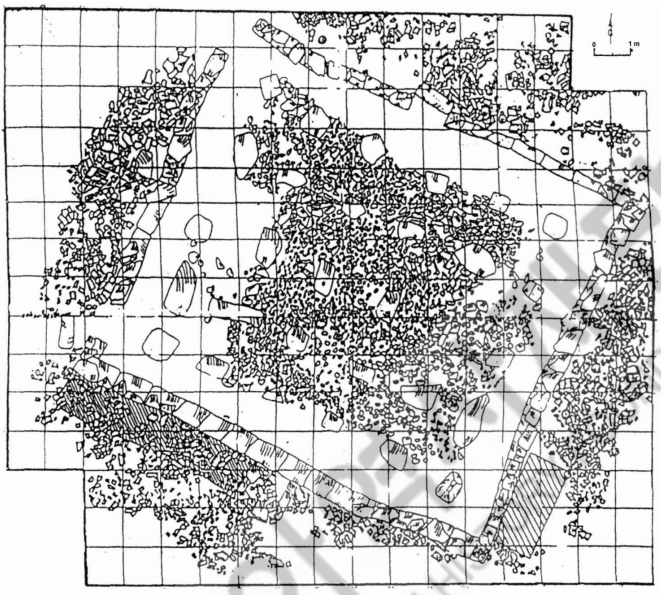
Plan of Konstantinovskoye-1 settlement
(area of the settlement is marked by dotted line)





Konstantinovskoye-1 settlement.
Dwelling No.4. Plan and section

〈그림 5〉





A basement of a temple in Kraskinskoye ancient town

〈그림 6〉

Тюркские руны и время образ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Н. Крадин

Пробл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хорошо изучена по китайским и корейским летописям. Однако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б этом времен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из анализа тюркских рун – надгробной надписи, воздвигнутой на могиле Кюль–тегина. Кюль–тегин (685–731 годы) был круп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еятелем и полководцем в период становления и расцвета Второго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На его похороны прибыли послы от многих народов и государств. Танский император отправил специальное посольство с искусными мастерами,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воздвигнуть великолепный памятник Кюль–тегину на берегу

Орхона.

Впервые стела в честь Кюль–тегина была открыта русски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м Н.М.Ядринцевым в 1889 году. Позднее её изучали лингвисты многих стран (подробно смотри: Кляшторный 1964; 2003). В 1958 г. чешский археолог Йисл совместно с монгольским ученым Сэр–Оджавом провел здесь небольшие раскопки (Jisl 1960).

Надгробная стела имеет форму усеченной пирамиды высотой 3 метра. На ней есть надпись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две рунические надписи – большая и малая, содержащие описание истории тюрок и некролог Кюль–тегину. По руническим надписям и китайским текстам известно, что Кюль–тегин умер 27 февраля 731 года. В мае Бильге каган тюрков попросил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прислать мастеров и художник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храм и статуи. Похороны состоялись 1 ноября того же года. Стела и храм были сделаны позднее в 732–733 годах (Liu Mau–tsai 1958: 228–229; Кляшторный 2003: 54–57).

Большая надпись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похороны. Там сообщается о разных посольствах, которые прибыли на похороны (здесь и далее цитаты с надгробной надписи Кюль–тегину даются по переводу С.Е.Малова (1951: 36–37.

"(В качестве) плачущих и стонущих (т. е. для выражения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пришли) спереди, из (страны) солнечного восхода, народ степи Беклийской, (а также) табгач, тибетцы, авары и Рим, киргизы, уч–курыканы, отуз–татары, кытай и татабыйцы, столько народов придя, стонали и плакали" (КТб 4).

Сред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ет единого мн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что за народ скрывался за этнонимом "Бокли"–"Бекли" (Bokli). Л.Н.Гумилев полагет, ч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ечь идет о мукри (мохэ). Фразу "Bokli col(l)ig il" он разбирае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col" – у тюрков и монголов обозначает сушу, безводную пустыню, однако "cogli" – значит дальний. Л.Н.Гумилев выступает за второе толкование, поскольку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Кюль–тегина к востоку от Монголии не было крупной степной державы "эля" (Il). Всю фразу он переводит как "из дальней Боклийской державы" (Гумилев 1967: 343).

С.Г.Кляшторный развивает идеи Пельо (Pelliot) и предлагает иное толкование. По его мнению "Бокли" рун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это наз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е (китайское "Гаоли", тибетское "Муглиг", санскрит "Мукури") (Кляшторный 1964: 23; 2003: 96).

В этой связи ва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аргумент Э.В.Шавкунова, что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Кюль–тегина гусударство Когуре уже более шестидесяти лет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на его месте т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было учреждено "Наместничество умиротворения восточных

земель"), а с конца VII в. часть его севе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была включена в состав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Шавкунов 1976: 69).

Можно также добавить, что сочетание "Боклийская степь" согласно переводу С.Е.Малова не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о в отношении терри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е. Степью еще можно назвать районы обитания мохэских племен, проживавши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обширных равнинах притоков реки Черного дракона – бассейна Амура, но к горной ме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не применимо.

Другой важный вопрос состоит в том, как перевести термины "эль" (II) и "каганат". Одна группа ученых (В.В.Радлов, П.М.Мелиоранской, С.Е.Малов и другие) переводили термин эль как "племенной союз". По мнению другой групп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А.Н.Бернштам, С.П.Толстов, С.Г.Кляшторный и др.) более адекватен современному содержанию данного понятия перевод "государство" (Мелиоранский 1898: 270–271; Малов 1951: Словарь; Бернштам 1946: 101–102, 142–143; Толстов 1948: 259; Кляшторный 1964 23 и др.).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считаем мы это общество союзом племен, чифдомом (chiefdom) или государством, это было крупна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ая полития (polity), выступавш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субъекто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о Внутренней Азии.

Политика вещь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а ис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могущественным соседом можно очень просто, не оказа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чтение его статусу. Поэтому дипломаты всех времен и народов очень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правильн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итулов, этикетов и правил. Едва ли Йолыг–тегин стал бы употреблять в отношении делегации уничтоженног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государства (кстати, кто бы мог послать такое посольство – это тоже не понятный вопрос?) термин более применимый к независимому крупно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ноним "бокли" скорее всего означает древнетюркское названи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Однако для нашей статьи более важна другая фраза из эпитафии Кюль–тегину. После объединения Китая под властью династии Тан в 618 г. кочевники тюрки столкнулись с серьезны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м южного экспансионистского соседа. Уже в 630 г. Первый Тюркский каганат перестал существовать. Над кочевниками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строгий надзор, часть тюркских племен была переселе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рдоса и Шаньси. Эти печальные для номадов события также излагаются в надписи на могиле Кюль–тегина:

> "народу табгач стали они (тюрки) рабами своим крепким мужским потомством и рабынями своим чистым женским

потомством" (КТб 7).

"Рабство мужским потомством" выражалось в том, что традиционно прекрасные воины кочевники тюрк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оставлять "пушечне мясо" тан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его алчн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Тюрк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завоевательных походах против своих собратьев степняков, в Западные земли, в Маньчжурию и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Пятьдесят лет отдавали они (ему свои) труды и силы, Вперед, (в страну) солнечного восхода, они ходили войною вплоть до Бекли–кагана" (КТб 8).

Из данной фразы явственно следует, что в составе танских армий тюрк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ходах против "Бекли–кагана" (дословно: Bokli kaganka). Данные события имеют четкую датировку. Согласно тексту эпитафии "пятьдесят лет" (КТб 8) это время примерно между 630 г. (гибель Первого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и 679–681 гг. (восстания Нишуфу, Фуняня, а зате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аганата "обьединителем народов" каганом Кутулугом). Опять таки это не могло быть государство Когурё. Оно погибло в 668 году. Это также не смогло быть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Официально оно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позднее в 698 году. Следовательно в это время общество мохэ представляло собой крупное независим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обьединение (polity) во

главе с единоличной властью, которое по форме устройства 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рангу в глазах тюркск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пример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о статусу их собств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 период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ероятно это было сложное вождество (complex chiefdom) или конфедерация вождеств или племен (tribe).

Это объединение включало в свой состав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Поскольку Когурёская элита вошла в состав элиты мохэской конфедерации, логично было бы предположить вслед за Пелье и Кляшторным, что их могли называть по традиции политонимом Bokli. Меня смущает только одн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о котором я упомянул выше. Когурё – это в своей основе горная страна, а про бокли в тюркских эпитафияг говориться Bokli col(l)ig – боклийская равнина. Для кочевников равнины и горы – это два разных мира и данное уточнение тюрков не случайно.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тносительно начальной даты дают другие источники. Известно, что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VII в. (с какого времени точно не известно) мохэские племена зависели от Первого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и были обложены данью. "Синь Тан шу" в главе "описание тюрков" сообщает, что после смерти Чуло-кагана (Tsch'u-lo)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в 620 г. новый правитель тюрков Хели (Hie-li)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на престол вверил сво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младшим братьям")

управление племенами метрополии и зависим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Один из них – Тули–хан (T'u–li) – был назначен правителем над народами Кидань и Мохэ. Однако Тули–хан оказался плохим наместником. Он собирал безмерные налоги и подчиненные племена вышли из повиновения ему. Некоторые племена попросили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а у кита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Тюркский каган Хйели отправил войско против них. Но это войско было совершенно разбито (Бичурин 1950: 259; Liu Mau–tsai 1958: 134–138).

Я не нашел в этих текстах информации о том отделились ли от каганата кидани и мохэ. Но скорее всего мохэ отделились первыми – ведь до них степным тюркам было добираться сложнее все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хэские племена освободились от тюрк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где–то после 620 г. Именн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относятся упоминания в китайских летописях об их знаменитом полководце и политическом деятеле Тудицзи, который после 626 г. за победу над тюрками был причислен к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родовой фамилии Ли.

Итак, подведем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я. Анализ надгробной надписи на могиле выдающегося тюрк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еятеля Кюль–тегина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уже примерно к середине VII в. у мохэ сложилось мощное потестарно–политическое обьединение (каганат Бокли) с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властью, которое по своему статусу и форме

внутреннего устройства (иерерхическая структукра управления, зачат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итулатура и этикет) примерно равнялось пред– и ран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типа того же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Можно ли считать Боклийский каганат ранн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early state) или это было “сложное вождество” (complex chiefdom)? Едва ли сейчас на данный вопрос можно дать убедительный ответ. Однако это не важно. Главное, мы знаем, что уже примерно в середине VIII в. – то есть почти за полвека до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Чжэнь (Бохай) мохэск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достигла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развития.

Бибдиография

Бернштам А.Н.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строй орхоно–ениссейских тюрок VI–VIII веков. М.– Л., 1946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М.– Л., 1950. Т. I. С. 259.

Гумилев Л.Н. Древние тюрки. М., 1967.

Кляшторный С.Г.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рун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64.

Кляшторный С.Г. Ис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амятники

рун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СПб., 2003.

Малов С.Е.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 Л., 1951

Мелиоранский П.М. Об орхонских и енисейских надгробных памятниках.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1898, No 6.

Толстов С.П. Древний Хорезм. М., 1948.

Шавкунов Э.В.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ревних этнонимов в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й записи. Новейши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76.

Jisl L. 1960. Vorbericht über die arch ologische Erforschungen des Kül–tegin–Denlmals durch diě tschechoslowakisch–mon–golische Expedition des Jahre 1958. Ural–Altaische Jahrbücher, Bd. XXXII, H. 1–2.

Liu Mao–tsai 1958. Die chinesischen Nachrichten zur Geschichte der Ost–Türken (T'u–küe). Bd. I. Wiesbadenю

돌궐 룬문자와 발해국 형성의 문제

●

N. N. 크라딘 (극동국립기술대학교)

●

발해국 형성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사서들을 통해 잘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발해국 형성의 시기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쿨-테긴의 무덤에 헌정된 묘비에 돌궐 룬문자로 작성된 헌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쿨-테긴(685~731)은 2차 돌궐汗國의 형성기와 전성기 기간에 걸쳐 대단한 정치가였으며 사령관이었다. 그의 장례식에 많은 민족과 국가들로부터의 사절단이 방문하였다. 당나라 황제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지닌 대신을 파견하였는데 그의 재능은 오르콘 강가에 쿨-테긴을 기리는 위대한 유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쿨-테긴에 헌정된 묘비는 1889년 러시아의 여행가 N.M.야드린쩨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그 묘비를 연구하였다[1]. 1958년 체코 고고학자 이쓸은 몽고학자 세르-오자프와 함께 이

지역에서 소규모 발굴을 하였다.[2]

묘비는 3미터 정도의 높이에 축소된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묘비에는 중국어 텍스트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큰 서체로, 다른 하나는 작은 서체로 2종류의 돌궐 룬 텍스트도 있는데 돌궐의 역사와 쿨-테긴에 헌정된 조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룬 텍스트와 중국어 텍스트 따르면 쿨-테긴은 731년 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3월에 돌궐의 카간 빌게는 중국 황제에게 사찰과 동상 건축을 위해 전문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보내주도록 청하였다. 장례식은 731년 11월 1일에 거행되었다. 묘비와 사찰은 후에 732~733년간에 걸쳐 완공이 되었다.[3]

커다란 서체의 룬 텍스트는 장례식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여러 사절들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쿨-테긴에 헌정된 묘비 텍스트의 이후 모든 인용은 S.E. 말로프의 번역본[4]에 따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즉, 애도와 조의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의 (자격으로) (왔노라). 이 앞으로, 태양이 솟는 동쪽의(여러 나라들)로부터, 버클

1) Кляшторный С.Г.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рун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64. Кляшторный С.Г. Ис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амятники рун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СПб., 2003.
2) Jisl L. 1960. Vorbericht über die arch" ologische Erforschungen des Kül-tegin-Denlmals durch die tschechoslowakisch-mongolische Expedition des Jahre 1958. Ural-Altaische Jahrbücher, Bd. XXXII, H. 1-2.
3) Liu Mao-tsai 1958. Die chinesischen Nachrichten zur Geschichte der Ost-Türken (T'u-küe). Bd. I. Wiesbadenю Кляшторный С.Г. Ис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амятники рун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СПб., 2003 : 54-57
4) Малов С.Е.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 Л., 1951 : 36-37.

티 평원의 민족, (또한) 타바가츠인들, 티베트인들, 아바르인들과 로마인들, 키르키즈인들, 우츠-쿠르칸인들, 아루즈-타타르인들, 중국인들, 타타브이인들, 그 많은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애도하고 슬퍼했노라"(KT6 4)

'Bokli' 또는 'Bekli'라는 명칭이 어떤 민족을 칭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분분하다. L.N.구밀료프 박사는 여기서 Bokli는 부끄티(말갈)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kli col(l)ig il"라는 문구를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col"은 돌궐족과 몽고인에게 대지, 광활한 황야를 의미하지만 "cogli"의 경우 멀리 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그는 쿨-테긴이 사망했을 당시 몽고의 동부지역에 커다란 평원의 '엘티(Il =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머나먼 버클리 국으로부터".[5]

S.G.클랴쉬토르느이는 펠리오(Pelliot)의 견해를 발전시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돌궐 룬문자 텍스트의 'Bokli'는 고구려(중국어로 '가오리', 티베트어로 '무글릭', 산스크리트어로 '무꾸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6]

이와 관련해서 E.V.샤프쿠노프 박사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쿨-테긴의 사망 시기는 고구려 멸망 이후 이미 60년 이상이 지났던 시기이며 7세기 말엽 고구려의 북쪽영토의 일부는 발해국에 편입되었었다.[7] 아울러 S.E. 말로프는 "버클리 평원"이라는 용어는 고구려의 영토와

5) Гумилев Л.Н. Древние тюрки. М., 1967 : 343.

6) Кляшторный С.Г.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рун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64. Кляшторный С.Г. Ис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памятники рун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СПб., 2003 : 96.

관련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평원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지역은 아무르강 연안의 흑룡강지류 지역의 광활한 평원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말갈족의 거주지역들이며 한반도의 산악 위주의 지형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는 '엘리(Ил = 국가)'와 '汗國'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가 하는 것이다. 일련의 학자들(V.V.라들로프, P.M.멜리오란스키, S.E.말로프 등등)은 '엘리'라는 용어를 '부족연합'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학자군(A.N.베른쉬탐, S.P.톨스토프, S.G.클랴쉬토르느이 등등)의 견해에 따르면 이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에 더욱 근사한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우리가 이 개념을 부족연합이던, CHIEFDOM이던, 국가이던 무엇으로 간주하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 내륙 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간주되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던 중앙집권화된 국체형태였다는 사실이다.

---

7) Шавкунов Э.В. Опы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ревних этнонимов в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й записи. Новейши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1976 : 69.

8) Мелиоранский П.М. Об орхонских и енисейских надгробных памятниках.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1898, No 6 : 270–271.
Малов С.Е.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 Л., 1951
Бернштам А.Н.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й строй орхоно–ениссейских тюрок VI–VIII веков. М.– Л., 1946 : 101–102, 142–143
Толстов С.П. Древний Хорезм. М., 1948 : 259
Кляшторный С.Г.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рун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64 : 23.

정치란 본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것이며 주변 강국들에 대해 상응하는 경애나 존경이 적절하게 의전상으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이들 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때문에 모든 시대와 민족들의 외교사절들은 상응하는 호칭, 의전 및 원칙들에 적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는 법이다. 이올릭-테긴이 이러한 용어를 수십년 전에 멸망해버린 국가에 적용했을 리는 없으며(더욱이 그러한 국가가 어떻게 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었을까 역시 문제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용어는 고구려가 아닌 다른 커다란 정치적 주체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버클리'라는 용어는 다민족 국가였던 발해국을 지칭하는 돌궐 용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쿨-테긴 묘비의 다른 구절이다. 618년 당나라 왕조의 중국통일 이후 돌궐 유목민족들은 남쪽의 팽창주의 일변도의 이 이웃과 심각한 충돌에 직면한다. 630년에는 첫번째 돌궐 汗國이 멸망하였다. 이들 유목민족은 심각한 감독관리하에 처해지고 돌궐부족의 일부는 오르도스와 산인씨 영토로 이주되었다. 바로 그 당시 유목민족들에게 발생한 이러한 슬픈 사건들이 쿨-테긴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 :

> "타바가츠 민족앞에 그들(돌궐족)은 남자들 대대로, 여자들 대대로 노예가 되어 버렸다" (KT67).

"남자들 대대로 노예" 라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탁월한 전사들인 돌궐유목전사들이 중국 당나라 황제의 탐욕스런 야심들의 실현을 위해 "肉牌"이 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로 표현되어 있다. 돌궐인들은 평원지대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동료들에 대항해야만 했으며 서쪽 지역으로, 만주 지역으로 그리고 한반도 지역까지 무력 원정에 참여해야만 했다.

"50년간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온갖 노력과 힘을 바쳤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나라에)까지 앞으로 진군하여 버클리 汗國과 전쟁을 치루었다." (KT6 8).

바로 이 부분의 인용문에 주목할 경우 당나라 군의 "버클리汗國" 원정에 돌궐인들이 참여했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건들의 정황은 정확히 기록된 연대기 기록들에 의거 확인될 수 있다. 쿨-테긴 묘비의 "50년간" (KT 6 8)이란 것은 아마도 630년(제1차 돌궐 汗國의 멸망)과 679-681년(니슈푸와 푸나나의 반란과 그 이후 돌궐민족의 통일자 쿠틀루그에 의한 돌궐汗國의 복원)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따라서 '버클리'는 고구려에 적용될 수 없는 용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 용어가 발해국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발해국은 공식적으로 다소 늦은 시기에, 즉 698년에 창건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 말갈사회가

단일한 권력을 정점으로 한 상당한 규모를 갖춘 독립적인 정치적 국체(poloty)였음에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정체의 형태라던지 국제적인 위상이 당시 돌궐인들로 하여금 버클리를 독립된 고유한 국체로서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버클리가 COMPLEX CHIEFDOM 이거나 부족연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버클리'라는 용어로 일컬어진 이 연합체를 일부 고구려인들이 합류해 함께 구성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말갈연합에 고구려의 엘리트들이 합류한 만큼 펠리에와 클라취토르느이의 의견에 준하여 '버클리' 라는 용어를 합류한 고구려인들이 그들의 전통에 따라 불렀던 이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논리적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여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사실은 고구려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였던 국가인데 반하여 '버클티'에 관하여 클라프로트의 묘비에 'Bokli col(l)ig', 즉 '버클티 평원'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목민들에게 평원과 산악지대는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세계임이 분명하며 돌궐인들이 평원이라는 정확한 수사를 무심코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연합체의 창건기일과 관련한 추가적 정보는 다른 사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세기(정확한 연대기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초반 말갈족은 제1 돌궐汗國에 합병되고 공물을 납부해야 했다. "신당서" 의 "돌궐편"에 보면 대충 620년경 지도자 출로(Tsch'u-lo)의 사망 이후 새로운 지도자 헬리(Hie-li)가 왕위에 오른뒤 수도지역과 부속영토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관리를 인척(동생들)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인 툴리-칸(T'u-li)은 거란족과 말갈족 관리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툴리-칸은 못된 총독이었다. 그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복속된 부족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다. 몇 부족들은 중국황제에게 보호를 청하기도 하였다. 돌궐汗國의 지도자 헬리는 그들에 대항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 군대는 완패를 하고 말았다.[9]

상기의 문헌자료에서 돌궐汗國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거란족이었는지 말갈족이었는지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말갈족이 먼저 독립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평원지대의 돌궐 족들에게 말갈족에 이르는 길이

9) Бичурин Н.Я. 1950: 259; Liu Mao-tsai 1958: 134-138.

더 멀고 험난했기 때문이다. 말갈족은 620년대 이후 돌궐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다. 626년 돌궐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중국 황실의 성씨인 이씨 성을 하사받은 사령관이자 정치가였던 투지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중국사서들의 기록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제까지의 논거를 통해 결론을 내려보면 돌궐의 저명한 정치가 클-테긴의 묘비에 적혀있는 비문에 대한 분석은 대략 7세기 중반경에 이미 말갈족에게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정치적 연합(버클리 汗國)이 형성되어 체제 내부의 형태와 양상 면에서 돌궐汗國에 버금가는 국가전단계 또는 초기국가 단계에 상응하는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버클리 汗國이 early state였을까 complex chiefdom 이었을까?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8세기 중반에 발해국이 정식 창건되기 반세기 이전에 이미 말갈연합이 대단한 발달 단계에 이미 이르렀었다는 사실이다.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ИСТОР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Болдин В.И.

Городище находится на юг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оссии в приустьевой правобережной части долины реки Цукановки в 2 км на юго–запад от посёлка Краскино и в 400 м от берега моря (рис. 1:а). В плане оно напоминает подкову. Вершиной ориентировано почти на север. В крепостной стене трое ворот (южные, восточные и западные), защищённые с внешней стороны дугообразными валами. Длина крепостного вала 1,2 км, площадь городища в пределах 5 га (рис. 1:в).

Городище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Г.И.Андреевым в 1958 году. В 1960 и 1963 году памятник обследовал Э.В.Шавкунов.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бра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он датировал памятник VIII–X вв. и предположил, что городище является центром

бохайского округа Яньчжоу, откуд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основная связь Бохая с Японией.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на памятнике начаты в 1980 году и продолжаются с некоторыми перерывами до сего дня. Историю исследования следует разделить на три этапа.

Первый этап связан с полевыми сезонами 1980–81, 1983 и 1990 гг. Раскопки были сосредоточены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городища. Это наиболее возвыш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памятника (рис. 2). Была раскопана печь по обжигу черепицы. Она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прямоугольный котлован, вырытый на пологом склоне в материковых отложениях. Продольной осью она был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в направлении с северо–запада на юго–восток (рис. 8:а). Продольные стены в нижней части были укреплены крупными, грубовато изготовленными черепицами. Длина их 41,5–46, ширина 28–35 см. Верхние участки стен были обожжены настолько, что спёкшийся песок образовывал корочку толщиной в 10 см. Поверх черепицы и спёкшейся почвы стены были покрыты 4–8 см слоем обмазки. Поперечные стены печи сложены из крупных камней обмазанных изнутри глиной смешанной с рубленой соломой. Внутри котлована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тки глиняного свода печи. Толщина свода достигала 10 см. Печь состояла из трёх секций: топки, камеры обжига и трубы. Топка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камеру объёмом 66 × 100 × 160 см. Пол топки был покрыт 6–8

см слоем древесного угля и сажи. Топливо в камеру подавалось через небольшое устье расположенное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стене печи. Центральную часть печи занимала камера обжига. Средняя высота её 65, длина 220, ширина 150 см. Дно камеры завалено бракованной черепицей. Ниже залегал 2–4 см плотный слой мелкобитой черепицы. Труба смыкалась с поперечной юго–восточной стеной печи,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й было прямоугольное отверстие (38 ×52 см) из которого из обжигательной камеры выходил наружу дым. Труба сложена из камня, а дно покрывала обмазка. Размеры трубы 35 ×50 см, а высота достигала 90 см. К топочному устью прилегала яма глубиной 30, диаметром 142 см. Она была засыпана продуктами сгоревшего топлива – древесным и каменным углем, сажей, а также кусками прокаленной обмазки и черепичного брака. Печь представляла довольно солидное сооружение длиной 390, шириной 140–160 см. Материковый уровень дна котлована печи имел уклон на северо–запад и перепад между крайними точками продольной оси достигал 55 см. Такой уровень служил для создания хорошей тяги в печи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1984. С. 142–150). В 1981 году вскрыты руины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рис. 3). Храм был сооружен на прямоугольной искусственной земляной платформе, высота которой достигала 1 м., длина – 11,8, ширина – 10,4 м. Платформа и храм углами ориентированы по сторонам света. Со всех четырёх сторон

платформа укреплена стенкой, сложенной из двух рядов каменных плит. На платформе сохранилось 30 каменных баз служивших основаниями для деревянных колонн храма. С северо–запада на юго–восток они образовывали шесть рядов по пять баз в каждом ряду. Фасадом храм развёрнут на юго–запад. Вход приходился на центральный проём между базами и был оформлен каменной ступенькой вплотную примыкавшей каменной стене платформы. Пол храма вымощен галькой. Центральная часть вымостки пола, составлявшая 1,5 кв. м, возвышалась на 10–30 см. Возможно, здесь размещался алтарь с буддийскими божествами. Именно здесь обнаружена позолоченная бронзовая статуэтка Будды. По полу площадь храма составляла 7,4x8,2 м. Крыша храма была покрыта черепицей и, очевидно, была четырёхскатной, поскольку черепичный развал крыши отмечен на всех четырёх сторонах от платформы. Края конька крыши украшали терракотовые выступы в форме “совиного хвоста”. Обломки их собраны перед входом в храм и в других частях черепичного завала. Центральную часть конька украшал терракотовый куполообразный выступ (рис. 4). По углам крыши висели чугунные колокольчики. Крыша храма была покрыта желобчатой нижней и полукруглой верхней черепицей. В черепичном завале встречались обломки угловой и козырьковой черепицы. Фронтальный срез черепиц украшен

орнаментом. На нижних черепицах он представлен двумя видами. Фронтальный край верхних черепиц украшал дисковидный налеп с оттиснутый стилизованным цветком лотоса (рис.14:10).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черепица серого цвета с отпечатками грубой ткани на внутренней стороне. Из предметов ритуал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а обнаружены две статуэтки Будды. Одна, указанная выше, выполнена из бронзы, обломки другой изготовлены из мелкозернистого песчаника (рис. 14:1).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категория находок связана с ритуальной посудой изготовленной из глины и чугуна (рис. 14:5–8). Это четыре чашечки, отлитые из чугуна, фрагменты семи глиняных чашечек копирующих форму чугунных и фрагменты шести чашечек на трёх ножках с отогнутым наружу венчиком. Ножки сосудов выполнены в форме звериных лапок. На храме собраны поливные фрагменты трёх крышек и двух сосудов. Полива многоцветная – зелёно–желто–коричневая. Среди мелких вещей собранных на храме выделяются изделия из бронзы. Это две миниатюрные поясные бляшки, обломок пластинчатого браслета и четыре позолоченных бронзовых бляшки сферической формы. Изделия из железа представлены гвоздями, лавролистными наконечниками стрел, рукоятью ножа, хомутком и бородками. На полу храма обнаружен обломок чугунной наковальни и обломки чугунных котлов горловины которых имели

ребристую поверхность.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черепицы из выше упомянутой печи по обжигу черепиц и крыши храма идентичны (Болдин В.И., 1987. С. 189–1ё90). С целью получ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рихра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от храма на юг и восток были заложены два раскопа. В южной части впервые обозначился нижний строительный горизонт. Он представлен тремя обширными ямами глубиной в 30–50 см дно которых выстилали крупные камни. Очевидно, камни служили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каменных баз которые были извлечены из ям для постройки названного выше храма. В ямах отмечены куски черепиц и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здесь собраны фрагменты четырёх сосудов мохэского типа. Такие сосуды характерны для раннего этапа бохай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верхнем строительном горизонте удалось проследить границ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черепичного развала крыши храма. Здесь же обнаружены украшения из бронзы: овальная поясная бляшка, подвеска, фигурное навершие шпильки для волос, две полусферических накладки, обломок колокольчика. Предметы из железа представлены гвоздями, пробоями, фигурными полусферические накладками и наконечниками стрел. Чугунные изделия: обломками котлов и втулки колеса. Поделки из глины – обломок рыболовного грузила и масса игральных фишек изготовленных из стенок станковых сосудов и черепицы. Изделия из камня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ломком

каменного горельефа буддийской статуэтки и рыболовным грузилом. Керамика, собранная в слое вся станковая. Она представлена горшковидными сосудами у большей части, которых широкий горизонтальный венчик, иногда с закраиной для крышки, корчагами с полутрубчатым или уплощённым венчиком, сосудами с широкими горизонтальными ручками, шаровидными сосудами и крышками. Встречались обломки глазурованных трёхцветных поливных и фарфоровых сосудов.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раскопки приня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характер. В рабо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рхеолог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озглавляемые профессором Ким Чжун Бэ.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были охвачены территории к югу и западу от храма. Вскрыты руины павильона или башни. От неё сохранился каменный фундамент в виде четырёхугольной каменной стенки шириной 0,8 и размерами 4,4 × 4,4 м. Фундамент пагоды как и храм углами ориентирован по сторонам света (рис. 3). Он сложен в 2–3 ряда плоских камней. Углы фундамента занимали крупные каменные блоки, являвшиеся, очевидно, базами для колонн поддерживавших крышу.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и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стенах имелись разрывы похожие на вход. Черепичные развалы крыши имелись на всех сторонах фундамента. Ширина черепичных завалов достигала 2 м. Среди черепиц преобладали нижние. Верхние фронтальные черепицы от храмовых выделялись

разнообразием орнамента на концевых дисках. Конек крыши пагоды украшали терракотовые чивэй, а купол крыши был украшен терракотовым бутоном лотоса. Среди черепиц обнаружено терракотовое горельеф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дракона. Среди других предметов выделяются изделия из железа и чугуна: гвозди, пробои, наконечники стрел, поясная бляха, шип, обломки котлов. Изделия из глины представлены керамическими игральными фишками, ритуальной чашечкой с боковыми ленточными ручками, фрагментом сосуда с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й надписью и фрагментом трипода с многоцветной поливой. С южной стороны пагоды, под черепичным развалом её крыши вскрыта печь по обжигу черепицы. Она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подпрямогольную камеру размером 4,4 ×2 м, углубленную в материк на 0,5 м и состояла из топки, камеры обжига и трубы. К топке примыкала яма для хранения топлива. Границы топки сохранились плохо. Стенки обжигательной камеры укреплены кладкой камней уложенных в 3–4 ряда. Место соединения трубы и камеры оформлено вертикально поставленными камнями, что создавало лучшую тягу. Верхнюю часть печи оформлял глиняный свод который накладывался на каркас из прутьев. Остатки другой печи откопаны к востоку от пагоды. Она основательно разрушена строителями пагоды. Обе печ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до возведения пагоды. В 22 м на юго–запад от храма вскрыт участок

фундамента храмовой ограды (рис.6:2). Он располагался параллельно юго–западной стенке платформы храма. Фундамент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невысокую (0,5–0,7 м.) стенку, сложенную в несколько ярусов из плотно уложенных камней. Ширина стены 1–1,5 м. Поверх кладки фиксировались неглубокие ямк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почти на одинаковом расстоянии (3,7–3,9 м.) друг от друга. Косвенным образом это указывает, что поверх фундамента была сооружена деревянная стена. В фундаменте ограды напротив входа в храм имелся разрыв шириной 3,9 м. Проход был замощен мелкими кусками черепицы и керамики. Над входом, очевидно, имелся черепичный навес о чё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несколько целых и раздавленных черепиц, лежавших на вымостки в проходе. Вокруг ограды собраны обломки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буддийским ритуалом. Вблизи оград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обнаружены: позолоченная бронзовая кисть руки Майтреи, позолоченная бронзовая фигурка Авалокитешвары, 8 обломков Чивэй, терракотовое горельеф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дракона, фрагменты ритуальных чашечек и обломок чугунного колокола. В воротах с внешней стороны ограды собраны обломки двух чугунных колокола, фрагменты 2 ритуальных чашечек и обломки Чивэй.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между воротами в храмовый комплекс и храм вскрыто д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а.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связанный с храмом не имел остатков сооружений. Здесь обнаружены фрагменты станковой керамики, куски серой черепицы, а также разнообразные глиняные детали горельефа дракона, Чивэй, обломок каменной пластинки на которой на которой рельефно изображен лотосовый пьедестал Будды. Серия обломков этой пластины ранее обнаружены при раскопках храма. На них изображены Будды сидящие на лотосовом пьедестале. Из других находок следует назват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ерамические игральные фишки, глиняные кольца, ножку трипода, железные и бронзовые поясные накладки, гвозди, обломки чугунных котлов и обожженную роговую накладку на лук. На уровне нижне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горизонта вскрыты 3 ямы. На дне одной из них уложен каменный фундамент. Среди камней собраны фрагменты двух лепных сосудов мохэского типа. В другой яме сохранилась нижняя часть столба изготовленного из толстого ствола ивы. Объек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 крепостной вал, а точнее его вершина и внутренний скат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1998.С.26–32). В конструкции каменной части вала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д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иёма: нижний – блоковый и верхний – насыпной. У крепостной стены раскопан колодец (рис. 11), мастерская по обжигу черепицы из 7 печей (В.И. Болдин, 2003. С. 312–316). Кроме этого, вскрыт каменный фундамент ограды нижне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горизонта

(рис.6). Совместно с японскими археологами, возглавляемыми профессором Тамура Коити начаты раскопки 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городища и крепостного вала с примык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ей вблизи ворот.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раскопк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 северу и востоку от храма, между крепостной стеной и храмом и продолжены раскопки восточных ворот 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рядом с ними крепостной башни.. В верхнем строительном уровне обнаружены шесть каменных плит неправильной формы, служивших основаниями для деревянных колонн от постройки. На нижнем строительном горизонте обозначились границы земляной платформы сооружения, возможно, храма. С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и частично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 она была оконтурена опорной стенкой, сложенной из каменных блоков в 1–2 ряда (рис. 6). Ширина стенки 30–40 см, высота 15–20 см. Платформа ориентирована по линии северо–восток – юго–запад. Такую же ориентировку имели все сооружения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ерхне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горизонта. Размеры платформы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ть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поскольку южная её часть перекрыта платформой храма верхнего строительного горизонта. Удалось восстановить лишь протяженность её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Здесь её длина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8 м. С внешней стороны вдоль платформы там, где сохранилась

каменная облицовка, наблюдался развал битой черепицы, являвшейся остатками черепичной кровли крыши этого здания. К востоку от храма вскрыта хозяйств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на которой обнаружена каменная ступа и 7 больших сосудов вкопанных в землю,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ям где, очевидно, находились деревянные сосуды. Под 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раскопаны остатки черепичной камеры (рис. 10 и 17).

Материалы из раскопок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зволили выявить два строительных горизонта, при этом верхний горизонт членился ещё на два. Собран богатейши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й о высокой культуре Бохая (рис. 11–16).

Литература

1.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Черепичное производлство в Боха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Археолог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4. С. 142–151.
2. Болдин В.И. Раскопки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 Исследование памятников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1987. С. 189–190.

3.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Владивосток, 1998. С. 26–32.
4. В.И. Болдин Черепичные печ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и палеоэкологии Северн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Новосибирск, 2003. С. 312–3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크라스키노 성터 연구사

V. I. 볼딘 (극동국립기술대학교)

크라스키노 성터는 연해주 남부지역 츄카놉카 강 유역 분지수원의 우안 지역에 해안가로부터는 400m 정도, 인근 크라스키노 마을로부터 남서쪽으로 2km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다(그림 1-а). 본 성터는 편자형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곡선형의 상부는 대략 북쪽을 지향하고 있다. 성벽을 따라 3곳의 성문들(남문, 동문, 서문)이 있는데 외부에 대한 궁형의 방어용 성벽으로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다. 성벽의 총 길이는 1.2km 정도이며 성터의 면적은 5헥타르에 이른다(그림 1-в).

성터는 1958년도 G.I. 안드레에프에 의해 발견되었다. 1960년과 1963년 E.V. 샤프쿠노프 박사에 의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샤프쿠노프 박사는 이 유적지의 시기를 8 ~ 10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이 성터가 발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통로의 시발점인 발해의 행정중심지 양주로 추정하였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은 1980년에 시작되었으며 몇 차례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유적에 대한 연구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980~1981년, 1983년과 1990년의 발굴 시기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 기간 동안 발굴은 주로 성터의 북서쪽에 집중되었다. 성터의 북서쪽 지역은 본 유적지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그림 2). 기와가마 한 기가 발굴되었다. 기와가마는 하층토 층의 약간 경사진 곳에 파여진 장방형의 구덩이 형태였다. 세로축 기준으로 기와가마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을 지향하고 있었다(그림 8-**a**). 아랫부분의 세로 측 벽들은 별 정성을 들이지 않고 되는 데로 마구 제작된 커다란 기와들로 보강이 되어 있었다. 세로측 벽들의 길이는 41.5~56cm, 폭은 28~35cm였다. 세로측 벽들의 상부는 심하게 불에 타서 딱딱하게 굳어진 모래가 10cm 두께의 껍질-딱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세로측 벽들의 기와들과 타서 딱딱해진 흙덩이위로 4~8cm의 회반죽 덩어리가 뒤덮어 있다. 가로측 벽들은 잘게 잘린 짚과 혼합된 진흙으로 내부가 반죽칠이 된 커다란 석재로 조성이 되었다. 기와가마의 구덩이 내부에는 가마의 점토 천정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점토 천정의 두께는 10cm 정도였다. 가마는 아궁이, 연소실과굴뚝, 3개의 부분으로 조성이 되었다. 아궁이는 자체로 66×100×160cm 용량의 작은 室-구조였다. 아궁이 바닥은 6~8 cm의 목탄과 그을음 층으로 덮어있었다. 가마의 북서측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연료들이 아궁이 속으로 투입되었다. 가마의 중심부는 연소실이 차지하고 있다. 연소실의 평균 높이는 65cm, 길이는 220cm, 폭은 150cm이다. 연소실의 바닥은 불합격 품질의 기와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잘게 쪼개진 기와조각으로 이루어진 2~4cm 정도의 빽빽한 층이 있다. 굴뚝은 가마의 가로측 남동쪽 벽에 붙어졌는데 그 벽의 중앙에 한 개

의 장방형 구멍(38×52 cm)이 있는데 바로 이 구멍을 통해 연소실의 연기가 굴뚝으로 이동하고 이후 굴뚝에 이른 연기가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었던 것이다. 굴뚝은 석재로 제작되었고 바닥부분은 회반죽으로 덮여있다. 굴뚝의 크기는 35×50 cm이며 높이는 90cm에 이른다. 아궁이 입구 쪽으로 깊이 30cm, 지름 142cm의 구멍이 나 있다. 이 구멍은 다 타버린 연료들의 산물들(목탄과 석탄, 그을음, 과도하게 타버린 회반죽과 불합격 기와조각들)로 메워져 있었다. 가마는 길이 390cm, 폭이 140~160cm의 견고한 구조물이었다. 가마 구덩이 바닥의 기반토층은 북서쪽으로 경사가 지고 세로축 극점간의 낙차가 55cm에 이른다. 이러한 기반 토층구조는 가마내의 통풍과 연소효율의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구조이다.[1] 1981년 절터건물의 잔해가 발굴되었다(그림 3). 절터건물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길이 11.8m, 폭 10.4m 의 장방형 기단 위에 건축되었다. 기단과 절터의 4방 모서리들은 동서남북을 지향하고 있다. 기단은 사방 모두 두 단의 석판으로 구축된 벽으로 보강이 되어 있었다. 기단 위에는 절터 건물의 나무기둥의 기반으로 사용된 30개의 석재기반들이 발견되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석재기반들은 1열에 5개 씩, 모두 6개의 열로 조성되어 있었다. 절터 건물의 정면은 남서쪽을 지향하고 있다. 입구는 석재기반들 사이의 중앙통로 쪽으로, 기단의 석재벽에 밀착된 돌계단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절터 건물의 바닥은 자갈돌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 1.5㎡ 정도되는 자갈돌-포장의 바닥 중앙부는 10~30cm 정도 지면이 높다. 아마도 부처님에 대한 성단이 이 곳에 위치하고 있

1) Болдин В.И., Ивлиев А.Л. Черепичное производлство в Боха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Археолог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1984. С. 142–151.

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금동불상이 출토되었다. 본 절터 건물을 바닥 크기 면에서 볼 때 이 건물의 면적은 7.4×8.2m 정도이다. 절터건물의 지붕은 기와로 덮였었는데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붕에서 무너져 내린 기와더미가 기단의 4방 모두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다. 지붕의 4방 끝단들은 '부엉이 꼬리' 형태의 테라코타 돌출부로 장식을 했었다. 이 들의 파편들은 절터건물로 들어오는 입구 앞에서 그리고 다른 기와 더미 속에서 수집되었다. 지붕 끝단의 중앙부분에는 둥근 지붕 모양의 테라코타 돌출부로 장식되었다(그림 4). 지붕의 4구석에는 주철로 제작된 작은 종들이 걸려있었다. 절터 건물의 지붕은 홈통처럼 보이는 하단기와와 반원형태의 상단기와들로 덮여졌었다. 기와더미 속에서 모서리 기와와 처마 기와의 단편들이 확인되었다. 기와 정면의 단면은 특별한 장식이 되어있었다. 하단기와는 두 종류로 구별된다. 상단기와의 정면 맨 앞부분은 연꽃의 형상이 압인된 원반형의 와당으로 장식되었다(그림 14-10). 실제적으로 모든 기와들이 안쪽으로는 거친 직물의 자국이 나 있는 것 같은 회색이었다. 절터 영역에서 수집된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유물들 중에는 2개의 불상이 출토되었다. 하나는 상술한 바처럼 청동을 주재료로 하였고 다른 하나는 알이 고운 砂岩으로 제작된 불상조각이다(그림 14-1). 불교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견된 유물은 진흙과 주철로 제작된 제기들이다(그림 14-5~8). 이들은 주철로 제작된 4개의 잔들, 주철로 제작된 잔들을 본떠 진흙으로 제작된 7개의 잔들의 조각들과 끝부분이 밖으로 삐어져 나간 3개의 다리가 달린 6개 잔 들의 조각들이다. 이들 제기들의 다리들은 짐승의 발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작되어있다. 본 사찰건물에서는 유약이 칠해진 3개의 용기 뚜껑 조각들과 과 2개의 자기 조각들이 수집되었다. 유약은 녹색-노랑색-갈색으로 다색이었다. 이 곳에서 발견된 작은 유물들 중에는 청

동유물들이 수집되었다. 이들은 2개의 작은 허리띠 금속판들, 얇은 판 팔찌의 단편들, 구면형태를 가진 4개의 금동 허리띠 금속판들이다. 철제유물로는 못들, 화살촉들, 칼의 손잡이, 멍에와 열쇠걸개들이 수집되었다. 절터건물의 바닥에서는 주철로 제작된 모루의 조각들과 입구 쪽 부분이 울룩불룩 굴곡이 심하고 마치 가슴뼈가 툭 튀어나온 표면을 가진 종 들의 파편들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전술한 기와가마터의 기와와 절터건물에서 수집된 기와들이 같은 기와들이라는 사실이다.[2] 절터부속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절터건물을 통해 얻기 위해 남쪽과 동쪽으로 두 군데 발굴을 실시하였다. 남쪽 구역에서 처음으로 하부 건축물 층이 드러났다. 하부 건축물 층은 깊이 30~50 cm 정도되는 커다란 구덩이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그 구덩이들의 바닥은 커다란 돌들이 깔려져 있었다. 바로 이 커다란 돌들이 상부에 조성된 절터건물의 석재기단을 구축하기 위해 이 구멍들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상부 절터 건물의 석재기단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 구멍들 속에서 기와조각들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곳에서 밀갈 토기 4기의 파편들이 수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토기들은 발해고고학적 문화의 초기단계에 특징적인 양상이다. 상부 건축물 층에서 절터 건물 지붕에서 내려앉은 기와더미의 영역경계를 확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곳에서 청동제 장식유물들 – 타원형 허리띠 금속판, 걸이 장식, 머리핀, 2개의 반원형 걸쇠와 종의 파편들 – 이 수집되었다. 철제 유물 들로는 못들, 조임쇠, 멋진 반원형 걸쇠들과 화살촉들이 수집되었

2) Болдин В.И. Раскопки буддийского храма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 Исследование памятников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овосибирск, 1987. С. 189–190.

다. 주철제 유물로는 솥의 파편과 바퀴 축이 수집되었다. 토제 유물로는 어망에 달린 추에서 나온 조각들과 채화자기와 기와로 제작된 많은 놀이용 말들이 수집되었다. 석제 유물로는 돌에 새겨진 불상의 파편들과 어망용 추들이 수집되었다. 모든 층에서 수집된 도자기들은 채화도자기였다. 대부분 단지형으로 일부는 뚜껑을 위한 테두리를 가진 것도 있는 넓은 수평의 주둥이를 가진 자기, 반원통형이거나 납작한 뚜껑을 가진 단지들, 넓은 수평의 손잡이를 가진 원통형 자기들과 그 뚜껑들이 수집되었다. 심채토기와 도자기 조각들로 수집되었다.

크라스키노 발굴의 2단계는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김정배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지휘아래 한국의 고고학자들도 발굴현장에 참여하였다. 발굴연구는 절터건물에서 남쪽과 서쪽 구역이 선정되었다. 정자터와 탑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들 흔적으로부터 사방 석재벽의 형태로 폭이 0.8 m, 크기가 4.4×4.4m인 석재기단이 남아있었다. 탑지의 기반은 절터건물과 동일한 양식으로 동서남북을 지향하고 있었다(그림 3). 탑지기반은 2-3열의 얇은 돌판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기반의 4 방향에는 커다란 돌덩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붕을 지탱하던 나무기둥들을 위한 기반임이 분명하였다. 북동쪽과 북서쪽 벽에는 입구 비슷한 균열이 있었다. 지붕에서 내려앉은 기와더미들은 기반 전체 영역과 사방에서 확인되었다. 내려앉은 기와더미의 폭은 2m에 이른다. 기와편들 중에는 하단 기와들이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절터건물의 상단 정면 기와들이 선단부분의 화당 속에 훨씬 다양한 장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탑지 지붕 선단은 치미로 장식되었고, 둥근 지붕은 테라코타 연꽃 봉우리로 장식되었다. 기와 중에는 용의 형상이 새겨진 테라코타가 수집되었다. 철과 주철 유물로는 못들, 조임쇠들, 화살촉들, 허리띠 장식 금속판, 바늘과 솥조각들이 수집되었다. 토제 유물로는 자기편

으로 제작된 놀이용 말들, 양 옆쪽에 터본형 손잡이가 있는 제기용 잔, 표면에 한자가 새겨진 자기의 파편들과 다채 삼발이 조각 등이 수집되었다. 탑지 남측으로부터 탑지 지붕에서 내려앉은 기와더미 아래에서 기와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와 가마는 크기가 4.4×2m, 표층에서 0.5m 깊이에 파여진 장방형 가까운 室構造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궁이, 연소실과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궁이 쪽으로 연료보관을 위한 구덩이가 하나 인접해 있었다. 아궁이의 외관 경계선은 보존상태가 엉망이었다. 연소실의 벽들은 3~4열 정도 돌들을 쌓아 보강하였다. 굴뚝과 가마의 室이 접하는 부분은 더 좋은 통풍과 화염여건을 위해 수직방향으로 돌들로 쌓여졌다. 가마의 상부는 나뭇가지를 휘어 덮어 이루어진 골조 위에 덧칠된 진흙 아치이다. 탑지 동쪽으로 다른 가마의 잔해가 발굴되었다. 이 가마는 탑지 건설자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파괴되었다. 두 개의 가마는 탑지가 완성될 때까지만 이용되었다. 절터건물에서 남서쪽으로 22m 지점에서 사찰담장의 기반 구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 6-2). 이 기반은 절터건물 기단층의 남서측 벽에 평행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 기반은 빽빽하게 쌓인 돌들로 이루어진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리 높지 않은(0.5~0.7m) 벽을 갖고 있다. 이 기반 벽의 폭은 1~1.5m 정도이다. 기반 석재벽 위로 몇 개의 구멍들이 있는데 서로간에 같은 거리차이(3.7~3.9m)를 두고 위치해 있다. 간접적으로 이는 이 기반 위에 목재로 구축된 벽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절터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 편 담장의 기반에는 폭 3.9m의 균열이 나있다. 통로는 작은 기와 조각과 자기 조각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출입구 위에 처마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는 통로에 포장된 길에서 수집된 몇 개의 완전한 형태의 기와들과 부서진 기와들이 반증한다. 담장 부근에서 불교의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의 파편들이 수집되었다. 이들은 금동불수, 금동보살입상, 치미조각

8개, 용이 새겨진 테라코타 장식, 불교 종교 의식용 잔들의 조각과 주철로 제작된 종의 파편들이다. 담장 외부에서 입구로 향하는 지향기준 아래 대문에서는 2개의 주철로 제작된 종의 파편들, 제기용 잔 2개의 조각과 치미 조각들이 수집되었다. 사찰터 전체로 가는 대문과 절터 건물로 가는 대문 사이의 영역에서 2개의 건축기반 층이 확인되었다. 이 영역에서 채화된 자기편, 회색 기와 조각들, 용이 부조된 여러 가지 진흙 조각들, 치미와 석판의 파편들이 수집되었는데 이 석판에는 부처의 연꽃 좌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 일련의 석판 조각들은 일찍 수집되었다. 이 들 속에는 연꽃 좌상에 앉아있는 부처가 묘사되어 있다. 다른 유물로는 많은 수의 도자기편으로 제작된 놀이용 말들, 진흙반지, 철재와 청동 허리띠 장식용 금속판, 못들, 철제 종들의 파편 등이 있다. 하부의 건축물 층에서는 3개의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구멍들 중에 하나의 바닥은 석재기반이 놓여져 있었다. 이들 돌들 가운데서 말갈족의 조형토기 2개의 단편들이 수집되었다. 다른 구멍에는 두꺼운 수양버들 가지로 만들어진 나무기둥의 아랫부분이 확인되었다. 성벽, 정확히 말해서 성벽의 정상부분과 내부적인 축성구조가 연구주제가 되었다.[3] 성벽의 석재부분 축성구조에 주목해보면 두 가지 축성법이 눈길을 끄는데 하단의 경우는 돌들을 인조벽돌을 이용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빈틈없이 쌓은 반면 상단은 대충 덮어 올리는 식으로 쌓았다. 성벽인근에서 우물터가 발굴되었고(그림 11), 7개의 가마로 구성된 기와제작소가 발굴되었다.[4] 이 외에도 하층 건

3) Ивлиев А.Л.,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фортификации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Владивосток, 1998. С. 26–32.

4) В.И. Болдин Черепичные печ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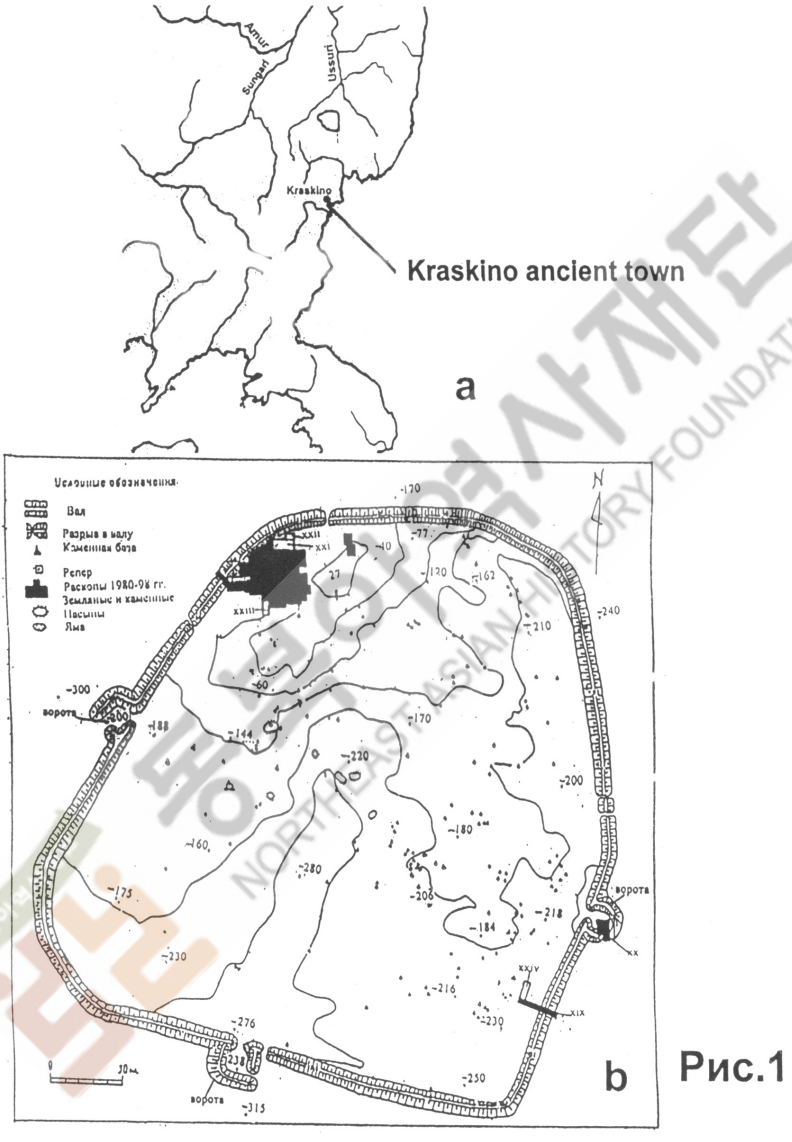
축물 층 담장의 석재기반이 확인되었다(그림 6). 다무라 고이치 교수가 단장이 되어 방문한 일본 고고학자들과 함께 성터 동문과 동문 인근 구역 성벽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었다.

크라스키노 성터에 대한 제 3 단계 발굴은 절터건물로부터 북쪽과 동쪽 구역, 성벽과 절터사이로 선정 되었고 동문과 동문 인근지구의 치들에 대한 발굴도 계속되었다. 상부 건축물 층에서 비정상적인 외형의 6개 석판이 발견되었는데 이 들은 건축물의 나무기둥들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었었다. 하부 건축물 층에서는 건축물(아마도 사찰)의 나무 기단 경계선이 확인되었다. 북서쪽과 그리고 북동쪽 일부 부분으로부터 그 경계선은 1–2열의 석재 벽돌(그림 6)로 조성된 기존 벽에 의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벽의 폭은 30~40 cm이고 높이는 15~20cm이다. 그 기단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지향되어 있다. 상부 건물 층의 전체 사찰 구조물들의 동일한 지향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단의 크기를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단의 남쪽 부분이 상부 건물 층의 사찰건물 기단으로 겹질려 덮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단의 북동쪽의 연장길이는 복원과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 이 부분의 길이는 8m에 이른다. 외부로부터 기단을 따라 외장용 돌이 보존되어 있는 지점에 이 건물의 기와 지붕의 잔해로 보이는 부서진 기와더미가 확인되었다. 사찰건물로부터 동쪽으로 절터의 생활사 공간이 확인되었는데 이 공간에서 돌절구, 땅에 묻힌 7개의 커다란 자기들이 수집되었으며, 또한 목기들이 수집되었던 몇 개의 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절터의 생활사 공간 영역에서 기와벽실 유적이 발굴되었다(그림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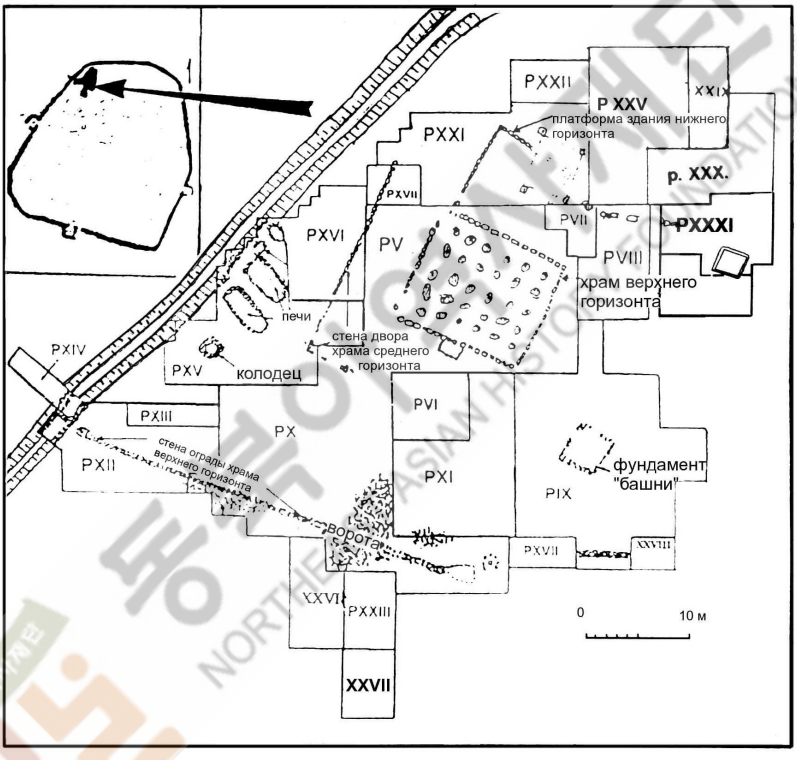
и палеоэкологии Северн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Новосибирск, 2003. С. 312–317.

사찰터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들은 이 지역에 두 개의 건물기층을 구분하게 해주었는데 상부층의 경우 다시 두 개의 기층으로 추가 구분이 된다. 이로써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에 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해주는 값비싼 자료들이 수집되었다(그림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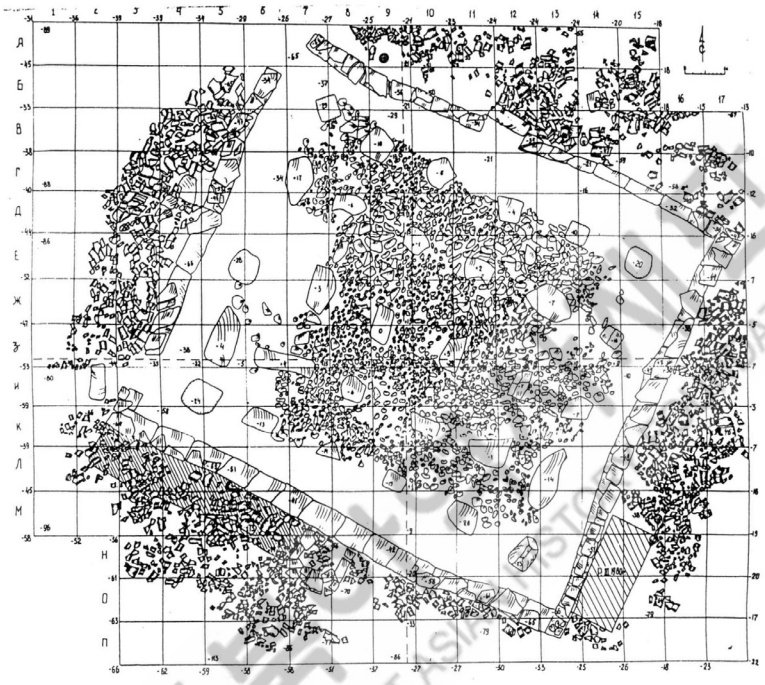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mur
Sungari
Ussuri
Kraskino
Kraskino ancient town
a
Условные обозначения
Вал
Разрыв в валу
Каменная баба
Репер
Раскопы 1980-98 гг.
Земляные и каменные
Насыпи
Яма
ворота
ворота
ворота
N
0
30м
b
Ри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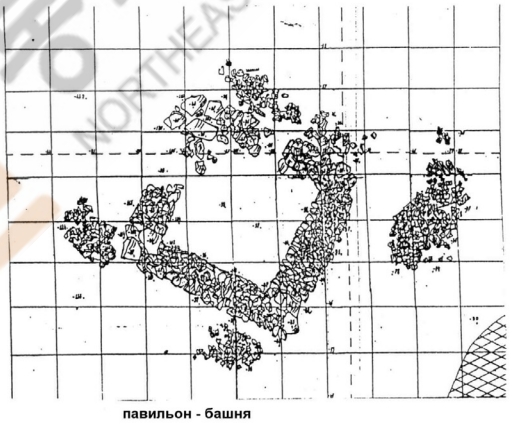
〈그림 1〉


PXXII
P XXV
платформа здания нижнего горизонта
PXXI
p. XXX.
PXVII
PXVI
PV
PVII
PXXXI
PVIII
храм верхнего горизонта
печи
стена двора храма среднего горизонта
PXIV
PXV
колодец
PXIII
PX
PVI
фундамент "башни"
PXII
стена ограды храма верхнего горизонта
PXI
PIX
Ворота
PXVII
XXVIII
XXVI
PXXIII
0
10 м
XXVII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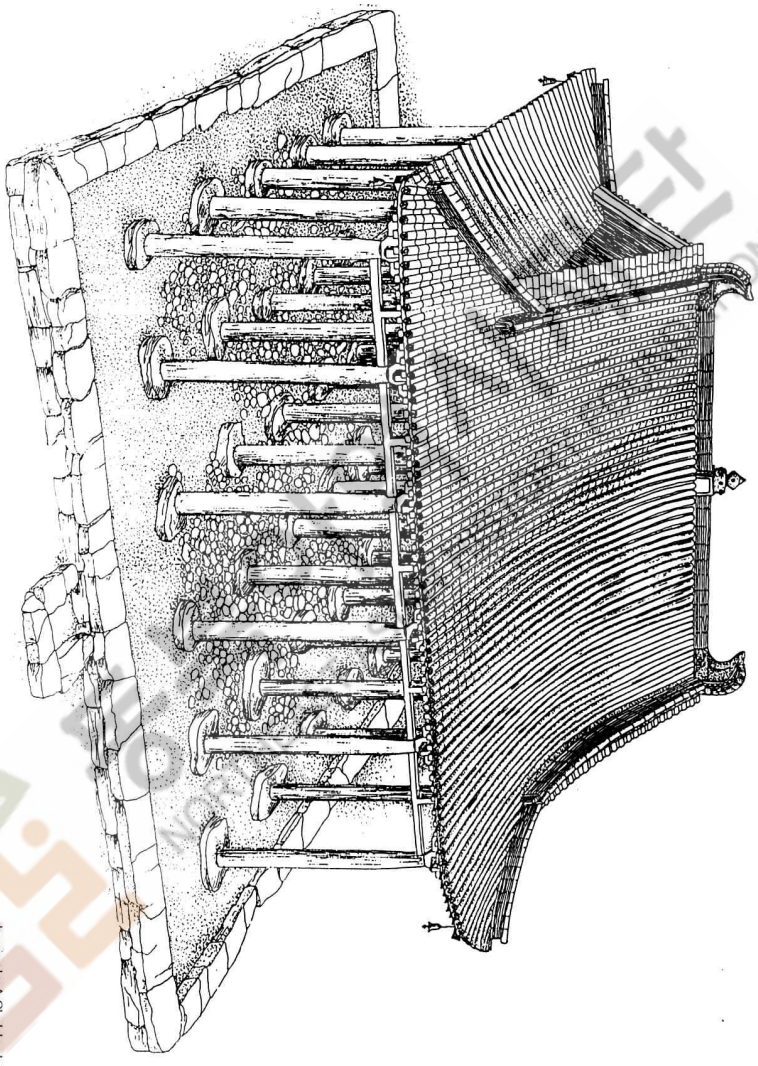


хра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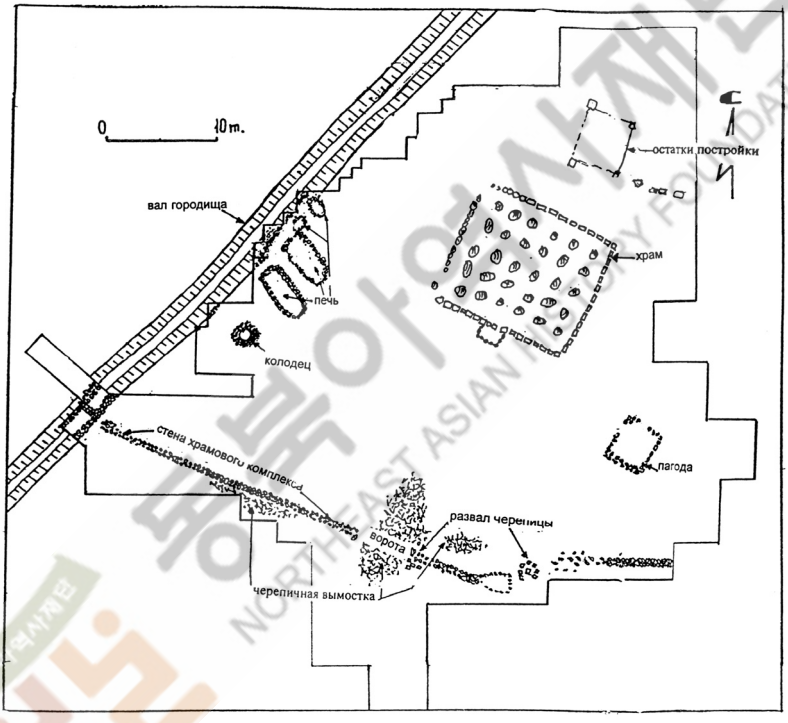
павильон - башня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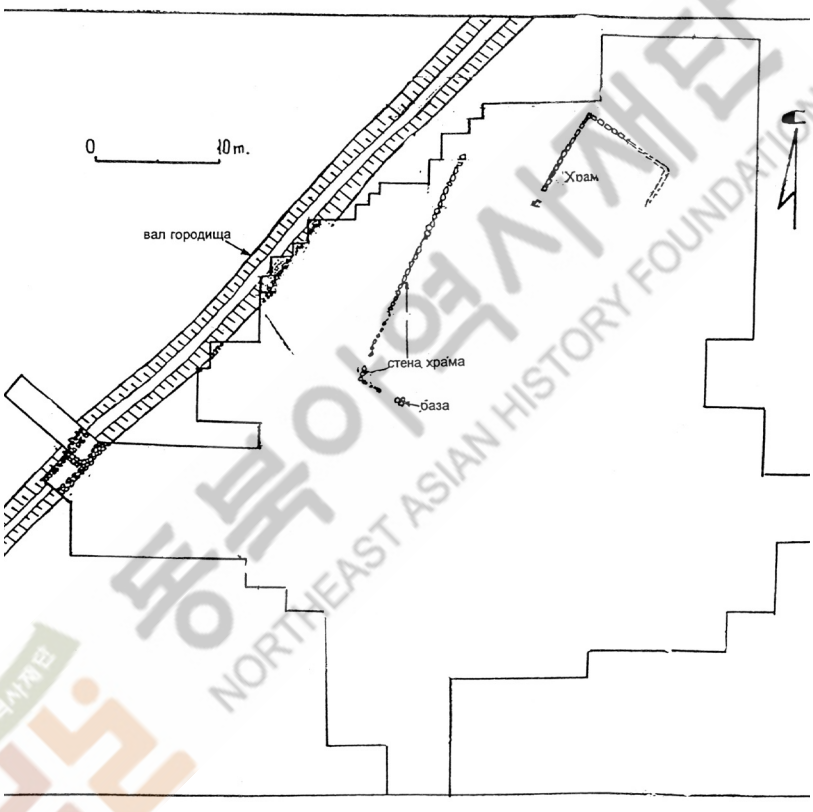


drawing by A. Gladchenk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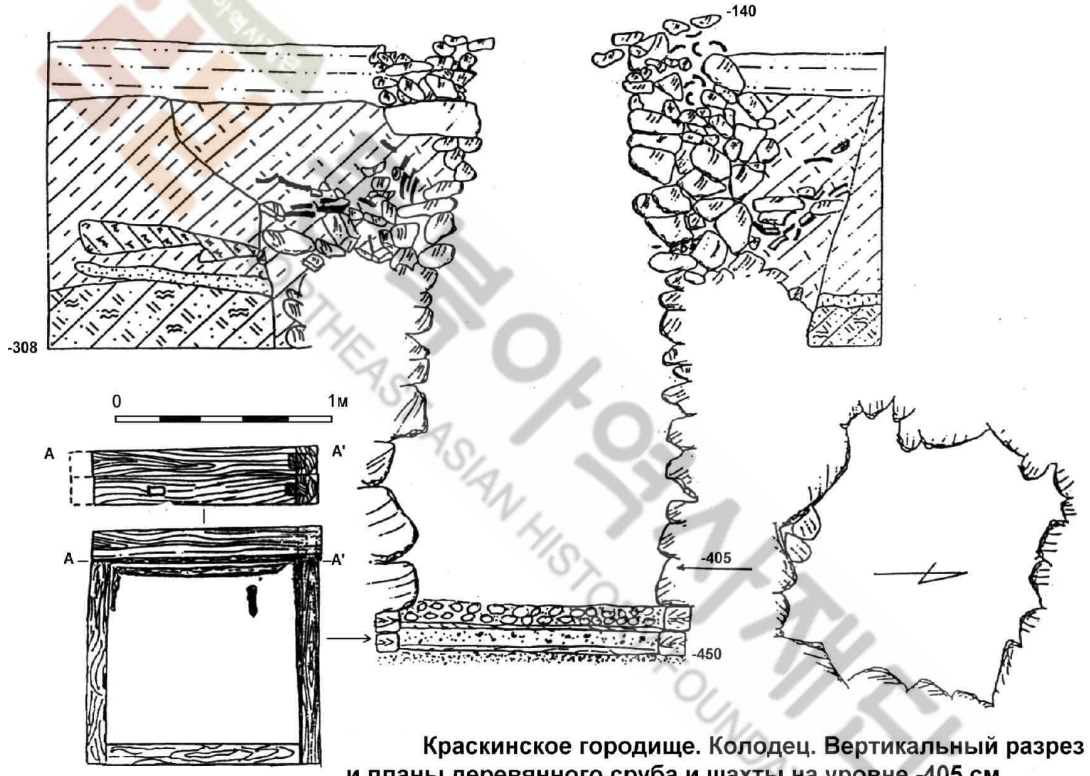
〈그림 4〉


0
10m.
остатки постройки
храм
вал городища
печь
колодец
стена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пагода
развал черепицы
ворота
черепичная вымостка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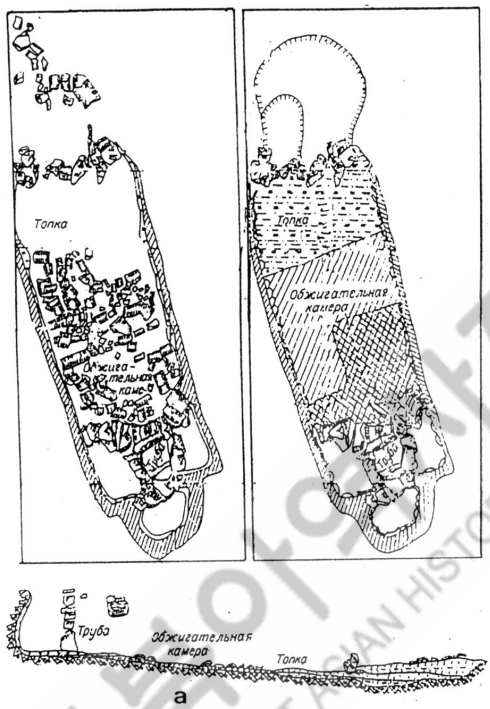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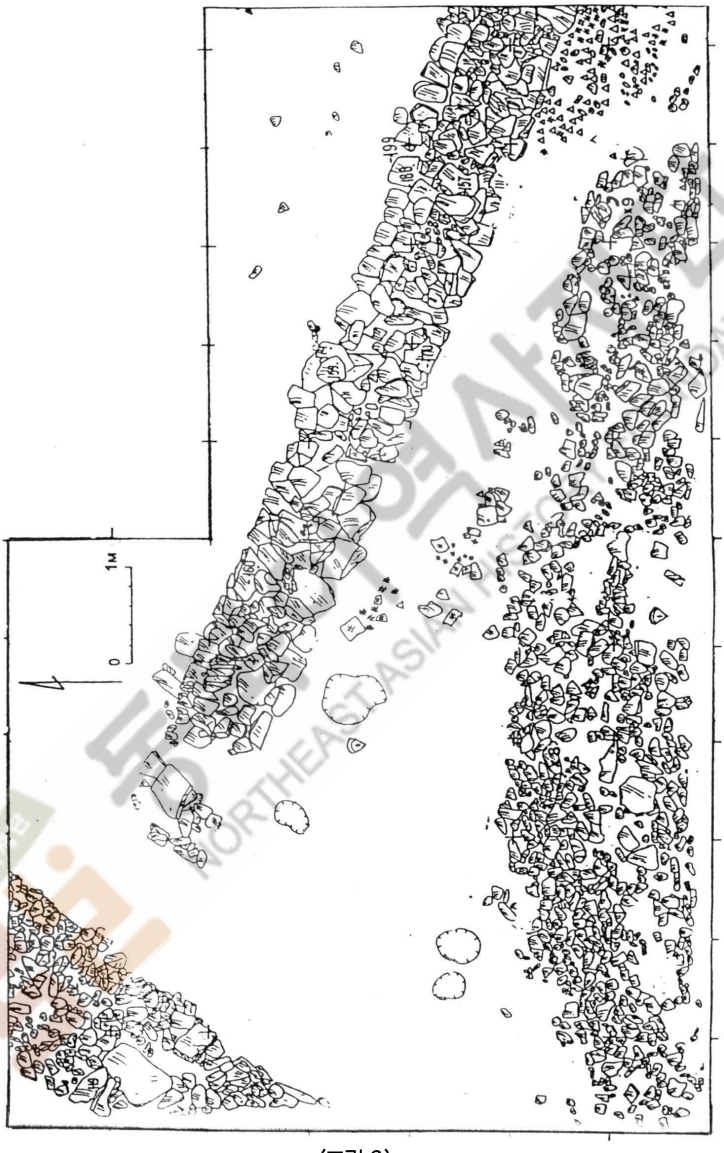
〈그림 7〉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Колодец. Вертикальный разрез и планы деревянного сруба и шахты на уровне -405 см .

동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Топка
Обжигательная камера
Труба
Обжигательная камера
Топка
a
b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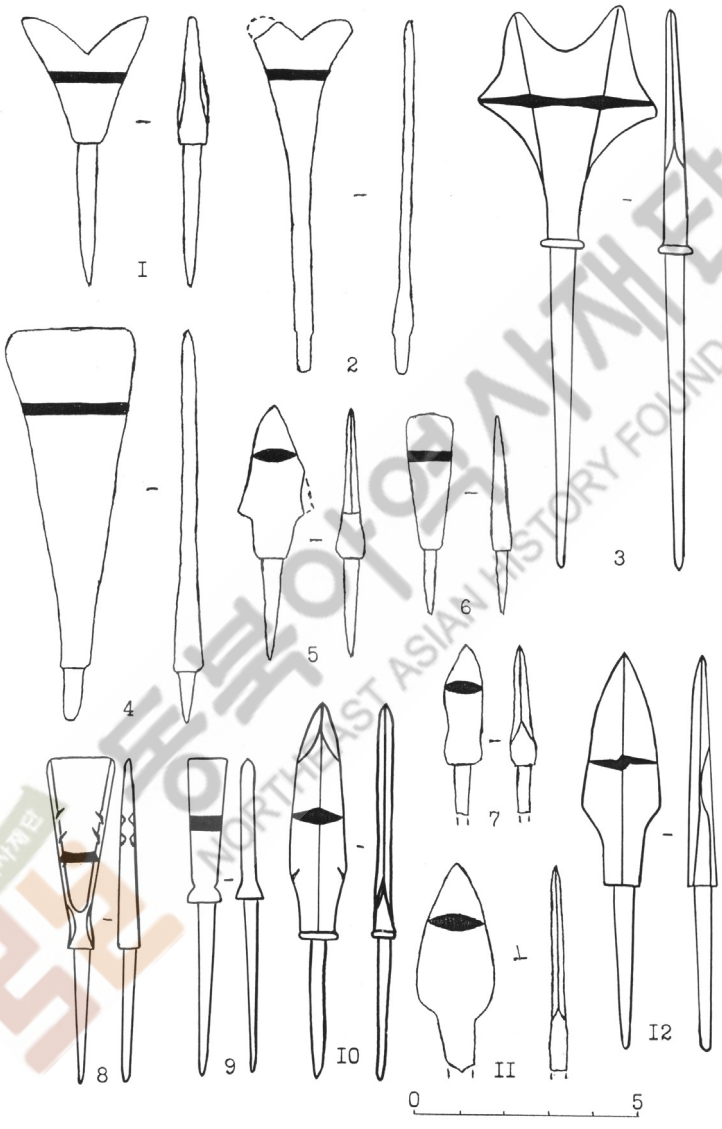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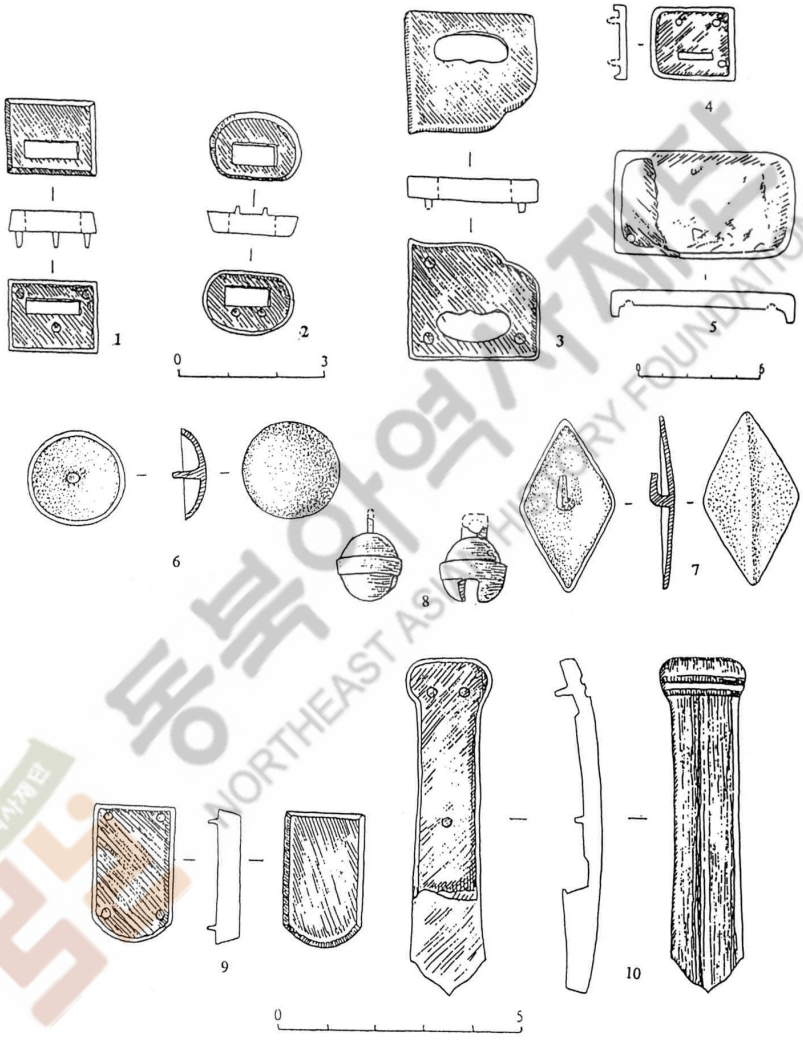
Рис. 1. – план и профили постройки с черепичными стенами. 2. – северо-западная стена. 3. -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стена. 4. – юго-восточная стена. 5 – юго-западная стена.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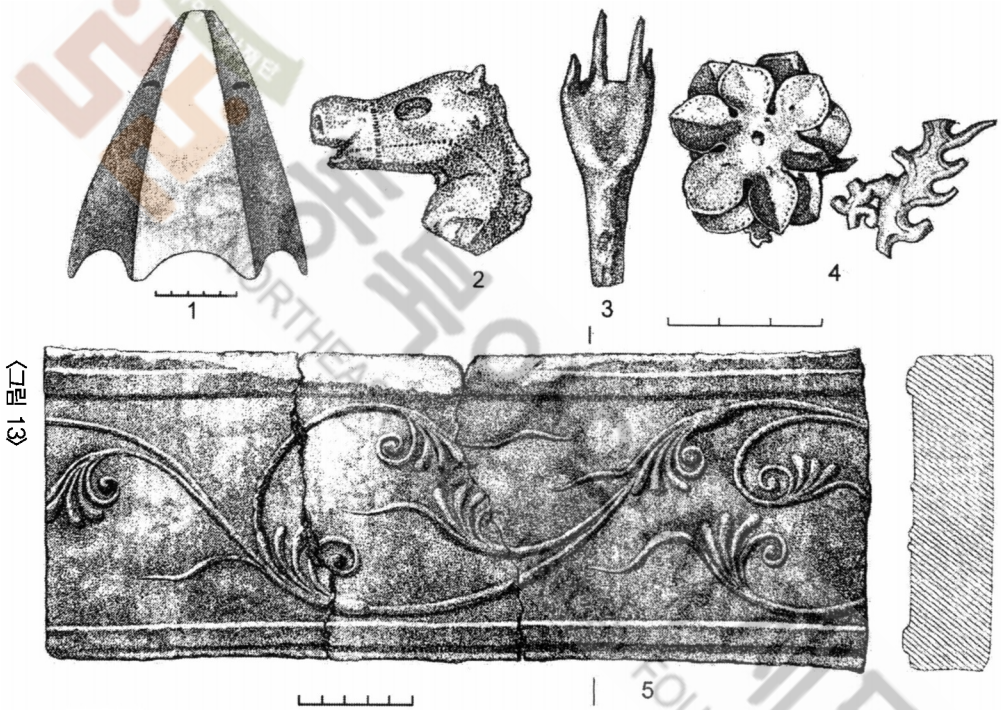


〈그림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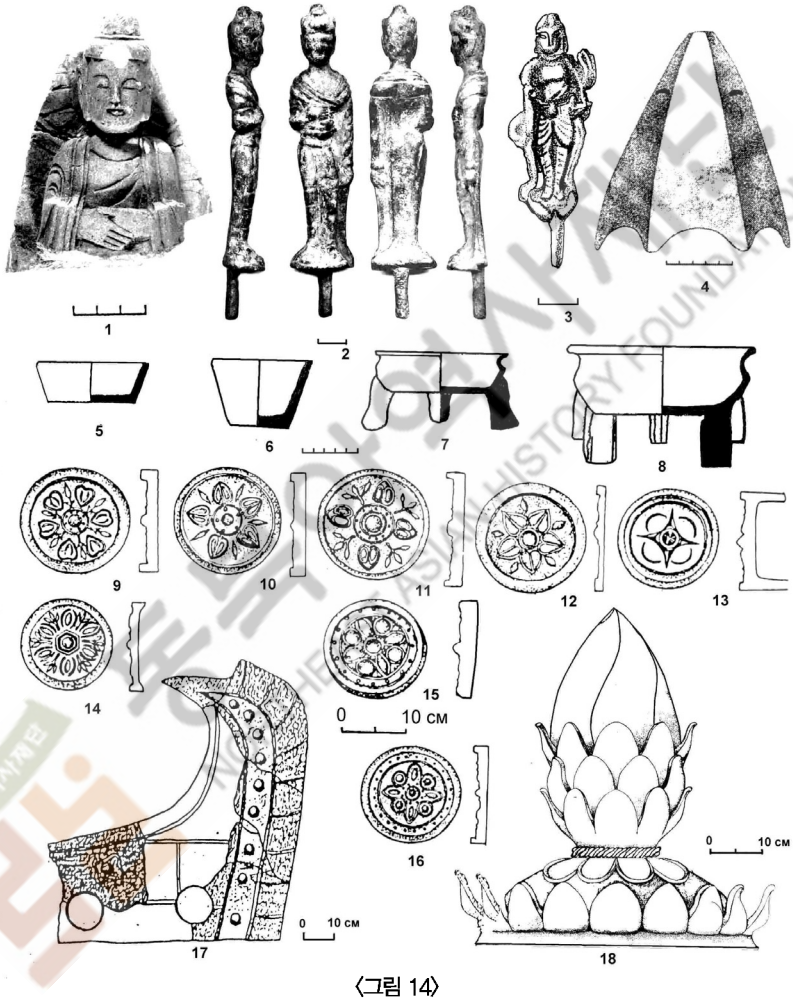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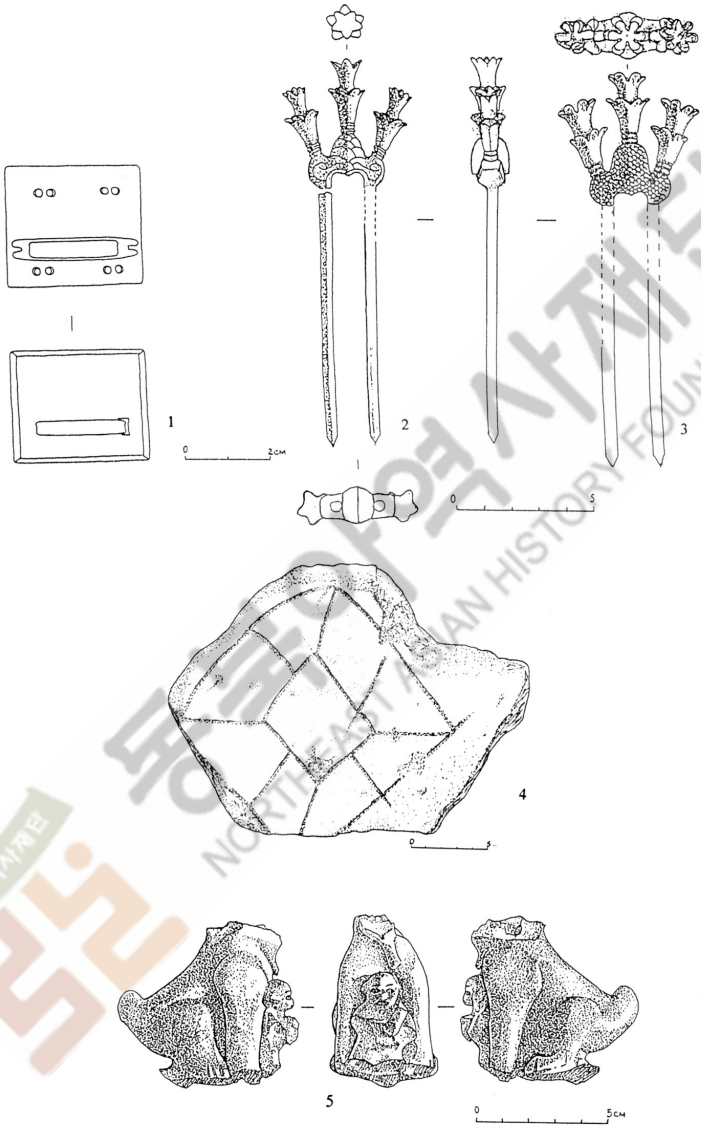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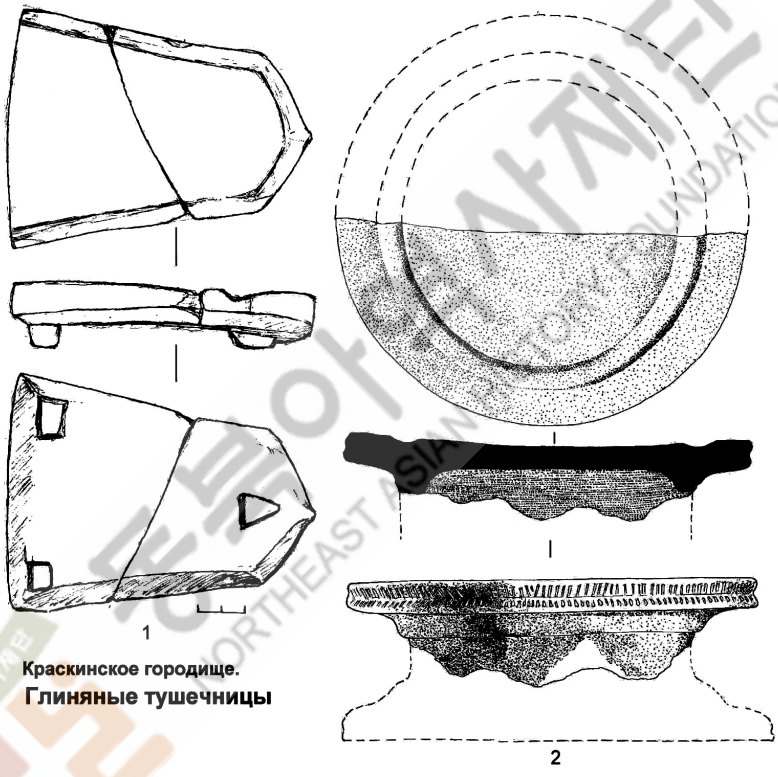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1- "ветровой" колокол; 2 - глиняная голова лошади; 3 - рука буддийской статуэтки; 4 - детали нимба; 5 - облицовочный кирпич. 1 - чугун, 2, 5 - глина, 3, 4 - позолоченная бронза.



〈그림 14〉



〈그림 15〉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Глиняные тушечницы

〈그림 16〉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обме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Бохае.

•
Гельман Е.И.
•

Введение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встречаются довольно редко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обычной керамикой и относятся к категории ценных,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престижных, издели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столичных городах бохайских королей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глазурованная черепица и глазурован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детали, украшения крыш дворцовых зданий (Tung–Ching–Cheng 1939; Liudingshan ... 1997). По физическим и химическим свойствам все образцы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относятся к дву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группам – либо к керамике с мягкими свинцовыми, как монохромными, так и полихромными

глазурями (сорт саньцай), либо к керамике с твердыми полевошпат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оценить роль керамики с глазурными покрытиями во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Бохая.

Изделия саньцай были изобретены в Китае и получили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в эпоху Тан, стали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мира. Позднее, в разное время, появ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японских и ляоских саньцай. В государстве Бохай, как по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изучения образцов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и их сравнение с образцами китайского саньцая, также было налажено изготовление керамики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Тонкокаменная керамика, полуфарфор и фарфор с полевеошпатовыми тугоплавкими глазурями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были изготовлен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печах Танского Китая и также являлись ценным товаром, выполнявшим важн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ке Бохая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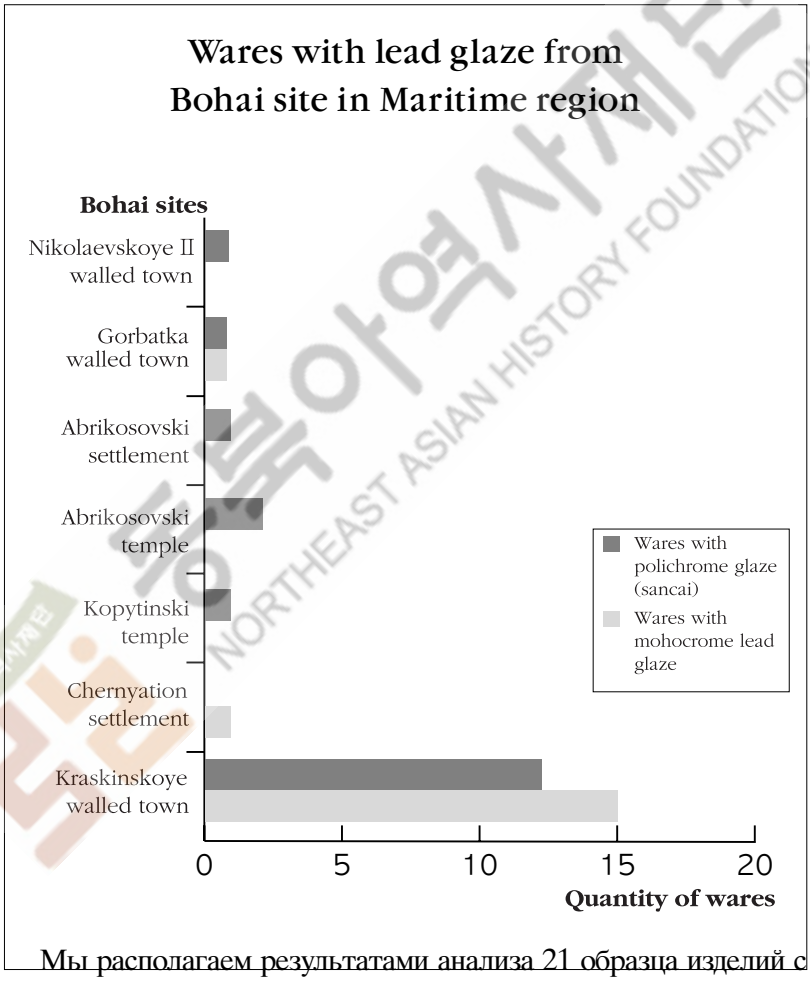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внутренняя торговля в Бохае.

Изделий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было найдено немного: 35 изделий на 7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табл. 1). Среди них количеством найденной глазу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и с такой глазурью выделяется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бъясняется существенно большей раскопанной площадью, статусом древнего города, а также объектом, где были найдены такие изделия – территория храм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Изделия с монохромными глазурями чаще всего имеют зеленый цвет разных оттенков, реже желтый и коричневатый. К полихромным (саньцай) относятся изделия с двухцветными и трехцветными глазурями. В каждом сочетании присутствует зеленый цвет разных оттенков. Остальные используемые цвета – это коричневый и желтый.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изделий характерна приглушенность красок глазури. Даже самые яркие бохайские образцы выглядят более темным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аньцаем из танских, японских или ляоских печей.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охайскими мастерами зеленой глазури разных оттенк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желтой или коричневой в глазурях саньцай. На бохайских изделиях отсутствует белый фон, который мы встречаем на китайских саньцай. Черепок бохайских саньцай и монохромных изделий чаще всего серовато–белый, реже красноватый, в отличие от белого у китайских саньцай.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ие показатели, но и ряд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существенно отличают бохайские изделия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от китайск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асается хим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глазурей и черепка.

Таблица 1.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зделий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боха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Мы располагаем результатами анализа 21 образца изделий с

глазурью саньцай и с зеленой глазурью (Гельман 1999). Содержание оксида свинца в них составило от 56.32 до 72.79%, что намного превышает его содержание в китайском саньцае (28.6–33.1%). На различие в качестве глазури у образца керамики сорта саньцай, из Верхней столицы в сравнении с китайскими саньцай впервы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япон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Ямадзаки, исследовавший один образец бохайского саньцая (Ямадзаки 1992:29–34). Серия анализов образцов керамики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из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показала, что эта разница не случайна и явля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существования других печей, пока не найденных и выпускавших глазурованную керамику, похожую на китайский саньцай.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бохайского саньцая из Приморья (Gelman 1999), китайские ученые также сделали анализ нескольких образцов саньцая эпохи Тан из печей по его производству и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основным отличием в качественном составе глазури бохайских и китайских (эпохи Тан) образцов является меньшее содержание оксида свинца, которое в танском саньцае составило 31.39–47.68% (Huo Yutao et al 2002:97).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можем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в подражание известному китайскому сорту саньцай бохайцы сумели налад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этих престижных изделий на местной основе. Несмотря на появление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зделия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оставались ценными, редкими товарами, что объясняет их нечастое присутствие в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оллекциях разных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В целом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составляют менее 1%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керамики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Оценивая распределение этих изделий по объектам внутри памятников,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керамики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включая саньцай, были найд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овых построек – 85.7% . Несомненно, что глазурованные изделия могл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церемониях и просто украшать храм. Но все же, нельзя не учитывать, что наряду с дворцов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столичных городов, на других памятниках – в том числе на городищах периферийных районов (городища Горбатка и Николаевское–II), на поселениях (Абрикосовское, Чернятино–2), находки этих изделий были сделаны в обычных, рядовых жилищ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рогие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могли встречаться как в богатых, так и в бедных домах, а их разнообразие и количество определяло степень достатка (т.е.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конкретной семьи или домохозяйства).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и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 Боха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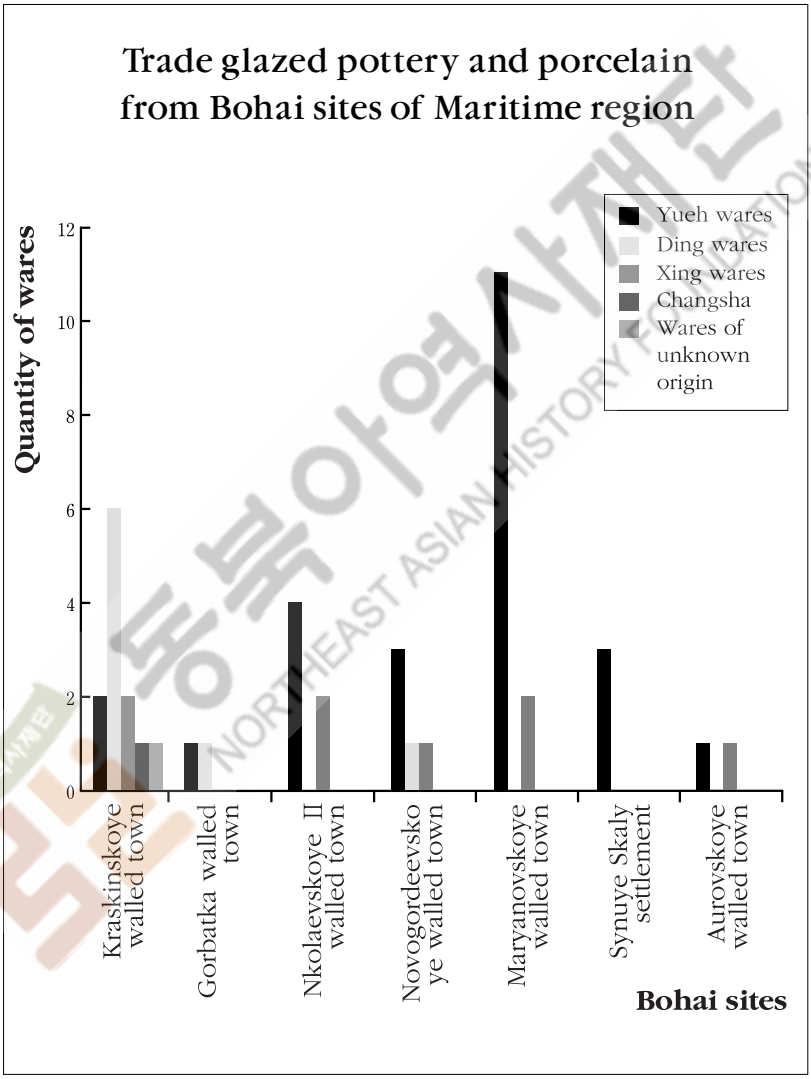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нам хоть и неполную, но довольно обши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внешних торговых обменах Бохая. Что же нам дают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Пока крайне мало. Единственным материалом, который подтверждает такие обмены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является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 китайских печей.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изделия, изготовленные в печах Юэяо провинции Чжэцзян, Динъяо и Синчжоу провинции Хэбэй. Кроме того, найден пока единственный фрагмент сорта чанша. Он производился в печах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Китая, найденных вблизи г. Чанша провинции Хунань, и этот сорт также был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Запада, куда он шел по шелковому пути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сортами, в стра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Valenstein 1975; Ho et all 1989: 16; Lam 1990: 34; The potsherds ... 1990).

и фарфора на памятниках бохайского и постбохайского времени в Приморье.

В целом,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были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в Приморье найдены обломки 45 глазурованных или фарфоровых изделий, произведенных в различных печах, располагавшихся в северн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ях Китая. Их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сть лишь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ценности и престижности этого материала.

Таблица 2.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ривозной глазу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иа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изделий найдено на самом северном периферийном бохайском памятнике – Марьян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табл. 2),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иболее раскопанным памятником сегодня можно считать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ивозной керамики оно немного уступает Марьяновскому городищу, где раскопанная площадь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а среди прочих памятников. Однако, на Марьян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раскапыв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жилые кварталы. Несколько неожиданно выглядит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привозной керамики в полупериферийном районе долины Суйфун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она найдена не только на большинстве периферийных пограничных городищах – Николаевском–II, Новогордеевском и Горбатке, но и на памятниках,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окружению Бохая на Востоке – поселении Синие Скалы, Ауровском городище. Также как в случае с керамикой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привозная керамика встречается на разных типах памятников и на разных объектах на памятниках, как в обычных жилищах, так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а на Краскинском городище, где, несомненно концентрация ее выше, чем в отдельно взятом жилище. Тем не менее, в отличие от бохайской керамики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большинство керамики из китайских печей было найдено в жилых кварталах городищ и на поселении – 72.7%.

Анализ численности материала по месту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изделия из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Китая (юэяо) встречаются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чаще, чем из северной (динъяо, синчжоу). Хотя данных не так много, но все же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уть с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уда поступал товар из печей Юэяо и Чанша (провинции Чжэцзян и Хунань), был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чем путь из провинции Хэбэй. Несомненно, что морской порт, каким являлось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был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на боха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через который товар прибывавший морским путем поступал не только в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Бохая, но и на периферию.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и центрами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между столичными городами Бохая и периферией, последняя была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получая регулярно престижные товары в обмен на местную продукцию, что косвенно указывает на сильные позиции местной элиты, осуществлявшей процесс централизации в отдаленных регионах Бохая. Вероятно, посредством контроля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вшегося и на соседние территории, обеспечивалась безопасность торговых обменов Бохая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Заключение.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зготовленная в Бохае, была

малочисленной и, судя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выпускалась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мастерской, где работали гончары, владеющие навыками работы с глазу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ой, имеющей сложные физические и хим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Эт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обусловили ценность и престижность продукции, распространявшейся в самые отдаленные реги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В основном бохайская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оседала в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ах, однако, такие изделия встречались и в жилых кварталах городищ и поселений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Боха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морья.

Выпуск изделий с полевошпат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определялся еще более сложными техни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условиями изготовления, чем для изделий со свинцовыми глазурями. Такая керамика выпускалась только в печах Танского Китая, где уже существовала традиция изготовления тонкокаменной керамики, полуфарфора и фарфора. Продукция китайских печей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анялась в стра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шелковому пути – Юго–Восточной и Средней Ази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Находки китайской глазу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и и фарфора на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ах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б устойчивом положении этих изделий в качестве престижного товара в экономике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бохайской глазурованной керамикой, китайская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ила боль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жилых кварталах боха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Керамика с глазурным покрытием позволила проследить,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было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системы обменов, сложившейс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е 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собственной монетарной системы и не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китайских монет в Бохае. Торговля носила характер обменов товарами, как вну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 и между Бохаем и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ключая Танский Китай. Эт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оставались стабильным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существования Бохая, при общем изменении во во времени степени и характер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Литература:

Гельман Е.И. 1999.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средневековы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 222 с.

Ямадзаки И. Сравнение глазури и черепка бохайских и танских саньцай//Японское общ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восточной керамики. Т. 19. 1989–1992 (на япон. яз.) – Токио, 1992. – С. 29–34.

Ho Ch., Srisuchat A., Bronson B., Srisuchat T. 1989. Early Chinese ceramics in Southern Thailand//The Silpakorn Journal, vol. 33.

No 4, September–October. – P. 15–29.

Huo Yutao, Chen Xianqiu, Huang Ruifu, Tao Guangui, Zhou Xuelin, Chen Shiping, Sun Hongwei, Gao Liming. 2002. The research on Tang sancai plumbous glaze poteries unearthed in kiln site of Tang dynasty// Гутаоцзы кэсюэ цзишу у эрцяньэр нянь гоцзи таолуньхуй луньвэньцзи (Собрание раб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импозиума по древней керамике и фарфору 2002 г.). Гл. редактор Го Цзинькунь. Шанхай: Шанхай кэсюэ цзишу вэньсянь чубаньшэ. – На кит. и англ. яз. – P. 92–101.

Gelman E. I. 1999. Bohai Sancai from Russian Primorye// ISAC'99. Гутаоцзы кэсюэ цзишу сы ицзюцзюцзю нянь гоцзи таолуньхуй луньвэньцзи (Собрание раб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импозиума по древней керамике и фарфору 1999 г. Вып. 4). Гл. редактор Го Цзинкунь. Шанхай: Шанхай кэсюэ цзишу вэньсянь чубаньшэ. – С.318–321.

Lam T. S–Y. 1990. Tang ceramics, Changsha kilns. – Hong Kong: Lammet Arts. – 366 p.

Liudingshan and Bohaizhen (Aristocratic cemetery and capital site of the Bohai state. Tang dynasty). 1997. – Beijing: The Encyclopedia of China Publishing House (In Chinese). 128 p.

The potsherds excavated from Fustat. 1990. In: The inter–influence of ceramic art in East and West. – Tokyo. – P. –56 – 99.

Tung–Ching–Cheng.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site of the capital of Po'hai.. – Archaeological Oriental ser. A.V. – Tokyo. 1939.

Valenstein S.G. 1975. A handbook of Chinese ceramics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N.Y. – Bost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 도자기와 발해내 유통과정

E. I. 겔만 (극동국립기술대학교)

Ⅰ. 서론

유약 자기와 도자기는 다른 토기류와 비교해 볼 때 발해유적지에서 출토 빈도가 훨씬 적으며 발해 시대에도 고가품 또는 고급품으로 유통되었다. 유약 기와, 유약 건축 자재와 왕궁 장식품들은 예외적으로 발해의 수도 지역에서 이용되었다.[1]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속성에 준거할 경우 연해주 발해 유

1) Tung–Ching–Cheng.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site of the capital of Po'hai.. – Archaeological Oriental ser. A.V. – Tokyo. 1939. Liudingshan and Bohaizhen (Aristocratic cemetery and capital site of the Bohai state. Tang dynasty). 1997. – Beijing: The Encyclopedia of China Publishing House (In Chinese). 128 p.

적지에서 출토된 유약 자기들은 두 개의 기술적 부류로 분류가 가능한데 單彩와 多彩(三彩가 이에 속한다)를 포괄하는 연질 자기와 또 하나는 경질 자기이다. 본 고에서는 유약 자기가 발해의 대내외적인 교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지에 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삼채는 중국에서 발명되어 당나라 시기에 크게 유행했으며 세계 도처에서 명망을 얻었다. 후일 여러 시대에 걸쳐 일본삼채와 티야오 삼채가 출현하였다. 발해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중국삼채와의 비교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발해에서도 유약 자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유적지에서 출토된 석자기, 반자기, 섬광석 내화 유약자기 들은 중국 당나라에서 제작된 것들이며 발해시기의 전기간을 통하여 발해의 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 하였던 귀중한 재화였다.

Ⅱ. 유약 자기와 발해내 유통

납 유약이 칠해진 유기 유물들은 연해주 내 발해 유적지들에서 많이 수집되지 않았다 : 러시아 연해주 내의 7개 발해유적지에서 35기 정도만 수집되었다(표 1). 이들 중에 양적으로 보더라도 크라스키노 성터가 단연 두드러지는데 이는먼저 크라스키노 성터가 가장 넓은 지역 면적에 걸쳐 발굴이 되었으며 이 성터가 발해시대의 중요한 성터로서 기능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발굴 대상 유적도 사찰터와 같은 귀중한 지위에 있던 유적지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채 자기들의 경우 대부분 여러 가지 색조의 녹색이 많고 드물게 노란색과 갈색의 자기들이 확인되었다. 다채(삼채) 자기들의 경우 2채 자기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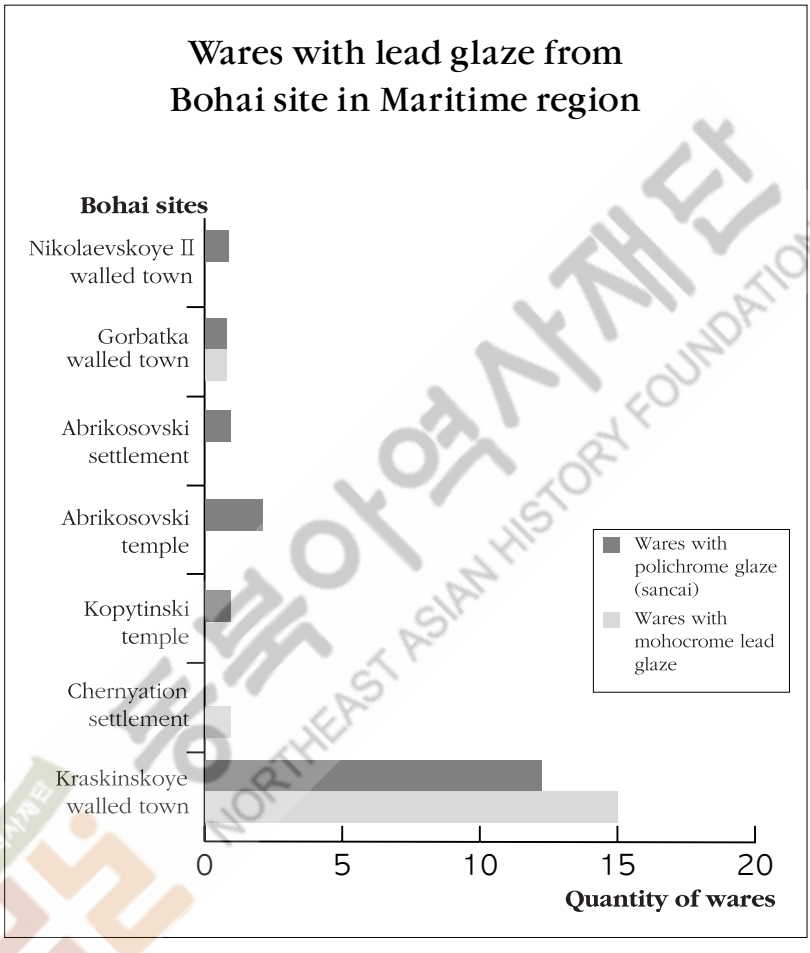
채 자기이다. 이 경우 2채든 또는 3채든 여러 가지 색조의 녹색이 눈에 띈다. 나머지 색깔들은 갈색과 노란색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약의 색깔에서 좀 무딘 느낌이 난다. 심지어 가장 색조가 선명하고 밝은 발해 유약 자기일지라도 당삼채, 일본삼채와 티야오삼채와 비교할 경우 좀 어두운 색조를 가지고 있다. 발해의 장인들이 삼채 유약 중에 노란색이나 갈색 유약보다 여러 가지 색조의 녹색 유약을 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중국삼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흰색배경을 발해삼채에서는 보기 힘들다. 중국삼채의 경우 흰색 陶土를 이용하지만 발해삼채와 단채의 경우 陶土原料가 대부분 회백색 陶土를 이용하며 드물게 붉은 陶土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발해 유약자기는 중국의 것과 비교해서 단순히 외적인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 특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우선 유약과 陶土原料의 화학적 성분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21기의 발해삼채와 녹색 단채자기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2] 납산화물의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해삼채의 경우 납산화물이 56.32 ~ 72.79 % 로 중국삼채(28.6 ~ 3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발해삼채 1기를 연구 조사한 바 있는 일본의 야마자키는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발해삼채와 중국삼채를 상호 비교, 연구하면서 이 들 발해삼채와 중국삼채의 유약 성분 구성에서 드러나는 차이에 처음으로 주목을 했었다.[3] 연

2) Гельман Е.И. 1999. Глазурованная керамика и фарфор средневековых памятников Приморья. – Владивосток. – 222 с.

3) Ямадзаки И. Сравнение глазури и черепка бохайских и танских саньцай//Японское общ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восточной керамики. Т. 19. 1989–1992 (на япон. яз.) – Токио, 1992. – С. 29–34.

〈표 1〉 연해주 발해 유적별 유약 자기의 분포



해주 발해 유적에서 수집된 발해삼채에 관한 일련의 조사-분석결과는 발해삼채와 중국삼채간의 이러한 차이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중국삼채와는 구별되는 유약자기를 생산했던 다른 가마터들이 아직 발견이 안되었을 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연해주 에서 출토된 발해

심채에 대한 저자의 연구논문[4] 발표 후 중국 학자들 역시 여러 곳의 당나라 시대 가마터 별로 당심채에 대한 분석조사를 실시한 바 결과는 발해심채와 당심채의 성분 구성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당심채의 경우 산화물 구성 농도가 31.39~47.68% 로 훨씬 작다는 것이었다.[5] 이러한 점들은 발해인들이 유명한 중국심채를 모방하여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 고유한 심채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 자기는 여전히 고가의 귀한 제품이었는데 이는 여러 발해 유적지들의 출토 유물 들 중에 이 들이 차지하는 빈도비중을 통해 알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 내 여러 발해 유적지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토기와 자기들 중에 이들 유약 자기는 채 1%가 되지를 않는다. 연해주 내 발해 유적지내의 발굴 대상 유구별로 유약 자기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심채를 포함하여 유약자기 대부분(85.7%)이 절터에서 수집되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유약 자기가 종교적 의식에 이용되었으며 사찰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

4) Gelman E. I. 1999. Bohai Sancai from Russian Primorye// ISAC'99. Гутаоцзы кэсюэ цзишу сы ицзюцзюцзю нянь гоцзи таолуньхуй луньвэньцзи (Собрание раб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импозиума по древней керамике и фарфору 1999 г. Вып. 4). Гл. редактор Го Цзинкунь. Шанхай: Шанхай кэсюэ цзишу вэньсянь чубаньшэ. – С.318–321.

5) Huo Yutao, Chen Xianqiu, Huang Ruifu, Tao Guangui, Zhou Xuelin, Chen Shiping, Sun Hongwei, Gao Liming. 2002. The research on Tang sancai plumbous glaze poteries unearthed in kiln site of Tang dynasty// Гутаоцзы кэсюэ цзишу у эрцяньэр нянь гоцзи таолуньхуй луньвэньцзи (Собрание раб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импозиума по древней керамике и фарфору 2002 г.). Гл. редактор Го Цзинькунь. Шанхай: Шанхай кэсюэ цзишу вэньсянь чубаньшэ. – На кит. и англ. яз. – P. 92–101.

해야 할 사실은 발해 당시 변방 지역에 불과했던 성터들(고르바트카 성터와 니콜라옙스코에 성터)과 주거지역들(아브리코솝스키, 체르냐티노-2)의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수준의 거주지들에서도 유약자기들이 수집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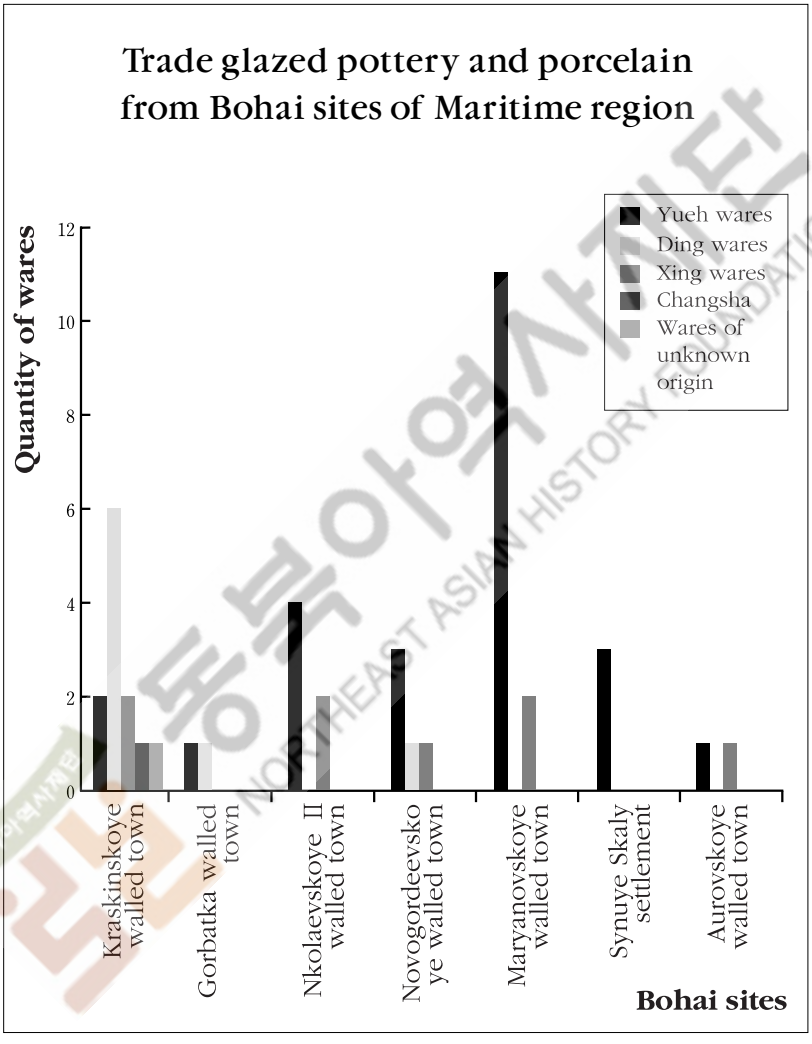
이런 점들에 주목해보면 유약자기와 같이 값비싼 물건들이 발해 시대의 부유한 지역에서도 가난한 주거지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와 같은 고가 제품들의 다양성과 수량에 주목할 경우 해당 유적지 거주인들의 경제적 수준을 추론할 수 있다.

Ⅲ. 유약 자기와 발해의 대외교역

사서 문헌 자료들은 발해의 대외 교역에 관하여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이 점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별 다른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발해의 대외교역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는 중국의 가마터에서 생산된 유약자기들과 도자기 들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은 체쨘의 Yueh 지방 가마터와 헤베이의 Ding와 Xing 지방 가마터의 유약자기들과 도자기들이다. 그 외에도 유일한 단편만이 발견되었지만 찬샤 가마터가 있다. 이 단편은 후난의 찬샤 지역에서 발견된 중국 중앙 지역 가마터들에서 생산되었으며 이 종류의 유약자기들과 도자기들이 비단길을 따라 여러 서방 국가들, 극동 아시아 지역과 남동 아시아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다.[6]

연해주 발해유적지들에서는 중국의 북부지역, 동부 지역과 중앙 지역 등

〈표 2〉 연해주 발해 및 발해이후시대 유적지들의 유약자기와 도자기의 생산지별 분포빈도



6) Valenstein S.G. 1975. A handbook of Chinese ceramics // The Metropolitan Museum of

의 여러 가마터에서 생산된 유약 자기와 도자기들이 45기 정도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약자기와 도자기들의 수가 이렇게 적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제품의 가치와 명망을 반증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가장 넓은 영역에 대한 발굴이 실행된 크라스키노 성터가 아니라 변경 북부 지역의 발해 유적인 마리야놉스키 성터(표 2)에서 더 많은 流入자기들이 수집되었다는 사실이다. 流入자기와 관련된 양적인 면에서 연해주 내에서 가장 커다란 발굴 영역을 자랑하는 크라스키노는, 다른 유적지들 보다는 넓은 면적이 발굴되었어도 크라스키노 성터보다는 적게 발굴된 마리야놉스키 성터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마리야놉스키 성터에서는 거주지들에 대한 발굴만이 실행되었다. 아울러 수이푼 강의 準邊方 지역에서는 이들 流入자기들이 전혀 출토되지 않고 있으나 대다수의 완전한 邊方 지역 성터인 니콜라예프카-2, 노보고르제옙스키와 고르바트카에서 이 들이 출토될 뿐만 아니라 발해 동쪽의 邊境 輿地에 위치해 있는 유적지 씨니에 쓰깔라 주거지와 아우롭스키 성터에서도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의아하기만 하다. 발해 유약 자기와 마찬가지로 流入자기들의 경우 여러 유적들과 유구에서, 크라스키노 성터와 같이 출토 유물의 집적도가 큰 지역의 절터 뿐 아니라 평상적인 거주지들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발해 유약 자기와 다르게 중국 가마터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자기의 대부분이 성터의 거주구역과 여러 주거지들에서 수집되었다– 72.9%.

자기생산지에 따른 수량분포에 주목하면 중국 동부 지역(Yueh)産 자기

art. – N.Y. – Boston. Lam T. S–Y. 1990. Tang ceramics, Changsha kilns. – Hong Kong: Lammet Arts. – 366 p. The potsherds excavated from Fustat. 1990. In: The inter–influence of ceramic art in East and West. – Tokyo. – P. –56 – 99.

가 북부(Ding와 Xing)産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를 통해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Yueh와 Changsha로부터 자기 들이 수입된 동쪽 연안에서 시작되는 통로가 헤베이 지역에서 출발하는 통로보다 훨씬 효과적 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크라스키노와 같은 항구지역이 해로를 통해 도착한 물건들이 발해의 중앙지역과 변경지역으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해 영역 내에서 중요한 지역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Ⅳ. 결론

발해 내에서 생산된 유약 자기는 양이 많지 않았으나 이들의 기술적인 특성에 의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유약 자기 제작 기술에 능통했던 도공들이 특별히 건축된 자기 가마터에서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 유약 자기들은 귀중품으로서, 고가품으로서 간주되었으나 발해내의 가장 외진 奧地지역까지 유통되었다. 기본적으로 발해의 유약자기들은 사찰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나 연해주 내 발해의 동부 변경성터 주거지역과 여러 오지의 거주지에서도 이용되었다.

내화유약자기의 경우 납유약자기보다 훨씬 복잡한 제작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한 자기는 중국 당나라 가마터에서만 생산이 되었는데 이는 석자기, 반자기와 도자기 등을 제작하는 기술적 전통이 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가마산 도자기들은 극동지역 여러 나라에서뿐 아니라 비단길을 따라 남동 아시아, 중앙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애용되었다. 발해 유적지 내에서 수집된 중국산 유약자기와 도자기들은 발해의 당시 경제생활 속에서 이 들이 귀중품으로서 얼마나 지속적인 명망을 얻고 있

었던 가를 강변해준다. 발해 유약자기와 비교해서 중국산 자기들이 발해 유적지 거주지들에서 훨씬 많은 당시의 유통량을 보여준다.

유약 자기는 발해가 고유한 通貨 체계가 없을 뿐더러 발해 내에서 중국 화폐의 역할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북 아시아에 형성되었던 대외 교역관계 속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했었는가를 반증해준다. 교역은 당사국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당나라를 포함해서 국가들 간의 물적 교류를 의미한다. 전체 발해 시기를 통해 성격이나 정도는 변해도 이러한 상호관계는 안정적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폐회사

●**허종호** (조선력사학학회 위원장)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협조와 노력에 의하여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측을 대표하여 좋은 론문을 발표하신 북과 남, 그리고 로씨야의 력사학자들과 론문발표를 주의깊게 들어주신 학술회의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술회의에서는 일치하게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모두 조선민족사의 떼수 없는 구성체임을 힘있게 론증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력사를 조선력사에서 떼내려는 주장은 엄중한 력사외곡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풍부한 자료, 정연한 론리로써 확인하였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또한 고조선이 서북조선에 한정된 소국이거나 이른바 '기자조선'에 의하여 대표되는 왕조가 아니라 단군조선에 의하여 시작되고 후조선, 만조선에 이어지는 근 3,000년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

들이며 평양을 수도로 하여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령역으로 한 강국이였다는 사실이 설득력있게 강조되였습니다.

특히 학술회의에서는 고구려가 력대 중원왕조의 지방정권이였거나 속국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나누어가질수 없는 우리 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이고 자주성이 강한 동방의 강성대국이였으며 주민구성에서나 정치군사제도, 문화생활풍습에서 이웃민족의 그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단군민족의 후예, 고조선의 계승국이고 발해와 고려에 의하여 계승된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라는것이 일치하게 공동으로 재확인되였습니다.

또한 발해는 고조선의 계승국인 고구려의 유민들이 주력이 되여 세운 자주적인 주권국가이고 이웃나라들에 '해동성국'으로 이름떨치며 후기신라와 함께 남북2왕조시기를 펼쳐 놓은 우리 민족사의 뗄수없는 구성부분이라는데 대해서도 힘있게 해설되였습니다.

이렇듯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력사적지위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에서 다시금 옳게 밝혀지고 민족사의 정통이 고수된것은 이번 학술회의 가장

큰 성과로 될것입니다.

이 성과는 의심할바 없이 고구려와 발해를 우리력사에서 떼내려는 온갖 시도에 대한 힘있는 론박으로 되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껴나가는 북남, 해외동포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될것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해 주고있는 세계 여러나라 벗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 남력사학자들과 외국의 벗들이 이번 학술회의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며 통일대로에서 그 생활력이 유감없이 과시된 호상협조와 단합의 미풍을 더욱 발양시켜 나갈것임을 확신하면서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CLOSING ADDRESS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Your hard work and effort have made thi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a real success. On behalf of the organizers, I pay tribute to you all for your presentation,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have clearly and logically demonstrated that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constitute inseparable parts of Korean history and that the attempts to split Koguryo and Parhae from Korean history represent serious historical distortion.

It was argued convincingly during the conference that Old Choson was not a small state limited to Northwestern Korean Peninsula. It was the dynasty established not by Kija (Jizi) but by Tan'gun. From its capital at P'yongyang, Old Choson ruled over

a wide territory encompassing Manchuria and Korea for three thousand year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Koguryo was neither a "local regime" nor "subordinate state" of the Chinese states. It was a strong independent state whose population, political and military institutions, and culture and customs all set it apart from the neighboring states. Koguryo succeeded Old Choson and was in turn succeeded by Parhae and Koryo. Furthermore, Parhae was also an independent state established by the former Koguryo people and as the "Flourishing State East of the Sea," it ruled Korea and Manchuria with the Later Silla during the period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e most important accomplishment of the conference was the confirmation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in Korean history. It refutes historical distor-

tions and fabrications that attempt to take away Koguryo and Parhae from Korean history.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encouragement to Korean compatriots and our foreign friends who have been working toward Korean unification.

This has been a wonderful conference with extraordinary presenters and participants. I have no doubt that Korean historians everywhere will continue their hard work to build on our accomplishments here, and I look forward to greater cooperation and solidarity in the future. With that, I hereby declare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closed.

Thank you.

Ho Chongho
President of Korean History Association (DPRK)

폐회사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존경하는 허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 여러분!

200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국제학술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게 된 것은 참가한 학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으며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고대사의 중심과제를 선택한 것도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야기된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북과 남의 공통된 역사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수호한다는 의지는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한 치의 착오 없이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학술회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것은 더 연구검토를 하고 의견이 일치된 사실은 더욱 공감대를 형성해 훌륭한 연구의 길잡이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학자 여러분!

오늘의 학술회의를 거울삼아 민족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아름답고 단합된 모습을 세계만방에 종종 과시합시다.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 북에서 참석하신 허종호 위원장님 이하 학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호의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학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극동국립기술대학교 투르모프 총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동안 학술회의 준비와 진행에 온갖 고생을 감수하여 수고해 주신 고구려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가자 모두 부디 건강하시기 바라며, 이제 폐막을 선언합니다.

CLOSING ADDRESS

President Ho Chongho and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on February 24-25, 2005 has been a great succes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all participating scholars for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Korean scholars of the North and the South share the sam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we have chose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in Korean history" as the theme of the conference to counter and correct the historical distortion of China's "Northeast Project."

As in the past, we will continue to study and defend Korean history together. I have no doubt that our historical research will make great progress. Academic conferences such as this enable us to examine further those points where we disagree and to rein-

force those points where we agree. They will serve as the guide to the future research.

Scholars of the North and the South!

Just as we have done at this conference, let us demonstrate to the world our solidarity in the study of Korean history.

As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conference,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Ho Chongho and other scholars from the North for their goodwill. I appreciate very much cooperation of our Russian colleagues, and I am especially grateful to President Gennady P. Turmov of Far Eastern State Technical University. I also wish to extend my thanks to the research fellows and the staff of Koguryo Research Foundation for their work in prepar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conference.

As I wish you all good health, I declare the international acade-

mic conference on Old Choson, Koguryo, and Parhae closed.

Thank you.

Kim Jung Bae

President, Koguryo Research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초판 1쇄 인쇄 2005년 5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5년 5월 30일

지음 고구려연구재단
펴낸이 김정배
펴낸곳 고구려연구재단

등록 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5층
전화 02-6260-2600
팩스 02-6260-2698

ISBN 89-91448-19-4-9390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고구려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